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

제주시 외도동

목 차

I. 사업 개요	5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연구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8
II. 구술 자료	11
1. 조사 마을	11
2. 제보자 일생	48
3. 밭일	93
4. 들일	194
5. 바다일	287
6. 의생활	344
7. 식생활	394
연구 참여자	522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20년 3월 10일~2020년 12월 31일

3. 연구 참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가급적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조사한 대정읍 구역리와 애월읍 봉성리, 2015년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의 구술 채록 보고서는 자료의 양이 적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사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제보자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과 그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과 역할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역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철,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역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5. 사업 추진 과정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하였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하였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하였다.
- ‘하다’의 경우 ‘허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하였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ㄴ’로 통일했고,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하였다.
- 제보자의 발음이 표기와 다르게 나는 경우는 발음기호인 대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 보고서의 번호는 2019년에 이어 제주시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주시 외도동’ 구술 자료가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가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조사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이는 제보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랐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었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맥에 맞게 의역할 경우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예: ‘바령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두었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하였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간한 《제주어구술자료집》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연구자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량,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홍,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운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대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옥,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역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II. 구술 자료

(@1: 김순자 #1: 김용국 #2: 김건웅 #3: 김창영 #4: 이옥희 #5: 강옥자
#6: 고창휘)

1. 조사 마을

101001 @1 이 마을 관련해서 이제 여쭙볼 거우다. 맨 처음에는예, 이 마을 형성. 외도 마을이 어떻 형성됐었는지 건 누가 알아주코마썸?(이 마을 관련해서 이제 여쭙볼 겁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 마을 형성. 외도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건 누가 말해줄까요?)

101001 #3 형님 얘기 협서.(형님 얘기 하십시오.)

101001 #1 우령¹⁾이라는 마을 이름은.(‘우령’이라는 마을 이름은.)

101001 @1 예.(예.)

101001 #1 아마 여기서 흔 이키로 될 건가? 저기 저 췌왓동산²⁾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췌왓동산, 췌왓동산 허는데.(아마 여기서 한 이킬로 될 건가? 저기 저 ‘췌왓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췌왓동산’, ‘췌왓동산’ 하는데.)

101001 @1 예.(예.)

101001 #1 그 췌왓동산이란 말이 췌왓³⁾, 예 췌왓, 췌왓이엔 허는데, 췌동산⁴⁾이주. 췌. 췌밭⁵⁾이주. 췌밭, 췌왓.(그 ‘췌왓동산’이란 말이 ‘췌왓’, 예 ‘췌왓’, ‘췌왓’이라고 하는데, ‘췌동산’이지. 소. ‘췌밭’이지. ‘췌밭’, ‘췌왓’.)

101001 @1 예.(예.)

101001 #1 그 췌왓동산에 그, 그 췌동산이란게, 췌.(그 ‘췌왓동산’에 그, 그 ‘췌동산’이란 게, 췌.)

101001 @1 예.(예.)

101001 #1 그 우령이라는 말이 소 우 자에.(그 ‘우령’이라는 말이 소 우 자에.)

101001 @1 예.(예.)

101001 #1 고개 령 자라고 나는 생각을 허는데.(고개 령 자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101001 @1 음.(음.)

1) ‘우령’은 제주도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2) ‘췌왓동산’은 제주도 외도동의 한 지경 이름이다.

3) ‘췌왓’은 소의 밭이라는 뜻으로, 소에게 먹이를 많이 먹이는 장소여서 붙은 말인 것 같다. 제보자는 ‘췌왓’, ‘췌왓동산’, ‘췌밭’, ‘췌동산’처럼 다양하게 불렀다.

4) ‘췌동산’은 소가 많이 가는 동산이라는 말이다. 제보자는 ‘췌왓동산’, ‘췌밭’, ‘췌왓’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

5) ‘췌밭’은 소의 밭이라는 뜻으로, 소에게 먹이를 많이 먹이는 장소여서 붙은 말인 것 같다. 제보자는 ‘췌왓동산’, ‘췌밭’, ‘췌왓’, ‘췌동산’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

101001 #1 옛 어른 어느 어른의 얘기는 그 고개 령이 아니라 그 호령 령 자라 허니까 호령 령이 어떤 영 잔진 모르겠어요.(옛 어른 어느 어른의 얘기는 그 고개 령이 아니라 그 호령 령 자라 허니까 호령 령이 어떤 영 잔진 모르겠어요.)

101001 @1 음.(음.)

101001 #1 그런 얘기도 허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연유되어 가지고 그 이제 우령이라는 마을이 이 이름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그런 얘기도 허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연유되어 가지고 그 이제 ‘우령’이라는 마을이 이 이름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01001 @1 예.(예.)

101001 #1 글로 나오게 되면 그 뭐 여러 가지 그 지형도, 그 우령이 우령, 쇠왓동산 그 동쪽으로 오면 그 저 송아지가 거기 잇었던 모양이라, 송아지.(글로 나오게 되면 그 뭐 여러 가지 그 지형도, 그 ‘우령이’, ‘우령’, ‘쇠왓동산’ 그 동쪽으로 오면 그 저 송아지가 거기 잇었던 모양이야, 송아지.)

101001 @1 예.(예.)

101001 #1 독, 그에 대해서 독짓굴⁶⁾이라고 허는가. 마 그런 것도 연유 같고. 저쪽으로 가면 저실이라고 돼지 저실이⁷⁾니까 돼지 저 자에 그 열매 실 자를 허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디를 저실이라고 합니다.(독, 그에 대해서 ‘독짓굴’이라고 하는가. 마 그런 것도 연유 같고. 저쪽으로 가면 ‘저실’이라고 돼지 ‘저실’이니까 돼지 저 자에 그 열매 실 자를 하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저실’이라고 합니다.)

101001 #3 제실이⁸⁾.('제실이'.)

101001 @ 예, 알아수다예.(예, 알겠습니다.)

101001 #1 그렇게 된 거 같애요.(그렇게 된 거 같아요.)

101001 @1 예, 앞으로 말 글 때랑 표준어로 말앙 제주돏 말로.(예, 앞으로 말할 때는 표준어로 말고 제주도 말로.)

101001 #1 제주도 말로.(제주도 말로.)

101001 @2 예, 예.(예, 예.)

101001 @1 제주도 말로 그냥.(제주도 말로 그냥.)

101001 #1 곶아나니까.(말했었으니까.)

(중략)

101002 @1 계영은에 이 마을은, 성씨들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신고예?(그래서 이 마을은, 성씨들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101002 #1 예?(예?)

101002 @1 성씨, 성씨. 옛날?(성씨, 성씨. 옛날?)

101002 @2 집성.(집성.)

6) '독짓굴'은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7) '저실이'는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달리 '제실이'라고도 하였다.

8) '제실이'는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달리 '저실이'라고도 하였다.

101002 @1 집성촌 이 마을에덜은.(집성촌 이 마을에는.)
 101002 #1 형성?(형성?)
 101002 @ 으.(으.)
 101002 #2 신씨.(신씨.)
 101002 #1 여기 이.(여기 이.)
 101002 #2 이씨.(이씨.)
 101002 #1 외도 이 도시계획하면서 허니까 아마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아난 거 같으긴 헌데 그 저 저디 저 우리 마을 남쪽에.(외도 이 도시계획하면서 하니까 아마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던 거 같긴 헌데 그 저 저기 저 우리 마을 남쪽에.)
 101002 @1 예.(예.)
 101002 #1 그 기와도 귀난 터가 잇엇고.(그 기와도 구웠던 터가 잇엇고.)
 101002 @1 예.(예.)
 101002 #1 또 고대에는 또 고인들도 잇고.(또 고대에는 또 고인들도 잇고.)
 101002 @1 아.(아.)
 101002 #1 이런 것이 잇어 가지고 허는가, 그 이전에 예, 마을이 형성됐나지 않은가 생각은 돼는다.(이런 것이 잇어 가지고 허는가, 그 이전에 예, 마을이 형성됐었지 않은가 생각은 되는데.)
 101002 @ 예.(예.)
 101002 #1 여기는 예, 외도라도.(여기는 예, 외도여도.)
 101002 @1 예.(예.)
 101002 #1 여기 저 고려 말엽에.(여기 저 고려 말엽에.)
 101002 @1 예.(예.)
 101002 #1 여기 수정사⁹⁾라고 해 가지고 법화사¹⁰⁾허고 여기 저 이 절, 절이 잇었는데.(여기 수정사라고 해 가지고 법화사하고 여기 저 이 절, 절이 잇었는데.)
 101002 @ 예, 예.(예, 예.)
 101002 #1 그때 그 뭐 절 오백 당 오백을 부수었다는 그 문 목사님이 그 저 뭇이 잇어 가지고 그때 그 여기 그 수정사가 없어졌지 않나 허는다 없어진 기록은 었어 부난에 언제 없어진 건 모르고.(그때 그 뭐 절 오백 당 오백을 부수었다는 그 문 목사님¹¹⁾이 그 저 뭇이 잇어 가지고 그때 그 여기 그 수정사가 없어졌지 않나 하는데 없어진 기록은 없어 버리니까 언제 없어진 건 모르고.)
 101002 @1 예.(예.)
 101002 #1 이렇게 돼는다 여기에 이 우렁이¹²⁾엔 헌 디가 여기 그 두 씨족에서.(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우렁이’라고 한 데가 여기 그 두 씨족에서.)
 101002 @1 예.(예.)

9) ‘수정사’는 제주시 외도동에 잇었던 고려시대 3대 사찰의 하나다.
 10) ‘법화사’는 서귀포시 하원동에 잇었던 고려시대 3대 사찰의 하나다.
 11) 여기에서 ‘문 목사님’은 제보자가 이형상 목사를 잘못 말한 것 같다.
 12) ‘우렁이’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달리 ‘우렁’이라고도 하였다.

101002 #1 김해 김씨하고, 예.(김해 김씨하고, 예.)

101002 #2 평산 신씨.(평산 신씨.)

101002 #1 평산 김씨¹³⁾.(평산 김씨.)

101002 #2 평산 신씨.(평산 신씨.)

101002 #1 평산 신씨가 여기 완 살아 가지고 이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평산 신씨가 여기 와서 살아 가지고 이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101002 @1 예.(예.)

101002 #1 예 평산 김씨¹⁴⁾보다는 이 김해 김씨가 먼저 와 가지고 여기에를 이
우렁이를 동카름¹⁵⁾ 서카름¹⁶⁾해 가지고.(예 평산 김씨보다는 이 김해 김씨가 먼저
와 가지고 여기에를 이 ‘우렁이’를 ‘동카름’ ‘서카름’해 가지고.)

101002 @1 예.(예.)

101002 #1 고을이 두 개로 쪼개어졌는데.(고을이 두 개로 쪼개어졌는데.)

101002 @1 예.(예.)

101002 #1 그 이유인지 일로 가운데로 이, 저 고름물¹⁷⁾이라고 물이 흐르기 때문
에 자연적으로 가운데는 물이 있어 가지고 집을 못 짓어서.(그 이유인지 일로 가운데
데로 이, 저 ‘고름물’이라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운데는 물이 있어 가
지고 집을 못 지어서.)

101002 @ 음.(음.)

101002 #1 동카름 서카름 갈려졌지 아녜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게 언제쯤 돼
느냐 허니까 여기 저 그 조상님이 여기는 알 거주마는. 아마 그게 지금부터 혼 아,
천육백 년.(‘동카름’ ‘서카름’ 갈라졌지 았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게 언제쯤 되느
냐 하나까 여기 저 그 조상님이 여기는 알 거주마는. 아마 그게 지금부터 한 아, 천
육백 년.)

101002 @1 음.(음.)

101002 #1 천육백 년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애. 여기.(천육백 년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아. 여기.)

101002 @ 아, 외도 된 게예, 예.(아, 외도 된 게요, 예.)

101002 #1 이제 그 여기에 그 하르방 오란에 **한 역대로 엮으면 천육백 년 전
후이.(이제 그 여기에 그 할아버지 와서 **한 역대로 엮으면 천육백 년 전후.)

101002 @ 예.(예.)

101002 #1 이때가 아닌가.(이때가 아닌가.)

101002 #2 나에 십사 세니까 삼십년씩 잡으면은 야튼 사백이십 년.(나의 십사
세니까 삼십년씩 잡으면 하여튼 사백이십 년.)

13) 여기에서 ‘김씨’는 제보자가 ‘신씨’를 잘못 발음해서 생긴 오류다.

14) 여기에서 ‘김씨’는 제보자가 ‘신씨’를 잘못 발음해서 생긴 오류다.

15) ‘동카름’은 한 마을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16) ‘서카름’은 한 마을에서 서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17) ‘고름물’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물 이름이다.

101002 @1 예.(예.)
 101002 #1 경 돼갈 거주.(그렇게 되어 갈 거지.)
 101002 @1 예.(예.)
 101002 #3 건 족수가게.(건 작습니까.)
 101002 @1 예. 웃음.(예. 웃음.)
 101002 #1 오백 년, 오백 년 내지 스백오십 년 ** 오백 년. 오백 년 안 돼서게. 혼 스백오십 년 돼나마나.(오백 년, 오백 년 내지 사백오십 년 ** 오백 년. 오백 년 안 되었어. 한 사백오십 년 되나마나.)
 101002 #2 스백오십 년 그 안팎이우다게.(사백오십 년 그 안팎입니다.)
 101002 #3 그 스시.(그 사이.)
 101002 @ 거난 이제 여기는 김해 김씨 설촌 허는 거구나예?(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김해 김씨 설촌 하는 거군요?)
 101002 #2 저에 십사세니까.(저의 십 사세니까.)
 101002 @1 완전 터줏대감인게.(완전 터줏대감인데.)
 101002 #3 터줏대감.(터줏대감.)
 101003 @1 웃음. 어, 계문예, 이 마을 사람도. 지금이야 외지 사람이 많이 오니까 허주마는 옛날에 이 마을 사람덜은 무신 일허멍 살아신고예?(웃음. 어, 그러면요, 이 마을 사람도. 지금이야 외지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하지만 옛날에 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하면서 살았는가요?)
 101003 #2 거의 농삽주.(거의 농사지요.)
 101003 #1 여기에 보니까.(여기에 보니까.)
 101003 @1 예.(예.)
 101003 #1 이 부락 바깥디 이 저 수리대 잇지 않수가이?(이 부락 바깥에 이 저 이대 잇지 않습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그계 여기 당이 워낙 많헤.(그계 여기 당이 워낙 많아.)
 101003 @1 으.(으.)
 101003 #1 이 외도 지경은. 당이 많은데 이 그래도 비옥헌 땅이라.(이 외도 지경은. 당이 많은데 이 그래도 비옥한 땅이야.)
 101003 @ 예.(예.)
 101003 #1 그 말왓¹⁸⁾이, 말왓이라고 허여 가지고 그 얘기허는 건 뭐냐믄 그 물 아니 고영은예.(그 ‘말왓’이, ‘말왓’이라고 하여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물 아니 고여서.)
 101003 #2 물 앓는 땅보고.(물 앓는 땅보고.)
 101003 #1 물 아니 고여근예.(물 아니 고여서.)
 101003 #2 말왓이엔 허는 거.(‘말왓’이라고 하는 거.)

18) ‘말왓’은 제주도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1003 @1 예.(예.)

101003 #1 막론 밭이주.(마론 밭이지.)

101003 @1 예, 예.(예, 예.)

101003 #1 작지가 많이 저 소왕져서¹⁹⁾ 그런 건디. 경 해 가지고 이제 현디 그 잣백²⁰⁾마다 보면은 간간이 그 수리대.(자같이 많이 저 ‘소왕져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잣백’마다 보면 간간이 그 이대.)

101003 @ 예.(예.)

101003 #1 그게 그 썩여 있어. 작백에 그대로 현재도 그 남아 있단 말입니다.(그게 그 썩여 있어. ‘작백’에 그대로 현재도 그 남아 있단 말입니다.)

101003 @1 예.(예.)

101003 #1 그런 걸로 보든.(그런 걸로 보면.)

101003 #2 집 짓어난 집터지.(집 지었던 집터지.)

101003 #1 그때는 그자 이 부락보다도 주위에 물이나 영 잇곡 허민 사람들이 거기 산제 허영 살아난 디라. 그 저 이 수리대 잇는 곳은 틀림없이 사름이 살아난 디라. 살아난 디.(그때는 그저 이 부락보다도 주위에 물이나 이렇게 잇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산제(?) 해서 살았던 데야. 그 저 이 이대 잇는 곳은 틀림없이 사람이 살았던 데야. 살았던 데.)

101003 @ 음, 예.(음, 예.)

101003 #1 간간이 잇어.(간간이 잇어.)

101003 @ 아.(아.)

101003 #1 경 현 걸로 보면은 뭐 여기 왕 뒤.(그렇게 한 걸로 보면 뭐 여기 와서 뭐.)

101003 #2 밭이. 농사할 때 그 스방에 간 집 흐끔 요만이 짓언 살곡 헛주.(밭이. 농사할 때 그 사방에 가서 집 조금 요만큼 지어서 살고 했지.)

101003 #1 경 허난 그게 아마 이, 이 우리가 추측해 보민 그런 게 잇어, 이.(그렇게 하나까 그게 아마 이, 이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런 게 잇어, 이.)

101003 @1 예.(예.)

101003 #1 그 연대, 이제 그러한 곳이 상당히 많았주.(그 연대, 이제 그러한 곳이 상당히 많았지.)

101003 @ 예.(예.)

101003 #1 만하난.(많았었어.)

101003 @ 계난 이제 농사짓고.(그러니까 이제 농사짓고.)

101003 #1 농사를 주로 해 가지고 살아실 거다.(농사를 주로 해 가지고 살았을 거다.)

101003 @ 계난 바당 일은 안 해수가?(그러니까 바다 일은 안 했습니까?)

19) ‘소왕져서’는 문맥상으로 봐서 ‘땅에 자갈들이 뽀족뽀족 나있어’의 의미인 것 같다.

20) ‘잣백’은 자갈한 돌로 벽처럼 쌓아 만든 밭의 울타리를 일컫는 말이다.

101003 #2 바당 일도 옛날 사름덜은 헛수다.(바다 일도 옛날 사름들은 헛수다.)

101003 @1 예.(예.)

101003 #1 바당.(바다.)

101003 #2 조반 전의 강은에 몸도 혼 지게 해영은에 지영 올라왕 걸름 허곡.(조반 전에 가서 모자반도 한 지게 해서 지어서 올라와서 거름 하고.)

101003 @1 음.(음.)

101003 @2 음.(음.)

101003 #2 경 헨에.(그렇게 해서.)

101003 #3 잠녀도 많아낫주. 잠녀.(잠녀도 많았었지. 잠녀.)

101003 #2 잠녀도 많아낫수다, 여기.(잠녀도 많았었습니다, 여기.)

101003 @ 예.(예.)

101003 #3 멧 년도.(멧 년도.)

101003 #2 내가 이제 그 신식 ** 들어사기 시작허난 아이고, 이거 고웁 거 허영 무신거 허리 허영 설러 불기도 허고.(내가 이제 그 신식 **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이거 고된 거 해서 무엇 하리 해서 그만되 버리기도 하고.)

101004 @ 예, 맞수다. 계면예, 아까 이 마을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이 마을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101004 #1 오름은 아까 얘기한 대로.(오름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1004 @1 예.(예.)

101004 #2 쉼왓동산.(‘쉼왓동산’.)

101004 #1 쉼왓동산.(‘쉼왓동산’.)

101004 @ 아.(아.)

101004 #1 쉼왓동산 잇고.(‘쉼왓동산’ 잇고.)

101004 @1 그거는 큰 오름은 아니다예?(그거는 큰 오름은 아니네요?)

101004 #1 또 여기다사 서칫동산²¹⁾이라고 잇었어.(또 여기다사 ‘서칫동산’이라고 잇었어.)

101004 #2 혼 육칠십 메다.(한 육칠십 미터.)

101004 #1 연대 이쪽에이.(연대 이쪽에.)

101004 @1 예.(예.)

101004 #1 높은 디 서치. 그 서치란 말이 무신 말이냐 허민 이 썩.(높은 데 서치. 그 서치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썩.)

101004 @ 예.(예.)

101004 #1 썩을 영 돌아멘 그 치.(썩을 이렇게 매단 그 치.)

101004 #2 형국이라고 해 가지고.(형국이라고 해 가지고.)

101004 #1 그런 형국이라 해 가지고 헛던 모양이. 그런 게 잇었는디. 이디 저

21) ‘서칫동산’은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도시계획 허명 밀어 부난 엇어져 불었는디 그디 잇엇고.(그런 형국이라 해 가지고
했던 모양이. 그런 게 잇었는데. 거기 저 도시계획 하면서 밀어 버리니까 없어져 버
렸는데 거기 잇엇고.)

101004 @ 예.(예.)

101004 #1 또 울로 쪼끔 저디 가문 그디가 어디고? 제명이²²⁾, 그거 어디. 제명
이 그 저 쉼왓동산 아래, 그디 흐끔 높은 디가 잇고. 또 이쪽으로 오면은 아까 얘기
헌 제실이동산이런 헨에 잇고 어.(또 울로 쪼끔 저기 가면 거기가 어디고? ‘제명이’,
그거 어디. ‘제명이’ 그 저 ‘쉼왓동산’ 아래, 거기 조금 높은 데가 잇고. 또 이쪽으로
오면 아까 얘기한 ‘제실이동산’이라고 해서 잇고 어.)

101004 @ 제실이동산, 예.(‘제실이동산’, 예.)

101004 #2 제실이동산.(‘제실이동산’.)

101004 #1 제실이동산.(‘제실이동산’.)

101004 #2 아, 수덕동산이다.(아, ‘수덕동산’이다.)

101004 #1 수덕동산인가. 저디는 저던 수덕동산. 거기는 제실이동산.(‘수덕동산’
인가. 저기는, 저긴 ‘수덕동산’. 거기는 ‘제실이동산’.)

101004 #3 것이 수덕동산이 바로 소레기동산²³⁾ 바로 알작지동산²⁴⁾.(것이 ‘수덕
동산’이 바로 ‘소레기동산’ 바로 ‘알작지동산’.)

101004 #1 소레기동산이지.(‘소레기동산’이지.)

101004 #3 소레기동산은 이거 제명이 내령 소레기동산이고, 또 그 소레기동산
그 저 동산이엔 헌 동산은 저 수덕동산 바로 거기 수덕동산은 수덕동산인데. 거기
나무가 크게 잇고. 설드럭²⁵⁾이 상당이 많수다, 거기가.(‘소레기동산’은 이거 ‘제명이’
내려서 ‘소레기동산’이고, 또 그 ‘소레기동산’ 그 저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은 저 ‘수
덕동산’ 바로 거기 ‘수덕동산’은 ‘수덕동산’인데. 거기 나무가 크게 잇고. ‘설드럭’이
상당이 많습시다, 거기가.)

101004 #2 큰 소낭 두 개 잇어났주.(큰 소나무가 두 개 잇엇엇지.)

101004 #3 큰 돌이. 큰 왕석들이 많아서 수덕동산 수덕동산 헤나고. 우렁이가
이제 우렁인 배 형국이 돼 가지고 아까 우리 회장님도 얘기했주마는 그 꿩이 알주
마는. 가냐귀 해 가지고 돛대가 돛대를 달아서.(큰 돌이. 큰 왕석들이 많아서 ‘수덕
동산’ ‘수덕동산’ 했엇고. ‘우렁이’가 이제 ‘우렁이’는 배 형국이 돼 가지고 아까 우
리 회장님도 얘기했지마는 그 꿩이 알지마는. 가마귀 해 가지고 돛대가 돛대를 매
달아서.)

101004 @1 음.(음.)

101004 #1 여기, 여기 그.(여기, 여기 그.)

101004 #3 으, 솔덕돌²⁶⁾이라 뭐라 해 가지고 그 액을 막나 해서 그것이 두 개

22) ‘제명이’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달리 ‘제명이’, ‘계명’이라고 하였다.

23) ‘소레기동산’은 제주시 외도동의 동산 이름의 하나다.

24) ‘알작지동산’은 제주시 외도동의 동산 이름의 하나다.

25) ‘설드럭’은 제주시 외도동에서 ‘돌이 쌓인 곳’을 일컫는 말이다.

잇었고. 소레기동산 또 밑에 제멩이라 해서 제멩이.(으, ‘술덕돌’이라 뭐라 해 가지고 그 액을 막는다 해서 그것이 두 개 있었고. ‘소레기동산’ 또 밑에 ‘제멩이’라 해서 ‘제멩이’.)

101004 @1 으.(으.)

101004 #3 제멩이라고 해 가지고 것이.(‘제멩이’라고 해 가지고 것이.)

101004 #1 제멩.(‘제멩’.)

101004 #3 하르방덜이 제멩이 제멩이 헨디 것이 계멩이²⁷. 계멩동.(할아버지들이 ‘제멩이’ ‘제멩이’ 하는데 것이 ‘계멩이’. ‘계멩동’.)

101004 #1 닥, 닥 계 자 해 갖고.(답, 답 계 자 해 갖고.)

101004 #2 닥동네²⁸, 닥동네.(‘답동네’, ‘답동네’.)

101004 @1 예.(예.)

101004 #3 그래서 계멩이라고 해 가지고 헨디. 지금도 그 동네 잇는디 이젠 거기가 인구가 많아 가지고 이제 사름덜 집도 짓고 그당시에는 것이 알고 보면은 배 밑에는 펜마가 항상 잇잖아.(그래서 ‘계멩’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그 동네 잇는디 이젠 거기가 인구가 많아 가지고 이제 사름덜 집도 짓고 그당시에는 것이 알고 보면 배 밑에는 전마선이 항상 잇잖아.)

101004 @1 예.(예.)

101004 #3 펜마. 배 타면 나루로 그 운선허는 배가. 거를 펜마라 펜마라 허는 그런 뿔도 잇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디 혼 멧 년 뿔지마는 호수가 거긴 한 십칠 호.(전마선. 배 타면 나루로 그 운선하는 배가. 거를 전마선이야 전마선이야 하는 그런 뿔도 잇었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한 멧 년 뿔지만 호수가 거긴 한 십칠 호.)

101004 @1 예.(예.)

101004 #3 거벧긔 엇었고. 큰 동네는 쫘 아까 이백 호가 넘어나고. 그렇게 지금 해났어, 여기가.(거밖에 없었고. 큰 동네는 쫘 아까 이백 호가 넘었었고. 그렇게 지금 했었어, 여기가.)

101004 @1 그러면 우렁이가 큰 동네라마씨?(그러면 ‘우렁이’가 큰 동네예요?)

101004 #3 그렇지.(그렇지.)

101004 #1 이제 쫘 얘기허겠는데이 이 마을의 형세는.(이제 쫘 얘기하겠는데 이 마을의 형세는.)

101004 @1 예.(예.)

101004 #2 배 형국.(배 형국.)

101004 #1 배 형국이라고 해 가지고 이 동쪽으로 가면.(배 형국이라고 해 가지고 이 동쪽으로 가면.)

101004 @1 예.(예.)

101004 #1 던더리동산²⁹이라고 잇어요. 던더리동산이라고 해 가지고.(‘던더리동

26) ‘술덕돌’은 제주시 외도동에서 솟대를 세운 돌을 일컫는 말이다.

27) ‘계멩이’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달리 ‘제멩이’, ‘계멩동’이라고 하였다.

28) ‘닥동네’는 제보자가 ‘제멩이’를 설명하면서 붙인 마을 이름이다.

산'이라고 있어요. '던더리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101004 #3 이젠 없주, 던더리동산.(이젠 없지, '던더리동산'.)

101004 #1 그게 그 형국으로 빵 던더리동산이엔 허곡 여기는 개탁가름³⁰)이라고 이 동남쪽에는.(그게 그 형국으로 봐서 '던더리동산'이라고 하고 여기는 '개탁가름'이라고 이 동남쪽에는.)

101004 @ 예.(예.)

101004 #1 갯마을이지, 바로.(갯마을이지, 바로.)

101004 #2 개탁가름, 개탁가름.('개탁가름', '개탁가름'.)

101004 #1 개탁가름. 아까 얘기한대로 여긴 돛대.('개탁가름'. 아까 얘기한대로 여긴 돛대.)

101004 #3 솟대.(솟대.)

101004 #1 솟대거리³¹)라고 해 가지고.('솟대거리'라고 해 가지고.)

101004 @ 예.(예.)

101004 #1 그 춤 아닌 게 아니라 그 벧뚝, 돛대를.(그 춤 아닌 게 아니라 그 벧뚝, 돛대를.)

101004 @1 예.(예.)

101004 #3 세와낫어.(세웠었어.)

101004 #2 만들양 세와낫어.(만들어서 세웠었어.)

101004 #1 세와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허고.(세워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101004 #1 답뚝³²)이라고 해 가지고 또 그 배 매다는 던 돌 모아 가지고.('답뚝'이라고 해 가지고 또 그 배 매다는 던 돌 모아 가지고.)

101004 @1 예.(예.)

101004 #1 답뚝이라고 아래도 잇었고.('답뚝'이라고 아래도 잇었고.)

101004 #2 우리 밧은 그때 거욱대왓³³)이엔 헤낫어.(우리 밧은 그때 '거욱대왓'이라고 했었어.)

101004 @1 아.(아.)

101004 #1 여기 그런 텡니다. 경 허고, 그 배는 예, 예 항구 안네.(여기 그런 텡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배는 예, 예 항구 안에.)

101004 @ 예.(예.)

101004 #1 멘 베라, 이거여. 메여진 베.(멘 베야, 이거야. 매어진 배.)

101004 @1 예.(예.)

29) '던더리동산'은 제주도 외도동에 있는 동산 이름이다.

30) '개탁가름'은 제주도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31) '솟대거리'는 제주도 외도동의 거리 이름이다. 솟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32) '답뚝'은 '답'이 세워 있는 밧 이름이다. 여기에서 '답'은 돌로 탐처럼 높이 쌓아 올린 물건이다. 사악한 기운이 있는 쪽에 세워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한다. 가운데에 솟대를 세우기도 하였다. 달리 '거욱대'라고 하였다.

33) '거욱대왓'은 '거욱대'가 있어서 붙은 밧 이름이다. 여기에서 '거욱대'는 돌로 탐처럼 높이 쌓아 올린 물건이다. 사악한 기운이 있는 쪽에 세워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한다. '거욱대'를 달리 '답'이라고도 하였다.

101004 #1 그러니까 발전을 못 한다는 거라.(그러니까 발전을 못 한다는 거야.)
 101004 @1 베는 바당에 나가야 되는데?(배는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요?)
 101004 #1 바당에 나가야 되는데, 게서 요번에 저 뭐 읽단 보니까 어디 남원³⁴⁾
 이.(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저 뭐 읽다가 보니까 어디 남원이.)
 101004 @1 으.(으.)
 101004 #1 베 형국이라고 그래.(배 형국이라고 그래.)
 101004 @1 예.(예.)
 101004 #1 겐디 그 발전을 험다 허는데, 그 배가 영 항구 안네 머물어 잇으면
 발전 안 된대요.(그런데 그 발전을 한다 하는데, 그 배가 이렇게 항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 안 된대요.)
 101004 @1 으.(으.)
 101004 #1 문딱 풀어 불영근에 바다에 나가야.(몽땅 풀어 버려서 바다에 나가
 야.)
 101004 #2 출항현 배구나게. 웃음.(출항한 배구나. 웃음.)
 101004 #1 허는데, 도시 계획을 허다 보니까 문딱 풀어 불었어.(하는데, 도시 계
 획을 하다 보니까 몽땅 풀어 버렸어.)
 101004 @1 예.(예.)
 101004 #1 외도가 앞으로 발전을 험로구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잇습니다. 웃음.
 (외도가 앞으로 발전을 하겠구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잇습니다. 웃음.)
 101004 @1 예, 예.(예, 예.)
 101004 @2 그 솔대가 몇 개마썸?(그 솟대가 몇 개요?)
 101004 #3 세 개.(세 개.)
 101004 #2 세 개.(세 개.)
 101004 @2 그 이신 밧을 뭐라고 헤마썸?(그 잇는 밧을 뭐라고 한다고요?)
 101004 #2 거욱대왓.(‘거욱대왓’.)
 101004 @2 거욱대왓.(‘거욱대왓’.)
 101004 #2 예.(예.)
 101004 @2 아, 거욱대왓. 아까 뭐 솔대라고 허는 말도?(아, ‘거욱대왓’. 아까 뭐
 ‘솔대’라고 하는 말도?)
 101004 #2 솔대가 그겁주.(솟대가 그겁지요.)
 101004 #1 솔대왓³⁵⁾, 솔대왓.(‘솔대왓’, ‘솔대왓’.)
 101004 @2 아, 솔대왓이.(아, ‘솔대왓’이.)
 101004 #1 예.(예.)
 101004 #2 아, 거욱대³⁶⁾엔 헤낫는데.(아, ‘거욱대’라고도 했었는데.)

34) ‘남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를 말한다.

35) ‘솟대왓’은 솟대가 세워 있던 곳이다. 제주시 외도동에서는 담 위에 나뭇가지 등을 세운 것을 ‘솔대’라고 하
 였다. ‘솔대’는 달리 ‘거욱대’라고도 하는데, ‘솟대’의 제주어다. ‘솟대왓’은 달리 ‘거욱대왓’이라고도 하였다.

36) ‘거욱대’는 돌로 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물건이다. 사악한 기운이 있는 쪽에 세워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한

101004 @2 거옥대.(‘거옥대’.)
 101004 #2 그때 말로 거옥대왔, 거옥대왔.(그때 말로 ‘거옥대왔’, ‘거옥대왔’.)
 101004 @1 솥대.(솥대.)
 101004 #3 솔대는 그 가운데 해 가지고 그 폭낭 이디 지금 오게 됐은 중간에
 그건디 거기 솔대왔.(솥대는 그 가운데 해 가지고 그 팽나무 여기 지금 오게 되면
 중간에 그것인데 거기 ‘솔대왔’.)
 101004 #1 여기는 솔대거리³⁷), 솔대거리 헛거든.(여기는 ‘솔대거리’, ‘솔대거리’
 헛거든.)
 101004 #2 거긴 솔대거리.(거긴 ‘솔대거리’.)
 101004 #3 솔대거리.(‘솔대거리’.)
 101004 #2 폭낭 신 디.(팽나무 있는 데.)
 101004 @2 으, 솔대거리예?(으, ‘솔대거리’요?)
 101004 #2 우리, 우리 밧은 그 남쪽에 잇는 거주. 세 개가 잇는데 켈 남쪽에 잇
 는 게 우리 밧이랏는데.(우리, 우리 밧은 그 남쪽에 잇는 거지. 세 개가 잇는데 켈
 남쪽에 잇는 게 우리 밧이엇는데.)
 101004 #3 거옥대, 거옥대, 그다음 솔대예, 대가.(‘거옥대’, ‘거옥대’, 그다음 솥대
 요, 대가.)
 101004 @1 계난.(그러니까.)
 101004 #2 그 잣벽³⁸에.(그 ‘잣벽’에.)
 101004 @2 예.(예.)
 101004 #1 경 해서.(그렇게 해서.)
 101004 #2 거옥대 그 나무를 해 가지고예.(‘거옥대’ 그 나무를 해 가지고요.)
 101004 #1 여기 한 군데 또 하나.(여기 한 군데 또 하나.)
 101004 #2 이렇게 헝은에 쪼끄만허게 ** 만들언 잇어낫수다. 만들안.(이렇게 해
 서 쪼끄맏게 ** 만들어서 잇었습니다. 만들어서.)
 101004 @1 잠깐. 말씀하십서.(잠깐. 말씀하십시오.)
 101004 #1 여기이.(여기.)
 101004 @1 예.(예.)
 101004 #1 그 개, 개, 개라고 허면은?(그 개, 개, 개라고 하면은?)
 101004 @1 바당.(바다.)
 101004 #1 바다에 저 배 메는 디ㄴ라 개엔 허지 아너?(다에 저 배 매는 데보고
 개라고 하지 았아?)
 101004 #3 개맛³⁹), 개맛.(‘개맛’. ‘개맛’.)
 101004 @1 게맛디, 예.(‘개맛디’, 예.)

다. 달리 ‘답’이라고도 한다.

37) ‘솔대거리’는 제주시 외도동의 거리 이름이다. ‘솔대’, 즉 주변에 ‘솥대’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38) ‘잣벽’은 ‘잣백’의 이형태로, 자갈한 돌로 벽처럼 쌓아 만든 밧의 울타리를 일컫는 말이다.

39) ‘개맛’은 배를 매는 곳, 즉 포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개창’이라고도 한다.

101004 #1 여기에다가 짐동산⁴⁰)이라고 있어요, 짐동산.(여기에다가 ‘짐동산’이라고 있어요, ‘짐동산’.)

101004 @1 짐동산, 예.(‘짐동산’, 예.)

101004 #1 동쪽으로 가면은.(동쪽으로 가면은.)

101004 @1 예.(예.)

101004 #1 짐동산이라고 허는 거는 배에서 퍼다가 짐 쌓여, 쌓여났다고 해 가지고 짐동산, 짐동산 허는디.(‘짐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배에서 퍼다 짐 쌓아, 쌓았었다고 해 가지고 ‘짐동산’, ‘짐동산’ 하는데.)

101004 #3 짐 퍼난 딴.(짐 폼던 텐.)

101004 #1 짐 편 경 해 가지고 전합니다. 그 동산이라는 데 그디 잇고.(짐 퍼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전합니다. 그 동산이라는 데 거기 잇고.)

101004 @1 예.(예.)

101004 #1 이디가 저 무신 동산이라, 이. 저 우리 제터, 포제터 현 디가.(여기가 저 무슨 동산이야, 이. 저 우리 제터, 포제터 한 데가.)

101004 #2 아, 거기 제서리⁴¹).(아, 거기 ‘제서리’.)

101004 #1 제서리동산⁴². 제서리동산 이제 췌왓동산.(‘제서리동산’. ‘제서리동산’ 이제 ‘췌왓동산’.)

101004 @1 음.(음.)

101004 #1 또 아까 얘기허는 이제.(또 아까 얘기하는 이제.)

101004 @1 수, 수덕.(수, ‘수덕’.)

101004 #3 수덕동산.(‘수덕동산’.)

101004 #2 수덕동산.(‘수덕동산’.)

101004 #1 수덕동산 행은에. 이 서치동산⁴³)이라고 해서 저 귀야지 입구 쪽에.(‘수덕동산’ 해서. 이 ‘서치동산’이라고 해서 저 귀통이 입구 쪽에.)

101004 @1 예, 혹시 그 내창도 여기 잇수가?(예, 혹시 그 내도 여기 있습니까?)

101004 #2 예, 예.(예, 예.)

101004 @1 무슨 내마씨?(무슨 내요?)

101004 #2 벼락맞은내⁴⁴)엔 해근에. 저 서쪽에.(‘벼락맞은내’라고 해서. 저 서쪽에.)

101004 #3 서쪽으로, 서쪽.(서쪽으로, 서쪽.)

101004 @1 벼락맞은내 거기 벼락 맞안.(‘벼락맞은내’ 거기 벼락 맞아서.)

101004 #3 제멩이 바로.(‘제멩이’ 바로.)

101004 #2 아마 옛날 벼락 맞안 내가 터져 분 생이라마씨. 웃음.(아마 옛날 벼락

40) ‘짐동산’은 제주시 외도동의 동산의 하나다.

41) ‘제서리’는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42) ‘제서리동산’은 제주시 외도동의 한 지경 이름이다. 지경이 다른 곳보다 높아 뒤에 ‘-동산’이 붙었다.

43) ‘서치동산’은 제주시 외도동의 한 지경 이름이다. 지경이 다른 곳보다 높아 뒤에 ‘-동산’이 붙었다.

44) ‘벼락맞은내’는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여기에서 ‘벼락’은 벼락의 의미다.

맞아서 내가 터져 버린 모양이에요. 웃음.)

101004 #1 아마도 아니, 돌, 돌이 거기 영 쌓이는데.(아마도 아니, 돌, 돌이 거기 이렇게 쌓였는데.)

101004 @1 으.(으.)

101004 #1 아마 그 자연적으로 벼락 떨어져 가지고 아마.(아마 그 자연적으로 벼락 떨어져 가지고 아마.)

101004 #2 움푹 움푹이 파져 가지고.(움푹 움푹이 파져 가지고.)

101004 #2 쪼그만헌 못이 있어났수다.(쪼그마한 못이 있었었습니다.)

101004 @1 아.(아.)

101004 #1 돌에서사 벼락 쳐나신디.(돌에서야 벼락 쳤었는지.)

101004 #3 계란 비가 와나면은 놀이터가 없으니까 바닷에 못가니까.(그러니까 비가 왔다면 놀이터가 없으니까 바다에 못가니까.)

101004 @1 예.(예.)

101004 #3 거기서도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거기서도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101004 #2 어린아이들 가서 목욕도 하고.(어린아이들 가서 목욕도 하고.)

101004 #3 한 며칠 간 내 터정 물이 생수가 나. 생수가 나서.(한 며칠 간 내 터져서 물이 생수가 나. 생수가 나서.)

101004 @1 아아, 벼락맞은내에, 예.(아아, ‘벼락맞은내’에, 예.)

101004 #3 생수가 나 가지고 것이 구멍⁴⁵⁾이지, 구멍 낫젠 허여. 구멍.(생수가 나 가지고 것이 ‘구멍’이지, ‘구멍’ 났다고 해. ‘구멍’.)

101004 @2 예.(예.)

101004 #2 비가 많이 오면 모이는 물입주.(비가 많이 오면 모이는 물이지요.)

101004 @1 예.(예.)

101004 #3 구멍 난 그 물이 그냥 한 삼 개월간 막 계속 흘렀어.(‘구멍’ 난 그 물이 그냥 한 삼 개월간 막 계속 흘렀어.)

101004 @1 아.(아.)

101004 #2 요즘도 이제 집덜 짓어 불곡 허니까 허주마는 제명이 가민 구멍물터 렌 해서 지금도 거기는 질왓⁴⁶⁾인데 지금도 비 와나민 구멍 나요, 지금도.(요즘도 이제 집들 지어 버리고 하니까 하지만 ‘제명이’ 가민 ‘구멍물터’라고 해서 지금도 거기는 ‘질왓’인데 지금도 비 와 나면 ‘구멍’ 나요, 지금도.)

101004 @1 예.(예.)

101004 #3 지금 나서 그 고랑창으로 내리고 허는데 구멍 나 거기가. 그러니까.(지금 나서 그 고랑창으로 내리고 하는데 ‘구멍’ 나 거기가. 그러니까.)

101004 #2 이디 ** 그 비 많이 마 정은에 비 많이 오당 그 구멍 터지른 아 이

45) ‘구멍’은 장마 진 때에 평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말한다. 물이 솟는 것을 보고 ‘구멍 나다’라고 한다.

46) ‘질왓’은 돌맹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한다. 문맥상으로 보아 여기에서는 ‘물기가 있는 밭’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젠 날 좋켜.(여기 ** 그 비 많이 장마 저서 비 많이 오다가 그 ‘구멍’ 터지면 아 이젠 날 좋겠다.)

101004 #3 마, 마 가두왓젠. 마 가두왓다고.(장마, 장마 가두었다고. 장마 가두었다고.)

101004 @1 아.(아.)

101004 #2 날 좋켄.(날 좋겠다고.)

101004 #3 구멍 터정 마 가두왓다고 헤여.(‘구멍’ 터져서 장마 가두었다고 해.)

101004 @1 마 가두왓다고예?(장마 가두었다고요?)

101004 #3 마 가두왓다고.(장마 가두었다고.)

101004 #2 구멍 터지민.(‘구멍’ 터지면.)

101004 #3 아닌 게 아니라 그 비가 안 와.(아닌 게 아니라 그 비가 안 와.)

101004 #1 일로 이 내리는 것이 광령⁴⁷⁾ 알로 헤근에 광령저수지⁴⁸⁾ 옆으로 헤영 이레 오는 물인디.(일로 이 내리는 것이 ‘광령’ 아래로 해서 ‘광령저수지’ 옆으로 해서 이리로 오는 물인디.)

101004 @1 예.(예.)

101004 #2 광령서 오는 겹주.(‘광령’서 오는 거지요.)

101004 #1 이디, 이디가 그냥 일로 막 터정.(여기, 여기가 그냥 이리로 막 터져서.)

101004 #2 아이고, 집도 끓어나고, 옛날은 뭐.(아이고, 집도 끌었었고, 옛날은 뭐.)

101004 #1 옛날에 이디 집 짓언.(옛날에 여기 집 지었어.)

101004 #2 우리, 우리 고모할망이, 고모가.(우리, 우리 고모할머니가, 고모가.)

101004 #1 경 헤서.(그렇게 해서.)

101004 #2 그 물에 끓언 죽엇주. 옛날에.(그 물에 끌려서 죽었지. 옛날에.)

101004 #1 마을이 두 개로 갈라진 거라.(마을이 두 개로 갈라진 거야.)

101004 #2 옛날에.(옛날에.)

101004 @2 계난 아까 그 보룻물⁴⁹⁾은 어디우과?(그러니까 아까 그 ‘보룻물’은 어디입니까?)

101004 #2 도룻물⁵⁰⁾이.(‘도룻물’이.)

101004 #1 도룻물이.(‘도룻물’이.)

101004 @2 보룻물, 보룻물.(‘보룻물’, ‘보룻물’.)

101004 #1 이게 바로.(이게 바로.)

101004 @1 보룻물이 아니고 도룻물.(‘보룻물’이 아니고 ‘도룻물’.)

101004 #3 이것이 도룻물질⁵¹⁾이라.(이것이 ‘도룻물질’이라.)

47) ‘광령’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를 말한다.

48) ‘광령저수지’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저수지다.

49) ‘보룻물’은 길문자가 ‘도룻물’을 잘못 알고 발화한 것이다.

50) ‘도룻물’은 제주시 외도동의 물 이름이다. 도로가 파여서 생긴 물이라고 한다.

101004 #2 이거 물질이우다. 우리 동네.(이거 물질입니다. 우리 동네.)
 101004 #1 저 도롯물이엔 현 계.(저 ‘도롯물’이라고 한 계.)
 101004 #2 가운데로 짝.(가운데로 짝.)
 101004 #1 광령, 광령일리⁵²⁾로 알려레 내려가든 폭낭굴⁵³⁾이라고 **. 폭남굴⁵⁴⁾이 아니라 폭락굴⁵⁵⁾입니다. 그 폭락굴.(‘광령’, ‘광령일리’로 아래로 내려가면 ‘폭낭굴’이라고 **. ‘폭남굴’이 아니라 ‘폭락굴’입니다. 그 ‘폭락굴’.)
 101004 @1 으.(으.)
 101004 #1 그 영 폭포가.(그 이렇게 폭포가.)
 101004 @1 예.(예.)
 101004 #1 떨어진다는 말로.(떨어진다는 말로.)
 101004 #3 떨어질 락 자로 해 가지고.(떨어질 락 자로 해 가지고.)
 101004 #1 글로 해근에 이레 이리 물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가 그냥 이거 물 저 비가.(글로 해서 이리로 이리 물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가 그냥 이거 물 저 비가.)
 101004 #2 물질이주, 물질.(물길이지, 물길.)
 101004 #1 크면 막 그냥 이제 사름 낫을 정도로.(크면 막 그냥 이제 사름 낫 정도로.)
 101004 #2 도롯물 물질입주.(‘도롯물’ 물길이지요.)
 101004 #1 물이 커.(물이 커.)
 101004 @1 도롯물질.(‘도롯물질’.)
 101004 #1 도롯물질. 그것을 도롯물이라고.(‘도롯물질’. 그것을 ‘도롯물’이라고.)
 101004 @1 거기서 도로처럼 이제 물이 흘렀구나예?(거기서 도로처럼 이제 물이 흘렀군요?)
 101004 #3 내 벌러지니까 우에도 흙 파지고.(내 벌러지니까 위에도 흙 파이고.)
 101004 #1 내 같이 흘러.(내 같이 흘러.)
 101004 #2 완전히 그냥 막 엄청 커.(완전히 그냥 아주 엄청 커.)
 101004 #3 계난 그 옛날에 그 저 연자방아 허는 거 떠 가지고 굴러왔단 말이 있어.(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저 연자방아 하는 거 떠 가지고 굴러왔다는 말이 있어.)
 101004 #1 경 험에 그걸.(그렇게 해서 그걸.)
 101004 #2 물질을 따라 동서카름⁵⁶⁾.(물질을 따라서 ‘동서카름’.)
 101004 #1 경 해 가지고 너무 허니까 그 물을 갈려 가지고 동으로 빠도록히 멘 들앗거든, 저게.(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하니까 그 물을 갈라 가지고 동으로 뽑도록

51) ‘도롯물질’은 제주시 외도동의 길 이름이다. ‘도롯물’이 흘렀던 길이라는 의미다.

52) ‘광령일리’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를 말한다.

53) ‘폭낭굴’은 제주시 애월읍의 지경 이름이다. 달리 ‘폭남굴’이라고 하였다. 제보자는 ‘폭남굴’이 아니라 ‘폭락굴’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54) ‘폭남굴’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지경 이름이다. 달리 ‘폭남굴’이라고 하였다.

55) ‘폭락굴’은 제보자가 제주시 광령리 지경의 ‘폭남굴’을 가리키며 한 말이다.

56) ‘동서카름’은 한 마을 안의 동쪽과 서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만들었거든, 저게.)

101004 @1 예.(예.)

101004 #3 경 허니까 허는 거주.(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101004 @1 계문 그 물질이 저기 외도천⁵⁷)으로 간 거우꽈?(그러면 그 물질이 저기 ‘외도천’으로 간 겁니까?)

101004 #2 외도천으로 빠지지.(‘외도천’으로 빠지지.)

101004 @1 아.(아.)

101004 #1 외도천으로 빠지지.(‘외도천’으로 빠지지.)

101004 @1 혹시 아까 바위도 잇텐 헌데 바위 이름도 잇어마씨?(혹시 아까 바위도 있다고 하는데 바위 이름도 있어요?)

101004 #2 바위는 거.(바위는 거.)

101004 #3 바위는 없어요.(바위는 없어요.)

101004 #1 옛날 여기 바위엔 헛자 예, 저 어디고? 바위 이름은 없고 헌디 단지 일로 우에 올라가든 무신, 무신 바위고, 거?(옛날 여기 바위라고 해도 예, 저 어디고? 바위 이름은 없고 헌데 단지 이리로 위에 올라가면 무슨, 무슨 바위고, 거?)

101004 #3 어디 말이우꽈?(어디 말입니까?)

101004 #1 아, 아니 이 이 저수지로 올라가는 디 궤⁵⁸). 무신 궤?(아, 아니 이 이 저수지로 올라가는 데 ‘궤’. 무슨 ‘궤’?)

101004 #2 아, 지방돌⁵⁹).(아, ‘지방돌’.)

101004 #1 지방돌, 지방돌.(‘지방돌’, ‘지방돌’.)

101004 #3 지방돌, 으.(‘지방돌’, 으.)

101004 #2 도로 가운데 지방턱 모양으로 영.(도로 가운데 문턱 모양으로 이렇게.)

101004 #1 영 해 가지고.(이렇게 해 가지고.)

101004 #2 이 가로 막아났어마씨. 계난 지방턱 모양으로 막으난 지방돌. 거기 또 궤가 있어.(이 가로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문턱 모양으로 막으니까 ‘지방돌’. 거기 또 ‘궤’가 있어.)

101004 #3 사름 오륙 명이 가 가지고.(사람 오륙 명이 가 가지고.)

101004 #2 지방돌, 지방돌.(‘지방돌’, ‘지방돌’.)

101004 #3 비올 때는 그 비를 피해 가지고 밧디 갓당도 비 와 가민 그 쏘굽에 앓앙덜 허고.(비올 때는 그 비를 피해 가지고 밧에 갔다가도 비 와 가면 그 속에 앓아서들 하고.)

101004 #1 파괴시켜 불언.(파괴시켜 버렸어.)

101004 @1 예, 이젠 파괴시켜 불언예?(예, 이젠 파괴시켜 버렸다고요?)

101004 #2 도로를 확장허젠 허니까 그 뭐 파괴헐 수밖에.(도로를 확장하려고 하

57) ‘외도천’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58) ‘궤’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곳을 말한다.

59) ‘지방돌’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돌 이름이다. 돌 모양이 위쪽 지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니까 그 뭐 파괴할 수밖에.)

101004 @1 예, 알아수다. 이제 앞으로 말글 땀예, 흔 사람씩. 흔 사람 녹음하면 예.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아까 그 굴 이름은 뭐라난마씨?(예,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할 땀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녹음하면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굴 이름은 뭐였다고요?)

101004 #2 그 굴?(그 굴?)

101004 @1 예, 궤 이름?(예, '궤' 이름?)

101004 #2 지방돌궤⁶⁰.(‘지방돌궤’.)

101004 @1 아, 지방돌궤. 게든 그 지방돌궤 말앙 또 굴 여기 잇수과?(아, ‘지방돌궤’. 그러면 그 ‘지방돌궤’ 말고 또 굴 여기 있습니까?)

101004 #2 아, 저 폭낭굴궤⁶¹.(아, 저 ‘폭낭굴궤’.)

101004 @1 폭낭굴궤.(‘폭낭굴궤’.)

101004 #2 예, 마굴궤⁶². 족은궤⁶³가 잇엇주.(예, ‘마굴궤’. ‘족은궤’가 잇엇지.)

101004 @1 아, 마굴궤허고.(아, ‘마굴궤’하고.)

101004 #2 으, 지방돌. 아, 저 폭낭굴궤.(으, ‘지방돌’. 아, 저 ‘폭낭굴궤’.)

101004 #1 또 여기도 잇주.(또 여기도 잇지.)

101004 @1 음, 여기 거는 뭐마씨?(음, 여기 거는 뭐예요?)

101004 #1 여기 큰굴왓⁶⁴디도 **이야 잇주.(여기 ‘큰굴왓’에도 **이야 잇지.)

101004 #2 그거 이름이.(그거 이름이.)

101004 @1 아, 큰굴왓디는 거기 옛날 굴 귀난 디우과? 혹시 기와 귀난.(아, ‘큰굴왓’은 거기 옛날 가마 컷던 데입니까? 혹시 기와 구웠던.)

101004 #3 아니.(아니.)

101004 @1 그건 아니고.(그건 아니고.)

101004 #3 큰굴왓이라고 물 고이고 밧이 넓으니까.(‘큰굴왓’이라고 물 고이고 밧이 넓으니까.)

101004 #1 큰 굴.(큰 굴.)

101004 #3 넓으니까.(넓으니까.)

101004 #1 큰 굴이라.(큰 굴이야.)

101004 @1 예.(예.)

101004 #1 바당꺼지 연결뵈 굴이라, 이거 영 허연.(바다까지 연결된 굴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101004 #3 전에.(전에.)

101004 #1 개발허연 보지 아녀니까 몰르지마는 숨굴⁶⁵이 터졌다 이거여. 게서

60) ‘지방돌궤’는 제주시 외도동에 잇엇던 ‘궤’ 이름이다. ‘궤’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곳을 말하는데, 위에 엮어진 큰 돌이 지방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61) ‘폭낭굴궤’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지경 ‘폭낭굴’에 잇엇던 ‘궤’ 이름이다.

62) ‘마굴궤’는 제주시 애월읍 지경에 잇엇던 ‘궤’ 이름이다.

63) ‘족은궤’는 제주시 애월읍 지경에 잇엇던 ‘궤’ 이름이다.

64) ‘큰굴왓’은 제주시 외도동에 잇는 밧 이름이다.

그 물이 많이 오면 그 궤 안으로 물이 바다로 내려가요.(개발해서 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마는 ‘숨굴’이 터졌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물이 많이 오면 그 ‘궤’ 안으로 물이 바다로 내려가요.)

101004 @1 예.(예.)

101004 #3 계난 아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지금 그 도룻물이 터지면은 외도⁶⁶)로도 가고 섯가름골⁶⁷)은 그쪽디레 물이 가났어요. 큰굴왓디레.(그러니까 아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지금 그 ‘도룻물’이 터지면 ‘외도’로도 가고 ‘섯가름골’은 그쪽으로 물이 갔었어요. ‘큰굴왓’으로.)

101004 @1 예.(예.)

101004 #1 물이 터지면은 숨굴왓⁶⁸)이라고 해서 숨굴왓이 밭이 이름이 숨굴왓, 숨굴왓.(물이 터지면 ‘숨굴왓’이라고 해서 ‘숨굴왓’이 밭이 이름이 ‘숨굴왓’, ‘숨굴왓’.)

101004 @1 숨굴왓예?(‘숨굴왓’요?)

101004 #3 숨굴왓. 굴이 터지니까 굴 터지니까.(‘숨굴왓’. 굴이 터지니까 굴 터지니까.)

101004 @1 예.(예.)

101004 #3 거기도 사름 오륙 명은 들어강 살 수 있는데 우의로 넓적헌 것이 고여 있는 줄도 몰라. 켄디 비올 때는 글로 해 가지고 항상 물질을 터서 글로 보내면은 연대라고 저 이 바로 밑에.(거기도 사람 오륙 명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위로 넓적한 것이 고여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비올 때는 그리로 해 가지고 항상 물질을 터서 그리로 보내면 ‘연대’라고 저 이 바로 밑에.)

101004 @1 예, 연대?(예, ‘연대’?)

101004 #2 연대⁶⁹)로, 연대동⁷⁰) 바다로 내려강.(‘연대’로, ‘연대동’ 바다로 내려가서.)

101004 #3 아, 계니까 어떤 연대로 가느냐 허는 걸 우리 조상들이 ㅁ스락 옛날 그 막 유래 열로 가는 걸 확인할라고 그레 비우니까 연대로 해서 ㅁ스락이 나왔다 이거야.(아, 그러니까 어떻게 연대로 가냐 하는 걸 우리 조상들이 까끄라기 옛날 그 막 유래 어디로 가는 걸 확인하려고 그리로 부우니까 ‘연대’로 해서 까끄라기가 나왔다 이거야.)

101004 @1 음.(음.)

101004 #2 그 물질 따라. 흘러 내려 가지고.(그 물질 따라. 흘러 내려 가지고.)

101004 #3 그래서 아, 이 물이 땅속으로 가서.(그래서 아, 이 물이 땅속으로 가서.)

65) ‘숨굴’은 땅속으로 파인 굴이다. 비가 내린 후에는 보통 그곳으로 물이 흘러든다.

66) ‘외도’는 제주시 외도동을 말한다.

67) ‘섯가름골’은 제주시 외도동 가운데 서쪽마을을 가리킨다.

68) ‘숨굴왓’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밭 이름이다. 밭에 ‘숨굴’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69) ‘연대’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인 ‘연대동’을 말한다. 예전에 ‘연대’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70) ‘연대동’은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예전에 연대가 있어서 붙은 마을 이름이다.

101004 #2 글로 나왔구나.(그리로 나왔구나.)

101004 #3 흔 군데 아니, 연대도 두 군데로 그게 흘러가니까 아 일로 오던 질이 물질이 따로 있구나 해연 옛날 그 조상들이 춤 지혜가 좋아서 그스락이 나간 걸 알았다 그렇습니다.(한 군데 아니, '연대'도 두 군데로 그게 흘러가니까 아 이리로 오던 질이 물질이 따로 있구나 해서 옛날 그 조상들이 참 지혜가 좋아서 까끄라기가 나간 걸 알았다 그렇습니다.)

101005 @1 예, 알아수다. 이 외도에는 기관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수가?(예, 알았습니다. 이 외도에는 기관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05 #1 기관?(기관?)

101005 @1 예.(예.)

101005 #2 옛날 지서가 잇단 벗어나 불언.(옛날 지서가 있다가 없어서 버렸어.)

101005 #1 기관이야 엇지.(기관이야 없지.)

101005 #2 이제 또 초등학교 잇고.(이제 또 초등학교 잇고.)

101005 @1 예.(예.)

101005 #2 보육원도 제주보육원 잇어나고.(보육원도 제주보육원 잇었었고.)

101005 #1 지금 예, 장애인복지관이 잇고.(지금 예, 장애인복지관이 잇고.)

101005 #2 건 이제사 생긴 거.(건 이제야 생긴 거.)

101005 #1 음, 또 농협지소도 지금에야 설치됐었고.(음, 또 농협지소도 지금에야 설치되었고.)

101005 #2 축구운동장도 잇고. 장애인운동장도 잇고 뭐.(축구운동장도 잇고. 장애인운동장도 잇고 뭐.)

101005 #3 건 지금이야 헌 거고. 옛날은 기관이란 게.(건 지금이야 한 거고. 옛날은 기관이란 게.)

101005 #1 외도초등학교가 천구백스십 아, 천구백, 예 모르켜이.(외도초등학교가 천구백사십 아, 천구백, 예 모르겠어.)

101005 #3 켜디 거.(그런데 거.)

101005 #1 천구백삼십 몇 년일 거라, 저디가. 외도초등학교.(천구백삼십 몇 년일 거야, 저기가. 외도초등학교.)

101005 #2 초등학교 생긴 지.(초등학교 생긴 지.)

101005 #1 삼십구 년쯤이나.(삼십구 년쯤에나.)

101005 #3 헛수가 봐서게 거기는 외도초등학교 나온 사람덜 보면 우리가 육 흰데.(헛수가 봐서 거기는 외도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보면 우리가 육 흰데.)

101005 #1 삼십년 대.(삼십년 대.)

101005 #3 지금 뭐.(지금 뭐.)

101005 @1 예.(예.)

101005 #1 일제시대부터 지서가 경찰지서가 잇었고, 것뿐 저. 지금도 뭐 변헌 것이 없네요.(일제강점기부터 지서가 경찰지서가 잇었고, 것뿐 저. 지금도 뭐 변헌

것이 없네요.)

101005 @1 예.(예.)

101005 #3 계난 건 우리 외도, 우렁이가 아니고.(그러니까 건 우리 외도, ‘우렁이’가 아니고.)

101005 @1 예.(예.)

101005 #1 저 아까 헛지마는 저번에 절물⁷¹⁾ 월대왓⁷²⁾에서 할 때 그 부락이고.
(저 아까 했지만 저번에 ‘절물’ ‘월대왓’에서 할 때 그 부락이고.)

101005 @1 예.(예.)

101005 #3 우리 외도, 우렁이 마을은 기관이란 게 없어났주.(우리 외도, ‘우렁이’ 마을은 기관이란 게 없었었지.)

101005 @1 음.(음.)

101005 #2 외도에 속헌에 외도일동이 뉘신디. 그 자연부락이 이름이 외도일, 저 저 우렁이.(외도에 속해서 외도일동이 됐는데. 그 자연부락이 이름이 외도일, 저 저 ‘우렁이’.)

101005 #3 지금 외도일동.(지금 외도일동.)

101005 #2 마을은 하나.(마을은 하나.)

101005 @1 음.(음.)

101005 #3 거기는.(거기는.)

101005 #2 외도동에서 마을은 하나.(외도동에서 마을은 하나.)

101005 #1 견디 우리 동네에서.(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101005 @1 예.(예.)

101005 #1 예, 김충희 지사가 나서.(예, 김충희 지사가 나서.)

101005 @1 아.(아.)

101005 #1 도지사 하셨고.(도지사 하셨고.)

101005 @1 아.(아.)

101005 #2 도지사도 난 동네우다.(도지사도 난 동넵니다.)

101005 @1 음.(음.)

101005 #1 이승택 지사도 외도에서 자랐고.(이승택 지사도 외도에서 자랐고.)

101005 @1 음.(음.)

101005 #1 그렇습니다.(그렇습니다.)

101005 @1 예.(예.)

101005 #2 도지사가 두 사람이.(도지사가 두 사람이.)

101005 @1 김충희 지사라고.(김충희 지사라고.)

101005 #1 외도에 겐디.(외도에 그런데.)

101005 #3 살아난 집도 있어.(살았던 집도 있어.)

71) ‘절물’은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72) ‘월대왓’은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월대’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101005 #1 겐디 외도 우리 제주도에는 대개는 바다 낀 마을이 예, 부락이 갈려가지고 일구니 이구니 일리니 이리니 허는 디가 잇는데, 모두가 바다를 낀 디가 일리로 보고.(그런데 외도 우리 제주도에는 대개는 바다 낀 마을이 예, 부락이 갈려가지고 일구니 이구니 일리니 이리니 하는 데가 잇는데, 모두가 바다를 낀 데가 일리로 보고.)

101005 @1 예.(예.)

101005 #1 바다를 안 낀 디는 이리로 보는데, 여기만은 외도일동엔 현 디만은 바다를 아니 낀 디서 저 일동[일똥]이라고 웨어, 웨엇고.(바다를 안 낀 데는 이리로 보는데, 여기만은 외도일동엔 한 데만은 바다를 아니 낀 디서 저 일동[일똥]이라고 웨어, 웨엇고.)

101005 @1 예.(예.)

101005 #1 으, 또 촌 이 저 이리는 바다를 끼어서 이리벳기 안 웨고 이렇게 헛는데 아마 옛날에 이.(으, 또 참 이 저 이리는 바다를 끼어서 이리밖에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옛날에 이.)

101005 #2 권력이 좀 췌어났어.(권력이 좀 세었었어.)

101005 @1 음.(음.)

101005 #1 이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도 이 외도가 완전히 저 신우면⁷³.(이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도 이 외도가 완전히 저 ‘신우면’.)

101005 @1 예.(예.)

101005 #1 신우면으로 갈 건디. 광령으로 영 현디. 외도가 영 끊어진 지금 트라전 영 마치 제주시로 똬쨌.(‘신우면’으로 갈 건데, ‘광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외도가 이렇게 끊어져서 지금 비똥어져서 이렇게 마치 제주시로 똬쨌.)

101005 @1 예.(예.)

101005 #2 외도천⁷⁴ 저계.(‘외도천’ 저계.)

101005 #1 것도 반대를 해 가지고.(것도 반대를 해 가지고.)

101005 #2 그 면으로 생각허민.(그 면으로 생각하면.)

101005 #1 두에서 일로 해서 내로 해서 경계를 예, 제주읍⁷⁵으로 부찌고.(뒤에서 이리로 해서 내로 해서 경계를 예, ‘제주읍’으로 붙이고.)

101005 @1 예.(예.)

101005 #1 영 헛답니다.(이렇게 헛답니다.)

101005 @1 예.(예.)

101005 #1 그때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그때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101005 #3 아마 그 당신 췌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주마는 힘께나 쓰고 지사도 잇고 허니까 아까 벵락맞은내 벵락맞은내 ***주마는 글로 경계선이주.(아마 그 당신 췌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힘께나 쓰고 지사도 잇고 하니까 아까 ‘벵락맞은

73) ‘신우면’은 제주시 애월읍 지역의 옛 행정 이름이다.

74) ‘외도천’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내를 말한다.

75) ‘제주읍’은 예전의 제주시 이전의 옛 행정 이름이다.

내' '베락맞은내' ***지마는 그리로 경계선이이지.)

101005 @1 아.(아.)

101005 #3 우리 이쪽은 외도 제주시 그리고 저쪽은 애월면⁷⁶⁾.(우리 이쪽은 '외도' 제주시 그리고 저쪽은 '애월면'.)

101005 @1 예, 알았수다.(예, 알았습니다.)

101005 #2 계난 저 우로 가든 광령이 서쪽에 부뜨난 건 애월면이고.(그러니까 저 위로 가면 '광령'이 서쪽에 붙으니까 건 '애월면'이고.)

101005 @1 예, 예.(예, 예.)

101005 #2 해안은 뭐 우리도 서쪽에 부뜨난 우리도 애월면에 부떠야 될 건디 외도로 뺀.(해안은 뭐 우리도 서쪽에 붙으니까 우리도 '애월면'에 붙어야 될 건데 '외도'로 봐서는.)

101005 #1 경헌디 한 가지 *** 잇는데 이. 옛날에 우리 마을의 경계가.(그런데 한 가지 *** 잇는데 이. 옛날에 우리 마을의 경계가.)

101005 @1 예.(예.)

101005 #1 이 마을의 경계가 광령일리⁷⁷⁾ 그 순두물⁷⁸⁾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이 중산간도로.(이 마을의 경계가 '광령일리' 그 '순두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이 중산간도로.)

101005 @1 으.(으.)

101005 #1 그꺼지 연결이 뒤엇던가. 그 이상인지도 몰라요. 켜디 그 혼 번은 광령에서 기별이 왔는데.(그까지 연결이 되었던가.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번은 광령에서 기별이 왔는데.)

101005 @1 예.(예.)

101005 #1 이, 저 어느 그 지금 외도 이, 일.(이, 저 어느 그 지금 외도 이, 일.)

101005 #2 경계선?(경계선?)

101005 #1 경계, 경계선, 그 경계선에 노상 사람이 가다가 죽었다 그래. 죽은 영장이 있으니까.(경계, 경계선, 그 경계선에 노상 사람이 가다가 죽었다 그래. 죽은 영장이 있으니까.)

101005 @1 음.(음.)

101005 #1 이걸 당신네 경계 내에니까 치우시오 해 가지고 이제 허니까, 하, 여기서 허는 데는 거 우리 경계 아니다.(이걸 당신네 경계 내니까 치우시오 해 가지고 이제 하니까, 하, 여기서 하는 데는 거 우리 경계 아니다.)

101005 #2 치우기 실프니까.(치우기 싫으니까.)

101005 @1 음.(음.)

101005 #2 웃음.(웃음.)

101005 #1 우리 경계 아니니까 당신네가 처리허라, ** 그게 경계가 뒤어버렸다

76) '애월면'은 예전의 제주시 애월읍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77) '광령일리'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를 말한다.

78) '순두물'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고. 아 경 해 가지고 경계가 죽게 되었다는.(우리 경계 아니니까 당신네가 처리하
라, ** 그게 경계가 되어 버렸다고. 아, 그렇게 해 가지고 경계가 작게 되었다는.)

101005 #2 너네가 치왕 땅따먹기.(너네가 치워서 땅따먹기.)

101005 #1 웃음. 에피소드인지 뭐인지 몰라도 그렇게 전합니다.(웃음. 에피소드
인지 뭐인지 몰라도 그렇게 전합니다.)

101005 @1 예, 예전에 바당도 경 해났젠 허잖아예?(예, 예전에 바다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잖아요?)

101005 @2 바당에도 시신이 올라오면 ****.(바다에도 시신이 올라오면 ****.)

101005 #2 치우기 실프니까.(치우기 싫으니까.)

101005 @2 ****.(****.)

101006 @1 그 옛날에는 여기 큰일들 허젠 허면 접들을 하영 들었잖아예?(그 옛
날에는 여기 큰일들 하려고 하면 계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101006 #2 으?(으?)

101006 @1 접, 접.(계, 계.)

101006 @2 계.(계.)

101006 @1 계.(계.)

101006 #2 계.(계.)

101006 @1 뭐 화단접이여, 뭐.(뭐 ‘화단지’다, 뭐.)

101006 #2 아.(아.)

101006 @2 쓸제 현 거예?(‘쓸계’ 한 거요?)

101006 @1 그런 거는 어떤 것들 잇어나신고예?(그런 거는 어떤 것들 있었을까
요?)

101006 #2 화단지⁷⁹⁾가 잇어났는데 우리 동네도.(‘화단지’가 있었었는데 우리 동
네도.)

101006 #1 화단지 잇어났어.(‘화단지’ 있었었어.)

101006 @1 예, 그런 얘기 쯤 곱아 줘서. 제들은 어떤 것덜 헤나신 거.(예, 그런
얘기 쯤 말해 주세요. 계들은 어떤 것들 했었던 거.)

101006 #1 화단제에 대해선 난 잘 모르겠네.(‘화단지’에 대해선 난 잘 모르겠네.)

101006 @1 예, 삼촌은?(예, 삼촌은?)

101006 #2 화단지. 우리 동네 혼 열 멧 사름이 잇어나신디.(‘화단지’. 우리 동네
한 열 멧 사름이 있었었는데.)

101006 #1 ○○인 알 거여.(○○인 알 거다.)

101006 #2 ○○인 잘 알 거우다마는. 이제 지금도.(○○인 잘 알 겁니다만. 이제
지금도.)

101006 @1 으.(으.)

79) ‘화단지’는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인 ‘화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 ‘화
단지’의 ‘제’는 표준어 ‘계’에 대응하는 말이다.

101006 #2 그 화단⁸⁰⁾ 대궐목⁸¹⁾엔 그도 화단지, 그저 화단이 그 영 네모지게시리 헤영 끼운 거 아니우파게.(그 ‘화단’ ‘대궐목’이라고 그도 ‘화단지’, 그저 ‘화단’이 그렇게 네모지게끔 해서 끼운 거 아닙니까요.)

101006 @2 예, 예.(예, 예.)

101006 #2 그거 이제 접어놓는 하꼬⁸²⁾가 잇어마씨?(그거 이제 접어놓는 상자가 있어요?)

101006 @1 아.(아.)

101006 #2 지금도 제서리동산에.(지금도 ‘제서리동산’에.)

101006 @1 으.(으.)

101006 #2 막 뜯어젼수다마는 이제도 그 하꼬는 남아있어. 그 대궐목도 영 길게 행상 메는 그 대궐목.(막 뜯어젼습니다마는 이제도 그 상자는 남아있어. 그 ‘대궐목’도 이렇게 길게 행상 메는 그 ‘대궐목’.)

101006 @1 예.(예.)

101006 #2 그것도 잇고.(그것도 잇고.)

101006 @1 예.(예.)

101006 #1 화단. 화단 허는 디.(‘화단’. ‘화단’ 하는 데.)

101006 #2 칩지 아녀. 어떻 어중구랑헌 거난.(치우지 않아. 어떻게 어중간한 거니까.)

101006 @1 으, 맞수다.(으, 맞습니다.)

101006 @2 계난 화단은 이 동네선 하나만 잇어나수가?(그러니까 ‘화단’은 이 동네선 하나만 있었었습니까?)

101006 #2 아, 글썄 그계 두 개가 잇긴 잇어났어양.(아, 글썄 그계 두 개가 잇긴 있었었어요.)

101006 #1 무신거?(무엇?)

101006 #2 그 화단지. 화단제가 두 개 잇어났수다. 혼쪽에는 권력으로 **** 느네 다 가져 불라.(그 ‘화단지’. ‘화단제’가 두 개 있었었습니다. 한쪽에는 권력으로 **** 너의 다 가져 버려라.)

101006 @1 아.(아.)

101006 #2 그레 밀어 불었어.(그리로 밀어 버렸어.)

101006 #2 동서쪽이 다 잇긴 잇어났수다, 저계.(동서쪽이 다 잇긴 있었습니까, 저계.)

101006 @1 아까 이제 연자매 허영은에 그랫돌도 잇엇텐 헛지 아녜수과, 방에?(아까 이제 연자매 해서 방앗돌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야?)

101006 #2 방에야 많이 잇어나십주.(방야야 많이 있었습지요.)

101006 @1 그것도 접으로 허지 아녜수과? 동네마다 멧 개씩?(그것도 계로 하지

80) ‘화단’은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를 말한다.

81) ‘대궐목’은 상여 양편 아래에 매어진 앞뒤로 길게 나온 채를 말한다.

82) ‘하꼬’는 상자의 일본어 ‘하こ’를 말한다.

않았습니까? 동네마다 몇 개씩?)

101006 #1 대개 영 보니까이.(대개 이렇게 보니까.)

101006 #2 동카름⁸³⁾ 서카름⁸⁴⁾. 또 웃가름⁸⁵⁾ 알가름⁸⁶⁾ 영 혜영 있어났는데 그런 방에덜이 다 있어났어마씨.(‘동카름’ ‘서카름’. 또 ‘웃가름’ ‘알가름’ 이렇게 해서 있었었는데 그런 방아들이 다 있었었어요.)

101006 @1 예.(예.)

101006 #2 들방에.(연자방아.)

101006 #1 대개 그 연자방아 대개 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조금 삶이나 잘산덴 허든.(대개 그 연자방아 대개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조금 삶이나 잘산다고 하면.)

101006 @1 음.(음.)

101006 #1 한 부자는 자기 집 곁에.(한 부자는 자기 집 곁에.)

101006 @1 예.(예.)

101006 #1 그 방아를 짓는 것을 아주 저 좋아했던 거 답아.(그 방아를 짓는 것을 아주 저 좋아했던 거 같아.)

101006 #2 우리 김칩이.(우리 김 덕이.)

101006 #1 경 혜 가지고 올래에, 자기 올래에 방아를 놓는 이런.(그렇게 해 가지고 올래에, 자기 올래에 연자매를 놓는 이런.)

101006 #2 김칩이 앞밭디 밧이 상당히 큰 밧이라.(김 덕이 앞밭에 밧이 상당히 큰 밧이야.)

101006 @1 음.(음.)

101006 #2 그 집이 우리 조상 그 큰집이 있어났수다.(그 집이 우리 조상 그 큰 집이 있었었습니다.)

101006 @1 예, 예.(예, 예.)

101006 #2 저 ** 그 저 뭐냐 대대로 내려오는 종손집.(저 ** 그 저 뭐냐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

101006 @1 종가집.(종갓집.)

101006 #2 종손집이 켈 가까운 디 큰 밧이 있어마씨. 부자라 놓니까 일로 광령 꺼지 우리 김칩 밧이난, 그 올래 쫘 나오면 바로 거기 밧이 있는데 밧 흔 귀야질 끊어 가지고 그 방에를 만들어 분 거라.(종갓집이 켈 가까운 데 큰 밧이 있어요. 부자여 놓으니까 일로 광령까지 우리 김 덕 밧이니까, 그 올래 쫘 나오면 바로 거기 밧이 있는데 밧 한 귀통일 끊어 가지고 그 연자매를 만들어 버린 거야.)

101006 @1 아, 그 집안에서 그냥.(아, 그 집안에서 그냥.)

101006 #2 예, 아주 잘사니까.(예, 아주 잘사니까.)

101006 @1 예.(예.)

83) ‘동카름’은 한 마을에서 동쪽 지역을 말한다.
84) ‘서카름’은 한 마을에서 서쪽 지역을 말한다.
85) ‘웃가름’은 한 마을에서 위쪽 지역을 말한다.
86) ‘알가름’은 한 마을에서 아래쪽 지역을 말한다.

101006 #2 하르방덜 옛날 하르방덜게 힘도 세고 무신거. 방앗돌도 보든 이만은 현 거 넓적현 거 똥글락현 거.(할아버지들 옛날 할아버지들 힘도 세고 무엇. 방앗돌도 보면 이만한 거 넓적한 거 둥근 거.)

101006 @1 으.(으.)

101006 #1 멘글양 개인 방아 식으로 해영 멘들양 이녁 밧디 멩글아근에.(만들어서 개인 방아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녁 밧에 만들어서.)

101006 @1 음.(음.)

101006 #2 흔 귀야지에.(한 귀통이에.)

101006 @1 게연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예. 게든 예전에 큰일들 동네 뉘 잔치가 있거나 영장 있거나 허면 어떤 식으로 도와줬수과?(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러면 예전에 큰일들 동네 뉘 잔치가 있거나 영장 있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도와줬습니까?)

101006 #2 다 수눌영 해십주.(다 품앗이하면서 했습죠.)

101006 @1 수눌영예?(품앗이하서요?)

101006 #2 으.(으.)

101006 @1 그 말 흐뎡 굴아줘 봅서. 어떤 식으로 해신지사.(그 말 조금 말해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했는지.)

101006 #2 어, 게난 아덜이나 딸을 풀젠⁸⁷⁾ 허든 동네 사름덜이 강 모다들영 도 새기도 잡고 밥덜토 허곡 심부름덜토 해주곡 그치록 헨 다 전 삼일 후 삼일 헛어마 썸.(어,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팔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모여들어서 돼지도 잡고 밥들도 하고 심부름들도 해주고 것처럼 해서 다 전 삼일 후 삼일 했어요.)

101006 @1 음.(음.)

101006 @2 으으으으으.(으으으으.)

101006 #2 삼식. 장게가기. 저 거 잔치허기 전에 삼일 간 돗, 두부 허는 날, 도 새기 잡는 날 뉘 이치록 행은에 삼일 간을 잔치를 해.(삼식. 장가가기. 저 거 잔치하기 전에 삼일 간 돼지, 두부 하는 날, 돼지 잡는 날 뉘 이처럼 해서 삼일 간을 잔치를 해.)

101006 @1 음.(음.)

101006 #2 또 끝나민 끝나면은 치우는 것도 삼일이 걸려.(또 끝나면 끝나면 치우는 것도 삼일이 걸려.)

101006 @1 으.(으.)

101006 #1 전 삼일 후 삼일.(전 삼일 후 삼일.)

101006 @2 일뤼잔치.(이레잔치.)

101006 #2 예, 일뤼잔치. 칠일 간 잔치헛텐 말이 잇는 겍주.(예, 이레잔치. 칠일 간 잔치했다는 말이 잇는 거지요.)

101006 @1 예.(예.)

87) '풀젠'은 표준어 '팔려고'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시집보내려고'의 의미로 쓰였다.

101006 #2 아, 저희들도 이 자식덜 팔 때는 다 경 헛수다. 전 삼일 후 삼일 하고. 뭐 이런 그 식장이니 무시거나 엇엇고 전부 집에서 허는 거.(아, 저희들도 이 자식들 팔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 삼일 후 삼일 하고. 뭐 이런 그 식장이니 무엇이니 없엇고 전부 집에서 하는 거.)

101006 @1 게믄.(그러면.)

101006 #2 우리도 큰딸 풀 때는 이 공회당에 완에 헤십주. 옛날은 공회당엔 헛수다예. 마을.(우리도 큰딸 팔 때는 이 공회당에 와서 헛습죠. 옛날은 공회당이라고 헛습니다요. 마을.)

101006 @1 회관이예?(회관이요?)

101006 #2 공회당 거기 빌언에 족두리 씌원 ** 주례 빌언 잔칫 헤십주.(공회당 거기 빌려서 족두리 씌워서 ** 주례 빌려서 잔칫 헛습죠.)

101006 @1 아, 큰딸을 족두리 씌완 헛어마씨?(아, 큰딸을 족두리 씌워서 헛어요?)

101006 #2 아, 족두리 아니고, 저 집의서 멩근 그.(아, 족두리 아니고, 저 집에서 만든 그.)

101006 @2 면사포.(면사포.)

101006 #2 면사포.(면사포.)

101006 @1 예, 예. 게믄 이 우렁이 마을만 특별헌 뭐 풍습 같은 거 이시카마씨?(예, 예. 그러면 이 ‘우렁이’ 마을만 특별한 뭐 풍습 같은 거 있을까요?)

101007 #1 저 여기에 당에 대헌.(저 여기에 당에 대한.)

101007 @1 예, 예.(예, 예.)

101007 #1 할망당⁸⁸⁾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유래가 있는데. 이런 여기 이 우렁이당⁸⁹⁾은 돛당⁹⁰⁾이라고 헛니다. 돛당.(‘할망당’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유래가 있는데. 이런 여기 이 ‘우렁이당’은 ‘돛당’이라고 헛니다. ‘돛당’.)

101007 @1 돛당예? 예.(‘돛당’요? 예.)

101007 #1 돼지 돛, 돼지 돛당이라 허는데. 이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당 하르방⁹¹⁾허고 당할망⁹²⁾이 부부가 이제 신 살았는데, 혼 번은 하르방이 어디 갓다완 보니까 할망이, 할망으로 돼지고기 냄새가 많이 낫던 모양이라.(돼지 ‘돛’, 돼지 ‘돛당’이라 하는데. 이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당하르방’하고 ‘당할망’이 부부가 이제 신 살았는데, 한 번은 ‘하르방’이 어디 다녀와서 보니까 ‘할망’이, ‘할망’으로 돼지고기 냄새가 많이 낫던 모양이야.)

101007 @1 음.(음.)

101007 #1 경 헤 가지고 말이여, 이거 어떻게 웬 거냐 허니깐 돼지고기를 먹엇

88) ‘할망당’은 제주의 마을마다 헛엇던 신당 이름이다. 여기에서 ‘할망’은 당신(堂神)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89) ‘우렁이당’은 제주시 외도동 ‘우렁이마을’에 헛는 당이다.

90) ‘돛당’은 신당 유형의 하나다. ‘돛’은 표준어 ‘돼지’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릴 수 헛는 당이다.

91) ‘당하르방’은 당의 신으로, 남자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92) ‘당할망’은 당의 신으로, 여자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노라고 허니까 이거 못 살겠다고 헨 할망을 쫓겨 불었어.(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깐 돼지고기를 먹었노라고 하니까 이거 못 살겠다고 해서 ‘할망’을 쫓아 버렸어.)

101007 @1 예.(예.)

101007 #1 하르방 혼자만 여기 허연에 헌디, 이 어디 알부락⁹³⁾으로 갔다고 허는데, 경 헤 가지고 여기에 그 저 이 당을 돛당, 돛당 허곡 하르방당이엔 헌디, 이런 말이 있는데, 게도 그 당 고스를 허는 거 보니까 그 * 멜 두 껌 올령은에 할망 하르방 그 메는 올리는 거 같습디다.(‘하르방’ 혼자만 여기 해서 하는데, 이 어디 ‘알부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그 저 이 당을 ‘돛당’, ‘돛당’ 하고 ‘하르방당’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그 당 고사를 하는 거 보니까 그 * 멜 두 껌 올려서 ‘할망’ ‘하르방’ 그 메는 올리는 거 같습디다.)

101007 @1 예.(예.)

101007 #1 *** 여기에 그 칠월에는 포제를 허곡.(*** 여기에 그 칠월에는 포제를 하고.)

101007 @1 예.(예.)

101007 #1 이렇게 해 가지고.(이렇게 해 가지고.)

101007 @2 몇 월 달에 포제마씨?(몇 월 달에 포제요?)

101007 #1 칠월. 음력 칠월에.(칠월. 음력 칠월에.)

101007 #2 게난 팔월명질 전이 험주.(그러니까 팔월명질 전에 하지요.)

101007 @1 예. 정월에 안 험다예?(예. 정월에 안 하고 있네요?)

101007 #1 당터⁹⁴⁾도 잇는데.(‘당터’도 잇는데.)

101007 @1 예.(예.)

101007 #1 이 칠십년 대인가 이제 새마을운동 허면서 이제 그 당은 이거 미신타파라고 해 가지고.(이 칠십년 대인가 이제 새마을운동 하면서 이제 그 당은 이거 미신타파라고 해 가지고.)

101007 @1 예.(예.)

101007 #1 그냥 그걸 철거시켜 버리고.(그냥 그걸 철거시켜 버리고.)

101007 #2 없애 버리고.(없애 버리고.)

101007 #1 현재 그 당고스⁹⁵⁾나.(현재 그 ‘당고사’나.)

101007 @1 예.(예.)

101007 #1 옛날에는 그 무속인들이 그냥 그거 춤 굿허고 헤여났지만 것도 아니고 그다음은 고스허다가 치와 부리고.(옛날에는 그 무속인들이 그냥 그거 참 굿하고 했었지만 것도 아니고 그다음은 고사하다가 치워 버리고.)

101007 #2 것도 우리 옥은 후에 치왔수게.(것도 우리 성장한 후에 치웠습니다.)

101007 #3 으.(으.)

93) ‘알부락’은 아랫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94) ‘당터’는 당이 있거나, 있었거나, 당이 있을 자리를 말한다.

95) ‘당고스’는 신당에서 드리는 제의를 말한다.

101007 #1 단지 포제를 허는데. 포제는 이제 그.(단지 포제를 하는데. 포제는 이제 그.)

101007 #2 기우제로.(기우제로.)

101007 #1 한 아마 여기 포제 저 그 현 게 저 언제 현 진 몰라도 저게 그.(한 아마 여기 포제 저 그 한 게 저 언제 한 지는 몰라도 저게 그.)

101007 #2 옛날 옛날부터.(옛날 옛날부터.)

101007 #1 뭐 때문에 헛는고 허니까 기우제 형식으로 현 거 같아요.(뭐 때문에 헛는고 하니까 기우제 형식으로 한 거 같아요.)

101007 #2 ㄹ물안.(가물어서.)

101007 #1 ㄹ물안 칠월달에 허니까. 여름에. 부락 수호신은 틀림없이 당인데.(가물어서 칠월에 하니까. 여름에. 부락 수호신은 틀림없이 당인데.)

101007 @1 예.(예.)

101007 #1 이제 영 허는 거 보면은 칠월달에 허고 허는데 여기서 지금도 이 포제만은 합니다.(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칠월에 하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도 이 포제만은 합니다.)

101007 @1 음.(음.)

101007 #1 포제만은 허는디 이제 칠월 들어 가지고 음력 저 칠월절⁹⁶⁾ 들었은에 첫 에 정일이나 해일 택해서 이제 포제를 허는데 그 포제가 연유된 연대는 아마도 혼.(포제만은 하는데 이제 칠월 들어 가지고 음력 저 ‘칠월절’ 들어서 첫 에 정일이나 해일 택해서 이제 포제를 하는데 그 포제가 연유된 연대는 아마도 한.)

101007 #2 멧 백년 뒤실 텨주게.(멧 백년 됐을 테지요.)

101007 #1 천육백 년 후반이나.(천육백 년 후반이나.)

101007 @1 으.(으.)

101007 #1 그렇게 한 거 같아요.(그렇게 한 거 같아요.)

101007 @1 예.(예.)

101007 #1 그렇게 지금 허고 잇다.(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101007 @2 아까 하나만예, 다른 동네 조살 해보면.(아까 하나만요, 다른 동네 조살 해보면.)

101007 #1 예.(예.)

101007 @2 포제는 정월달에 헛주게. 음력 정월달에.(포제는 정월에 합지요. 음력 정월에.)

101007 #1 정월달에도 허고.(정월에도 하고.)

101007 #2 바닷가 쪽으로.(바닷가 쪽으로.)

101007 @1 으.(으.)

101007 #1 정월달에 허는 디도 잇고.(정월에 하는 데도 있고.)

101007 @2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이사제가 되는데 마을을 위한.(결국은 그것이

96) ‘칠월절’은 8월 8일 입추부터 9월 8일 백로까지의 한 달을 말한다.

결국은 이사제가 되는데 마을을 위한.)

101007 #1 예.(예.)

101007 #2 예, 예.(예, 예.)

101007 #1 그렇게 합니다.(그렇게 합니다.)

101007 @2 칠월달에예, 정월달엔 안 됩니까?(칠월예요, 정월달엔 안 합니까?)

101007 #1 정월달엔 안 합니다.(정월달엔 안 합니다.)

101007 @2 저기 보니까 액막이라고.(저기 보니까 액막이라고.)

101007 #2 액막이는 저거는 그.(액막이는 저거는 그.)

101007 #1 그거 당카스가 아니라.(그거 '당고사'가 아니야.)

101007 #1 저거는 여기.(저거는 여기.)

101007 #3 그건 나가 설명허쿠다.(그건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101007 #1 그 저 뵈고.(그 저 뵈이나.)

101007 #3 아까 당 있어났다고 그랬죠이, 당.(아까 당 있었었다고 그랬죠, 당.)

101007 @1 예. 당 있어났젠 허지 그 당이 이거 한 몇 년 전까지라도.(예. 당 있었었다고 하지 그 당이 이거 한 몇 년 전까지라도.)

101007 #3 정월 나면 무당 행근에 막 굿하는 사름덜이 잇고 그렇지 아녀민 집안에 무신 액운이나 아이들 킵는디 조상들 뭐 신이 잇으면 우리 돌봐 주세요 해 가지고 당에 가서 심방 빌영 강 **도 두드리멍 허고 헛는데, 이제는 그걸 사삼사건 나기까지는 헛는데 사삼 나서 끝나서 이젠 부락을 불 부찌고 그 당시에 와서 지서에서 완 그때 다 부수와 불고 해영덜. 글로부터는 그래도 허는 분이 있어마썸.(정월 되면 무당 해서 막 굿하는 사람들이 잇고 그렇지 았으면 집안에 무슨 액운이나 아이들 키우는데 조상들 뭐 신이 잇으면 우리 돌봐 주세요 해 가지고 당에 가서 심방 빌려서 가서 **도 두들기면서 하고 헛는데, 이제는 그걸 사삼사건 나기까지는 헛는데 사삼 나서 끝나서 이젠 부락을 불 붙이고 그 당시에 와서 지서에서 와서 그때 다 부쉬 버리고 해서들. 글로부터는 그래도 하는 분이 있어요.)

101007 @1 음.(음.)

101007 #3 그걸 따라서 정월보름 날에든 동네에서 액막이로 해 가지고 결궁.(그걸 따라서 정월보름 날이면 동네에서 액막이로 해 가지고 결궁.)

101007 @2 예.(예.)

101007 #3 결궁을 해. 결궁. 게서 우리 저거 멘들어단 사진.(결궁을 해. 결궁. 그래서 우리 저거 만들어다가 사진.)

101007 @2 이천육 년도.(이천육 년도.)

101007 #3 예, 것도 한 오륙년까지는 헛수다, 여기도.(예, 것도 한 오륙년까지는 헛습니다, 여기도.)

101007 @1 음.(음.)

101007 #1 헛는데, 이젠 옛날 할망덜 흐는 분덜 몰르고.(헛는데, 이젠 옛날 할머니들 하는 분들 몰르고.)

101007 #2 으라 해 했주.(여러 해 했지.)

101007 #3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글로부터 끊어버렸수게.(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글로부터 끊어 버렸습니다.)

101007 @1 아, 게문 걸궁은 이 마을에서 해마다 해난 거마씨?(아, 그러면 걸궁은 이 마을에서 해마다 했던 거예요?)

101007 #3 그렇죠,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101007 #2 해나수다.(했었습니다.)

101007 @2 이천육 년도 같은데.(이천육 년도 같은데.)

101007 @1 예.(예.)

101007 #3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당 **.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당 **.)

101007 #2 집집마다 돌멩이에 액막이 해줬.(집집마다 돌면서 액막이 해줘서.)

101007 @2 돈도 받고 쌀도 받고.(돈도 받고 쌀도 받고.)

101007 #2 쌀도 받고 술도 받고 경 땡겨집주.(쌀도 받고 술도 받고 그렇게 다녔습죠.)

101007 #3 해났는데 그게 사삼사건 후론 끝났다 허다가 그래도 이젠 옛날 조상들이 허는 거 우리도 하자 ** 것도 좋더라고. 아, 며칠 간 허니까.(했었는데 그게 사삼사건 후론 끝났다 허다가 그래도 이젠 옛날 조상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하자 ** 것도 좋더라고. 아, 며칠 간 하니까.)

101007 #2 재미로.(재미로.)

101007 #3 이제는 그렇게 아는 분이 없어, 이제는.(이제는 그렇게 아는 분이 없어, 이제는.)

101007 @1 예, 그러면 으, 대가 끊겼다가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예, 그러면 으, 대가 끊겼다가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

101007 #3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1007 @1 현 거구나예, 예?(한 거군요, 예?)

101007 #3 사삼사건 당시에 *** 순경들 완에 파리 목숨이난 팡팡 죽이는데 정월보름.(사삼사건 당시에 *** 순경들 와서 파리 목숨이니까 팡팡 죽이는데 정월보름.)

101007 #1 그때 현 게 아니라게.(그때 한 게 아니야.)

101007 #3 끝나지.(끝나지.)

101007 #1 아니라게.(아니야.)

101007 #3 사삼사건 당시에 **. (사삼사건 당시에 **.)

101007 #1 그거 천구백육십일 년도에.(그거 천구백육십일 년도에.)

101007 @1 으.(으.)

101007 #1 아니 육십삼 년도에 이 마을을 떠나 가지고 좀 공직생활을 좀 했는데 그 천구백육십이 년.(아니 육십삼 년도에 이 마을을 떠나 가지고 좀 공직생활을 좀 했는데 그 천구백육십이 년.)

101007 @1 예.(예.)

101007 #1 예, ** 일월달에.(에, ** 일월에.)

101007 @1 예.(예.)

101007 #1 이 저 당고사라고 해 가지고.(이 저 당고사라고 해 가지고.)

101007 @1 예.(예.)

101007 #1 옛날에는 그 예, 무당들이 좀 알아 가지고 막 춤 걸궁도 허곡, 춤도 추고 이제 비넘허는 여자들은 오랑 비넘도 허고 해낫는데, 이것도 한 가지 그 너무 그 재원이 없어 가지고 허니까 간단허게 고사로 험시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고사를 헛는디 혼 헨가 두 해 허니까 새마을운동 때문에.(옛날에는 그 예, 무당들이 좀 알아 가지고 막 춤 걸궁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비넘하는 여자들은 와서 비넘도 하고 헛었는데, 이것도 한 가지 그 너무 그 재원이 없어 가지고 하니까 간단허게 고사로 험시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고사를 헛는데 한 헨가 두 해 하니까 새마을운동 때문에.)

101007 @1 예, 예.(예, 예.)

101007 #1 미신타과로 저거 엇어 불언.(미신타과로 저거 없애 버렸어.)

101007 @1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101007 #1 게연 저거 없어지고 현재까지 남아 잇는 건.(그래서 저거 없어지고 현재까지 남아 잇는 건.)

101007 #2 미신타과 해연에 문딱 부실라 불언.(미신타과 해서 몽땅 부쉬 버렸어.)

101007 #1 포제만 하고 잇다 이렇게 보면 될 거.(포제만 하고 잇다 이렇게 보면 될 거.)

101009 @1 예, 알겠습니다. 이 외도 자랑거리엔 허든 뭐 이시코예?(예, 알겠습니다. 이 외도 자랑거리라고 하면 뭐 있을까요?)

101009 #1 자랑거리 허든 빛이. 외도, 외도 전체로 뵙은.(자랑거리 하면 빛이. 외도, 외도 전체로 봐서는.)

101009 @1 예.(예.)

101009 #2 도지사도게 두 사람씩.(도지사도 두 사람씩.)

101009 #1 아마도 이 외도천이 가장 그 춤 훌륭한 춤 내엿주기.(아마도 이 외도천이 가장 그 춤 훌륭한 춤 내엿지.)

101009 @1 예, 예.(예, 예.)

101009 #1 어떠냐 허든 옛날엔 그 석, 예 석상, 석상페라고 하는가.(어떠하냐 하면 옛날엔 그 석, 예 석상, '석창포'라고 하는가.)

101009 #2 청창페?('석창포')?

101009 #1 저 돌에.(저 돌에.)

101009 @1 예.(예.)

101009 #3 청창페, 청창페.(‘석창포’, ‘석창포’.)

101009 #2 청창폐, 청창폐.(‘석창포’, ‘석창포’.)

101009 #1 그게 그 지금 외도천 으, 그.(그게 그 지금 ‘외도천’ 으, 그.)

101009 #2 바위에 딱 부떠 가지고.(바위에 딱 붙어 가지고.)

101009 #1 안네.(안애.)

101009 @1 예.(예.)

101009 #1 골고로.(골고루.)

101009 #2 물 흐르는.(물 흐르는.)

101009 #1 돌이 잇으면은.(돌이 있으면.)

101009 #2 그 아래 왕 놀아.(그 아래 와서 놀아.)

101009 #1 돌마다 부떠 가지고 그거 나고.(돌마다 붙어 가지고 그거 나고.)

101009 @1 예.(예.)

101009 #1 그 틈새에 안에서 은어가 놀곡 행은에 우리도 어린 때 그 춤 삼봉이 라고 해 가지고 낚싯줄 멘들앙.(그 틈새에 안에서 은어가 놀고 해서 우리도 어릴 때 그 참 삼봉이라고 해 가지고 낚싯줄 만들어서.)

101009 #2 많이 잡아십주.(많이 잡았습죠.)

101009 @1 예.(예.)

101009 #1 그게 해방 똬에 그냥 허니까 그냥 그 약, 약초 캐는 사름덜이 문딱 그 석상폐를 문딱 저 문질러 가져가 불었어.(그게 해방 되어서 그냥 하니까 그냥 그 약, 약초 캐는 사람들이 몽땅 그 석창포를 몽땅 저 무질러서 가져가 버렸어.)

101009 @1 예.(예.)

101009 #1 그것도 잇고, 춤 이 수도 공사. 저 이 수도 공사, 수도 공사 허게 똬니까 그딴 물을 먹게 똬니까 저거 그 내를 그디 거 건드령 파헤칠 때 엇어져 불언.(그것도 있고, 참 이 수도 공사. 저 이 수도 공사, 수도 공사 하게 되니까 거기 물을 먹게 되니까 저거 그 내를 거기 거 건드려서 파헤칠 때 엇어져 버렸어.)

101009 @1 음.(음.)

101009 #1 경 아녀민 문 상당히 아름다운.(그렇게 얹으면 몽땅 상당히 아름다운.)

101009 #2 이제도 많이 잇수다. 이제 또 번성해 가멘.(이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번성해 가요.)

101009 #1 아름다운 춤 하천이라.(아름다운 참 하천이야.)

101009 #2 사름덜 못 다니게 허니까 지금은 번성했지.(사람들 못 다니게 하니까 지금은 번성했지.)

101009 #1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

101009 #3 우렁이 올레에 그거 다 심어낫주기.(‘우렁이’ 오래에 그거 다 심었었지.)

101009 @1 음.(음.)

101009 #2 약초로.(약초로.)

101009 #3 베염 안 땡긴텐 허연.(뺨 안 다닌다고 해서.)
 101009 #2 약초로.(약초로.)
 101009 @1 약초로예?(약초로요?)
 101009 #3 약초도. 베염 안 땡긴텐.(약초도. 뺨 안 다닌다고.)
 101009 #2 검질메기, 검질메기 실프민 그거 싱거 불민 검질도 그거에 물렁 안 나예.(김매기, 김매기 싫으면 그거 심어 버리면 김도 그거에 말려서 안 나요.)
 101009 #3 골목 뒤편 집은 다 심거 가지고, 그 파 가지고.(골목 뒤편 한 집은 다 심어 가지고, 그 파 가지고.)
 101009 #2 옛날은 골목이 질게시리덜 허연 살아십주게.(옛날은 골목이 길게 해서 살았습죠.)
 101009 @1 예.(예.)
 101009 #3 그게 골목이주, 요즘예.(그게 골목이지, 요즘예.)
 101009 #1 경 허고 또 외도 다리 아래.(그렇게 하고 또 외도 다리 아래.)
 101009 @1 예.(예.)
 101009 #1 그디가 갯맞⁹⁷⁾이.(거기가 ‘갯맞’이.)
 101009 @1 개맞.(‘개맞’.)
 101009 #1 갯맞이라, 갯맞.(‘갯맞’이야, ‘갯맞’.)
 101009 @2 예, 예.(예, 예.)
 101009 @1 갯맞예.(‘갯맞’요.)
 101009 #1 옛날에는 글로 해 가지고 일본에 군대환⁹⁸⁾도 텅겨낫텐 허는다.(옛날에는 글로 해 가지고 일본에 군대환도 다녔었다고 하는데.)
 101009 @1 음.(음.)
 101009 #1 저게 자꾸 매몰되어 가지고 허는 이유가 그 뭐냐 허든 그 저 내 동쪽으로 거기에 참 담을 쌓아 가거나 이렇게 해 가난 그디 그 모래가 경 저축돼 가지고 그 메워져 가지고.(저게 자꾸 매몰되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 뭐냐 하면 그 저 내 동쪽으로 거기에 참 담을 쌓아 가거나 이렇게 해 가니까 거기 그 모래가 그렇게 저축돼 가지고 그 메워져 가지고.)
 101009 #2 알작지⁹⁹⁾로 그거 먼 메와 불엿수게. 메와져 불엿수게.(‘알작지’로 그거 몽땅 메워 버렸습니다. 메워져 버렸습니다.)
 101009 #1 헛지. 그 전에는.(헛지. 그 전에는.)
 101009 @2 아까 석상베마씨?(아까 ‘석상베’요?)
 101009 #2 청창폐.(석창포.)
 101009 #3 청창폐.(석창포.)
 101009 #1 이 저 난 닦은 거 질게 나는 거 잇수다게.(이 저 난 닦은 거 질게 나

97) ‘갯맞’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浦]의 물 쪽이 되는 곳을 말한다.

98) ‘군대환, 君が代丸 기미가요마루’ 제주도과 일본 오사카[大阪]을 연결시킨 직행노선의 객선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 사람들은 이 배를 이용하여 일본을 오갔다.

99) ‘알작지’는 제주시 외도동의 바다 지경이다. 해안에 ‘작지’ 즉 자갈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는 거 있습니다.)

101009 @1 표준어로는 석창포.(표준어로는 석창포.)

101009 #3 으.(으.)

101009 #2 아, 석창풀 거라.(아, 석창풀 거야.)

101009 @2 으음.(으음.)

101009 #1 석창폰가 석창페.(석창폰가 ‘석창페’.)

101009 @1 석창페렌 헨에 헛구나. 석창페 허니까.(‘석창페’라고 해서 헛구나. 석창포 하니까.)

101009 #2 청창페.(‘청창포’.)

101009 @1 여기서는 청창페예, 예. 표준어는 석창포.(여기서는 ‘청창페’요, 예. 표준어는 석창포.)

101009 @2 으으.(으으.)

101009 #2 석창포가 맞을 거여.(석창포가 맞을 거야.)

101009 #1 그제 그거, 그거. 그제 그거.(그제 그거, 그거. 그제 그거.)

101009 @1 약초하고 꽃도 피고예?(약초하고 꽃도 피고요?)

101009 #3 거 오월 단오에 뿌리 허영은에 머리도 ** 감곡. 머리도 감고 그 뿌리 해 가지고. 머리 감곡 헤난 거.(거 오월 단오에 뿌리 해서 머리도 ** 감고. 머리도 감고 그 뿌리 해 가지고. 머리 감곡 했던 거.)

101009 #1 우리 마을에 원 자랑허영은에 이거 빗날 게 엇네이.(우리 마을에 원 자랑해서 이거 빗날 게 없네.)

101009 #3 없어.(없어.)

101009 @1 옛날 월대 그.(옛날 ‘월대’ 그.)

101009 #2 월대¹⁰⁰가.(‘월대’가.)

101009 @1 그거 외도천에예?(그거 외도천에요?)

101009 #2 갯맛에.(‘갯맛’에.)

101009 #1 외도일동 이 경계가 그 월대 그 저 내.(외도일동 이 경계가 그 월대 그 저 내.)

101009 @1 예.(예.)

101009 #2 이 저 옛날 구 한길, 구 신작로 남쪽은 다 외도일동이난에.(이 저 옛날 구 큰길, 구 신작로 남쪽은 다 외도일동이니깐.)

101009 @1 예, 예.(예, 예.)

101009 #1 거기에 뭐 거의 속, 속하다시피 헛주.(거기에 뭐 거의 속, 속하다시피 헛지.)

101009 @1 예전에 그 월대 이신디 허면 은어튀김 이런 것도.(예전에 그 월대

100) ‘월대’는 제주도 외도2동에 있는 대 이름이다. 월대는 예전에 시인과 묵객들이 달뜨기를 기다렸다가 시문을 돌우었던 대로, 인근 월대천에는 은어가 놀고 풍치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월대’는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동쪽 숲 사이로 떠오르는 달이 맑은 물에 비쳐 밝은 달그림자를 드리운 모습을 구경하는 ‘대’라는 전설도 전한다. ‘월대’가 있는 마을은 ‘월대마을’이라고 한다.

있는데 하면 은어튀김 이런 것도.)

101009 #1 월대사 참말로.(‘월대’야 참말로.)

101009 #3 지금도 은엇집¹⁰¹⁾ 셔?(지금도 ‘은엇집’ 있어?)

101009 @1 은엇집 잇어마씨?(‘은엇집’ 있어요?)

101009 #3 가당 먹어.(가다가 먹어.)

101009 @1 웃음.(웃음.)

101009 #3 웃음.(웃음.)

101009 @1 예.(예.)

101009 #2 외도팔경엔 현 것도 잇어나지 아녀수가?(외도팔경이라고 한 것도 있었는지 앓았습니까?)

101009 #3 무사 엇어?(왜 없어?)

101009 #2 외도팔경 몰릅니까?(‘외도팔경’ 모릅니까?)

101009 #1 외도팔경은.(‘외도팔경’은.)

101009 #3 저디 책에 실 건데.(저기 책에 실 건데.)

101009 #2 우린 모르주.(우린 모르지.)

101009 @1 으.(으.)

101009 #2 큰아버지 신 때는 거 잘 알아났는데.(큰아버지 있을 때는 거 잘 알았었는데.)

101009 #3 이 형님도 알아. 달밤에 술잔 비우면 뭐 달이 비쳐 가지고 뭐허는 노래 잇주게.(이 형님도 알아. 달밤에 술잔 비우면 뭐 달이 비쳐 가지고 뭐하는 노래 있지.)

101009 @1 예.(예.)

101009 #1 씨져신가? 이런 디 웃일 거라.(쓰여 있는가? 이런 데 없을 거야.)

101009 #3 아, 거기 엇수다.(아, 거기 없습니다.)

101009#1 아니.(아니.)

101009#2 거긴 엇고, 거긴 엇고 이번 월대에서 행사할 때 책 이실 건디.(거긴 없고, 거긴 없고 이번 ‘월대’에서 행사할 때 책 있을 건데.)

101009 #2 아, 그거엔 안 나옵니다.(아, 그거엔 안 나옵니다.)

101009 @1 예, 알아수다.(예, 알겠습니다.)

101009 @2 어르신.(어르신.)

101009 #1 이진 저 축 ㄱ뜬 거벧과 없네.(이진 저 축 같은 거밖에 없네.)

101009 #3 이 백부님이 쓴 책이주게. 자필로 써 가지고 복사헨 놔둔 건디.(이 백부님이 쓴 책이지. 자필로 써 가지고 복사해서 놔둔 건데.)

101009 @1 이 마을에 대한 거예?(이 마을에 대한 거요?)

101009 #3 예.(예.)

101009 @1 아.(아.)

101) 여기에서 ‘은엇집’은 은어를 재료로 해서 음식을 파는 집을 가리킨다.

101009 #3 유래로.(유래로.)

101009 @2 축시. 예, 예, 예, 예.(축시. 예, 예, 예, 예.)

101010 @1 그러면은 그거 말고 이 외에도 자랑거리도 잊지마는 더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이야기는 엇어마씨?(그러면 그거 말고 이 외에도 자랑거리도 잊지마는 더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이야기는 없어요?)

101010 #3 마을에 덧붙일 우리는 뭐 옛날 분덜 허젠, 덧붙일 거 엇을 거 같아 배.(마을에 덧붙일 우리는 뭐 옛날 분들 하려고, 덧붙일 거 없을 거 같아 배.)

101010 @1 예.(예.)

101010 #3 우리 사는 우렁인 나서 허는 거 고대로 허고 또 들은 대로 헛자 무슨 크게 무슨 어디 간 행정이나 보고 무슨 뭐 직장이나 뭐 광고에 뭐 되는 분도 별로 없어 배고. 도의원 이제 춤 흥 분 종사했주마는 그 전에는 우리 모습에 별 별 뭐가 엇어.(우리 사는 '우렁이'는 나서 하는 거 그대로 하고 또 들은 대로 해도 무슨 크게 무슨 어디 가서 행정이나 보고 무슨 뭐 직장이나 뭐 광고에 뭐 되는 분도 별로 없어 보이고. 도의원 이제 참 한 분 종사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 마을에 별 별 뭐가 없어.)

101010 @1 예, 알아수다. 게문 다른 거 물어보कर라, 이젠예?(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젠요?)

2. 제보자 일생

102001 @1 계난, 삼촌 여기에서 언제 나고 어떤 생활을 허멍 살았수가? 이제까지.(그러니까, 삼촌 여기에서 언제 나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102001 #4 이제까지.(이제까지.)

102001 @1 예.(예.)

102001 #4 나 춤 이 나 어린 때부터 우리 아버진 나 돌 전이 우리 아버진 세상을 떠 불고.(나 참 이 나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진 나 돌 전에 우리 아버진 세상을 떠 버리고.)

102001 @1 음.(음.)

102001 #4 경 허난 할머니 할아버지네광안테 나 컨.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라나 신다.(그렇게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네한테서 나 컸어.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었었는데.)

102001 @1 음.(음.)

102001 #4 경 허난 이제 경 허연 허단에 우리 죽은아버지넨 일본 살아나신디.(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가 우리 작은아버지넨 일본 살았었는데.)

102001 @1 음.(음.)

102001 #4 일본서 우리 아버지 형제라나신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난 춤 아니

왕, 오젠 현디 막 옛날은 그런 말이 잇주기게. 지금 ㄹ트민 전보 치곡 전화로 할 건디.(일본서 우리 아버지 형제였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참 아니 와서, 오려고 했는데 아주 옛날은 그런 말이 있지. 지금 같으면 전보 치고 전화로 할 건데.)

102001 @1 예.(예.)

102001 #4 옛날이난 경 골안게. 춤 호출허다실펬.(옛날이니까 그렇게 말하던데. 참 호출하다실펬.)

102001 @1 음.(음.)

102001 #4 막 기냥 허난 우리 작은아버지네가 완게. 완 허난 나가 저 작은아버지네 손에 크고 우리 스춘덜이영 ㄹ치 어린 때부터.(막 그냥 하나까 우리 작은아버지네가 왔어. 와서 하나까 내가 저 작은아버지네 손에 크고 우리 사촌들이랑 같이 어릴 때부터.)

102001 @1 음.(음.)

102001 #4 어린 때부터 나가 여동생 하나 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긴 전윈 우리 여동생은 우리 어머니가 가진 중 몰라난 생이라.(어릴 때부터 내가 여동생 하나 있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긴 전윈 우리 여동생은 우리 어머니가 가진 줄 몰랐던 모양이야.)

102001 @1 음.(음.)

102001 #4 경현디 가전에 허연, 춤 우리 여동생아올라 여자 몸이 돼연게. 경 허연 헤연 우리 어머니가 경 헤연 살단에. 우리 어머니가 막 젊을 때게. 옛날은 얼른 춤 쭈무남은만 나 가민 결혼덜 시킨 거 아니?(그런데 가져서 해서, 참 우리 여동생마저 여자 몸이 되었어. 그렇게 해서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젊을 때. 옛날은 얼른 참 스무남은만 되어 가면 결혼들 시킨 거 아니?)

102001 @1 예, 예.(예, 예.)

102001 #4 경 허난 경 허난 우리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부난 우리 딸 성제고 경 헤연 허난 어떻 허단 보난 웨가에서 크다실펬 우리 웨삼촌들이 하귀¹⁰²⁾라게.(그렇게 하나까 그렇게 하나까 우리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버리니까 우리 딸 형제고 그렇게 해서 하나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외가에서 크다실펬 우리 외삼촌들이 ‘하귀’야.)

102001 @1 아아.(아아.)

102001 #4 하귀, 옛날은 하귀 ㄹ라 귀리¹⁰³⁾렌 헤낫주기, 귀리.(‘하귀’, 옛날은 ‘하귀’보고 ‘귀리’라고 했었지, ‘귀리’.)

102001 @1 귀리.(‘귀리’.)

102001 #4 이, 귀릿장. 하, 하귀 귀릿장¹⁰⁴⁾에 그 장 사낫어게.(이, ‘귀릿장’. 하, 하귀 ‘귀릿장’에 그 장 섰었어.)

102)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103) ‘귀리’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옛 이름이다.

104) ‘귀릿장’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섰던 오일장 이름이다.

102001 @1 예.(예.)

102001 #4 경 허난 오일장.(그렇게 하니까 오일장.)

102001 @1 음.(음.)

102001 #4 경 허난 귀릿장에 가자, 귀릿장에 가자, 경덜 허연 허고. 귀리엔 헤냏 주게.(그렇게 하니까 ‘귀릿장’에 가자, ‘귀릿장’에 가자, 그렇게들 해서 하고. ‘귀리’라고 했었지.)

102001 @1 음.(음.)

102001 #4 귀리엔 허고. 이 외도도 지금 외돈덴 옛날은 도그내¹⁰⁵⁾.(‘귀리’라고 하고. 이 외도도 지금 외돈덴 옛날은 ‘도그내’.)

102001 @1 아, 도그네.(아, ‘도그내’.)

102001 #4 도그내. 지금도 이딴 서착. 내 지난 서쪽이난 서착, 저 내 동쪽은 동착.(‘도그내’. 지금도 여기는 ‘서착’. 내 있으니까 서쪽이니까 서쪽, 저 내 동쪽은 ‘동착’.)

102001 @1 으.(으.)

102001 #4 지금도 경 곶아.(지금도 그렇게 말해.)

102001 @1 예.(예.)

102001 #4 경 ㄴ는 사름도 잇고 표준말로 지금 말로는 내도¹⁰⁶⁾ 외도¹⁰⁷⁾.(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표준말로 지금 말로는 ‘내도’ ‘외도’.)

102001 @1 음.(음.)

102001 #4 경 허곡 경 헤나신디. 아이고, 우리 할머니네광 경 허연 살단 춤 나가 족은어머니 족은아버지네광 살단 우리 스촌 아시넨 이제 부영¹⁰⁸⁾ 살아.(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고, 우리 할머니네와 그렇게 해서 살다가 참 내가 작은 어머니 작은아버지네랑 살다가 우리 사촌 아우넨 이제 ‘부영’ 살아.)

102001 @1 예.(예.)

102001 #4 우리 딸네[딸레] 즈궏되 사는디. 경 이녁 형제간ㄴ치 허곡 우리 스촌 오래비가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니까.(우리 딸네 곁에 사는데. 그렇게 이녁 형제간 같이 하고 우리 사촌오라비가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니까.)

102001 @1 음.(음.)

102001 #4 지금 기일 제스도 스촌아지망이 허여. 우리 스촌오래비도 저 세상 떠 불고.(지금 기일 제사도 사촌올케가 해. 우리 사촌오라비도 저 세상 떠 버리고.)

102001 @1 예.(예.)

102001 #4 경 허난 스촌아지망이 허영. 이녁 혼 막 동기간보단도 더 허고 우리 그 스촌오래비가 막 경 헤연 어린 때 부모 잃언 뒤 허연 할머니네광 산 중 알곡 경 허난 커 가난 우리 스촌오래비도 옛날 그 시¹⁰⁹⁾에 상고¹¹⁰⁾이.(그렇게 하니까 사촌

105) ‘도그내’는 제주시의 옛 이름이다. 한자로 ‘도근천’이라고 한다.

106) ‘내도’는 제주도 내도동을 말한다.

107) ‘외도’는 제주도 외도동을 말한다.

108) 여기에서 ‘부영’은 부영아파트를 가리킨다.

올케가 해서. 이녀 한 막 동기간보다도 더 하고 우리 그 사촌오라비가 막 그렇게 해서 어릴 때 부모 잃어서 뭐 해서 할머니네랑 산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커 가니까 우리 사촌오라비도 옛날 그 제주시에 ‘상고’.)

102001 @1 예.(예.)

102001 #4 상고 나오고 경 헤신디 이제 그전엔 요디 외도 살아났어. 우리 저 할머니네 집의덜 경 허연 살아나신디 그 오라비가 나신디 허는 말이 누님, 이녀 동생 여동생도 서너이 잇주마는.(‘상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전엔 여기 외도 살았었어. 우리 저 할머니네 집에들 그렇게 해서 살았었는데 그 오라비가 나한테 하는 말이 누님, 이녀 동생 여동생도 서넛 있지만.)

102001 @1 음.(음.)

102001 #4 날 불쌍히 네기곡 막 경 허연 나 무신거 어린 때난게.(날 불쌍히 여기고 막 그렇게 해서 나 무엇 어릴 때니까.)

102001 @1 예.(예.)

102001 #4 잘못된 일이 셔도이 나신더래 욱 안 허영 다 이젠 생각나곡 알아져.(잘못한 일이 있어도 나한테로 욱 안 해서 다 이젠 생각나고 알아져.)

102001 @1 음.(음.)

102001 #4 욱 안 허영 이녀 동기간신더래 나 잘못된 것도.(욕 안 해서 이녀 동기간한테로 내 잘못된 것도.)

102001 @1 음, 음.(음, 음.)

102001 #4 욱허곡 경 헤여났주게. 경 허명 경 헤여 놓난 지금도 스춘 닭진 안 허영게.(욕하고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도 사촌 같지 안 해서.)

102001 @1 예.(예.)

102001 #4 형제간보담 더 기냥 날 생각허곡 우리 아시 하나 잇단 저 세상 떠 불고이.(형제간보다 더 그냥 날 생각하고 우리 아우 하나 있다가 저 세상 떠 버리고.)

102001 @1 음.(음.)

102001 #4 경 허연게. 아이고, 경 헤연 허난 옛날은 지금 ㄹ때민 경 딸이고 아덜이고 하나들 낭 말아신디 옛날은 가지는 대로 낭단 보난 아덜은 하나고 벗 부치젠 허단 보난 딸이 으라 개.(그렇게 했어.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옛날은 지금 같으면 그렇게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들 나서 말았는데 옛날은 가지는 대로 낭다가 보니까 아들은 하나고 벗 붙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딸이 여러 개.)

102001 @1 음.(음.)

102001 #4 웃음. 경 허난 우리 말젼씨아버님이 일본 살아신디 오랏단에 우리 아덜 하나 이신디.(웃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셋째시아버님이 일본 살았는데 왔다가

109) 여기에서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이전의 제주시를 말한다.

110) 여기에서 ‘상고’는 제주상업고등학교를 말한다. 지금은 제주중앙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102001 @1 음.(음.)

102001 #4 경 허연 들양 강은에 뭐허켄 허연 어린 때부터.(그렇게 해서 데려서 가서 뭐하겠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102001 @1 예.(예.)

102001 #4 이디 중학교 일학년 쯤에 뭐헨 가실 거라게.(여기 중학교 일학년 쯤에 뭐해서 갔을 거야.)

102001 @1 음.(음.)

102001 #4 경 해연 허난 거기 사름 돼여 불언.(그렇게 해서 하니까 거기 사람 되어 버렸어.)

102001 @1 예.(예.)

102001 #4 거기 사름 돼여 불언, 우리 말쑈아빠님넨 다 돌아가서 불고 헌디 이제 이제 춤 막 오래엿주게. 쓰무남은에 가난.(거기 사람 되어 버려서, 우리 셋째 아빠님넨 다 돌아가서 버리고 했는데 이제 이제 참 아주 오래였지. 스무남은에 가니까.)

102001 @1 예, 예, 예.(예, 예, 예.)

102001 #4 경 허난 우리 아덜이 오십오답이라. 거기서 결혼허연이, 거기서 결혼 허연에 이제 아덜 하나 난 허여신디 나도 두 번 가완.(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쉰여덟이야.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결혼해서 이제 아들 하나 나서 했는데 나도 두 번 가왔어.)

102001 @1 음.(음.)

102001 #4 결혼식 허노렌 허난 결혼식에 가오고. 아기 난에 돌 험수덴 해연 돌 잔치에 가오고 나도 춤 일본 비행기 두 번 타 봤. 웃음.(결혼식 하노라고 하니까 결혼식에 가오고. 아기 나서 돌 하고 있습니다고 해서 돌잔치에 다녀오고 나도 참 일본 비행기 두 번 타 봤어. 웃음.)

102001 @1 예.(예.)

102001 #4 경 해연 허여신디 이디 그디 우리 메누리가 한국 사름 ㅁ뜨민 나가 그디 가져실 건디.(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거기 우리 며느리가 한국 사름 같으면 내가 거기 가졌을 건데.)

102001 @1 그니까.(그러니까.)

102001 #4 게난 우리 아덜이 경 허는 거라. 어머니, 왕 살당 집의 가켄 허믄 나가 데려가곡 데려오곡 자꾸 허쿠텐.(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 와서 살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내가 데려가고 데려오고 자꾸 하겠다고.)

102001 @1 음.(음.)

102001 #4 경 허는 거라. 경 해연 허고테.(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니까.)

102001 @1 음.(음.)

102001 #4 아이고, 것도 말이 쉽주.(아이고, 것도 말이 쉽지.)

102001 @1 으.(으.)

102001 #4 이제 직장 땡기꼭 경 못 한다 경 허멍 이디 아무도 엇이민 홀 수 엇이 나가 가졌주게.(이제 직장 다니고 그렇게 못 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아무도 없으면 할 수 없이 내가 가졌지.)

102001 @1 그렇지.(그렇지.)

102001 #4 경 허주만은 이디 딸덜이 으라 성제 셴 경 허난 딸덜 잇고 허난 이디 저.(그렇게 하지만 여기 딸들이 여러 형제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딸들 잇고 하니까 여기 저.)

102001 @1 음.(음.)

102001 #4 웃음.(웃음.)

102001 @1 그냥 글읍서.(그냥 말하십시오.)

102001 #4 경 해연 이제도록 허연 살암**. 지금도 우리 스춘 아시가 이녁 동기간보단도 흥배 동기간보단도 더 나를 생각허여게.(그렇게 해서 이제도록 해서 살고 있**. 지금도 우리 사춘 아우가 이녁 동기간보다도 한배 동기간보다도 더 나를 생각해.)

102001 @1 예.(예.)

102001 #4 저기 부영 사는디.(저기 ‘부영’ 사는데.)

102001 @1 예.(예.)

102001 #4 경 허영 막 뭐 허영 허꼭. 기자 계난 아시에 나가 웨롭게 살렌 현 팔잔고라.(그렇게 해서 막 뭐 해서 하고. 그저 그러니까 아예 내가 외롭게 살라고 한 팔자인고로.)

102001 @1 음.(음.)

102001 #4 웨롭게 살렌 현 팔잔고라 아시 하나 신 거, 신디도 저 세상 떠 불고이. 경 허연 허여도 딸덜이 지난 게도 뭐 허여. 옛날. 웃음.(외롭게 살라고 한 팔자인고로 아우 하나 있는 거, 있는데도 저 세상 떠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도 딸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해. 옛날. 웃음.)

102002 @1 알아수다. 계난 그 어머니는 어떤 일 해난마씨? 여기 살 때.(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어떤 일 했었어요? 여기 살 때.)

102002 #4 누게 나?(누구 나?)

102002 @1 예, 아니, 삼촌네 어머니.(예, 아니, 삼촌네 어머니.)

102002 #4 우리 어머니.(우리 어머니.)

102002 @1 으.(으.)

102002 #4 옛날이사 뭐허여게. 옛날은 뭐 허여게. 옛날은 모즈도 좃고이.(옛날이야 뭐해. 옛날은 뭐 해. 옛날은 모자도 곁고.)

102002 @1 으.(으.)

102002 #4 모즈¹¹¹⁾ 그 옛날 노인네덜 탕근 쓰꼭 뭐 허는 그런 모즈, 옛날은.(모

자 그 옛날 노인네들 탕건 쓰고 뭐 하는 그런 모자, 옛날은.)

102002 @1 음.(음.)

102002 #4 그것고, 나도 무신거 해놔어. 그물 짜는 거이.(그것이고, 나도 무엇 했었어. 그물 짜는 거.)

102002 @1 예.(예.)

102002 #4 바농대에 썰 감아근에. 그거 허영 썰 타다근에 그거 허영 뒤희는 사람이 시난 썰 타당 그거 허영 그물 짜곡 경 허영 용돈 벌영 쓰곡 경 허연 현디.(바늘대에 실 감아서. 그거 해서 실 타다가 그거 해서 뒤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 타다가 그거 해서 그물 짜고 그렇게 해서 용돈 벌어서 쓰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102002 @1 음.(음.)

102002 #4 계난 나 저 일본시대¹¹²⁾ 아니, 그땐.(그러니까 나 저 일제강점기 아니, 그땐.)

102003 @1 예, 예.(예, 예.)

102003 #4 일본시댄디 초등학교도 못 나왔게, 나.(일제강점기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

102002 @1 예게, 아고 그때야 뭐 다 경험주게.(예, 아이고 그때야 뭐 다 그렇게 합지요.)

102002 #4 초등학교도 못 나왔에 경 허연. 웃음.(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렇게 했어. 웃음.)

102003 @1 그.(그.)

102003 #4 겨영저영 살단 보난 이 나이 이제 나 이제 널모리 이제 팔십너이난 널모리 팔십다섯.(그래저래 살다 보니까 이 나이 이제 나 이제 널모레 이제 여든넷 이니까 널모레 여든다섯.)

102003 @1 예, 경 해도 막 정정허여마씨?(예, 그렇게 해도 아주 정정해요?)

102003 #4 웃음.(웃음.)

102003 @1 계난 어머니 고향은 어디마씨? 저기 어머, 그.(그러니까 어머니 고향은 어디예요? 저기 어머, 그.)

102003 #4 우리 친정어머니?(우리 친정어머니?)

102003 @1 으.(으.)

102003 #4 하귀. 지금 ㄴ트민 하귀, 옛날엔 귀리엔 해놔주게.(‘하귀’. 지금 같은 ‘하귀’, 옛날엔 ‘귀리’라고 했었지.)

102003 @1 예, 예. 귀리.(예, 예. ‘귀리’.)

102003 #4 귀리, 귀릿장에 가자, 경도 허곡, 저 지금은 표준말로 하귀.(‘귀리’, ‘귀릿장’에 가자, 그렇게도 하고, 저 지금은 표준말로 ‘하귀’.)

102003 @1 계른 아버지 고향은 어디?(그러면 아버지 고향은 어디?)

111) 여기에서 ‘모즈’는 갓모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112) ‘일본시대’는 제보자가 ‘일제강점기’의 의미로 쓴 말이다.

102003 #4 저 원래 우리 아버진 금덕¹¹³), 애월면¹¹⁴ 금덕.(저 원래 우리 아버진 ‘금덕’, ‘애월면’ ‘금덕’.)

102003 @1 예.(예.)

102003 #4 지금은 이수암¹¹⁵엔 현 디.(지금은 ‘유수암’이라고 한 데.)

102003 @1 유수암. 예, 아 경 혜영은에.(‘유수암’. 예, 아 그렇게 해서.)

102003 #4 이수암.(‘유수암’).

102003 @1 여기는 게문 외도에는 언제 온 거마씨?(여기는 그러면 외도에는 언제 온 거예요?)

102003 #4 외도에 저 언제 우리 어린 때 완. 우리 하르버지가 우리 족은아버지가 일본서 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부난 막 오랜, 지금은 전화허곡 전, 뭐 편지로 해도 돼주마는 경헌 전화 세상이 었인 때난 아니 오젠 허는 걸 옛날 말로 호출게. (외도에 저 언제 우리 어릴 때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일본서 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니까 막 오라고, 지금은 전화하고 전, 뭐 편지로 해도 되지만 그런 전화 세상이 없을 때니까 아니 오려고 하는 걸 옛날 말로 호출.)

102003 @1 예.(예.)

102003 #4 막 그냥 범으로.(막 그냥 범으로.)

102003 @1 으.(으.)

102003 #4 경 험 오랜 허연 우리 아버지 었어 부난에 경 허연 오랜 불런 우리 할머니 하르버지 돌아가셔 부난.(그렇게 해서 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었어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오라고 불려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니까.)

102003 @1 으.(으.)

102003 #4 우리 족은아버지 족은어머니네광 나가 산디 스촌덜이 이녁 친동기간 보단 더 나를 생각허연게. 큰아방 딸로.(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네랑 내가 살았는데 사촌들이 이녁 친동기간보단 더 나를 생각했어. 큰아버지 딸로.)

102003 @1 예.(예.)

102003 #4 경 허연 막 허연 허난 우리 요디 집이 셔나서게. 경 현디.(그렇게 해서 아주 해서 하니까 우리 여기 집이 있었었어. 그런데.)

102003 @1 게난 원래 게문 그 웨할머니 웨하르버지는 외도엿수가?(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외도엿습니까?)

102003 #4 하귀.(‘하귀’.)

102003 @1 아, 하귀고. 그 큰아버지가.(아, ‘하귀’고. 그 큰아버지가.)

102003 #4 우리 하르버지넨 애월면 금덕.(우리 할아버지네는 ‘애월면’ ‘금덕’.)

102003 @1 예.(예.)

102003 #4 옛날은 이수암.(옛날은 ‘유수암’.)

113) ‘금덕’은 예전에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를 이르던 말이다.

114) ‘애월면’은 제주시 ‘애월읍’의 이전 행정 단위다.

115) ‘이수암’은 제보자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제보자는 ‘유수암’을 ‘이수암’이라고 발음하였다.

102004 @1 예, 알아수다. 삼촌 어렸을 때는 우리 놀기도 하영 허잖아예? 어떤 놀이 허멍 놀아났수가? 옛날에.(예, 알았습니다. 삼촌 어렸을 때는 우리 놀기도 많 이 하잖아요? 어떤 놀이 하면서 놀았었습니까? 옛날에.)

102004 #4 우리 여기 잇을 땐 저 이디 외도 드리 잇지이?(우리 여기 잇을 땐 저 여기 외도 다리 있지?)

102004 @1 예.(예.)

102004 #4 드리 그디 흐뎡 땅 널른 디 그디 성 허든, 웃음. 백몰래.(다리 거기 조금 땅 너른 데 거기 있어서 하면, 웃음. 백모래.)

102004 @1 예.(예.)

102004 #4 백몰래 영 담아다근앵에 글로 영 영 그뭇 굿영.(백모래 이렇게 담아 다가 그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금 그어서.)

102004 @1 으.(으.)

102004 #4 그것고라 옛날 일본 그 뭇으로 경 곶아신가. 하시아다리¹¹⁶.(그것보 고 옛날 일본 그 뭇으로 그렇게 말했는가. ‘하시아다리’.)

102004 @1 아.(아.)

102004 #4 하시아다리 허게, 경 허여근에 허영 놀곡.(‘하시아다리’ 하자, 그렇게 해서 해서 놀고.)

102004 @1 예.(예.)

102004 #4 경 허영 막 그냥 서로 영 막 밀리곡 서로 등기곡 경 허멍 허멍 그런 것도 허영 놀아나곡.(그렇게 해서 막 그냥 서로 이렇게 막 밀리고 서로 당기고 그런 게 하면서 하면서 그런 것도 해서 놀았었고.)

102004 @1 예.(예.)

102004 #4 베뿔락도 허연, 웃음. 허어나고.(줄넘기도 했어, 웃음. 했었고.)

102004 @1 예, 베뿔락도 허고.(예, 줄넘기도 하고.)

102004 #1 경 허연.(그렇게 했었어.)

102004 @1 또 그것 말고 다른 노래는? 놀이는?(또 그것 말고 다른 노래는? 놀 이는?)

102004 #4 다른 놀인 그자 그 하시아다리엔 현 거. 하시아다리 현 말은 일본 말 일 거라게.(다른 놀인 그저 그 ‘하시아다리’라고 한 거. ‘하시아다리’ 한 말은 일본 말일 거야.)

102004 @2 예.(예.)

102004 #4 하시아다리 허자.(‘하시아다리’ 하자.)

102004 @1 예.(예.)

102004 #4 경 허연 백몰래 해당 영 그뭇 굿어근에. 웃음. 그거 허어나고. 베뿔락

116) ‘하시아다리’는 아이들의 놀이의 한 가지다. 정확하게 어떤 놀이인지는 모르나,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시아다리’는 일본어 ‘하시 와타리(はし わたり)’를 이렇게 발음한 게 아닌가 한다. ‘하시 와타리’는 ‘다리 건너 기’라는 의미로, 구술 내용의 ‘백모래’로 금을 그어서 서로 밀리고 잡아 다니고 하는 행위 등으로 보아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허곡. 땅따먹을락.(그렇게 해서 백모래 해다가 이렇게 금 그어서. 웃음. 그거 했었고. 줄넘기 하고. 땅따먹기.)

102004 @1 예.(예.)

102004 #4 영 허영 무시거 허영 허른 영 너개반듯허게 영 허여근에 땅따먹을락 허자 허민 뽀으로 영 허여근에 영 폐왕 무시거이.(이렇게 해서 무엇 해서 하면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땅따먹기 하자 하면 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서 무엇.)

102004 @1 예.(예.)

102004 #4 영 허영 사금파리나 쪼끄만헌 거나 뭐 돌세기나 무시거 허영 무시거 놔근에 영 툯 튀와근엔에 허영 허른 그 상대방 그 거세길 영 그 맞이민 땅따먹을락 허영 영 허여근에 그뭇 곳영 땅 그뭇 곳영 이녁이 따먹을락 그거.(이렇게 해서 사금파리나 쪼그마한 거나 뭐 돌맹이나 무엇 해서 무엇 놔서 이렇게 툯 텅겨서 해서 하면 그 상대방 그 거시길 이렇게 그 맞으면 땅따먹기 해서 이렇게 해서 금 그어서 땅 금 그어서 이녁이 따먹기 그거.)

102004 @1 예, 예.(예, 예.)

102004 #4 경 허여난.(그렇게 했었어.)

102005 @1 땅따먹을락 허고예, 예? 그다음에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막 공출도 하영 해서양?(땅따먹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막 공출도 많이 했지요?)

102005 #4 막 공출 허연. 건 우리 어린 댄디이.(막 공출 했어. 건 우리 어릴 댄테.)

102005 @1 예.(예.)

102005 #4 우리 할머니네가 그때 저 애월면 금, 지금은 금덕.(우리 할머니네가 그때 저 ‘애월면’ 금, 지금은 ‘금덕’.)

102005 @1 예.(예.)

102005 #1 그땐 이수암.(그땐 ‘유수암’.)

102005 @1 예.(예.)

102005 #4 그디 허연 살아신디. 그 감저, 고구마.(거기 해서 살았는데. 그 고구마, 고구마.)

102005 @1 으.(으.)

102005 #4 지금은 고구마. 그거 감저 허영 허민 그거 썰영.(지금은 고구마. 그거 고구마 해서 하면 그거 썰어서.)

102005 @1 예.(예.)

102005 #4 썰어근에 감, 지금은 감저뺏테기엔 헌디 그때는 감저 썰영 물리왕 출왔디 정 강 물리왕 그거 허영 그것도 공출헤어나고.(썰어서 감, 지금은 절간고구마 했는데 그때는 고구마 썰어서 말려서 꿀밭에 저서 가서 말려서 그거 해서 그것도 공출했었고.)

102005 @1 으.(으.)

102005 #4 돼야지 공출.(돼지 공출.)

102005 @1 예.(예.)

102005 #4 돼야지도 허여근에 우리 할머니네 애월면 금덕 유수암엔 현 디 살아 신디 하귀, 금덕은 지금 말론 허민 옷드르¹¹⁷⁾ 돼지.(돼지도 해서 우리 할머니네 ‘애월면’ ‘금덕’ ‘유수암’이라고 한 데 살았는데 ‘하귀’, ‘금덕’은 지금 말론 하면 ‘옷드르’되지.)

102005 @1 예.(예.)

102005 #4 경 허난 하귀에 내려오라근에 그걸 허영 바찌신디 잊어 붙어지지 안 허여. 돼야질 경 허연 오란 허연 현디 키로수가 떨어진 생이라.(그렇게 하니까 ‘하귀’에 내려와서 그걸 해서 바쳤는데 잊어 버려지지 않아. 돼질 그렇게 해서 와서 해서 했는데 키로수가 떨어진 모양이야.)

102005 @1 으.(으.)

102005 #4 키로수가 떨어지난에 이거 합격이 안 돼영 따시 다른 걸로 허여 오렌 허난. 우리 할머니네가 그걸 금, 참 애월읍 금덕 지금은 그전에 표준말로 이수암 인디 그디 허연 허난 하귀 우로 저 고성¹¹⁸⁾도 지금은 향, 옛날은 향바두리¹¹⁹⁾엔 헤 낫주기.(키로수가 떨어지니까 이거 합격이 안 돼서 또 다른 걸로 해 오라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네가 그걸 금, 참 애월읍 ‘금덕’ 지금은 그전에 표준말로 ‘유수암’인데 거기 해서 하니까 ‘하귀’ 위로 저 ‘고성’도 지금은 향, 옛날은 ‘향바두리’라고 했었지.)

102005 @1 예.(예.)

102005 #4 향바두리. 고성고라 향바두리. 경 허연 현디 글로 몰앙 우터레 막 가 근에 허영 뒷날은 맛 좋은 걸로 저 보릿²를이.(‘향바두리’. 고성보고 ‘향바두리’.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글로 몰아서 위로 막 가서 해서 뒷날은 맛 좋은 걸로 저 보릿가루.)

102005 @1 으.(으.)

102005 #4 그런 걸로 허영 막 멕여놓난 합격돼연게.(그런 걸로 해서 막 멕여놓으니까 합격되었어.)

102005 @1 예.(예.)

102005 #4 그 돼야진디.(그 돼지인데.)

102005 @1 으.(으.)

102005 #4 그 돼야진디 뒷날은 잘 멕여놓난 합격 돼연. 그거 원 잊어 붙어지지 안허여.(그 돼지인데 뒷날은 잘 멕여놓으니까 합격 되어서. 그거 원 잊어 버려지지 않아.)

117) ‘옷드르’는 제주에서 해안마을에 대비하여 한라산 쪽 벽지 근처의 마을이나 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18) ‘고성’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를 가리킨다.

119) ‘향바두리’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옛 이름이다. 그곳에 ‘향파두리’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제보자는 ‘향파두리’를 ‘향바두리’라고 불렀다.

102005 @1 예.(예.)

102005 #4 경허고 금덕 물이 원체 좋아. 생수.(그리고 ‘금덕’ 물이 워낙 좋아. 생수.)

102005 @1 으으.(으으.)

102005 #4 막 물이 좋은디 일본 군인덜 오란에 그 금덕 절산디¹²⁰⁾ 절산디에 허는 우리 그때 어린 때 절산디에 꼬박꼬박허는 것이 뵈고, 경 허른 미뿌쟁이, 미뿌쟁인 흰다, 희민 하르비여, 하르빈 등 굽은다. 경헌 말도 셔나고이.(아주 물이 좋은데 일본 군인들 와서 그 ‘금덕’ ‘절산디’ ‘절산디’에 하는 우리 그때 어린 때 ‘절산디’에 꼬박꼬박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렇게 하면 미뿌쟁이, 미뿌쟁인 흰다, 희민 하르비여, 하르빈 등 굽은다. 그러한 말도 있고.)

102005 @1 예.(예.)

102005 #4 웃음. 경헌 그 그런 거세기도 허멍 놀아나고이.(웃음. 그런 그 그런 거세기도 하면서 놀았었고.)

102005 @1 예.(예.)

102005 #4 경 허연 웨정시대 경허연 헌디 일본 사름덜이 그 이제 이수암엔 헌디 막 생수 물이 좋주기. 경 허난 빨래 허는 디, 먹는 물도 이 방 만씩 두 개 우알저디 허고 이디 허고 이 방 만씩 일본 군인들이 완 헛어.(그렇게 해서 외정시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이제 ‘유수암’이라고 한 데 막 생수 물이 좋지. 그렇게 하니까 빨래 허는 데, 먹는 물도 이 방 만씩 두 개 위아래 저기 하고 여기 하고 이 방 만씩 일본 군인들이 와서 헛어.)

102005 @1 예.(예.)

102005 #4 우리 아인 때이. 이제 원 잇어 불지 아녀. 군인덜이 헌디, 일본 군인덜이 질 우의 물통은 이 방만큼 현 거 우 더경 세멘을 허연이.(우리 아인 때. 이제 전혀 잇어 버리지 않아. 군인들이 했는데, 일본 군인들이 젤 위에 물통은 이 방만큼 한 거 위 덮어서 시멘트를 해서.)

102005 @1 예.(예.)

102005 #4 그 일본 군인덜이 집의 무신 큰 체 지낼 때나 기일제스 혈 땀랑 비아이 맞인 물.(그 일본 군인들이 집에 무슨 큰 체 지낼 때나 기일제사 할 때는 비아니 맞은 물.)

102005 @1 으.(으.)

102005 #4 생수만 내려온 거. 그거 떠, 그걸로 허여근에 질어당 이제 춤 이 지금 말로 메라도 지라. 경 헌.(생수만 내려온 거. 그거 떠, 그걸로 해서 길어다가 이제 참 이 지금 말로 메라도 지어라. 그렇게 한.)

102005 @1 으.(으.)

102005 #4 뜻으로 허고. 그 알 물통은 아래 건 우리 허벽으로 쳐단 먹고.(뜻으로 하고. 그 아래 물통은 아래 건 우리 물동이로 길어다가 먹고.)

120) 문맥으로 보아, ‘절산디’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지경 이름 같다.

102005 @1 으.(으.)

102005 #4 허벅으로게.(물동이로.)

102005 @1 예.(예.)

102005 #4 허벅으로 저. 물대바지¹²¹⁾ 대바지¹²²⁾엔 현 것도 저나고, 허벅으로. 우리 외도 나 온지 후제도 이디 고망물¹²³⁾엔 현 디 셔, 외도.(물동이로 길어. ‘물대바지’ ‘대바지’라고 한 것도 길었었고, 물동이로. 우리 외도 나 온 후에도 여기 ‘고망물’이라고 한 데 있어, 외도.)

102005 @1 예.(예.)

102005 #4 저 우의, 이 내로 저 우펜이. 그디도 춤 허벅으로 물 쳐단 먹고 경해난.(저 위에, 이 내로 저 위편에. 거기도 참 물동이로 물 길어다가 먹고 그렇게 했었어.)

102005 @1 음, 계난 그 공출할 때 뭐 낫그릇 같은 거는 공출 안 헙디가?(음, 그러니까 그 공출할 때 뭐 낫그릇 같은 거는 공출 안 헙디까?)

102005 #4 아이고, 무사 안 허여? 우리 할머니네 저가 장손으로 옛날 뿔으로 수박기¹²⁴⁾이.(아이고, 왜 안 해? 우리 할머니네 저가 장손으로 옛날 뿔으로 ‘수박기’.)

102005 @1 예.(예.)

102005 #4 낫그릇 영 허영 허믄 곡지 돌곡 현 수박기로 특허게 옛날 흐끔 집안이 뭐허다 현 집안은 그런 그 그런 낫그릇에 수박기엔 현 거 곡지 돌은 두께 영 허영 허곡, 그걸로 메 거리곡 낫그릇게.(낫그릇 이렇게 해서 하면 꼭지 돌고 한 ‘수박기’로 특허게 옛날 조금 집안이 뭐허다 하는 집안은 그런 그 그런 낫그릇에 ‘수박기’라고 한 거 꼭지 돌은 두께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로 메 뜨고 낫그릇.)

102005 @1 예.(예.)

102005 #4 계영국 거리고 늘 경 현디. 그거 다 공출허연.(갱 뜨고 늘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공출했어.)

102005 @1 음.(음.)

102005 #4 다 바치렌 허연 허고. 이제 저 흐두, 그 동네에서 옛날 지금은 동장, 마을에 동장엔 허지이.(다 바치라고 해서 하고. 이제 저 한두, 그 동네에서 옛날 지금은 동장, 마을에 동장이라고 하지.)

102005 @1 예.(예.)

102005 #4 그때는 구장.(그때는 구장.)

102005 @1 구장, 예.(구장, 예.)

102005 #4 구장, 구장이엔 헤낫주기. 구장신디 그 나라에서 와근엥에 막 뭐허영 허믄, 그런 기일제스도 못허게게.(구장, 구장이라고 했었지. 구장한테 그 나라에서 와서 막 뭐해서 하면, 그런 기일제사도 못하게.)

121) ‘물대바지’는 물을 길올 때 사용하는 작은 물동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대배기’라고 한다.

122) ‘대바지’는 물을 길올 때 쓰는 작은 물동이다.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아둘 때 사용하기도 한다.

123) ‘고망물’은 제주도 외도에 있는 물 이름이다. 물이 구멍에서 나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124) ‘수박기’는 두께 위에 손잡이가 달린 낫으로 만든 밥그릇이다. 제사나 잔치 등 큰일 때 주로 사용하였다.

102005 @1 음.(음.)

102005 #4 못허게 헤낫어.(못하게 했었어.)

102005 @1 음.(음.)

102005 #4 경 허영 허영 허곡, 저 멧질 때에.(그렇게 해서 하고, 저 멧질 때에.)

102005 @1 음.(음.)

102005 #4 팔월추석 때에 헨 거 알아져. 팔월추석 때에 적 지저근엿에 적 지지는 것도 못허게 막 허믄. 옛날은 이런 카뎡도 엇어낫주게. 이불 꺾데기나 이불 안이나 허영 창문에 막양 포장 쳐뎡이 그 경 허영 것도 모르게 지정은에게 허난 다 조사, 조사 왁짜 헨 즈꿏디덜 영 연락해 주민 우리 할머니네 대왔디 강.(팔월추석 때에 한 거 알아져. 팔월추석 때에 적 지저서 적 지지는 것도 못허게 막 하면. 옛날은 이런 커텐도 없었었지. 이불 꺾데기나 이불 안이나 해서 창문에 막아서 포장 쳐두고 그 그렇게 해서 것도 모르게 지저서 하니까 다 조사, 조사 온다 하는 곁에들 이렇게 연락해 주면 우리 할머니네 대밭에 가서.)

102005 @1 으.(으.)

102005 #4 그 적채롱¹²⁵.(그 ‘적채롱’.)

102005 @1 예.(예.)

102005 #4 곱지곡 허는 거 원 잇어 붙어지지 아녀.(숨기고 하는 거 전혀 잇어 버리지 않아.)

102005 @1 으.(으.)

102005 #4 경 곱져당 이제 제 지내곡.(그렇게 숨겼다가 이제 제 지내고.)

102005 @1 예.(예.)

102005 #4 경 헤난.(그렇게 했었어.)

102005 @1 예.(예.)

102005 #4 경 허곡 저 옛날은 그 술 그 제주 쓰젠 허믄 술 향아리에 담양, 담양이.(그렇게 하고 저 옛날은 그 술 그 제주 쓰려고 하면 술 향아리에 담가서, 담가서.)

102005 @1 으.(으.)

102005 #4 누룩 헤여근에 밥허영 술 담양 허믄, 술, 그 소주 빠는 고수리엔 헨 거 잇어낫어.(누룩 해서 밥해서 술 담가서 하면, 술, 그 소주 뽑는 소줏고리라고 한 게 있었었어.)

102005 @1 예.(예.)

102005 #4 그 경 허믄 영 이 가운데 영 쫘아지곡 아래 그 옛날 그 저 무췌숯.(그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 가운데 이렇게 쫘아지고 아래 그 옛날 그 저 무쇠숯.)

102005 @1 예.(예.)

102005 #4 검은 숯이.(검은 술.)

102005 @1 예.(예.)

125) ‘적채롱’은 적을 넣을 때 사용하는 대오리로 네모나게 곁은 그릇이다.

102005 #4 그 솟에 맞은 그 고소리 헤여근엥에 그 우의 자박지 영 물 낳은에 허민 물 막 뜻앙 허민 어떻사 아는디 그걸 잘 알아근에 물 글명 그추룩 허영 요추 룩 헌 그 거세기로 졸졸졸졸 허영 허민 그 옛날 저 쟁게.(그 솟에 맞은 그 소줏고리 해서 그 위에 자배기 이렇게 물 놔서 하면 물 막 따뜻해서 하면 어떻게야 아는지 그걸 잘 알아서 물 갈면서 그처럼 해서 요처럼 한 그 거시기로 졸졸졸졸 해서 하면 그 옛날 저 병.)

102005 @1 예.(예.)

102005 #4 사기쟁이.(사기병.)

102005 @1 예.(예.)

102005 #4 그거 영 허영 받아근엥에 그 술 빠곡 경 허는 거 우리 어린 때 봐 난.(그거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 술 뽑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어릴 때 봤었어.)

102005 @1 예.(예.)

102005 #4 옛날 어른덜 잘도 고생헤연 살앗주게게.(옛날 어른들 잘도 고생해서 살았지.)

102005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05 #4 그런 거 경 허연. 에이그.(그런 거 그렇게 했어. 아이고.)

102006 @1 혹시 사삼사건예, 스삼 때, 그뎨 어떻 험디까?(혹시 사삼사건요, 사삼 때, 그뎨 어떻게 험디까?)

102006 #4 사삼스, 경 허난 사삼사건 나기, 일본시대에만 적간 우리 족은아버지가 일본서 경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부난 막 오랜 춤 지금은, 그뎨 말론 호출허단 시피.(사삼사, 그렇게 하니까 사삼사건 나기, 일본시대에만 겪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일본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버리니까 막 오라고 참 지금은, 그때 말론 호출하다시피.)

102006 @1 예.(예.)

102006 #4 허연 경 허영 허난.(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102006 @1 예.(예.)

102006 #4 그뎨 배로 왔거든.(그뎨 배로 왔거든.)

102006 @1 예.(예.)

102006 #4 배로 탕길, 비행기 엇이난 배로 탕길 뎨디 부산인가 어디 오난에 곶 아탄. 부산까지 저 허연 오란에 헌디 글로 허젠 허난 우리 말젓하르버님 아덜허고 우리 족은아버지허고 스춘 성제가 ㄱ치 오는디 그때도 막 일본 거세기로 막 폭발허고 막 험 때엔 허연 헌디. 경 허난 그런 시절에도 멩 진 사름은 어떻어떻 살게 웨고.(배로 다닐, 비행기 없으니까 배로 다닐 뎨디 부산인가 어디 오니까 갈아타서. 부산까지 저 해서 와서 했는데 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셋째할아버님 아들하고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사촌 형제가 같이 오는데 그때도 막 일본 거시기로 막 폭발하고 막 할 때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시절에도 멩 진 사름은 어떻게어떻게 살게 되고.)

102006 @1 예.(예.)

102006 #4 경 헌 생이라게.(그렇게 한 모양이야.)

102006 @1 음.(음.)

102006 #4 스춘 성제가 그치 나와신디 기냥 앞에 우리 말젯하르버님 아덜은 아덜이난 우리 죽은아버지허고 스춘 성제 될 거주기게. 경 해연 헌디 폭발 맞안 배가 폭발해연.(사춘 형제가 같이 나왔는데 그냥 앞에 우리 셋째할아버님 아들은 아들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사춘 형제 될 거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폭발 맞아서 배가 폭발해서.)

102006 @1 예.(예.)

102006 #4 폭발해연에 죽고. 우리 죽은아바진 혼배, 경 허난 옛날 그때 시절에 어른덜이 경 곤는 말 들어났어. 형제간도 혼배랑 타지 말렌 헛젠.(폭발해서 죽고. 우리 작은아바진 한배, 그렇게 하니까 옛날 그때 시절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말 들었었어. 형제간도 한배랑 타지 말라고 했다고.)

102006 @1 으음.(으음.)

102006 #4 사름 일이 모르니까 혼배랑 타지 말렌.(사람 일이 모르니까 한배랑 타지 말라고.)

102006 @1 으.(으.)

102006 #4 그런 그 참 속담이 셔낫주기. 경 허연 헌디 앞의 타고 우리 죽은아바진 뒤에 뒷배로 오주긴 해연 만원이 뉘난 경 헌 모양이지.(그런 그 참 속담이 있었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디 앞에 타고 우리 작은아바진 뒤에 뒷배로 오자고 해서 만원이 되었던 그렇게 한 모양이지.)

102006 @1 예, 예.(예, 예.)

102006 #5 경 허난 우리 죽은아바진 살아난게.(그렇게 하니까 우리 작은아바진 살아났어.)

102006 @3 음.(음.)

102006 #4 경 허난 지금은 산지¹²⁶⁾ 산지축항¹²⁷⁾에 배여 공항에 이 비행기 허주만 그때는 산지 축항으로 못 완에 저 금덕, 애월면 금덕이, 이수암.(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산지’ ‘산지축항’에 배다 공항에 이 비행기 하지만 그때는 ‘산지축항’으로 못 와서 저 ‘금덕’, ‘애월면’ ‘금덕’이, ‘유수암’.)

102006 @1 예, 예.(예, 예.)

102006 #4 그디난 그딘 애월면이난 애월 축항으로.(거기니까 거긴 ‘애월면’이니까 ‘애월’ 축항으로.)

102006 @1 으.(으.)

102006 #1 배 들언.(배 들었어.)

102006 @1 음.(음.)

126) ‘산지’는 제주시 동부두가 있는 동네 이름이다.

127) ‘산지축항’은 제주시 동부두 쪽에 있었던 마을 ‘산지’에 있었던 항구 이름이다.

102006 #4 경 허난 왁쩌 허난 우리 어린 땀디 막 지꺼전 마중가고 경 헤난.(그렇게 하니까 오고 있다 하니까 우리 어털 땀디 아주 기뻐서 마중가고 그렇게 했었어.)

102006 @1 음.(음.)

102006 #4 막 경 현 거세기도 잇고이. 춤 옛날 어른덜 잘도 고생허멍 살았주기. 공출 다 허여 부난 먹을 거 졸바로 못 먹고 막 경 허고 사삼스건에도 우리 이디 이 외도 우리 작은아버지네 우리 하르버지네영 온 지 후제도 우리 켤당이.(아주 그렇게 한 거시기도 있고. 참 옛날 어른들 잘도 고생하면서 살았지. 공출 다 하여 버리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아주 그렇게 하고 사삼사건에도 우리 여기 이 ‘외도’ 우리 작은아버지네 우리 할아버지네랑 온 후에도 우리 켤당이.)

102006 @1 예.(예.)

102006 #4 파출소 순경으로 셋어. 외도파출소.(파출소 순경으로 있었어. 외도파출소.)

102006 @1 으으.(으으.)

102006 #4 지금 ㄹ뜨민 지금은 그땐 지서, 지서 해낫주기.(지금 같으면 지금은 그땐 지서, 지서 했었지.)

102006 @1 예.(예.)

102006 #4 지서. 지금은 파출소엔 현디 지서. 도그내지서¹²⁸), 도그내지서. 이디 외돈디 도그내.(지서. 지금은 파출소라고 하는데 지서. ‘도그내지서’, ‘도그내지서’. 여기 ‘외도’인데 ‘도그내’.)

102006 @1 예.(예.)

102006 #4 도그내지서 현디 경 허연 현디 그디 순경으로 시연 허난에 사삼사건에, 아이고, 다 올라오렌 허연 허난 춤 다 올라덜 가신디 우리 하르버지가 쪼끔 옛날 어른으로서 흐뎡 억세다, 지금 ㄹ뜨민 나가 아는 바에.(‘도그내지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순경으로 있어서 하니까 사삼사건에, 아이고, 다 올라오라고 해서 하니까 참 다 올라들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쪼끔 옛날 어른으로서 조금 억세다, 지금 같으면 내가 아는 바에.)

102006 @1 예.(예.)

102006 #4 억세다 흐는 그 성격이라났어.(억세다 하는 그 성격이었었어.)

102006 @1 음.(음.)

102006 #4 난 죽어도 나 집이 앓앙 죽으켄. 나 이왕 죽을 거 경 산에 올라갓다 내려왔다 허멍 죽질 아녀고 난 나 집의 앓앙 죽으켄. 경 현 딱 허연에 허엿어게. 아이덜토.(난 죽어도 내 집에 앓아서 죽겠다고. 나 이왕 죽을 거 그렇게 산에 올라갓다 내려왔다 하면서 죽질 앓고 난 내 집에 앓아서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딱 해서 했어. 아이들도.)

102006 @1 으.(으.)

128) ‘도그내지서’는 제주도 ‘도그내’ 마을에 있었던 지서 이름이다. ‘도그내’는 제주도 외도동의 옛 이름이다.

102006 #4 폼짝허지 말앙 이녁 집의서 죽겐. 경 허멍 허엿는디 우리 권당 어른 이 이 파출소에 순경으로 션 허난애, 싯고 허난 경 허연 허여신디 문딱 그 산에 올라가난 옛날.(폼짝하지 말고 이녁 집에서 죽자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우리 권당 어른이 이 파출소에 순경으로 있어서 하나까, 있고 하나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몽땅 그 산에 올라가니까 옛날.)

102006 @1 예.(예.)

102006 #4 이디 사름덜토.(여기 사람들도.)

102006 @1 예.(예.)

102006 #4 어디 명령이라. 막 기냥 헤여노난 밤중의 오란 죽여 불카부덴 허연 경 허연 가신디 그 파출소에 그 숙직허는 순경들이 영 밤이민 올레 돌 거 아니라. 어디 사름이 싯고 엇이고 돌아판 우리 하르버지네 집이 시난 막 지꺼정 스뭇 지꺼전 아이가, 경 아니 가난 지꺼전 막 기냥 스뭇 안앙 우리 하르버지 순경덜이 우리 하르버질 안앙 막 기냥 고맙수덴 허멍 그런 거 나 잊어불지 아녀고 경 허연 헨 거 알아져.(어디 명령이야. 아주 그냥 해놓으니까 밤중에 와서 죽여 버릴까봐 해서 경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파출소에 그 숙직하는 순경들이 이렇게 밤이면 오래 돌 거 아닌가. 어디 사람이 있고 없고 돌아봐서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있으니까 아주 기뻐서 사뭇 기뻐서 아니니, 그렇게 아니 가니까 기뻐서 아주 그냥 사뭇 안아서 우리 할아버지 순경들이 우리 할아버질 안아서 아주 그냥 고맙습니다고 하면서 그런 거 나 잊어버리지 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알아져.)

102006 @1 케난 사삼애 피해 보거나 이런 건 엇어마씨?(그러니까 사삼애 피해 보거나 이런 건 없어요?)

102006 #4 우리 피해 본 거 엇어. 이디 파출소에.(우리 피해 본 거 없어. 여기 파출소에.)

102006 @1 으.(으.)

102006 #4 권당이 싯고 그 거세기 허연 허고. 경 허난 그때 춤 저 이제 산에서 몰르게 오랑 뭇 헤야 허곡 그쪽에도 흥뭇 여기 사름덜토 하나씩 셔낫주게.(권당이 있고 그 거시기 해서 하고. 그렇게 하나까 그때 참 저 이제 산에서 몰르게 와서 뭇 헤야 하고 그쪽에도 조금 여기 사람들도 하나씩 있었지.)

102006 @1 예, 예.(예, 예.)

102006 #4 경 허영 허난 이제 저 어디로 피란 가야 헌덴 헤연 허난 이젠 신집이¹²⁹⁾ 이 요디 저 이젠 이 모옥탕 아래 신진미¹³⁰⁾엔 현 퀘가 큰 퀘가 셋났어.(그렇게 해서 하나까 이제 저 어디로 피란 가야 한다고 해서 하나까 이젠 ‘신집이’ 이 여기 저 이젠 이 목욕탕 아래 ‘신진미’라고 한 ‘퀘’가 큰 ‘퀘’가 있었었어.)

102006 @1 예.(예.)

102006 #4 그, 그디 강도 곱아나고이.(그, 거기 가서도 숨었었고.)

129) ‘신집이’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문맥상으로 지명인 것 같다.

130) ‘신진미’는 제주시 외도동 해수사우나 아래쪽에 있는 퀘 이름이다.

102006 @1 으.(으.)

102006 #4 산에서 오카부덴. 그디 간도 곱아나고, 곱아나고 경 해연.(산에서 올라봐. 거기 가서도 숨었었고, 숨었었고 그렇게 했어.)

102007 @1 예, 알아수다. 결혼할 때는 중매결혼 했수가? 연예결혼 했수가? 어떻 허연 결혼헌 거우파?(예,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중매결혼 했습니까? 연예결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결혼한 겁니까?)

102007 #4 우리?(우리?)

102007 @1 예. 삼촌 결혼할 때?(예. 삼촌 결혼할 때?)

102007 #4 저 연애 반 중매 반 댜긴 헛지. 중매가 중매가 댜긴 헛지. 옛날은 헌디 우린 셋하르바님 딸이 저 이 월대동¹³¹⁾에 그디 저 뉘헌 어른이 셴에 허연 영 해연 살아신디 우리 집잇 아방¹³²⁾이 그때 시절에 우리 스물 난 스물둘에 우리 집잇 아방은 스물넷에 결혼을 해신디.(저 연애 반 중매 반 댜긴 헛지. 중매가 중매가 댜긴 헛지. 옛날은 했는데 우린 둘째할아버지 딸이 저 이 ‘월대동’에 거기 저 뉘헌 어른이 있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그때 시절에 우리 스물 되어서 스물둘에 남편은 스물넷에 결혼을 했는데.)

102007 @1 예.(예.)

102007 #4 우리 셋하르바님 딸이 그 셋하르바님 딸이 난 고모가 난 소개헌 거라.(우리 둘째할아버님 딸이 그 둘째할아버님 딸이 난 고모가 난 소개한 거야.)

102007 @1 예.(예.)

102007 #4 경 무사 소개헤신고 허민 그때 쭈물들엔가 스물 멧, 스물엔가 군인 간에 해연 제대헤연 완. 제대헤여 오난 그, 옛날은 지금은 혼 집이 운전수덜이 멧 개 아니? 딸이고 아덜이고 손지고.(그렇게 왜 소개했는가 하면 그때 스물둘인가 스물 멧, 스물인가 군대 가서 해서 제대해서 와서. 제대해서 오니까 그, 옛날은 지금은 한 집에 운전수들이 멧 개 아니? 딸이고 아들이고 손자고.)

102007 @1 예.(예.)

102007 #4 경헌디 그뻐 운전수가 경 엇어낫주게.(그런데 그뻐 운전수가 그렇게 없었었지.)

102007 @1 으.(으.)

102007 #4 경 허연 허난 이제 군인¹³³⁾ 간 운전을 배웠던 모양이라.(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군대 가서 운전을 배웠던 모양이야.)

102007 @1 예.(예.)

102007 #4 그때 시절에.(그때 시절에.)

102007 @1 으.(으.)

102007 #4 우리 집의 아방이 경 허영 허난 셋하르바님 딸이 날 소개헌 거라게.

131) ‘월대동’은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이다. ‘월대’가 있는 마을이다.
132) ‘우릿 집의 아방’은 ‘우리 집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이들 아버지라는 뜻이다. 즉 체보자는 남편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133) 여기에서 ‘군인’은 체보자가 ‘군대’의 의미로 쓴 것이다.

그때 산판에, 산판에 텅기는 찰 몰아놨젠.(남편은 그렇게 해서 하니까 둘째할아버님 딸이 날 소개한 거야. 그때 산판에, 산판에 다니는 찰 몰았었다고.)

102007 @1 으.(으.)

102007 #4 그 총각인 때에.(그 총각인 때에.)

102007 @1 예.(예.)

102007 #4 경, 그때 그것 ㄴ라 통신대엔 허던가.(그렇게, 그때 그것보고 통신대라고 하던가.)

102007 @1 으.(으.)

102007 #4 통신대 찰 몰아놨젠. 경 허연 헌디 날 경 허연 허난 우리 죽은아버지네, 죽은아버지가 저 이녁 딸보다 더 나를 이제, 성 딸로.(통신대 찰 몰았었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네, 작은아버지가 저 이녁 딸보다 더 나를 이제, 형 딸로.)

102007 @1 으.(으.)

102007 #4 허연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서 불곡 경 허난 허난 춤 막 더 생각해난게.(해서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서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니까 참 아주 더 생각했었어.)

102007 @1 예.(예.)

102007 #4 죽은아버지 죽은어머니나 우리 스춘덜 간이이라도 지금도 경 허여. 우리 스춘 아시덜토 경 허여. 예, 경 허영 헌디 그 우린 셋하르님 딸이 경 허연 우리 죽은아버지네 곱으난 우리 죽은아버진 느 몸 약허곡 웃드리나 어디 씨집가민 느 농스 허여사 살 거난 뭐 헌다 운전수엔 허난 느 몸도 약허고 경 허영 강 살라, 살라. 막 죽은아버지네가 막 경 허곡 우리 셋하르바님 딸이 경 소개헤연.(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나 우리 사촌들 간이이라도 지금도 그렇게 해. 우리 사촌 아우들도 그렇게 해.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우린 둘째할아버님 딸이 그렇게 해서 우리 작은아버지네 말하니까 우리 작은아버진 너 몸 약하고 ‘웃드리’나 어디 시집가면 너 농사 해야 살 거니까 뭐 한다 운전수라고 하니까 너 몸도 약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살라, 살라. 막 작은아버지네가 막 그렇게 하고 우리 둘째할아버님 딸이 그렇게 소개했어.)

102007 @1 예.(예.)

102007 #4 춤 중매 반.(참 중매 반.)

102007 @1 음.(음.)

102007 #4 춤 연애 반 헌 폭이주기게.(참 연애 반 한 폭이지.)

102007 @1 예.(예.)

102007 #4 경 허연 경 허연 우리 씨어머님넌 시에.(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어머님넌 제주시에.)

102007 @1 예.(예.)

102007 #4 그 상교 짓지 아녀. 상곶동산¹³⁴.(그 향교 있지 않아. 향교동산.)

102007 @1 예.(예.)

102007 #4 상고¹³⁵⁾, 지금 상고이.(상고, 지금 상고이.)

102007 @1 예.(예.)

102007 #4 생깃동산¹³⁶⁾ 그 아래 그 옛날 등글락헌 물통. 두레박으로 영 물 땀.
(‘생깃동산’ 그 아래 그 옛날 등근 물통.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 떠서.)

102007 @1 예, 예.(예, 예.)

102007 #4 허벅으로 저당 떡꼭 해놔어. 경 허난 그 안네 이제 서문시장 안네 우리 씨어머님넨 살고. 우리 결혼허난에 상곶동산 우리 영 따로이.(물동으로 저다가 먹고 했었어.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이제 서문시장 안에 우리 시어머님넨 살고. 우리 결혼하니까 ‘상곶동산’ 우리 이렇게 따로.)

102007 @1 으.(으.)

102007 #4 따로 경 해연에 해연 살림 살고 경 헛주게. 경헌디 우리 집의 아방이 아이고 옛날엔 그 차 운전허연 경 차 운전 허민 춤 아무나 못 해놔주게. 군대에서 배완 오난 이디서.(따로 그렇게 해서 해서 살림 살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남편이 아이고 옛날엔 그 차 운전해서 그렇게 차 운전 하면 참 아무나 못 했었지. 군대에서 배워서 오니까 여기서.)

102007 @1 예.(예.)

102007 #4 멘허증도 쉽게 따고 경 헛덴.(면허증도 쉽게 따고 그렇게 했다고.)

102007 @1 으.(으.)

102007 #4 경 해연 찰 해연 헌디 관광차 타놔어, 옛날.(그렇게 해서 찰 해서 했는데 관광차 탔었어, 옛날.)

102007 @1 아.(아.)

102007 #4 관광차 그 시절에도 저 회산 관덕청.(관광차 그 시절에도 저 회산 관덕청.)

102007 @1 예.(예.)

102007 #4 신진관광, 그때.(신진관광, 그때.)

102007 @1 으으.(으으.)

102007 #4 신진관광 회사라놔주기. 계난 거기 차 탄 늘 춤 도 일주이. 손님덜 시꺼 관광 온 사름덜 시꺼 뒤희고 경 허연 허연 헌디 그 경 해연 그 벌꼭 막 경 허연 헌디 글아주지 아녀민 좋은디 누게가 오랑 야, 느네 집잇 아방¹³⁷⁾ 어디서 노름 햄서라.(신진관광 회사였었지. 그러니까 거기 차 타서 늘 참 도 일주. 손님들 실어서 관광 온 사람들 실어서 뒤희고 그렇게 해서 해서 했는데 그 그렇게 해서 그 벌

134) ‘상곶동산’은 제주시 용담동 제주향교가 있는 지경의 동산 이름이다. ‘상고’는 향교를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생깃동산’이라고도 발음하였다.

135) 여기에서 ‘상고’는 제주상업고등학교를 말한다. 제주상업고등학교는 1984년 8월 30일 제주시 월평동으로 이설하였다. 2006년 11월 15일 제주중앙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136) ‘생깃동산’은 제주향교가 있는 지경의 동산 이름이다. ‘생기’는 향교를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상곶동산’이라고도 발음하였다.

137) ‘느네 집의 아방’은 너의 집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아방’은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키고 있다.

꼭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말해주지 않으면 좋은데 누가 와서 야, 너의 집의 남편 어디서 노름 하고 있더라.)

102007 @1 웃음.(웃음.)

102007 #4 어디서 뭐 험서라. 경 해연 왕 글아췌 허민.(어디서 뭐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해서 와서 말해줘서 하면.)

102007 @1 으.(으.)

102007 #4 우리 잘, 잘 싸와나기도 허연게.(우리 잘, 잘 싸웠었기도 했어.)

102007 @1 예.(예.)

102007 #4 경 허명 막 허영 허난 나 이치록 허연 나 암만이라도 못 살켄. 경 아녀민 이제도 시에 살아실 건디.(그렇게 하면서 막 해서 하나까 나 이처럼 해서 나 암만이라도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않으면 이제도 제주시에 살았을 건데.)

102007 @1 예.(예.)

102007 #4 나 이치록 허명 나 못 살켄 허명 허연 족은아버지신디 외도 완, 족은 아버지, 나 암만이라도 못 살쿠다. 아기덜 생각도 아녀곡 노름만 허영 못 살쿠다. 어디 방 하나 빌어 줍서. 경 허명 허난. 게, 경 허라. 사름 살굽 남의 돌굽¹³⁸⁾인데 옛날 어른덜 한다. 게도 어떻 어떻 살아진다. 경 허명 오란 놈의 밧거리엔 처음에 빌어췌게. 아기덜. 처음엔 이젠 아기 오누인 아덜 하나허고 딸 큰딸허고 허연 우리 씨어머니신디 간 암만이라도 나 못 살쿠다. 영 허연 야이 흐끔 뭘 허염십서 허연 이제 어린 거만 업어아전 오라낫주기게.(나 이처럼 하면서 나 못 살겠다고 하면서 해서 작은아버지한테 외도 와서, 작은아버지, 나 암만이라도 못 살겠습니다. 아기들 생각도 앓고 노름만 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디 방 하나 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까. 그래, 그렇게 해라. ‘사름 살굽 남의 돌굽’인데 옛날 어른들 한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진다. 그렇게 하면서 와서 남의 바깥채라고 처음에 빌려췌어. 아기들. 처음엔 이젠 아기 오누인 아들 하나하고 딸 큰딸하고 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서 암만이라도 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 조금 뭘 하고 있으십시오 해서 이제 어린 거만 업어가지고 왔었지.)

102007 @1 예, 예.(예, 예.)

102007 #4 경 허연 허난 이젠 아방¹³⁹⁾이 경 허연 아기덜 들고 온 거라.(그렇게 해서 하나까 이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기들 데리고 온 거야.)

102007 @1 음.(음.)

102007 #4 완 허난에, 우리 족은아버지가 놈의 남편이고 놈의 각시가? 경 허난 와세. 경 허난 아멩헤도 느네 느네 흐 스주 흐 팔자난이 아기덜토 싯곡 현 거 아니가. 경 허난 아멩이나 울멍이라도 살암시민 살 데가 난다. 경 허명 허연 헤신디 우리 집윗 아방도 일찍 돌아가셔 불언게.(와서 하나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남의 남편이고 남의 각시가? 그러니까 왔잖니. 그렇게 하나까 아무래도 너의 너의 한 사주

138) ‘사름 살굽 남의 돌굽’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문맥상으로 보아 ‘사람이 살아야 남의 돌 밑’이라고, 일단은 사람부터 살아야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 같다.

139) 여기에서 ‘아방’은 아이들의 아버지, 즉 남편의 뜻으로 쓰였다.

한 팔자니까 아기들도 있고 한 거 아니니. 그렇게 하니까 아무렇게나 울면서라도 살고 있으면 살 데가 난다. 그렇게 하면서 해서 했는데 우리 집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서 버렸어.)

102007 @1 음.(음.)

102007 #4 쉬은다섯에 돌아가셨어.(친다섯에 돌아가셨어.)

102007 @1 게른 어디 아팠 돌아가셨마씨?(그러면 어디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102007 #4 아프, 응 아파신디 경 허난 에 지금은 뭐헌디 그때 시절엔 그 니가 막 알렸어.(아프, 응 아팠는데 그렇게 하니까 에 지금은 뭐한테 그때 시절엔 그 이 가 아주 아렸어.)

102007 @1 아.(아.)

102007 #4 막 니 알런근에 허연 허난 관광 간 완에. 그때 아맹해도 운전허영 못 허연 가켄 헨 회사로 전화허난 운전수 보내렌 허난.(아주 이 아려서 해서 하니까 관광 다녀와서. 그때 아무래도 운전해서 못해서 가겠다고 해서 회사로 전화하니까 운전수 보내라고 하니까.)

102007 @1 으.(으.)

102007 #1 운전수 간왔덴. 경 허연 헌디 중앙로 아래 북국민학교¹⁴⁰⁾ 그 즈곳디 제주치과가 있어났어게. 제주치과가 이신디 그디 이제 저 뭐허기로 헛젠 허난 흥그는 건 빠지 좋주마는 그 경 아년 헌디 막 알리기만 해연 경 허난 그디선 보증 앓이렌 헛젠.(운전수 다녀왔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중앙로 아래 북국민학교 그 곁에 제주치과가 있었었지. 제주치과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저 뭐허기로 했다고 하니까 혼드는 건 뽑기 좋지만 그 그렇게 앓아서 했는데 아주 아리기만 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선 보증 앓으라고 했다고.)

102007 @1 으.(으.)

102007 #1 치과에선.(치과에선.)

102007 @1 으.(으.)

102007 #1 경 허당 위엄허니까 보증 앓아, 앓아야지 경 아녀민 못허켄 허난. 우리 씨아지방이 그 즈곳디 이발관에 땡길 땡디 아시신디 간 경 허난. 아이고, 나 안 허쿠덴 막 헛덴. 경허난 나 죽어져도 느 원망 안 허고 우리 아이덜ㅋ라 경 다 곱으 커메 어떻 허느닌 막 기냥 경 허연 허난 춤 흘 수 엇이 성 경 허난 보증을 앓았젠 게. 보증을 앓안 흥글지도 아녀고 아몽치도 아년디 닐 경허연 닐 뺏텐게.(그렇게 하다가 위험하니까 보증 앓아, 앓아야지 그렇게 앓으면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아주버니가 그 곁에 이발관에 다닐 땡데 아우한테 가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 안 하겠다고 막 했다고. 그러니까 나 죽어져도 너 원망 안 하고 우리 아이들보고 그렇게 다 말하졌으니 어떡하느냐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하니까 참 할 수 없이 형 그렇게 하니까 보증을 앓았다고. 보증을 앓아서 흔들지도 앓고 아무렇지도 앓는데 일 그렇게 해서 일 뽑았다고.)

140) '북국민학교'는 제주북초등학교를 가리키는 말이다.

102007 @1 으.(으.)

102007 #1 뻥 허난 동티로 경 헌걸.(뻥아서 하니까 동티로 그렇게 한걸.)

102007 @1 으.(으.)

102007 #1 니 알린 거.(이 아린 거.)

102007 @1 예.(예.)

102007 #1 경 허난 아귀특이 오꽃 영 을아전 요만큼 벌기지 못한다.(그렇게 하니까 턱이 그만 이렇게 열어서 요만큼 벌리지 못했는데.)

102007 @1 으.(으.)

102007 #1 경 허난 밥도 영 허영 어려운 시절이난 지금 ㄴ트민 미음이라도 (웃음) 닭암직이 썩.(그렇게 하니까 밥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절이니까 지금 같으면 미음이라도 (웃음) 그럴듯하게 썩서.)

102007 @1 으.(으.)

102007 #1 뭉헐걸. 밥도 물에나 국에나 즈으민 영 허영 확 허멍 빨아먹는 식으로 경 허여사 먹고.(뭉헐걸. 밥도 물에나 국에나 말면 이렇게 해서 확 하면서 빨아먹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먹고.)

102007 @1 으.(으.)

102007 #1 경 허여낫주기게. 경 허멍 웃음. 경 허연 스뭇 울멍실으멍 경 허연 헤연 살아신디 이제 경 허여도 어려운 시절이난 아기덜 밥 먹이기가 어렵고 이녁 토지 웃고 집 웃고 경허여 농난 아방¹⁴¹⁾이 바당을 땡겨어, 이디.(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하면서. 웃음. 그렇게 해서 사뭇 울며불며 그렇게 해서 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어려운 시절이니까 아기들 밥 먹이기가 어렵고 이녁 토지 없고 집 없고 그래 놓으니까 남편이 바다를 다녔어, 여기.)

102007 @1 예.(예.)

102007 #4 외도 바당. 베에덜 헤연 땡겨가난이. 게난 그 차에 운전허어나곡 경 허난 베에 기계도 경 쉽게 환게.(외도 바다. 베에들 해서 다녀가니까. 그러니까 그 차에 운전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베에 기계도 그렇게 쉽게 봤어.)

102007 @1 으.(으.)

102007 #1 경 허난 기관장으로 땡겨어.(그렇게 하니까 기관장으로 다녔어.)

102007 @1 예.(예.)

102007 #1 베에도. 베에도 경 허멍 헤연 현디. 우리 아방도 춤 경 허멍 돈은 써도 경 ㅁ음이 뭐 거세기 아녀난, 아녀신고라 바당에 허영 궤기 나짱 오민 이 그땐 일덜 경 지금ㄴ찌 직장 놀곡 헐 때난 갯맛디 허영 얼마나 헤신고 구경덜 가곡 막 경 허연게.(베에도. 베에도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우리 남편도 참 그렇게 하면서 돈은 써도 그렇게 마음이 뭐 거시기 앓으니까, 앓았는지 바다에 해서 고기 낚아서 오면 이 그땐 일들 그렇게 지금같이 직장 놓고 할 때니까 포구 해서 얼마나 했는가 구경들 가고 막 그렇게 했어.)

141) '아방'은 아버지의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아이들 아버지, 즉 남편의 의미로 쓰였다.

102007 @1 으.(으.)

102007 #1 경 허영 허른 춤 술, 옛날 어른 말이 경 해도 술 먹는 사람이 남으
간장을 열린덴 한다. 한다 허영 옛날 어른들 말 골안 들어나신디 경 허영 오븐 집
이 이거 돈 허영 뭐 살 생각을 안 허고 흥뽀 친헌 사름 와서민 예, 이거 갖당 반찬
협서, 이거 갖당 먹읍서. 막 경 해난 생이라게.(그렇게 해서 하면 찹 술, 옛날 어른
말이 그렇게 해도 술 먹는 사람이 남의 간장을 열린다고 한다. 한다 해서 옛날 어
른들 말 말해서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오면 집에 이거 돈 해서 뭐 살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친한 사람 왔으면 예, 이거 갖다가 반찬 하십시오, 이거 갖다가 먹으십시
오. 막 그렇게 했던 모양이야.)

102007 @1 으.(으.)

102007 #1 경 허영 강 보민 느네 집의 아방은 영 영 해라, 아기덜 생각도 안 허
곡 경 허영. 허민, 이녀 해진 거 이녀 경 허는 거 어떻습니까? 경 허멍 허여신디 그
런 경 허난 그 니 그치룩 허난 동티로.(그렇게 해서 가서 보면 너의 집의 남편은 이
렇게 이렇게 하더라, 아기들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녀 해진 거 이녀
그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런 그렇게 하니까 그 이 그치
럼 하니까 동티로.)

102007 @1 예.(예.)

102007 @2 으.(으.)

102007 #4 동티로 해연 경 알린 생이라. 경 허난 우리 저 우리 어머, 우리 씨어
머님은 경 허단에 오일장에 살단 이젠 서문 서국민후교¹⁴²⁾ 뒤에.(동티로 해서 그렇
게 아린 모양이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저 우리 어머, 우리 시어머님은 그렇게 하다
가 오일장에 살다가 이젠 서문 서초등학교 뒤에.)

102007 @1 예.(예.)

102007 #1 질긋 집의 살아서게. 질긋 집의 해연 살아신디 넘어, 경 허난 큰아덜
이 경 허곡 허난 우리 씨어머님도 그 우리 씨아바님이연 경 허연 막 즈들 거 아니
게.(길가 집에 살았어. 길가 집에 해서 살았는데 넘어, 그렇게 하니까 큰아들이 그
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님도 그 우리 시아버님이랑 그렇게 해서 아주 걱정할
거 아니.)

102007 @1 예, 예.(예, 예.)

102007 #1 경 허영 우리 씨어머님은 마리에서 막 걱정해연 그레 젓억¹⁴³⁾ 저레
젓억 질긋 집의 현 생이라.(그렇게 해서 우리 시어머님은 마루에서 막 걱정해서 그
리 ‘젓고’ 저리 ‘젓고’ 길가 집에 한 모양이야.)

102007 @1 으.(으.)

102007 #1 경 허난 어떤 할무니가 이디 흥뽀 나 쉬영 가민 안 돼쿠과? 나 그늘
에 흥뽀 쉬져 경 해렌.(그렇게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여기 조금 나 쉬어서 가면 안

142) ‘서국민후교’는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시초등학교를 말한다.

143) ‘젓억’은 ‘어지럽게 바빠 오가고’의 의미다.

되겠습니까? 나 그들에 조금 쉬자 그렇게 하더라고.)

102007 @1 으.(으.)

102007 #1 여름에 경 허난에. 아이고, 경 험서 영 허난 앓았단에 영 혜연 바레 환에 아주머닌 무신 걱정이 신 생이우다. 아는 사름인 생이라.(여름에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앓았다가 이렇게 해서 바라봐서 아주머닌 무슨 걱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는 사람인 모양이야.)

102007 @1 예, 예.(예, 예.)

102007 #4 걱정이 신 생우다 허난 걱정이명말명 영 영 허우다. 영 험서, 손그릇이나 봐 안네져 경 혜렌.(걱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니까 걱정인지만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손금이나 봐 드리자 그렇게 하더라고.)

102007 @1 으.(으.)

102007 #1 경 허난 들어 읍센 허연 손그릇을 영 보난에, 어머니 손그릇에도 신 생이라게.(그렇게 하니까 들어오십사고 해서 손금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손금에도 있는 모양이야.)

102007 @1 음.(음.)

102007 #4 이 아픈 환자여에 할머니 산을 천리혜 보민 알을 도레가 실 거우다. 경 혜렌.(이 아픈 환자의 할머니 산소를 면례해 보면 알 도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102007 @1 음.(음.)

102007 #4 경 허난 처음에 아프기 시작헤연. 춤 거꿀로 곱안, 아프기 시작허난 요디 요만큼이 발강케 무시거.(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아프기 시작해서. 참 거꾸로 말해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여기 요만큼 발강케 무엇.)

102007 @1 목에.(목에.)

102007 #4 튀어난. 텃가리 아래.(튀어났어. 텃주가리 아래.)

102007 @1 예.(예.)

102007 #1 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가민 그것이 귀따지 알러레 가민 그것이 삭아져 불고. 그거 뭐 조화로 경 현 생이라.(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가면 그것이 귀때기 아래로 가면 그것이 삭아져 버리고. 그거 뭐 조화로 그렇게 한 모양이야.)

102007 @1 예.(예.)

102007 #1 경 혜엇젠.(그렇게 했었다고.)

102007 @1 예.(예.)

102007 #4 경 허연게. 경 허연 허난 이젠 에 우리 저 씨어머님ㄴ라 그 어른 허는 말이 이 아픈 환자 여에 할머니 천리혜 보민 알을 도레가 실 거엔 경 허난 이젠 우리 씨어머님은 조케덜신디 우리 큰씨아버님이 우리 씨아바님이 셋아덜이라난 생이라. 식 성젠디.(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젠 에 우리 저 씨어머님보고 그 어른 하는 말이 이 아픈 환자 여에 할머니 면례해 보면 알 도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젠 우리 시어머님은 조카들한테 우리 큰시아버님이 우리 시아버님이 둘째아들이었던 모양이야. 세 형제인데.)

102007 @1 예.(예.)

102007 #4 경 허난 큰씨아바님 아덜덜신디허고 죽은씨아바님 아덜덜신디 조케덜신디 ㄴ튼 조상이난 느네도 ㄴ튼 조상 아니까? 경 허난 어떻허느니? ㄴ치덜 저디 아픈 دن 자 아기덜 때도 굶는 실정이라 부난 흘 수가 웃고. 느네덜이 ㄴ튼 조상이난 이제 뭐 허영 독** 허연 어떻허연 천틸 못 허커냐? 경 허난 우리 죽은씨아바님 아들이 흐끔 배운 사름이라. 그때 시절에도.(그렇게 하니까 큰시아버님 아들들한테 하고 작은시아버님 아들들한테 조카들한테 같은 조상이니까 너희도 같은 조상 아니니? 그렇게 하니까 어떡하느냐? 같이들 저기 아픈 덴 자 아기들 때도 굶는 실정이 어 버리니까 할 수가 없고. 너희들이 같은 조상이니까 이제 뭐 해서 독** 해서 어떡해서 면례를 못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작은시아버님 아들이 조금 배운 사람이야. 그때 시절에도.)

102007 @1 예, 예.(예, 예.)

102007 #1 스춘씨아지방이 경 허난 아이고 경만 허민 뉘헌텐 허민 경 협주. 우리 스춘씨아지방이 죽은씨아바님 아덜이 나산에 춤 경 허연 돈이영 허연 그 막 어려운 때게, 경 허연.(사춘시아주버니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만 하면 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합지요. 우리 사춘시아주버니가 작은시아버님 아들이 나서서 참 그렇게 해서 돈이랑 해서 그 막 어려운 때, 그렇게 했어.)

102007 @1 예.(예.)

102007 #1 천틸 헤보난 아픈 식으로이.(면례를 헤보니까 아픈 식으로.)

102007 @1 으.(으.)

102007 #1 이디 돌세기가 툇 바탄 셔렌. (기침)(여기 돌맹이가 툇 받쳐서 있더라고. (기침))

102007 @1 으.(으.)

102007 #1 조화로. 겨난 옛날은 지금은 춤 슬아 불곡 다 허는디 옛날은 경 문을 때난에 옛날 어른덜 하관허젠 허민 즈순덜 다 오랑 돌 잘 좇우렌 막 허여낫주게.(조화로. 그러니까 옛날은 지금은 참 살라 버리고 다 하는데 옛날은 그렇게 문을 때니까 옛날 어른들 하관하려고 하면 자손들 다 와서 돌 잘 주우라고 막 했었지.)

102007 @1 예, 예.(예, 예.)

102007 #1 이 돌덜 잘 좇우라. 잘 좇우라 막 헤낫주. 경 허여도 조화로 잘 좇엇주마는 어덜로 튀어난 나쁘젠 헛 것이 경 허연.(이 돌들 잘 주워라. 잘 주워라 막 했었지. 그렇게 해도 조화로 잘 주웠지만 어디로 튀어나서 나쁘려고 한 것이 그렇게 했어.)

102007 @1 음.(음.)

102007 #1 경 허연 저 애월면 그 고내¹⁴⁴⁾, 고내봉¹⁴⁵⁾에 우리 할머님이 모사나

144) '고내'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를 말한다.

서게.(그렇게 해서 저 애월면 그 고내리, 고내봉에 우리 할머니님이 모셨었어.)

102007 @1 음.(음.)

102007 #4 경 허연 이제 춤 천리하고 그때 경 허연 지금 경 혜연 천리허연 허난 이젠 천리허난 이젠 어디 뭐 할 수도 었고. 계난 납골당에 뭐 협주긴 허연 다 슬안.(그렇게 해서 이제 참 면례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면례해서 하니까 이젠 면례하니까 이젠 어디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납골당에 뭐 하지요 해서 다 살라서.)

102007 @1 예.(예.)

102007 #4 슬안에 이젠 납골당에 간 짓고.(살라서 이젠 납골당에 가서 있고.)

102008 @1 알아수다. 계난 옛날 그 결혼허젠 할 땐 사주도 보잖아양?(알았습니 다. 그러니까 옛날 그 결혼하려고 할 땐 사주도 보잖아요?)

102008 #4 스주도 받게.(사주도 봤어.)

102008 @1 으.(으.)

102008 #1 스주도. 스주, 스주도 봐실 건디 우리 집의 아방이 경 허연 허난 원 어떻사 혜연신디 몰라. 경 허연 절혼을 헌디. 우리 큰딸 낳고 그다음 아덜 하나 나 신디 벗 부찌젠 허단 보난 아덜은 그거 하나뿐 뭐 허렌 현 생이라.(사주도. 사주, 사주도 봤을 건데 우리 집의 남편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원 어떻게야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큰딸 낳고 그다음 아들 하나 낳았는데 벗 붙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들은 그거 하나뿐 뭐 하라고 한 모양이야.)

102008 @1 예.(예.)

102008 #1 하나뿐이고 이제.(하나뿐이고 이제.)

102008 @1 일본 가 불고.(일본 가 버리고.)

102008 #1 경 허난 어린 때에 우리 말젓씨아버님이 텅기레 왓단 경.(그렇게 하니까 어덜 때에 우리 셋째시아버님이 다니러 왔다가 그렇게.)

102008 @1 으.(으.)

102008 #1 우리 집윗 아방도 경 아판 경헨 혜가난 뭐허난 야이 들양강은에 그 디서 뭐 허켄 혜연 허연 춤 이디 중혹교, 중혹교 졸업을 못헤연 가실 거라게.(우리 집의 남편도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해서 혜가니까 뭐하니까 애 데려가서 거기서 뭐 하겠다고 해서 해서 참 여기 중학교, 중학교 졸업을 못해서 갔을 거야.)

102008 @1 음.(음.)

102008 #4 저 그 상고, 고등학교도 짓고 중혹교도 셋주기게.(저 그 상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었지.)

102008 @1 예, 예.(예, 예.)

102008 #1 경 허난 그디 경 허연 텅길, 텅기단 졸업 못허연 간. 일본 간 경 혜연 우리 말젓씨어머님 씨아버님은 다 돌아가서 불고. 그디서 어린 때 간 그디서 오래 살아가난 이젠 그디서 허연 그디 사름 정허연 결혼허연 이제 아덜 하나 난.(그렇

145) '고내봉'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게 하나까 거기 그렇게 해서 다닐, 다니다가 졸업 못해서 갔어. 일본 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셋째시어머님 시아버님은 다 돌아가서 버리고. 거기서 어릴 때 가서 거기서 오래 살아가니까 이젠 거기서 해서 거기 사람 정해서 결혼해서 이제 아들 하나 낳았어.)

102008 @1 예.(예.)

102008 #1 벗 부찌저. 지집아이도 스나이고 벗 부찌라 벗 부찌라 허여도.(벗 붙이자. 계집아이도 사내이고 벗 붙여라 벗 붙이라 하여도.)

102008 @1 으.(으.)

102008 #1 아이 어명이 하나민 충분허덴 허는 걸 어떻습니까. 경 허멍 이제 아덜 하나.(아이 어머니가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걸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 하나.)

102008 @1 예.(예.)

102008 #1 아덜 하나, 손지 하나.(아들 하나, 손자 하나.)

102009 @1 혹시 옛날에 삼촌 결혼할 때 그 혼수품 그튼 건 어떻 헤낫수가? 결혼할 때 가져가는 거?(혹시 옛날에 삼촌 결혼할 때 그 혼수품 같은 건 어떻게 했었습니까? 결혼할 때 가져가는 거?)

102009 #4 가정 가는 건 저 그때에 옛날은 가정, 가정 가는 건 예단 거세긴 우리 할 땐 저 무신거 기자 그 이부자리이.(가져서 가는 건 저 그때에 옛날은 가져서, 가져서 가는 건 예단 거시긴 우리 할 땐 저 무엇 그저 그 이부자리.)

102009 @1 예.(예.)

102009 #4 그런 거 춤 옛날은 세숫대영. 요강이, 그런 거 헤영 가낫주.(그런 거 참 옛날은 세숫대야. 요강, 그런 거 해서 갔었지.)

102009 @1 으.(으.)

102009 #1 화리 불 살르는 화리허고 경 허영 허어나신디. 저. 웃음. 그거 경 허영 가난 옛날은 그레 불살라근영에 헤영 영 념영 가렌 허곡이.(화로 불 사루는 화로 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저. 웃음. 그거 그렇게 해서 가니까 옛날은 그리로 불 살라서 해서 이렇게 넘어서 가라고도 하고.)

102009 @1 어.(어.)

102009 #1 막 경헌 그것ㄴ라 뭐 방법이라난. 불 살른 거렌 허난.(막 그런 그것 보고 뭐 비방이었어. 불 사룬 거라고 하나까.)

102009 @1 예, 예.(예, 예.)

102009 #1 뭐 곳인 무슨 뭐 방법으로 경 헤난 것 더 님아. 경 허렌도 헤여났어.(뭐 곳은 무슨 뭐 비방으로 그렇게 했던 것 더 같아. 그렇게 하라고도 했었어.)

102009 @1 음, 계난 이불은 멧 채나 행 간마씨? 그때.(음, 그러니까 이불은 멧 채나 해서 갔어요? 그때.)

102009 #4 이불은게 가오리¹⁴⁶⁾할 거. 이불 둘 요 둘. 경 허곡 궤 허연 우리 어

146) '가오리'는 제보자가 '교체'의 의미인 일본어 '가와리(かわり)'를 이렇게 말한 것이다.

머님이.(이불은 교체할 거. 이불 둘 요 둘. 그렇게 하고 퀘 해서 우리 어머님이.)

102009 @1 음.(음.)

102009 #1 그 나가 큰딸이주기. 경 허난 퀘 그때 시절에 퀘 헤연 허연 가시난 막 잘 허연 와났, 왓젠 헤났어.(그 내가 큰딸이지. 그렇게 하니까 퀘 그때 시절에 퀘 해서 해서 갔으니까 아주 잘 해서 왔었, 왔다고 했었어.)

102009 @1 예.(예.)

102009 #1 퀘, 퀘. 웃음.(퀘, 퀘. 웃음.)

102009 @1 퀘 헨 가고예?(퀘 해서 가고요?)

102009 #4 웃음. 퀘 허나. 웃음. 시숫대양허고 요강허곡 퀘.(웃음. 퀘 하나. 웃음. 세숫대야하고 요강하고 퀘.)

102009 @1 으.(으.)

102009 #1 웃음. 아이고 춤.(웃음. 아이고 참.)

102010 @1 게 결혼식은 어디서 허연마씨? 그때.(그래 결혼식은 어디서 했었어 요? 그때.)

102010 #4 시¹⁴⁷에서게.(제주시에서.)

102010 @1 아.(아.)

102010 #1 우리 씨부모네가 시에난.(우리 시부모네가 제주시니까.)

102010 @1 아, 시에서. 게문 집의서 허는 겨우짜?(아, 제주시에서.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겁니까?)

102010 #4 집의서 허연. 집의서.(집에서 했어. 집에서.)

102010 @1 음.(음.)

102010 #1 집의서 영 팽풍.(집에서 이렇게 병풍.)

102010 @1 으.(으.)

102010 #1 제스 때에 팽풍 영.(제사 때에 병풍 이렇게.)

102010 @1 예.(예.)

102010 #1 바깥딜로 둘러싼 영 헤연 심곡. 우리 집윗 아방은 족두리 쓰고 옛날.(바깥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해서 잡고. 우리 집의 남편은 족두리 쓰고 옛날.)

102010 @1 으.(으.)

102010 #1 사모관대 춤.(사모관대 참.)

102010 @1 예.(예.)

102010 #1 사모관대. 난 족두리 경 허연.(사모관대. 난 족두리 그렇게 해서.)

102010 @1 쟁은에 그때 사진도 칩디가?(그래서 그때 사진도 찍었습니까?)

102010 #4 사진 찍언게.(사진 찍었어.)

102010 @1 어.(어.)

102010 #4 사진 찍언, 것도게.(사진 찍었어, 것도.)

102010 @1 사진 찍은 건 잇어마씨? 옛날 찍은 거.(사진 찍은 건 잇어요? 옛날

147) 여기에서 '시'는 제주시청 소재지인 제주시를 말한다.

찍은 거.)

102010 #4 사진 찍은 거 신디. 원 신가 옛인가 몰라. 우리 큰딸 누게 배우켄 자랑허켄 허명 옛날 사모관대 쓰고 난 족두리 쓰고.(사진 찍은 거 있는데. 원 있는가 없는가 몰라. 우리 큰딸 누구 보이겠다고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옛날 사모관대 쓰고 난 족두리 쓰고.)

102010 @1 예.(예.)

102010 #4 경 헤나난. 옛날엔 경 허연게. 저 신부덜 고팡더레 돌아 앓지렌 허곡.(그렇게 했었어. 옛날엔 그렇게 했어. 저 신부들 고팡으로 돌아 앓히라고 하고.)

102010 @1 예.(예.)

102010 #4 경 헤난게.(그렇게 했었어.)

102010 @1 음.(음.)

102010 #1 영 고팡더레 돌아앓지렌 허곡. 경 허영 허믄 이거 무사 고팡더레 돌아앓이렌 허염신고. 전래가 경 허연 고팡더레 여즌 고팡더레 돌아앓지렌 허곡 허는 거엔 허영 경 허곡. 이불자리도 허믄 동네에 옛날은 심바람 허는 그 동네에 하간 거.(이렇게 고팡으로 돌아앓히라고 하. 그렇게 해서 하면 이거 왜 고팡으로 돌아앓히라고 하고 있을까. 전래가 그렇게 해서 고팡으로 여잔 고팡으로 돌아앓히라고 하고 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부자리도 하면 동네에 옛날은 심부름 하는 그 동네에 온갖 거.)

102010 @1 예.(예.)

102010 #1 영 그런 것ㄴ라 옛날은 소스, 소스 헤낫주기게.(이렇게 그런 것보고 옛날은 소사, 소사 했었지.)

102010 @1 예.(예.)

102010 #4 경헌 어른 헤연, 여즌 어른이 어렵게 사는 여즌 어른이 헤서게. 경 동네에서. 경 헤연 헤신디. 그 어른이 이불 나 이불자리도 헤연 가져간. 이불자리도 헤연 가난에 그 어른이 영 저 날르고 우리 족은아버지가 와시난에 어떻 치매 혼 허릿값¹⁴⁸이나 벌어진, 경 허여.(그런 어른 해서, 여자 어른이 어렵게 사는 여자 어른이 했어. 그렇게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어른이 이불 나 이부자리도 해서 가져갔어. 이부자리도 해서 가니까 그 어른이 이렇게 저 날르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왔으니까 어떻게 치매 한 ‘허리값’이나 벌어진, 그렇게 해.)

102010 @1 으.(으.)

102010 #1 경 허난에 아이고, 예게, 치매 혼 허릿값 든든히 줍디다. 경 허명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난이.(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예, 치매 한 ‘허리값’ 단단히 줍디다. 그렇게 하면서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니까.)

102010 @1 예.(예.)

102010 #1 경 헤난.(그렇게 했었어.)

148) ‘허릿값’은 ‘치마의 허리 부분의 값’이라는 의미로, 일한 대가를 넉넉히 받았느냐는 뜻으로 사용할 때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102010 @1 음, 경 허난 그 분이 이제 이불을 정 갖구나예? 으.(음, 그렇게 하니까 그 분이 이제 이불을 저서 갖군요? 으.)

102010 #4 그 계란.(그 그러니까.)

102012 @1 계문 그 신희살림은 어디서 현 거? 처음엔.(그러면 그 신희살림은 어디서 한 거? 처음엔.)

102012 #4 처음에 시에게.(처음에 제주시에서.)

102012 @1 으.(으.)

102012 #1 우리 씨집이가 시에난.(우리 씨집이 제주시니까.)

102012 @1 예.(예.)

102012 #4 경 허난 시에서 방 빌은 따로 살았지.(그렇게 하니까 제주시에서 방 빌려서 따로 살았지.)

102012 @1 아, 따로.(아, 따로.)

102012 #1 상곶동산.(향교동산.)

102012 @1 시어머님네허곡 ㄴ치 안 살아봤구나예?(시어머님네하고 같이 안 살아봤군요?)

102012 #4 ㄴ찌 안 살안 따로 살안.(같이 안 살아서 따로 살았어.)

102012 @1 으.(으.)

102012 #1 우리 저 아방네가 쇠 성제주게. 우리 셋아지방은 이제도 시에 살암서.(우리 저 남편네가 세 형제지. 우리 둘째아주버니는 이제도 제주시에 살고 있어.)

102012 @1 아.(아.)

102012 #4 시에 살고. 죽은아지방은 저 장전¹⁴⁹.(제주시에 살고. 작은아주버니는 저 장전.)

102012 @1 으.(으.)

102012 #1 양 간. 그 친족 간에 아기, 자식 웃언 경 허난 거기서 양 가고, 쇠 성젠디 경. 우리 씨누인 하나 신디 씨누인 이제 화북¹⁵⁰ 살아, 이제. 나보다 혼나 알.(양자 갔어. 그 친족 간에 아기, 자식 없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양자 가고, 세 형제데 그렇게. 우리 시누인 하나 있는데 시누인 이제 화북 살아, 이제. 나보다 하나 아래.)

102012 @1 예, 계문 아까, 이제 우리 삼촌안틴 아들 하나고 딸은 으라 개렌 허명, 딸은 멧 개? 웃음. 딸 다섯?(예,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삼촌한테는 아들 하나고 딸은 여러 개라고 하면서, 딸은 몇 개? 웃음. 딸 다섯?)

102012 @2 으.(으.)

102012 #4 부끄러와.(부끄러워.)

102012 @1 무사 부끄러울 말이우짜? 계문 딸들은 어떻 살텐?(왜 부끄러울 말입니까? 그러면 딸들은 어떻게 살아요?)

149) '장전'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를 말한다.

150) '화북'은 제주시 화북동을 가리킨다.

102012 #4 게, 지 밥덜 먹어.(그래, 저 밥들 먹어.)

102012 @1 예.(예.)

102012 #1 지 밥덜 먹고. 나 이제 부영¹⁵¹), 옛날 어른 말이.(지 밥들 먹고. 나 이제 ‘부영’, 옛날 어른 말이.)

102012 @1 음.(음.)

102012 #4 쥐도 굶으면 혼 고망 굶으렌 헛저, 혼 고망 굶으렌 헛저, 그런 말을 어린 땀 들어난 거난, 이거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허염신고 헤연 헤신이 나가 정험해보고 뭐허난이 아 이런 뿔으로 옛날 어른덜은 그런 말을 곱앗구나. 그디저디 주악주악허민이 뭐허영 허곡 혼 밧디, 미움을 받아도 혼 밧디이 그냥 좋게 봐도 혼 밧디. 혼 밧디로 뭐허렌 헨 뜻으로 경 곱아난 생이라. 영 경 허연 허난 뿔이 여러 성제라도 이제 부영.(쥐도 굶으면 한 구멍 굶으라고 했다, 한 구멍 굶으라고 했다, 그런 말을 어린 땀 들었던 거니까, 이거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해서 해서 했는데 내가 경험해보고 뭐하니까 아 이런 뿔으로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말했구나. 거기저기 기웃기웃하면 뭐해서 하고 한 군데, 미움을 받아도 한 군데 그냥 좋게 봐도 한 군데. 한 군데로 뭐하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던 모양이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니까 딸이 여러 형제여도 이제 ‘부영’.)

102012 @1 예.(예.)

102012 #4 딸레 집의 으지허영 허곡. 우리 사위가 저 부모 어린 때에 돌아가션 그 우리 사위도 우리광 똑ㄴ땀.(딸의 집에 의지해서 하고. 우리 사위가 저 부모 어린 때에 돌아가셔서 그 우리 사위도 우리랑 똑같아서.)

102012 @1 음.(음.)

102012 #4 딸이 누님 아래 누이하곡 우의 누님허곡 허고 다섯이고 독자게.(딸이 누님 아래 누이하고 위에 누님하고 하고 다섯이고 독자야.)

102012 @1 예.(예.)

102012 #4 우리 아덜광 똑ㄴ탄계. 우리 집광 똑ㄴ땀. 경 허연 허난 처음에 우리 저 말젓뿔은 지금 저 화북¹⁵² 살아.(우리 아들과 똑같아서. 우리 집과 광 똑같아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처음에 우리 저 셋째 딸은 지금 저 화북 살아.)

102012 @1 예.(예.)

102012 #4 화북 사는데 친구가 무신 말 말을 영 허멍 허연, 그디도 그 우리 부영 딸을, 딸광 우리 딸광 친구라난 생이라. 친목도 허고. 집안에 사는 말도 곧고 허여져신ㄴ라 헌디, 뭐허연 허난 이젠 막 춤 우리 이제 부영 딸을 기냥 막 뭐허연 허난 이젠 우리 부영 딸이 저 영 영 허는디 어머니 어떻허코? 어떻허코? 경 허연 허ㄴ테.(화북 사는데 친구가 무슨 말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해서, 거기도 그 우리 ‘부영’ 딸을, 딸과 우리 딸과 친구였던 모양이야. 친목도 하고. 집안에 사는 말도 말하고 했는지 했는데, 뭐해서 하니까 이젠 막 참 우리 이제 ‘부영’ 딸을 그냥 막 뭐해서

151) 여기에서 ‘부영’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가리키는 말이다.

152) ‘화북’은 제주시 화북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니까 이젠 우리 ‘부영’ 딸이 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렇게 하니까.)

102012 #4 느 인생은 느가 사는 거여. 나가.(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다. 내가.)

102012 @1 음.(음.)

102012 #4 느 인생은 느가 사는 거난 느가 결정허여근에 경을 허든 저영을 허든 허라. 어떻ㄴ라 듣지 말라. 어명이엔 허연 경 허곡 가지 말렌 안 하곡 거세기 경 현 사름덜은 게민 장게 못 강 사느냐, 못 강 살렌 말가?(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까 네가 결정해서 그렇게를 하든 저렇게를 하든 해라. 어머니보고 듣지 말라. 어머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가지 말라고 안 하고 거시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장가 못 가서 사느냐, 못 가서 살라는 말이니?)

102012 @1 음.(음.)

102012 #4 느 인생은 다 뭐허다 거세기 허영 허든 나도 이제 나 혼자 아니가게. 경 느네 아버지 엇어 불곡 경 허연 허난 경 허연 허난, 그딘 우린 씨, 사둔님 두 어른이 다 돌아가셔 불언게.(네 인생은 다 뭐허다 거시기 해서 하면 나도 이제 나 혼자 아니니. 그렇게 너의 아버지 없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거긴 우린 시, 사둔님 두 어른이 다 돌아가셔 버렸어.)

102012 @1 으음.(으음.)

102012 #4 경 허였고, 춤 느 우의 누님이영 아래 동생이영 으라이라도 여동생은 경 해도, 경 헤연 헌디 스주팔젠ㄴ라 게도 가난 우리 사위가 부영 사위가 춤 어린 때에 경 허난, 어린 때 어머니 돌아가셔 불고 군대에 가신디 군대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젠 허연.(그렇게 했었고, 참 네 위의 누님이랑 아래 동생이랑 여럿이어도 여동생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주팔자인지 그래도 가니까 우리 사위가 ‘부영’ 사위가 참 어릴 때에 그렇게 하니까,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셔 버리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102012 @1 음.(음.)

102012 #4 와나ㄴ렌.(왔었다고.)

102012 @1 예.(예.)

102012 #4 경 헤연 와나ㄴ렌 헌디 경 고생허연 사난, 살아나난 산디, 부모 기런 살아나난산디 막 착허여.(그렇게 해서 왔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사니까, 살았었으니까 살았는데, 부모 그러서 살았었는지 아주 착해.)

102012 @1 예.(예.)

102012 #4 나도 경 허난 그디만 경 간 살아점주기. 그 이제 오누이라, 애기.(나도 그렇게 하니까 거기만 그렇게 가서 살고 있지. 그 이제 오누이야, 아기.)

102012 @1 으.(으.)

102012 #1 경헌디 가네들 거넘허고 부영 딸은 중개사 허멘.(그런데 개네들 돌보고 ‘부영’ 딸은 중개사 하고 있어.)

102012 @1 예.(예.)

102012 #4 중개사.(중개사.)
 102012 @1 몇 번째 딸이우과?(몇 번째 딸입니까?)
 102012 #4 거세기 식 번째 딸.(거시기 세 번째 딸.)
 102012 @1 아.(아.)
 102012 #4 식 번째 딸 여상¹⁵³⁾ 나완이.(세 번째 딸 여상 나와서.)
 102012 @1 예.(예.)
 102012 #4 여상 나완에 중개사 허연 허난 이녁 집 허고 춤 밥은 먹어게.(여상 나와서 중개사 해서 하니까 이녁 집 하고 참 밥은 먹어.)
 102012 @1 예.(예.)
 102012 #4 사위가 암전허영 뭐허곡.(사위가 암전해서 뭐하고.)
 102012 @1 으.(으.)
 102012 #4 경 허난 그디 이디서 영 나들게 가깝고 뎅기단 보난 그디서 경 헤연 그디 그자 으지허염서.(그렇게 하니까 거기 여기서 이렇게 나들게 가깝고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거기 그저 의지하고 있어.)
 102012 @1 예.(예.)
 102012 #4 딸 으라이라도.(딸 여럿이어도.)
 102012 @1 음.(음.)
 102012 #4 경 허난.(그렇게 하니까.)
 102013 @1 맞수다. 그 혹시 씨어머니 씨아버지는 어떤 분이랏수가?(맞습니다. 그 혹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였었습니까?)
 102013 #4 옛날 그 서문시장 오일장.(옛날 그 서문시장 오일장.)
 102013 @1 예.(예.)
 102013 #4 오일장에 허연 허난 우리 씨어머님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난이, 거 알아져, 이제. 우리 결혼허연 보난 그 서문 매일장도 허곡게.(오일장에 해서 하니까 우리 시어머님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니까, 거 알아져, 이제. 우리 결혼해서 보니까 그 서문 매일장도 하고.)
 102013 @1 예, 예.(예, 예.)
 102013 #4 옛날 매일장에서이 풀떡 장실 험서고게.(옛날 매일장에서 풀빵 장살 하고 있었어.)
 102013 @1 음.(음.)
 102013 #4 그 이제 지금 ㄱ트민 붕어빵이지.(그 이제 지금 같으면 붕어빵이지.)
 102013 @1 예, 예.(예, 예.)
 102013 #4 그거 보난 경 허연 허염고, 경 허연.(그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어.)
 102013 @1 음.(음.)
 102013 #4 헤난.(했었어.)

153) 여기에서 '여상'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말한다.

102013 @1 성격들은 어떻 해낫수가? 씨집살인 허여보진 안 험디가?(성격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시집살인 해보진 안 험디가?)

102013 #4 곧 결혼허난 딱로 살고 허난 경 아녀고 우리 씨아버님이 경 춤 막 좋안게.(곧 결혼하니까 따로 살고 하니깐 그렇게 앓고 우리 시아버님이 그렇게 참 아주 좋았어.)

102013 @1 으.(으.)

102013 #1 경 허난 그땐 물허벅 질 때난이.(그렇게 하니까 그땐 물동이 질 때니까.)

102013 @1 예.(예.)

102013 #4 물허벅 질 때난 씨아버님이 물허벅도 고운 걸로 사그렌 허멍 허연 씨아버님이 이제 허벅이영 물구덕¹⁵⁴)이영 다 창영 으간이.(물동이 질 때니까 시아버님이 물동이기도 고운 걸로 샀다고 하면서 해서 시아버님이 이제 물동이랑 ‘물구덕’ 이랑 다 바닥이랑 엮어서.)

102013 @1 으.(으.)

102013 #4 허연 영 허영 베 허영 이거 영 허여근에 허렌 허멍 우리 씨아버님이 경 좋아난.(해서 이렇게 해서 바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서 우리 시아버님이 그렇게 좋았었어.)

102013 @1 아, 씨아버지가 막 세세했구나예?(아, 시아버지가 아주 세세했군요?)

102013 #4 씨아버님이 경 막 허여난. 경 허난 우리 씨아버님 경 허난 우리 이 셋아지방허곡 셋동세넨 결혼허연 일본 가낫주게, 그때. 어릴 땐 가난 일본 간 뒤희영 살주기 허영 일본 가 불고 셋아지방 아덜 이제 우리 말젓뜰광 동갑인디 할머니광 그치 시에 살았어게.(시아버님이 그렇게 막 했었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아버님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 둘째아주버니하고 둘째 동서넨 결혼해서 일본 갔었지, 그때. 어릴 땐 가니까 일본 가서 뒤희해서 살자 해서 일본 가 버리고 둘째시아주버니 아들 이제 우리 셋째 딸과 동갑인디 할머니하고 같이 제주시에 살았어.)

102013 @1 음.(음.)

102013 #4 서국민학교 뒤에 허연 사는데 춤 나하고 뒤희연 허난 어떻 허단 내려전.(서국민학교 뒤에 해서 사는데 참 나하고 뒤희해서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서.)

102013 @1 음.(음.)

102013 #4 내려전에 오몽 못허연 허난 이젠 우리 작은동, 일본 간, 셋동센 일본 가 불고 셋동세 아덜 하나가 할머니영 그치 허연 산디 장게 안 간 총각인디 어린 때에 경 허연 산디 이제 장전¹⁵⁵) 간 양 간 동세허고 난 춤 외도 경 험 살아신디, 교대식으로 간 춤.(넘어져서 움직임 못해서 하니까 이젠 우리 작은동, 일본 간, 둘째동서는 일본 가 버리고 둘째동서 아들 하나가 할머니랑 같이 해서 살았는데 장가

154) ‘물구덕’은 물을 길러 다닐 때 사용하는 물동이, 즉 ‘물허벅’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바구니를 말한다.

155) ‘장전’은 제주도 애월읍 장전리를 말한다.

안 간 총각인데 어릴 때에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장전 가서 양자 간 동서하고 난 참 외도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교대식으로 가서 참.)

102013 @1 음.(음.)

102013 #4 뒤¹⁵⁶⁾ 받아넷주기게.(‘뒤’ 받아냈지.)

102013 @1 예, 예.(예, 예.)

102013 #4 뒤 받안에 허연 허난 나 씨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못 받게.(‘뒤’ 받아서 해서 하니까 나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못 봤어.)

102013 @1 음.(음.)

102013 #4 또 허연 허난 우리 동세가 흐를 걸령 흐를 동세 허믄 흐를 나 가곡 경 헛어게.(또 해서 하니까 우리 동서가 하루 걸러서 하루 동서 하면 하루 나 가고 그렇게 했어.)

102013 @1 예.(예.)

102013 #4 서문과출소로 옛날 서문과출소로 서쪽에 살아신디 경 허연 허난 우리 죽은동세가 장전은 촌 아니라 이디보단도.(서문과출소로 옛날 서문과출소로 서쪽에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작은동서가 장전은 촌 아닌가, 여기보다도.)

102013 @1 예, 예.(예, 예.)

102013 #4 경 허난 아이고, 매날 흐를 걸르난 매날 와지는 것 닥고 집안, 집잇 일을 못허쿠덴. 밧디 일을 못허쿠다. 형님, 우리 이틀씩 허여근엔에 허믄 어떻허코 마썸? 흐를이랑 므음 낱 집잇일 허게 경 허구데.(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맨날 하루 거르니까 맨날 오는 것 같고 집안, 집안일을 못하겠다고. 밧에 일을 못하겠습니다. 형님, 우리 이틀씩 해서 하면 어떨까요? 하루는 마음 놔서 집안일 하게 그렇게 하기에.)

102013 @1 으.(으.)

102013 #4 경 허라게, 경 허컨 경 허멍 허연에 늘 허연. 춤 샷바 첩고이.(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해서 늘 해서. 참 기저귀 채우고.)

102013 @1 으.(으.)

102013 #4 경 허난 우리 저 셋씨아지방 아덜이 ㄱ치 살곡 경 허난 경 허연 허여신디. 웃음. 아멩 해도 우리 죽은동선 젊은 사름이난 씨어머닌 샷바 첩젠 허믄 따 끄곡 뒹허젠 허믄 고무장갑을 찢던 모양이라.(그렇게 하니까 우리 저 둘째아주버니 아들이 같이 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웃음. 아무리 해도 우리 작은 동선 젊은 사름이니까 시어머닌 기저귀 채우려고 하면 닥고 뒹하려고 하면 고무장갑을 끼었던 모양이야.)

102013 @1 예.(예.)

102013 #4 고무, 젊은 사름이난. 고무장갑을 찢 영 허영 허믄 선득선득할 거 아니게.(고무, 젊은 사름이니까. 고무장갑을 꺾서 이렇게 해서 하면 선뜻선뜻할 거 아

156) ‘뒤’는 오줌이나 똥 따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보통 몸져누워서 똥오줌을 직접 해결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똥오줌을 치워주는 일을 ‘뒤받다’처럼 표현한다.

닌가.)

102013 @1 으.(으.)

102013 #4 경 허난 실렘텐 말도 못허곡 메누리 빌언 경 허젠 허난 춤은 거 아니게.(그렇게 하니까 시리다고 말도 못하고 며느리 빌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춤은 거 아니.)

102013 @1 예.(예.)

102013 #4 경 허영 난 가쁜 기냥 손으로 경 허영 허쁜 에이고, 우리 동세 딸이 ○○이라. ○○이 어명은 오쁜이 장갑 찌난이 선뜩허민 나가 춤막헤지곡 선뜩허영 춤막헤지곡 경헌디 는 경 안 허영이, 경 허명 곶아낫주기.(그렇게 해서 난 가면 그냥 손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고, 우리 동서 딸이 ○○이야. ○○이 어머니는 오쁜 장갑 끼니까 선뜩하면 내가 머뭇해지고 선뜩해서 머뭇해지고 그런데 넌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하면서 말했었지.)

102013 #4 경 허난 ○○이 어명은 젊으난 경 험수게.(그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는 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02013 @1 으.(으.)

102013 #4 나보단 나이가 젊수게게. 나 경 허영 허명 늘 경 허연 허여신디, 씨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나 못받게. 무사 못 봐신고 허민 나가 위 수술을 허엿어게. (나보단 나이가 젊잖아요. 나 그렇게 해서 하면서 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나 못봤어. 왜 못 봤는가 하면 내가 위 수술을 했어.)

102013 @1 아.(아.)

102013 #4 이 우리 씨어머님 아흔셋에 돌아가션.(이 우리 시어머님 아흔셋에 돌아가셨어.)

102013 @2 으.(으.)

102013 #4 경 헌디 나가 위 허영 막 기냥 원 밥도 잘 먹곡 예상허영 말근곡 놀곡 허당 허곡 경 허연 허여신디, 밝아 가민 새로 서너네 시쯤에 허민 이 웬착 가슴 알이 이 아래 경 꺽꺽 아팠 허단 서너네 시 새벽도 뒹곡 더 즈주 아픈는 거라.(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내가 위 해서 막 그냥 원 밥도 잘 먹고 예상해서 말하고 놀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밝아 가면 새로 서너네 시쯤에 하면 이 왼쪽 가슴 아래가 이 아래 그렇게 꺽꺽 아파서 하다가 서너네 시 새벽도 되고 더 자주 아픈 거야.)

102013 @1 으.(으.)

102013 #4 더 즈주 아팠 허난. 이젠 딸덜ㅋ라 곶앗주기. 아이고, 영 영 허영 스실이 헌디이 밝아 가난 더 허영 어땡허코? 허난, 우리 저 화북 사는 딸이 남편네ㅋ라 곶아신고라. 어머니 영 영 험젠 헤신고라, 아이고, 게쁜 병원에 가봐야 헌덴 허연 병원에 한라의료원에.(더 자주 아파서 하니까. 이젠 딸들보고 말했지.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이 한테 밝아 가니까 더 해서 어떡할까? 하니까, 우리 저 화북 사는 딸이 남편보고 말했는지. 어머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지, 아이고,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한라의료원에.)

102013 @1 으.(으.)

102013 #4 한라의료원에 간에 나가 이때까지 살젠 허난 춤 어딜로 발랏단 뒤
헌 거 닻아.(한라의료원에 가서 내가 이때까지 살려고 하니까 참 어디로 바뤄다가
뒤 한 거 같아.)

102013 @1 음.(음.)

102013 #4 경 허연 헌디 영 허연 뒤신게 그 서월서.(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뒤는데 그 서울서.)

102013 @1 예.(예.)

102013 #4 박사가 마치 이 병원을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검사 온 때 나
가 입원을 해연게.(박사가 마치 이 병원을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검사 온 때
내가 입원을 했어.)

102013 @1 예.(예.)

102013 #4 경 허난에 그디 그 영 해연 나 간 때 친찰허고 뒤 허연 엑스레이 찍
고 허여. 그 박사가 허여신디 말로 곁으민 겁나카부텐 헌 거 닻아.(그렇게 하니까
거기 그 이렇게 해서 나 갈 때 친찰하고 뒤 해서 엑스레이 찍고 해. 그 박사가 했
는데 말로 말하면 겁날까봐 한 거 같아.)

102013 @1 음.(음.)

102013 #4 요만헌 종이에 처음엔 요 손부리[손뿌리]만인.(요만한 종이에 처음엔
요 손부리[손뿌리]만큼.)

102013 @1 으.(으.)

102013 #4 허꼭 그다음은 요만큼 크게 허꼭 그다음은 흐뎡 더 크게 허고 허연
말도 곁지 아녀고 이거 영 영 허연 영 그때 암이라난 생이라, 위암게.(하고 그다음
은 요만큼 크게 하고 그다음은 조금 더 크게 하고 해서 말도 말하지 았고 이거 이
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 암이었던 모양이야, 위암.)

102013 @1 예.(예.)

102013 #1 경 허난 영 영 허텐 곁으민 겁나카부텐산디사 종일 오란 들렁 영 박
사가 나신디레 침대에 눈디 영 허연 배우난 나 생각에.(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러
게 한다고 말하면 겁날까봐서 종일 와서 들어서 이렇게 박사가 나한테로 침대에 누
웠는데 이렇게 해서 보이니까 내 생각에.)

102013 @1 으.(으.)

102013 #4 아, 처음 시춘 요만이, 그다음 츄츄 커가는 건, 허난 마지막은 영 큰
걸로 베왓구나 말은 곁지 아녀꼭 허염구나. 나 생각에 경 허엿어게.(아, 처음 시춘
요만이, 그다음 차차 커가는 건, 하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큰 걸로 보이고 있구나 말
은 말하지 았고 하고 있구나. 내 생각에 그렇게 했어.)

102013 @1 음.(음.)

102013 #4 경 허연 헌디 이제까지 살젠 허난, 살렌 헌 거세긴ㄴ라 그 박사 온
때 수술을 허연게.(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까지 살려고 하니까, 살라고 한 거시기

인지 그 박사 온 때 수술을 했어.)

102013 @1 예.(예.)

102013 #4 수술을 허연 헌디 검살 허젠 허난 춤 일로 호수 디물안 이까지 들어 오는 거 닻안게.(수술을 해서 했는데 검살 하려고 하니까 참 이리로 호수 집어넣어서 이까지 들어오는 거 같던데.)

102013 @1 으.(으.)

102013 #4 경 해도 딱 춤안에 이젠 그 수술을 이젠 헤엇어.(그렇게 해도 딱 참아서 이젠 그 수술을 이젠 했어.)

102013 @1 음.(음.)

102013 #4 그 전에 저 그 검사하는 사람이 서신디 막 죽어지켄 악살¹⁵⁷을 허고 막 들릭퀸 생이라.(그 전에 저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죽겠다고 ‘악살’을 하고 아주 날뽀 모양이야.)

102013 @1 으.(으.)

102013 #4 경 허난 우리 죽은딸이 이제 신제주 살아. 죽은딸 헌디. 죽은딸이 나 경 허연 나와시난 아이고, 영 영 헌 어른은 막 스뭇 울르는 소리 막 난게 어머니 깃딱 소리 안헤렌 허곤데. 아이고, 울르민 어떻허영 짝 숨 춤안 짝 춤ㄴ렌. 웃음.(그렇게 하니까 우리 작은딸이 이제 신제주 살아. 작은딸 했는데. 작은딸이 나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 어른은 아주 사뭇 외치는 소리 아주 나던데 어머니 까딱 소리 안하더라고 하니까. 아이고, 외치면 어떡해서 짝 숨 참아서 짝 참았다고. 웃음.)

102013 @1 아, 그때가 멧 슬 때마씨?(아, 그때가 몇 살 때예요?)

102013 #4 그때 예, 저 거시기 쉬은아홉에.(그때 예, 저 거시기 원아홉에.)

102013 @1 아.(아.)

102013 @2 아홉 수.(아홉 수.)

102013 @1 그 당시에는 그 별로 저기도 아닌데예. 계난 살 더레 부튼 거주게, 삼촌은예?(그 당시에는 그 별로 저기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살 데로 붙은 거지, 삼촌은요?)

102013 #4 경 허난 옛날 어른 말이 살 더레 부뜨렌 허는 팔제는 살 러레만 부뜨는 거야. 경 곤는 거 들어난. 우리 할머니 적에.(그렇게 하니까 옛날 어른 말이 살 데로 붙으라고 하는 팔자는 살 데로만 붙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들었었어. 우리 할머니 적에.)

102013 @1 예.(예.)

102013 #4 경 헤나신디. 이때도록 살렌 헌 팔젠ㄴ라 춤 즈들멍 울르멍이라도 영 허영 살렌 헌 팔젠ㄴ라 이제까지 경 허영 그때 수술허연 헌디 경 허난 그때 저 그 박사 허는 말이.(그렇게 했었는데. 이때도록 살라고 한 팔자인지 참 걱정하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해서 살라고 한 팔자인지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그때 수술해서 했는

157) ‘악살’은 ‘성내어서 소리를 지르면 야단하는 일’을 말한다.

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저 그 박사 하는 말이.)

102013 @1 음.(음.)

102013 #4 조금 입금¹⁵⁸⁾이랑 조금 험센.(조금 ‘입금’은 조금 하십시오.)

102013 @1 음.(음.)

102013 #4 육고기 ㄱ쁜 거랑 조금 험서. 저 당분간이랑 험서. 경현, 허연게. 경 허연 이제 현디 이제까지도 나 안 먹어, 육고기.(육류 같은 거랑 조금 하십시오. 저 당분간이랑 하십시오. 그런, 하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까지도 나 안 먹어, 육류.)

102013 @1 으.(으.)

102013 #4 경 현디 요 우리 즈뜻 친구 남편이 또 위 수술을 허였어게. 허연 허연 현디 나 경 퇴원허영 온 거 저디서 건널목에서 봐지난 아주머니, 바닷고기랑, 그 친구 남편이.(그렇게 했는데 요 우리 가까운 친구 남편이 또 위 수술을 했어. 해서, 해서 했는데 나 그렇게 퇴원해서 온 거 저기서 건널목에서 보이니까 아주머니, 바닷고기랑, 그 친구 남편이.)

102013 @1 음.(음.)

102013 #4 아주머니, 바닷고기랑 아무 거라도 먹고대고 저 육고기만큼이랑 멀리 험서. 그디도 경 곤는, 골앗던 모양이라, 원장이.(아주머니, 바닷고기랑 아무 거라도 먹을지라도 저 육류만큼은 멀리하십시오. 거기도 그렇게 말하는, 말했던 모양이야, 원장이.)

102013 @1 으.(으.)

102013 #4 경 허멍 허연게. 나가 경 허멍 허연신디 지금도 나 육고기 안 먹어. 아무 거나 심상허여. 이 노인당에 가도 막 반찬덜 허영 막 먹꼭 경 허여도 어떤 그 친헌 친군 경 우시개로 경 곱아. 아이고, 이제랑 나 하곡 먹단 죽주지. 경 허멍 허른 역불 경 먹기 실픈 거 경 먹으멍 죽느냐? 경 허멍 우시개 허주게. 웃음.(그렇게 하면서 하던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나 육류 안 먹어. 아무 거나 심상해. 이 노인당에 가도 아주 반찬들 해서 아주 먹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친한 친군 그렇게 우스개로 그렇게 말해. 아이고, 이제랑 나이 많고 먹다가 죽지. 그렇게 하면서 하면 부러 그렇게 먹기 싫은 거 그렇게 먹으면서 죽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스개 하지. 웃음.)

102013 @1 음. 경 허멍 육고기 안 먹엄구나예?(음. 그렇게 하면서 육류 안 먹고 있군요?)

102013 #4 나 안 먹어. 육고기. 바닷고기 먹어도 경 허멍. 아이고, 이제도록 살 안.(나 안 먹어. 육류. 바닷고기 먹어도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제도록 살았어.)

102014 @1 예, 게든 그 자식들은 다 결혼시켄마씨?(예, 그러면 그 자식들은 다 결혼시켰어요?)

102014 #4 으, 다 허연.(으, 다 했어.)

158) ‘입금’은 ‘음식 먹는 것을 가리는 일’의 의미다.

102014 @1 으, 일 다 출려신게예?(으, 일 다 차렸네요?)

102014 #4 다 출려. 겨난 그 요번에 요디 친구 경 곶안. 언니, 경 해도 고생허멍 살아도 혈찬일¹⁵⁹) 다 허엿수게 경. 무신거 혈찬일 다 헤시? 이때도록 이녁 집도 못 허영 놈의 집 살곡. 경 허영 현디. 경 허멍. 경 허여도 언니, 일 출릴 걸 다 헛수게, 경 허멍.(다 차렸어. 그러니까 그 요번에 요기 친구 그렇게 말했어. 언니, 그렇게 해도 고생하면서 살아도 ‘혈찬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무엇 ‘혈찬일’ 다 했니? 이때도록 이녁 집도 못해서 놈의 집 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언니, 일 차릴 걸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02014 @1 흘찬일?('흘찬일')

102014 #4 혈찬일게. 아이덜 결혼식 ㄴ쁜 거 다 허지, 허엿수게, 경현 말이주리게.(‘혈찬일’. 아이들 결혼식 같은 거 다 하지, 했잖아요, 그런 말이지.)

102014 @1 걸 혈찬일이렌 헛니까?(걸 ‘혈찬일’이라고 헛니까?)

102014 #4 몰라게. 경 곶안게.(몰라. 그렇게 말하던데.)

102014 @2 혈 차례의 일.(할 차례의 일.)

102014 @1 으.(으.)

102014 #4 혈 츠렌 일 다 헛젠 말이주게. 언니, 경 해도 흘찬일¹⁶⁰) 다 헛수게. 경. 웃음.(할 차례의 일 다 했다는 말이지. 언니, 그렇게 해도 ‘흘찬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웃음.)

102014 @2 으.(으.)

102015 @1 예, 그 이제 메뉴리는 일본 메뉴리라부난 허고. 우리 사위 자랑 허 꼼 해봅서? 사위들은 어떻헛니까?(예, 그 이제 며느리는 일본 며느리여서 하고. 우리 사위 자랑 조금 해보십시오? 사위들은 어떻헛니까?)

102015 #4 사위덜 다 좋아.(사위들 다 좋아.)

102015 @2 으.(으.)

102015 #4 춤, 다 좋아게. 저 화북 사위이, 말젓사윈디 이제 저 개인택시 헛 관 광허곡 경 허여.(참, 다 좋아. 저 화북 사위, 셋째사윈데 이제 저 개인택시 해서 관 광하고 그렇게 해.)

102015 @1 으.(으.)

102015 #4 경 춤 용돈도 트멍에 경 허영 주곡 경 허여근에. 아이고게, 나 용돈 게 뒹엇저게. 무신 이젠 경, 경 떡썰일¹⁶¹) 허단 이제 작, 작년 팔월명질부터 우리 씨아지방네가 마타 간.(그렇게 참 용돈도 톱툱이 그렇게 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나 용돈 되었다. 무슨 이젠 그렇게, 그렇게 ‘떡썰일’ 하다가 이제 작, 작년 팔월명질부터 우리 시아주버니가 맡아 갔어.)

102015 @1 으.(으.)

102015 #4 나 허는 거 보난 뭐 현ㄴ라 경 허연. 경 허난 그때도 저 경 헛주기

159) ‘혈찬일’은 살아가면서 치러야할 혼례 따위의 큰일을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흘찬일’이라고도 하였다.

160) ‘흘찬일’은 살아가면서 치러야할 혼례 따위의 큰일을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혈찬일’이라고도 하였다.

161) ‘떡썰일’은 먹고 쓰고 할 일, 곧 상례, 혼례 따위의 비용이 드는 일을 말한다. 달리 ‘떡을일’이라고도 한다.

게. 우리 씨아버님이 문여 돌아가셨 서신디 우리 집윗 아방¹⁶²⁾ 옛인 때라게.(나 하는 거 보니까 뭐 했는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그때도 저 그렇게 했지. 우리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있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 없을 때야.)

102015 @1 으.(으.)

102015 #4 경 해연 돌아가셔서신디 저 거기서 이제 옛날은 초흘보름¹⁶³⁾ 색일허 곡 대소상 다 해나신디 지금은.(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저 거기서 이제 옛날은 초하루보름 삭망하고 대소상 다 했었는데 지금은.)

102015 @1 으.(으.)

102015 #4 기자 춤 소상 첩 스십구재로 다 냉기지 아녀게.(그저 참 소상 참 사십구재로 다 넘기지 않는가.)

102015 @1 으.(으.)

102015 #4 경 해연 허난 난 아방¹⁶⁴⁾이사 웃주마는 아명 못 살아도 게도 훌춘 일은 해삼니께. 나가 큰메누리로서 아맹해도 나가 헐 거난 아버지 떡썰일을 나가 뭐 허쿠다, 허난. 아이고, 무시거 준 것도 엇고 게도 이디서 허당 뭐 허라게. 우리 씨어머님이.(그렇게 해서 하니까 난 아버지야 없지만 아무리 못 살아도 그래도 ‘훌춘 일’은 해야 합니다. 내가 큰며느리로서 아무래도 내가 할 거니까 아버지 ‘떡썰일’을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무엇 준 것도 없고 그래도 여기서 하다가 뭐 해라. 우리 시어머님이.)

102015 @1 예.(예.)

102015 #4 그 셋아덜 손지광 살 때난 경 허고대. 아무제 가도 나신디 가야 할 거 아니우꽈?(그 둘째아들 손자와 살 때니까 그렇게 하던데. 아무 때 가도 나한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102015 @1 으.(으.)

102015 #4 나가 경 아무제 가도 나신디 가야 할 거난 잘했든 못했든 차례로 나가 뭐 허쿠다게. 경 허멍 허연 허난, 아이고게, 경 허민 고맙다마는 난 준 거 엇이 난 미안허연. 경 허구데. 미안허나 아니 허나 아니 준 거 엇텐 부물 버리고 준 거 싯젠 뭐 험니까. 나 경 허멍 허연 이제까지 허여신디 춤 나가 이제 목은해로 으든 넷 아니.(내가 그렇게 아무 때 가도 나한테 가야 할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차례로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서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고맙다마는 난 준 거 없으니까 미안해서. 그렇게 하니까. 미안하나 아니 하나 아니 준 거 없다고 부물 버리고 준 거 있다고 뭐 험니까. 나 그렇게 하면서 해서 이제까지 했는데 참 내가 이제 목은해로 여든넷 아니.)

102015 @1 예.(예.)

102015 #4 경 허난 우리 씨아지방이 미안헌 ㄱ라 이제랑 아주머니 혈만큼 헤시 매 아직한 나가 아주머니네보단 우리 아 동세영 이젠 우리가 마타당 허쿠다 허연

162) ‘우리 집윗 아방’은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즉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다.

163) ‘초흘보름’은 초하루와 보름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다.

164) 여기에서 ‘아방’은 남편의 의미로 쓰였다. 즉 (아이들의) 아버지의 의미다.

작년 춤 팔월명질부터 경 혜연.(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아주머니가 미안했는지 이제는 아주머니 할만큼 했으니까 아직은 내가 아주머니보다는 우리 아, 동서랑 이젠 우리가 맡아다가 하겠습니다 해서 작년 참 팔월명질부터 그렇게 했어.)

102015 @1 예.(예.)

102015 #4 이젠 나 떡쌀일 안 허여. 저 아방 떡쌀일은 또 이제 저 나가 또 허연 허단에.(이젠 나 ‘떡쌀일’ 안 해. 저 아버지 ‘떡쌀일’은 또 이제 저 내가 또 해서 하다가.)

102015 @1 으.(으.)

102015 #4 일본서 아덜이.(일본서 아들이.)

102015 @1 예.(예.)

102015 #4 예, 경 이제 마타 가쿠덴 글로 강 잉감¹⁶⁵) 협센 고헤여 불곡.(예, 그렇게 이제 맡아 가겠다고 그리로 ‘잉감’ 하십사고 고헤 버리고.)

102015 @1 예.(예.)

102015 #4 고헤연 현디 이제 아이고, 저 명질 넘으난 이제 이월들에이 새해 나는 이월들에 이월이 제스라게.(고해서 했는데 이제 아이고, 저 명질 넘으니까 이제 이월에 새해 나는 이월에 이월이 제사야.)

102015 @1 음.(예.)

102015 #4 경 멧 번 헤여신디 영 영 허연 사진도 못 가고 영 영 허난에 일름 성명 아버지 일름 성명 씨근앵에 영 허여근에 허영 메 거려 놓라. 난 언제 혼번 아 멧해도 강 손지도 마지막으로 보고 영 허영 혼번 강오켜 허난. 어머니 경 말앙 저 오켄만 허민 나가 데리, 데리레 가쿠다. 데리레 가근에 헤영 오켄 허민 데려오곡 데려가곡 허쿠다. 그 노릇을 어떻 헐디? 느 ㄱ만이 앓앙 놀암샤?(그렇게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진도 못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름 성명 아버지 이름 성명 씨서 이렇게 해서 해서 메 떠 놓아라. 난 언제 한번 아무래도 가서 손자도 마지막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허영 한번 가오겠다 하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고 저 오겠다고만 하면 내가 데리, 데리로 하겠습니다. 데리러 가서 해서 오겠다고 하면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겠습니다. 그 노릇을 어떻게 할래? 너 가만히 앉아서 놓고 있니?)

102015 @1 으.(으.)

102015 #4 그디서 저 춤 배운 것 엇고 뭐 허난이 식당 허노렌.(거기서 저 춤 배운 것 없고 뭐 하니까 식당 하노라고.)

102015 @1 예.(예.)

102015 #4 식당 혜연 이녁 집 게도 이녁 집 마련허고, 이녁 집의서 식당 혜연에 그 메뉴리도 이디 사름 아니라도이 경 혜연 지네 경 혜연 사노렌 허난 난 춤 걱정은 아념주기에.(식당 해서 이녁 집 그래도 이녁 집 마련하고, 이녁 집에서 식당 해서 그 며느리도 여기 사람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저들 그렇게 해서 사노라고 하니

165) ‘잉감’은 귀신이 제사 따위에 와서 식사하는 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언감’, ‘응감’이라고도 한다.

까 난 참 걱정은 앓고 있지.)

102015 @1 예.(예.)

102015 #4 웃음. 경 허난 언젠가는 혼번 우리 딸덜ㅋ라 혼번 돌아다도라 나만은 못 가키여.(웃음. 그렇게 하니까 언젠가는 한번 우리 딸들보고 한번 데려다다오 나만은 못 가겠다.)

102015 @1 으.(으.)

102015 #4 경 허난 돌아다도라.(그렇게 하니까 데려다다오.)

102015 @1 으.(으.)

102015 #4 가근에 기일제사 허는 거 보고 영 해연 허켜 경 허멍 허연 이제 싯 주기. 웃음.(가서 기일제사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해서 이제 있지. 웃음.)

102015 @1 예, 알아수다.(예, 알았습니다.)

102015 @2 계난 일본서가 더 잘허여예?(그러니까 일본서가 더 잘하지요?)

102015 @1 으.(으.)

102015 @2 이렇게 제사 허는 건예?(이렇게 제사 허는 건요?)

102015 #4 경 허난 어머니, 걱정허지 맙서. 경 허난 아멩해도 우리 아덜이 저 혼자고 허난 누이덜, 누이덜 싯고 누님 싯고 허주만은 그 우리 큰딸 다음이라, 아덜 이.(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저 혼자고 하니까 누이들, 누이들 있고 누님 있고 하지만 그 우리 큰딸 다음이야, 아들이.)

102015 @1 으.(으.)

102015 #4 경 해연 허주마는 아멩해도 걱정은 해염신고라 자꾸 뭐 허여게. 나가 돌아오곡 돌아가곡 허쿠다. 그 노릇을 어떻허리? 느 ㄱ만이 앓앙 사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뭐 허여근에 영 언제 혼번 느네 아버지 제스 때에랑 해연 나만은 못 갈 거고.(그렇게 해서 하지만 아무래도 걱정은 하고 있는지 자꾸 뭐 해. 내가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겠습니까. 그 노릇을 어떻허리? 너 가만히 앉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뭐 해서 이렇게 언제 한번 너의 아버지 제사 때에는 해서 나만은 못 갈 거고.)

102015 @1 으.(으.)

102015 #4 누게 큰딸이나 누게 해영 헨에 앞세와근에 지금 강오켜 허연 지금 잇주기.(누구 큰딸이나 누구 해서 해서 앞세워서 지금 가오겠다 해서 지금 있지.)

102015 @1 예, 계난 딸들은 다 제주시 살아마씨?(예, 그러니까 딸들은 다 제주시 살아요?)

102015 #4 으, 저 화북 살고 부영 살고 부영 옆에 또 셋딸은 또 허영 사는디 장스허여, 셋딸도.(으, 저 화북 살고 부영 살고 부영 옆에 또 둘째딸은 또 해서 사는 데 장자해, 둘째딸도.)

102015 @1 예.(예.)

102015 #4 두갯이 장스.(부부가 장사.)

102015 @1 알아수다.(알았습니다.)

102015 #4 부영 딸은 중개사 허고 사원 직장 텅기고 경 허여.(부영 딸은 중개사 하고 사원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

102015 @1 예.(예.)

102015 #4 족은딸은 저 어디 살곡. 신제주 살고. 씨집은 한림¹⁶⁶이다.(작은딸은 저 어디 살고. 신제주 살고. 시집은 한림인데.)

102015 @1 예.(예.)

102015 #4 한림인디 신제주.(한림인데 신제주.)

102015 @1 알아수다. 흐끔만 쉬쿠다.(알았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

102015 #4 으.(으.)

3. 밭일

(부분 생략)

103001 @1 자, 우리, 밭일예, 밭일은 옛날 어떤 일들을 헤신고예?(자, 우리, 밭일요, 밭일은 옛날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103001 #6 밭일은 어떻 허여?(밭일은 어떻게 해?)

103001 @1 계난 어떤 일? 주로 어떤 일?(그러니까 어떤 일? 주로 어떤 일?)

103001 #6 밭 같고 씨 뿌리곡.(밭 같고 씨 뿌리로.)

103001 #3 톨리곡계.(밧고.)

103001 #2 톨리곡.(밧고.)

103001 #3 검질메곡.(김매고.)

103001 #1 거루고.(걸우고.)

103001 #6 이제 종자 나면은.(이제 종자 나면은.)

103001 @1 예.(예.)

103001 #2 검질메고.(김매고.)

103001 #1 검질메고 비료허고 그거주.(김매고 비료하고 그거지.)

103001 #2 옛날 비료 셔서? 오즘, 오즘 저당은에 오즘 췌주.(옛날 비료 있었어? 오즘, 오즘 저다가 오즘 췌지.)

보리농사

103002 @1 예, 알아수다. 한 분씩예? 보리용시를 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 됩니까?(예, 알았습니다. 한 분씩요? 보리농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66)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를 말한다.

103002 #2 걸름허곡.(거름하고.)

103002 #6 거름 준비 돼비.(거름 준비 퇴비.)

103003 @1 예. 거름 준비가 켈 하영 해야 되는 거예? 게문 보리밭 걸름은 어떻 마련허는 거마씨? 길게 곶아 줍서.(예. 거름 준비가 켈 많이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길게 말해 주세요.)

103003 #2 옛날 동시에 거게.(옛날 돼지우리에 거.)

103003 #6 소 기르면은.(소 기르면.)

103003 @1 으.(으.)

103003 #6 소똥 짠 거.(소똥 짠 거.)

103003 @1 예.(예.)

103003 #6 제주도말로 통시.(제주도말로 ‘통시’.)

103003 @1 예.(예.)

103003 #6 거기다.(거기이다.)

103003 #2 내영 썩형 낱.(내어서 썩혀서 놔서.)

103003 @1 예.(예.)

103003 #6 거기다 저 뭇고? 저 소똥을 거기다 담는 거라.(거기다 저 뭇이니? 저 소똥을 거기다 담는 거야.)

103003 @1 예.(예.)

103003 #6 돼지가 거 다니면서 뵙아주는 거 아니. 거기서 저 뭇고? 텅.(돼지가 거 다니면서 뵙아주는 거 아니. 거기서 저 뭇이니? 떠서.)

103003 @1 음.(음.)

103003 #6 경 허든 그걸 이제 사람이 이제 꺼내영.(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사람이 이제 꺼내어서.)

103003 @1 예.(예.)

103003 #6 밭에 가져가는 거.(밭에 가져가는 거.)

103004 @1 음, 게영은에 그런 말을 제주도 말로 잘 곶아 줍서예. 게난 그 보리밭 걸름은 경 마련허고,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가는 거우과? 보리 혼 번 곶아 뵙서.(음, 그래서 그런 말을 제주도 말로 잘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보리밭 거름은 그렇게 마련하고,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보리 한 번 곶아 보십시오.)

103004 #2 가을에.(가을에.)

103004 @1 예.(예.)

103004 #2 쟁기 쉼 몰양 강 쟁기 정 강은에 명에 썩왕 밭 곶앗주게. 씨 뿌령.(쟁기 소 몰아서 가서 쟁기 쉼서 가서 명에 썩워서 밭 곶앗지. 씨 뿌려서.)

103004 #6 퇴비부터 쥐 낱.(퇴비부터 쥐 두고.)

103004 @1 예.(예.)

103004 #6 다음에 씨 뵙어낱 보리 춤 저 곶 거주게.(다음에 씨 뿌려놔서 보리

참 저 같 거지.)

103004 @1 예. 경 허영은에 이제 가는 거라예? 계난 보통 어느 적에 갈아마 씨?(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적에 갈아요?)

103004 #2 가을에.(가을에.)

103004 #6 시기?(시기?)

103004 @1 예.(예.)

103004 #2 가을에.(가을에.)

103004 #6 예, 보리는 십일월 중순.(예, 보리는 십일월 중순.)

103004 @1 십일월 중순에, 으.(십일월 중순에, 으.)

103004 #6 십일월 초.(십일월 초.)

103004 @1 예, 삼촌.(예, 삼촌.)

103004 #3 중순 돼여 가주기게.(중순 되어 가지.)

103005 @1 삼촌네는 보리 걸름 해 갖고 거기 보리씨.(삼촌네는 보리 거름 해 갖고 거기 보리씨.)

103005 #1 아아.(아아.)

103005 @1 행은에 안 해봄디가?(해서 안 해봤습니까?)

103005 #1 해난, 해난.(했었어, 했었어.)

103005 @1 그 말을 흐끔 굴아줍서.(그 말을 조금 말해주십시오.)

103005 #2 그건 통시에 거름 내영 썰 거기에 낱 막 불령.(그건 돼지우리에 거름 내어서 썰 거기에 놔서 막 밟아서.)

103005 @1 으.(으.)

103005 #6 씨 묻영 가는 거.(씨 묻어서 가는 거.)

103005 #2 씨 묻영.(씨 묻어서.)

103005 @1 음.(음.)

103005 #2 계영 그걸 강 다 툫양.(그래서 그걸 가서 다 뜯어서.)

103005 #6 그거는 상당히 힘들주게.(그거는 상당히 힘들지.)

103005 #2 툫아놔, 걸름을.(뜯어놔, 거름을.)

103005 #6 요만씩 막 툫양은에 씨 뿌린 거 모양에.(요만씩 막 뜯어서 씨 뿌린 거 모양에.)

103005 @1 으.(음.)

103005 #2 툫아 낱게.(뜯어 놔서.)

103005 #6 해야 돼니까.(해야 되니까.)

103005 #3 계난 것도 쉼로 불리주게, 쉼로 불려.(그러니까 것도 소로 밟지, 소로 밟아.)

103005 #6 계난 그게 웨냐른 거름을 씨에 잘 묻게꾸리 허는 거라.(그러니까 그 계 왜냐하면 거름을 씨에 잘 묻게끔 하는 거야.)

103005 #3 묻게끔.(묻게끔.)

103005 #2 절약허곡.(절약하고.)
 103005 @1 으.(으.)
 103005 #3 겨곡 보리가 좋아 또.(그리고 보리가 좋아 또.)
 103005 @1 거난 비료 엇어 부난 그걸 현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비료 없어 버리니까 그걸 한 거 아닌가요?)
 103005 #3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3005 @1 예.(예.)
 103005 #6 그때 당시에 비료가 엇이난게.(그때 당시에 비료가 없으니까.)
 103005 @1 예, 그치록 허영은에 허고예? 계난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헤영 간 거라. 그냥 빼연 갈안마씨? 아니면은?(예, 그처럼 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간 거야. 그냥 뿌려서 갈았어요? 아니면?)
 103005 #2 툃아놔야 뉘여. 건 걸름에 묻힌 거난.(뜯어놔야 되어. 건 거름에 묻힌 거니까.)
 103005 @1 걸름에 현 거.(거름에 한 거.)
 103005 #6 그거는, 그거는.(그거는, 그거는.)
 103005 @1 예.(예.)
 103005 #6 좀 특수헌 사름덜이 허는 거고.(좀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103005 @1 예.(예.)
 103005 #6 보통 허는 사름들은 그렇게 허영은에 시간 걸리곡 안 뉘주게.(보통 하는 사름들은 그렇게 해서 시간 걸리고 안 되지.)
 103005 @1 아.(아.)
 103005 #1 전원 저 보리를.(전에는 저 보리를.)
 103005 @1 예.(예.)
 103005 #1 골보리¹⁶⁷로.(‘골보리’로.)
 103005 @1 예.(예.)
 103005 #1 갈라고 장려도 헤낫지.(갈라고 장려도 했었지.)
 103005 @1 음.(음.)
 103005 #1 이 대충은 다 저 그냥 이렇게 널리 산, 산파를 허는디.(이 대충은 다 저 그냥 이렇게 널리 산, 산파를 하는데.)
 103005 @1 예.(예.)
 103005 #1 예, 그 보리는 대개 그 기후적으로나 절기적으로 아까 얘기헌 대로 마, 시월 빠르믄 시월 하순도 뉘 수 잇지마는 뉘 십일월 혼 들 동안에 저 그 갈믄 뉘는 거니까 그 시기에 허는 거고.(예, 그 보리는 대개 그 기후로나 절기로 아까 얘기헌 대로 마, 시월 빠르면 시월 하순도 뉘 수 잇지만 뉘 십일월 한 달 동안에 저 그 갈면 되는 거니까 그 시기에 하는 거고.)
 103005 @1 음.(음.)

167) ‘골보리’는 씨앗을 고랑에 뿌려서 가는 방식의 보리를 말한다.

103005 #1 그, 그거 왜론 다 대개 산파를 허는디 이 그 산파를 허기 전에 보리 갈젠 허믄 준비허는 것이란 일찍에도 얘기했주마는 밧을, 예, 보리밧을.(그, 그거 외론 다 대개 산파를 하는데 이 그 산파를 하기 전에 보리 갈려고 하면 준비하는 것이란 일찍도 얘기했지만 밧을, 예, 보리밧을.)

103005 @1 예.(예.)

103005 #1 처음부터 여름농사를 이제 목적으로 허지 아녕근에 콩을 갈앙.(처음부터 여름농사를 이제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콩을 갈아서.)

103005 @1 예.(예.)

103005 #1 콩걸름¹⁶⁸ 험다고 해 가지고 그 풀콩¹⁶⁹ 당시 풀을, 풀콩은.(‘콩겨름’한다고 해 가지고 그 ‘풀콩’ 당시 풀을, ‘풀콩’은.)

103005 @1 예.(예.)

103005 #1 콩낭은 비여 가지고 이제 밧고랑에 응 끌멍 쪽 행긴에.(콩대는 베어 가지고 이제 밧고랑에 이렇게 깔면서 쪽 해서.)

103005 #2 어평.(얼어서.)

103005 #1 놔뒀당.(놔뒀다가.)

103005 @1 예.(예.)

103005 #6 뒤비.(뒤비.)

103005 #1 그거 갈앙.(그거 갈아서.)

103005 #2 썩히는 거주.(썩히는 거지.)

103005 #1 걸게 허는 경우도 잇고.(걸게 허는 경우도 잇고.)

103005 @1 예.(예.)

103005 #1 그 웨로 아까트룩 통시 걸름이라고 해 가지고 우마를 기르는 사람은 그 이 거름이 많고. 우마 그 맥여난 그 저.(그 외로 아까처럼 돼지우리 고름이라고 해 가지고 우마를 기르는 사람은 그 이 거름이 많고. 우마 그 먹였던 그 저.)

103005 #6 우마 똥 허영.(우마 똥 해서.)

103005 #1 똥이영 문딱 행 거기 갖단 통시레 담아놔 가지고.(똥이랑 똥땅 해서 거기 갖다가 돼지우리에 담아놔 가지고.)

103005 #6 썩영.(썩혀서.)

103005 #1 썩여 가지고 혼 이 보리 갈기 전에.(썩혀 가지고 한 이 보리 갈기 전에.)

103005 @1 예.(예.)

103005 #6 꺼내영.(꺼내어서.)

103005 #1 물 빠질 때에 꺼내영은에 싸여 뒤다가.(물 빠질 때에 꺼내어서 쌓아 뒤다가.)

103005 @1 예.(예.)

168) ‘콩걸름’은 거름을 위해서 심은 콩이다. 콩을 심어서 어느 정도 자라면 베어서 밧고랑에 깔아 거름으로 쓴다.

169) ‘풀콩’은 수확하기 전, 풀색을 띠는 익기 전의 콩을 말한다.

103005 #6 마차로 시끄는 사름 싣고 아니믄 또 쉼물로.(마차로 싣는 사름 있고 아니면 또 마소로.)

103005 @1 예.(예.)

103005 #2 질마 지왕게.(길마 지위서.)

103005 #1 질메 지왕은에 가져당 밧되다 부러 낭은에.(길마 지위서 가져다가 밧에다 부러 놔서.)

103005 @1 예.(예.)

103005 #1 끌고로 텅기명 군데군데 뺨여 낭은에 이젠 일부러 그걸 또 저 사름이 들어 가지고 걸름을 끌고로 허경.(끌고루 다니면서 군데군데 뿌려 놔서 이젠 일부러 그걸 또 저 사람이 들어 가지고 거름을 끌고루 흠어서.)

103005 @1 예.(예.)

103005 #1 그 우에 이제 씨도 빼는 사름이 빠지, 아무나 빠지 못허거든.(그 위에 이제 씨도 뿌리는 사람이 뿌리지, 아무나 뿌리지 못허거든.)

103005 @1 예.(예.)

103005 #1 게난 적당히 빼는 사름이 대개 남자덜이 빼꼭 영 헤근에 이제 빼여 낭.(그러니까 적당히 뿌리는 사람이 대개 남자들이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려 놔서.)

103005 @1 예.(예.)

103005 #1 이젠 쟁기허고 좀 쉼 가져다가 이제 잇으면 자기대로 허는 거고 없으면 놉으 빌영이라도 이제 가는 거주기.(이젠 쟁기허고 좀 소 가져다가 이제 잇으면 자기대로 하는 거고 없으면 남을 빌려서도 이제 가는 거지.)

103006 @1 예, 알앗수다. 게믄 보리씨 종류는 어떤 종류들 잇었수가?(예, 알앗습니다. 그러면 보리씨 종류는 어떤 종류들 잇었습니까?)

103006 #1 슬오리라고 헤 가지고 이제 잇고 것보리가 잇엇고 옛날에.(쌀보리라고 헤 가지고 이제 잇고 곁보리가 잇엇고 옛날에.)

103006 #6 줄보리.(맥주보리.)

103006 #1 줄보리.(맥주보리.)

103006 #6 요즘은 맥주맥엔 허는디.(요즘은 맥주보리라고 하는데.)

103006 @1 예.(예.)

103006 #1 세 가지 종류가 잇주.(세 가지 종류가 있지.)

103006 @1 예, 줄보리허고.(예, 맥주보리허고.)

103006 #1 또 밀도 잇엇어, 밀은.(또 밀도 잇엇어, 밀은.)

103006 @1 예, 밀도 잇고예?(예, 밀도 잇고요?)

103006 #1 밀은 벨로 허질 안허여?(밀은 벨로 하질 았아.)

103007 @1 예, 그러면은 옛날 보리밭도 불랏수가?(예, 그러면 옛날 보리밭도 밧았습니까?)

103007 #2 예.(예.)

103007 @1 보리밭 볼른 거 곱아 줘서?(보리밭 밟은 거 말해 주십시오?)

103007 #1 보리밭도 일제 말엽에 뒤편이 그 장려를 해 가지고 밟았지, 그 전에는 볼르지 아녜.(보리밭도 일제 말엽에 뒤편이 그 장려를 해 가지고 밟았지, 그 전에는 밟지 않았어.)

103007 @1 으.(으.)

103007 #2 그 전엔 안 볼랐수가?(그 전엔 안 밟았습니까?)

103007 #1 으, 아니.(으, 아니.)

103007 #2 우리 옥은 후제도 볼랐는데.(우리 큰 후에도 밟았는데.)

103007 #1 게, 그게 그 말이주.(게, 그게 그 말이지.)

103007 #6 보리 파종.(보리 파종.)

103007 @1 예.(예.)

103007 #6 파종을.(파종을.)

103007 #2 땅이 부각허게 부끄니까 그걸 다져주는 거.(땅이 푸석하게 부푸니까 그걸 다져주는 거.)

103007 #6 저 뭇고. 골보리라고 또 있어.(저 무엇이니. ‘골보리’라고 또 있어.)

103007 @1 예.(예.)

103007 #6 골보리이.(‘골보리’.)

103007 @1 예.(예.)

103007 #6 골보리이, 뭐냐면.(‘골보리’, 뭐냐면.)

103007 #2 거 근래에.(거 근래에.)

103007 #6 고랑에.(고랑에.)

103007 @1 으.(으.)

103007 #6 고랑에 그냥 이 뭇고? 산과 모양이랑 씨를 전부 뿌리는 게 아니고.(고랑에 그냥 이 뭇이니? 산과 모양이랑 씨를 전부 뿌리는 게 아니고.)

103007 @1 예.(예.)

103007 #2 줄보리.(맥주보리.)

103007 #6 밧고지가 이렇게 시면은 그 이렇 말고.(밭이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랑 말고.)

103007 @1 예.(예.)

103007 #6 이 밭에, 저.(이 밭에, 저.)

103007 @1 고랑에.(고랑에.)

103007 #6 흙쳐진 고랑에.(흙쳐진 고랑에.)

103007 @1 예.(예.)

103007 #6 거기만 빼여 가지고 걸 왜 그러냐 허믄 거름을 절약허고.(거기만 뿌려여 가지고 걸 왜 그러느냐 하면 거름을 절약하고.)

103007 #2 검질메기 싫으면 그레 더꺼 부는 거주.(김매기 싫으면 그리로 덮어 버리는 거지.)

103007 #6 뭇고, 수확을 많이 나게끔 허는 거주.(무엇이니, 수확을 많이 나게끔 하는 거지.)

103007 #2 골 갈안게.(골 갈아서.)

103007 #6 비료도게 그레만 주든 돼니까.(비료도 그리로만 주면 되니까.)

103007 @1 예.(예.)

103007 #6 전체 안 쥘. 경 허곡 또 이제는 그 영 중간으로 갈아줘이.(전체 안 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그 이렇게 중간으로 갈아줘.)

103007 @1 예.(예.)

103007 #6 경 허곡 흑 더퍼줄 거 아니라게. 경 허든 보리가 잘 뻗주게.(그렇게 하고 흑 더퍼줄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보리가 잘 뻗지.)

103007 @1 그걸 골보리엔 허는 거라예? 게든 그 골보리 헐 때는 어느, 무신 보리를 주로 갈았수가?(그걸 ‘골보리’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골보리’ 할 때는 어느, 무슨 보리를 주로 갈았습니까?)

103007 #6 쌀보리, 쌀보리.(쌀보리, 쌀보리.)

103007 @1 아, 그 술우리를 가는 거라예? 게든예, 술우리 허면 게든 그 보리씨 뽕 때 그 고랑으로만 가는 거?(아, 그 쌀보리를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쌀보리 하면 그러면 그 보리씨 뿌릴 때 그 고랑으로만 가는 거?)

103007 #6 그렇주.(그렇지.)

103007 @1 썩장히 씨 빼는 게 썩 신중하게 해야켜예?(썩장히 씨 뿌리는 게 썩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103007 #6 그렇주.(그렇지.)

103007 @1 그냥 썩썩 뿌리는 게 아니고.(그냥 썩썩 뿌리는 게 아니고.)

103007 #6 그렇주.(그렇지.)

103007 @1 아, 그걸 골보리엔 헤서예?(아, 그걸 ‘골보리’엔 했다고요?)

103007 #3 그게 힘들주게. 쉼로 갈아도.(그게 힘들지. 소로 갈아도.)

103007 #6 경 허곡 많이 허진 안허여.(그렇게 하고 많이 하진 않아.)

103007 #3 사람이 고랑을 골라야 돼여.(사람이 고랑을 골라야 되어.)

103007 @1 예.(예.)

103007 #3 고랑을 씨를 잘 가게. 사람 이제 들어상 그 뒤에 고랑 골라 가지고 그다음 썩 뿌려야주게.(고랑을 씨를 잘 가게. 사람 이제 들어서서 그 뒤에 고랑 골라 가지고 그다음 썩 뿌려야지.)

103007 @1 음.(음.)

103007 #2 게난 그거 근래에라게.(그러니까 그거 근래에야.)

103007 @1 으.(으.)

103007 #2 그 옛날엔 그런 거 없었고.(그 옛날엔 그런 거 없었고.)

103007 @1 예, 예.(예, 예.)

103007 #2 근래에 와서.(근래에 와서.)

103007 #3 아까 이 분 골앗주마는 수확을 잘 허젠 잘 돼기 위해서 그걸 허는 거고.(아까 이 분 말했지만 수확을 잘 하려고 잘 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103007 #2 다수확 허젠 허니까.(다수확 하려고 하니까.)

103007 #3 그전에 어느 저르에 거, 거 불르고 산파로 다 허주.(그전에 어느 거를에 거, 거 밟고 산파로 다 하지.)

103007 @1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이제 보리밭 불르는 거는 땅 꺾아 부난?(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리밭 밟는 거는 땅 곱아 버리니까?)

103007 #2 꺾아 부니까 허는 거.(곱아 버리니까 허는 거.)

103007 @1 예.(예.)

103007 #3 땅도 꺾고 보리가 불르면은 거러¹⁷⁰. 옆으로 피어나서.(땅도 곱고 보리가 밟으면 ‘갈려’. 옆으로 피어나서.)

103007 @1 아.(아.)

103007 #3 낭이 나지 았고 그래서 이제 경 블라주는 거.(대가 크지 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밟아주는 거.)

103007 @1 보리낭 걸게, 영 거리젠 허는 거구나예, 예, 알아수다.(보릿대 걸게, 이렇게 갈리게 하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103007 #6 보릿밭이 든 든 헤지주.(보리뿌리가 단단해지지.)

103007 #2 든 든 허게.(단단하게.)

103007 #1 겨울에.(겨울에.)

103007 #2 겨울에 부각이 부짱 서리 내령.(겨울에 부각이 부풀어서 서리 내려서.)

103007 #1 꺾으믄 땅이 꺾거든. 꺾으믄 이것이 들러져.(곱으면 땅이 곱거든. 곱으면 이것이 들리어.)

103007 @1 예.(예.)

103007 #6 놀려, 놀려지는 거주.(놀려, 놀려지는 거지.)

103007 #1 거고 특히나 땅이 이 저 제주 땅 어디 저 남군¹⁷¹덜에는 더 허지마는.(그리고 특히나 땅이 이 저 제주 땅 어디 저 남군들에는 더 하지만.)

103007 #2 꺾아.(곱아.)

103007 #1 잘 밟으지 아녀민 이게 자라지 아녀.(잘 밟지 았으면 이게 자라지 았아.)

103007 @1 예.(예.)

103007 #1 계난 단단히 잘 자라도록 허믄 영 뵤음으로써 춤 거리는 것은 더 많 이 거러.(그러니까 단단히 잘 자라도록 하면 이렇게 밟음으로써 참 갈리는 것은 더 많이 갈려.)

103007 @1 예.(예.)

170) ‘거러’는 ‘보리 따위가 포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라는 의미다.

171) ‘남군’은 예전의 행정단위 ‘남제주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 103007 #2 그렇주께. 우 막아지고.(그렇지. 위 막아지고.)
- 103007 #1 수확에 상당히.(수확에 상당히.)
- 103007 #3 우 막아 주는 거.(위 막아 주는 거.)
- 103008 @1 우 막는 거예, 예. 알아수다. 보리왔디 검질은 몇 번 메었수가?(위 막는 거요, 예. 알았습니다. 보리밭에 김은 몇 번 매었습니다?)
- 103008 #6 두 번 정도.(두 번 정도.)
- 103008 #2 두 번 정도 그자 잘허는 사람은 세 번 메고.(두 번 정도 그자 잘하는 사람은 세 번 매고.)
- 103008 #6 세 번은?(세 번은?)
- 103008 #1 두 번 정도면.(두 번 정도면.)
- 103008 #3 흔 번 매는 사람도 잇고 두 번 매는. 야튼 두 번 매는.(한 번 매는 사람도 잇고 두 번 매는. 하여튼 두 번 매는.)
- 103008 #1 여름 농사가 아니라 겨울 농사기 때문에.(여름 농사가 아니라 겨울 농사이기 때문에.)
- 103008 @1 계난.(그러니까.)
- 103008 #2 이신 대로?(있는 대로.)
- 103009 @1 보리왔던 주로 어떤 검질덜 납니까?(보리밭에는 주로 어떤 김들 납니까?)
- 103009 #6 검질이 뭐.(김이 뭐.)
- 103009 #1 사스락쿨¹⁷²⁾엔 현 것도 나고 담베쿨¹⁷³⁾, 진풀.(‘사스락쿨’이라고 한 것도 나고 ‘담베쿨’, 별꽃.)
- 103009 #3 진풀 뭐.(별꽃 뭐.)
- 103009 #2 머 안 나는 게 엇어.(뭐 안 나는 게 없어.)
- 103009 #3 여름 풀.(여름 풀.)
- 103009 #2 절마니¹⁷⁴⁾.(‘절마니’.)
- 103009 #3 절마니.(‘절마니’.)
- 103009 #6 절마니, 진풀.(‘절마니’, 별꽃.)
- 103009 @1 예.(예.)
- 103009 #2 담베쿨.(‘담베쿨’.)
- 103009 #6 담베, 담베쿨.(‘담베’, ‘담베쿨’.)
- 103009 #3 담베쿨 이젠 엇어. 해도 옛날 담베쿨 많이 나났어.(‘담베쿨’ 이젠 없어. 해도 옛날 ‘담베쿨’ 많이 낳았어.)
- 103009 #2 옛날 말이주, 뭐 이제 말허는 거라.(옛날 말이지, 뭐 이제 말하는 거야.)
- 103009 #3 담베쿨.(‘담베쿨’.)

172) ‘사스락쿨’은 김의 일종이다. 예전에 보리밭에 많이 낳던 김의 한 종류다.

173) ‘담베쿨’은 김의 일종이다. 예전에 보리밭에 많이 낳던 김의 한 종류다.

174) ‘절마니’는 김의 일종이다. 예전에 보리밭에 많이 낳던 김의 한 종류다.

103009 #6 속.(쓱.)
103009 @1 속도 잇고예?(쓱도 잇고요?)
103009 #3 속게.(쓱.)
103009 #2 속은 여름에.(쓱은 여름에.)
103009 #1 아니.(아니.)
103009 @1 계난.(그러니까.)
103009 #3 겨울에 별로 엇수다게.(겨울에 별로 없습시다.)
103009 @1 담베쿨허고 사스락쿨.(‘담베쿨’하고 ‘사스락쿨’.)
103009 #3 사스락쿨.(‘사스락쿨’.)
103009 @1 절마니.(‘절마니’.)
103009 #3 절마니.(‘절마니’.)
103009 #2 절마니.(‘절마니’.)
103009 @1 진풀.(별꽃.)
103009 #2 진풀.(별꽃.)
103009 @1 속.(쓱.)
103009 #2 것이 겨울에 나는 풀이고.(것이 겨울에 나는 풀이고.)
103009 @1 담베쿨허고 사스락쿨은 모르겠네.(‘담베쿨’하고 ‘사스락쿨’은 모르겠네.)
103009 #3 것이 겨울에 나는 풀이주.(것이 겨울에 나는 풀이지.)
103009 @1 으음.(으음.)
103009 #2 여름엔.(여름엔.)
103009 #6 담베쿨이 여름에 나는 거 아닌가?(‘담베쿨’이 여름에 나는 거 아닌가?)
103009 #2 아니우다. 담베쿨 진풀이영 ㄴ치 нама씨.(아닙니다. ‘담베쿨’ 별꽃이랑 같이 나요.)
103009 @1 아, 이거 어떤 쿨인지 모르겠네이.(아, 이거 어떤 풀인지 모르겠네.)
103009 #2 진풀영 ㄴ치 нама쌌.(별꽃이랑 같이 나요.)
103009 @1 예, 요즘 이런 검질 엇입니까?(예, 요즘 이런 검 없습니까?)
103009 #2 아, 무사 엇어? 겨울엔 잇고.(아, 왜 없어? 겨울엔 잇고.)
103009 @1 아니, 아니. 담베쿨, 담베쿨도 잇어? 요즘.(아니, 아니. ‘담베쿨’, ‘담베쿨’도 잇어? 요즘.)
103009 #2 아, 잇어.(아, 잇어.)
103009 @1 이거 어떤 검질인고?(이거 어떤 검일까?)
103009 #1 요즘은 이 속 ㄴ튼 거는 씨가 물을 정도도 엇어졌주.(요즘은 이 속 같은 거는 씨가 마를 정도도 없어졌지.)
103009 #2 이 농약 해 가니까.(이 농약 해 가니까.)
103009 #3 아 농약 허니까.(아, 농약 하니까.)

103009 #2 많이 엷어지긴 많이 엷어졌주.(많이 없어지긴 많이 없어졌지.)

103009 @1 계믄예 보리 이제 익을 거 아니우파? 옛날엔 수확을 어떤 식으로 했 수가?(그러면요 보리 이제 익을 거 아닙니까? 옛날엔 수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10 #2 흘탄에.(훤아서.)

103010 @1 아니, 거니까 비는 거부떠? 비는 과정부떠?(아니, 그러니까 베는 거부터? 베는 과정부터?)

103010 #2 비영 호미로 비영 무경 집의 가져왕 그 흘트는 클이 잇어.(베어서 낫으로 베어서 묶어서 집에 가져와서 그 훤는 틀이 잇어.)

103010 @1 예.(예.)

103010 #2 췌로 영 창 모양으로 멘든 거. 그거 날 세왕 그거에 흘트는 거주.(쇠로 이렇게 창 모양으로 만든 거. 그거 날 세워서 그거에 훤는 거지.)

103010 #6 힘들게 했주게, 옛날.(힘들게 했지, 옛날.)

103010 @1 예.(예.)

103010 #3 힘들어서.(힘들어서.)

103010 #2 그거 허젠 허민 막 이웃집.(그거 하려고 하면 아주 이웃집.)

103010 #3 계난 흘탕도 했주마는.(그러니까 훤어서도 했지만.)

103010 #2 수늘영, 수늘영은애.(폼앗이해서, 폼앗이해서.)

103010 #3 어제도 얘기했주마는 도께질도 허고.(어제도 얘기했지만 도리께질도 하고.)

103010 @1 보리도 도께질?(보리도 도리께질?)

103010 #3 보리도 도께질 했주게. 맥주맥 ㄱ든 거 것보리 ㄱ든 거야 다 도께로 두드렸주.(보리도 도리께질 했지. 맥주보리 같은 거 겹보리 같은 거야 다 도리께로 두들겼지.)

103010 #2 우리 동네는 거의 도께를 안 썼어. 다 흘탄에.(우리 동네는 거의 도리께를 안 썼어. 다 훤아서.)

103010 @1 음. 거의 다 흘탄에.(음. 거의 다 훤아서.)

103010 #2 도께로, 옷드리털은 도께 많이 사용했주.(도리께로, ‘옷드리’들은 도리께 많이 사용했지.)

103010 @1 보리는 수확행 오면 그때 이제 그 흘트지 못허면?(보리는 수확해서 오면 그때 이제 그 훤지 못하면?)

103010 #3 늘어야주.(가리어야지.)

103010 @1 늘영 놔뒤예? 쟁은애 그 늘어. 보리 비영 돌령 무끄고 누는 과정까지를 한번 쪽 새로 곱아줘 볍서.(가리어서 놔둔다고요? 그래서 그 가리어. 보리 베어서 말려서 묶고 가리는 과정까지를 한번 쪽 새로 말해줘 보십시오.)

103010 #3 아, 계난게.(아, 그러니까.)

103010 #6 비영.(베어서.)

103010 #3 비영.(베어서.)

103010 #6 메칠 비영.(며칠 베어서.)

103010 #1 비영 몰랑 또.(베어서 말려서 또.)

103010 @1 한 사람씩?(한 사람씩?)

103010 #1 몰류왕이 저 그대로 무꺼지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몰류와 가지고 그 비어 놓은 것이 몰라야 무끄주기게.(말려서 저 그대로 묶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말려 가지고 그 베어 놓은 것이 말라야 묶지.)

103010 @1 으.(으.)

103010 #1 몰랑 무경. 무끄는 것도 뭐 무끔도 우리가 생각 얼마나 될 건고? 그.(말라서 묶어서. 묶는 것도 뭐 묶음도 우리가 생각 얼마나 될 건고? 그.)

103010 #3 그것꺼질랑 곤지 말양게.(그것까지는 말하지 말고.)

103010 #1 경 헤 가지고 대개 보리못이 서른 못이 혼 바리 뻬던가?(그렇게 해 가지고 대개 보릿단이 서른 못이 한 바리 뻬던가?)

103010 @1 음.(음.)

103010 #1 서른 못이 혼 바리. 혼 믱쉬에 시끄는 거이.(서른 못이 한 바리. 한 마소에 싣는 거.)

103010 #2 믱쉬에 시끄는 거 서른 못 못 시깝니다게. 저 출이 그치록 헛주.(마소에 싣는 거 서른 못 못 싣습니다. 저 꼴이 것처럼 했지.)

103010 #1 경 헤영 우마가 잇는 사름은 무꾼 것을 이제 한 군데 모여 놔 가지고 우마로 이제 집까지 운반해당.(그렇게 해서 우마가 잇는 사름은 묶은 것을 이제 한 군데 모여 놔 가지고 우마로 이제 집까지 운반해다가.)

103010 @1 예.(예.)

103010 #4 집에 왕은에 걸 그냥 내 불지 아녀곡 놀영.(집에 와서 걸 그냥 내 버리지 않고 가리어서.)

103010 #2 비 맞이카부덴게 놀영.(비 맞을까봐 가리어서.)

103010 #1 놀어 가지고 다 가져 와지면은 이제 놀어 가지고 우의 더경 놔뵈당 날 봐 가지고 이제 클.(가리어 가지고 다 가져 와지면 이제 가리어 가지고 위에 덮어서 놔뵈다가 날 봐 가지고 이제 틀.)

103010 @1 으.(으.)

103010 #1 이 저 홀테.(이 저 그네.)

103010 @1 예.(예.)

103010 #1 그거 헤영은에 사름 시른 자기 식구만 허고 웃이든 또.(그거 해서 사 람 있으면 자기 식구만 하고 없으면 또.)

103010 #2 수놀영.(품앗이해서.)

103010 #1 눅도, 눅도 빌어다가 말여.(눅도, 눅도 빌려다가 말이야.)

103010 @1 예.(예.)

103010 #1 이제 그거 홀탕.(이제 그거 훑아서.)

103010 #2 옛날 삼방에서도 많이 훑타수다게.(옛날 마루에서도 많이 훑았습니
다.)

103010 #1 경 허영은에.(그렇게 해서.)

103012 @1 으.(으.)

103012 #1 그 훑튼 고고리를 전부 저 이제 마당에 쌓여 가지고 헛당 탈곡기 빌
어당은에.(그 훑은 이삭을 전부 저 이제 마당에 쌓아 가지고 했다가 탈곡기 빌려다
가.)

103012 @1 예.(예.)

103012 #1 탈곡해근에 해낫주기.(탈곡해서 했었지.)

103012 @1 예, 그치록 허영은에 이제 되면은예 예전에 탈곡기 전에 옛날에 보
리쌀 멘들젠 허면 뒤에 강 보리쌀 만들었수가?(예, 것처럼 해서 이제 되면요 예전에
탈곡기 전에 옛날에 보리쌀 만들려고 하면 뒤에 가서 보리쌀 만들었습니까?)

103012 #2 방에, 그건 방엿간에 강 둥그렁 올 때. 둥그렛당.(방아, 그건 정미소
에 가서 쏘어 올 때. 쏘었다가.)

103012 #1 그다음은 그.(그다음은 그.)

103012 #2 ㄱ레 곶양 반착으로 곶양.(멧돌 갈아서 반쪽으로 갈아서.)

103012 #1 멘탁, 멘탁기가 와 가지고 쌀, 쌀, 보리, 보리를.(탈곡, 탈곡기가 와
가지고 쌀, 쌀, 보리, 보리를.)

103012 @1 으.(으.)

103012 #2 멘탁기 헐 때는.(탈곡기 할 때는.)

103012 #1 멘들어 낱.(만들어 놔서.)

103012 #2 그 저.(그 저.)

103012 #1 그걸 이제 따시 말려 낱.(그걸 이제 다시 말려 놔서.)

103012 @1 예.(예.)

103012 #1 따시 이젠 방아, 방앗간 연자방아, 아니, 아니고 저 옛날엔 연자방에
도 해서.(다시 이젠 방아, 방앗간 연자방아, 아니, 아니고 저 옛날엔 연자방아도 했
어.)

103012 #2 물방에, 물방에.(연자매, 연자매.)

103012 @1 으.(으.)

103012 #1 물방에도. 물방에 강은에 사람으로도 방아를 돌리기도 허고, 또 물이
나 소가 잇는 사름은 그 소를 메와 가지고 돌리곡 해 가지고 거기서 짚어 가지고.
(연자매도. 연자매 가서 사람으로도 방아를 돌리기도 하고, 또 말이나 소가 잇는 사
람은 그 소를 메워 가지고 돌리고 해 가지고 거기서 짚어 가지고.)

103012 @1 예.(예.)

103012 #1 저 보리쌀을 만드는 거지.(저 보리쌀을 만드는 거지.)

103012 @1 예. 그렇게 행은에 보리쌀 그 물 ㄱ레에서 행 오면, 물방에에서예 집
의 왕은 바로 안 행 한 번 더.(예. 그렇게 해서 보리쌀 그 연자매에서 해서 오면,

연자매에서요 집에 와서는 바로 안 해서 한 번 더.)

103012 #2 아, 그것도 방에 강 저사여. 물, 물 적지멍.(아, 그것도 방아 가서 짚어야해. 물, 물 적시면서.)

103012 #3 들리왕 또 체 걸러 내여튀, 경 혜영은에 또 들리왕 방앗간에 강 ㄴ는 거주.(말려서 또 체 걸러 내두고, 그렇게 해서 또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가는 거지.)

103012 @1 으.(으.)

103012 #2 ㄴ는 게 아니고. 보리 지영 들방에 강 새로 물 주멍 문딱 보리쌀, 보리쌀을 껍데기 벗겨 물 주멍 멩글아 낱.(가는 게 아니고. 보리 짚어서 연자매에 가서 새로 물 주면서 멩땅 보리쌀, 보리쌀을 껍데기 벗겨서 물을 주면서 만들어 놔서.)

103012 @1 예.(예.)

103012 #2 반착으로 ㄴ레에 낱 곶양.(반쪽으로 멩돌에 놔서 갈아서.)

103012 @1 예.(예.)

103012 #2 경 혜영 밥행 먹었주.(그렇게 해서 밥해서 먹었지.)

103012 #3 들방에 가근에 들리는 과정 허는 거 아니라. 계난.(연자매 가서 말리는 과정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03012 #2 아니, 아니. 쌀을 멩글 때 말이주게. 보리를 쌀을, 보리쌀로 멩글 때.(아니, 아니. 쌀을 만들 때 말이지. 보리를 쌀을, 보리쌀로 만들 때.)

103012 #3 들방에 강 정 왕.(연자매에 가서 짚어서 와서.)

103012 @1 예.(예.)

103012 #3 멩석 곶양 들리왕.(멩석 갈아서 말려서.)

103012 @1 예.(예.)

103012 #3 으, 정 온 걸. 경 혜근에 그걸 이제 청근에 이제 아까 이 사람 곶은 대로 ㄴ레에 낱 반착 내영 먹으나 경 아녀민.(으, 짚어 온 걸.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쳐서 이제 아까 이 사람 말한 대로 멩돌에 놔서 반쪽 내어서 먹으나 그렇게 앉으면.)

103012 #6 그전엔 현디 이제는.(그전엔 했는데 이제는.)

103012 @1 으.(으.)

103012 #2 계난 옛날 소리 허렌 햐주.(그러니까 옛날 소리 하라고 하고 있지.)

103012 #6 반착, 반착 안 내영 그냥 먹더라고.(반쪽, 반쪽 안 내어서 그냥 먹더라고.)

103012 #1 아니.(아니.)

103012 #2 이제사 기계가 다 이시난 다 사당 먹었주.(이제야 기계가 다 있으니까 다 사다가 먹었지.)

103012 @1 한 사람씩?(한 사람씩?)

103012 #1 그때는.(그때는.)

103012 @1 예.(예.)

103012 #1 그 ㄴ래.(그 맷돌.)

103012 @1 예.(예.)

103012 #1 ㄴ래에 ㄴ아 가지고 걸 ㄴ고 이렇게 ㅎ주마는 이 ㄴ래 왕은 이 방앗간 에 방에, 기계 저 뭐 방에 강.(맷돌에 ㄴ아 가지고 걸 ㄴ고 이렇게 ㅎ지만 이 ㄴ래 와 서는 이 방앗간에 방아, 기계 저 뭐 방앗간에 가서.)

103012 @1 예.(예.)

103012 #2 정미소에게, ㅎ주게.(정미소에, ㅎ지.)

103012 #1 이걸 ㄴ량은에.(이걸 ㄴ려서.)

103012 @1 예.(예.)

103012 #1 그 보른 맷 ㄴ.(그 보면 ㄴ ㄴ.)

103012 @1 예.(예.)

103012 #1 방에 ㅎ ㄴ ㄴ ㅎ ㄴ ㄴ만 지는 게 아니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제 ㄴ끗하게, 이, 그 ㄴ어지게 ㅎ는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방에서 오른 그대로 ㄴ량 ㄴ ㄴ 수 있어.(방아 한 번 ㄴ서 한 번만 ㄴ는 게 아니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제 ㄴ끗하게, 이, 그 ㄴ어지게 ㅎ는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방에서 오면 그대로 ㄴ려서 ㄴ ㄴ 수 있어.)

103013 @1 예, 알았, 알아수다. 게문 그렇게 ㅎ면 보리쌀로는 주로 무엇을 ㅎ는 거마써?(예, 알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ㅎ면 보리쌀로는 주로 무엇을 ㅎ는 거예요?)

103013 #1 보리밥 ㅎ ㄴ주기.(보리밥 ㅎ서 ㄴ지.)

103013 @1 예, ㄴ해 ㄴ고 또.(예, ㄴ해 ㄴ고 또.)

103013 #6 주로 ㄴ해 ㄴ었지.(주로 ㄴ해 ㄴ었지.)

103013 @1 주로 ㄴ해 ㄴ고예? 보리 ㄴ양도 뭐 ㅎ ㄴ어서예?(주로 ㄴ해 ㄴ고요? 보리 ㄴ아서도 뭐 ㅎ서 ㄴ었지요?)

103013 #2 보리 ㄴ양 보리떡도 ㅎ ㄴ곡.(보리 ㄴ아서 보리떡도 ㅎ서 ㄴ고.)

103013 @1 어, 보리떡도 ㅎ ㄴ고, 보리 보강은?(어, 보리떡도 ㅎ서 ㄴ고, 보리 ㄴ아서는?)

103013 #2 보강 개역 ㅎ ㄴ곡.(ㄴ아서 미숫가루 ㅎ서 ㄴ고.)

103013 #3 개역도 ㅎ ㄴ고.(미숫가루도 ㅎ서 ㄴ고.)

103013 @1 개역 ㅎ ㄴ고.(미숫가루 ㅎ서 ㄴ고.)

103013 #6 ㄴ베기도 ㅎ ㄴ고.(수제비도 ㅎ서 ㄴ고.)

103013 #3 ㄴ ㅎ 걸로 보끄는 거, 개역 ㅎ는 ㄴ. 껍질 ㄴ기지 안허영.(ㄴ ㅎ 걸로 ㄴ는 거, 미숫가루 ㅎ는 ㄴ. 껍질 ㄴ기지 않아서.)

103013 @1 개역 ㅎ는 거 한번 ㄴ아 ㄴ ㄴ서?(미숫가루 ㅎ는 거 한번 ㄴ해 ㄴ ㄴ보십시오?)

103013 #6 개역 ㅎ는 거는.(미숫가루 ㅎ는 거는.)

103013 #1 개역은 저.(미숫가루는 저.)

103013 #2 보리로 보깡.(보리로 볶아서.)
 103013 @1 으.(으.)
 103013 #1 보리장만 현 거 들른 걸로만.(보리장만 한 거 마른 걸로만.)
 103013 @1 예.(예.)
 103013 #1 방에에 강 찍어오지 안현 거.(방에에 가서 찜어오지 않은 거.)
 103013 @1 예, 보리 헤 갖고 경 해근에 그레에서 곶앙 현 거라예, 예?(예, 보리 헤 갖고 그렇게 해서 맷돌에서 갈아서 한 거지요, 예?)
 103013 #1 게든 보깡 그레에서 곶아야지. 보깡.(그러면 볶아서 맷돌에서 갈아야 지. 볶아서.)
 103013 @1 보깡예?(볶아서요?)
 103013 #1 그레에서 곶기도 허고 정미소 강 곶아당도 먹고.(맷돌에서 갈기도 하고 정미소 가서 갈아다가도 먹고.)
 103014 @1 예, 알아수다. 그러면 보리 강은에 방에 강 지젠 허면 방에 지면 보 리체도 나올 거 아니우과예?(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리 가서 방아 가서 찜으려고 하면 방아 찜으면 보릿겨도 나올 거 아닙니까요?)
 103014 #2 으.(으.)
 103014 @1 그 체허고 그 체는 어떤 데 썰수가?(그 겨하고 그 겨는 어떤 데 썰 습니까?)
 103014 #1 돼야지 것.(돼지 먹이.)
 103014 #6 누까¹⁷⁵.(보릿겨.)
 103014 #1 소 것. 그런 델로 쓰고 쪼 득 사료도 허고 뭐, 뭐.(소 먹이. 그런 델 로 쓰고 쪼 닭 사료도 하고 뭐, 뭐.)
 103014 #2 도새기 사료 허곡 췌 사료 허엿주.(돼지 사료 하고 소 사료 했지.)
 103014 #6 사료용, 사료용.(사료용, 사료용.)
 103014 @1 사료용예, 아까 누까마씨?(사료용요, 아까 ‘누까’요?)
 103014 #2 누까.(보릿겨.)
 103014 #6 누까.(보릿겨.)
 103014 @1 으.(으.)
 103014 #2 거 일본 말일 거라.(거 일본 말일 거야.)
 103014 #6 보리 꺾질보고 누까엔 헛어.(보리 꺾질보고 보릿겨라고 헛어.)
 103014 @1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보리 그 낭은 뭐 헤수가?(예, 예, 예, 예. 그다음에 보리 그 대는 뭐 헛습니까?)
 103014 #6 보릿낭 뭐 헛냐고?(보릿대 뭐 헛냐고?)
 103014 #2 불도 숨고 걸름도 멘들고.(불도 때고 거름도 만들고.)
 103014 #6 옛날은, 옛날은 주부들이.(옛날은, 옛날은 주부들이.)
 103014 @1 예.(예.)

175) ‘누까(ぬか)’는 보리를 찜었을 때 나오는 겨를 가리키는 일본어다. 보릿겨에 대응하는 일본어다.

103014 #6 그 보릿낭으로 불 습안 밥을 헛어.(그 보릿대로 불 때서 밥을 헛어.)
 103014 @1 으.(으.)
 103014 #6 기가 막히주, 진짜.(기가 막히지, 진짜.)
 103014 #2 계난 눈물 잘잘 나명.(그러니까 눈물 잘잘 나면서.)
 103014 @1 으.(으.)
 103014 #6 경만 헛어? 뭐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로 이 동넨 저 밑에 물이
 서어?(그렇게만 헛어? 뭐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로 이 동넨 저 밑에 물이 있
 어?)
 103014 @1 예.(예.)
 103014 #6 경 허른 허벽으로 이젠 물 날란.(그렇게 하면 물동으로 이젠 물 날랐
 어.)
 103014 #2 **** 왕 물 질영 오고.(**** 와서 물 길어 오고.)
 103014 #6 거 봐, 옛날은 주부들이 얼마나 힘들어시니.(거 봐, 옛날은 주부들이
 얼마나 힘들었니.)
 103014 @1 계난예?(그러니까요?)
 103014 #2 검질베영 왕 밤이 계난 물 질엇지.(김매서 와서 밤에 그러니까 물 길
 었지.)
 103014 #6 계난 또 세백이 일어남 밥허젠 허른 즘은 자져?(그러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려고 하면 잠은 자져?)
 103014 @1 으.(으.)
 103014 #6 경 허명 살았는데 요즘은 한걸이 살아가난 더 브름이나 피우곡.(그렇
 게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한가히 살아가니까 더 바람이나 피우고.)
 103014 @1 웃음. 계난 요즘 저기 할머니들 만나믄예, 대통령 삶도 이것보단 별
 로 안 좋덴 경 곶아마씨.(웃음. 그러니까 요즘 저기 할머니들 만나면요, 대통령 삶
 도 이것보단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해요.)
 103014 #3 정말 그 소리 헛주.(정말 그 소리 헛지.)
 103014 #2 옛날 할망덜 말은 어떻게 허느냐 허면 아이고, 보리 비영 왕 저녁 먹
 어 심상 말아 심상 헤영 즘자젠 허민 애긴 뽁뽁 울영 젓 물령 제왕 일어남 또 혼
 즘
 자젠 허당 보민 일영 낭 또 암탁 울영 일어남 밥허곡.(옛날 할머니들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보리 베어서 와서 저녁 먹어 심상 말아 심상 해서 잠자려고
 하면 아긴 뽁뽁 울어서 젓 물려서 제워서 일어나서 또 한잠 자려고 하다 보면 일어
 나서 또 암탁 울어서 일어나서 밥하고.)
 103014 #6 삶이 춤.(삶이 참.)
 103014 #2 경 허영 말은 옛말을 곶아.(그렇게 해서 말은 옛말을 말해.)
 103014 @1 예, 맞수다. 경 허고 이제 보릿그시락으론 뭐 헛수가?(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리카끄라기론 무엇 헛습니까?)
 103014 #2 굴묵¹⁷⁶ 질엇주기.(‘굴묵’ 때었지.)

103015 @1 음, 보릿¹⁷⁶시락은 이제 굴묵 진고예, 예. 혹시 삼촌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리용시허멍 잊어볼지 못하는 추억 잇수가?(음, 보리카끄라기는 이제 ‘굴묵’ 때 고요, 예. 혹시 삼촌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리농사하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 있습니까?)

103015 #2 아이고, 그때 곤란헨 막 아주 가난허난 먹을 게 없어 가지고.(아이고, 그때 곤란해서 아주 아주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 가지고.)

103015 @1 으.(으.)

103015 #2 보릿고개, 보릿고개 헐 때가 그렇게 가난헐 때라.(보릿고개, 보릿고개 할 때가 그렇게 가난할 때야.)

103015 @1 예.(예.)

103015 #2 그때 저 전분공장이 잇엉 전분 주시를 가져다가 물리왕.(그때 저 전분공장이 있어서 전분 찌꺼기를 가져다가 말려서.)

103015 @1 예.(예.)

103015 #2 그걸 ¹⁷⁷르로 멩글양, 그걸로 떡도 헤영 먹고 속 캐당 그 보리 곶아당.(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로 떡도 해서 먹고 속 캐다가 그 보리 곶아다가.)

103015 @1 으.(으.)

103015 #2 그, 그걸로 헤영근에 저 늘쿠는 거라, 늘쿠는 거. 이 양식이 모자라니까.(그, 그걸로 해서 저 늘리는 거야, 늘리는 거. 이 양식이 모자라니까.)

103015 @1 예.(예.)

103015 #2 블루왕은에 거 속, 속범벅도 헤영 먹고.(불려서 거 속, 속버무리도 해서 먹고.)

103015 @1 으.(으.)

103015 #2 헤영 살아낫주게.(해서 살았었지.)

103015 @1 게난 삼촌도 그치록 헤영 먹언 살안?(그러니까 삼촌도 것처럼 해서 먹어서 살았어요?)

103015 #2 아, 우리도.(아, 우리도.)

103015 #1 육이오 일어나는 헤 흥년이 들엇엇던가봐.(육이오 일어나는 헤 흥년이 들엇엇던가봐.)

103015 @1 예.(예.)

103015 #1 내가 예 군인¹⁷⁷ 갔다가.(내가 예 군대 갔다가.)

103015 #2 ** 팡팡 나는 전분 주시 그거 곶아당 다 행 먹엇어.(** 팡팡 나는 전분 찌꺼기 그거 곶아다가 다 해서 먹엇어.)

103015 #1 양력 유월 으 그믐께 이제 집의 와 보니까.(양력 유월 으 그믐께 이제 집에 와 보니까.)

103015 #6 이런 농번기치곡 보리 빌 때가 쥘 힘들엇주게.(이런 농번기치고 보리

17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77) 여기서 ‘군인’은 제보자가 ‘군대’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벨 때가 켈 힘들었지.)

103015 @1 음.(음.)

103015 #6 요즘 같은 밀감, 밀감 따는 거나 마찬가지로.(요즘 같은 밀감, 밀감 따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15 @1 음.(음.)

103015 #6 막 벳게, 보리, 보리 수확 시기가 막 더운 때주게.(아주 별이, 보리, 보리 수확 시기가 아주 더운 때지.)

103015 @1 음.(음.)

103015 #6 게여 노니까.(그래 놓으니까.)

103015 #3 더운 것도 더운 거주마는 비나 왕 허민 보리가 곱은, 곱은 보리 곱은 보리 해낫주게.(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비나 와서 하면 보리가 곱은, 곱은 보리 곱은 보리 했었지.)

103015 #2 비지 못해난.(베지 못했었어.)

103015 @1 예, 예, 예.(예, 예, 예.)

103015 #2 막 꺼꺼정.(아주 꺾어져서.)

103015 #3 막 꺼꺼지면은 벳은 나쁜 곱은 보리로 와삭와삭 문딱 떨어져 붙어.(아주 꺾어지면 벳은 나쁜 곱은 보리로 와삭와삭 몽땅 떨어져 버려.)

103015 @1 음.(음.)

103015 #3 그게 켈 어렵고. 게난 그 당시에도 보리 해 가지고 반 수확도 못 건진 사람덜 많주게.(그게 켈 어렵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리 해 가지고 반 수확도 못 건진 사람들 많지.)

103015 @1 음.(음.)

103015 #3 다 거두지 못허연. 간 보리도.(다 거두지 못해서. 간 보리도.)

103015 @1 예.(예.)

103015 #6 그때 주 놓이 보리니까.(그때 주 놓이 보리니까.)

103015 @1 예.(예.)

103015 #2 게난 그때 젊은 사람덜이 허는 말이.(그러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3015 #3 날만 좋아도 허는디 날씨도 곳어놓고 허민 환장허지. 집의 왕 홀타도 거 마리레 문딱 들어오고. 마리 경 안 현 거는 마리에서 홀탄.(날만 좋아도 하는데 날씨도 곳어놓고 하면 환장하지. 집에서 훤아도 거 마루에 몽땅 들어오고. 마루 그렇게 안 한 거는 마루에서 훤았어.)

103015 #2 마리에서 홀타주게. 마리에서 홀탄.(마루에서 훤았지. 마루에서 훤았어.)

103015 @1 예.(예.)

103015 #2 구들이고 무시거고 그자 아무디라도 홀타놓는 거라. 비 안 맞는다.(방이고 무엇이거고 그자 아무데라도 훤아놓는 거야. 비 안 맞는데.)

103015 @1 음.(음.)

103015 #3 그땐 춤 삶이, 삶이 아니라. 요즘 아이덜허고.(그땐 참 삶이, 삶이 아니야. 요즘 아이들하고.)

103015 #2 목숨 부뜨난 사는 거주.(목숨 붙으니까 사는 거지.)

103015 #3 천지차이.(천지차이.)

103015 #2 게난 어린 때 젊을 때덜게 애기 낳면은 애기 업영 보리 비레 강 늑 쳐똥 보리, 보리 곱양은에 그 보리 벅테 가민 꼬박 그 저 와삭와삭허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어릴 때 젊을 때들 아기 낳으면 아기 업어서 보리 베러 가서 눅혀두고 보리, 보리 곱아서 그 보리 벌에 가면 꼬박 그 저 와삭와삭하는 소리가 나.)

103015 @1 예.(예.)

103015 #3 와삭와삭허주게, 낭으로.(와삭와삭하지, 대로.)

103015 #2 애긴 뵙뵙 울곡 보리 와삭와삭허고 색, 색색말축¹⁷⁸은 색색허곡, 어느.(아긴 뵙뵙 울고 보리 와삭와삭하고 색, ‘색색말축’은 색색하고, 어느.)

103015 @1 무신 말축?(무슨 메뚜기?)

103015 #2 말축, 색색말축.(메뚜기, ‘색색말축’.)

103015 @1 색색말축, 예.(‘색색말축’, 예.)

103015 #2 그치룩 허영은에 노래 불르멍덜 헤낫어.(그처럼 해서 노래 부르면서 들 했었어.)

103015 #3 맞주.(맞지.)

103015 @1 음.(음.)

103015 #6 요즘은 농약 해 가니까 엇는데 옛날은 그 말축이엔 현 거.(요즘은 농약 해 가니까 없는데 옛날은 그 메뚜기라고 한 거.)

103015 #2 메뚜기게.(메뚜기.)

103015 @1 예, 예.(예, 예.)

103015 #2 메뚜기 종류.(메뚜기 종류.)

103015 #6 메뚜기 종룬다.(메뚜기 종룬데.)

103015 #2 색색말축 거. 다리 영 영 영 허멍 소리 내는 거.(‘색색말축’ 거. 다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내는 거.)

103015 #6 시기적으로 다 그런 거 잇엇주게.(시기적으로 다 그런 거 잇엇지.)

103015 @1 예.(예.)

103015 #2 춤, 거.(참, 거.)

103015 @1 옛날 어려웠던 시절 말 글렌 허면 정말 멧 박 메칠 글아예? 우리 할머니들은 특히 여자들은?(옛날 어려웠던 시절 말 말하라고 하면 정말 멧 박 며칠 말하지요? 우리 할머니들은 특히 여자들은?)

103015 #3 경 허당 등짐으로 정 오젠 허민 보리 정 오당 빠지민 애기 낫젠 허주거.(그렇게 하다가 등짐으로 쳐서 오려고 하면 보리 쳐서 오다가 빠지면 아기 낳

178) ‘색색말축’은 메뚜기의 한 종류다.

왔다고 하지.)

103015 #2 애기 낫젠 허여.(아기 낳았다고 해.)

103015 #3 애기 낫젠. 짐을 정 오당은에 하영 지면은 이제 보리 못이 족지 아녕 크게 묶거든.(아기 낳았다고. 짐을 저서 오다가 많이 지면 이제 보리 못이 작지 않아서 크게 묶거든.)

103015 @1 예.(예.)

103015 #3 게민 잘 낳은에 저도, 오당.(그러면 잘 낳아서 저도 오다가.)

103015 @1 예.(예.)

103015 #3 빠지면은 질레서 애기 남젠.(빠지면 길에서 아기 낳고 있다고.)

103015 @1 아아.(아아.)

103015 #3 거민 땀 흘리면서 울어, 헤냏어. 울어, 울어. 거 허젠.(그러면 땀 흘리면서 울어, 했었어. 울어, 울어. 거 하려고.)

103015 #2 겐디 그 보릿대가 잘도 미끄러와 가지고 짐 정 오당 봐도 잘 빠져.(그런데 그 보릿대가 잘도 미끄러워 가지고 짐 저서 오다가 봐도 잘 빠져.)

103015 @1 음.(음.)

103015 #6 게난 지금이, 일본에 우리 제주도 할머니덜토 많이 가 잇어게.(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우리 제주도 할머니들토 많이 가 있어.)

103015 @1 예, 예.(예, 예.)

103015 #6 겐디 나 몇 년 전에 일본 간 좀 살단 와신디 그 할머니덜이 허는 얘기, 영 넘어가명 들으른.(그런데 나 몇 년 전에 일본 가서 좀 살다가 왔는데 그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들으면.)

103015 #2 고생헤난 얘기.(고생했던 얘기.)

103015 #6 그 옛날 헤난 얘기이. 당신덜끼리 앓아 가지고.(그 옛날 했던 얘기. 당신들끼리 앓아 가지고.)

103015 @1 예, 예.(예, 예.)

103015 #6 그 제주도말 허길래 제주도 어디서 읍디가? 허난 어디 저 남군¹⁷⁹⁾ 쪽에서 오ㄴ렌 허멍 허는디, 말허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허고 아주 그냥 대조적인 얘길 허여.(그 제주도말 하기에 제주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어디 저 남군 쪽에서 왔다고 하면서 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허고 아주 그냥 대조적인 얘길 해.)

103015 #3 그렇지게.(그렇지.)

103015 @1 예.(예.)

103015 #6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닙니다, 허니까 곧이 듣질 앓더라고.(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닙니다, 하니까 곧게 듣질 앓더라고.)

103015 #2 안 들어. 이녁네 고생헌 거.(안 들어. 이녁네 고생한 거.)

179) 여기에서 '남군'은 예전에 제주도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나눌 때의 행정 체제인 '남제주군'을 줄여서 한 말이다.

103015 @1 안 보니까예? 으.(안 보니까요? 으.)

103015 #6 나가 거짓말 허는 걸로 듣는 거라.(내가 거짓말 하는 걸로 듣는 거야.)

103015 @1 음.(음.)

103015 #6 당신네 올 때 이렇게 했고.(당신네 올 때 이렇게 했고.)

103015 #2 여기 완 안 보니까.(여기 와서 안 보니까.)

103015 #6 제주도는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얘가지. 그 분네들 얘기는. (제주도는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얘가지. 그 분네들 얘기는.)

103015 @1 예, 예.(예, 예.)

103015 #3 맞아.(맞아.)

103015 #6 그렇게 허더라고. 계난 지금계 저 뭐라계 일 세 그 저 제일교포 일 세덜 초청허연 제주도 구경시키지 아넘서계.(그렇게 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뭐야, 일 세 그 저 제일교포 일 세들 초청해서 제주도 구경시키지 않고 있나.)

103015 @1 예.(예.)

103015 #6 그분덜이 왕 빵 막 놀래지 아넘서계.(그분들이 와서 봐서 아주 놀라지 않고 있는가.)

103015 @1 음, 맞수다.(음, 맞습니다.)

103015 #6 당신네 옛날 살 때허고 지금 비교허면은 춤 천지차이지.(당신네 옛날 살 때허고 지금 비교하면 참 천지차이지.)

조농사

103016 @1 그러주마씨. 알았수다. 이젠예, 조농사 해보쿠다.(그렇지요. 알았습시다. 이젠요, 조농사 해보겠습니다.)

103016 #6 조?(조?)

103016 @1 예, 조 갈젠 허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헤신고예? 조 불리젠 허면?(예, 조 갈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조 밟으려고 하면?)

103016 #6 조 불리젠 허믄. 예 조 불리젠 허믄.(조 밟으려고 하면. 예 조 밟으려고 하면.)

103016 #2 그거는 거의 거름을 잘 안 써.(그거는 거의 거름을 잘 안 써.)

103016 @1 예.(예.)

103016 #2 저 보리 할 때만 거름 쓰지. 건 여름 농산디 그거는 미룻 보릿그르를.(저 보리 할 때만 거름 쓰지. 건 여름 농산데 그거는 미리 보리그루를.)

103016 @1 예.(예.)

103016 #2 거시렁 놔뒀. 비올 때 이 저 쉼로 행 밧 갈앙 얹영 낫당. 이젠 또, 또 조 불리젠 허면은.(애벌같이해서 놔뒀. 비올 때 이 저 소로 해서 밧 갈아서 얹어서 봤다가. 이젠 또, 또 조 밟으려고 하면.)

103016 @1 으.(으.)

103016 #2 그건 씨 뿌령, 씨 갈양 멘쩍허게시리 갈아냥 그 우의 줍씨 뿌령.(그건 씨 뿌려서, 씨 갈아서 편편하게끔 갈아놔서 그 위에 조씨 뿌려서.)

103016 @1 음.(음.)

103016 #2 이젠 불리는 거라. 발로 뭐 몽둥이 지퍼 보멍 몽둥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이젠 밟는 거야. 발로 뭐 몽둥이 짚어 보면서 몽둥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

103016 #6 우마로도 허곡.(우마로도 하고.)

103016 @1 으.(으.)

103016 #6 사름으로도 불리곡 허는다.(사람으로도 밟고 하는데.)

103016 #2 막 불려.(막 밟아.)

103016 #6 조는 그 뵈고, 그 나는 게.(조는 그 뵈이니, 그 나는 게.)

103016 @1 예.(예.)

103016 #6 약허니까.(약하니까.)

103016 @1 예.(예.)

103016 #6 보리씨 모양 밑에 빠면은 잘 나질 안허주게.(보리씨 모양 밑에 뿌리면 잘 나질 않지.)

103016 @1 음.(음.)

103016 #6 겨니까 그 우에 빼여 가지고 그 섬피엔 현 거.(그러니까 그 위에 뿌려 가지고 그 끄게라고 한 거.)

103016 @1 예, 예.(예, 예.)

103016 #2 끄영은에 그 불리는 거.(끌어서 그 밟는 거.)

103016 #6 섬피엔 현 걸로 영 끄어근에 우에 더퍼주는 거지, 섬피.(끄게라고 한 걸로 이렇게 끌어서 위에 덮어주는 거지, 끄게.)

103016 #3 아래도 빠곡 허주마는 주로 아래 빼여 낱 우의 빼여 가지고.(아래도 뿌리고 하지만 주로 아래 뿌려 놔서 위에 뿌려 가지고.)

103016 #6 줍씨는.(조씨는.)

103016 #2 거의 우에 뿌렸주. 거의.(거의 위에 뿌렸지. 거의.)

103016 #6 거의 우에.(거의 위에.)

103016 #3 쪼끔 툫아진¹⁸⁰⁾ 사름은 뭐 아래도 빼어.(쪼끔 ‘툫아진’ 사름은 뭐 아래도 뿌려.)

103016 @1 예.(예.)

103016 #3 잘 나지 안헌덴. 우알 씨 빼주. 우알 씨.(잘 나지 않는다고. 위아래 씨 뿌리지. 위아래 씨.)

103018 @1 조는 보통 언제 갈아마씨?(조는 보통 언제 갈아요?)

103018 #6 조는 보리 낫나면 허니까.(조는 보리 끝나면 하니까.)

103018 #3 보리 낫냥 가는 거난.(보리 끝나서 가는 거니까.)

103018 #2 유월절¹⁸¹⁾ 전의 헛주.(유월절 전에 했지.)

180) ‘툫아진’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로워 조그마한 일에도 따지고 다투기를 잘하는’의 의미다.

- 103018 #6 아니.(아니.)
- 103018 #3 양력으로.(양력으로.)
- 103018 #6 양력으로 유월.(양력으로 유월.)
- 103018 #3 오월달 땀직허다. 오월달 양력 오월달에 조 같아.(오월 될 듯하다. 오월 양력 오월에 조 같아.)
- 103018 #2 아, 오월 말 아니면 유월 초 뉘겏다.(아, 오월 말 아니면 유월 초 되겏다.)
- 103018 #3 유월 초계.(유월 초.)
- 103018 #1 유월이 저 이 절기로.(유월 저 이 절기로.)
- 103018 @1 예.(예.)
- 103018 #2 유월절 절기.(유월절 절기.)
- 103018 #1 이 저 예.(이 저 예.)
- 103018 #6 유월 중순 뉘 거라.(유월 중순 될 거야.)
- 103018 @1 음.(음.)
- 103018 #1 예, 망중, 소서. 소서가 그 저 칠월절¹⁸²⁾이라고 허는 절긴디 소서.
(예, 망중, 소서. 소서가 그 저 ‘칠월절’이라고 하는 절긴디 소서.)
- 103018 #6 그 전에.(그 전에.)
- 103018 #2 아이고, 아주 전의주.(아이고, 아주 전이지.)
- 103018 #1 들기 전의.(들기 전에.)
- 103018 @1 예.(예.)
- 103018 #3 유월 중순 양력으로 유월달.(유월 중순 양력으로 유월.)
- 103018 #1 약 유월 말까, 정도이.(약 유월 말까, 정도.)
- 103018 @1 예.(예.)
- 103018 #1 유월 말 칠월 초순까지 대개 파종할 거여.(유월 말 칠월 초순까지 대개 파종할 거야.)
- 103018 @1 그 무사 조 불리젠 허면 비도 하영 올 때 아니우과? 그때예.(그 왜 조 밟으려고 하면 비도 많이 올 때 아닙니까? 그때요.)
- 103018 #3 그렇지.(그렇지.)
- 103018 @1 그러면 여기 마걸이조¹⁸³⁾여 뭐 이런, 그런 말 험니까?(그러면 여기 ‘마걸이조’다 뭐 이런, 그런 말 험니까?)
- 103018 #3 허고말고.(하고말고.)
- 103018 #1 마갈이¹⁸⁴⁾.(‘마갈이’.)
- 103018 @1 그거는 무슨 말이우과? 그.(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 103018 #6 무슨 말이나 허면은 조는 파종헤 가지고.(무슨 말이나 하면 조는 파

181) ‘유월절’은 7월 8일 소서부터 8월 8일 입추까지의 한 달을 말한다.

182) ‘칠월절’은 8월 8일 입추부터 9월 8일 백로까지의 한 달을 말한다.

183) ‘마걸이조’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를 말한다.

184) ‘마갈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 따위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마걸이’라고도 한다.

종해 가지고.)

103018 @1 예.(예.)

103018 #6 한 이 주 동안 비가 안 와야 아주 그냥.(한 이 주 동안 비가 안 와야 아주 그냥.)

103018 #2 검질 안 나주.(김 안 나지.)

103018 @1 음.(음.)

103018 #6 검질 안 나곡 그 종자도 윤지곡.(김 안 나고 그 종자도 윤지고.)

103018 @1 음.(음.)

103018 #6 만약 비가 와 버리면은 이제 말허는 거 검질 많이 나곡 종자도 좀 물명혜영 제주도 말로.(만약 비가 와 버리면 이제 말하는 거 김 많이 나고 종자도 좀 용렬해서 제주도 말로.)

103018 @1 예.(예.)

103018 #6 경 허난 마같이.(그렇게 하니까 ‘마같이’.)

103018 #2 마같이엔 현 말은.(‘마같이’라고 한 말은.)

103018 @1 예.(예.)

103018 #2 마 젖다가 그 마, 조 불릴 때는 마지주기게.(장마 젖다가 그 장마, 조 밟을 때는 장마 지지.)

103018 @1 예, 예.(예, 예.)

103018 #2 마 젖다가 마를.(장마 젖다가 장마를.)

103018 #3 나기 전이.(나기 전에.)

103018 #2 막아 분다 허는 거.(막아 버리다 하는 거.)

103018 @1 으.(으.)

103018 #2 마가 가되 분다는 거주.(장마가 가되 버린다는 거지.)

103018 @1 마 가되 부는 거예, 계난 그.(장마 가되 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그.)

103018 #2 마같이, 마같이.(‘마같이’, ‘마같이’.)

103018 @1 조 불린 다음에 비가 안 오는 거.(조 밟은 다음에 비가 안 오는 거.)

103018 #2 안 오는 거.(안 오는 거.)

103018 #3 그렇지.(그렇지.)

103018 @1 안 오는 거를 마같이렌 현 거라예. 계문 비 온데, 마같이 전에, 마 전에 간 조는 무슨 조 합니까?(안 오는 거를 ‘마같이’라고 한 거네요. 그러면 비 온데, ‘마같이’ 전에, 장마 전에 간 조는 무슨 조 합니까?)

103018 #3 건 뭇 조라곤 안 허고.(건 뭇 조라곤 안 하고.)

103018 #6 뭇 조엔은 안 허고 그냥 그저.(뭇 조라고는 안 하고 그냥 그저.)

103018 #3 땀 데는 뒹스텐¹⁸⁵⁾ 허주. 마같이 안 뒹난 좀 뒹스텐다고.(땀 데는 뒤집는다고 하지. ‘마같이’ 안 되니까 좀 뒤집는다고.)

185) ‘뒹스텐’은 ‘뒤집는다고’의 의미다. 여기에서 ‘뒤집는’ 것은 곡식을 갈았다가 잘 나지 않으니까 갈아엎는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103018 #2 아, 거 잘 안 나쁜 돼쌍은에 또 허곡.(아, 거 잘 안 나쁜 뒤집어서 또 하고.)

103018 @1 혼 불 더 가는 거라예?(한 벌 더 가는 거네요?)

103018 #3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3018 @1 그거는 돼쓴덴 굴아예?(그거는 뒤집는다고 말한다고요?)

103018 #3 돼쓰는 거.(뒤집는 거.)

103018 #2 조 돼쌍. 돼쓴 조는 잘 안 돼여.(조 뒤집어서. 뒤집은 조는 잘 안 돼.)

103018 #3 안 뵤텐 허주게.(안 된다고 하지.)

103018 @1 으, 여기서는 이제 불리는 게 말이나 췌 행은에 허고. 그다음에 섬피로 해 갖고 현 거라예?(으, 여기서는 이제 밟는 게 말이나 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끄게로 해 갖고 한 거네요?)

103018 #2 섬피로 끄어 낳은에 블라. 무주건[무주건] 블라.(끄게로 끌어 놔서 밟아. 무조건 밟아.)

103018 @1 아아.(아아.)

103018 #6 씨 빼영.(씨 뿌려서.)

103018 @1 예.(예.)

103018 #6 그 씨가 이제 묻혀, 흙에 묻어지기 위해서 섬피로 끄어 낳 블라.(그 씨가 이제 묻혀, 흙에 묻어지기 위해서 끄게로 끌어서 밟아.)

103018 #2 묻어지게시리 섬피로 끄어낳 무주건 블라.(묻어지게끔 끄게로 끌어놓고 무조건 밟아.)

103018 @1 아, 그다음 블라서예?(아, 그다음 밟았다고요?)

103018 #2 안 블랑은에 안 돼낳어, 옛날은.(안 밟아서는 안 되었었어, 옛날은.)

103018 @1 예, 예.(예, 예.)

103018 #1 그 섬비가 밧 면을 고르는 거라.(그 끄게가 밧 면을 고르는 거야.)

103018 #3 멘드는 거주게.(만드는 거지.)

103018 @1 예, 보통 어떤 낭으로 멘들었수가? 섬피는?(예, 보통 어떤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끄게는?)

103018 #6 팡낭엔 현 게 잇어이.(팡팡나무라고 한 게 있어.)

103018 #2 팡낭.(팡팡나무.)

103018 @2 팡낭.(팡팡나무.)

103018 #2 팡낭섬피가 질 좋앗주게. 허곡, 그거허고 솔나무 가지도 헛어.(팡팡나무끔게가 췌 좋앗지. 하고, 그거하고 소나무 가지도 헛어.)

103018 #3 삼동낭, 팡낭.(삼동나무, 팡팡나무.)

103018 #6 팡낭이 췌 좋아.(팡팡나무가 췌 좋아.)

103018 @1 예, 팡낭이 췌 좋은 거예, 예?(예, 팡팡나무가 췌 좋은 거요, 예?)

103021 #2 그런 거 엇이민 소낭 가지도 꺼경.(그런 거 없으면 소나무 가지도 꺾

어서.)

103021 #6 맞아.(맞아.)

103021 #3 허고말곡. 감젓줄로도 꺾어낫어게.(하고말고. 고구마줄기로도 꺾었어.)

103021 @1 어제도 얘기허멍 남테 ㄱ튼 거는 여긴 안 췌텐 허멍예?(어제도 얘기하면서 ‘남테’ 같은 거는 여긴 안 췌다고 하면서요?)

103021 #3 안 췌, 안 췌.(안 췌, 안 췌.)

103021 #6 남테¹⁸⁶는 뭐라?(‘남테’는 뭐야?)

103021 @1 거니까.(그러니까.)

103021 #3 남군 가른이 낭으로 꺾는 거 있어.(남군 가면 나무로 꺾는 거 있어.)

103021 #6 아, 그런 거.(아, 그런 거.)

103021 @1 예, 이런 건 안 쓰고예?(예, 이런 건 안 쓰지요?)

103021 #3 돌테¹⁸⁷, 남테 남군밧게 엇어.(‘돌테’, ‘남테’ 남군밧에 없어.)

103021 @1 예, 조팏디 검질은 언제부터 멧 번이나 맵니까?(예, 조밭의 검은 언제부터 멧 번이나 맵니까?)

103021 #6 조팏디 검질은 보통.(조밭의 검은 보통.)

103021 #2 흔 세 번.(한 세 번.)

103021 #6 세 번 매는데. 그게 파종 후 흔 이십일 쯤.(세 번 매는데. 그게 파종 후 한 이십일 쯤.)

103021 #2 아니, 열흘, 열흘.(아니, 열흘, 열흘.)

103021 #3 이십일 전에 매어.(이십일 전에 매어.)

103021 #2 열흘, 열흘. 열흘만 돼면은 조가 관짝 나.(열흘, 열흘. 열흘만 되면 조가 관짝 나.)

103021 #3 조 나가민 이젠 그 소꺾곡덜.(조 나가면 이젠 그 슈고들.)

103021 @1 으.(으.)

103021 #2 소파야 돼어.(슈아야 되어.)

103021 @1 으.(으.)

103021 #6 열흘에?(열흘에?)

103021 #2 제각허게 나곡 소파야주.(뽁뽁하게 나고 슈아야지.)

103021 #3 흔 열흘 돼가민 조 나민게 두세 입 돼민 소꺾곡 경 일정 돼어.(한 열흘 돼가면 조 나면 두세 입 되면 슈고 그렇게 일정 되어.)

103021 #2 삼일 만이 납니께게. 삼일 만에 조 낭은에.(삼일 만에 납니다. 삼일 만에 조 나서.)

103021 #3 그렇지.(그렇지.)

103021 #2 일주일 돼민 그 소파야 돼.(일주일 되면 그 슈아야 돼.)

186)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든 농기구를 말한다. 굴려서 밭을 돌려 다질 때 쓴다.

187) ‘돌테’는 땅을 다질 때 쓰는, 돌을 깎아 원통형으로 만든 농기구를 말한다.

103021 @1 삼일 만에 나 붙어마씨? 조는.(삼일 만에 나 버려요? 조는.)
 103021 #3 삼일, 조 나누게.(삼일, 조 나지.)
 103021 @1 아.(아.)
 103021 #2 으, 물만 부뜨른 그냥 나 붙어.(으, 물만 붙으면 그냥 나 버려.)
 103021 @1 아.(아.)
 103021 #3 떡잎부터 낱 두세 낱 나민 소끄젠 ****.(떡잎부터 나서 두세 잎 나면
 슈으려고 ****.)
 103021 #6 소끄젠 허민 좀 커야주게.(슈으려고 하면 좀 커야지.)
 103021 #3 커야지. 계난 하이튼 밧디 강 살아야 돼긴 살아야 돼여.(커야지. 그러
 니까 하여튼 밧에 가서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되어.)
 103021 #2 계난 소끔도게 그거 하도 일손이 엇어 놓난.(그러니까 슈음도 그거
 하도 일손이 엇어 놓으니까.)
 103021 #6 계난.(그러니까.)
 103021 #2 미룻 헐 서눔으로.(미리 할 모양으로.)
 103021 #6 계난 종자 빼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게.(그러니까 종자 뿌리는 게 그
 령게 힘들다는 게.)
 103021 @1 예.(예.)
 103021 #6 그걸 잘 골고루 빼여야 소끔질 덜 허고.(그걸 잘 골고루 뿌려야 슈음
 질들 덜 하고.)
 103021 @1 으.(으.)
 103021 #6 또 빈 공간이 엇일 거 아니라게. 그걸 목적으로 허기 때문에 씨 빼는
 게 좀 기술적인 거주.(또 빈 공간이 없을 거 아닌가.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게 좀 기술적인 거지.)
 103022 @1 예, 맞아예. 계문 그 조밭디, 조팍디 검질은 몇 번 메여마씨?(예, 맞
 아요. 그러면 그 조밭의, 조밭의 김은 몇 번 메어요?)
 103022 #6 세 번.(세 번.)
 103022 @1 세 번? 음.(세 번? 음.)
 103021 #2 초불, 두불.(애벌, 두벌.)
 103021 #3 세불.(세벌.)
 103021 #2 막불¹⁸⁸.(‘막불’.)
 103022 @1 예, 막불. 어떤 검질 납니까? 조팍디는.(예, 막불. 어떤 김 납니까?
 조밭에는.)
 103022 #2 제환지.(바랭이.)
 103022 #6 제환지.(바랭이.)
 103022 #2 췌비눔.(쇠비름.)
 103022 @1 예.(예.)

188) ‘막불’은 마지막으로 매는 김을 말한다.

103022 #6 복쿨.(깨풀.)
 103022 #2 복쿨.(깨풀.)
 103022 #3 천상쿨. 뭐 그 뭐 그자 여름 검질은 뭐 없는 거 없이 다 나지.(망초. 뭐 그 뭐 그저 여름 김은 뭐 없는 거 없이 다 나지.)
 103022 #2 여름 검질은 다 나지, 뭐.(여름 김은 다 나지, 뭐.)
 103022 @1 아까 삼촌, 보리밭되는 절마니 난텐 해서예?(아까 삼촌, 보리밭에는 ‘절마니’ 난다고 했지요?)
 103022 #2 으, 절마니.(으, ‘절마니’.)
 103022 #6 건 여름에 안 나.(건 여름에 안 나.)
 103022 #2 건 여름에 안 나.(건 여름에 안 나.)
 103022 @1 절마니허고 제완지허고는 어떻 트난 거마씨?(‘절마니’하고 바랭이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103022 #2 아주 질적으로 다르주.(아주 질적으로 다르지.)
 103022 @1 아, 이건 어떤 거지? 절마니 그럼?(아, 이건 어떤 거지? ‘절마니’ 그럼?)
 103022 #6 절마니엔 현 거는.(‘절마니’라고 한 거는.)
 103022 @1 예.(예.)
 103022 #6 이렇게 포기 짓어 가지고 막 그 저 잎이.(이렇게 포기 지어 가지고 아주 그 저 잎이.)
 103022 @1 예.(예.)
 103022 #6 가늘게 그냥 이렇게 막 저.(가늘게 그냥 이렇게 아주 저.)
 103022 #2 머리털 모양으로.(머리털 모양으로.)
 103022 #6 머리털 모양으로 헤영 나는 거고.(머리털 모양으로 해서 나는 거고.)
 103022 @1 으, 제완지는?(으, 바랭이는?)
 103022 #6 제완지는 또 그냥.(바랭이는 또 그냥.)
 103022 #2 줄 번으멍.(줄 번으면서.)
 103022 #6 이렇게 줄 번영.(이렇게 줄 번으면서.)
 103022 #3 땅으로 막 번어가.(땅으로 막 번어가.)
 103022 #6 마디마디마다 마디마디마다 이디 맺혀 가지고 일찍 메여 불지 아녀 민 불휘 막 번어 놓면은 매기가 힘들어.(마디마디마다 마디마디마다 여기 맺혀 가지고 일찍 매 버리지 않으면 뿌리 막 번어 놓으면 매기가 힘들어.)
 103022 @1 제완지는예?(바랭이는요?)
 103022 #2 그건 뭐.(그건 뭐.)
 103022 @1 계난 절마니는 막 그 터럭처럼 막 나는 거라마씨? 흐뎀.(그러니까 ‘절마니’는 아주 그 털처럼 막 나는 거네요? 조금.)
 103022 #6 아니, 절마니가 아니고.(아니, ‘절마니’가 아니고.)
 103022 @1 어, 제완?(어, 바랭?)

103022 #6 아, 절마니, 절마니.(아, ‘절마니’, ‘절마니’.)

103022 @1 절마니예?(‘절마니’요?)

103022 #6 맞다, 맞다.(맞다, 맞다.)

103022 @1 절마니허고 제완지허고는 흐뭇 비슷합니까? 모양은?(‘절마니’하고 바랭이하고는 조금 비슷합니까? 모양은?)

103022 #6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22 @1 아니, 완전 트난 거? 절마니가 또 어떤 건지 모르겠네이, 또 이, 아.(아니, 완전 다른 거? ‘절마니’가 또 어떤 건지 모르겠네, 또 이, 아.)

103022 #2 쉼터럭도 난덴 헤낫어.(김의털도 난다고 했었어.)

103022 @1 쉼터럭도 나고, 으?(김의털도 나고, 으?)

103022 #6 여름에는 쉼터럭 나매.(여름에는 김의털 나.)

103022 @1 예, 쉼터럭도 나고예?(예, 김의털도 나고요?)

103022 #1 그 으름 농사라고 허면은 조.(그 여름 농사라고 하면 조.)

103022 @1 예.(예.)

103022 #1 산두.(산도.)

103022 @1 예.(예.)

103022 #1 뭐 콩, 뭐 녹두 이렇게 등 잇는디 아까도 얘기했구나마는 그 조팠디는 보통 두서너 불 이제 김을 매야 허는 거고.(뭐 콩, 뭐 녹두 이렇게 등 잇는데 아까도 얘기했구나만 그 조밭에는 보통 두서너 불 이제 김을 매야 하는 거고.)

103022 @1 예.(예.)

103022 #1 콩밭디나 이런 데는 흐두 불 메도 돼지.(콩밭에나 이런 데는 한두 불도 되지.)

103022 @1 예.(예.)

103022 #1 경 허고, 이 조, 조팠데 김질들은 대충 그 절기에 따라서 허지만 어제 글앗주마는 좀 처서까지.(그렇게 하고, 이 조, 조밭에 김들은 대충 그 절기에 따라서 허지만 어제 말했지만 좀 처서까지.)

103022 @1 예.(예.)

103022 #1 그 이전 으름 거즘 농사짓으믄 그자 매날 김질맷다고 허믄 거 맞을 거라.(그 이전 여름 거의 농사지으믄 그저 매날 김맷다고 하면 거 맞을 거야.)

103022 @1 예, 알앗수다.(예, 알겠습니다.)

103022 #1 처서까지.(처서까지.)

103023 @1 그다음 수확은, 조 수확허젠 허민 어떤 식으로 해야돼마씨?(그다음 수확은, 조 수확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돼요?)

103023 #6 것도 비어야 돼여.(것도 베어야 되어.)

103023 @1 예, 비영.(예, 베어서.)

103023 #2 비영 툷아.(베어서 따.)

103023 @1 예.(예.)

- 103023 #6 고고리.(이삭.)
- 103023 #2 고고리만 툫아.(이삭만 따.)
- 103023 @1 겨난 비여 낱 툫앙 험니까? 아니면 무끄지는 안허여?(그러니까 베어 낱서 타서 험니까? 아니면 묶지는 았아?)
- 103023 #2 무경도 오곡게. 게난 밧되서 주로 툫앗주.(묶어서도 오고. 그러니까 밧에서 주로 땃지.)
- 103023 #6 밧되서 툫는 수도 잇고 무경 집의 아져오는 수도 잇고.(밭에서 따는 수도 잇고 묶어서 집에 가져오는 수도 잇고.)
- 103023 #2 밧되서가 주로 툫암주.(밭에서가 주로 따지.)
- 103023 @1 예.(예.)
- 103023 #2 경 허영은에 물방에 왕 그거 둥그렁은에 뵈아. 게민 알맹인 알맹이대로 다 털어질 거 아니라게.(그렇게 해서 연자매 와서 그거 굴려서 뽕아. 그러면 알맹인 알맹이대로 다 떨어질 거 아닌가.)
- 103023 @1 예.(예.)
- 103023 #2 게영 전부 체로 청 불려뵈은에 줄 멩그는 거주.(그래서 전부 체로 쳐서 불려뵈서 줄 만드는 거지.)
- 103024 @1 게난 그거는 물방에**. 이거는 도리깨질은 안 해마씨?(그러니까 그거는 연자매**, 이거는 도리깨질은 안 해요?)
- 103024 #3 무사 안 허여. 도리깨질.(왜 안 해. 도리깨질.)
- 103024 #2 도리깨도 허곡. 또 저 근래에는 탈곡기.(도리깨도 하고. 또 저 근래에는 탈곡기.)
- 103024 #3 메탁기. 메탁기.(탈곡기. 탈곡기.)
- 103024 #2 메타기도 하고.(탈곡기도 하고.)
- 103024 @1 메탁기도 하고예? 그 예전에 이 이거는 영 호미로 행 영 툫을 거 아니우파예? 툫으면 덩드렁마께?(탈곡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 이 이거는 이렇게 낫으로 해서 이렇게 딸 거 아닙니까요? 따면 ‘덩드렁마께’?)
- 103024 #2 걸로도 두드려.(걸로도 두들겨.)
- 103024 #6 그걸로도 허는디 그거는 많이 못허주게.(그것으로도 하는데 그거는 많이 못하지.)
- 103024 @1 아.(아.)
- 103024 #2 소싯적.(소싯적.)
- 103024 #3 흐끔 더 툫당 남은 거 방에 못 간 거. 혼두 못 남은 건 놔두라 걸랑마께로 행.(조금 더 따다가 남은 거 연자매 못 간 거. 한두 못 남은 건 놔뵈라 그것은 방망이로 해서.)
- 103024 #6 그걸로 헤져게.(그걸로 해지는가.)
- 103024 #2 도리깨 아니른 물방에 거주게.(도리깨 아니면 연자매 가지.)
- 103025 @1 예, 가장 잘 저기 쓸 허는 거는 물방에서 허는 겨우파?(예, 가장 잘

저기 쌀 허는 거는 연자매에서 하는 겁니까?)

103025 #6 그렇주, 그거주.(그렇지, 그거지.)

103025 @1 음, 좁쌀은 그렇게 저 들방에서 장만허는 거라예? 밥행 먹젠 허든
어떻 해야 돼?(음, 좁쌀은 그렇게 저 연자매에서 장만하는 거네요? 밥해서 먹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03025 #6 게난 조 장만헤여 낱.(그러니까 조 장만해서 놓아서.)

103025 @1 예.(예.)

103025 #6 조 장만허든 조, 조알이 나올 거 아니라게.(조 장만하면 조, 조알이
나올 거 아닌가.)

103025 @1 예.(예.)

103025 #6 그걸 또 이젠.(그걸 또 이젠.)

103025 #2 껍데기 썩와진 거난 그것도.(껍데기 썩워진 거니까 그것도.)

103025 #6 또 정미소에 강 저 뭇고? 방아 짚어야주게.(또 정미소에 가서 저 무
엇이니? 방아 짚어야지.)

103025 #2 정미소 나기 전에 일이주.(정미소 나기 전의 일이지.)

103025 #6 정미소 나기 전에도.(정미소 나기 전에도.)

103025 #2 거 들방에서.(거 연자매에서.)

103025 #6 들방에서 등그리면은 그 껍데기가 벗겨 질 거 아니라?(연자매에서
굴리면 그 껍데기가 벗겨 질 거 아닌가?)

103025 #2 게든 불려근에.(그러면 불려서.)

103025 @1 게든 초불 한 번 해 놓고 또 이제 좁쌀만 떨어진 것 갖고 다시 들방
에로 영 등그리멍 헨 거라예? 아아.(그러면 초벌 한 번 해 놓고 또 이제 좁쌀만 떨
어진 것 갖고 다시 연자매로 이렇게 굴리면서 한 거네요? 아아.)

103025 #2 어.(어.)

103026 @1 쟁 방에 정 오민 좁쌀로는 주로 뭐 헨 거라마씨?(그래서 방아 짚어
서 오면 좁쌀로는 주로 뭐 한 거예요?)

103026 #6 보리쌀.(보리쌀.)

103026 #2 보리쌀 보리밥 헨 때.(보리쌀 보리밥 할 때.)

103026 #6 보리밥 허다가.(보리밥 하다가.)

103026 #2 우에.(위에.)

103026 #6 보리쌀이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보리쌀이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103026 @1 예.(예.)

103026 #6 좁쌀 위에 슬쩍 놓면은.(좁쌀 위에 살짝 놓으면.)

103026 @1 예.(예.)

103026 #6 끈기가 있고, 밥이.(끈기가 있고, 밥이.)

103026 @1 음.(음.)

103026 #2 서꺼지는 거주.(섞어지는 거지.)

- 103026 @1 경 허영은에 조팝 혜영.(그렇게 해서 조밥 해서.)
- 103026 #6 좁쌀로 허는 거 많주.(좁쌀로 하는 거 많지.)
- 103026 @1 예.(예.)
- 103026 #2 떡도 허영 먹고.(떡도 해서 먹고.)
- 103026 #6 오메기떡¹⁸⁹이엔 허영 좁쌀로 그런 것도 허고.(‘오메기떡’이라고 해서 좁쌀로 그런 것도 하고.)
- 103026 #3 오메기술¹⁹⁰도 허영 먹고.(‘오메기술’도 해서 먹고.)
- 103026 #6 옛날 그 저 술 담은 거 헐 때 밀주.(옛날 그 저 술 담은 거 헐 때 밀주.)
- 103026 @1 예.(예.)
- 103026 #6 그걸로 멘들고 허는 게 많았어게.(그걸로 만들고 하는 게 많았어.)
- 103026 @1 예. 게난 조팝도 행 먹곡.(예. 그러니까 조밥도 해서 먹고.)
- 103026 #3 조팝도 행 먹고.(조밥도 해서 먹고.)
- 103026 @1 떡도 해 먹고.(떡도 해서 먹고.)
- 103026 #3 떡고 해 먹고.(떡도 해서 먹고.)
- 103026 #6 떡도 해 먹고.(떡도 해서 먹고.)
- 103026 #1 술도 빗영 먹고.(술도 빗어서 먹고.)
- 103026 @1 술도 빗으고.(술도 빗고.)
- 103026 #1 뭐 죽도 썩 먹고, 뭐, 뭐.(뭐 죽도 썩서 먹고, 뭐, 뭐.)
- 103026 @1 예.(예.)
- 103026 #2 으라 가지라.(여러 가지야.)
- 103026 @1 그다음에 이제 감주 이런 것도.(그다음에 이제 감주 이런 것도.)
- 103026 #2 거.(거.)
- 103026 #3 감주, 골감쥐¹⁹¹ 해 가지고. 골감쥐.(감주, ‘골감쥐’ 해 가지고. ‘골감쥐’.)
- 103026 #6 지금도 좁쌀 먹어.(지금도 좁쌀 먹어.)
- 103026 @1 지금, 예, 지금도예?(지금, 예, 지금도요?)
- 103026 #2 지금도 서경 먹엄주기계, 잡곡.(지금도 먹고 있지, 잡곡.)
- 103026 #6 끈기 잇으니까.(끈기 잇으니까.)
- 103026 #2 잡곡밥이라고.(잡곡밥이라고.)
- 103026 @1 그다음에 조 종류는 어떤 종류 잇어나신고예?(그다음에 조 종류는 어떤 종류 있었었나요?)
- 103026 #2 흐린조, 모인조.(차조, 메조.)

189) ‘오메기떡’은 좁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만들거나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삶아낸 떡이다. ‘오메기술’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안에 팥소를 넣거나 팥고물을 묻혀서 먹기도 한다.

190) ‘오메기술’은 차좁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만든 후 삶아낸 떡인 ‘오메기떡’에 누룩과 물을 섞어서 발효시킨 음식이다.

191) ‘골감쥐’는 ‘골+감쥐’ 구성으로, ‘골’은 엇기름, ‘감쥐’는 ‘감주’를 말한다. 즉, 엇기름을 이용해 만든 감주라는 의미다.

- 103026 #6 흐린조.(차조.)
- 103026 @1 예.(예.)
- 103026 #2 뭐 두 가지로 보든 돼주.(뭐 두 가지로 보면 되지.)
- 103026 #6 우선 흐린 거 모인 거.(우선 차진 거 메진 거.)
- 103026 @1 예.(예.)
- 103026 #2 여러 가지 잇긴 있어. 종자.(여러 가지 잇긴 있어. 종자.)
- 103026 @1 계도 잘도.(그래도 잘도.)
- 103026 #2 개발시리¹⁹²⁾ 무신거, 뭐. 여러 가지.(‘개발시리’ 무엇, 뭐. 여러 가지.)
- 103026 @1 옛날에는 조 종류가, 정말 제주도는 다 거의 조농사였으니까예?(옛날에는 조 종류가, 정말 제주도는 다 거의 조농사였으니까요?)
- 103026 #3 맞아.(맞아.)
- 103026 @1 조 종류가 하나신디 요즘은 다 흐린조 모힌조 허민 곳.(조 종류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다 차조, 메조 하면 끝.)
- 103026 #2 또 계메 흐리곡 모인 건디.(또 글썤 차지고 메진 건데.)
- 103026 #1 대개 모힌조는 옛날에 강돌와리¹⁹³⁾라고 했고.(대개 메조는 옛날에 ‘강돌와리’라고 했고.)
- 103026 @1 예.(예.)
- 103026 #1 또.(또.)
- 103026 #2 개발시리도 잇고.(‘개발시리’도 잇고.)
- 103026 #1 아주 개발시리는 흐린조로서 검은흐린조¹⁹⁴⁾디 이제 쥬 냉중에 그거 씨가 전해 왔주.(아주 ‘개발시리’는 차조로서 ‘검은흐린조’인데 이제 쥬 나중에 그거 씨가 전해 왔지.)
- 103026 #2 계난.(그러니까.)
- 103026 #1 그 중간에 우린 또 모힌조가 있어. 흐린조가 있어.(그 중간에 우린 또 메조가 있어. 차조가 있어.)
- 103026 @1 예.(예.)
- 103026 #1 고고리가 굵은 거이.(이삭이 굵은 거.)
- 103026 @1 예.(예.)
- 103026 #1 노란 거 잇언 거 세 가지는 대개 아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잇긴 잇지마는 또 모르겠어.(노란 거 있어서 거 세 가지는 대개 아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잇긴 잇지마는 또 모르겠어.)
- 103026 @1 그 노란 거 이름은 뭐우짜?(그 노란 거 이름은 뭘니까?)
- 103026 #1 계메, 잘 모르커라.(글썤, 잘 모르겠어.)
- 103026 #2 강돌와리도 잇고.(‘강돌와리’도 잇고.)
- 103026 @1 으, 강, 강돌와리 잇고.(으, 강, ‘강돌와리’ 잇고.)

192) ‘개발시리’는 조의 일종이다. 조 이삭 끝이 개의 발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조의 일종이다.

193) ‘강돌와리’는 조의 일종이다. 메조의 일종이다.

194) ‘검은흐린조’는 조의 색깔이 거무스레한 차조를 말한다. 색깔이 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3026 #6 대개 저 뭣고?(대개 저 무엇이니?)
 103026 #1 강돌와리는 모인 게.(‘강돌와리’는 모인 게.)
 103026 @1 예.(예.)
 103026 #6 그거는 품종에 따라서 얘기고.(그거는 품종에 따라서 얘기고.)
 103026 @1 예.(예.)
 103026 #6 조 허면은 우선 흐린조 모힌조.(조 하면 우선 차조 메조.)
 103026 #3 모힌조게.(메조.)
 103026 #2 두 가지로벳기.(두 가지로밖에.)
 103026 #3 두 가지 ***(두 가지 ***)
 103026 @1 예.(예.)
 103026 #6 구분헌 거라. 이제 강돌와리여 뭣니 허는 거는.(구분한 거야. 이제 ‘강돌와리’다 뭣니 하는 거는.)
 103026 #2 거 품종, 품종.(거 품종, 품종.)
 103026 @1 품종.(품종.)
 103026 #6 그 안에 들어가서 품종이.(그 안에 들어가서 품종이.)
 103026 #3 품종이.(품종이.)
 103026 @1 예.(예.)
 103026 #6 이름이주게.(이름이지.)
 103026 #3 거 특이하게 헐 사름만 허는 거지. 경 아널 사름은 귀찮앙 허도 아
 녀.(거 특이하게 할 사람만 하는 거지. 그렇게 앓을 사람은 귀찮아서 하지도 앓아.)
 103026 @1 예.(예.)
 103026 #3 모힌조 흐린조주.(메조 차조지.)
 103027 @1 예, 맞수다. 그다음에 조 행은에 방에 해나면 그 짝 잇지 앓으우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 해서 방아 해나면 그 짝 잇지 앓습니까?)
 103027 #2 체?(겨?)
 103027 #6 소, 소.(소, 소.)
 103027 #2 돼지, 돼지. 소는 아니 돼.(돼지, 돼지. 소는 아니 돼.)
 103027 #6 아니, 저 조, 줍쌀에.(아니, 저 조, 줍쌀에.)
 103027 #2 조껍데기¹⁹⁵.(‘조껍데기’.)
 103027 #6 줍쌀에 껍데기는.(줍쌀에 껍데기는.)
 103027 #3 봉당체¹⁹⁶게, 소 멕이는, 저 돼지게.(‘봉당체’, 소 멕이는, 저 돼지.)
 103027 #6 저 뭣고? 체는 돼지 멕이고.(저 뭣고? 겨는 돼지 멕이고.)
 103027 @1 예.(예.)
 103027 #6 처음에 그 고고리 헤난 거 그거는 소 멕이고.(처음에 그 이삭 했던
 거 그거는 소 멕이고.)

195) ‘조껍데기’는 조의 알곡을 떨어낸 껍질을 말한다.

196) ‘봉당체’는 알곡을 떨어내기 위하여 조 이삭을 방아 찧을 때 나온 겨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봉동체’라고
 도 하였다.

- 103027 #3 각메기¹⁹⁷), 거 콩각메기¹⁹⁸).(‘각메기’, 거 ‘콩각메기’.)
- 103027 #2 각메기, 건 조.(각메기, 건 조.)
- 103027 #3 저 조각메기¹⁹⁹).(저 ‘조각메기’.)
- 103027 #6 조각메기.(‘조각메기’.)
- 103027 #2 조를 만들 때 그거 나오고.(조를 만들 때 그거 나오고.)
- 103027 @1 예.(예.)
- 103027 #1 체가, 체가 그 곧 혼, 그 조 질 우의.(겨가, 겨가 그 곧 한, 그 조 켈 위에.)
- 103027 @1 예.(예.)
- 103027 #1 껍데기를.(껍데기를.)
- 103027 #3 봉당채마씨게.(‘봉당채’예요.)
- 103027 #1 봉등채²⁰⁰. 봉등채라 허고.(‘봉등채’. ‘봉등채’라 하고.)
- 103027 @1 봉등채.(‘봉등채’.)
- 103027 #2 봉등채엔 허여.(‘봉등채’라고 해.)
- 103027 @1 예.(예.)
- 103027 #1 또 방앗간에 강 지은 거는 뭇엔 곤는고? 그건 아주 줌진 거라.(또 방앗간에 가서 찼은 거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건 아주 자잘한 거야.)
- 103027 @1 예.(예.)
- 103027 #2 것도 조체엔 허든 텔 겁주, 조체.(것도 조겨라고 하면 될 겁지요, 조겨.)
- 103027 #3 아, 조체나 마나, 겁질이 *** 나온 건 봉등체고게 두 번째 나오는 게 조체주게.(아, 조겨나 마나, 겁질이 *** 나온 건 ‘봉등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조겨지.)
- 103027 #1 그것이 체라허게.(그것이 체대로.)
- 103027 #3 그계 다 조체주기.(그계 다 조겨기.)
- 103027 #1 처음 나온 거는 줌 거칠고.(처음 나온 거는 줌 거칠고.)
- 103027 #3 거치난 봉등체.(거치니까 ‘봉등체’.)
- 103027 @1 계민예, 봉등체는 누게가 먹는 거?(그러면요, ‘봉등체’는 누가 먹는 거?)
- 103027 #3 돼지.(돼지.)
- 103027 #2 돼지, 돼지.(돼지, 돼지.)
- 103027 #3 아무 것도 돼지 먹어.(아무 것도 돼지 먹어.)
- 103027 #2 다 돼지. 다 돼지.(다 돼지. 다 돼지.)

197) ‘각메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떨어 버리고 남은 깍지 따위를 말한다.

198) ‘콩각메기’는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떨어 버리고 남은 깍지 따위를 말한다.

199) ‘조각메기’는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어 버리고 남은 깍지 따위를 말한다.

200) ‘봉등채’는 알곡을 떨어내기 위하여 조 이삭을 방아 찼을 때 나온 겨를 말한다. 체보자에 따라 ‘봉당채’라고도 하였다.

103027 @1 아까 췌 먹는 건 뭐우파?(아까 소 먹는 건 뭘니까?)
103027 #2 아, 그건 각메기.(아, 그건 ‘각메기’.)
103027 #6 그 조고고리에서 고고리로.(그 조이삭에서 이삭으로.)
103027 #3 알맹이 떨어져 남은 거.(알맹이 떨어져서 남은 거.)
103027 @1 아.(아.)
103027 #3 거 각메기라 해 가지고 거는 소 맥이고.(거 ‘각메기’라 해 가지고 거는 소 맥이고.)
103027 @1 음, 봉당체는 이제 돼지 먹고.(음, ‘봉당체’는 이제 돼지 먹고.)
103027 #3 봉당체고 조체는 다.(‘봉당체’고 조겨는 다.)
103027 #2 조가 췌 후에, 조가 췌 후에.(조가 된 후에, 조가 된 후에.)
103027 #6 요 사이 돼지는 그런 거 췌 먹지 아녀.(요 사이 돼지는 그런 거 췌서 먹지 아냐.)
103027 #3 안 먹어.(안 먹어.)
103027 @1 요즘은 다 사료?(요즘은 다 사료?)
103027 #6 안 먹어 진짜, 계란 돼지나 사름이나 춤.(안 먹어 진짜, 그러니까 돼지나 사름이나 참.)
103027 #3 고급이주.(고급이지.)
103027 @1 웃음.(웃음.)
103027 #6 옛날허고 지금 비교허민.(옛날하고 지금 비교하면.)
103027 #2 아, 지금.(아, 지금.)
103027 @1 계, 그다음에 짝으로는 뭐 헛수가?(그래, 그다음에 짝으로는 무엇 헛습니까?)
103027 #6 어?(어?)
103027 @1 조 짝으로?(조 짝으로?)
103027 #2 췌 맥엿주게.(소 먹었지.)
103027 #6 소 맥이곡.(소 먹이고.)
103027 #2 췌도 맥이곡.(소도 먹이고.)
103027 #3 불도 습곡.(불도 때고.)
103027 #2 불도 습곡.(불도 때고.)
103027 @1 아, 불도 습아? 조 칩으로예?(아, 불도 때어? 조 짝으로요?)
103027 #3 아, 불 습주게.(아, 불 때지.)
103027 #6 그뻐 뻐 게 엿어나지 아녀서게.(그뻐 뻐 게 없었었지 았았는가.)
103028 @1 삼촌, 옛날 말 들어보면 보리도 힘들엇주마는 조농사 허는 것도 막 힘들엇덴 헛디다.(삼촌, 옛날 말 들어보면 보리도 힘들엇지만 조농사 하는 것도 아주 힘들엇다고 헛디다.)
103028 #1 힘든 게 그 김매는 때문에.(힘든 게 그 김매는 때문에.)
103028 @1 음.(음.)

103028 #2 보리보다 더 힘들었주게.(보리보다 더 힘들었지.)

103028 #6 왜 그리냐 허믄.(왜 그리냐 하면.)

103028 #1 검질메는 게 그냥.(김매는 게 그냥.)

103028 #6 조라는 거는 잔디 이파리 모양 허거든.(조라는 거는 잔디 이파리 모양 하거든.)

103028 @1 예.(예.)

103028 #6 이렇게 그냥 곧게 올르고. 콩 같은 거는 이파리가 굽어 가지고 탁 더 퍼져 부니까.(이렇게 그냥 곧게 올르고. 콩 같은 거는 이파리가 굽어 가지고 탁 덜어져 버리니까.)

103028 @1 예.(예.)

103028 #3 검질이 나질 못허지.(김이 나질 못하지.)

103028 #6 검질이 잘 나질 아녀.(김이 잘 나질 않아.)

103028 #3 나질 못해.(나질 못해.)

103028 #6 겐디 조는 곧작허게 올라놓니까 햇빛 잘 쏘이고 해 놓니까 검질이 엄청 나지. 그래서 힘들텐 허는 거주게.(그런데 조는 곧게 올라놓으니까 햇빛 잘 쏘이고 해 놓으니까 김이 엄청 나지.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거지.)

103028 @1 겨난 여름 검질 메젠 허니까.(그러니까 여름 김을 매려고 하니까.)

103028 #6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3028 @1 힘든 거라예? 게난.(힘든 거네요? 그러니까.)

103028 #3 불리는 과정부터 오죽 힘들어게. 사람으로 불리곡 그거 검질메고 얼마나 **. (밟는 과정부터 오죽 힘들어. 사람으로 밟고 그거 김매고 얼마나 **.)

103028 #6 게난 주로 주식게, 보리쌀 줍쌀로 생활했거든게.(그러니까 주로 주식, 보리쌀 줍쌀로 생활했거든.)

103028 @1 예.(예.)

103028 #2 콩 ㄱ튼 거는 판로가 엇인 때라 놓니까 그거는 서숙엔 행은에 저 밥에도 흐뎡 서경 농곡 콩국 끓렁 먹젠 허민 곶아당 국도 끓렁 먹곡 경 허영 콩나물도 낱 먹고 경 햇주기.(콩 같은 거는 판로가 없을 때라 놓으니까 그거는 서숙이라고 해서 저 밥에도 조금 섞어서 넣고 콩국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 갈아다가 국도 끓여서 먹고 그렇게 해서 콩나물도 놔서 먹고 그렇게 했지.)

103028 @1 게난예, 그 삼촌 이제 조용시 허멍 가장 힘들었던 건 뭐우파? 잇어 불지 못허는 거?(그러니까요, 그 삼촌 이제 조농사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니까? 잇어 버리지 못하는 거?)

103028 #2 불리는 거주기.(밟는 거지.)

103028 #6 검질메는 거게.(김매는 거.)

103028 #2 검질메는 거.(김매는 거.)

103028 @1 검질메는 거?(김매는 거?)

103028 #3 주로 검질메는 거주게, 무신, 뭐.(주로 김매는 거지, 무슨, 뭐.)

103028 @1 김질메는 게 켈 힘들언예? 예, 알았수다. 아.(김매는 게 켈 힘들었다
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

103028 #2 쉼터럭 깃어 놓민 또.(김의털 깃어놓으면 또.)

103028 @1 아까 이제 서숙 헛잖우파? 어제도 물어보긴 헛지마는 서숙을 뭇 서
숙이렌 헛니까?(아까 이제 ‘서숙’ 헛잖습니까? 어제도 물어보긴 헛지만 ‘서숙’을 뭇
‘서숙’이라고 합니까?)

103028 #2 콩 ㄹ튼 거 ㅍ ㄹ튼 거 서숙²⁰¹이엔 헛주기.(콩 같은 거 팔 같은 거
서숙이라고 헛지.)

103028 @1 그런 거를예?(그런 거를요?)

103028 #2 사이에 그 행 먹는 것덜.(사이에 그 해서 먹는 것들.)

103028 @1 계난.(그러니까.)

103028 #1 이, 이 조팍 ㄹ라 서숙밥이엔 허여.(이, 이 조팍보고 ‘서숙밥’이라고
해.)

103028 @1 조팍 ㄹ라도 서숙밥이렌 허고.(조팍보고도 ‘서숙밥’이라고 하고.)

103028 #2 조팍덜도 서숙이엔 헛니까?(조팍들도 서숙이라고 합니까?)

103028 #1 조팍 ㄹ라 서숙밥엔.(조팍보고 ‘서숙밥’이라고.)

103028 @1 계난 이제 보통 서숙 허게 뉘면 좁쌀허고 기장이거든마씨. 켜디 제
주도는 콩 이런 것덜 다 서숙에다 포함시킨 글암수다예?(그러니까 이제 보통 서숙
하게 되면 좁쌀하고 기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콩 이런 것들 다 서숙에다 포
함시켜서 말하네요?)

103028 #2 잡곡류를 서숙이엔.(잡곡류를 ‘서숙’이라고.)

103028 #3 서숙이주. 보리 빼뉘 보리밥 허주마는 보리쌀 말고 서숙이주.(서숙이
지. 보리 빼두고 보리밥 하지만 보리쌀 말고 서숙이지.)

콩농사

103030 @1 예, 게문 아까 이제 서숙 할 때 콩 헤신디, 콩용시는 언제 어떻 허
는 겨우파?(예, 그러면 아까 이제 서숙 할 때 콩 헛는데, 콩농사는 언제 어떻게 하
는 겁니까?)

103030 #2 마찬가지. 조 불릴 때 그것도 ㄹ치 같아.(마찬가지. 조 밟을 때 그것
도 같이 같아.)

103030 #6 조 허기 쪼금 전에.(조 하기 쪼금 전에.)

103030 #2 아, 나중에 허지 않습니까?(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103030 #3 전에, 전에.(전에, 전에.)

103030 #2 전에 허여?(전에 해?)

103030 @1 으, 콩도 하영 같았수가?(으, 콩도 많이 같았습니까?)

201) ‘서숙’은 표준어 ‘서숙’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조와 기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제주에서는 주로 조를 일
컬을 때 사용한다.

103030 #6 콩은.(콩은.)
103030 #2 덜 갈았주.(덜 갈았지.)
103030 #6 장마 시기에 허매.(장마기에 해.)
103030 @1 장마 시기에?(장마기에?)
103030 #6 장마 시기에 왜냐든 콩은.(장마기에 왜냐하면 콩은.)
103030 #3 물에 잘 나난.(물에 잘 나니까.)
103030 #6 장마에 나게끔 헤여.(장마에 나게끔 해.)
103030 #2 물 우뚝 나야.(물 불려서 나야.)
103030 @1 아.(아.)
103030 #6 경 헤야 그 종자가 홀룽허여.(그렇게 해야 그 종자가 홀룽해.)
103030 @1 예예, 장마 때예?(예예, 장마 때예요?)
103030 #6 장마에.(장마에.)
103031 @1 그러면은 콩은 걸름을 안 헌텐 허멍예?(그러면 콩은 거름을 안 한다고 하먼서요?)
103031 #6 안 해.(안 해.)
103031 #3 안 해.(안 해.)
103032 @1 게민 장마 때 허면 그 콩씨는 어떤 식으로 빼여마씨?(그러면 장마 때 하면 그 콩씨는 어떤 식으로 뿌려요?)
103032 #2 마찬가지로.(마찬가지.)
103032 #6 콩씨도 손으로 빼여야지.(콩씨도 손으로 뿌려야지.)
103032 #2 손으로.(손으로.)
103032 @1 건 밧 갈아낱 빼는 것과? 아니면?(건 밧 갈아놔서 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103032 #6 아니.(아니.)
103032 @1 건 씨 빼여낱 밧 갈아? 예.(건 씨 뿌려놔서 밧 갈아? 예.)
103032 #3 게난 옛날 말 잇주기. 콩 지피 갈면은 장 주지 말란 말이, 왜냐 허면은 장마철에 가니까 콩을 깊이 혁 묻어 불민 콩이 잘 못 나. 어, 비 와 불민.(그러니까 옛날 말 잇지. 콩 깊이 갈면 장 주지 말란 말이, 왜냐 하면 장마철에 가니까 콩을 깊이 흙 묻어 버리면 콩이 잘 못 나. 어, 비 와 버리면.)
103032 #2 올라 오젠 허든 힘든텐 말이주.(올라 오려고 하면 힘들다는 말이지.)
103032 #3 힘들어 가지고 허난 콩을 야피 갈곡 장마에 갈아야 잘 낱 허는 거주.(힘들어 가지고 하니까 콩을 얇게 갈고 장마에 갈아야 잘 나서 하는 거지.)
103032 @1 콩 지피 갈민 무시거 주지 말라고마씨?(콩 깊이 갈면 무엇 주지 말라고요?)
103032 #2 장 주지 말라.(된장 주지 말라.)
103032 #3 장 주지 말라.(된장 주지 말라.)
103032 #2 장 담양 장 주지 말렌.(된장 담가서 된장 주지 말라고.)

103032 @1 아.(아.)

103032 #3 콩 깊이 간 장남 장 주지 말라.(콩 깊이 간 머슴 된장 주지 말라.)

103032 #2 콩으로 담은 장을 주지 말라는 거.(콩으로 담은 된장을 주지 말라는 거.)

103032 @1 콩 지피 간 장남.(콩 깊이 간 머슴.)

103032 #3 장 주지 말라.(된장 주지 말라.)

103032 @1 장 주지 말라.(된장 주지 말라.)

103032 #3 어, 콩 안 난다 허는 소리로 그 소리 허는 거주기.(어, 콩 안 난다 하는 소리로 그 소리 하는 거지.)

103032 @1 예, 거니까 콩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되니까.(예, 그러니까 콩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되니까.)

103032 #3 옳지.(옳지.)

103032 @1 아.(아.)

103032 #3 빨리 안 나 부난.(빨리 안 나 버리니까.)

103032 @1 예.(예.)

103032 #2 깊이 갈아 불문 잘 안 난덴 허는 말이주.(깊이 갈아 버리면 잘 안 난다고 하는 말이지.)

103033 @1 콩밭 검질은 몇 번 메마씨?(콩밭 김은 몇 번 매요?)

103033 #6 혼 번, 두 번 정도.(한 번, 두 번 정도.)

103033 #1 혼 번 아니면 두 번.(한 번 아니면 두 번.)

103033 @1 예, 거는 이렇게 아까 이파리가 더퍼져 부니까, 예.(예, 거는 이렇게 아까 이파리가 덜어져 버리니까, 예.)

103033 #2 검질이 못 나니까.(김이 못 나니까.)

103034 @1 콩밭되는 어떤 검질 납니까?(콩밭에는 어떤 김 납니까?)

103034 #6 거 아까 말한 제완지.(거 아까 말한 바랭이.)

103034 @1 예.(예.)

103034 #1 스웁이.(영경퀴.)

103034 @1 스웁이도 나고.(영경퀴도 나고.)

103034 #3 비눔계, 쉼비눔 곱앗주마는 쉼비눔허고.(비름, 쇠비름 말했지만 쇠비름하고.)

103034 #2 쉼비눔, 복쿨.(쇠비름, 깨풀.)

103034 #3 천상쿨.(망초.)

103034 #6 복쿨.(깨풀.)

103034 #3 복쿨, 천상쿨.(깨풀, 망초.)

103034 @1 천상쿨예, 예.(망초요, 예.)

103034 #6 그거.(그거.)

103034 #1 으름 나는 거 다주기.(여름 나는 거 다지.)

103034 @1 계난 콩은 아까 이제 보리나 조는 비는 거 아니우파예? 콩은 어떻게 헌텐 험니까?(그러니ㄷ 콩은 아까 이제 보리나 조는 베는 거 아닙니까요? 콩은 어떻게 한다고 험니까?)

103034 #1 콩도 비여.(콩도 베어.)

103034 #2 꺼꺼. 꺼깁 ***.(꺾어. 꺾어서 ***.)

103034 #6 콩은 꺼끈텐 곶으메.(콩은 꺾는다고 말해.)

103034 @1 예, 꺼끄는 거?(예, 꺾는 거?)

103034 #3 비는 곶 보고 꺼끈텐.(베는 곶 보고 꺾는다고.)

103034 #6 비는 곶.(베는 곶.)

103035 @1 예, 꺼끄다예. 건 무사 꺼끄다 헤엄신고예?(예, 꺾다요. 건 왜 꺾는다 하고 있을까요?)

103035 #6 그거는 딱딱 꺼꺼지니까.(그거는 딱딱 꺾어지니까.)

103035 #2 비기가 힘들어. 땅이 쉼 놓니까 호미 잘 안 들어.(베기가 힘들어. 땅이 세 놓으니까 낫 잘 안 들어.)

103035 #6 이렇게 꺼끄는 소리가 나고 꺼꺼지주게.(이렇게 꺾는 소리가 나고 꺾어지지.)

103035 #2 와탁탁와탁탁.(와탁탁와탁탁.)

103035 #1 잘 익으면 낭이 누렇게 되면 그 호미로 비기도 허주마는 곶깁일 가정은예 영 꺼꺼도.(잘 익으면 대가 누렇게 되면 그 낫으로 베기도 하지만 호미 가져서 이렇게 꺾어도.)

103035 @1 으.(으.)

103035 #1 꺼꺼져.(꺾어져.)

103035 #3 콩낭이 삭주기, 줌 삭야.(콩대가 삭지, 줌 삭야.)

103035 #1 그래서 그.(그래서 그.)

103035 @1 아.(아.)

103035 #6 그래서 꺼끈다는 얘기.(그래서 꺾는다는 얘기.)

103035 #1 꺼끈다는 말 나온 거.(꺾는다는 말 나온 거.)

103035 @1 거난 호미로 아니고 곶깁이로도 이렇게.(그러니까 낫으로 아니고 호미로도 이렇게.)

103035 #3 움지, 움지.(움지, 움지.)

103035 @1 아.(아.)

103035 #6 주로 호미 허메.(주로 낫 해.)

103035 @1 예, 예.(예, 예.)

103035 #3 호미로 허는 거.(낫으로 하는 거.)

103035 @1 예, 그 장만은 어떤 식으로 헤마씨?(예, 그 장만은 어떤 식으로 해요?)

103035 #6 장만은.(장만은.)

103035 #2 도리깨.(도리깨.)
103035 #6 옛날은 도깨.(옛날은 도리깨.)
103035 #3 다 도끼로 옛날은.(다 도리끼로 옛날은.)
103035 #1 도끼.(도리끼.)
103035 #6 도리끼.(도리끼.)
103035 #3 다 도끼로.(다 도리끼로.)
103035 #1 도끼질허단에 근래는 또 탈.(도리끼질하다가 근래는 또 탈.)
103035 #6 맥타.(탈곡기.)
103035 #1 맥타, 탈곡, 탈곡기에.(탈곡기, 탈곡, 탈곡기에.)
103035 #3 이제사 탈곡기주. 거 멧 년 전까지야 뭐 다 춤.(이제야 탈곡기지. 거 멧 년 전까지야 뭐 다 참.)
103035 #2 도끼질.(도리끼질.)
103035 #3 우리 부친은 전부 두드렛주, 무신 우리 어린 때.(우리 부친은 전부 두들겼지, 무슨 우리 어릴 때.)
103035 #2 난 금년도 두드렛수다게.(난 금년도 두들겼습니다.)
103035 #3 웃음.(웃음.)
103035 @1 콩 갈아 볍디가?(콩 갈아 버렸습니까?)
103035 #2 아, 우영팻디.(아, 터알에.)
103035 #3 요만이 간 거 안 해주니까 도끼로, 다 도끼로 두드려야주.(요만큼 간 거 안 해주니까 도리끼로, 다 도리끼로 두들겨야지.)
103035 #2 도끼로 두드려야주.(도리끼로 두들겨야지.)
103036 @1 음, 게믈예, 그치록 허영 도끼로 허여 갖고 허면 그 콩 허영은 주로 뭐헤마씨?(음, 그러면요, 그처럼 해서 도리끼로 해 갖고 하면 그 콩 해서는 주로 뭐 헤요?)
103036 #6 콩을 뭐 허냐고?(콩을 뭐 하냐고?)
103036 @1 음.(음.)
103036 #2 아, 콩죽도 썰 먹고. 아, 지금은 거의 뭐 폴아.(아, 콩죽도 썰서 먹고. 아, 지금은 거의 뭐 팔아.)
103036 #6 그때 당시 얘기라? 이제.(그때 당시 얘기야? 이제.)
103036 @1 예.(예.)
103036 #6 얘기라?(얘기야?)
103036 @1 그때 당시.(그때 당시.)
103036 #6 그때 당시는 주로 콩죽, 콩국.(그때 당시는 주로 콩죽, 콩국.)
103036 #3 콩국.(콩국.)
103036 @1 예.(예.)
103036 #2 콩늬물 놓곡.(콩나물도 놓고.)
103036 @1 콩늬물허고.(콩나물하고.)

103036 #1 풋쉬도 허고.(팔소도 하고.)
 103036 #6 그런 거주, 뭐.(그런 거지, 뭐.)
 103036 #3 풋쉬사.(팔소야.)
 103036 #2 아, 폭션, 밥쉬²⁰²도 허고.(아, 팔소는, ‘밥쉬’도 하고.)
 103036 @1 음. 밥에 쉬도 허곡.(음. 밥에 고물도 하고.)
 103036 #3 게난 잔치 때게.(그러니까 잔치 때.)
 103036 @1 가장 중요한 거 안 알아수다게. 콩, 콩 가는 주목적이 뭐우파?(가장 중요한 거 안 말했습니다. 콩, 콩 가는 주목적이 뭡니까?)
 103036 #6 콩 가는 게 그거주게.(콩 가는 게 그거지.)
 103036 #3 둠비도 허영 떡곡게 무신 뭡.(두부도 해서 먹고 무슨 뭡.)
 103036 @1 둠비도 헤영 떡곡.(두부도 해서 먹고.)
 103036 #3 예.(예.)
 103036 #1 ***(***)
 103036 #6 또 똥장게.(또 똥장.)
 103036 @1 예게, 그게 쥬 우선 아니우파? 콩 가는 목적이.(예, 그게 쥬 우선 아 뉡니까? 콩 가는 목적이.)
 103036 #3 장콩게, 그거.(장콩, 그거.)
 103036 @1 장도, 장도.(똥장도, 똥장도.)
 103036 #3 아까 곶앗주만.(아까 말했지만.)
 103036 #2 장콩.(장콩.)
 103036 #3 콩 기피 갈른 장 주지 말렌헌 게 그 말이주게.(콩 깊이 갈면 똥장 주 지 말라고 한 게 그 말이지.)
 103036 @1 예.(예.)
 103036 #3 장을 헤영 먹어사주게.(똥장을 해서 먹어야지.)
 103036 @1 예.(예.)
 103036 #3 우선 그거, 장이 우선 쥬고 목적.(우선 그거, 똥장이 우선 최고 목 적.)
 103036 @1 거난 장이 목적인데 곶 안 곶아 부니까.(그러니까 똥장이 목적인데 곶 안 말해 버리니까.)
 103036 #6 웃음.(웃음.)
 103036 @1 게문예?(그러면요?)
 103036 #1 두부도 허영 먹고.(두부도 해서 먹고.)
 103036 #3 두부야 뭡 가끔 헤영 먹는 거주마는.(두부야 뭡 가끔 해서 먹는 거지 만.)
 103036 @1 예, 그다음에 장을 허민 이제 콩도 종류가 으라 중 아니우파?(예, 그

202) ‘밥쉬’는 ‘밥+쉬’ 구성으로, 보리나 조, 쌀 따위에 밥을 지을 때 고물처럼 하나씩 섞는 콩과 팥 등의 부 재 료를 말한다.

다음에 된장을 하면 이제 콩도 종류가 여러 종 아납니까?)

103036 #6 맞아.(맞아.)

103036 @1 어떤 종류 잇수가?(어떤 종류 있습니까?)

103036 #6 중, 종류가 뭐.(중, 종류가 뭐.)

103036 #1 청태콩.(청태.)

103036 #6 예.(예.)

103036 #2 그당시는 흔 뒤, 뒤 가지벧긴 엇엇어.(그당시는 한 뒤, 뒤 가지밖엔 없엇어.)

103036 #1 청태콩, 산콩²⁰³.(청태, ‘산콩’.)

103036 @1 예?(예?)

103036 #1 산콩.(‘산콩’.)

103036 @1 산콩은 뭐우파?(‘산콩’은 뭐니까?)

103036 #1 어?(어?)

103036 @1 산콩은 어떤 겨우파?(‘산콩’은 어떤 겁니까?)

103036 #1 거 노랑헌 건디.(거 노란 건데.)

103036 @1 예.(예.)

103036 #1 거 보통 저 콩이고.(거 보통 저 콩이고.)

103036 @1 예.(예.)

103036 #2 산콩이엔 허여?(‘산콩’이라고 해?)

103036 #1 청태콩은 흐끔 프리롱헌디.(청태는 조금 파르스름한데.)

103036 #3 산콩. 산콩 나 들어보질 안헌디.(‘산콩’. ‘산콩’ 나 들어보질 았았는 데.)

103036 #2 들어나지 았은 거 았은디.(들엇엇지 았은 거 았은데.)

103036 #1 산콩 거.(‘산콩’ 거.)

103036 @1 장콩 아니마씨?(장콩 아니예요?)

103036 #1 걸름도 잘 허고.(거름도 잘 하고.)

103036 #3 장콩. 장콩엔 허주. 장콩.(장콩. 장콩이라고 하지. 장콩.)

103036 #1 산콩, 산콩.(‘산콩’, ‘산콩’.)

103036 #3 노란 콩보고 장콩 지금 허는 거. 득세기콩²⁰⁴, 득세기콩 허는 게.(노란 콩보고 장콩 지금 하는 거. ‘득세기콩’, ‘득세기콩’ 하는 게.)

103036 @1 예.(예.)

103036 #6 콩나물 콩보고 요즘 뭐라더라?(콩나물 콩보고 요즘 뭐라더라?)

103036 #3 힐²⁰⁵.(‘힐(?)’)

203) ‘산콩’이 정확히 어떤 콩인지 모르겠다. 주변 제보자들이 “산콩’ 들어보지 았았다”는 것을 보면, 제보자가 발음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204) ‘득세기콩’은 색이 노랑고 둥근 모양의 알이 굵은 콩이다. 콩 모양이 달걀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보통 된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 콩인 걸 보면 ‘장콩’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한다.

205) ‘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이지 알 수 없다.

103036 @1 콩나물 콩.(콩나물 콩.)
 103036 #2 거 이제사 나온 품종덜이라 농난.(거 이제야 나온 품종들이어 놓으니까.)
 103036 @1 주름콩.(기름콩.)
 103036 #6 으?(으?)
 103036 @1 주름콩.(기름콩.)
 103036 #6 아니, 전문 얘기가 콩나물 콩은 준저리²⁰⁶)?(아니, 전문 얘기가 콩나물 콩은 ‘준저리’?)
 103036 #2 준자리.(‘준자리’.)
 103036 @1 아.(아.)
 103036 #2 거 이제사 나온 거.(거 이제야 나온 거.)
 103036 #3 이거 준자리. 옛날.(이거 ‘준자리’. 옛날.)
 103036 @1 요즘은 준자리. 옛날에는 주름콩.(요즘은 ‘준자리’. 옛날에는 기름콩.)
 103036 #3 우리 부모네 할 땐 그런 거 엇엇어게.(우리 부모네 할 땐 그런 거 없었어.)
 103036 #6 청태콩 썬?(청태 썼어?)
 103036 @1 청태콩으로예, 게난 청태콩이 파랑헌 겨우파?(청태로요, 그러니까 청태가 파란 겁니까?)
 103036 #3 파란 거 청태콩.(파란 거 청태.)
 103036 #2 거허고 득세기콩벧긴 엇엇어게.(거하고 ‘득세기콩’밖엔 없었어.)
 103036 #3 게메게, 두 가지.(글쎄, 두 가지.)
 103036 @1 득세기콩. 삼춘예, 득세기콩은 어떤 거?(‘득세기콩’. 삼춘요, ‘득세기콩’은 어떤 거?)
 103036 #6 굵은 거.(굵은 거.)
 103036 #3 붉은 거?(붉은 거?)
 103036 #2 아니, 아니, 노란 거.(아니, 아니, 노란 거.)
 103036 #6 방울이 굵은 거.(알이 굵은 거.)
 103036 @1 방울이 굵은 거예?(알이 굵은 거요?)
 103036 #3 방울 굵은 거.(알 굵은 거.)
 103036 @1 예, 예.(예, 예.)
 103036 #3 걸로.(걸로.)
 103036 @1 게난 장을 담은 콩은 뭘로 담간?(그러니까 장을 담그는 콩은 무엇으로 담갔어요?)
 103036 #2 득세기콩으로.(‘득세기콩’으로.)

206) ‘준저리’는 콩나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콩 이름이다. 콩의 의미로는 ‘기름콩’에 대응하는 콩이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준자리’라고도 하였다.

103036 @1 득세기콩으로? 으음, 계난 이게 우리 그 장콩이런 헌 계 득세기콩이
우과?('득세기콩'으로? 으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장콩이라고 한 계 '득세기콩'이
입니까?)

103036 #2 으, 득세기콩.(으, '득세기콩'.)

103037 @1 알아수다. 그다음엔예, 콩으로는 그렇게 해고 콩찍?(알았습니다. 그
다음엔요, 콩으로는 그렇게 하고 콩짚?)

103037 #3 대, 콩대?(대, 콩대?)

103037 @1 지금 뭐렌 험니까?(지금 뭐라고 합니까?)

103037 #2 쉼 벅엇주.(소 먹였지.)

103037 #6 콩꼬질.(콩각지.)

103037 @1 콩꼬질. 콩꼬질. 콩꼬질은 뭐 해수가?(콩각지. 콩각지. 콩각지는 뭐
했습니까?)

103037 #6 쉼 벅이주.(소 먹이지.)

103037 #1 쉼 벅이곡.(소 먹이고.)

103037 #3 것도 불도 습곡. 불도 습곡, 불도 습곡, 쉼도 벅이곡.(것도 불도 때고.
불도 때고, 불도 때고, 소도 먹이고.)

103037 @1 예.(예.)

103037 #6 소 잇는 사름은 소 맥이고 경 아년 사름은 불 습곡.(소 잇는 사름은
소 먹이고 그렇게 앓은 사름은 불 때고.)

103037 @1 예.(예.)

103037 #3 콩각지 뭐니 전부 소는 먹엇주기.(콩각지 뭐니 전부 소는 먹엇지.)

103038 @1 이 콩농사허멍 잇어 불지 못허는 추억 같은 것도 잇어마씨?(이 콩농
사하면서 잇어 버리지 못하는 추억 같은 것도 잇어요?)

103038 #6 벨로.(별로.)

103038 #3 잇어불지 못할 추억은 나 그 콩검질²⁰⁷⁾ 메렌 허난 콩낭 강알로 기어
뎡겨낫주마는 추억. 나 그거 추억.(잇어버리지 못할 추억은 나 그 '콩검' 때라고 하
니까 콩대 밑으로 기어 다녔엇지만 추억. 나 그거 추억.)

103038 @1 으.(으.)

103038 #3 어멍 검질메렌 검질멤시민 콩낭 강알로 고냉이ㄴ치 도망 솔솔솔솔.
(어머니 김매라고 김매고 있으면 콩대 밑으로 고양이처럼 도망 '솔솔솔솔'.)

103038 #6 웃음.(웃음.)

103038 @1 콩이 그만큼 큰 거라예?(콩이 그만큼 큰 거네요?)

103038 #3 그렇지. 두불 검질맬 때.(그렇지. 두불 김맬 때.)

103038 @1 두불 검질맬 때.(두불 김맬 때.)

103038 #6 계난 콩검질 메는 거는.(그러니까 '콩검' 매는 거는.)

103038 @1 예.(예.)

207) '콩검질'은 콩밭에 나는 김이라는 뜻이다.

103038 #6 춤 콩냥 막 나쁜.(참 콩대 많이 나면.)

103038 #3 쉽주기, 쉬워.(쉽지, 쉬워.)

103038 #6 사람 맞이민은 얼굴이 더퍼질 정도라나서게.(사람 앉으면 얼굴이 덜 어질 정도였어.)

103038 @1 아, 경 콩이 경 잘 췌 거라예?(아, 그렇게 콩이 그렇게 잘 된 거네요?)

103038 #2 옛날 콩은 뭐 완전.(옛날 콩은 뭐 완전.)

103038 #3 장난쳐난 생각벳기.(장난쳤던 생각밖에.)

103038 #6 옛날 콩은 다수확 품종이 아니고.(옛날 콩은 다수확 품종이 아니고.)

103038 @1 예.(예.)

103038 #6 다수확 품종일수록 기장이 안 크는 거라이.(다수확 품종일수록 길이가 안 크는 거야.)

103038 @1 예.(예.)

103038 #6 계난 다수확 품종은 옛날은 엇어거든.(그러니까 다수확 품종은 옛날은 없었거든.)

103038 @1 음.(음.)

103038 #3 엇엇주기.(없었지.)

103038 #6 전부 이제 청대콩이.(전부 이제 청대가.)

103038 #3 청대콩, 독세기콩 그런 거주.(청대, '독세기콩' 그런 거지.)

103038 #6 이렇게 크는 거.(이렇게 크는 거.)

103038 @1 키가 커예?(키가 크다고요?)

103038 #6 지금은 뭐 다수확 쫘 짧으고 이러는데.(지금은 뭐 다수확 쫘 짧고 이러는데.)

103038 @1 근데 삼촌예, 콩도 보면 예전에, 예전에 한꺼번에 콩밭디 가는 게 아니라 들팘들팘 영 가는 콩도 잇덴 험디다.(근데 삼촌요, 콩도 보면 예전에, 예전에 한꺼번에 콩밭에 가는 게 아니라 들팘들팘 이렇게 가는 콩도 있다고 합디다.)

103038 #3 들팘들팘 가는 콩?(들팘들팘 가는 콩?)

103038 @1 예, 다른 거 가는디 조팍디 하나씩 이렇게?(예, 다른 거 가는데 조밭에 하나씩 이렇게?)

103038 #1 머들콩.(대우콩.)

103038 #6 머드레.(대우.)

103038 #3 머드레콩이라고 해 갖고.(대우콩이라고 해 갖고.)

103038 #6 머드레엔 해 가지고.(대우라고 해 가지고.)

103038 #3 조팍디나 팍팍디. 팍팍디 주로 갈았주, 거.(조밭에나 팔밭에. 팔밭에 주로 갈았지, 거.)

103038 #6 하나씩 톱툼이.(하나씩 톱툼이.)

103038 #3 톱툼이.(툱툼이.)

103038 #2 서경 들이청 낫당 그거.(섞어서 집어넣어서 낫다가 그거.)
 103038 #1 밥쉬나 허젠게.(‘밥쉬’나 하려고.)
 103038 #2 으, 맞추기.(으, 맞지.)
 103038 #3 밥쉬 허젠 그거.(‘밥쉬’ 하려고 그거.)
 103038 #6 그게 그 다른 품종에 하나씩 허면은.(그게 그 다른 품종에 하나씩 허면은.)
 103038 @1 예.(예.)
 103038 #6 그렇게 잘 돼여. 또 그계.(그렇게 잘 되어. 또 그계.)
 103038 @1 아.(아.)
 103038 #6 어.(어.)
 103038 #3 서로 씹는 모양이라. 곡식 곡식끼리.(서로 싸우는 모양이야. 곡식 곡식끼리.)
 103038 #2 머드레콩.(대우콩.)
 103038 #3 너가 잘 웬다 나가 잘 웬다.(너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103038 #6 머드레.(대우.)
 103038 #1 머드레콩이.(대우콩이.)
 103038 #3 머드레콩계.(대우콩.)
 103038 @1 머드레콩예? 게민예, 아까 삼촌, 밥쉬렌 헛잖아예?(대우콩요? 그럼요, 아까 삼촌, ‘밥쉬’라고 했잖아요?)
 103038 #1 밥쉬는.(‘밥쉬’는.)
 103038 #2 밥쉬가 머드레콩으로 헤연 밥쉬.(‘밥쉬’가 대우콩으로 해서 ‘밥쉬’.)
 103038 #3 머드레콩도 주로 팻, 팻.(대우콩도 주로 팔, 팔.)
 103038 @1 그 콩, 것도 밥에 낱 먹어예? 노란 콩도예? 걸 밥쉬?(그 콩, 것도 밥에 낱서 먹는다고요? 노란 콩도요? 걸 ‘밥쉬’?)
 103038 #1 날 ** 익기 전이라도.(날 ** 익기 전이어도.)
 103038 #6 밥쉬에 현 건 밥에 낫다는 얘기고.(‘밥쉬’에 한 건 밥에 낫다는 얘기고.)
 103038 @1 예.(예.)
 103038 #2 서경 밥현다는 거 밥쉬.(섞어서 밥한다는 거, ‘밥쉬’.)
 103038 #1 따서 밥에 낱 먹곡.(따서 밥에 낱서 먹고.)
 103038 @1 우리 떡할 때도 쉬렌 허지 안헙니까?(우리 떡할 때도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103038 #1 으.(으.)
 103038 #2 그건 뵈아근예.(그건 뵈아서.)
 103038 @1 으, 게난 이제, 게문 밥에 놓는 콩도 쉬렌 허고.(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밥에 놓는 콩도 ‘쉬’라고 하고.)
 103038 #2 으.(으.)

103038 @1 우리 풋밥도 허지 안협니까?(우리 팔밥도 하지 않습니까?)
 103038 #3 풋밥계.(팔밥.)
 103038 @1 게민 것도 풋쉬렌도 헤마씨?(그러면 것도 ‘풋쉬’라고도 해요?)
 103038 #2 풋쉬.(팔소.)
 103038 @1 밥에 놓는 것도?(밥에 넣는 것도?)
 103038 #3 으, 풋쉬.(으, 팔소.)
 103038 @1 녹디 놓민 녹뒤쉬?(녹두 넣으면 ‘녹두소’?)
 103038 #3 그렇지.(그렇지.)
 103038 #6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3038 @1 아.(아.)
 103038 #2 떡에 허민 떡쉬.(떡에 하면 떡소.)
 103038 @1 떡에 허민 떡쉬 허지만 그냥 그 쉬?(떡에 하면 떡소 하지만 그냥 그 소?)
 103038 #3 으, 떡 멘들어 놓민 떡쉬 웨고 밥헌 디는 밥쉬허곡 웨는 거주.(으, 떡 만들어 놓으면 떡소 되고 밥한 데는 ‘밥쉬’하고 되는 거지.)
 103038 @1 예.(예.)
 103038 #3 두 가지로 불런.(두 가지로 불렸어.)
 103038 @1 예, 알아수다. 게민 이제 오늘랑 보리허고 조허고 콩만 갑주. 널랑 예, 발벼. 그 산뒤부터허영 갈쿠다.(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보리하고 조하고 콩만 갑지요. 내일은요, 발벼. 그 발벼부터해서 갈겠습니다.)
 103038 #2 산뒤.(발벼.)
 103038 #3 널랑.(내일은.)
 103038 @1 예.(예.)
 103038 #3 경 허여.(그렇게 해.)
 103038 #2 산뒤.(발벼.)
 103038 #3 아이고, 다섯 시 뵈저야.(아이고, 다섯 시 뵈다.)
 103038 #6 다섯 시 뵈연.(다섯 시 뵈었어.)

발벼농사

103039 @1 예, 산디농사 지어 볍주. 산디 갈젠 허면 준비허는 게 우선 뵈, 뵈 필요헌고예?(예, 발벼농사 지어 볍지요. 발벼 갈려고 하면 준비하는 게 우선 뵈, 뵈 필요할까요?)
 103039 #3 게 갈젠 허민게 뵈 씨부터 문여 준비헤야 웨고.(게 갈려고 하면 뵈 씨부터 먼저 준비헤야 되고.)
 103039 @1 예.(예.)
 103039 #3 그다음에 이제 쉼. 뵈 몰양 강 밧 가는 거 이제 잠대 ㄴ뵈 거 준비헤야주, 그거는. 준비 과정은.(그다음에 이제 소. 뵈 몰아서 가서 밧 가는 거 이제

쟁기 같은 거 준비 해야지, 그거는. 준비 과정은.)

103039 @1 예.(예.)

103039 #3 우선 준비는, 준비는 씨주게, 씨.(우선 준비는, 준비는 씨지, 씨.)

103039 @1 예.(예.)

103039 #3 산뒤씨.(밭벼씨.)

103040 @1 산되는 언제 어떤 식으로 허영 갈아마씨?(밭벼는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갈아요?)

103040 #6 그냥 저 산파로 허메.(그냥 저 산파로 해.)

103040 @1 예, 산파로 행예?(예, 산파로 해서요?)

103040 #6 막 빼영.(막 뿌려서.)

103040 @1 예, 언제 갑니까? 산되는?(예, 언제 갑니까? 밭벼는?)

103040 #6 봄에.(봄에.)

103040 @1 봄에 몇 월에.(봄에 몇 월에.)

103040 #3 삼월달.(삼월.)

103040 #6 산디가 삼월달에 허는가?(밭벼가 삼월에 하는가?)

103040 #3 으, 삼월달에.(으, 삼월에.)

103040 #2 아니우다. 흔 오월달 돼야.(아닙니다. 한 오월 돼야.)

103040 #3 아아.(아아.)

103040 #6 아이라.(아니라.)

103040 #3 산된 일찍 허여.(산도 일찍 해.)

103040 #6 산디 일찍 허여.(산도 일찍 해.)

103040 #3 삼월달.(삼월.)

103040 #2 삼월달?(삼월?)

103040 #3 으, 삼월달에.(으, 삼월에.)

103040 #6 삼월달에 헐 거라.(삼월에 할 거야.)

103040 @1 직접 갈아보긴 헛수가?(직접 갈아보긴 했습니까?)

103040 #3 아, 갈주게.(아, 갈지.)

103041 @1 아.(아.)

103041 #3 갈아봤수다, 갈아봤.(갈아봤습니다, 갈아봤어.)

103041 @1 게른 갈아본 거,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갈았던 거 곶아 줍서.(그러면 갈아본 거, 어떤 식으로 해서 갈았던 거 말해 주십시오.)

103041 #3 아, 게난 아까 저 곶앗주마는 휘장 곶앗주마는 산파로 헤 가지고 갈 앙.(아, 그러니까 아까 저 말했지만 회장 말했지만 산파로 해 가지고 갈아서.)

103041 @1 으.(으.)

103041 #3 게난 것도 우알씨 빼주마는 대개 산디씨는 우에 뿌령 것도 불려야 돼여.(그러니까 것도 우알씨²⁰⁸ 뿌리지만 대개 밭벼씨는 위에 뿌려서 것도 밟아야

208) '우알씨'는 밭을 갈기 전에 뿌리는 씨와 밭을 갈 이후에 뿌리는 씨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되어.)

103041 @1 으.(으.)

103041 #3 산뒤도.(발벼도.)

103041 #2 잘 불러야주.(잘 밟아야지.)

103041 #3 불리고.(밟고.)

103041 @1 예.(예.)

103041 #3 게 가지고 뭐 검질메곡 다 해 갈 거주.(그래 가지고 뭐 김매고 다 해 갈 거주.)

103041 @1 알아수다. 게민 산뒤는 걸름을 안 해마씨?(알았습니다. 그러면 발벼는 걸름을 안 해요?)

103041 #3 걸름 허는 거 엇어.(걸름 하는 거 없어.)

103041 #6 걸름 해지면 좋주마는.(걸름을 해지면 좋지만.)

103041 #3 없어.(없어.)

103041 #6 시기적으로 그때 걸름.(시기적으로 그때 걸름.)

103041 #1 걸름 안 허메.(걸름 안 해.)

103041 #3 안 해, 안 해.(안 해, 안 해.)

103041 @1 산뒤는예?(발벼는요?)

103041 #3 해보지 안헐.(해보지 않았어.)

103042 @1 예, 알았수다. 게니까 이제 아까 산뒤씨 빼엿주마는 보통 산뒤씨는 어떤 식으로 빼영은에 갈앙마씨? 산판데 밧 갈앙 험니까? 아니면은 갈앙은에 산뒤씨 빼는 겨우파?(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발벼씨 뿌렸지만 보통 발벼씨는 어떤 식으로 뿌려서 갈아요? 산판데 밧 갈아서 합니까? 아니면 갈아서 발벼씨 뿌리는 겁니까?)

103042 #6 빼여 낱.(뿌려 놔서.)

103042 #1 산뒤. 산뒤 허는 건 대개 그 밧을 갈앙, 그 저 씨 빼여 가지고 섬비로 쫓는 게 보통이주기.(발벼. 발벼 하는 건 대개 그 밧을 갈아서, 그 저 씨 뿌려 가지고 쫓게로 쫓는 게 보통이지.)

103042 #6 으, 그게 맞아.(으, 그게 맞아.)

103042 @1 으.(으.)

103042 #1 게, 저 뽕으지는 안헐 거 같은데.(게, 저 밟지는 았은 거 같은데.)

103042 #3 불릅니다.(밟습니다.)

103042 #3 불라, 불라.(밟아, 밟아.)

103042 #1 불르는가?(밟는가?)

103042 #2 예, 산뒤 불령 산뒤 불령.(예, 발벼 밟아서 발벼 밟아서.)

103042 #6 밑에도 좀 뽕니다게.(밑에도 좀 뿌립니다요.)

103042 @1 음, 게민 밑에도 빼고.(음, 그러면 밑에도 뿌리고.)

103042 #3 우알게, 우알씨.(위아래. '우알씨'.)

103042 @1 우알씨를 허는 거라예?(‘우알씨’를 하는 거네요?)
 103042 #3 옳지.(옳지.)
 103042 @1 게믄예, 삼촌.(그러면요, 삼촌.)
 103042 #3 골고로 나렌.(골고루 나라고.)
 103042 #3 그럼.(그럼.)
 103042 @1 먼저 빼는 씨를 알씨 험니까?(먼저 뿌리는 씨를 ‘알씨’ 합니까?)
 103042 #3 옳지, 알씨.(옳지, 알씨.)
 103042 @1 알씨, 게민 밧 갈앙 빼는 씨는?(‘알씨’, 그러면 밧 갈아서 뿌리는 씨는?)
 103042 #6 늘씨²⁰⁹.(‘늘씨’)
 103042 #3 늘씨.(‘늘씨’.)
 103042 @1 늘씨, 예. 게면 알씨 그다음에 늘씨예. 줍씨도 어제 늘씨로 뻘덴 헛
 잼아예?(‘늘씨’, 예. 그러면 ‘알씨’ 그다음에 ‘늘씨’요. 조씨도 어제 ‘늘씨’로 뿌리다고
 했잖아요?)
 103042 #3 그렇지.(그렇지.)
 103043 @1 이거는 우에 이거는 아래. 그다음에 어 산디밧은 검질 멧 번 메마
 씨?(이거는 위에 이거는 아래. 그다음에 어 밧벼밭은 김 몇 번 매요?)
 103043 #6 것도 두 번 내지 세 번.(것도 두 번 내지 세 번.)
 103043 #1 세 번은 메여야 될 거라.(세 번은 매야 될 거야.)
 103043 #3 세 번은 매야 돼. 일찍 가니까. 세 번.(세 번은 매야 돼. 일찍 가니까.
 세 번.)
 103044 @1 아, 세 번예. 게믄 어떤 그 검질덜 나마씨? 산디밧디는?(아, 세 번
 요. 그러면 어떤 그 김들 나요? 밧벼밭에는?)
 103044 #1 마찬가지. 조팠디나.(마찬가지. 조밭에나.)
 103044 #2 조팠디 나는 거 그대로.(조밭에 나는 거 그대로.)
 103044 @1 으, 곶아 줍서.(으, 말해 주십시오.)
 103044 #2 제완지, 쉼터럭.(바랭이, 김의풀.)
 103044 #6 복쿨.(깨풀.)
 103044 #1 복쿨.(깨풀.)
 103044 #2 그런 거주.(그런 거지.)
 103044 @1 예, 게, 여름 검질이라는 거네예? 예.(예, 그럼, 여름 김이라는 거네
 요? 예.)
 103044 #3 여름 검질.(여름 김.)
 103044 #1 속.(쑥.)
 103044 @1 음. 알아수다.(음. 알았습니다.)
 103044 #3 속.(쑥.)

209) ‘늘씨’는 곡식을 갈 때, 밧을 간 이후에 뿌리는 씨를 제주도 외도동에서 하는 말이다.

103045 @1 속. 쑥 아니고 속. 그다음에 그 산뒤 수확은 어떻 허여마씨?(‘속’. 쑥 아니고 ‘속’. 그다음에 그 밭벼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45 #2 것도 홀탕.(것도 훑아서.)

103045 #1 낫으로 비여. 낫으로 비여 가지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 허듯이 들류왕.(낫으로 베어. 낫으로 베어 가지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 하듯이 말려서.)

103045 @1 예.(예.)

103045 #1 밭에서 그냥 들류왕 다시 무경.(밭에서 그냥 말려서 다시 묶어서.)

103045 @1 예.(예.)

103045 #1 그 무끄는 것도 조 무끔은 좀 굵게 무끄는디 이견 족게 무꺼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것같이 헤영이 이 홀테로.(그 묶는 것도 조 묶음은 좀 굵게 묶는데 이견 적게 묶어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것같이 해서 이 그네로.)

103045 @1 예.(예.)

103045 #1 그 집의 가져단에 홀테로 그 떠는 거.(그 집에 가져다가 그네로 그 떠는 거.)

103045 @1 음.(음.)

103045 #6 그 전에는 홀타는데.(그 전에는 훑었는데.)

103045 @1 예.(예.)

103045 #6 요 중간에는 이렇게 발로 눌러면서 로라가 돌아가는 거 잇주게.(요 중간에는 이렇게 발로 누르면서 롤러가 돌아가는 거 있지.)

103045 #1 탈곡기.(탈곡기.)

103045 @1 예.(예.)

103045 #2 탈곡기.(탈곡기.)

103045 #6 탈곡 그걸로도 헛어.(탈곡 그것으로도 헛어.)

103045 @1 발로도.(발로도.)

103045 #6 예.(예.)

103045 @1 돌리멍 헤마씨?(돌리면서 해요?)

103045 #6 예.(예.)

103045 @1 어, 경운기로 허는 게 아니라.(어, 경운기로 하는 게 아니라.)

103045 #2 그 전에, 경운기 허기 전에 그거 낫주.(그 전에, 경운기 하기 전에 그거 낫지.)

103045 #3 오래지 앓았어, 것도. 경운기 나기 전에 발로 눌러멍 사름으로.(오래지 앓았어, 것도. 경운기 나기 전에 발로 누르면서 사름으로.)

103045 #1 수동이주게.(수동이지.)

103045 @1 예.(예.)

103045 #1 저 수동으로 둥그런 것예 이렇게 저 췌 오그려 가지고 박아 가지

고 이 탁 저 돌링은에 떨어지게끔.(저 수동으로 둥그런 것에 이렇게 저 쇠 오그려
가지고 박아 가지고 이 탁 저 돌려서 떨어지게끔.)

103045 @1 으.(으.)

103045 #1 돌아가명.(돌아가면서.)

103045 @1 돌아가명예?(돌아가면서요?)

103045 #1 그레 놓른 떨어지게.(그리 놓으면 떨어지게.)

103045 @1 게믄 그 일름은 뭐렌 곶아수가?(그러면 그 이름은 뭐라고 말했습니
까?)

103045 #3 탈곡기.(탈곡기.)

103045 @1 것도 탈곡기예?(것도 탈곡기요?)

103045 #3 으, 탈곡기.(으, 탈곡기.)

103045 @1 음, 게믄 훌테 다음에 탈곡기하고.(음, 그러면 그네 다음에 탈곡기하
고.)

103045 #3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3045 @1 경운기 해 갖고 헌 그거는 뭐우파?(경운기 해 갖고 한 그거는 뭐니
까?)

103045 #2 맥테기.(탈곡기.)

103045 @1 거는 맥?(거는 맥?)

103045 #1 것도 탈곡기주기.(것도 탈곡기지.)

103045 #6 젠디 아까 두 번째 쓰는 거.(그런데 아까 두 번째 쓰는 거.)

103045 @1 예.(예.)

103045 #6 그거는 발로 허는 거라이.(그거는 발로 하는 거야.)

103045 @1 예, 예. 발로 해 갖고, 발로 해영은에 수동으로 허는 거 탈곡기. 그
다음에 경운기로 허는 거는?(예, 예. 발로 해 갖고, 발로 해서 수동으로 하는 거 탈
곡기. 그다음에 경운기로 하는 거는?)

103045 #3 맥탁기.(탈곡기.)

103045 @1 맥탁기.(탈곡기.)

103045 #3 맥택긴가 맥탁기.(탈곡긴가 탈곡기.)

103045 @1 예.(예.)

103045 #6 맥타엔 허여도 돼고 탈곡엔 허여도 돼고.(‘맥탁기’라고 해도 되고 탈
곡기 해도 되고.)

103045 #2 게난 순 우리 여기서 허는 말을 곶아 줘야지.(그러니까 순 우리 여기
서 하는 말을 말해 줘야지.)

103045 #6 맥타에 허는 거는 주로 보리, 보리 맥 자주게.(‘맥타’에 하는 거는 주
로 보리, 보리 맥 자지.)

103045 @1 예.(예.)

103045 #6 게난 탈곡이 맞추게.(그러니까 탈곡이 맞지.)

103045 @1 예, 탈곡예, 알아수다. 탈곡기.(예, 탈곡요, 알았습니다. 탈곡기.)

103045 #3 겐디 그 산디도 도끼로도 때렸어.(그런데 그 밭벼도 도리깨로도 때렸어.)

103045 #2 도끼로도 허곡.(도리깨로도 하고.)

103045 @1 아, 산디도 도끼로도 때렁예?(아, 밭벼도 도리깨로도 때려서요?)

103045 #3 주로 도끼가 많이 헨. 도끼허곡.(주로 도리깨가 많이 했어. 도리깨하고.)

103045 @1 예.(예.)

103045 #3 또 그 저 보면은.(또 그 저 보면.)

103045 #2 쳇망으로 허연.(쳇바퀴로 했어.)

103045 #3 으, 이거로도 홀트고. 또 게 아녀민 집의 오면은 ㄴ레착 놔가지고 이렇게 저 때림도 허곡 해놔어.(으, 이거로도 훑고. 또 그렇게 얹으면 집에 오면 멧돌 짝 놔가지고 이렇게 저 때림도 하고 했었어.)

103045 @1 음, 아까 삼춘예, 쳇망으로 홀튼다는 말은 무슨 말이우파?(음, 아까 삼춘요, 쳇바퀴로 훑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3045 #2 땅에 영 놓민 이런 체 잊지 아녀게.(땅에 이렇게 놓으면 이런 체 잊지 않은가.)

103045 @1 예.(예.)

103045 #2 걸로 허영 영 줍아뎅기명 영 훑어.(걸로 해서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훑어.)

103045 @1 아, 산디는?(아, 밭벼는?)

103045 #6 그거는 아주 저 양 적게 허영 허는 거.(그거는 아주 저 양 적게 해서 하는 거.)

103045 #3 적게계.(적계.)

103045 @1 예, 예.(예, 예.)

103045 #3 계난 허단 고고리 부뜰 거 아이라?(그러니까 하다가 이삭 붙을 거 아이야?)

103045 @1 예.(예.)

103045 #3 부뜨민 그거 고고리를 이거 쳇망으로 훑어야 깨끗이 떨어지주기.(붙으면 그거 이삭을 이거 쳇바퀴로 훑어야 깨끗이 떨어지지.)

103045 @1 으.(으.)

103045 #3 허당 떨어진 것덜 그거 허곡.(하다가 떨어진 것들 그거 하고.)

103045 #2 아, 거 옛날 할망덜.(아, 거 옛날 할머니들.)

103045 #3 할망덜 이거 우리 그때 혼 열댓 솔, 열댓 솔도 안 땀을 때주, 솔직히.(할머니들 이거 우리 그때 한 열댓 살, 열댓 살도 안 땀을 때지, 솔직히.)

103045 #2 봐나난 곶아지는 거주기.(봤었으니까 말해지는 거지.)

103045 @1 으, 음. 봐나난.(으, 음. 봤었으니까.)

103045 #3 경 헤나난 그치룩 허는 거.(그렇게 했었으니까 것처럼 하는 거.)

103045 @1 게난 그 챗망으로 영 허는 것도 홀튼덴 곶아예?(그러니까 그 챗바퀴로 이렇게 하는 것도 훑는다고 말한다고요?)

103045 #3 챗망으로 홀튼덴.(챗바퀴로 훑는다고.)

103045 @1 게민 다른 곡석도 그렇게 챗망으로 홀트는 거 잇수가?(그러면 다른 곡석도 그렇게 챗바퀴로 훑는 거 있습니까?)

103045 #6 아이 엇어, 엇어.(아니 없어, 없어.)

103045 @1 아, 그러면 산디가 이게 잘 떨어지는구나예? 아.(아, 그러면 발벼가 이게 잘 떨어지는군요? 아.)

103045 #3 게니까 크짱케 허들 안 허주게. 아래덜 싯곡 허난 아래 거 털젠 허난 챗망으로 홀트멍 허는 거주.(그러니까 나란하게 하질 안 하지. 아래들 있고 하니까 아래 거 떨러고 하니까 챗바퀴로 훑으면서 하는 거지.)

103046 @1 죽은 것덜 허영예, 예, 예. 그다음엔예, 산디쌀로는 주로 뭐 헤영 먹어수가?(죽은 것들 해서요, 예, 예. 그다음에는요, 발벼쌀로는 주로 뭐 해서 먹었습니까?)

103046 #6 게난 우리 제주에는 육지부허고 달라 가지고 알겠지마는 논이 적지 아녀게.(그러니까 우리 제주에는 육지부하고 달라 가지고 알겠지마는 논이 적지 않은가.)

103046 @1 예.(예.)

103046 #6 게난 그전에 산디로 많이 했어. 제사 때도 산디쌀허고.(그러니까 그전에 발벼로 많이 했어. 제사 때도 발벼쌀하고.)

103046 @1 예, 게면.(예, 그러면.)

103046 #6 지금 쌀 허는 거를.(지금 쌀 하는 거를.)

103046 @1 으.(으.)

103046 #6 그때 당시는 지금 나룩솔이지, 그때는 산디쌀로 주로 했주.(그때 당시는 지금 뽕쌀이지, 그때는 발벼쌀로 주로 했지.)

103046 @1 예, 게면 이제 그 제사할 때 메 ㄱ튼 거 허고.(예, 그러면 이제 그 제사할 때 메 같은 거 하고.)

103046 #3 메게, 메.(메, 메.)

103046 @1 예, 그다음에?(예, 그다음에?)

103046 #3 보리쌀에 서경도게 낱도 먹고게. 쌀밥 **. (보리쌀에 섞어서도 놔서도 먹고. 쌀밥 **.)

103046 #6 특별한 날은게 곤밥이엔 허영 허지 아녀.(특별한 날은 흰밥이라고 해서 하지 않은가.)

103046 #1 곤밥 곤떡은 그게이.(흰밥 흰떡은 그게.)

103046 @1 예.(예.)

103046 #1 저번도 곶앗주마는 메 저 메 곤 쩌이. 산이엔 현 거. 메가 산이주기.

오름 산. 메 메, 곤떡 곤쌀.(저번도 말했지만 메 저 메 곤 자. 산이라고 한 거. 메가 산이지. 오름 산. 메 메, 흰떡 흰쌀.)

103046 @1 예.(예.)

103046 #1 그렇게 육도, 육도로 이젯말론 육도지만은 그, 그렇게 옛날 얘기로는 그렇게 허주게.(그렇게 육도, 육도로 이젯말론 육도지만은 그, 그렇게 옛날 얘기로는 그렇게 하지.)

103046 @1 음, 거난 이젠?(음, 그러니까 이젠?)

103046 #1 겐디 그 아까 얘기해고라마는 제사나 모든 게 이, 그걸로 메 행근에 올리곡 전부 헛지 뭐 어디 쌀 받아당 허는 건 특이헌 거고. 그 당시에는.(그런데 그 아까 얘기하더라만 제사나 모든 게 이, 그걸로 메 해서 올리고 전부 헛지 뭐 어디 쌀 받아다가 하는 건 특이한 거고. 그 당시에는.)

103047 @1 예, 알아수다. 그리고 산디찍 용도는 뭐우파?(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밭벼짚 용도는 뭐니까?)

103047 #2 췌도 맥이곡.(소도 먹이고.)

103047 @1 음.(음.)

103047 #3 산디찍은 췌 많이 맥였어.(밭벼짚은 소 많이 먹였어.)

103047 @1 아.(아.)

103047 #1 췌도 맥이고.(소도 먹이고.)

103047 @1 산디찍도 췌 맥여? 으.(밭벼짚도 소 먹여? 으.)

103047 #1 찻신도 습양, 습양, 삼앗고.(짚신도 삼아서, 삼아서, 삼았고.)

103047 #6 초신.(짚신.)

103047 @1 초신, 예.(짚신, 예.)

103047 #1 초신 삼앗고.(짚신 삼았고.)

103047 @1 으?(으?)

103047 #3 늘도 꺾고 새끼도 꺾고.(날도 꺾고 새끼도 꺾고.)

103047 #1 새끼도 꺾고.(새끼도 꺾고.)

103047 #6 그당시는 나룩찻이 쫘 귀했주.(그당시는 벼짚이 쫘 귀했지.)

103047 @1 예.(예.)

103047 #2 귀허다 마다 뭐 완전 그거 밧벼주기, 벼.(귀허다 마다 뭐 완전 그거 밧벼지, 벼.)

103047 @1 음.(음.)

103047 #3 밧벼난.(밭벼니까.)

103047 #2 여긴 논 엇이난 밧벼.(여긴 논 없으니까 밧벼.)

103047 @1 으.(으.)

103047 #3 게난 걸로게 짐페도 꼬꼭게 지게 등태도 멘들고 뭐 여러 가지지. 용도가 많주.(그러니까 걸로 짐바도 꺾고 지게 등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지. 용도가 많지.)

103047 #6 여기서는 요 저 이호²¹⁰에 가면은.(여기서는 요 저 이호에 가면은.)

103047 @1 예.(예.)

103047 #6 지금은 폐담 댜엇주마는 그 양쪽으로 그.(지금은 폐담이 되었지만 그 양쪽으로 그.)

103047 @1 논 잇어낫지.(논 있었었지.)

103047 #6 ** 집 하나 영 허연 지금.(** 집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103047 @1 예, 예. 알아집니다.(예, 예. 알아집니다.)

103047 #6 준공도 안 해영 잇는디 그디서 주로 째이 나왔어.(준공도 안 해서 잇는데 거기서 주로 째이 나왔어.)

103047 @1 예, 게믄 이제 그 째 사당은에 허든.(예, 그러면 이제 그 째 사다가 하든.)

103047 #6 그렇지.(그렇지.)

103047 @1 아니면은 이제 산디쪽으로 현 거 아니라예?(아니면 이제 밭뽕째이로 한 거 아닌가요?)

103047 #3 그렇지.(그렇지.)

103047 @1 산디쪽으로 신 삼고 용도가 정말 하시커라예?(밭뽕째이로 신 삼고 용도가 정말 많았겠어요?)

103047 #3 그렇주게.(그렇지.)

103047 #2 아이, 뭐 이것저것 뭐. 베도 꼬왕 그걸로 짐도 정 텅기꼭 다 헛주.(아니, 뭐 이것저것 뭐. 바도 꼬아서 그걸로 짐도 저서 다니고 다 했지.)

103048 @1 예, 알아수다. 혹시 산디농사허명은에 잇어 불지 못헌 이런 경험 같은 거 잇인가마씨?(예, 알았습니다. 혹시 밭뽕농사하면서 잇어 버리지 못하는 이런 경험 같은 거 있을까요?)

103048 #3 우린 뭐 그 당신 이 경험 무신거 없어. 그자 들은 거 거밖에는.(우린 뭐 그 당신 이 경험 무엇 없어. 그자 들은 거 거밖에는.)

103048 #2 물로 허영 밭 불리단에 차 부난에 눈깔 신 디 이 눈뽕이 이거 까저 낫어. 나.(말로 해서 밭 밟다가 차 버리니까 눈깔 잇는 데 이 눈뽕이 이거 깨졌어. 나.)

103048 @1 음. 경 험 어떻 험디가?(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함디가?)

103048 #2 그거 어떻 허여. 거 병원 좇아엔 강 쥘.(그거 어떻게 해. 거 병원 찾아가서 가서 기워서.)

103048 #3 그때 병원이나 즐바로 잇어? ****.(그때 병원이나 제대로 잇어? ****.)

103048 #2 흙마 죽을 뻔 헛주.(하마터면 죽을 뻔 했지.)

103048 @1 아.(아.)

103048 #2 아, 거 돌 툃툃툃툃 몽둥이로 조름에 상게 두드려 가난 이놈이 새끼

210) '이호'는 제주시 이호동을 말한다.

가.(아, 거 말 탁탁탁탁 몽둥이로 꿈무늬에 서서 두들겨 가니까 이놈의 새끼가.)
 103048 #3 성질난.(성질나서.)
 103048 #2 와탁탁하게 차 부난.(와탁탁하게 차 버리니까.)
 103048 @1 으, 계난 그런 거 잊어 불지 아녀는 거예.(으, 그러니까 그런 거 잊어 버리지 않는 거라고요.)
 103048 #3 밧 불리당 툄 매에 맞은 사름 상당히 많아.(밧 밧다가 말 매에 맞은 사름 상당히 많아.)
 103048 @1 아.(아.)
 103048 #3 눈통이는 고사하고 다리 꺾든 디 차 불민.(눈통이는 고사하고 다리 같은 데 차 버리면.)
 103048 #2 이거 봐 이거 본치.(이거 봐 이거 흥터.)
 103048 @1 아, 본치도 낫수가?(아, 흥터도 낫습니까?)
 103048 #3 툄 툄 때.(말 할 때.)
 103048 #6 소는 뿔로 허는데.(소는 뿔로 하는데.)
 103048 @1 예.(예.)
 103048 #6 말은 밧질[밧질]이주게.(말은 밧질[밧질]이지.)
 103048 #3 밧질이주.(밧질이지.)
 103048 @1 아.(아.)
 103048 #2 뒷밧질로 탁 차 놓민.(뒷밧질로 탁 차 놓으면.)
 103048 #6 뒷밧질. 말은 주로.(뒷밧질. 말은 주로.)
 103048 #3 계난 불리민 사름 지치긴 허곡계, 우리도 어릴 때 허민 지치덴 허민 계 툄은 꿈지 영 심어.(그러니까 밧으면 사름 지치긴 하고, 우리도 어릴 때 하면 지치다고 하면 말은 꿈지 이렇게 잡아.)
 103048 @1 예.(예.)
 103048 #3 꿈지 심영 영 가가민 소는 땡겨가는 식으로 가거든. 허민 그치록 성질내민 차곡. ** 몽직지 말아야.(꿈지 잡아서 이렇게 가가면 소는 당겨가는 식으로 가거든. 하면 그처럼 성질내면 차고. ** 만지지 말아야.)
 103048 @1 음.(음.)
 103048 #3 몽직으민 툄은 성질낭 몽직으민 차 불곡.(만지면 말은 성질나서 만지면 차 버리고.)
 103048 #2 계난 몽둥이로 **** 재계 가렌 두드려가난 부에나난 차실 테주.(그러니까 몽둥이로 **** 재우 가라고 두들겨가니까 부아나니까 찻을 테지.)
 103048 @1 웃음.(웃음.)
 103048 #1 그 산디짹.(그 밧벗짹.)
 103048 @1 예.(예.)
 103048 #1 산디짹으로 멍석이영.(밧벗짹으로 멍석이랑.)
 103048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48 #1 또 맥이영 그걸로 즐앗고이. 그것도.(또 맥이랑 그걸로 곁었고. 그것도.)

103048 @1 예,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예,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3048 #1 그거.(그거.)

103048 @1 예전에야 이제 다 명석 헛잖아예?(예전에야 이제 다 명석 헛잖아요?)

103048 #1 명석도 즐극 또 맥도 즐고이.(명석도 곁고 또 맥도 곁고.)

103048 @1 예, 알아수다.(예, 알았습니다.)

고구마농사

103049 @1 이제는 예전에 감저들 하영 싱것잖아예? 예, 그.(이제는 예전에 고구마들 많이 심었잖아요? 예, 그.)

103049 #2 고구마.(고구마.)

103049 @1 감저 싱것던 얘기에?(고구마 심었던 얘가요?)

103049 #1 고구마.(고구마.)

103049 @1 고구마예, 어떤 준비가 필요해여마씨? 감저 싱그젠 허면?(고구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103049 #6 우선 종자.(우선 종자.)

103049 #2 메종.(모종.)

103049 @1 예, 메종 놔야 되는 거. 메종 놓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낫수가?(예, 모종 놔야 되는 거. 모종 놓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낫습니까?)

103049 #1 메종. 내가 곁으카.(모종. 내가 말할까.)

103049 @1 예.(예.)

103049 #1 예, 이 해동기에. 해동기엔 곁아점짜. 이 얼음이 풀리믄.(예, 이 해동기에. 해동기라고 말해진다. 이 얼음이 풀리면.)

103049 @1 예.(예.)

103049 #1 풀려 가지고 삼월 예, 쫘 돼면은 그 가을에.(풀려 가지고 삼월 예, 쫘 되면 그 가을에.)

103049 @1 예.(예.)

103049 #1 그 가을에 수확을 해 가지고 그 고구마를 사, 저 파당은에 이제 구덩이를 파 가지고 겨울 월동을 저 ** 해근에 그디 저 묻어 가지고 이제 혁도 올리고 해여근에 겨울을 나도록히 행은에.(그 가을에 수확을 해 가지고 그 고구마를 사, 저 파다가 이제 구덩이를 파 가지고 겨울 월동을 저 ** 해서 거기 저 묻어 가지고 이제 흙도 올리고 해서 겨울을 나도록 해서.)

103049 @1 예.(예.)

103049 #1 곁 잘 공기도 통허곡 주쟁이도 올앗다 더껏다 허면서 그곁 에 저장

헤여이.(걸 잘 공기도 통하고 주저리도 열었다 덮었다 하면서 그걸 에 저장해.)

103049 @1 예.(예.)

103049 #1 저장햇당은에 봄 나른 이제 날 좋은 걸 헤싸 가지고 먹기도 하고.(저장했다가 봄 되면 이제 날 좋으면 걸 헤쳐 가지고 먹기도 하고.)

103049 @1 으.(으.)

103049 #1 췌감자²¹¹⁾로 이제 팔기도 허든 걸 사당도 허고 자기대로 저장헌 사름은 자기 걸로 허곡 행근에 거 사당 허는 사름은 말로 혼 말 두 말 말로 풀든 사다가 이제 그 멧자리를 멘들양은에.(‘췌감자’로 이제 팔기도 하면 걸 사다가도 하고 자기대로 저장한 사름은 자기 걸로 하고 해서 거 사다가 하는 사름은 말로 한 말 두 말 말로 팔면 사다가 이제 그 못자리를 만들어서.)

103049 @1 예.(예.)

103049 #1 이제 마트든 저 무우 무관 종자판 같이 멘들양은에 이제 거기에 드 멧드멍 그걸 심, 고구마를 심어.(이제 같으면 저 무 무관 종자판 같이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틈틈이 그걸 심, 고구마를 심어.)

103049 @1 예.(예.)

103049 #1 싱그는데 걸름 잘 묻은근에 재게 키우젠 허든 돛걸름도 놓고 또 불치도 놓곡 헤여 가지고 그걸 낵. 건 이젠 그디서 순이 나 가지고.(심는데 거름 잘 묻어서 재우 키우려고 하면 돼지거름도 놓고 또 재도 놓고 해 가지고 그걸 낵서. 건 이젠 거기서 순이 나 가지고.)

103049 @1 예.(예.)

103049 #1 뭐 크게 돼면은 대개 에 어느 때 돼느냐 허면은 망종 스시 돼여이.(뭐 크게 되면 대개 에 어느 때 되느냐 하면 망종 사이 되어.)

103049 @1 예.(예.)

103049 #1 보리 익, 익은은에 거저 허여 가든 이제 크기 시작헤영은에 에 보릿그르²¹²⁾ 나른 이제 싱그주기.(보리 익, 익어서 거의 해 가면 이제 크기 시작해서 에 ‘보릿그루’ 나면 이제 심지.)

103049 @1 으.(으.)

103049 #1 보리 후작에이.(보리 후작에.)

103049 @1 예.(예.)

103049 #1 보릿그르 나면 싱거.(‘보릿그루’ 나면 심어.)

103049 @1 게든 그치룩허영 키운 줄을 뭐렌 헉니까?(그러면 것처럼 해서 키운 줄을 뭐라고 합니까?)

103049 #6 감젓줄.(고구마줄기.)

103049 #2 감젓줄.(고구마줄기.)

103049 @1 감젓줄. 으, 거 끊어당 싱그는 거 아니라예? 예.(고구마줄기. 으, 거

211) ‘췌감자’는 씨로 쓸 고구마를 말한다.

212) ‘보릿그르’는 보리를 수확한 후의 자리를 말한다.

끊어다가 심는 거 아닌가요? 예.)
 103049 #6 겐이 아까 그 수확 고구마.(그래서 아까 그 수확 고구마.)
 103049 @1 예.(예.)
 103049 #6 가을 들면은 상강일 기준 해 가지고 상강 넘어 파면은 썩넌 허주게.
 (가을 들면 상강일 기준 해 가지고 상강 넘어서 파면 썩는다고 하지.)
 103049 @1 예.(예.)
 103049 #6 케니까 상강 전에 파는 거라이.(그러니까 상강 전에 파는 거야.)
 103049 @1 음.(음.)
 103049 #6 상강을 기준 해 가지고 게서 감저 눈덴 곶아, 그거를.(상강을 기준
 해 가지고 그래서 고구마 가린다고 말해, 그거를.)
 103049 @1 감저 눈다예?(고구마 가린다고요?)
 103049 #1 감젓눌.(고구마가리.)
 103049 #3 감젓눌.(고구마가리.)
 103049 #6 이 저 구덩이 이렇게 파 가지고.(이 저 구덩이 이렇게 파 가지고.)
 103049 @1 예.(예.)
 103049 #6 이렇게이.(이렇게.)
 103049 #2 느람지 둘렁.(이영 둘러서.)
 103049 #6 경 해근에 그 안네는 이제 그 뭐 째 같은 거나 뭇로 조직[조직] 같
 은 걸로.(그렇게 해서 그 안에는 이제 그 뭐 째 같은 거나 무엇으로 조째 같은 걸
 로.)
 103049 #3 콩꼬질, 콩꼬질.(콩각지, 콩각지.)
 103049 #6 이렇게 둘러 가지고.(이렇게 둘러 가지고.)
 103049 @1 예.(예.)
 103049 #6 거기다 고구마 놔 가지고 옆으로 흙 올려.(거기다 고구마 놔 가지고
 옆으로 흙 올려.)
 103049 @1 으.(으.)
 103049 #6 이 가운데는 숨 쉬게끔 이제 뭐 째이나 무경은에 영 허영은에 낱.(이
 가운데는 숨 쉬게끔 이제 뭐 째이나 묶어서 이렇게 해서 놔서.)
 103049 #2 지둥 썸주.(기둥 세우지요.)
 103049 @1 예.(예.)
 103049 #6 우엔 주쟁이엔 현 거.(위에는 주저리라고 한 거.)
 103049 @1 예.(예.)
 103049 #1 주쟁이 알아져?(주저리 알아져?)
 103049 @1 예. 알아집니다.(예, 알아집니다.)
 103049 #6 주쟁이 더경.(주저리 텃어서.)
 103049 @1 음.(음.)
 103049 #6 케난 그때는 지금은 안 허난 모른디 그때는이 날이 막 좋앙 해 가민

그걸 흐뭇 열어줘.(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때는 날이 아주 좋아서 해 가면 그걸 조금 열어줘.)

103049 @1 예.(예.)

103049 #2 공기 통허렌.(공기 통하라고.)

103049 #6 공기 잘 통허렌. 또 이제 막 추위가민 이제 더꺼 불곡.(공기 잘 통하라고. 또 이제 아주 추위가면 이제 덮어 버리고.)

103049 @1 으.(으.)

103049 #6 그런 식으로.(그런 식으로.)

103049 @1 계난 그 씨감저 그 보관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었던 거네예?(그러니까 그 ‘씨감저’ 그 보관하는 게 예삿일이 아니었던 거네요?)

103049 #3 아이고, 보통일이 아니주.(아이고, 예삿일이 아니지.)

103049 #6 보통일이 아니주. 계난 그 저 조금 그 내중에는 온도계 헤여근예.(예삿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저 조금 그 나중에는 온도계 해서.)

103049 @1 예.(예.)

103049 #6 그레 영 집어낱.(그리로 이렇게 집어놔서.)

103049 #3 온도계도 중간에 온도계 허고.(온도계도 중간에 온도계 하고.)

103049 #6 돌아메영 온도도 보멍.(매달아서 온도도 보면서.)

103049 #2 계난 근래고, 옛날은.(그러니까 근래고, 옛날은.)

103049 #3 손 질러봐서 듯듯허면은 아이고, 안 웬덴 허멍 주쟁이 올곡.(손 질러봐서 듯듯하면 아이고, 안 된다고 하면서 주저리 열고.)

103049 #2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3049 #3 경 헤 가지고 이제.(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103049 #2 손 디밀앙 봤어.(손 들이밀어서 봤어.)

103049 #3 그것이 온도계라.(그것이 온도계야.)

103049 @1 예, 예, 예.(예, 예, 예.)

103049 #3 경 허영은에 올곡 경 아녀민 추윅 어둑어가면은 이제 더뜨곡.(그렇게 해서 열고 ** 추워서 어두워가면 이제 덮고.)

103049 @1 음.(음.)

103049 #3 오늘 ㄱ튼 날은 올라야주.(오늘 같은 날은 열어야지.)

103049 @1 오늘 뜻이난예? 예, 예.(오늘 따뜻하니까요? 예, 예.)

103049 #3 그렇게 허고. 겐디.(그렇게 하고. 그런데.)

103049 #2 짐이 팡팡 나주게.(김이 팡팡 나지.)

103049 #3 팡팡 나. 그 속에 들어간 거는 찻이 뜻이거든.(팡팡 나. 그 속에 들어간 거는 찻이 따뜻하거든.)

103049 @1 예.(예.)

103049 #3 뜻이니까 찻은 흘 수 없주만 그 가운데는 콩꼬질.(뜻뜻하니까 찻은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는 콩깍지.)

103049 @1 예.(예.)

103049 #3 공기통을 잘 허렌 해 가지고. 콩꼬질 해 가지고 넣은에 허곡.(공기통을 잘 하라고 해 가지고. 콩깍지 해 가지고 놔서 하고.)

103049 @1 음.(음.)

103049 #3 경 허여도 썩은 감글이 하, 썩은 감저가.(그렇게 해도 썩은 감글이 많아, 썩은 고구마가.)

103049 @1 음.(음.)

103049 #1 또, 또.(또, 또.)

103049 #2 온도 잘 맞으면 안 썩고 온도 잘 안 맞으면 썩고.(온도 잘 맞으면 안 썩고 온도 잘 안 맞으면 썩고.)

103049 #1 또 그렇게 허고 이 구들에.(또 그렇게 하고 이 방에.)

103049 @1 예.(예.)

103049 #1 구들에도 겨울 보관을 허여.(방에도 겨울 보관을 해.)

103049 #3 보관허곡 뜻인 디 으. 백장 어염에.(보관하고 따뜻한 데 으. 백장 곁에.)

103049 #1 맥에나 가마니에나 담아 가지고.(떡에나 가마니에나 담아 가지고.)

103049 @1 예.(예.)

103049 #1 이제 방안에도 보, 저 보관행근에 월동 시키는 경우도 있어.(이제 방안에도 보, 저 보관해서 월동 시키는 경우도 있어.)

103049 #6 젠디 고구마줄이.(그런데 고구마줄기가.)

103049 @1 예.(예.)

103049 #6 아까도 거름 놓고 뭐허고 그 얘기가 나왔주마는 많이 커 불면은 고구마줄이.(아까도 거름 놓고 뭐하고 그 얘기가 나왔지만 많이 커 버리면 고구마줄기가.)

103049 #3 질어.(길어.)

103049 #6 막 길주게.(아주 길지.)

103049 @1 예.(예.)

103049 #6 경 허문 보통 흔 삼십 센티 내지 사십 센티 정도로 찢르는 거라.(그렇게 하면 보통 한 삼십 센티 내지 사십 센티 정도로 자르는 거야.)

103049 #3 찢라.(잘라.)

103049 @1 예.(예.)

103049 #6 경 심어야 돼여.(그렇게 심어야 돼.)

103049 @1 음.(음.)

103049 #6 그냥 길게 심으면은 그게 그대로 막 저 달리른 좋은데. *** 경 허니까 끊영 심어.(그냥 길게 심으면 그게 그대로 막 저 달리면 좋은데. *** 그렇게 하니까 잘라서 심어.)

103049 #3 마디로 나주게. 마디로 나.(마디로 나지. 마디로 나.)

103049 @1 아, 마디로 헤영 나는 겨우짜? 아아. 게민예, 그 줄 싱글 때는 어느 철에 싱근 거마씨? 키우면.(아, 마디로 해서 나는 겁니까? 아아. 그러면요, 그 줄 심을 때는 어느 철에 심은 거예요? 키우면.)

103049 #6 게니까 아까.(그러니까 아까.)

103049 #2 게니까 오월 혼 말썸은 돼겠네.(그러니까 오월 한 말썸은 되겠네.)

103049 #3 게난 이거 저 유월절²¹³⁾ 전이.(그러니까 이거 저 유월절 전에.)

103049 #2 보리 낫당 보리 **을 허니까.(보리 끝나서 보리 **을 하니까.)

103049 #6 보리 수확허영 보리 그 그르에 심어.(보리 수확해서 보리 그 그루에 심어.)

103049 #3 그르에 가는 거니까.(그루에 가는 거니까.)

103049 @1 바로 수확하면은 감저 가는 거예?(바로 수확하면 고구마 가는 거지요?)

103049 #3 그렇주, 그렇주.(그렇지, 그렇지.)

103049 #6 그렇주. 고구마부터 심어야 돼여.(그렇지. 고구마부터 심어야 되어.)

103051 @1 예, 알아수다. 게문 감저밭되도 거름헤마씨?(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밭에도 거름해요?)

103051 #6 아니.(아니.)

103051 #3 거름허는 디 없어.(거름하는 데 없어.)

103051 @1 아.(아.)

103051 #2 꼭 저 뭇고? 이젠 옛날은 안 헛주마는 이젠 굼벵이가 많아 놓난 저 제초제 아녀른 안 돼여.(꼭 저 무엇이니? 이젠 옛날은 안 했지만 이젠 굼벵이가 많아 놓으니까 저 제초제 앓으면 안 돼.)

103051 #6 아, 그 저 약이엔 현 건 아까 거름엔 곱안?(아, 그 저 약이라고 한 건 아까 거름이라고 말했어?)

103051 @1 예, 곱름.(예, 거름.)

103051 #6 거름은 안 허는디.(거름은 안 하는데.)

103051 #3 거름은 안 허고.(거름은 안 하고.)

103051 #6 이제는 그.(이제는 그.)

103051 #2 경 아녀민 굼벵이 때문에.(그렇게 앓으면 굼벵이 때문에.)

103051 #6 굼벵이이.(굼벵이.)

103051 @1 예.(예.)

103051 #6 옛날은 그렇게 심허질 아녘는데 이젠 굼벵이가 쾡장허여.(옛날은 그렇게 심하질 앓았는데 이젠 굼벵이가 쾡장해.)

103051 @1 아, 경 비.(아, 그렇게 비.)

103051 #6 토양 살충제를 해야 돼여.(토양 살충제를 해야 되어.)

103051 @1 아, 감저 싱그젠 허른예?(아, 고구마 심으려고 하면요?)

213) '유월절'은 7월 8일 소서부터 8월 8일 입추까지의 한 달을 말한다.

103051 #2 아, 그거 아녕은.(아, 그거 알아서는.)

103051 #6 그거 아녀른 수확기에 영 보믄.(그거 양으면 수확기에 이렇게 보믄.)

103051 @1 예.(예.)

103051 #6 문딱 움과 불영은에 먹을 게 엇어.(몽땅 움과 버려서 먹을 게 없어.)

103051 @1 아, 경 농약해도 굼벵이가 핫구나?(아, 그렇게 농약해도 굼벵이가 많구나?)

103051 #3 아이고.(아이고.)

103051 #2 아이고.(아이고.)

103051 #3 농약으로 땅에 들어강 죽지 아널거주게. 굼벵이가게.(농약으로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거지. 굼벵이가.)

103051 @1 예.(예.)

103051 #6 계난 이젠 이 저 비단 그 저 고구마뿐이 아니고.(그러니까 이젠 이 저 비단 그 저 고구마뿐이 아니고.)

103051 @1 예.(예.)

103051 #6 다른 농사에도.(다른 농사에도.)

103051 #3 마찬가지로 다.(마찬가지 다.)

103051 #6 전부 이젠.(전부 이젠.)

103051 #2 농약 안 허영은 허질 못허여.(농약 안 해서는 하질 못해.)

103051 #6 이젠 살충제를 해야 돼여.(이젠 살충제를 해야 되여.)

103051 @1 아, 땅에, 예.(아, 땅에, 예.)

103051 #6 그 씨 뿌림과 동시에.(그 씨 뿌림과 동시에.)

103051 @1 아.(아.)

103051 #6 콩도 콩 갈 때도.(콩도 콩 갈 때도.)

103051 @2 음.(음.)

103051 #2 다 허여.(다 해.)

103051 #6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되고.(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되고.)

103051 @1 으.(으.)

103051 #6 옛날은 그 저 토양 살충, 저 벌레가 그렇게 엇엇텐 허는디 이 최근에 와서는 썩장허여. 벌레가.(옛날은 그 저 토양 살충, 저 벌레가 그렇게 없었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 와서는 썩장해. 벌레가.)

103051 @1 음.(음.)

103051 #3 옛날은게 눈 하영 묻고 뭐 허민 충이라는 게 자연적 없어졌는데.(옛날은 눈 많이 묻고 뭐 하면 충이라는 게 자연적 없어졌는데.)

103051 @1 예, 이제 뜻아 부니까.(예, 이제 따듯해 버리니까.)

103051 #3 요즘은 뜻이고 허니까 충이란 게 전부 안 나는 거 엇이 전부 나주.(요즘은 따듯하고 하니까 충이란 게 전부 안 나는 거 없이 전부 나지.)

103051 #2 아, 경도 허곡 옛날은 농약을 안 해 부니까.(아, 그렇게도 하고 옛날

은 농약을 안 해 버리니까.)

103051 #3 으.(으.)

103051 #2 천적들이 그걸 잡아먹으멍 해 부니까.(천적들이 그걸 잡아먹으면서 해 버리니까.)

103051 @1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3051 #3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3051 #2 그게 엇는데.(그게 없는데.)

103051 @1 예.(예.)

103051 #2 이젠 농약 허니까 천적이 다 죽어 불언.(이젠 농약 하니까 천적이 다 죽어 버렸어.)

103051 @1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거 같애예?(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거 같지요?)

103051 #3 으, 바로 그거.(으, 바로 그거.)

103051 #2 그게 원인이주.(그게 원인이지.)

103053 @1 예, 맞수다. 감저밭도 이게 여름이난 검질 하시커라예?(예, 맞습니다. 고구마밭도 이게 여름이니까 김 많겠어요?)

103053 #6 검질메야 돼.(김매야 돼.)

103053 #3 메야주.(매야지.)

103053 @1 예, 몇 번 맵니까? 감저밭은.(예, 몇 번 맵니까? 고구마밭은.)

103053 #2 검질 혼 두 번 정도.(김 한 두 번 정도.)

103053 #3 두 번. 혼 번, 혼 번 뒤.(두 번. 한 번, 한 번 뒤.)

103053 #6 두 번 내지 혼 번.(두 번 내지 한 번.)

103053 #2 혼 번 내지 두 번.(한 번 내지 두 번.)

103053 #6 젠디 고구마는이 줄 벌어 가면은.(그런데 고구마는 줄 벌어 가면.)

103053 @1 음.(음.)

103053 #6 그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마디서 자꾸 땅에 부뜨주게.(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디서 자꾸 땅에 붙지.)

103053 @1 예.(예.)

103053 #6 게민 그게 부뜨는 냥 내 불면은 잘 들지, 저.(그러면 그게 붙는 대로 내 버리면 잘 들지, 저.)

103053 #3 감저가 안 들어.(고구마가 안 들어.)

103053 #6 안 든텐 허주게.(안 든다고 하지.)

103053 @1 아.(아.)

103053 #6 게니까 걸 떼어 줘야 돼여.(그러니까 걸 떼어 줘야 되어.)

103053 @1 아, 줄 벌는 냥예, 예.(아, 줄 벌는 대로요, 예.)

103053 #3 떼어 줘사 지러기로.(떼어 줘야 길이로.)

103053 @1 아, 게민 혹시 영 골 갈기도 헤낫수가? 감저밭디.(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골 갈기도 했었습니까? 고구마밭에.)

103053 #3 아, 헛지.(아, 헛지.)

103053 #6 그건 아니.(그건 아니.)

103053 #3 무사.(왜.)

103053 #6 줄 때문에 아니.(줄 때문에 아니.)

103053 #1 헛어. 골 갈기 헛어.(헛어. 골 갈기 헛어.)

103053 #3 골 갈주기, 헛주게.(골 갈지, 헛지.)

103053 @1 으.(으.)

103053 #3 계난 저번에 그 저 선생이 헛 소리가 벳 양벳짜리 ** 골 가는 벳이
란 양벳짜리로 벳 올리고.(그러니까 저번에 그 저 선생이 헛 소리가 벳 ‘양벳짜리’
** 골 가는 벳이란 ‘양벳짜리’로 벳 올리고.)

103053 #2 영 끊어지게 뒤텔주.(이렇게 끊어지게 되었지.)

103053 #6 겐디 그거는.(그런데 그거는.)

103053 #3 으.(으.)

103053 @1 음.(음.)

103053 #6 뭐 좀 혼헌 일은 아니고.(뭐 좀 혼헌 일은 아니고.)

103053 @1 아, 혼헌 일은 아니고예?(아, 혼헌 일은 아니고요?)

103053 #3 아, 검질메기 힘들 때 허기, 뒤텔은 그 골을 주로 많이 갈아서. **. (아, 김매기 힘들 때 하기, 되면 그 골을 주로 많이 갈아서. **.)

103053 @1 예.(예.)

103053 #6 겐디 소가 밟아 버리고.(그런데 소가 밟아 버리고.)

103053 #3 밟아도 갈았주.(밟아도 갈았지.)

103053 #6 계난.(그러니까.)

103053 @1 계문 그 줄 떼는 거는 사름 손으로 다 떼어 주는 거예?(그러면 그
줄 떼는 거는 사람 손으로 다 떼어 주는 거지요?)

103053 #6 검질메명. 검질메명, 검질메명.(김매면서. 김매면서, 김매면서.)

103053 @1 아, 검질메명, 으.(아, 김매면서, 으.)

103053 #3 소 갈 때도 떼어 주곡.(소 갈 때도 떼어 주고.)

103054 @1 계문 저기 감저밧디도 검질들은 아까랑 ㄱ튼가마씨? 어떤 검질 주
로 나뉠수가?(그러면 저기 고구마밭에도 김들은 아까랑 같은가요? 어떤 김 주로 났
었습니까?)

103054 #6 주로게 아까 곶은 거게.(주로 아까 말한 거.)

103054 #3 여름 검질.(여름 김.)

103054 #2 여름 검질. 뭐 그거.(여름 김. 뭐 그거.)

103054 #6 여름 검질 대개 그거주, 뭐.(여름 검질 대개 그거지, 뭐.)

103054 @1 경 해도 여기 녹음해야 돼는디.(그렇게 해도 여기 녹음해야 되는데.)

103054 #3 제완지.(바랭이.)

103054 #2 제완지.(바랭이.)
103054 @1 예.(예.)
103054 #2 복쿨.(깨풀.)
103054 @1 예.(예.)
103054 #2 쉼터럭.(김의풀.)
103054 @1 예.(예.)
103054 #3 천상쿨.(망초.)
103054 #6 속.(쑥.)
103054 @1 음, 천상쿨.(음, 망초.)
103054 #6 지금 말허민 쑥, 표준언 쑥이주만 속.(지금 말하면 쑥, 표준언 쑥이지
만 ‘속’.)
103054 #3 속.(쑥.)
103054 @1 이것 말고도 쉼비눔영.(이것 말고도 쇠비름이랑.)
103054 #6 쉼비눔도 나고.(쇠비름도 나고.)
103054 #2 비눔, 쉼비눔.(비름. 쇠비름.)
103054 @1 어, 비눔도 나고예. 여기도 비눔도 먹어수가?(어, 비름도 나고요. 여
기도 비름도 먹었습니까?)
103054 #3 먹엇주.(먹엇지.)
103054 #6 아이고.(아이고.)
103054 #2 참비눔엔.(참비름이라고.)
103054 #6 참비눔엔 허연 먹엇어.(참비름이라고 해서 먹엇어.)
103054 #2 해근에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해서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
어.)
103054 @1 예.(예.)
103054 #6 겐디 육진 보니까 쉼비눔도 먹대이.(그런데 육진 보니까 쇠비름도 먹
던데.)
103054 @1 예, 요즘, 요즘 뭐 쉼비눔 좋텐 허영들 막 허염수게.(예, 요즘, 요즘
뭐 쇠비름 좋다고 해서들 막 하고 있습니다.)
103054 #2 아니, 우린 독허텐 허연 아니 독허텐 허영 안 먹엇는데.(아니, 우린
독하다고 해서 아니 독하다고 해서 안 먹엇는데.)
103054 @1 예.(예.)
103054 #2 아, 거 나오는 거 보난 막 쉼비눔 좋은 거라고.(아, 거 나오는 거 보
니까 아주 쇠비름 좋은 거더라고.)
103054 #6 육지 사름덜 막 먹어고.(육지 사람들 막 먹던데.)
103054 @1 음.(음.)
103054 #3 안 먹는 거 셔게? 뭐 개자리도 헤영은에.(안 먹는 거 있어? 뭐 개자
리도 해서.)

103054 #2 아이, 약재로 좋은 거더라고.(아니, 약재로 좋은 거더라고.)

103054 #3 삶양 먹고 다 헛주. 육지 사름덜.(삶아서 먹고 다 했지. 육지 사람들.)

103054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54 #3 여기서 췌비눔은 보리 훔틀 때.(여기서 쇠비름은 보리 훔을 때.)

103054 @1 예.(예.)

103054 #3 거 삶양 냉국 허민 춤 그거 췌고주, 뭘.(거 삶아서 냉국 하면 참 그거 최고지, 뭘.)

103054 #2 아, 좋아.(아, 좋아.)

103054 @1 췌비눔을마씨?(쇠비름을요?)

103054 #2 아니, 아니, 춤비눔.(아니, 아니, 참비름.)

103054 #3 아, 춤비눔.(아, 참비름.)

103054 @1 아.(아.)

103054 #3 춤비눔.(참비름.)

103054 @1 아, 옛날 제주도도 춤비눔을 먹었구나?(아, 옛날 제주도도 참비름을 먹었구나?)

103054 #2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103055 @1 아아, 춤비눔도 이제 먹고예. 게민 감저 수확은 언제 허는 거마씨?(아아, 참비름도 이제 먹고요. 그러면 고구마 수확은 언제 하는 거예요?)

103055 #3 것도 가을에.(것도 가을에.)

103055 #2 가을에 게난 아까 그 상강 이전에 해야 돼.(가을에 그러니까 아까 그 상강 이전에 해야 돼.)

103055 @1 예, 게난 그 감저 수확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짜? 그 순서를 한 번 곱아 쥐 봅서.(예, 그러니까 그 고구마 수확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 순서를 한 번 말해 줘 보십시오.)

103055 #3 게난 허게 돼민 감젓줄.(그러니까 하게 되면 고구마줄기.)

103055 #2 줄 걷영.(줄 걷어서.)

103055 #3 줄 걷넨 허영 다 비여 낱.(줄 걷는다고 해서 다 베어 댜서.)

103055 #6 낫으로.(낫으로.)

103055 @1 예.(예.)

103055 #6 낫으로 줄을 우선 끊어야 될 거 아니?(낫으로 줄을 우선 끊어야 될 거 아니?)

103055 @1 음.(음.)

103055 #6 게영 걷어낱 멍치 이만큼 멍치 헤여근에 영 헤청.(그렇게 해서 걷어 댜서 멍치 이만큼 멍치 해서 이렇게 헤쳐서.)

103055 #3 이제 또 손으로.(이제 또 손으로.)

103055 #6 잣허근에.(젓혀서.)

103055 @1 으.(으.)
 103055 #1 손으로도.(손으로도.)
 103055 #3 손으로 파곡.(손으로 파고.)
 103055 #1 파곡.(파고.)
 103055 #3 또 소로도 갈곡.(또 소로도 갈곡.)
 103055 #1 소로도 갈아 가지고.(소로도 갈아 가지고.)
 103055 @1 예.(예.)
 103055 #1 이제.(이제.)
 103055 #2 좃어내기도 허곡.(주워내기도 하고.)
 103055 #3 감저 좃곡.(고구마 줍고.)
 103055 #1 저 뒤에서 갈면서 좃엉근에 모으기도.(저 뒤에서 갈면서 주워서 모으기도.)
 103055 @1 예.(예.)
 103055 #1 허고.(하고.)
 103055 @1 으. 어느 걸 더 하영 헛수가?(으. 어느 걸 더 많이 했습니까?)
 103055 #3 대개 그 옛날.(대개 그 옛날.)
 103055 #2 팟주게, 팟어. 팟어이.(팟지, 팟어. 팟어.)
 103055 #1 많이 허는 사름은 소로 갈곡.(많이 하는 사름은 소로 갈고.)
 103055 @1 예.(예.)
 103055 #3 적게 현 사름은 손으로 파고.(적게 한 사름은 손으로 파고.)
 103055 #1 적게 현 사름은 저 글쟁이로.(적게 한 사름은 저 호미로.)
 103055 #6 주로 글쟁이로 팟어.(주로 호미로 팟어.)
 103055 @1 글쟁이로 팟어예? 여기서 글쟁이로 판 이유는 뭇고마씨?(호미로 팟다고요? 여기서 호미로 판 이유는 뭇까요?)
 103055 #3 뭇가 아니고 글앗지마는.(뭇가 아니고 말했지만.)
 103055 #2 그건 글쟁이로 파기 쉬우니깐게.(그건 호미로 파기 쉬우니깐.)
 103055 #3 췌가 없으니까.(소가 없으니까.)
 103055 #6 경 허고 그 글쟁이로 파면은.(그렇게 하고 그 호미로 파면.)
 103055 @1 예.(예.)
 103055 #6 고구마가 상허질 아녀는디.(고구마가 상하질 않는데.)
 103055 #3 상허지 안허곡.(상하지 않고.)
 103055 @1 예.(예.)
 103055 #6 췌로 허면은 그게 아무래도게 그냥.(소로 하면은 그게 아무래도 그냥.)
 103055 #2 췌기로 착착.(췌기로 착착.)
 103055 #6 췌기로 영 허니까 막 췌여지는 거 소 발로 밟아지는 거 이런 것이 췌 잇주게.(췌기로 이렇게 하니까 막 췌어지는 거 소 발로 밟아지는 거 이런 것이

쫓 있지.)

103055 @1 아아.(아아.)

103055 #2 계곡 곱닥허게 좇어내지도 못허곡게, 건 거벳기.(그리고 곱다랗게 주워내지도 못하고, 건 거밖애.)

103055 #6 흑으로 묻혀정.(흙으로 묻혀서.)

103055 @1 흑으로 묻쳐정예? 계난 주로 이제 손으로.(흙으로 묻혀서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손으로.)

103055 #2 사름으로 허민 깨끗이 다 파내주.(사람으로 하면 깨끗이 다 파내지.)

103055 @1 으.(으.)

103055 #3 계난 크게 간 분들은.(그러니까 크게 간 분들은.)

103055 @1 예.(예.)

103055 #3 소나 신 분들은 이제.(소나 있는 분들은 이제.)

103055 #2 하영 허는 부업, 부업으로 허는 사름 그거, 거고.(많이 하는 부업, 부업으로 하는 사람 그거, 거고.)

103055 #3 췌로 갈곡.(소로 갈고.)

103055 @1 으.(으.)

103055 #3 또 그 조그마헌 거 저 놉 빌영 그 췌에 장남 빌곡 췌 빌영 강 허젠 허민 힘드니까 글갱이로 파 불곡.(또 그 조그마한 거 저 놉 빌려서 그 소에 장정 빌리고 소 빌려서 가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호미로 파 버리고.)

103055 @1 으.(으.)

103055 #3 그것이 대부분 하영 헌 사름은 대개 소로 갈았주. 거 파젠 허민 상당히 힘들었지, 옛날 파젠 허면은.(그것이 대부분 많이 한 사람은 대개 소로 갈았지. 거 파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었지, 옛날 파려고 하면은.)

103056 @1 예, 게른 감저 같은 경우도 옛날 이거도 환금 작물 아니었수가예? 게른 어떤 식으로 허연에 폰 거라마썸?(예, 그러면 고구마 같은 경우도 옛날 이거도 환금 작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판 거예요?)

103056 #2 전분공장에.(전분공장에.)

103056 #6 계난.(그러니까.)

103056 #2 풀 때.(팔 때.)

103056 #6 전분공장도 아주 오랜, 그뻔 엇엇주.(전분공장도 아주 오랜, 그뻔 없엇지.)

103056 @1 예.(예.)

103056 #1 전분공장이 외도에도 잇었는데 에 친구백 혼 사십삼 년 정도 일제.(전분공장이 외도에도 있었었는데 에 친구백 한 사십삼 년 정도 일제.)

103056 @1 예.(예.)

103056 #1 일본시대 웨어 가지고 이제 해방웨니까 그냥 뭐했는데 이 외도에는 고구마를 많이 안 심었는데이.(일본시대 웨어 가지고 이제 해방웨니까 그냥 뭐했는데)

데 이 외도에는 고구마를 많이 안 심었는데.)

103056 @1 아아.(아아.)

103056 #1 주로 많이 싱그는 디가 어딘 중 허민 저 대정²¹⁴ 그 신도²¹⁵ ㄴ뜨
디.(주로 많이 심는 데가 어딘 줄 하면 저 대정 그 신도 같은 데.)

103056 @1 예, 예.(예, 예.)

103056 #1 무릉²¹⁶ ㄴ뜨 디 쟁장히 많이 싱그는 거라고.(무릉 같은 데 쟁장히
많이 심는 거더라고.)

103056 @1 예.(예.)

103056 #1 경 행 거기 감저, 이 신산²¹⁷이라든지 어디도 가 가지고 허고 허는
디 이 그 고구마 해 가지고 이 전분 행근에 이익 된다는 건 어느 순간순간 넘어가
멍 그런 게 잇었지.(그렇게 해서 거기 고구마, 이 신산이라든지 어디도 가 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 그 고구마 해 가지고 이 전분 해서 이익 된다는 건 어느 순간순간
넘어가면서 그런 게 있었지.)

103056 @1 예.(예.)

103056 #1 계속해 가지고 그거 뭐 큰 저 벌이가 된다는 건 아니던디 그 전에
오일육 혁명이 됐니까 이 제주도예 절간²¹⁸을 장려해 가지고.(계속해 가지고 그거
뭐 큰 저 벌이가 된다는 건 아니던데 그 전에 오일육 혁명이 되니까 이 제주도에
절간을 장려해 가지고.)

103056 @1 예.(예.)

103056 #1 허라고 해 가지고 거 돈벌이 되는 걸로 경 험에.(하라고 해 가지고
거 돈벌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03056 @1 예.(예.)

103056 #1 춤 절간을 장려해 가지고 절간 갖당 바치지 아녀른 비료도 덜 주곡
뭐 이렇게 하면서 해난 예가 잇어났는다.(춤 ‘절간’을 장려해 가지고 절간 갖다가
바치지 않으면 비료도 덜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예가 있었었는데.)

103056 #2 경 해났어.(그렇게 했었어.)

103056 @1 으.(으.)

103056 #6 건디 그 말씀 가운데우다마는 왜정 때도 절간을 그걸 공출로.(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입니다만 왜정 때도 ‘절간’을 그걸 공출로.)

103056 #3 어어.(어어.)

103056 #6 뭐 헛주.(뭐 했지.)

103056 @1 예, 예. 그 말씀 한 번 해 줘서?(예, 예. 그 말씀 한 번 해 주십시
오?)

214)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을 가리키면서 쓴 말이다.

215) ‘신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를 말한다.

216) ‘무릉’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를 말한다.

217) ‘신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를 가리킨다.

218) 여기에서 ‘절간’은 ‘절간고구마’를 말한다.

103056 #6 왜정 때 계난 절간이엔 허문게 썰어근에 말리는 거.(왜정 때 그러니까 절간이라고 하면 썰어서 말리는 거.)

103056 @1 예.(예.)

103056 #6 경 혜영 그 공출엔 혜영 왜정 때는게 그냥 어느 집의서 어느 집의 할당시켜 가지고 무상으로 공출, 글자 그대로.(그렇게 해서 그 공출이라고 해서 왜정 때는 그냥 어느 집에서 어느 집에 할당시켜 가지고 무상으로 공출, 글자 그대로.)

103056 @1 예, 예.(예, 예.)

103056 #6 공짜로 내놓라. 그거야 비단 뭐 고구마뿐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보리든 뭐든 다 경 헛주마는. 절간, 절간이엔 허영 그때 당시 왜정 때도 그걸 헛어.(공짜로 내놓아라. 그거야 비단 뭐 고구마뿐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보리든 뭐든 다 그렇게 했지만. ‘절간’, ‘절간’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왜정 때도 그걸 헛어.)

103056 @1 예, 그 절간감저예? 그걸 여기선 뭐렌 헛니까? 경 썬 것을.(예, 그 절간고구마요? 그걸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썬 것을.)

103056 #3 뻗테기. 제주도 여기.(절간고구마. 제주도 여기.)

103056 #6 고구마 뭐 감저뻗테기.(고구마 뭐 절간고구마.)

103056 #2 뻗테기.(절간고구마.)

103056 #3 뻗테기.(절간고구마.)

103056 @1 예, 감저뻗테기.(예, 절간고구마.)

103056 #6 감저뻗테기.(절간고구마.)

103056 @1 계난 이왕이면 여기 외도 말로 하영 곶아 줍서예? 음, 쟁은에 이제 감저, 그 감저뻗테기 혜영도 풀고.(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 외도 말로 많이 말해 주십시오? 음, 그래서 이제 고구마, 그 절간고구마 해서도 팔고.)

103056 #2 아, 그거 허영 청 먹으른 또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엇주기.(아, 그거 해서 찌서 먹으면 또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

103056 @1 감저뻗테기를.(절간고구마를.)

103056 #2 아이고, 간식으로.(아이고, 간식으로.)

103056 #1 감저 무신거?(고구마 무엇?)

103056 @1 감저뻗테기.(절간고구마.)

103056 #2 감저뻗테기.(절간고구마.)

103056 #1 뻗테기?(절간고구마?)

103056 #2 뻗테기.(절간고구마.)

103056 #6 뻗, 뻗, 뻗.(뻗, 뻗, 뻗.)

103056 #1 뻗, 감저뻗테기?(뻗, 절간고구마?)

103056 @1 예, 무사 삼춘은 안 들어봅디가?(예, 왜 삼춘은 안 들어봅디가?)

103056 #3 무사.(왜.)

103056 @1 웃음.(웃음.)

103056 #6 아니, 그.(아니, 그.)

103056 #2 일본 가 분 때주게.(일본 가 버린 때지.)

103056 #6 그 전에는.(그 전에는.)

103056 @1 으.(으.)

103056 #6 그런 말은 엇엇어게.(그런 말은 없었어.)

103056 @1 아.(아.)

103056 #1 감저뻗테기란 말이 무슨 말이라게. 경 말은.(절간고구마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은.)

103056 @1 감저뻗테기 이제는 그냥 절간이라고 해놔수가? 옛날도.(절간고구마 이제는 그냥 절간이라고 했었습니까? 옛날도.)

103056 #1 아니.(아니.)

103056 #3 절간 아니, 절간은 야튼 중간에 그 절간보고 절간이라고.(‘절간’ 아니, ‘절간’은 하여튼 중간에 그 ‘절간’보고 ‘절간’이라고.)

103056 #2 썰영 물리는 거 보고 감저뻗테기 헛주게.(썰어서 말리는 거 보고 절간고구마 했지.)

103056 #1 썰영 물리는 걸 절간이라고 여기서.(썰어서 말리는 걸 ‘절간’이라고 여기서.)

103056 #3 허고.(하고.)

103056 #1 얘기헛고.(얘기헛고.)

103056 #2 옛날, 옛날 하르방이 아닌 생인고로. 웃음.(옛날, 옛날 할아버지가 아닌 모양이로고. 웃음.)

103056 #6 뻗테기.(절간고구마.)

103057 @1 뻗테기에,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그 감젓줄. 이 줄도 요긴하게 쓰는 거 아니우파예?(절간고구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구마줄기. 이 줄기도 요긴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요?)

103057 #6 소 멕이고.(소 먹이고.)

103057 #2 아이고, 쉼 멕이고.(아이고, 소 먹이고.)

103057 @1 어떻 헛수가? 그거는.(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103057 #6 소 멕여.(소 먹여.)

103057 @1 으, 게난 그 물리는 과정부터. 웨냐면 그 밭에서 비면 그다음 물리젠 허면 어떻 허여?(으, 그러니까 그 말리는 과정부터. 왜냐하면 그 밭에서 배면 그다음 말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

103057 #2 싹허게.(싹하게.)

103057 #1 아무 디라도 걸청 널영 내 불민 그냥 물르는 거.(아무 데라도 걸쳐서 널어서 내 버리면 그냥 마르는 거.)

103057 #2 호미로 허멍 거 췌안허게 널어.(낫으로 하면서 거 췌안허게 널어.)

103057 #1 비 맞고 뉘 행 놔두면은.(비 맞고 뉘 해서 놔두면.)

103057 #6 고구마 캐고 나면은.(고구마 캐고 나면.)
103057 @1 예.(예.)
103057 #6 그 밭에다.(그 밭에다.)
103057 @1 예.(예.)
103057 #6 헤쳐 널영 내 불든.(헤쳐서 널어서 내 버리면.)
103057 #2 호미로 도막도막 끊으멍 싹허게.(호미로 도막도막 끊으면서 싹하게.)
103057 #6 햇빛에 말르주게.(햇볕에 마르지.)
103057 @1 예.(예.)
103057 #6 마르면은 이젠 조금씩 뭉쳐 저.(마르면 이젠 조금씩 뭉쳐서 저.)
103057 #2 무경, 출 누는 식으로 무경은에 허영.(묶어서, 풀 가리는 식으로 묶어서 해서.)
103057 #6 집의 갖다 낳은에 데미주기.(집에 갔다 와서 쌓지.)
103057 #1 그냥 고구마 파는 날, 파는, 전이 그 캐영 저 허든 뭉텅이 그냥 갖당 밧 예염에도 데껴 불곡 영 허영 넓형 내 불영 허든 비 맞고.(그냥 고구마 파는 날, 파는, 전에 그 캐어서 저 하면 뭉텅이 그냥 갖다가 밧 가장자리에도 던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넓혀서 내 버려서 하면 비 맞고.)
103057 @1 예.(예.)
103057 #1 므르곡 비 맞고 므르고 행은에 것이 다 몰라 가지고 헐 때 잘 몰라 시민 걸 못우아다가.(마르곡 비 맞고 마르고 해서 것이 다 말라 가지고 할 때 잘 말랐으면 걸 모아다가.)
103057 @1 예.(예.)
103057 #1 집의 가져당은에 늘 늘어. 경 행근에 우마에게 그 출로 주곡.(집에 가져다가 가리 가리어. 그렇게 해서 우마에게 그 풀로 주고.)
103057 @1 예.(예.)
103057 #1 또 아니든 불 습곡.(또 아니면 불 때고.)
103057 @1 감젓줄로도.(고구마줄기로도.)
103057 #1 감젓줄로도 불 습아.(고구마줄기도 불 때.)
103057 @1 것도 불 습아마씨?(것도 불 때어요?)
103057 #1 어.(어.)
103057 #3 예.(예.)
103057 #6 겐디 그거는.(그런데 그거는.)
103057 #1 므퇴고 좋느니라.(마디고 좋으니라.)
103057 #3 예, 감젓줄 습지 아녀곡.(예, 고구마줄기 때지 앓고.)
103057 @1 음.(음.)
103057 #6 그거는 소 맥이는 것이 오히려.(그거는 소 먹이는 것이 오히려.)
103057 #3 주로 그 주식 저 소 주식으로 나가고.(주로 그 주식 저 소 주식으로 나가고.)

103057 #2 그렇주.(그렇지.)

103057 #1 췌 신, 췌 신 사름이든게 소 맥이지게.(소 있는, 소 있는 사람이면 소 먹이지.)

103057 @1 예.(예.)

103057 #3 췌 웃인 사름은.(소 없는 사름은.)

103057 #1 웃인 사름은.(없는 사름은.)

103057 #3 예, 건 맞고.(예, 건 맞고.)

103057 #1 밥해 먹었어, 걸로.(밥해 먹었어, 걸로.)

103057 #3 경 헤여도 그런 거도 맞수다, 현디.(그렇게 해도 그런 거도 맞습니다, 한데.)

103057 #1 경 허고 또 므퉁여게.(그렇게 하고 또 마디어.)

103057 #3 감저 그 줄을 아까 얘기했는데.(고구마 그 줄을 아까 얘기했는데.)

103057 @1 예.(예.)

103057 #3 그게 솔직이 팔 적에 그 밧담.(그게 솔직히 팔 적에 그 밧담.)

103057 @1 예.(예.)

103057 #3 담더레 꺾어당근에 걸치는 사름도 잇고.(담으로 끌어다가 걸치는 사 람도 잇고.)

103057 @1 예.(예.)

103057 #3 감저 파는, 힘들영 허질 못허거든. 게민 예를 들민 낫당 뒷날 그걸 가서 헤청도 허고.(고구마 파는, 힘들어서 하질 못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낫다가 뒷날 그걸 가서 헤쳐서도 하고.)

103057 #2 파난, 파난 밧디 다 펜안히 널어.(팠던, 팠던 밧에 다 펜안히 널어.)

103057 #3 널어. 아까도 꼴앗주만 다 널영. 게 가지고 것도 비 맞으민은 소가 잘 안 먹어, 요게.(널어. 아까도 말했지만 다 널어서. 그래 가지고 것도 비 맞으면 소가 잘 안 먹어, 요게.)

103057 @1 예, 예.(예, 예.)

103057 #3 안, 먹지 안허여. 게면은.(안, 먹지 않아. 그러면은.)

103057 #6 이파리가 다 썩, 변허주게.(이파리가 다 썩, 변하지.)

103057 #3 가능적이든 몰룻쟁 허민 비와 가민 강 거두어. 놀에 대행 거두운 말 로.(가능하면 말랐다고 하면 비와 가면 가서 거두어. 가리에 대해서 거둔 말로.)

103057 @1 예.(예.)

103057 #3 무경. 밧디 놀영 낫당 저오는 사름도 잇고. 그렇지 았으면 무끄멍 그 자 자식이나 신 사름덜은 무끄는 대로 그 자기대로 운반허영 저오꼭 다 경 허는 거 주게.(뭉어서. 밧에 가리어 낫다가 저오는 사름도 잇고. 그렇지 았으면 뭉으면서 그 저 자식이나 있는 사름들은 뭉는 대로 그 자기대로 운반해서 저오고 다 그렇게 하 는 거지.)

103057 @1 예, 알아수다.(예, 알았습니다.)

103057 #6 견디 아까 그 담에 걸친덴 허는 건.(그런데 아까 그 담에 걸친다고 하 는 건.)

103057 @1 으.(으.)

103057 #6 조금씩 헨 사름.(조금씩 한 사람.)

103057 #2 소수자.(소수자.)

103057 #6 생각을 허여봐게. 큰큰헌 밧데 그 해 낱 어떻 담에 거.(생각을 해봐. 크나큰 밧에 그 해 낱서 어떻게 담에 거.)

103057 #2 담에 어떻 다 걸쳐.(담에 어떻게 다 걸쳐.)

103057 #6 밧에 그냥.(밧에 그냥.)

103057 #3 감젓그루에.(고구마그루에.)

103057 @1 감젓그루에.(고구마그루에.)

103057 #3 감젓그루에 다 너는 거.(고구마그루에 다 너는 거.)

103058 @1 예, 알아수다. 감저그루에. 그치룩 허영 이제 그 다 수확허면 풀 건 팔고, 예.(예, 알았습니다. 고구마그루에. 그처럼 해서 이제 그 다 수확하면 팔 건 팔고, 예.)

103058 #3 으.(으.)

103058 @1 게, 그냥 날고구마로 파는 거를 뭐렌 험니까?(그럼, 그냥 날고구마로 파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103058 #6 전분, 전분공장에.(전분, 전분공장에.)

103058 @1 전분공장에 풀 때, 그 날고구마를 여기선 뭐렌 불러?(전분공장에 팔 때, 그 날고구마를 여기선 뭐라고 불러?)

103058 #6 생감제.(생고구마.)

103058 #3 생감제.(생고구마.)

103058 #2 생감저.(생고구마.)

103058 #3 썩감저로 푸는 거.(생고구마로 파는 거.)

103058 @1 썩감저로예, 예. 썩감저로 풀고. 그다음 그거는 굵은 것덜 푸는 거 아니우파예, 훤은 거? 훤은 거. 그 쥌쥌헌 것들은 또 뵈 헛수가?(생고구마로요, 예. 생고구마로 팔고. 그다음 그거는 굵은 것들 파는 거 아닙니까, 굵은 거? 굵은 거. 그 자잘한 것들은 또 무엇 헛습니까?)

103058 #2 골랑 낫당 흐뵈 시들랑은에 칭 먹고.(골라서 낫다가 조금 시들게 해서 찌서 먹고.)

103058 #6 처 먹고.(찌 먹고.)

103058 @1 그다음에?(그다음에?)

103058 #2 시들랑 치믄 상당히 맛이 좋아.(시들어서 찌면 상당히 맛이 좋아.)

103058 @1 찌꺼기들은?(찌꺼기들은?)

103058 #2 찌꺼기는 뭐 돼지도 주고.(찌꺼기는 뭐 돼지도 주고.)

103058 #3 찌꺼긴 돼지. 돼지용 그건.(찌꺼긴 돼지. 돼지용 그건.)

103058 @1 건 돼지용예, 예. 알았수다.(건 돼지용요, 예. 알았습니다.)

103058 #3 감저텡쿠리영 뉘영 허민 다 돼지?(고구마줄기랑 뉘랑 하면 다 돼지?)

103058 @1 으, 감저텡쿠리?(으, 고구마줄기?)

103058 #3 텡쿠리. 감저 부터난, 슬진다 말여 텡쿠리가.(줄기. 고구마 붙었던, 살 찐다 말이야, 줄기가.)

103058 @1 예.(예.)

103058 #3 게민 감즈아취²¹⁹엔 허영은에 모앗당 도새기 것 주는 거주.(그러면 ‘고구마아취’라고 해서 모았다가 돼지 먹이 주는 거지.)

103058 #2 으, 것도 돼지렌 허지 말양 도새기렌 헤알로구나.(으, 것도 돼지라고 하지 말고 ‘도새기’라고 해야 할로구나.)

103058 @1 감저아취, 아까 뉘마씨?(‘고구마아취’, 아까 뉘라고요?)

103058 #3 감저게, 존존현 거, 거 부튼 거 텡쿠리에.(고구마, 자잘한 거, 거 붙은 거 줄기에.)

103058 @1 예.(예.)

103058 #3 부뜨렌, 감저 텡쿠리에 부튼 건 존 것덜은 그냥 낱.(붙으라고, 고구마 줄기에 붙은 건 잔 것들은 그냥 놔서.)

103058 @1 예.(예.)

103058 #3 헛당 도새기.(했다가 돼지.)

103058 #2 도새기 것 주는 거.(돼지 먹이 주는 거.)

103058 #3 주는 거.(주는 거.)

103058 @1 예, 예. 게난 도새기 것으로 하영 현 거라예?(예, 예. 그러니까 돼지 먹이로 많이 한 거네요?)

103058 #3 으, 하영 현 거주.(으, 많이 한 거지.)

103056 @1 예, 혹시 씨감저만 더 귀하게 영 허영은에 먼저 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헵니까? 씨감절 어떻 허여?(예, 혹시 ‘씨고구마’만 더 귀하게 이렇게 해서 먼저 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헵니까? ‘씨고구마’를 어떻게 해?)

103056 #3 씨감저²²⁰ 먼저 허는 거주.(‘씨고구마’ 먼저 하는 거지.)

103056 #6 씨감저는.(‘씨고구마’는.)

103056 @1 예.(예.)

103056 #6 고구마 잇는, 많이 잇는 데서.(고구마 잇는, 많이 잇는 데서.)

103056 #2 상처 안 난 거.(상처 안 난 거.)

103056 #6 어떤 걸로 허느냐 허문.(어떤 걸로 하느냐 하면.)

103056 @1 예.(예.)

103056 #6 켈 큰 것도 말고.(켈 큰 것도 말고.)

103056 @1 예.(예.)

219) ‘감저아취’는 제주시 외도동에서 ‘고구마가 달렸던 줄기’를 말한다.

220) ‘씨감저’는 모종으로 쓸 고구마를 말한다.

103056 #6 작은 것도 말고 중질.(작은 것도 말고 중질.)
103056 #3 중질.(중질.)
103056 @1 예.(예.)
103056 #2 상처 안 난 거.(상처 안 난 거.)
103056 #6 그리고 상처 안 나고.(그리고 상처 안 나고.)
103056 @1 음.(음.)
103056 #6 깨끗한 거.(깨끗한 거.)
103056 @1 음.(음.)
103056 #3 그렇주.(그렇지.)
103056 #6 아까 굼벵이 얘기했주마는 그때도 굼벵이가 있긴 있었어.(아까 굼벵이 얘기했지만 그때도 굼벵이가 있긴 있었어.)
103056 @1 예.(예.)
103056 #3 그렇주.(그렇지.)
103056 #6 굼벵이 안 파고.(굼벵이 안 파고.)
103056 @1 예.(예.)
103056 #6 깨끗한 거. 그런 걸로 먼저 추령.(깨끗한 거. 그런 걸로 먼저 추려서.)
103056 @1 음.(음.)
103056 #3 게만 제주도 말로 고운 걸로 골령.(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고운 걸로 골라서.)
103056 @1 예. 곧 걸로 골령. 맞수다. 게만 이제 가장 감져 수확하면 맨 먼저 허는 게 씨감져 골르는.(예. 고운 걸로 골라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고구마 수확하면 맨 먼저 하는 게 씨고구마 고르는.)
103056 #3 아주 우선이주.(아주 우선이지.)
103056 @1 거 다예? 걸 먼저 해 낱.(거 다요? 걸 먼저 해 놓아서.)
103056 #3 그렇주.(그렇지.)
103056 @1 게만 그때 눕니까? 아니면 나중에 누는 거?(그러면 그때 가렵니까? 아니면 나중에 가리는 거?)
103056 #3 그때 늘어.(그때 가리어.)
103056 #6 쪼끔 이, 저 그냥 노지에서.(쪼끔 이, 저 그냥 노지에서.)
103056 @1 예, 예.(예, 예.)
103056 #2 수분 흠뻑 제혀영. 흠뻑 물리왕.(수분 조금 제해서. 조금 말려서.)
103056 @1 흠뻑 물린 다음에예?(조금 말린 다음에요?)
103056 #2 이삼일.(이삼일.)
103055 @1 예, 예. 알았수다. 그다음에 감져 팔 때라든가 아니면 감져줄 빌 때라든가 이제 잊어볼지 못하는 추억거리 있으면은?(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팔 때라든가 아니면 고구마줄기 벨 때라든가 이제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거리

리 있으면?)

103055 #6 감저, 줄 비는 게 좀 힘들주게.(고구마, 줄 베는 게 좀 힘들지.)

103055 @1 예.(예.)

103055 #6 그게.(그게.)

103055 #2 힘들어.(힘들어.)

103055 #3 난 감젓줄 동기렌, 누님 감젓줄 비곡. 또 앞으로 동겨가민 거 동겨줍서, 허민 돌로 맞히곡.(난 고구마줄기 당기라고, 누님 고구마줄기 베고. 또 앞으로 동겨가면 거 당겨 주십시오, 하면 돌로 맞히고.)

103055 #2 웃음.(웃음.)

103055 #1 이놈의 새끼 자게 잘 안 등검젠.(이놈의 새끼 재우 잘 안 당긴다고.)

103055 #2 잘 안 등검젠.(잘 안 당긴다고.)

103055 #3 게문 또 이젠 힘 엇이민 이젠 웨스렁으로 이젠 땡긴단 말여.(그러면 또 이젠 힘 없으면 이젠 쇠스랑으로 이젠 당긴단 말이야.)

103055 @1 예.(예.)

103055 #3 게민 이제 웨스렁 잘못허민 호미질허는 디 강 웨스렁 거쨌 낱 잘못 행 욱 들고.(그러면 이제 쇠스랑 잘못하면 낫질하는 데 가서 쇠스랑 건드려 놔서 잘못해서 욱 들고.)

103055 @1 예.(예.)

103055 #3 거 추억이 많아. 감저는 솔직히.(거 추억이 많아. 고구마는 솔직히.)

103055 @1 예.(예.)

103055 #1 감젓줄 걷는다는 게이, 그 고, 이 감저, 고구마를 논 것은 다른 거보단도 고지를 영 올리면서 해 놓난.(고구마줄기 걷는다는 게, 그 고, 이 고구마, 고구마를 놓은 것은 다른 거보단도 이랑을 이렇게 올리면서 해 놓으니까.)

103055 @1 예.(예.)

103055 #1 고지와 ** 이랑.(이랑과 ** 이랑.)

103055 #3 감저 이랑.(고구마 이랑.)

103055 #1 간 거 보단도 오히려 그 구덩이채로 올리니까.(간 거 보다도 오히려 그 구덩이채로 올리니까.)

103055 @1 예.(예.)

103055 #1 이랑이 더, 더 커져이.(이랑이 더, 더 커져.)

103055 @1 예.(예.)

103055 #1 게문 그거 약 혼 두 개쨌이나 세 개, 세 고지 행은에.(그러면 그거 약 한 두 개쨌이나 세 개, 세 이랑 해서.)

103055 #3 세 개.(세 개.)

103055 #1 영 사이로 호미로 허영은에.(이렇게 사이로 낮으로 해서.)

103055 #2 짹짹 끊어가주. 끊어가근에.(짹짹 끊어가지. 끊어가서.)

103055 #1 끊영. 영 영 질게 끊영 이제 두 고지믄 두 고지 세 고지믄 혼 사름은

쉐사랑으로이.(끊어서. 이렇게 이렇게 길게 끊어서 이제 두 이랑이면 두 이랑 세 이
랑이면 한 사람은 쇠사랑으로.)

103055 @1 예.(예.)

103055 #1 끊으멍 혼 사름은 뒤에서.(끊으면서 한 사람은 뒤에서.)

103055 #3 호미로.(낫으로.)

103055 #1 호미로 저 끊엉.(낫으로 저 끊어서.)

103055 @1 비여주고, 예.(베어주고, 예.)

103055 #1 경 허영근에 내쳐.(그렇게 해서 내쳐.)

103055 @1 아. 게난 이 인 일 조 헤영은에 빈 거구나예?(아. 그러니까 이 인 일
조 해서 벤 거군요?)

103055 #1 어, 그런 정도.(어, 그런 정도.)

103055 #3 경도 허곡.(그렇게도 하고.)

103055 #1 건 많이 허는 거이.(건 많이 하는 거.)

103055 #3 혼자, 혼자.(혼자, 혼자.)

103055 #1 많이 허는 거.(많이 하는 거.)

103055 @1 아, 혼자?(아, 혼자?)

103055 #1 혼자가 허는 수가 있지만 많이 헐 때는 그렇게.(혼자가 하는 수가 있
지만 많이 할 때는 그렇게.)

103055 #3 이 인 일 조.(이 인 일 조.)

103055 #6 게난 줄이.(그러니까 줄기가.)

103055 #2 사름이 남아돌아 갈 땐 뭐 들이허고 경 아녀민.(사람이 남아돌아 갈
땐 뭐 들이하고 그렇게 양으면.)

103055 #6 줄이, 고구마줄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엉켜져.(줄이, 고구마줄기가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엉켜어져.)

103055 #3 엉클어지주, 엉클어져.(엉클어지지, 엉클어져.)

103055 #6 막 그렇게 놓니까.(막 그냥 놓으니까.)

103055 #2 골로 다 고랑 쳐야.(골로 다 고랑 쳐야.)

103055 #6 중간에서 끊엉.(중간에서 끊어서.)

103055 @1 예.(예.)

103055 #6 두 고지에 두 고지에 혼, 하나씩 행 미리 잘라 낱.(두 이랑에 두 이
랑에 한, 하나씩 해서 미리 잘라 놔서.)

103055 @1 아.(아.)

103055 #6 이렇게.(이렇게.)

103055 @1 그럼 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할려고예?(그럼 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하려고요?)

103055 #3 게난 하영 현 분덜은 뒷날 감저 파젠 허민 아시날 강 문딱 고랑 청
딱 끊기 좋게 행 놔두주게. 멘들양 놔뒤.(그러니까 많이 한 분들은 뒷날 고구마 파

려고 하면 전날 강 몽땅 고랑 쳐서 딱 끊기 좋게 해서 놔두지. 만들어서 놔둬.)

103055 @1 아, 미리 고랑마다 짤랑예? 아.(아, 미리 고랑마다 잘라서요? 아.)

103055 #3 바쁘니까, 쉼로 갈민 바쁘니까 미리 헤영 낫당.(바쁘니까, 소로 갈면 바쁘니까 미리 해서 낫다가.)

103055 @1 음.(음.)

103055 #3 걷어 가명 파곡 좇어 가명 허곡 다 허는 거.(걷어 가면서 파고 주워 가면서 하고 다 하는 거.)

103055 @1 으, 이제 흑.(으, 이제 흑.)

103055 #2 옛날 하르방덜토 모자 안 썩 데가리덜 쓴 거라.(옛날 할아버지들도 모자 안 써서 대가리들 쓴 거야.)

103055 #3 웃음.(웃음.)

103055 @1 으, 웃음.(으, 웃음.)

103055 #2 그 샷갓 썩은에 만날 허여도 안 돼여.(그 샷갓 써서 만날 하여도 안 되어.)

103055 @1 예.(예.)

103055 #2 데가리를 써야주.(대가리를 써야지.)

103055 @1 으, 알았수다. 켜디 이제 옛날에 이제 다른 데 강 조사허당 보면 무슨 얘기 허느냐 허면 감저뻗테기 헐 때예, 이제 비 왁직허면.(으, 알았습니다. 그런 데 이제 옛날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조사하다가 보면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절간고 구마 할 때요, 이제 비 올 듯하면.)

103055 #3 으.(으.)

103055 @1 밤에도 강 막 좇어낫덴 험디다.(밤에도 가서 막 주웠었다고 합디다.)

103055 #2 아이고, 밤에도. 아이고, 젓어 불른 안 돼니까.(아이고, 밤에도. 아이고, 젓어 버리면 안 되니까.)

103055 #6 젓으면 색깔이 변허니까.(젓으면 색깔이 변하니까.)

103055 @1 예.(예.)

103055 #2 색깔도 변허곡 젓기도 허곡.(색깔도 변하고 젓기도 하고.)

103055 #6 맛도 없고게.(맛도 없고.)

103055 #2 곰팡이 피곡.(곰팡이 피고.)

103055 #3 건 값도 안 주주기.(건 값도 안 주지.)

103055 @1 예.(예.)

103055 #3 비 맞고 현 건. 게니까 뻗테기 허난 저 남군더렌 출밭디 넓어 가지고 강 보민 우리 ***** 막 그런 디 허는다. 여기는 그런 이 아직 출왓덜이 *** 없어. (비 맞고 한 건. 그러니까 절간고구마 하니까 저 남군으론 풀밭에 넓어 가지고 가서 보면 우리 ***** 막 그런 데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이 아직 풀밭들이 *** 없어.)

103055 #6 널 디가 엇주게.(널 데가 없지.)

103055 #2 지붕 위의 강 널곡.(지붕 위에 가서 널고.)

103055 #3 계란 여기서는 썩감저를 주로 많이 풀았주, 무슨 뺏데기는.(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고구마를 주로 많이 팔았지, 무슨 절간고구마는.)

103055 #2 뺏데기 허는 건 그자 집의서 먹을 거.(절간고구마 하는 건 그저 집에서 먹을 거.)

103055 @1 아.(아.)

103055 #3 주식으로.(주식으로.)

103055 @1 썩감저로.(생고구마로.)

103055 #2 지붕 우의덜 강 널영은에 들류왕.(지붕 위에들 가서 널어서 말려서.)

103055 @1 예, 알았수다.(예, 알았습니다.)

103055 #2 놀 우의도 널곡.(가리 위에도 널고.)

103055 #3 그림. 마당에서 멍석 폐왕 헛주마는.(그림. 마당에서 멍석 펴서 했지 만.)

103055 #2 그거 참 얼마나 뺏데기 꿀맛이라. 꿀맛.(그거 참 얼마나 절간고구마 꿀맛이야. 꿀맛.)

103055 #3 여기, 여기덜은 뺏데기는 그렇게 심하게 허지는 안허연.(여기, 여기들은 절간고구마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어.)

103057 @1 으, 뺏데기를 헤영 청 먹는 거예?(으, 절간고구마를 해서 찌서 먹는 거요?)

103057 #2 청 먹으른 뒤 아주 꿀맛이라.(찌서 먹으면 뒤 아주 꿀맛이야.)

103057 #3 감저 썰어 가지고 뺏아 가지고 또 것도 뺏앙 걸로 즈베기도 헤영 먹 곡.(고구마 썰어 가지고 빵아 가지고 또 것도 빵아서 걸로 수제비도 해서 먹고.)

103057 @1 예.(예.)

103057 #3 떡도 감저떡도 행 먹고 다 헛주기.(떡도 고구마떡도 해서 먹고 다 했 지.)

103057 @1 아, 감저ㄴ를도 즈베, 즈베기도 행 먹어마씨?(아, 고구마가루도 수 제, 수제비도 해서 먹어요?)

103057 #3 뺏데기 뺏앙.(절간고구마 빵아서.)

103057 @1 아.(아.)

103057 #2 방엿혹에도 강 뺏곡 이 저 돌리는 방에에도 강 등그령은에 헤났어.(방아확에도 가서 빵고 이 저 돌리는 방아에도 가서 굴려서 했었어.)

103057 #3 걸 뺏앙.(걸 빵아서.)

103057 @1 아.(아.)

103057 #3 게영 ㄴ를 내와 가지고 먹엇주게.(그렇게 해서 가루 나게 해 가지고 먹엇지.)

103057 #2 체로 천게.(체로 쳐서.)

103057 #6 견디 그거는 극히 드문.(그런데 그거는 극히 드문.)

103057 @1 예, 예, 예.(예, 예, 예.)

103057 #3 드물어도 경 허는 사람도 있어났어.(드물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

103057 #2 부제침이덜은 하영 허른 몰방에 강 헛어게.(부жат집들은 많이 하면 연 자매에 가서 했어.)

기타 농사

103060 @1 예, 알아수다. 혹시 여기 수박도 갈아났수가?(예, 알았습니다. 혹시 여기 수박도 갈았었습니까?)

103060 #2 아, 수박 있어났주.(아, 수박 있었었지.)

103060 #6 근래에 해났주. 근래에.(근래에 했었지. 근래에.)

103060 @1 아.(아.)

103060 #3 이 두 분 거 수박 전문가주.(이 두 분 거 수박 전문가지.)

103060 @1 아, 기우파?(아, 그렇습니까?)

103060 #3 웃음.(웃음.)

103060 @1 그 수박은 어떻 갈양 허는 건지 게른 곶아 쥐 봅서?(그 수박은 어떻게 갈아서 하는 건지 그러면 말해 쥐 보십시오?)

103060 #2 메종 사당 헛어.(모종 사다가 했어.)

103060 #6 묘종 전문으로 놔 가지고.(모종 전문으로 놔 가지고.)

103060 @1 예.(예.)

103060 #6 파는 사람 잊주게. 거기 강 사당게.(파는 사람 있지. 거기 가서 사다가.)

103060 @1 어느 철에 허는 거우파? 수박은.(어느 철에 하는 겁니까? 수박은.)

103060 #6 요즘, 아, 저 수박이.(요즘, 아, 저 수박이.)

103060 #2 삼월 혼 이십 일 썸에 싱거.(삼월 한 이십 일 썸에 심어.)

103060 @1 으.(으.)

103060 #6 음, 삼월 이십 일 썸에 답다.(음, 삼월 이십 일 썸에 같다.)

103060 @1 게른 이제 여름에까지 계속하는 거라예? 어느, 몇 년도썸에 그 수박을 싱거납디가?(그러면 이제 여름에까지 계속하는 거네요? 어느, 몇 년도썸에 그 수박을 심었었습니까?)

103060 #6 아이고, 그거 해나건지가 혼.(아이고, 그거 한 지가 한.)

103060 #2 혼 삼십 년 걸려.(한 삼십 년 걸려.)

103060 #3 삼십 년이여 뿔이여.(삼십 년이야 뿔이야.)

103060 #6 이십 년이 넘은 거 닻다.(이십 년이 넘은 거 같다.)

103060 #3 맞추게. 이십 년 넘주.(맞지. 이십 년 넘지.)

103060 @1 예.(예.)

103060 #2 이십 년이 넘어. 거의 삼십 년.(이십 년이 넘어. 거의 삼십 년.)

103060 @1 게른 이제 그렇게 허고. 춤웨는? 여기 춤웨도 싱거?(그러면 이제 그

령게 하고. 참외는? 여기 참외도 심어?)
 103060 #3 아이고, 심주.(아이고, 심지.)
 103060 #2 춤웨도 싱그긴 현디 일부.(참외도 심기는 하는데 일부.)
 103060 @1 으.(으.)
 103060 #6 쪼끔.(쪼끔.)
 103060 @1 게난 수박은 이제 돈벌이용으로 싱그긴 헛는데.(그러니까 수박은 이
 제 돈벌이용으로 심긴 헛는데.)
 103060 #2 돈벌이로.(돈벌이로.)
 103060 @1 춤웨는 경 안 허고예?(참외는 그렇게 안 하고요?)
 103060 #2 손이 많이 가서 전문가 아니믄.(손이 많이 가서 전문가 아니면.)
 103060 #3 무사게, 그 돈벌이로 허는 분덜이 셔낫주게.(왜, 그 돈벌이로 하는 분
 들이 있었지.)
 103060 #2 전문가.(전문가.)
 103060 @1 이 동네서도?(이 동네서도?)
 103060 #3 이 동네서도.(이 동네서도.)
 103060 #6 춤웨는 밧디서 살아야 돼여. 노상 그거 손봐야 돼니까.(참외는 밧에
 서 살아야 되어. 노상 그거 손봐야 되니까.)
 103061 @1 음. 아아, 춤웨는예? 수박은 경 안 헛니까?(음. 아아, 참외는요? 수
 박은 그렇게 안 합니까?)
 103061 #6 수박은 그때그때.(수박은 그때그때.)
 103061 @1 으, 게믄 어떤 걸 손보는 겨우짜? 춤웨는?(으, 그러면 어떤 걸 손보
 는 겁니까? 참외는?)
 103061 #6 춤웨는 이파리가 몇 개 나면은.(참외는 이파리가 몇 개 나면은.)
 103061 @1 예.(예.)
 103061 #2 몇 마디꺼지 잘라 주고.(몇 마디까지 잘라 주고.)
 103061 #6 또 꽃도 따 줘야 돼여.(또 꽃도 따 줘야 되어.)
 103061 #2 순도 따 주고.(순도 따 주고.)
 103061 #6 막 그냥 뺏고? 그냥 내 불믄 순이 그냥 엄청나게 나주게.(막 그냥 무
 엇이니? 그냥 내 버리면 순이 그냥 엄청나게 나지.)
 103061 @1 예.(예.)
 103061 #6 경 허민 달리지도 안헛 뿐더러 달려도.(그렇게 하면 달리지도 았을
 뿐더러 달려도.)
 103061 @1 예.(예.)
 103061 #6 그 제주도말로 간잘귀엔 현 거 잇어이?(그 제주도말로 '간잘귀'라고
 한 거 잇어?)
 103061 @1 예, 예.(예, 예.)
 103061 #6 알아져?(알아져?)

103061 @1 예.(예.)
 103061 #6 그 간잘귀 모양으로 즐, 즐아게.(그 개똥참외 모양으로 잘, 잘아.)
 103061 @1 아.(아.)
 103061 #6 게른 상품 가치가 없다는 얘가지.(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얘가지.)
 103061 @1 예, 예.(예, 예.)
 103061 #6 많이 달리믄.(많이 달리면.)
 103061 @1 음.(음.)
 103061 #6 게니까 그렇지 못허게 그 가지치기도 해 주고.(그러니까 그렇지 못허게 그 가지치기도 해 주고.)
 103061 @1 으.(으.)
 103061 #6 꽃도 따 주고.(꽃도 따 주고.)
 103061 @1 아.(아.)
 103061 #6 사람이 그개 이파리 멧 개에서 그거를 이젠 그 전에 거는 이제 따 불고 이파리 멧 개 또 그걸 세어 가지고.(사람이 그개 이파리 멧 개에서 그거를 이젠 그 전에 거는 이제 따 버리고 이파리 멧 개 또 그걸 세어 가지고.)
 103061 @1 음.(음.)
 103061 #6 그런 식으로 허기 때문에.(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03061 #2 세 마디에 하나씩 졸랑 손지순²²¹⁾에서, 손지순에서.(세 마디에 하나씩 자라서 ‘손지순’에서, ‘손지순’에서.)
 103061 #6 손이 많이 가주게, 손이 많이 가.(손이 많이 가지, 손이 많이 가.)
 103061 @1 잠깐만예? 아까 손지순은 뭐우짜?(잠깐만요? 아까 ‘손지순’은 뭇니까?)
 103061 #2 세 번째 순.(세 번째 순.)
 103061 @1 거를 손지순이렌 곶아예?(거를 ‘손지순’이라고 말해요?)
 103061 #2 흔 번 나온 순 세 마디에서 끊어 불믄.(한 번 나온 순 세 마디에서 끊어 버리면.)
 103061 @1 예.(예.)
 103061 #2 거 그 사이에 또 나올 거 아니라게.(거 그 사이에 또 나올 거 아닌가.)
 103061 @1 예.(예.)
 103061 #3 가달 거려²²²⁾.(다리 거려.)
 103061 #2 거리믄 세 마디, 이 저 이파리 세 개 나오민 세 마디 나오믄 또 끊어 불거든.(거리면 세 마디, 이 저 이파리 세 개 나오면 세 마디 나오면 또 끊어 버리거든.)

221) ‘손지순’은 참외 따위의 순 가운데 세 번째 순을 말한다.

222) ‘거려’는 ‘식물의 순 따위가 마디에서 새로 생겨 뻗어나가’라는 의미다.

- 103061 @1 예.(예.)
- 103061 #2 게, 세 번째 허문 그뎨 그 열매 달린 거 꽃 핀 거 그거.(게, 세 번째 하면 그뎨 그 열매 달린 거 꽃 핀 거 그거.)
- 103061 @1 그걸 여기서 손지순이렌 헤예?(그걸 여기서 ‘손지순’이라고 한다고 요?)
- 103061 #2 손지순.(‘손지순’.)
- 103061 @1 손지순. 그러면 아까 우예를 이렇게 찢라 버리는 거예, 거를 뭐렌 겁니까?(‘손지순’. 그러면 아까 위를 이렇게 자라 버리는 거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 103061 #6 우막는²²³ 거.(‘우막는’ 거.)
- 103062 @1 우막는 거예? 예. 고치도 싱것수가?(‘우막는’ 거요? 예. 고추도 심었 습니까?)
- 103062 #6 고치도.(고추도.)
- 103062 #3 아, 고치도 싱그주.(아, 고추도 심지.)
- 103062 @1 고치는 어느제 싱그는 겨우파?(고추는 언제 심는 겁니까?)
- 103062 #2 요새덜토 많이 싱그주.(요새들도 많이 심지.)
- 103062 #1 봄에 싱그주게, 봄에.(봄에 심지, 봄에.)
- 103062 @1 봄에 싱그고.(봄에 심고.)
- 103062 #1 것도 뭐 수박 싱글 무렵이든 싱그주. 그 전이, 그 전이 싱그는 사람 도 잇주게. 요즘은 뭐.(것도 뭐 수박 심는 무렵이면 심지. 그 전에, 그 전에 심는 사람도 있지. 요즘은 뭐.)
- 103062 #6 고치, 삼월, 삼월 말 내지 중순.(고추, 삼월, 삼월 말 내지 중순.)
- 103062 @1 예.(예.)
- 103062 #6 늦으면 사월 초.(늦으면 사월 초.)
- 103062 @1 아, 삼월에. 보통 모종들은 다 봄에 싱검신게예? 계난 삼춘네도 고 치 하영 싱거 판마씨?(아, 삼월에. 보통 모종들은 다 봄에 심고 있네요? 그러니까 삼춘네도 고추 많이 심어 봤어요?)
- 103062 #6 하영은 아녀도 그자 이녁 먹을 거.(많이는 앓아도 그저 이녁 먹을 거.)
- 103062 @1 이녁.(이녁.)
- 103062 #2 흔 백 근 정도.(한 백 근 정도.)
- 103063 @1 그다음에 느닐은?(그다음에 배추는?)
- 103063 #6 느닐도 뭐 심고.(배추도 뭐 심고.)
- 103063 @1 배추.(배추.)
- 103063 #2 느닐 싱것당 므시딱.(배추 심었다가 몽땅.)
- 103063 #6 느닐도 품종에 따라랑 틀리고.(배추도 품종에 따라서 다르고.)

223) ‘우막는’은 ‘식물의 줄기 따위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줄기 끝을 잘라주는’의 의미다.

103063 @1 예.(예.)

103063 #6 또 그 녹물을 어느제 먹을 거 그걸 우선 생각했 심어야주게.(또 그 배추를 언제 먹을 거 그걸 우선 생각해서 심어야지.)

103063 @1 예. 게든 이제 보통 이제 만약에 이제 김장녹물예?(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만약에 이제 김장배추요?)

103063 #6 김장녹물은.(김장배추는.)

103063 @1 어.(어.)

103063 #6 칠팔월 때 과종을 허는 거고.(칠팔월 때 과종을 하는 거고.)

103063 @1 예.(예.)

103063 #6 그냥 이제게 봄배추니 뭐니 혜영 허지 아녀게?(그냥 이제 봄배추니 뭐니 해서 하지 않는가?)

103063 @1 예.(예.)

103063 #6 것보고 뭐라드라. 그냥 막 저 아이고, 얼른 생각 안 남쨌.(것보고 뭐라더라. 그냥 막 저 아이고, 얼른 생각 안 나네.)

103063 @1 뭐 봄동?(뭐 봄동?)

103063 #2 봄동? 봄배추.(봄동? 봄배추.)

103063 #6 봄배추.(봄배추.)

103063 @1 예.(예.)

103063 #3 봄배추.(봄배추.)

103063 #6 봄배추보고 뭐라더라? 하여튼 그 자기가 어느 시기에 먹, 먹기 위해서 그 시기에.(봄배추보고 뭐라더라? 하여튼 그 자기가 어느 시기에 먹, 먹기 위해서 그 시기에.)

103063 @1 싱그는 거라예?(심는 거네요?)

103063 #6 싱그는 거주.(심는 거지.)

103063 @1 계난 보통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치록 생각허명 싱그지 안헛일 거 아니라예? 계절이, 보통 하면 그 배추는 칠팔월?(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심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계절이, 보통 하면 그 배추는 칠팔월?)

103063 #6 김장배추?(김장배추?)

103063 @1 예.(예.)

103063 #2 김장배추는.(김장배추는.)

103064 @1 칠팔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늬삐는 언제 싱거마씨?(칠팔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언제 심어요?)

103064 #6 늬삐도.(무도.)

103064 #2 거의 비슷하게 싱거.(거의 비슷하게 심어.)

103064 #6 팔월에.(팔월에.)

103064 #1 늬삐는 원래 할망덜 말이, 이 과종을 허는 그이, 칠월을 흐를이라고

줘야 돼야 된다 허여. 게니까 이.(무는 원래 할머니들 말이, 이 파종을 하는 그이, 칠월을 하루라고 줘야 되야 된다 해. 그러니까 이.)

103064 @1 으.(으.)

103064 #1 마, 칠월달에 파종할 땐 흐를이라도 칠월달이 있어야지이, 칠월달이 넘으면 늦는다는 얘기지.(마, 칠월에 파종할 땐 하루라도 칠월이 있어야지, 칠월이 넘으면 늦는다는 얘기지.)

103064 #6 무슨 얘기냐 허문.(무슨 얘기냐 하면.)

103064 @1 으.(으.)

103064 #6 그 지금 칠월은 음력을 말하는 거라이.(그 지금 칠월은 음력을 말하는 거야.)

103064 @1 예.(예.)

103064 #6 거꼭.(그리고.)

103064 #2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양력으로.(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양력으로.)

103064 #6 지금은 팔월, 팔월. 팔월 넘으면 경 헌텐 말은 그대로 경 곁으메.(지금은 팔월, 팔월. 팔월 넘으면 그렇게 한단 말은 그대로 그렇게 말해.)

103064 @1 음.(음.)

103064 #6 팔월 냉기면은 무가 크질 아년다는 얘기지.(팔월 넘기면 무가 크질 않는다는 얘기지.)

103064 @1 아.(아.)

103064 #1 한 가지 웨에 대해서 얘길 해야 될로고.(한 가지 외에 대해서 얘길 해야 되겠네.)

103064 @1 예.(예.)

103064 #1 옛날에 여기 좀 뭐 이 웨 싱그는 걸 보면.(옛날에 여기 좀 뭐 이 외 심는 걸 보면.)

103064 @1 예.(예.)

103064 #1 이 동네 전체가 싱그는 게 아니고.(이 동네 전체가 심는 게 아니고.)

103064 @1 예.(예.)

103064 #1 그 중에서 이, 이 우리 외도라면 흔 집이나 두 집이 전문으로.(그 중에서 이, 이 우리 외도라면 한 집이나 두 집이 전문으로.)

103064 @1 예.(예.)

103064 #1 웨를 싱거. 웨 싱그는 밧은 보문 이 좀 가을에.(외를 심어. 외 심는 밧은 보문 이 좀 가을에.)

103064 @1 예.

103064 #1 걸 밧을 번헛다가 봄 나면은 밧을 잘 에 갈아 가지고 구덩이를 올령.(걸 밧을 애벌같이했다가 봄 되면 밧을 잘 에 갈아 가지고 구덩이를 올려서.)

103064 @1 예.(예.)

103064 #1 거기다 뭐 오줌도 놓고 뭐 막 행은에 저 걸게 되도록이 멘들아 가지고. 경 해근에 그레 저 씨를 구덩이레 씨를 뿌려. 씨를 쏘아 가지고.(거기다 뭐 오줌도 놓고 뭐 막 해서 저 걸게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로 저 씨를 구덩이에 씨를 뿌려. 씨를 쏘아 가지고.)

103064 @1 예.(예.)

103064 #1 경 헌디 그뎨 비니루도 아녀고 허난에 그냥 그자 행 자연적으로 나는 상태로 오히려 나 가지고 허면은 많이 나시든 거 소끄와 가지고 하나들만 해근에 허는디 그것이 물웨허곡.(그렇게 하는데 그뎨 비닐도 얹고 하니까 그냥 그저 해서 자연적으로 나는 상태로 오히려 나 가지고 하면 많이 났으면 거 슈아 가지고 하나들만 해서 하는데 그것이 물외하고.)

103064 @1 예, 물웨허곡.(예, 물외하고.)

103064 #1 이 저, 저.(이 저, 저.)

103064 #2 춤웨허고.(참외하고.)

103064 #1 춤웨허고 두 가지를 주로 허여근에. 으름에 수확이 끝나면 예, 어느 달이, 양력으로는 아마 칠월달 썸 될 거라.(참외하고 두 가지를 주로 해서. 여름에 수확이 끝나면 예, 어느 달이, 양력으로는 아마 칠월 썸 될 거야.)

103064 @1 으.(으.)

103064 #1 이 수확이 끝나면은이, 경 허면 이젠 그 웻그르²²⁴에.(이 수확이 끝나면, 그렇게 하면 이젠 그 ‘웻그루’에.)

103064 @1 예.(예.)

103064 #1 이젠 그.(이젠 그.)

103064 #2 배추.(배추.)

103064 #1 배추를 갈기 위해 가지고.(배추를 갈기 위해 가지고.)

103064 #2 김장배추.(김장배추.)

103064 #1 이 동넛 사름덜이.(이 동네 사람들이.)

103064 @1 예.(예.)

103064 #1 그 웻그르에 느물 잘 된다고 해 가지고, 게문 밧 갈믄 혼 밧이여 난 두 밧이여 해 가지고 그 면적으로 헤영이. 느낱 상은에.(그 ‘웻그루’에 배추 잘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밧 갈면 한 밧이다 난 두 밧이다 해 가지고 그 면적으로 해서. 나눠서 사서.)

103064 #2 사근에.(사서.)

103064 @1 음.(음.)

103064 #1 돈 쥬 사는 거라.(돈 쥐서 사는 거야.)

103064 @1 으.(으.)

103064 #3 삼주, 사.(사지요, 사.)

103064 #1 사 가지고 자기만씩 이제 배추나.(사 가지고 자기만큼씩 이제 배추

224) ‘웻그르’는 참외나 물외 따위를 수확한 후의 자리를 말한다.

나.)

103064 #2 그때도.(그때도.)

103064 #1 영 해 가지고.(이렇게 해 가지고.)

103064 #2 돈 쥘 사는 게 아니고 보리쌀 혼 말 두 말 행은에 그.(돈 쥐서 사는 게 아니고 보리쌀 한 말 두 말 해서 그.)

103064 #1 그 저 크는 동안.(그 저 크는 동안.)

103064 @1 예.(예.)

103064 #1 소끄멍 해 가지고 김장, 김장.(슌으면서 해 가지고 김장, 김장.)

103064 @1 예.(예.)

103064 #1 짐치느물을 허영 당배추²²⁵⁾ 갈앗당 이제 거기서 이 배추를 자기, 자기대로.(김장배추를 해서 ‘당배추’ 갈았다가 이제 거기서 이 배추를 자기, 자기대로.)

103064 @1 음.(음.)

103064 #1 제작해 가지고 이젠 줌 짐치를 해 먹었다.(제작해 가지고 이젠 줌 짐치를 해 먹었다.)

103064 @1 예.(예.)

103064 #1 이렇게 허믄 뵈 거.(이렇게 하면 뵈 거.)

103064 @1 예, 아주.(예, 아주.)

103064 #6 계난 지금은 김장을 많이 허는데 옛날은 경 아녜주게.(그러니까 지금은 김장을 많이 하는데 옛날은 그렇게 았았지.)

103064 @1 예.(예.)

103064 #6 쪼끔씩 허니까 지금처럼 허면은 그거 멧 발 가지고 그거 뵈여게.(쪼끔씩 하니까 지금처럼 허면은 그거 멧 발 가지고 그거 되는가.)

103064 @1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103064 #6 계난 옛날이주게, 진짜이. 옛날이난.(그러니까 옛날이지, 진짜. 옛날이니까.)

103064 #1 아, 옛날도 많이 헛어.(아, 옛날도 많이 헛어.)

103064 #6 에이고.(아이고.)

103064 #3 옛날도 많이 헛어.(옛날도 많이 헛어.)

103064 #6 많이 헌텐 해 봐야 무신.(많이 한다고 해 봐야 무슨.)

103064 #1 아이고, 김칫독, 김칫독 해 가지고 딱딱 허고.(아이고, 김칫독, 김칫독 해 가지고 딱딱 하고.)

103064 #3 식구 한 디는 하영 헛주.(식구 많은 데는 많이 헛지.)

103064 #6 지금만이는.(지금만큼은.)

103064 #2 지금보다 더 헛어, 더. 향아리도.(지금보다 더 헛어, 더. 향아리도.)

103064 #3 우리도 보민 하영 해낫주.(우리도 보면 많이 헛었지.)

225) ‘당배추’는 재래종에 대하여 개량한 결구배추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배추를 가리킬 때 쓴다.

103064 #2 지금보다 더 헛어, 더 헛어.(지금보다 더 헛어, 더 헛어.)

103064 #3 식구 한 디. 우리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항에 컷다근에 으. 눌엇당
허고 헤낫어.(식구 많은 데. 우리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항아리에 담갔다가 으. 가
리었다가가 하고 헛었어.)

103064 #2 이제는 냉장고에 그냥 그때그때.(이제는 냉장고에 그냥 그때그때.)

103064 #1 김장 헤왔다 경만.(김장 헤왔다 그렇게만.)

103064 @1 예, 예. 알아수다. 이제 그치룩 이제 하고 늬삐도 그 ㄱ튼 시기에 허
고예?(예,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처럼 이제 하고 무도 그 같은 시기에 하고요?)

103064 #3 늬삐.(무.)

103064 @1 그다음에 지실도 여기 싱거마씨?(그다음에 감자도 여기 심어요?)

103064 #6 지실은.(감자는.)

103064 #2 전문가덜만.(전문가들만.)

103064 @1 으.(으.)

103064 #2 부업으로 허는 사름덜.(부업으로 하는 사람들.)

103065 @1 부업으로 허고. 그냥 보통은 지실은 어느 철에?(부업으로 하고. 그냥
보통은 감자는 어느 철에?)

103065 #6 지실은.(감자는.)

103065 @1 예.(예.)

103065 #6 토질이.(토질이.)

103065 @1 예.(예.)

103065 #6 외도 토질에는 안 좋주게.(외도 토질에는 안 좋지.)

103065 @1 아.(아.)

103065 #6 지실이엔 현 거는 그.(감자라고 한 거는 그.)

103065 @1 예.(예.)

103065 #2 식은땅²²⁶.(‘식은땅’.)

103065 #6 식은땅.(‘식은땅’.)

103065 @1 으.(으.)

103065 #6 여기는 그 사질 양토라 가지고.(여기는 그 사질 양토라 가지고.)

103065 #2 중산간 정도.(중산간 정도.)

103065 @1 으.(으.)

103065 #6 저 동촌 어디 저 어디 구좌²²⁷ 쪽디레.(저 동촌 어디 저 어디 구좌
쪽으로.)

103065 @1 예, 예.(예, 예.)

103065 #6 그레가 전문이주게.(그리로가 전문이지.)

103065 #3 그레가 전문.(그리로가 전문.)

226) ‘식은땅’은 밭의 흙이 찰기가 없어서 푸석푸석한 땅을 말한다.

227) ‘구좌’는 제보자가 제주시 구좌읍 지역을 가리키면서 쓴 말이다.

103065 @1 음, 그러면 식, 땅도 허면 식은땅이 잇고 무신 땅 잇인 겨우짜?(음, 그러면 식, 땅도 하면 ‘식은땅’이 잇고 무슨 땅 잇는 겁니까?)

103065 #2 출땅²²⁸.(‘출땅’.)

103065 #6 출땅. 출땅은 저 어디 저.(‘출땅’. ‘출땅’은 저 어디 저.)

103065 #2 춘흙.(찰흙.)

103065 #6 어디레가.(어디로가.)

103065 #3 한림²²⁹더레 거기도, 거기도 지실 많이 허주게. 한림도 지실 많이 허여.(한림으로 거기도, 거기도 감자 많이 하지. 한림도 감자 많이 해.)

103065 #1 화산회토로서이 학자덜 허는 말이 여기서 허민 식은땅이엔 현다, 식은땅. 식은땅 여깃 말로.(화산회토로서 학자들 하는 말이 여기서 하면 ‘식은땅’이라고 한다, ‘식은땅’. ‘식은땅’ 여기 말로.)

103065 @1 식은땅.(‘식은땅’.)

103065 #1 불치 모양으로이.(재 모양으로.)

103065 @1 예.(예.)

103065 #3 박삭허여.(푸석해.)

103065 #1 그 중량도 쫘 거뻘고.(그 중량도 쫘 가볍고.)

103065 @1 으.(으.)

103065 #1 이런 땅이 잇주기.(이런 땅이 있지.)

103065 @1 예, 걸 식은땅예?(예, 걸 ‘식은땅’요?)

103065 #1 게서 식은땅에서는 보리농사는 잘 안 되는 걸 원칙이라.(그래서 ‘식은땅’에서는 보리농사는 잘 안 되는 걸 원칙이야.)

103065 @1 으.(으.)

103065 #1 으름농사는 웨여도.(여름농사는 되어도.)

103065 @1 예, 예.(예, 예.)

103065 #2 여름농사도 벨로우다게. 식은땅에선.(여름농사도 별롭니다. ‘식은땅’에선.)

103065 #1 경 헤 농난.(그렇게 해 놓으니까.)

103065 @1 식은땅예?(‘식은땅’요?)

103065 #6 지금도 그레는 구좌 쪽디렌게 저 뵈고.(지금도 그리로는 구좌 쪽으로 저 무엇이니.)

103065 @1 당근.(당근.)

103065 #6 당근.(당근.)

103065 @1 예, 예.(예, 예.)

103065 #6 주로 그런 거.(주로 그런 거.)

103065 @1 맞수다.(맞습니다.)

228) ‘출땅’은 찰기가 있는 땅을 말한다.

229) ‘한림’은 제보자가 제주시 한림읍 지역을 말하면서 쓴 말이다.

103065 #3 그런 거주.(그런 거지.)
 103065 @1 그러면은 이제 이 이 동네는 자갈밭?(그러면은 이제 이 이 동네는 자갈밭?)
 103065 #2 자갈밭개.(자갈밭.)
 103065 @1 자갈밭예?(자갈밭요?)
 103065 #3 말왓²³⁰.(‘말왓’.)
 103065 @1 말왓.(‘말왓’.)
 103065 #2 말왓.(‘말왓’.)
 103067 @1 계난 이제 식은땅에서 말왓 으. 그다음에 피는 여기 안 갈아났지 예?(그러니까 이제 ‘식은땅’에서 ‘말왓’ 으. 그다음에 피는 여기 안 갈았었지요?)
 103067 #3 아니, 피는 안 갈아.(아니, 피는 안 갈아.)
 103067 @1 피는 여긴 안 하고. 므말은 어떻 험니까?(피는 여긴 안 하고. 메밀은 어떻게 합니까?)
 103067 #6 므말도 여긴 안 허여.(메밀도 여긴 안 해.)
 103067 #1 므말도 여긴 안 허여. 대정²³¹에, 대정에 허주.(메밀도 여긴 안 해. 대정에, 대정에 하지.)
 103067 @1 모말 여기 잘 안허고예?(메밀 여기 잘 안고요?)
 103067 #1 견디이?(그런데.)
 103067 @1 예.(예.)
 103067 #1 므물 전문으로 가는 건 아니고 으름에 대개 조를 불리면은.(메밀 전문으로 가는 건 아니고 으름에 대개 조를 밟으면.)
 103067 @1 예.(예.)
 103067 #1 조가 큰 비, 비부름에 의해 가지고 말여 그 유실돼 불언.(조가 큰 비, 비바람에 의해 가지고 말이야 그 유실되어 버려서.)
 103067 #3 벗어 불영.(벗겨 버려서.)
 103067 #1 벗어 불영.(벗겨 버려서.)
 103067 @1 으.(으.)
 103067 #1 겨문 그 트멍에 이 저.(그러면 그 틈에 이 저.)
 103067 #6 보조 작물로.(보조 작물로.)
 103067 #1 이, 이 저 므물은.(이, 이 저 메밀은.)
 103067 @1 예.(예.)
 103067 #1 이 그 조 불린지 후에 아마 그 파종허는 모양이라. 계난 그걸 허여근 에 영 보니까 그 불치.(이 그 조 밟은 후에 아마 그 파종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재.)
 103067 @1 예.(예.)

230) ‘말왓’은 제주도 외도동에서 자갈이 많이 섞인 밭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231) ‘대정’은 제보자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103067 #1 불치를 그 저 뒹고, 걸름으로 허영근에 그 조 벗어 분 디.(재를 그 저 무엇이니, 거름으로 해서 그 조 벗겨 버린 데.)

103067 @1 예.(예.)

103067 #1 이제 그 불치도 농곡 행근에 쪼끔 싱것당 그 믈 해 먹는 사람 있어.(이제 그 재도 놓고 해서 쪼끔 심었다가 그 메밀 해 먹는 사람 있어.)

103067 #3 어, 있어.(어, 있어.)

103067 #6 쪼끔 쪼끔.(쪼끔 쪼끔.)

103067 @1 쪼끔예?(조금요?)

103067 #2 벗어 분 디, 조 벗어 분 디.(벗겨 버린 데, 조 벗겨 버린 데.)

103067 @1 계문 그 조밭디 영 벗어 분 그 지역만 흠품 놓는 거구나예?(그러면 그 조밭에 이렇게 벗겨 버린 그 지역만 조금 놓는 거군요?)

103067 #1 으, 으.(으, 으.)

103067 @1 그냥 본격적으론 허진 안허고예?(그냥 본격적으론 하진 않아요?)

103067 #3 정도 허곡.(그렇게도 하고.)

103067 @1 예.(예.)

103067 #1 그런 거는 해도.(그런 거는 해도.)

103067 #3 그것이 이모작 되는 거라.(그것이 이모작 되는 거야.)

103067 @1 예.(예.)

103067 #1 여기서 믈밭으로 허영은에 널르게 가는 법이 있어.(여기선 메밀밭으로 해서 너르게 가는 법이 없어.)

103067 @1 예.(예.)

103067 #3 *** 흠품씩 남은 밭덜 뭐허는 거. 빈 밭덜 시민 강근에 그 믈 갈곡.(*** 조금씩 남은 밭들 뭐하는 거. 빈 밭들 있으면 가서 그 메밀 갈고.)

103067 @1 예, 계도 믈떡덜 허젠 허면은 믈은 계문 사당 허는 거우파?(예, 그래도 메밀떡들 하려고 하면 메밀은 그러면 사다가 하는 겁니까?)

103067 #3 그렇지.(그렇지.)

103067 @1 아, 여기서는 사당 먹는 거라예?(아, 여기서는 사다가 먹는 거라고요?)

103067 #6 토질, 토질로도 잘 맞질 아너주게.(토질, 토질로도 잘 맞질 않지.)

103067 #3 맞질 안허고.(맞질 않고.)

103068 @1 혹시 여기 담배도 갈아봤수가? 옛날.(혹시 여기 담배도 갈아봤습니까? 옛날.)

103068 #6 담배도 좀.(담배도 좀.)

103068 #2 아주 옛날.(아주 옛날.)

103068 #1 거 한순간.(거 한순간.)

103068 #6 우리 어린 때. 우리도 나는 안 했는데 선대 부친 때 해났어.(우리 어릴 때. 우리도 나는 안 했는데 선대 부친 때 했었어.)

103068 @1 음.(음.)

103068 #2 나도 혼 멧 년은 해봤수다.(나도 한 몇 년은 해봤습니다.)

103068 #3 것도 왜정시대 담배 공출 하나지 아녀신가.(것도 왜정시대 담배 공출 했었지 않았는가.)

10306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68 #2 공출은 엇고.(공출은 없고.)

103068 #3 아녀났어? 왜정시대 담배덜을 많이 현 거 같은데.(안 했었어? 왜정시대 담배들을 많이 한 거 같은데.)

103068 #1 담배는, 담배는 이 왜정시대 쪼끔 허는 거.(담배는, 담배는 이 왜정시대 쪼끔 하는 거.)

103068 #3 왜정시대 헛수다.(왜정시대 했습니다.)

103068 #2 왜정시대 후에마씨.(왜정시대 후에요.)

103068 #3 담배 많이 헛주게.(담배 많이 했지.)

103068 #6 후에, 후에.(후에, 후에.)

103068 #3 담배도 종류가 두 가질 건데.(담배도 종류가 두 가질 건데.)

103068 #2 오십 년 전.(오십 년 전.)

103068 #6 종류가 여러 가지주.(종류가 여러 가지지.)

103068 #3 여러 가지, 담배도. 우리, 나 알거니는 입담배 알주마는 딴 거 입담배 허민 풀입초²³²라 해 가지고 건 늘 건 때 피왕 들랑 풀입초라 허는가. 거 막 독허고 현 담배.(여러 가지, 담배도. 우리, 나 알거니 입담배 알지만 딴 거 입담배 하면 ‘풀입초’라 해 가지고 건 날 건 때 피워서 말려서 ‘풀입초’라 하는가. 거 아주 독하고 한 담배.)

103068 #1 삼동초²³³엔 현 거.(‘삼동초’라고 한 거.)

103068 #3 삼동초, 삼동초. 풀입초가 아니고.(‘삼동초’, ‘삼동초’. ‘풀입초’가 아니고.)

103068 #1 막 그 독헌 거.(아주 그 독한 거.)

103068 #3 독헌 거.(독한 거.)

103068 #1 으, 삼동초허고.(으, ‘삼동초’하고.)

103068 @1 예.(예.)

103068 #1 거 무신거 두 가지라게. 삼동초엔 현 건 줌.(거 무엇 두 가지야. ‘삼동초’라고 한 건 줌.)

103068 #3 독허여.(독해.)

103068 #1 토종 같은 거라.(토종 같은 거야.)

103068 @1 예.(예.)

103068 #1 크지 아녕 겐디 줌 독헌 거고. 또 엽, 엽담벤디.(크지 았고 그런데 줌

232) ‘풀입초’는 제보자가 담배의 한 종류로 잘못 말한 것이다.

233) ‘삼동초’는 잎담배의 한 종류다. 맛이 독하고, 잎이 ‘백입초’보다 잘다고 한다.

독한 거고. 또 엽, 잎담배.)

103068 #6 백입초²³⁴)엔 헤신가 무신거 잇었어.(‘백입초’라고 했는가 무엇 있었어.)

103068 #1 백입, 백입촌가 백입촌가 뭐 이런 거렌 골안게.(‘백입’, ‘백입초’인가 ‘백입초’인가 뭐 이런 거라고 말하던데.)

103068 #6 어떻게 구분이 돼냐든 백입초엔 현 거는.(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백입초’라고 한 거는.)

103068 #3 이파리 넓주게.(이파리 넓지.)

103068 #6 이 저.(이 저.)

103068 #2 길어. 마디가 길게 나와 가지고.(길어. 마디가 길게 나와 가지고.)

103068 #6 길고 이파리가 굵어이.(길고 이파리가 굵어.)

103068 @1 예.(예.)

103068 #6 아까 그 삼동촌가 뭐 그거는 이파리가 즐고.(아까 그 ‘삼동초’인가 뭐 그거는 이파리가 즐고.)

103068 @1 예.(예.)

103068 #6 계난 이 자기가 피와.(그러니까 이 자기가 피워.)

103068 @1 으.(으.)

103068 #6 핏는 걸로는 주로 허고.(피우는 걸로는 주로 하고.)

103068 @1 음.(음.)

103068 #2 토종이주, 완전.(토종이지, 완전.)

103068 #6 뭇고 저거는 파는 거.(무엇이니 저거는 파는 거.)

103068 @1 파는 걸로?(파는 걸로?)

103068 #3 파는 거, 파는 거.(파는 거, 파는 거.)

103068 @1 저기 담배 허는 거는 언제 같고 어떤 식으로 헤영 판 거라마씨?(저기 담배 하는 거는 언제 같고 어떤 식으로 해서 판 거예요?)

103068 #1 건 또 아메도 봄에.(건 또 아마도 봄에.)

103068 #6 것도 봄에 허는디 파는 것도.(것도 봄에 하는데 파는 것도.)

103068 @1 으.(으.)

103068 #6 뭐 전매청에서 그때 허긴 헛주마는.(뭐 전매청에서 그때 하긴 헛지만.)

103068 #2 제때에 안 받아가, 것도.(제때에 안 받아가, 것도.)

103068 @1 으.(으.)

103068 #6 전매청에서.(전매청에서.)

103068 #2 것도 여름 흔 칠팔월에 받아갔는데.(것도 여름 한 칠팔월에 받아갔는데.)

103068 @1 으.(으.)

234) ‘백입초’는 잎담배의 한 종류다. 마디가 길고 잎이 넓다고 한다.

103068 #3 가을 들엉 받아. 제경 낱.(가을 들어서 받아. 쌓아서 놔서.)

103068 #2 제경은에, 제경은에 아주 오래 잇어야 받아갔어.(쌓아서, 쌓아서 아주 오래 잇어야 받아갔어.)

103068 #6 계난 대대적으로 헛 게 아니고 쪼끔 그자.(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헛 게 아니고 쪼끔 그저.)

103068 #1 혼 이삼년 동안 그 저 이 여기서도.(한 이삼년 동안 그 저 이 여기서 도.)

103068 #2 아이, 나도 해 봤수다게.(아니, 나도 해 봤습니다.)

103068 #1 심으렌 해 가지고.(심으라고 해 가지고.)

103068 #2 ○○이네 우리 다 그저 다.(○○이네 우리 다 그저 다.)

103068 #1 수지가 안 맞아신ㄴ라 그냥 설러 붙언.(수지가 안 맞았는지 그냥 그 만뒤 버렸어.)

103068 #2 그놈의 거 으깬 그 들류젠 허민 아이고 힘들엉.(그놈의 거 엮어서 그 말리려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103068 #6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파리 따는 거라. 하나씩.(어느 정도 자라면 이 파리 따는 거야. 하나씩.)

103068 @1 예.(예.)

103068 #6 따 가지고 이젠 으까이.(따 가지고 이젠 엮어.)

103068 @1 예.(예.)

103068 #6 경 헤영 영 헤영 이젠.(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젠.)

103068 #2 돌아메영 들류와.(매달아서 말려.)

103068 #6 무경. 것도 햇빛 맞으면 안 뉘니까 그늘에서.(뭉어서. 것도 햇볕 맞으면 안 되니까 그늘에서.)

103068 #3 그늘에서, 그늘에서.(그늘에서, 그늘에서.)

103068 @1 아.(아.)

103068 #6 그런 식으로 허는 거난게 손 많이 가는 거주게.(그런 식으로 하는 거 니까 손 많이 가는 거지.)

103068 #2 처음엔 그늘에서 띄왕.(처음엔 그늘에서 띄워서.)

103068 @1 예.(예.)

103068 #3 물 올령.(물 올려서.)

103068 #2 반 시들민 베깃디 내냥은에 들러.(반 시들면 밖에 내놔서 말려.)

103068 @1 아까 띄운덴 말은 무슨 말이우파?(아까 띄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 까?)

103068 #2 그늘에서 색깔을 내와. 띄와, 띄와.(그늘에서 색깔을 내워. 띄워, 띄 워.)

103068 @1 아, 걸 띄운덴 헤예? 그리고 이제 담배 풀 때도 이 이파리를 멧 개 씩 멧 개씩 헤영 으끄는 거 잇지 아녀우파?(아, 걸 띄운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 팔 때도 이 이파리를 몇 개씩 몇 개씩 해서 엮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3068 #3 혼 접 두 접 해근에.(한 접 두 접 해서.)

103068 #2 접 짓엉.(접 지어서.)

103068 @1 접 짓엉예?(접 지어서요?)

103068 #3 접 짓엉.(접 지어서.)

103068 @1 몇 개를 혼 접 헛수가?(몇 개를 한 접 했습니까?)

103068 #2 아, 혼 으남은 이파리 행은에 혼 접 허고.(아, 한 여남은 이파리 해서 한 접 하고.)

103068 #3 맞아.(맞아.)

103068 #2 접을 혼.(접을 한.)

103068 #6 열 개 묶음. 묶음 열 깎 거라. 열 개.(열 개 묶음. 묶음 열 깎 거야. 열 개.)

103068 #2 열 개나 스무 개 정도 허영.(열 개나 스무 개 정도 해서.)

103068 @1 예, 열 개 혼 접.(예, 열 개 한 접.)

103068 #2 무꿈 이만이 무꺼 낱.(묶음 이만큼 묶어 놔서.)

103068 #6 다섯 개 허영 두 줄.(다섯 개 해서 두 줄.)

103068 #2 또 그런 걸 많이 무경 혼 다발 해영은에.(또 그런 걸 많이 묶어서 한 다발 해서.)

103068 @1 혼 다발 허고예. 게민 멧 개로 혼 다발 헨 거라? 멧 접을 혼 다발? (한 다발 하고요. 그러면 멧 개로 한 다발 한 거야? 멧 접을 한 다발?)

103068 #2 어 혼 백 접 들어가주.(어 한 백 접 들어가지.)

103068 @1 백 접 들어강예. 예. 게난 이제 열 개씩 무꾼 거를.(백 접 들어가서 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열 개씩 묶은 거를.)

103068 #3 백 개.(백 개.)

103068 @1 혼 접. 이 거를 백 개 허면 혼 다발. 게민 이만큼씩 행은에 폰 거 예?(한 접. 이 거를 백 개 하면 한 다발. 그러면 이만큼씩 해서 판 거요?)

103068 #3 그렇주.(그렇지.)

103068 #2 요거, 요거 정도 영 사각 영 돼주.(요거, 요거 정도 이렇게 사각 이렇게 되지.)

103068 @1 예, 알았수다. 잠깐만예?(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1 쉐는 어떻 키왓수가?(소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104001 #6 쉐 어떻 키와게.(소 어떻게 키워.)

104001 @1 계난 그 키와난 과정을 대강?(그러니까 그 키웠던 과정을 대강?)
 104001 #6 계난 쪼꼬만한 거 사당.(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사다가.)
 104001 @1 예.(예.)
 104001 #6 이젠 집의서 길랑.(이젠 집에서 길러서.)
 104001 @1 음.(음.)
 104001 #6 크민 폴양.(크면 팔아서.)
 104001 @1 예.(예.)
 104001 #6 경 허민게 돈 남을 거 아니?(그렇게 하면 돈 남을 거 아니?)
 104001 @1 으.(으.)
 104001 #6 계민 돈 떼영. 또 작은 것으로 사당 키왕 그런 식으로.(그러면 돈 떼어서. 또 작은 것으로 사다가 키워서 그런 식으로.)
 104001 @1 음.(음.)
 104001 #6 계, 나 경우는 경 허영 재미 좀 봤어, 그걸로.(계, 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재미 좀 봤어, 그걸로.)
 104001 @1 재미 봤구나예? 알았수다.(재미 봤군요? 알았습니다.)
 104001 #2 췌 질루는 사름 그런 재미를 많이 봐십주.(소 기르는 사름 그런 재미를 많이 봤습죠.)
 104002 @1 예, 계문예, 췌도 종류가 으라 가지 아니예? 그 색깔에 따라 이름도 잇일 거고 이 빨에 따라은에 이름이 잇일 거고.(예, 그러면요, 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닌가요? 그 색깔에 따라서 이름도 있을 거고 이 빨에 따라서 이름이 있을 거고.)
 104002 #6 계, 맞아계.(그래, 맞아.)
 104002 @1 어떤 거 잇수과?(어떤 거 있습니까?)
 104002 #6 그.(그.)
 104002 #2 검은췌, 노랑췌.(검정소, 노랑소.)
 104002 #6 빨이.(빨이.)
 104002 @1 예.(예.)
 104002 #6 빨이 이렇게 우선 그 앞으로 나가야 돼는데.(빨이 이렇게 우선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104002 @1 예.(예.)
 104002 #6 그냥 이렇게 영.(그냥 이렇게 이렇게.)
 104002 @1 양쪽으로.(양쪽으로.)
 104002 #6 양쪽으로.(양쪽으로.)
 104002 @1 예.(예.)
 104002 #6 건 잣작²³⁵, 잣작, 잣작빨이²³⁶엔 허고.(건 ‘잣작’, ‘잣작’, ‘잣작빨이’

235) ‘잣작’은 ‘뒤로 젖혀진’의 의미다.

236) ‘잣작빨이’는 소의 빨이 뒤로 젖혀진 것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잣작빨’이라고도 하였다.

라고 하고.)

104002 #3 잣작빨이.(‘잣작빨이’.)

104002 #2 거 두티레.(거 뒤로.)

104002 #3 두티레 잣하진 거.(뒤로 잣혀진 거.)

104002 #2 거 뒤티레 보고 잣작이엔 허고.(거 뒤로 보고 ‘잣작’이라고 하고.)

104002 #3 잣혀진 거고.(잣혀진 거고.)

104002 #2 앞더레 영 오그라진 건 영게빨이²³⁷.(앞으로 이렇게 오그라진 건 ‘영게빨이’.)

104002 #3 어.(어.)

104002 @1 영 뉘 거?(이렇게 된 거?)

104002 #2 어, 영게빨이.(어, ‘영게빨이’.)

104002 #3 영게빨.(‘영게빨’.)

104002 @1 이거는 영게빨. 그다음?(이거는 ‘영게빨’. 그다음?)

104002 #3 으, 빨이란 두티레 잣혀진 빨 이시민 귀 두티레 영 가.(으, 빨이란 뒤로 잣혀진 빨 있으면 귀 뒤로 이렇게 가.)

104002 #2 잣작빨이.(‘잣작빨이’.)

104002 #3 귀 두티레 가 불어. 귀 두티레 빨이 가 불어.(귀 뒤로 가 버려. 귀 뒤로 빨이 가 버려.)

104002 #2 귀 두티레 영.(귀 뒤로 이렇게.)

104002 #6 쪼끔 영 허영.(쪼끔 이렇게 해서.)

104002 @1 예, 귀 뒤트로.(예, 귀 뒤로.)

104002 #2 잣작빨이.(‘잣작빨이’.)

104002 #3 것이 잣작빨이.(것이 ‘잣작빨이’.)

104002 @1 잣작빨이?(‘잣작빨이’?)

104002 #3 으, 잣작빨이.(으, ‘잣작빨이’.)

104002 @1 예.(예.)

104002 #2 뭐 두 가지로 나오난.(뭐 두 가지로 나오니까.)

104002 @1 예. 그 잣작빨이하고. 영게빨하고. 그다음 또 어떤 거 잇수가?(예. 그 ‘잣작빨이’하고. ‘영게빨’하고. 그다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104002 #2 계난 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주게.(그러니까 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104002 #6 빨은 두 가지.(빨은 두 가지.)

104002 #1 저, 그 난 잘 모르주마는 그 쉼빨을.(저, 그 난 잘 모르주마는 그 쇠빨을.)

104002 @1 예.(예.)

104002 #1 이, 하늘로 영 올른 건.(이, 하늘로 이렇게 오른 건.)

237) ‘영게빨’은 소의 빨이 앞으로 오그라진 것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앵게빨’이라고도 하였다.

- 104002 @1 예.(예.)
- 104002 #1 천향각²³⁸. 천향각.(‘천향각’. ‘천향각’.)
- 104002 #3 천상뿔이.(‘천상뿔이’.)
- 104002 #1 천향각이.(‘천향각’이.)
- 104002 @1 예.(예.)
- 104002 #1 천향각.(‘천향각’.)
- 104002 #6 하늘러레, 하늘러레 향했다 해 갖고.(하늘로, 하늘로 향했다 해 갖고.)
- 104002 #1 앞으로 영 나간 건 전향각²³⁹. 예 이거 두 가지는 아는데 나머진 잊어 붙언 몰르커라.(앞으로 이렇게 나간 건 ‘전향각’. 예 이거 두 가지는 아는데 나머진 잊어 버려서 모르겠어.)
- 104002 @1 자예, 아까 천상뿔을 전향각이렌 허잖아예? 이건.(자요, 아까 ‘천상뿔’을 ‘전향각’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 104002 #1 하늘에 영 으.(하늘에 이렇게 으.)
- 104002 @1 건 한자어고, 그다음에 여기선?(건 한자어고, 그다음에 여기선?)
- 104002 #3 천상뿔이 우티레 간 거고.(‘천상뿔’이 위로 간 거고.)
- 104002 @1 천상뿔이.(‘천상뿔’.)
- 104002 #2 그 잘 안 들어난 소리라.(그 잘 안 들었던 소리야.)
- 104002 @1 그다음에 전향각 허면은 앞으로 가는 거를 또 뭐렌 험니까? 이디 말로? 한자로 말고.(그다음에 ‘전향각’ 하면 앞으로 가는 거를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말로? 한자로 말고.)
- 104002 #1 한자로 말앙.(한자로 말고.)
- 104002 @1 예.(예.)
- 104002 #1 앞디레 영 뿔 부튼 거난 뿔산디 모르고.(앞으로 이렇게 뿔 붙은 거니까 무엇인지 모르고.)
- 104002 #3 아까 아니 ○○이 아시 곤는 말이 맞수다게.(아까 아니 ○○이 아우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 104002 #2 ** 두 가지를 우리 경 뭐 전향각인지 후향각²⁴⁰인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두 가지를 우리 그렇게 뭐 ‘전향각’인지 ‘후향각’인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 104002 #1 경 곺아고. 아니.(그렇게 말하던데. 아니.)
- 104002 #2 들어본 예 없어.(들어본 예 없어.)
- 104002 #3 ○○이 아시 곤는 아까 잣작뿔이 다음 뿔엔 헛어? 거기.(○○이 아우 말하는 아까 ‘잣작뿔이’ 다음 뿔엔 헛어? 거기.)
- 104002 @1 잉계뿔.(‘잉계뿔’.)
- 104002 #2 잉계뿔.(‘잉계뿔’.)

238) ‘천향각’은 쇠뿔이 위쪽으로 향한 것을 말한다. 달리 ‘천상뿔’ 또는 ‘천상뿔이’라고 한다.

239) ‘전향각’은 쇠뿔이 앞으로 향한 것을 말한다.

240) ‘후향각’은 쇠뿔이 뒤로 향한 것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104002 #3 잉게뿔. 그게 잉게뿔이 맞추게.(‘잉게뿔’. 그게 ‘잉게뿔’이 맞지.)

104002 @1 잉게뿔허고. 또 요기 잉 흔들는 것도 잇어나지 아녜수가?(‘잉게뿔’하
고. 또 요기 이렇게 흔들는 것도 있었었지 않았습니까?)

104002 #6 흔들는 거?(흔들는 거?)

104002 #2 들각뿔이²⁴¹.(‘들각뿔이’.)

104002 @1 으.(으.)

104002 #3 들각뿔, 들각뿔.(‘들각뿔’, ‘들각뿔’.)

104002 #2 들각뿔이.(‘들각뿔이’.)

104002 #3 들그락들그락 소리 나는 건 들각뿔.(달그락달그락 소리 나는 건 ‘들각
뿔’.)

104002 @1 예.(예.)

104002 #2 늪어근앵에 저 흔들어가도 들각뿔이라.(늪어서 저 흔들어가도 ‘들각
뿔’이야.)

104002 @1 들각뿔예. 이거는 이제 뿔 모양. 털 색깔에 따라은 어떻 구분합니
까?(‘들각뿔’요. 이거는 이제 뿔 모양. 털 색깔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104002 #2 노란췌.(노랑소.)

104002 @1 음, 노랑.(음, 노랑.)

104002 #1 검은췌.(검은소.)

104002 #6 검은소.(검은소.)

104002 @1 예.(예.)

104002 #1 칙소.(칩소.)

104002 #3 속췌, 속췌.(칩소, 칙소.)

104002 #2 칙소.(칩소.)

104002 #6 속췌.(칩소.)

104002 #2 속췌, 속췌. 칙소가 아니고 저 속췌.(칩소, 칙소. 칙소가 아니고 저
‘속췌’.)

104002 #3 속췌.(칩소.)

104002 @1 그다음에?(그다음에?)

104002 #3 태성, 아 저, 저, 저 들은 태성뻬이. 췌도 태성, 아, 췌도 태성, 아이
고 속, 속췌 말고.(태성, 아 저, 저, 저 말은 태성마. 소도 태성, 아, 소도 태성, 아이
고 칙, 칙소 말고.)

104002 #6 속췌.(칩소.)

104002 #3 하얀 거 노란 거 부뜬 거 뭐라?(하얀 거 노란 거 붙은 거 뭐야?)

104002 #6 췌가 그때 하얀 거 노란 거 잇어어?(소가 그때 하얀 거 노란 거 잇었
어?)

104002 #3 아, 털 하얗허고 노란 거 잇주기게.(아, 털 하얗고 노란 거 잇지.)

241) ‘들각뿔이’는 쇠뿔이 흔들는 것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들각뿔’이라고도 하였다.

- 104002 @1 예.(예.)
- 104002 #2 얼럭빠기.(얼룩빠기.)
- 104002 #3 얼룩소.(얼룩소.)
- 104002 #6 얼룩소, 얼룩소.(얼룩소, 얼룩소.)
- 104002 #3 얼룩쉐.(얼룩소.)
- 104002 @1 얼룩소 헛수가? 어럭쉐 헛수가?(얼룩소 했습니까? ‘어럭쉐’ 했습니까?)
- 104002 #3 어럭쉐, 어럭쉐.(‘어럭쉐’, ‘어럭쉐’.)
- 104002 #6 어럭쉐.(얼룩소.)
- 104002 #3 어럭쉐가 맞아. 어럭쉐.(‘어럭쉐’가 맞아. 얼룩소.)
- 104002 @1 어럭쉐렌 헛지예?(‘어럭쉐’라고 헛지요?)
- 104002 #3 흰 거허고 노란 털 박아진 거.(흰 거하고 노란 털 박힌 거.)
- 104002 @1 예.(예.)
- 104002 #3 어럭쉐.(얼룩소.)
- 104003 @1 어럭쉐. 그다음에 그 쉼은 주로 어떤 디 이용헛수가?(얼룩소. 그다음에 그 소는 주로 어떤 데 이용헛습니까?)
- 104003 #6 밧 갈곡계.(밭 갈고.)
- 104003 @1 예.(예.)
- 104003 #3 주로 밧 갈앗주기계.(주로 밧 갈았지.)
- 104003 #2 밧 갈곡 새끼 내왕계 번식시기곡.(밭 갈고 새끼 내워서 번식시키고.)
- 104003 #6 암소는 새끼 내우는 거.(암소는 새끼 내우는 거.)
- 104003 @1 암소는 새끼 내우는 거.(암소는 새끼 내우는 거.)
- 104003 #1 밧 갈곡 짐 시끄곡.(밭 갈고 짐 신고.)
- 104003 @1 예.(예.)
- 104003 #3 다 그거.(다 그거.)
- 104003 #1 또 고기로 풀곡계. 고깃소.(또 고기로 팔고. 고깃소.)
- 104003 @1 예, 고기로도.(예, 고기로도.)
- 104003 #1 고깃소로 팔고.(고깃소로 팔고.)
- 104003 @1 고기소로 풀기고 허고예?(고기소로 팔기고 하고요?)
- 104003 #3 육소.(육소.)
- 104003 @1 계난 그 밧 가는 쉼을 다른 말로 허영은에 뭐렌 헤마씨?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밧 가는 소를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 104003 #1 밧갈쉐²⁴².(‘밧갈쉐’.)
- 104003 @1 밧갈쉐.(‘밧갈쉐’.)
- 104003 #6 밧갈쉐.(‘밧갈쉐’.)

242) ‘밧갈쉐’는 밧을 갈 때 주로 사용하는 소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암소를 선호하기도 하고 수소를 선호하기도 한다.

104003 @1 밧갈쉐는 주로 어떤 쉼을 이용헌 거우짜?('밧갈쉐'는 주로 어떤 소를 이용한 겁니까?)

104003 #1 밧갈쎄 밧 가난 밧갈쉐 헛주게.('밧갈쎄' 밧 가니까 '밧갈쉐' 했지.)

104003 #6 수소.(수소.)

104003 @1 수소, 으?(수소, 으?)

104003 #1 솟소도 수소.(수소도 수소.)

104004 @1 밧갈쉐예? 그 밧 갈젠 허면 쉼 질들여야잖아예? 질들이젠 허민 어떤 식으로 질들여마씨?('밧갈쉐'요? 그 밧 갈려고 하면 소 질들여야잖아요? 질들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질들여요?)

104004 #2 마리친덴 허주. 마리쳐.(가르친다고 하지. 가르쳐.)

104004 #6 쉼 마리친덴 허여.(소 가르친다고 해.)

104004 @1 쉼 마리치는 거예? 어느 쯤에 쉼 마리칩니까?(소 가르치는 거요? 어느 쯤에 소 가르칩니까?)

104004 #2 세 설 때, 세 설 때.(세 살 때, 세 살 때.)

104004 #3 사릅 부롱이. 사릅 나면.(사릅 부록소. 사릅 되면.)

104004 @1 으.(으.)

104004 #3 세 설도 곤주마는 사릅. 세 설 사릅.(세 살도 말하지만 사릅. 세 살 사릅.)

104004 @1 계난 사릅 부렁이렌 헤예?(그러니까 사릅 부록소라고 한다고요?)

104004 #3 으. 사릅 부렁이.(으. 사릅 부록소.)

104004 @1 예. 계든 그 쉼 마리칠 때는 어떤 식으로 마리쳐마씨?(예. 그러면 그 소 가르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요?)

104004 #6 계난.(그러니까.)

104004 #2 마레착 곳엉.(맷돌짝 끌어서.)

104004 #6 그 쟁기.(그 쟁기.)

104004 #2 멩에 썩왕.(멩에 썩워서.)

104004 #6 멩에 썩왕.(멩에 썩워서.)

104004 @1 예, 계난 그 쉼 마리쳐난 그거를 한번 쪽 곱아 쥐 보셔?(예, 그러니까 그 소 가르쳤던 그거를 한번 쪽 말해 쥐 보십시오?)

104004 #6 계난게 멩에 그 밧 갈 때 썩우는 거.(그러니까 멩에 그 밧 갈 때 썩우는 거.)

104004 @1 으.(으.)

104004 #6 그거 썩왕.(그거 썩워서.)

104004 @1 예.(예.)

104004 #6 뒤에 잠대 대신에 이젠 돌멩이.(뒤에 쟁기 대신에 이젠 돌멩이.)

104004 @1 예.(예.)

104004 #6 돌멩이 어느 정도 큰 거 허영 저 텔레비만이 현 거 허여근에.(돌멩이

어느 정도 큰 거 해서 저 텔레비전만큼 한 거 해서.)

104004 @1 예.(예.)

104004 #6 구멍 뚫병.(구멍 뚫어서.)

104004 @1 예.(예.)

104004 #6 거기다 이제 철사로나 무경. 계영 그 저 밧 갈 때 들벥이뿔에 무끈뎨 허지 아녀서게.(거기애다 이제 철사로나 묶어서. 그래서 그 저 밧 갈 때 물추리막대에 묶는다고 하지 않았어.)

104004 @1 예, 예.(예, 예.)

104004 #6 거기다 집어 떼여 가지고 이젠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이꺼이, 소를.(거기다 집어 떼어 가지고 이젠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끌어, 소를.)

104004 @1 예.(예.)

104004 #6 뒤에서 이제 몰고.(뒤에서 이제 몰고.)

104004 @1 예.(예.)

104004 #6 건디 그 어젠가 그 밧 가느디 그 쉼 빨리 걸으렌 행 때리곡 어느 방향으로 글렌 혜영 영 허는 거.(그런데 그 어젠가 그 밧 가는데 그 소 빨리 걸으라고 해서 때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104004 #2 가린석²⁴³.(‘가린석’.)

104004 #6 가린석엔 현 걸 안 썰을 거야.(‘가린석’이라고 한 걸 안 썰을 거야.)

104004 @1 아, 가린석예?(아, ‘가린석’요?)

104004 #2 가린석.(‘가린석’.)

104004 @1 예, 계난 오른쪽에 해 갖고 영. 가린석 양쪽에 허는 겨우파?(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해 갖고 이렇게. ‘가린석’ 양쪽에 하는 겁니까?)

104004 #6 양쪽에서 왼쪽디레 갈 땐 왼쪽에 걸 땡기고 오른쪽디레 갈 땐 오른쪽 거 땡기고.(양쪽에서 왼쪽으로 갈 땐 왼쪽에 걸 당기고 오른쪽으로 갈 땐 오른쪽 거 당기고.)

104004 @1 예, 예.(예, 예.)

104004 #6 그게 가린석이라이.(그게 ‘가린석’이야.)

104004 @1 게문 그.(그러면 그.)

104004 #6 그거 허영으로 그걸로 이제.(그거 해서 그걸로 이제.)

104004 @1 쉼 영 허면 양쪽에 멩에 옆으로 해 갖고 줄 두 개 잇는 걸 말하지 예?(소 이렇게 하면 양쪽에 멩에 옆으로 해 갖고 줄 두 개 잇는 걸 말하지요?)

104004 #6 가린석.(‘가린석’.)

104004 @1 예.(예.)

104004 #1 쉼뿔에 감양.(쇠뿔에 감아서.)

104004 @1 으, 쉼뿔에 감양예? 예. 으, 경 허영은에 이제 헤고. 그 질, 계난 ㄱ

243) ‘가린석’은 밧을 갈 적에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로, 쇠를 부릴 때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오른쪽의 ‘부림패’에 대비하여 왼쪽의 고삐를 말하기도 한다.

리치지 안 행은에 질들이지 않은 췌, 그 췌는 뭐렌 곶아마씨?(으, 소뿔에 감아서요?
예. 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곶, 그러니까 가르치지 안 해서 곶들이지 않은
소, 그 소는 뭐라고 말해요?)

104004 #6 생부룽이²⁴⁴, 생부룽이.(‘생부룽이’, ‘생부룽이’.)

104004 #2 생췌.(‘생췌’.)

104004 #6 생췌.(‘생췌’.)

104004 @1 생췌, 생부룽이.(‘생췌’, ‘생부룽이’.)

104004 #3 부룽이.(부룩소.)

104004 @1 으, 그다음엔예.(으, 그다음엔요.)

104004 #6 부룽이엔 현 건 숫소를 말허는 거고.(부룩소라고 한 건 수소를 말하
는 거고.)

104004 @1 예.(예.)

104004 #3 일 못허는 거게. 생부룽이. 게, 부룽이 췌 들어가주기.(일 못하는 거.
‘생부룽이’. 글췌, 부룩소 잔 들어가지.)

104004 @1 아.(아.)

104004 #2 부룽인 수소보고 부룽이.(부룩소 수소보고 부룩소.)

104004 #3 부룽인데 아까도 밧갈소도 돼지마는 예 췌를 큰 거, 큰 췌보고 뭐
냐?(부룩소인데 아까도 부룽소도 되지만 예 소를 큰 거, 큰 소보고 뭐냐?)

104004 #2 지등췌²⁴⁵.(‘지등췌’.)

104004 #3 건 지등췌고. 아까 나 거 잊어 불엇저. 그때 곤젠 허난 깜박 잊어 불
엇는데, 이 대개 밧갈췌는 뭐 큰 거나 작은 거나 허민 다 밧갈췌주마는.(건 ‘지등췌’
고. 아까 나 거 잊어 버렸다. 그때 말하려고 하니까 깜박 잊어 버렸는데, 이 대개
부룽소는 뭐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면 다 부룽소지만.)

104004 @1 예.(예.)

104004 #3 췌 중에도 밧갈췌엔 현 건 큰 소.(소 중에도 부룽소라고 한 건 큰
소.)

104004 @1 예.(예.)

104004 #3 큰 거. 으.(큰 거. 으.)

104004 #6 췌디 이게 잊어이. 그 거세허여 불영.(그런데 이게 있어. 그 거세해
버려서.)

104004 @1 예, 예, 예.(예, 예, 예.)

104004 #6 옛날은.(옛날은.)

104004 #3 중성기엔 현 거.(불친소라고 한 거.)

104004 #2 중성기.(불친소.)

104004 #6 옛날은 그 거셴 안 허면은.(옛날은 그 거셴 안 하면.)

244) ‘생부룽이’는 곶들이지 않은 부룩소를 말한다. 달리 ‘생췌’라고도 한다.

245) ‘지등췌’는 집에서 부리기 위해서 오래 기르는 소로, 크고 실한 수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104004 @1 예.(예.)
104004 #6 소가 살 안 찐텐 헛어.(소가 살 안 찐다고 헛어.)
104004 @1 으.(으.)
104004 #6 그래서 거세를 헤여이.(그래서 거세를 해.)
104004 @1 예.(예.)
104004 #2 오래 질루젠 허든.(오래 기르려고 하면.)
104004 @1 건 고깃소로 해 갖고 나가는 거우꽈?(건 고깃소로 해 갖고 나가는 겁니까?)
104004 #2 아니, 집에, 집에.(아니, 집에, 집에.)
104004 #6 집에서 길르는 것도.(집에서 기르는 것도.)
104004 @1 아.(아.)
104004 #2 일을 부려 먹으니까 파는 것 보단도 일을 부려 먹어야 돼니까 막 늦도록 경 헤연 말 잘 듣도록 거세 시켜.(일을 부려 먹으니까 파는 것 보단도 일을 부려 먹어야 되니까 아주 늦도록 그렇게 해서 말 잘 듣도록 거세 시켜서.)
104004 #6 거셀 안 시키면은 소가 막 그냥계, 춤 사람 ㅈ트면 브름둥이 모양으로.(거셀 안 시키면 소가 아주 그냥, 참 사람 같으면 바람둥이 모양으로.)
104004 @1 예, 예, 예.(예, 예, 예.)
104004 #6 거기다 신경 써 가지고.(거기다 신경 써 가지고.)
104004 @1 음.(음.)
104004 #6 경 허니까 거셀 헤 부는 거.(그렇게 하니까 거셀 헤 버리는 거.)
104004 #2 말도 잘 듣고.(말도 잘 듣고.)
104004 @1 계난 그렇게 거세헌 쉼 이름은 뭐마씨?(그러니까 그렇게 거세한 소 이름은 뭐라고요?)
104004 #2 중성기.(불친소.)
104004 @1 중성기.(불친소.)
104004 #6 으.(으.)
104004 @1 아, 중성기. 그러면 거세헌텐 헛 말은, 뭐렌, 뭐 헌텐 헛니까?(아, 불친소. 그러면 거세한다고 한 말은, 뭐라고, 뭐 한다고 합니까?)
104004 #2 불간텐 허주.(불간다고 하지.)
104004 #6 불까는 거.(불까는 거.)
104004 #3 불즐른덴, 즐라.(불간다고, 까.)
104004 #1 불즈른다, 불간다, 뭐. 불즈른다엔 허염신가?(‘불즈른다’, 불간다, 뭐. ‘불즈른다’라고 하고 있는가?)
104004 #3 까는 거는 소는 별로 여기 하르방덜 안 허고 불즐른덴 그.(까는 거는 소는 별로 여기 할아버지들 안 하고 ‘불즐른다’고 그.)
104004 @1 예, 불즐른덴예?(예, 불간다고요?)
104004 #3 그 낭 거 뭐엔 허여. 낭 영 허여 낭 낭으로 걸 막 이제 음을 찔라 부

는 거지.(그 나무 거 뭐라고 해. 나무 이렇게 해 놓아서 나무로 걸 막 이제 음을 잘라 버리는 거지.)

104004 @1 음.(음.)

104004 #3 통허지 못허게.(통하지 못하게.)

104004 @1 음.(음.)

104004 #3 예, 겐디 그건 낭 이름은 몰르커라. 불줄르는 낭 이름이 뭘, 뭘엔 허는지?(예, 그런데 그건 나무 이름은 모르겠어. 불까는 나무 이름이 뭘, 뭐라고 하지?)

104004 @1 예, 게문 그 쉼 아까 헐 때 아까 지등췌?(예, 그러면 그 소 아까 할 때 아까 ‘지등췌’?)

104004 #6 으.(으.)

104004 @1 그건 무슨 말이우파?(그건 무슨 말입니까?)

104004 #6 아니 건.(아니 건.)

104004 #3 건 오래 집안에.(건 오래 집안에.)

104004 #2 그 집안에 제일 좋은 걸로 헤영 오래 길룰 거를 지등췌엔 허주.(그 집안에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오래 기룰 거를 ‘지등췌’라고 하지.)

104004 @1 으.(으.)

104004 #2 오래 질룰 걸.(오래 기룰 걸.)

104004 @1 오래 질룰 걸?(오래 기룰 걸?)

104004 #3 게난 아까 불 중성기 전에.(그러니까 아까 불 불친소 전에.)

104004 @1 예.

104004 #6 소가 밧갈췌는 막 목뒤로 슬지주게. 췌가.(소가 부림소는 막 목뒤로 살찌지. 소가.)

104004 @1 예.(예.)

104004 #3 슬지민 그 슬을 빠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불을 즐라 불어야.(살찌면 그 살을 빠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불을 까 버려야.)

104004 @1 음.(음.)

104004 #3 그 슬을 이용해 가지고 오래 간다 해 가지고 불을 즐랏주.(그 살을 이용해 가지고 오래 간다 해 가지고 불을 짚지.)

104004 #6 아니, 게난 불줄르기 전에.(아니, 그러니까 불까지 전에.)

104004 #3 안 즐라 불민.(안 까 버리면.)

104004 #6 경 슬지질 아녓어.(그렇게 살찌질 았았어.)

104004 #3 안 즐랏지. 게난 슬진 때 즐라야. 게난 준 때.(안 짚지. 그러니까 살 찢 때 까야. 그러니까 즐 때.)

104004 #6 불까 불어야 슬젓주.(불까 버려야 살졌지.)

104004 @1 예.(예.)

104004 #3 게난 슬져 불민 췌가 비둔해 가지고 아까 뭇헛지마는 요즘 그 총각

덜 어디 브름난 식으로. 그렇게 해 놓니까 불을 즐라 불민은.(그러니까 살찌 버리면 소가 비둔해 가지고 아까 뭐했지만 요즘 그 총각들 어디 바람난 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불을 까 버리면.)

104004 @1 음.(음.)

104004 #2 불 세왕 돌아댁긴텐 허엿주.(불 세워서 돌아다닌다고 했지.)

104004 #3 계난 슬진 쉼을 즐라야 그 슬이 유지행 나가주, 유지행 나가.(그러니까 살찐 소를 까야 그 살이 유지해서 나가지, 유지해서 나가.)

104004 @1 예, 예, 거난 이제 으, 그렇게 오래 허는 거를 지등췌렌 허고.(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으, 그렇게 오래 하는 거를 ‘지등췌’라고 하고.)

104004 #3 지등췌 중성기 집에 막 부리는 췌. 거는.(‘지등췌’ 불친소 집에 막 부리는 소. 거는.)

104004 @1 예, 예, 예.(예, 예, 예.)

104004 #3 집안에서 일허는 췌.(집안에서 일하는 소.)

104004 @1 어, 계난 보통 이 부리는 췌는 어느 정도 질룰 수 잇어마씨?(어, 그러니까 보통 이 부리는 소는 어느 정도 기를 수 잇어요?)

104004 #2 흔 십 년 질루. 그 중성기덜은 흔 십년 이상 질루는 거.(한 십 년 기르. 그 불친소들은 한 십년 이상 기르는 거.)

104004 #3 집 주인이 알앙. 건 집 주인이 풀고 허주마는.(집 주인이 알아서. 건 집 주인이 팔고 하지만.)

104004 @1 예.(예.)

104004 #3 일어나 잘 허곡 췌 신용이나 좋은 췌는 오래 지탱허주게.(일어나 잘 하고 췌 신용이나 좋은 소는 오래 지탱하지.)

104004 #2 흔 으서일곱 살에 불을 즐르주.(한 예닐곱 살에 불을 까지.)

104004 #6 그제 잇주게.(그제 있지.)

104004 @1 으.(으.)

104004 #6 대농.(대농.)

104004 @1 예, 예.(예, 예.)

104004 #6 그런 사름은 우선 밧 가는 게 목적 아니?(그런 사름은 우선 밧 가는 게 목적 아니?)

104004 @1 예, 예, 옛날에.(예, 예, 옛날에.)

104004 #2 지등췌 허영.(‘지등췌’ 해서.)

104004 #6 중성기를 이제 그 오래.(불친소를 이제 그 오래.)

104004 @1 예.(예.)

104004 #6 *끔 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뭐는 거는 어느 정도 크면은 그냥 팔아 불주게.(*끔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뭐는 거는 어느 정도 크면 그냥 팔아 버리지.)

104004 #3 풀아 불주게. 중성기 전에 풀아 불어야주기.(팔아 버리지. 불친소 전

에 팔아 버려야지.)

104004 #1 중성기가 돼면은이.(불친소가 되면.)

104004 @1 예.(예.)

104004 #1 성질이 거친 것도.(성질이 거친 것도.)

104004 @1 음.(음.)

104004 #2 온순해져.(온순해져.)

104004 #1 으, 온순해져이.(으, 온순해져.)

104004 @1 음.(음.)

104004 #1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그 거세를 혜영근에 춤 불줄라 가지고.(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그 거세를 해서 참 불까 가지고.)

104004 @1 예.(예.)

104004 #1 그 저 온순현 그런 빛으로 혜영 오래 기르는 곳도 있고.(그 저 온순한 그런 빛으로 해서 오래 기르는 곳도 있고.)

104004 @1 음.(음.)

104004 #1 으, 그 또 밧을 잘 가는 췌가 있고 못 가는 췌가 잇을 거 아냐?(으, 그 또 밧을 잘 가는 소가 있고 못 가는 소가 잇을 거 아냐?)

104004 @1 예, 예, 예.(예, 예, 예.)

104004 #1 그 잘 가는 췌가 돼어 갖고 춤 밧 가는 거 아까운 거나 오래 기루고 싶으면 또 불 줄르고 영 현 거라.(그 잘 가는 소가 되어 갖고 참 밧 가는 거 아까운 거나 오래 기르고 싶으면 또 불까고 이렇게 한 거야.)

104005 @1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이 췌 나이 아까, 이제 사릅 허멍 헨게마는 어떤 식으로 세어마씨? 췌 흐 설부터 한번 세어 봅서.(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 나이 아까, 이제 사릅 하면서 하더니만 어떤 식으로 세어요? 소 한 살부터 한번 세어 보세요.)

104005 #1 금승.(하릅.)

104005 #3 금승.(하릅.)

104005 #6 흐 살. 흐 살짜리 금승.(한 살. 한 살짜리 하릅.)

104005 #2 다간.(이듭.)

104005 #1 다간.(이듭.)

104005 #3 두 설짜리.(두 살짜리.)

104005 #2 사릅.(사릅.)

104005 #1 사릅.(사릅.)

104005 #2 나릅.(나릅.)

104005 #1 나릅.(나릅.)

104005 #2 그다음은 뭐 다섯 슬, 으섯 설. 그다음에 다섯 설, 으섯 슬.(그다음은 뭐 다섯 살, 여섯 살. 그다음에 다섯 살, 여섯 살.)

104005 #6 그다음 보통 그 정도니까 그 후제믄 멧 살 멧 살 헤여.(그다음 보통

그 정도니까 그 후면 몇 살 몇 살 해.)

104005 #1 아니, 오수 육수 허는 것이.(아니, 오수 육수 하는 것이.)

104005 #2 건 물이고.(건 말이고.)

104005 #1 뜰에 해당허는가?(말에 해당허는가?)

104005 @1 다섯예? 그다음엔 다습이렌은 안 곁아마씨?(다섯요? 그다음엔 다습이라고는 안 말해요?)

104005 #3 다습이엔 곁아. 다습꺼진 근데.(다습이라고 말해. 다습까진 말하는데.)

104005 @1 예.(예.)

104005 #3 다습 넘어가면은 췌가 이빨을 보민 몽글아.(다습 넘어가면 소가 이빨을 보면 몽글어.)

104005 @1 으.(으.)

104005 #3 요 에염으로 빠지곡.(요 가장자리로 빠지고.)

104005 @1 아.(아.)

104005 #3 케믄 요거는 멧 설 췌 거다, 어.(그러면 요거는 멧 살 된 거다, 어.)

104005 #6 견디 암소나 아니면은.(그런데 암소나 아니면.)

104005 @1 예.(예.)

104005 #6 암소는 새끼 내올려고 오래 기르는데.(암소는 새끼 낳게 하려고 오래 기르는데.)

104005 @1 예.(예.)

104005 #6 숫소는 아까도 애기헛주마는 농사 많이 허는 사람.(수소는 아까도 애기헛지만 농사 많이 하는 사람.)

104005 @1 으.(으.)

104005 #6 아주 저.(아주 저.)

104005 #2 말 잘 듣는.(말 잘 듣는.)

104005 #6 말 잘 듣고 그런 소는 헌디 경 아녀믄 경 막 오래 질루질 아녀주게.(말 잘 듣고 그런 소는 하는데 그렇게 앓으면 그렇게 아주 오래 기르지 않지.)

104005 #3 부종으로 헤나민 *** 맥영 육소로 다 풀아 불주게.(부종으로 헤나민 *** 먹여서 육소로 다 팔아 버리지.)

104005 @1 예.(예.)

104005 #3 경 아녀믄 맥여 봤자.(그렇게 앓으면 먹여 봤자.)

104005 #2 나릅 췌나 다습 췌 돼여 가믄 야개기가 이만이 허영 솔져 불주기. 경 허영 그치룩 허민 풀아 불어.(나릅 소나 다습 소 되어 가면 모가지가 이만큼 해서 살찌 버리지. 그렇게 해서 그처럼 하면 팔아 버려.)

104005 #3 맥여 봤자.(먹여 봤자.)

104006 @1 우리 요번에도 헛주마는예, 쟁기 부분 명칭 한 번 다시 한 번 곁아줘 봅서. 쟁기 부분 명칭이엔 헌 게, 손잡이 허면은 양주머리부떠 허영은에 이 보섭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곁아줘 봅서.(우리 요번에도 헛지만요, 쟁기 부분 명칭

한 번 다시 한 번 말해줘 보십시오. 쟁기 부분 명칭이라고 한 게, 손잡이 하면은 양지머리부터 해서 이 보습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말해줘 보십시오.)

104006 #3 쥘 쳇 번 허게 뉘면 양쫓머리.(쥘 쳇 번 하게 되면 양지머리.)

104006 @1 예.(예.)

104006 #3 그다음 양쫓머리 허민 이제 잠대 무클.(그다음 양지머리 하면 이제 쟁기 쟁깃술.)

104006 @1 예.(예.)

104006 #3 오그라진 거.(오그라진 거.)

104006 @1 예.(예.)

104006 #6 성에.(성에.)

104006 #3 곧작헌 거 잠대 성에. 우선 그 세 개는 우선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들어가는 거는.(곧은 거 쟁기 성에. 우선 그 세 개는 우선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들어가는 거는.)

104006 #2 설칫.(한마루.)

104006 #3 설칫. 이제 잠대 저 무클에서 ** 설칫.(한마루. 이제 쟁기 저 쟁깃술에서 ** 한마루.)

104006 @1 예.(예.)

104006 #3 설칫 설칫못²⁴⁶이 셔이, 나무로 뉘 거.(한마루 ‘설칫못’이 있어, 나무로 뉘 거.)

104006 @1 예, 설칫못.(예, ‘설칫못’.)

104006 #2 벳바드랭이²⁴⁷.(‘벳바드랭이’.)

104006 #3 그다음 벳바드랭이.(그다음 ‘벳바드랭이’.)

104006 @1 예.(예.)

104006 #3 또 벳틀레²⁴⁸.(또 ‘벳틀레’.)

104006 @1 예.(예.)

104006 #1 벳코²⁴⁹.(‘벳코’.)

104006 @1 예.(예.)

104006 #3 벳칼, 저 벳칼.(벳칼, 저 벳칼.)

104006 @1 벳칼.(벳칼.)

104006 #3 으, 벳칼. 그다음에는 또.(으, 벳칼. 그다음에는 또.)

104006 #6 그 나무 영 허영 허는 것²란 뉘엔 헌다마는. 벳 움직이지 못허게 게.(그 나무 이렇게 해서 하 것보고는 뉘라고 헌다마는. 벳 움직이지 못하게, 게.)

104006 @1 뉘.(‘뉘’.)

246) ‘설칫못’은 쟁기 성에에 꿰어진 한마루에 찌르는 나뭇조각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설칫세역’이라고 한다.

247) ‘벳바드랭이’는 ‘보습 위에 댄 벳을 받치는, 한마루에 꿰어진 나무갱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벳받침’ 따위로 부른다.

248) ‘벳틀레’는 쟁기에 벳을 단단히 틀어 주는 나무 조각이다. 두 겹 되어 있다.

249) ‘벳코’는 벳의 뒷면에 있는 고리다.

- 104006 #6 영 헤지는 거 잇잖녀.(이렇게 하는 거 잇잖아.)
- 104006 #3 벳바드랭이.(‘벳바드랭이’.)
- 104006 #6 바드랭이 맞아.(받침 맞아.)
- 104006 #2 아까 헛수게.(아까 했습니다.)
- 104006 #6 헛저, 춤.(했다, 참.)
- 104006 #3 벳바드랭이끈²⁵⁰도 이젠 들어가는 거. 건 뒤 벳바드랭이끈.(‘벳바드랭이끈’도 이젠 들어가는 거. 건 뒤 ‘벳바드랭이끈’.)
- 104006 @1 예.(예.)
- 104006 #3 옹지. 아까 벳코 곶고, 벳칼 헛고.(옹지. 아까 ‘벳코’ 말하고, 벳칼 헛고.)
- 104006 @1 예.(예.)
- 104006 #3 그다음에는 장기에는 것뿐이라. 벳 보섭 거 다 부찌면은.(그다음에는 쟁기에는 것뿐이야. 벳 보습 거 다 붙이면.)
- 104006 @1 보섭.(보습.)
- 104006 #3 것뿐.(것뿐.)
- 104006 @1 땀은 안 나왔수게.(‘땀’은 안 나왔습니다.)
- 104006 #2 들벳이뿔.(물추리막대.)
- 104006 #3 땀²⁵¹. 거 이젠.(‘땀’. 거 이젠.)
- 104006 #6 들벳이뿔, 춤.(물추리막대, 참.)
- 104006 #3 성에에 들벳이뿔, 으.(성에에 물추리막대, 으.)
- 104006 #2 성에.(성에.)
- 104006 #6 성에.(성에.)
- 104006 @1 성에.(성에.)
- 104006 #3 성에 땀 놓는 게 잇어.(성에 ‘땀’ 놓는 게 잇어.)
- 104006 @1 예, 땀.(예, ‘땀’.)
- 104006 #3 깊이 같고 얕이 같고 땀. 설칫 우의 놓는 땀 그거.(깊이 같고 얕게 같고 ‘땀’. 한마루 위에 놓는 ‘땀’ 그거.)
- 104006 @1 예.(예.)
- 104006 #3 거 잠댄 일단 끝나고.(거 쟁긴 일단 끝나고.)
- 104008 @1 예, 그다음엔 멩에?(예, 그다음엔 멩에?)
- 104008 #3 멩에.(멩에.)
- 104008 @1 음, 영 위에 잇는 거.(음, 이렇게 위에 잇는 거.)
- 104008 #3 그다음에 또.(그다음에 또.)
- 104008 #2 슝비줄.(봇줄.)
- 104008 #3 슝비줄 아니고 저 무시거 목 메는 거게. 그 뿔고. 줍게.(봇줄 아니고

250) ‘벳바드랭이끈’은 보습 위에 댄 벳을 받치는, 한마루에 꿰어진 나무깁이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251) ‘땀’은 쟁기의 성에와 한마루 사이에 끼어 놓은, 깊이깊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저 무엇 목 매는 거. 그 무엇이니. 목대.)

104008 #2 좁게.(목대.)

104008 @1 좁게.(목대.)

104008 #3 좁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은 이젠 솜비줄.(목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은 이젠 붓줄.)

104008 #6 솜비줄.(붓줄.)

104008 @1 이게 솜비줄. 예.(이게 붓줄. 예.)

104008 #3 그다음 솜비줄 허민 솜비줄에서 등켓줄이라고.(그다음 붓줄 하면 붓줄에서 한테줄이라고.)

104008 @1 등켓줄.(한테줄.)

104008 #3 그다음은 오리목²⁵². 오리목 매는 나무라이.(그다음은 ‘오리목’. ‘오리목’ 매는 나무야.)

104008 @1 오리목이.(‘오리목’이.)

104008 #2 버을레.(비겨미.)

104008 #3 버을레.(비겨미.)

104008 #2 버을레.(비겨미.)

104008 #3 버을레, 버을레.(비겨미, 비겨미.)

104008 @1 버을레가 뭐우짜?(비겨미가 뭐니까?)

104008 #3 버을레는 솜비줄 소 뒷다리 안 답게.(비겨미는 붓줄 소 뒷다리 안 답게.)

104008 @1 예, 예.(예, 예.)

104008 #3 영 놓는 벌레.(이렇게 놓는 비겨미.)

104008 @1 벌레가 나무우짜?(비겨미가 나뭇잎니까?)

104008 #2 나무.(나무.)

104008 #3 으, 벌레가 나무라.(으, 비겨미가 나무야.)

104008 @1 아.(아.)

104008 #3 솜비줄 벨라 주는 것이 버을레.(붓줄 벌려 주는 것이 비겨미.)

104008 @1 버을레, 예, 예.(비겨미 예, 예.)

104008 #2 저번에 버을레 안 나완.(저번에 비겨미 안 나왔어.)

104008 @1 버을레 지난번에 안 나왔수다.(비겨미 지난번에 안 나왔습니다.)

104008 #3 안 굴안, 안 굴안.(안 말했어, 안 말했어.)

104008 @1 버을레 안 나오고. 오리목 메 뭐 막 이렇게 나완.(비겨미 안 나오고. ‘오리목’ 메(?) 뭐 막 이렇게 나완.)

104008 #3 으.(으.)

104008 #2 버을레 나가 오늘 완 굴았네. 거 이.(비겨미 내가 오늘 와서 말했네.)

252) ‘오리목’은 붓줄 끝에 달린 나무막대기인 비겨미 양쪽에 끼워서 붓줄과 쟁기의 성예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려매는 줄을 말한다.

거 이.)

104008 #3 오리목은 벌레에 낚는 거이.(‘오리목’은 비겨미에 끼는 거.)

104008 @1 예.(예.)

104008 #3 솜비줄하고 연결시키는 거.(붓줄하고 연결시키는 거.)

104008 @1 예.(예.)

104008 #3 그다음은 오리목.(그다음은 ‘오리목’.)

104008 @1 오리목.(‘오리목’.)

104008 #3 으, 오리목.(으, ‘오리목’.)

104008 @1 오리목은 끈이엿잖아, 이렇게 저기.(오리목은 끈이엿잖아, 이렇게 저기.)

104008 #3 요렇게 된 거.(요렇게 된 거.)

104008 @1 들벥이뿔하고 ㄹ치 연결허는 거예, 예?(물추리막대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요, 예?)

104008 #2 그것이.(그것이.)

104008 @1 예. 오리목.(예. ‘오리목’.)

104008 #3 그다음 이젠 들벥이뿔이든 오리목, 오리목코 허는 거.(그다음 이젠 물추리막대면 ‘오리목’, ‘오리목코(?)’ 하는 거.)

104008 #2 쟁기에 영 께영은에 연결허는 거주.(쟁기에 이렇게 께어서 연결하는 거지.)

104008 #3 그거주기.(그거지.)

104008 @1 오리목코?(‘오리목코’?)

104008 #3 오리목, 코가 아니고 오리목 무끄는 거 오리목베엔 해도 좋고, 오리목베일 거라. 베.(‘오리목’, 고리가 아니고 ‘오리목’ 묶는 거 ‘오리목바’라고 해도 좋고, ‘오리목바’일 거야. 바.)

104008 @1 오리목코. 오리목베예. 지난번에 벼을레가 안 나왔수다, 벼을레.(‘오리목코’. ‘오리목베’요. 지난번에 비겨미가 안 나왔습시다, 비겨미.)

104008 #3 벼을레가 안 나완. 그거, 그거 안 나온 거 닳다 보니까.(비겨미가 안 나왔어. 그거, 그거 안 나온 거 닳다 보니까.)

104008 @1 계난 이렇게 우리가 두 번씩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두 번씩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104008 #6 맞추게.(맞지.)

104008 #3 벼을레.(비겨미.)

104008 #1 그것이 오리목. 무시거 이 저 무끄는 거난.(그것이 ‘오리목’. 무엇 이저 묶는 거니까.)

104008 #3 오리목끈²⁵³.(‘오리목끈’.)

253) ‘오리목끈’은 붓줄 끝에 달린 나무막대기인 비겨미 양쪽에 끼워서 붓줄과 쟁기의 성예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러매는 줄을 말한다.

- 104008 #1 끈이엔 헛어. 끈.(끈이라고 헛어. 끈.)
- 104008 #3 오리목끈.(‘오리목끈’.)
- 104008 @1 예.(예.)
- 104008 #3 오리목끈 그때 돌아젓일 건디.(‘오리목끈’ 그때 말해졌을 건데.)
- 104008 @1 그땐 오리목매엔 돌아수다.(그땐 ‘오리목매’라고 말했습니다.)
- 104008 #3 오리목끈. 오리목끈.(‘오리목끈’. ‘오리목끈’.)
- 104008 #1 끈엔 허고.(끈이라고 하고.)
- 104008 #3 그거는 장기. 그다음 또 이제 췌앗베²⁵⁴. 가린석²⁵⁵도 안 들어갔저, 거기.(그거는 쟁기. 그다음 또 이제 ‘췌앗베’. ‘가린석’도 안 들어갔다, 거기.)
- 104008 #6 가린석.(‘가린석’.)
- 104008 #2 가린석은 췌에 들어가는 거.(‘가린석’은 소에 들어가는 거.)
- 104008 @1 거 가린석은 췌 양쪽에 무끄는 거예?(거 ‘가린석’은 소 양쪽에 묶는 거요?)
- 104008 #3 양쪽 끝. 가린석은 밧 갈 때 거 필히.(양쪽 끝. ‘가린석’은 밧 갈 때 거 필히.)
- 104008 #6 방향 **.(방향 **.)
- 104008 @1 방향 할 때.(방향 할 때.)
- 104008 #3 잠대에 다 서끄는 거.(쟁기에 다 섞는 거.)
- 104008 @1 가린석하고. 가린석은 밧 갈 때 잠대 허는 거고예?(‘가린석’하고. ‘가린석’은 밧 갈 때 쟁기 하는 거고요?)
- 104008 #3 옹지.(옹지.)
- 104008 @1 평소에 영 무경 이신 거는 뭐우짜?(평소에 이렇게 묶어 있는 거는 뭇니까?)
- 104008 #2 췌석.(쇠고삐.)
- 104008 #3 췌석개.(쇠고삐.)
- 104008 @1 건 췌석예? 예. 이게 지난번에 오리목이런 헛는데 이게 오리목이 아니라.(건 쇠고삐요? 예. 이게 지난번에 ‘오리목’이라고 헛는데 이게 ‘오리목’이 아니라.)
- 104008 #3 버을레.(비겨미.)
- 104008 #2 버을레.(비겨미.)
- 104008 @1 이게 버을레예?(이게 비겨미요?)
- 104008 #3 버을레, 버을레.(비겨미, 비겨미.)
- 104008 @1 예, 버을레.(예, 비겨미.)
- 104008 #3 가린석.(‘가린석’.)
- 104008 @1 으, 이게 버을레가 그때 안 나온 거.(으, 이게 비겨미가 그때 안 나

254) ‘췌앗베’는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맬 때 사용하는 바다. 조금 굽직하게 드린 기다란 밧줄을 말한다.

255) ‘가린석’은 밧을 갈 때 소의 뿔 양쪽에 매어서 소를 부릴 때 사용하는 고삐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왼쪽의 고삐를 ‘가린석’, 오른쪽의 고삐를 ‘부림페’라고 말한다.

온 거.)

104008 #3 버을래.(비겨미.)

104008 @1 아, 여기 아니다. 으, 이게 버을래. 매는 줄은 오리목.(아, 여기 아니다. 으, 이게 비겨미. 매는 줄은 ‘오리목’.)

104008 #3 매는 줄 오리목? 오리목끈.(매는 줄 ‘오리목’? ‘오리목끈’.)

104008 @1 케니까 ** 끈, 끈.(그러니까 ** 끈, 끈.)

104008 #3 들벙이에 무끄는 게 오리목끈.(물추리막대에 묶는 게 ‘오리목끈’.)

104008 @1 케니까 여기가 들벙이뿔에 이게 오리목 아니라예?(그러니까 여기가 물추리막대에 이게 ‘오리목’ 아닌가요?)

104008 #3 오리목.(‘오리목’.)

104008 #2 거 잘라매는 거 오리목줄.(거 잘라매는 거 ‘오리목줄’.)

104008 #3 오리목허고 들벙이 무끄는 것이 오리목끈게, 끈.(‘오리목’하고 물추리막대하고 묶는 것이 ‘오리목끈’이야, 끈.)

104008 @1 요거, 요거.(요거, 요거.)

104008 #3 오리목끈. 오케이.(‘오리목끈’ 오케이.)

104008 @1 이게. 들벙이뿔 이게 버을래.(이게. 물추리막대 이게 비겨미.)

104008 #3 걸로 잡대 끈.(걸로 쟁기 끝.)

104008 @1 그다음에 양쪽에 이 긴 거를 숨비줄.(그다음에 양쪽에 이 긴 거를 붓줄.)

104008 #3 숨비줄.(붓줄.)

104008 @1 예, 쉐 하는 거는 가린석.(예, 소 하는 거는 ‘가린석’.)

104008 #3 가린석.(‘가린석’.)

104008 @1 가린석은 양쪽에 두 개.(‘가린석’은 양쪽에 두 개.)

104008 #3 건 필히 밧 갈 때 다 들어가는 거, 거기는.(건 필히 밧 갈 때 다 들어가는 거, 거기는.)

104008 @1 예, 예.(예, 예.)

104008 #3 거 다 들어사 뿔 거주.(거 다 들어야 뿔 거지.)

104007 @1 맞수다. 그다음엔예, 질메.(맞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길마.)

104007 #3 질메.(길마.)

104007 @1 예.(예.)

104007 #3 질메도 굴앗주마는.(길마도 말했지만.)

104007 @1 지난번에도 한 번 했지만 질메도 또 굴아 줘서. 질메 허민 이렇게 허민.(지난번에도 한 번 했지만 길마도 또 말해 주십시오. 길마 하면 이렇게 하면.)

104007 #3 앞가지, 뒷가지.(앞가지, 뒷가지.)

104007 @1 앞에 게 앞가지우짜? 뒷가지우짜?(앞에 게 앞가지입니까? 아니면 뒷가지입니까?)

104007 #3 앞가지.(앞가지.)

- 104007 @1 뒷가지, 예.(뒷가지, 예.)
- 104007 #3 뒷가지. 케난 앞가지가 노프고.(뒷가지. 그러니까 앞가지가 높고.)
- 104007 @1 예, 예.(예, 예.)
- 104007 #3 뒷가지보다 노프고. 그다음에 거기 뭐 들어가냐 허민 벌레. 아니, 물메²⁵⁶. 아이고, 저.(뒷가지보다 높고. 그다음에 거기 뭐 들어가느냐 하면 비겨미. 아니, ‘물메’. 아이고, 저.)
- 104007 @1 지난번도.(지난번도.)
- 104007 #3 어제 ○○이 꼴았지, 자네안티.(어제 ○○이 말했지, 자네한테.)
- 104007 #2 나도 잊어 불었어.(나도 잊어 버렸어.)
- 104007 #3 저 질메 메젠 허민.(저 길마 매려고 하면.)
- 104007 #2 요거 요걸 말허는 건데.(요거 요걸 말하는 건데.)
- 104007 @1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 104007 #2 거기 고망 딸랑 우알로 행은에 그 무끄는 게 있어.(거기 구멍 뚫어서 위아래로 해서 그 묶는 게 있어.)
- 104007 @1 어.(어.)
- 104007 #3 아, 그때 거기 써젯일 건디. 나 근 거.(아, 그때 거기 써졌을 건데. 나 말한 거.)
- 104007 @1 질멧가지.(길맞가지.)
- 104007 #3 아, 질멧가지 말고. 질멧가지 연결시킨 헛 거 그때 내 얘기했는디 거 어떡허면 잊어 불어시니.(아, 길맞가지 말고. 길맞가지 연결시켜서 한 거 그때 내 얘기했는데 거 어떡해서 잊어 버렸느냐.)
- 104007 @1 그때도 뭔가 안 나오기도 헛수다.(그때도 뭔가 안 나오기도 했습시다.)
- 104007 #2 잊어 불언 것도 모르커라.(잊어 버려서 것도 모르겠다.)
- 104007 @1 물.(물.)
- 104007 #2 요거, 요거, 요거, 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 104007 @1 물레렌 헤신게. 물렛고망.(‘물레’라고 했는데. ‘물렛고망’.)
- 104007 #3 물레²⁵⁷ 맞아. 물레.(‘물레’ 맞아. ‘물레’.)
- 104007 @1 물레허고 물렛고망.(‘물레’허고 ‘물렛고망’.)
- 104007 #3 으, 물렛고망²⁵⁸.(으, ‘물렛고망’.)
- 104007 @1 예.(예.)
- 104007 #3 그다음 도곰.(그다음 땀치.)
- 104007 @1 예, 도곰. 여기, 여기 안에 허는 거예?(예, 땀치. 여기, 여기 안에 허는 거요?)
- 104007 #3 도곰, 으. 그다음은 또 질메오량²⁵⁹.(땀치, 으. 그다음은 또 ‘질메오

256) 여기에서 제보자가 가리키는 ‘물메’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257) 여기에서 제보자가 가리키는 ‘물레’는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258) 여기에서 제보자가 가리키는 ‘물렛고망’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량’.)

104007 #2 오량.(뱃대끈.)

104007 #3 베따지에 무끄는 오량.(배때기에 묶는 뱃대끈.)

104007 @1 예, 질메오량.(예, ‘질메오량’.)

104007 #3 그다음은 고들개.(그다음은 쟁거리막대.)

104007 @1 고들개.(쟁거리막대.)

104007 #3 고들개 나무로 쥘 거이. 두에 영 허영 현 거. 그다음은.(쟁거리막대 나무로 쥘 거. 뒤에 이렇게 해서 한 거. 그다음은.)

104007 #2 고들개친도 없어.(쟁거리끈.)

104007 #3 고들개친.(쟁거리끈.)

104007 @1 예, 고들개친.(예, 쟁거리끈.)

104007 #3 친, 그다음 고들개끈 그디 썬져신가. 안 썬져? (끈, 그다음에 쟁거리끈 거기 썬져는가. 안 썬져어?)

104007 @1 고들개친이 고들개끈 아니마썬?(쟁거리끈이 ‘고들개끈’ 아니에요?)

104007 #3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07 #2 아니, 또 하나 있어, 아래.(아니, 또 하나 있어, 아래.)

104007 #3 고들개끈이엔 현 건 고들개에 무쥬 그 저 뱃똥으로 이리 와 가지고.(쟁거리끈이라고 한 건 쟁거리막대에 묶어서 그 저 배똥으로 이리 와 가지고.)

104007 @1 예.(예.)

104007 #3 오량디레 왕 무껴쥬사.(뱃대끈으로 와서 묶어쥬야.)

104007 @1 이 앞에 이렇게 현 거.(이 앞에 이렇게 한 거.)

104007 #4 무껴 쥬사.(묶어 쥬야.)

104007 #3 으.(으.)

104007 #2 고들개 요디 요렇게 허는 나무에 가운데 구멍 똥랑 이 저 뱃데기 알로 헤영은예.(쟁거리막대 여기 요렇게 하는 나무에 가운데 구멍 뚫어서 이 저 배때기 아래로 해서.)

104007 @1 예, 이렇게 영 무끄는 게.(예, 이렇게 이렇게 묶는 게.)

104007 #2 오량으로 쥬라매는 게 있어.(뱃대끈으로 쥬라매는 게 있어.)

104007 #3 걸 무껴 쥬사 그 고들개가 우티레 올라오지 못허게.(걸 묶어 쥬야 그 쟁거리막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104007 #6 경 허난 우티레 올라오지 못허게.(그렇게 하니까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104007 @1 예,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

104007 #2 고들개가 풀랑지 우티레 올라와 불 거난 그.(쟁거리막대가 꼬리 위로 올라와 버릴 거니까 그.)

259) ‘질메오량’은 소에 짐을 싣기 위해 길마를 채울 때 길마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소의 가슴을 휘감아 묶어 주는 끈이다. ‘오량’은 뱃대끈을 말한다.

104007 @1 고들개친은 뭐우짜? 계문.(경거리끈은 뭘니까? 그러면.)

104007 #3 고들개친은계 질메허고 고들개를 연결시키는 계.(경거리끈은 길마하고 경거리막대를 연결시키는 계.)

104007 #2 이 양쪽에 잇주게.(이 양쪽에 있지.)

104007 @1 아, 질메허고 이제 고들개를 연결허는 계 고들개친이고.(아, 길마하고 이제 경거리막대를 연결하는 계 경거리끈이고.)

104007 #3 으, 고들개친.(으, 경거리끈.)

104007 @1 그다음에 고들개, 오랑, 오랑.(그다음에 경거리막대, 뱃대끈, 뱃대끈.)

104007 #3 오랑 배떼기로.(뱃대끈 배떼기로.)

104007 @1 오랑하고 저기 위에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뱃대끈하고 저기 위에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104007 #2 으, 고들개끈.(으, 경거리끈.)

104007 #3 오랑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뱃대끈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104007 @1 예, 거 오랑끈?(예, 거 ‘오랑끈’?)

104007 #3 오랑끈게. 그거는 그 저 오랑 뭘 때 끈이 잇어얄 거 아니라게.(‘오랑끈’. 그거는 그 저 뱃대끈 뭘 때 끈이 잇어야 할 거 아닌가.)

104007 @1 예, 예.(예, 예.)

104007 #3 질메에 무끈 오랑이고. 그다음 오랑끈도 질메 부떠야주게. 부땡 홀타 매야 될 거주지.(길마에 묶은 뱃대끈이고. 그다음 ‘오랑끈’도 길마 붙어야지. 붙어서 훑아서 매야 될 거지.)

104007 @1 예, 계난 여기가 가운데가 이제.(예,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이제.)

104007 #3 으.(으.)

104007 @1 저 뭐렌 헛잖아예. 고들개.(저 뭐라고 했잖아요. 경거리막대.)

104007 #3 고들개?(경거리막대?)

104007 @1 오랑 어느 거? 오랑?(뱃대끈 어느 거? 뱃대끈?)

104007 #2 오랑.(뱃대끈.)

104007 #3 오랑은 질메 이디 멘들지 아녜어. 질메민 질메, 질멧살이 이디 이제 오랑을 영 멘들아놓면은.(뱃대끈은 길마 여기 만들지 았았어. 길마면 길마, ‘질멧살’이 여기 이제 뱃대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04007 @1 이게 오랑 멘드는 거고?(이게 뱃대끈 만드는 거고?)

104007 #3 이쪽으로 오랑끈 이제 헨.(이쪽으로 ‘오랑끈’ 이제 해서.)

104007 @1 예.(예.)

104007 #3 해근에 질메에 무끌 거주. 줄라매는 거.(해서 길마에 묶을 거지. 줄라매는 거.)

104007 #2 요것이 고들개.(요것이 경거리막대.)

104007 #3 요거는 고들개. 계문 고들개끈은 요거. 요레 무끄는 거. 고들개 요

레.(요거는 쟁거리막대. 그러면 ‘고들개끈’은 요거. 요리로 묶는 거. 쟁거리막대 요리로.)

104007 @1 이게?(이게?)

104007 #2 오랑디레 강은에 무꺼야 돼.(뱃대끈으로 가서 묶어야 돼.)

104007 @1 이게 오랑끈이렌 헨 그때. 이게 고들개끈?(이게 ‘오랑끈’이라고 해서 그때. 이게 ‘고들개끈’?)

104007 #3 으, 고들개끈.(으, ‘고들개끈’.)

104007 @1 고들개끈예, 예.(‘고들개끈’요, 예.)

104007 #3 오랑끈은 옆에, 요 옆에 질메허고 잇는 이 사이.(‘오랑끈’은 옆에, 요 옆에 길마하고 잇는 이 사이.)

104007 #2 이거. 그걸 말허는 거주.(이거. 그걸 말하는 거지.)

104007 @1 이제 지난번에 거꾸로 곁앗수다. 이게 고들개친이렌 허고 이거 오랑끈이렌 곁안.(이제 지난번에 거꾸로 말했습니다. 이게 ‘고들개친’이라고 하고 이거 ‘오랑끈’이라고 말했어.)

104007 #3 아니 으, 꺼꾸로. 옳은 게 이거. 이거는 고들개끈이고.(아니 으, 거꾸로. 옳은 게 이거. 이거는 ‘고들개끈’이고.)

104007 @1 예. 이거는 저 오랑끈. 오랑끈이 아니라 저 뭐고, 고들개끈.(예. 이거는 저 ‘오랑끈’. ‘오랑끈’이 아니라 저 뭐고, ‘고들개끈’.)

104007 @1 이진 고들개.(이진 쟁거리막대.)

104007 #3 고들개끈.(‘고들개끈’.)

104007 @1 끈. 이거는 고들개끈? 이 양쪽에는.(끈. 이거는 ‘고들개끈’? 이 양쪽에는.)

104007 #3 양쪽에는.(양쪽에는.)

104007 @1 고들개친?(‘고들개친’?)

104007 #3 고들개친?(‘고들개친’?)

104007 @1 웃음. 막 서껌수가? 웃음, 가운데 건 오랑이잖아예?(웃음. 막 섞습니까? 웃음, 가운데 건 쟁거리막대잖아요?)

104007 #3 으, 오랑.(으, 뱃대끈.)

104007 @1 오랑이고? 여기 양쪽에 영 끈도 잇텐 헛잖우꽈? 그때.(뱃대끈이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끈도 있다고 헛잖습니까? 그때.)

104007 #2 거 잇주기.(거 있지.)

104007 @1 예, 저기 고들개 연결하는 끈 두 개?(예, 저기 쟁거리막대 연결하는 끈 두 개?)

104007 #3 저 생각 안 나네이.(저 생각 안 나네.)

104007 @1 고들개친?(‘고들개친’?)

104007 #2 고들개, 고들개친이고.(쟁거리막대, ‘고들개친’이고.)

104007 @1 이, 이거는?(이, 이거는?)

104007 #2 고들개친이고 이 가운데로 한 게 고들개끈계.(‘고들개친’이고 이 가운데로 한 게 ‘고들개끈’.)

104007 @1 오랑끈은 없고?(‘오랑끈’은 없고?)

104007 #2 오랑, 오랑끈은 이거고.(뱃대끈, ‘오랑끈’은 이거고.)

104007 #3 오랑끈은 그거고.(‘오랑끈’은 그거고.)

104007 #2 이거는 저 고들개친은 거는 이디 이디 졸라매영 잇주지.(이거는 저 ‘고들개친’은 거는 여기 여기 졸라매서 있지.)

104007 @1 예, 오랑허고 이렇게 고들개하고 연결.(예, 뱃대끈하고 이렇게 쟁거리막대하고 연결.)

104007 #6 오랑끈이 아니고 오랑이주게, 그건.(‘오랑끈’이 아니고 뱃대끈이지, 그건.)

104007 #2 오랑은 이것이 오랑이고.(뱃대끈은 이것이 뱃대끈이고.)

104007 #6 게메, 거.(글쎄, 거.)

104007 @1 예.(예.)

104007 #2 배때기로 행 영.(배때기로 해서 이렇게.)

104009 @1 고들개친.(‘고들개친’.)

104007 #3 고들개친에 요건 고들개끈허고. 고들개끈허고 고들개친.(‘고들개친’에 요건 ‘고들개끈’하고. ‘고들개끈’하고 ‘고들개친’.)

104007 @1 예, 알아수다. 알아수다, 예.(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104007 #3 그거.(그거.)

104007 @1 으, 그다음엔예?(으, 그다음에는요?)

104007 #3 으.(으.)

104009 @1 여기도 목장들이 잇어신가마씨?(여기도 목장들이 있었는가요?)

104009 #6 잇엇어.(있엇어.)

104009 #2 잇엇주.(있엇지.)

104009 @1 목장 관리는 어떻 헤엇수가?(목장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04009 #6 목장 관리는.(목장 관리는.)

104009 @1 으.(으.)

104009 #6 그 목장조합이 잇엇어.(그 목장조합이 있었어.)

104009 @1 예.(예.)

104009 #6 목장조합이 잇어 가지고.(목장조합이 잇어 가지고.)

104009 @1 예.(예.)

104009 #6 게난 그건 뭐 매 사름이 허는 게 아니고.(그러니까 그건 뭐 매 사름이 하는 게 아니고.)

104009 @1 으.(으.)

104009 #6 그 조합에 가입이.(그 조합에 가입이.)

104009 #2 그 조합에 든 사름. 가입헌 사름.(그 조합에 든 사름. 가입한 사름.)

104009 #6 든 사람.(든 사람.)

104009 @1 음, 계민 여기 지경에서는 어느 목장?(음, 그러면 여기 지경에서는 어느 목장?)

104009 #6 저 해안²⁶⁰.(저 해안.)

104009 @1 아, 해안. 계민 그 조합도 하면은 그 쉼 보러 가는 것도 헛잖아예?
(아, 해안. 그러면 그 조합도 하면은 그 소 보러 가는 것도 헛잖아요?)

104009 #3 그렇지.(그렇지.)

104009 @1 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씨?(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4009 #6 계민 그 조합원에 한해서는.(그러니까 그 조합원에 한해서는.)

104009 @1 으.(으.)

104009 #6 그 뭣고? 그 여름에.(그 무엇이니? 그 여름에.)

104009 @1 예.(예.)

104009 #2 소 보는 샅이 조금 찻주게.(소 보는 샅이 조금 찻지.)

104009 #6 찻주게.(찻지.)

104009 #2 덜 받아. 조합원이니까.(덜 받아. 조합원이니까.)

104009 @1 계민 그.(그러면 그.)

104009 #2 조합에 안 든 사람은 제라허게 춤, 춤일당²⁶¹을 받아 불곡.(조합에 안 든 사람은 제대로 참, ‘춤일당’을 받아 버리고.)

104009 #3 촌금²⁶²을 내곡. 촌금을 내곡.(‘촌금’을 내고. ‘촌금’을 내고.)

104009 #2 촌금을 내곡.(‘촌금’을 내고.)

104009 @1 으.(으.)

104009 #2 그 조합원은, 조합원 흐끔 영.(그 조합원은, 조합원 조금 이렇게.)

104009 #6 나는 그 저 우리 동네 이사를 했는데.(나는 그 저 우리 동네 이사를 했는데.)

104009 @1 예.(예.)

104009 #6 조합 이사.(조합 이사.)

104009 @1 예, 그러면은 조합들 하면 이제 조합원을, 이제 조합 이사 허잖아예?
계민 쉼 올리는 거 아니우파? 언제 올려?(예, 그러면은 조합들 하면 이제 조합원
을, 이제 조합 이사 하잖아요? 그러면 소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올려?)

104009 #6 그건 조 불리는 거 끝나면.(그건 조 밟는 거 끝나면.)

104009 #3 부중 끝나면.(부중 끝나면.)

104009 #2 부중 끝.(부중 끝.)

104009 @1 아, 부중 끝남은에 올려예? 계민 그거 그 쉼 봐주는 사람은 누게우
파?(아, 부중 끝나서 올려요? 그러면 그거 그 소 봐주는 사람은 누구니까?)

104009 #6 거기선 목감²⁶³이라고 해 가지고.(거기선 ‘목감’이라고 해 가지고.)

260) ‘해안’은 제주시 해안동을 가리킨다.

261) ‘춤일당’은 일한 후에 주기로 한 일당 전부를 말한다. 달리 ‘촌금’이라고도 하였다.

262) ‘촌금’은 일한 후에 주기로 한 돈 전부를 말한다. 달리 ‘춤일당’이라고 하였다.

104009 #2 선정해여 가지고.(선정해 가지고.)
 104009 #3 그 조합에서.(그 조합에서.)
 104009 #6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104009 #2 일당 청은에 허는 거주.(일당 줘서 하는 거지.)
 104009 @1 예.(예.)
 104009 #3 희망자가 잇주기. 내가 허켄 현 사람이 지명해서.(희망자가 있지. 내가 하겠다고 한 사람이 지명해서.)
 104009 @1 이 동네 사람이다.(이 동네 사람인데.)
 104009 #6 아, 이 동넨 사람.(아, 이 동넨 사람.)
 104009 #3 이 동네 사람도 할 수 잇주마는 안 허고.(이 동네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104009 #2 주로 조합이 한 오 개동 칠팔 개 동.(주로 조합이 한 오 개동 칠팔 개 동.)
 104009 #6 주로이.(주로.)
 104009 @1 으.(으.)
 104009 #6 주로.(주로.)
 104009 @1 으.(으.)
 104009 #6 해안 쪽 그 목장 지대에 잇는 사람들이 허여.(해안 쪽 그 목장 지대에 잇는 사람들이 해.)
 104009 @1 아.(아.)
 104009 #6 여기는 목장에 혼 번 가젠 해도게.(여기는 목장에 한 번 가려고 해도.)
 104009 @1 예, 예.(예, 예.)
 104009 #6 드나들기가 힘들고.(드나들기가 힘들고.)
 104009 #2 그 근처에서.(그 근처에서.)
 104009 #3 계난 거기.(그러니까 거기.)
 104009 #2 볼 사람 나와.(볼 사람 나와.)
 104009 #3 막 짓엉 살주게, 살아.(막 지어서 살지, 살아.)
 104009 @1 막 짓엉은에.(막 지어서.)
 104009 #3 막 짓엉 살주게. 목감은.(막 지어서 살지. ‘목감’은.)
 104009 @1 그런 막을 뭐렌 험니까? 그 목감 사는 막을?(그런 막을 뭐라고 합니까? 그 ‘목감’ 사는 막을?)
 104009 #6 목감, 목감 사는 막?(‘목감’, ‘목감’ 사는 막?)
 104009 @1 으.(으.)
 104009 #6 뭐엔 헤신고?(뭐라고 했는가?)
 104009 #2 아, 잇다마는. 쉼막.(아, 잇다만. 외양간.)

263) ‘목감’은 공동목장에서 남의 소를 맡아서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 104009 #3 으?(으?)
- 104009 #2 쉼막.(외양간.)
- 104009 #6 아.(아.)
- 104009 #3 쉼막?(외양간?)
- 104009 #2 쉼 보는 막엔 헛어.(소 보는 막이라고 헛어.)
- 104009 #3 쉼 보는 막, 쉼 보는 막.(소 보는 막, 소 보는 막.)
- 104009 @1 쉼 보는 막. 게문 쉼 봐주는 사람은 목감이렌 헛 거라예?(소 보는 막. 그러면 소 봐주는 사람은 ‘목감’이라고 한 거네요?)
- 104009 #3 으, 목감.(으, ‘목감’.)
- 104009 @1 게문 그 목감안테는, 만약에 부종 낫냥 허면, 언제까지 그 목장에 올리는 거라마씨?(그러면 그 ‘목감’한테는, 만약에 부종 끝나서 하면, 언제까지 그 목장에 올리는 거예요?)
- 104009 #6 팔월.(팔월.)
- 104009 #2 보통 두, 두 들, 두 들.(보통 두, 두 달, 두 달.)
- 104009 #6 팔월절²⁶⁴ 들기 전이난애.(‘팔월절’ 들기 전이니까.)
- 104009 @1 으, 삼촌, 흐뎡 이렇게 이쪽 해 줘서. 두 들? 으, 경 허영은에 허게 뉘민 삭은 어느 정도 줘마씨?(으, 삼촌, 조금 이렇게 이쪽 해 주십시오. 두 달? 으,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삭은 어느 정도 줘요?)
- 104009 #2 보리, 그때 거 보리썰로 헛낫어이.(보리, 그때 거 보리썰로 헛엇어.)
- 104009 #6 보리로 헛낫어.(보리로 헛엇어.)
- 104009 #3 보리로, 보리로.(보리로, 보리로.)
- 104009 #6 보리 그때 서 말을 췌일 거라.(보리 그때 서 말을 췌을 거야.)
- 104009 #3 서 말, 서 말.(서 말, 서 말.)
- 104009 #2 췌일 거라.(췌을 거야.)
- 104009 @1 두 달 허는 거를예?(두 달 하는 거를요?)
- 104009 #3 삭 무는 거.(삭 무는 거.)
- 104009 @1 예, 그거는 목장에 올리는 거 아니우파예? 목장에 올리기 전에 쉼 쉼 먹이레 가기도 허잖아예?(예, 그거는 목장에 올리는 거 아녘니까요? 목장에 올리기 전에 왜 소 먹이러 가기도 하잖아요?)
- 104009 #2 봄에덜은 쉼 맥이레 뎡겻주.(봄에는 소 먹이러 다녘지.)
- 104009 @1 쉼 맥이레 허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놉이 것도 영 ㄱ치 영.(소 먹이러 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남이 것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 104009 #3 그렇지게.(그렇지.)
- 104009 #2 아, 번, 번. 쉼번²⁶⁵, 들번²⁶⁶.(아, 번, 번. ‘쉼번’, ‘들번’.)

264) ‘팔월절’은 9월 8일 백로부터 10월 9일 한로까지의 한 달을 말한다.

265) ‘쉼번’은 이웃끼리 모아놓은 여러 마리의 소를 들판에 몰고 나가 돌보는 일을 할 때, 그 순번에 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266) ‘들번’은 이웃끼리 모아놓은 여러 마리의 말을 들판에 몰고 나가 돌보는 일을 할 때, 그 순번에 든 사람을

- 104009 @1 음. 쉼번 물번이렌 헤마씨?(음. ‘쉼번’ ‘물번’이라고 해요?)
- 104009 #2 으. 모양덜. 혼 사름씩.(으. 모아서들. 한 사람씩.)
- 104009 #6 물은 물번이엔 허곡 소는 소번이엔 허곡.(말은 ‘물번’이라고 하고 소는 ‘소번’이라고 하고.)
- 104009 @1 게 그 쉼번 영 보는 거는 어떤 식으로 허영은에 가는 거라마씨?(글쎄 그 ‘쉼번’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 104009 #2 돌아가명 영 허영 순번제로 헤여근에.(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순번제로 해서.)
- 104009 @1 으.(으.)
- 104009 #3 그 동네에서 돌아강. 우랭이²⁶⁷가 동서가름²⁶⁸허민 동가름²⁶⁹, 동카름도 있고 서카름²⁷⁰도 잇거든. 게문 서카름덜은 서카름 사름끼리만 번치는²⁷¹ 사름 있고.(그 동네에서 돌아가서. ‘우랭이’가 ‘동서가름’하면 ‘동가름’, ‘동카름’도 있고 ‘서카름’도 잇거든. 그러면 ‘서카름’들은 ‘서카름’ 사람끼리만 ‘번치는’ 사람 있고.)
- 104009 @1 예.(예.)
- 104009 #3 동카름도. 게난 부락이 너르니까 므쉬가 하거든.(‘동카름’도. 그러니까 마을이 너르니까 마소가 많거든.)
- 104009 @1 예.(예.)
- 104009 #3 혼 집이.(한 집에.)
- 104009 #2 게문게.(그러면.)
- 104009 #3 두 개도 있고 하나도 잇는 디 잇고.(두 개도 있고 하나도 잇는 데 잇고.)
- 104009 #2 동카름번²⁷² 서카름번²⁷³ 뭇 웃가름번²⁷⁴도 뵤곡. 으라 개 뵤 수도 잇고.(‘동카름번’ ‘서카름번’ 뭇 ‘웃가름번’도 되고. 여러 개 뵤 수도 잇고.)
- 104009 #3 게문 그 동네 내에서 이제는.(그러면 그 동네 내에서 이제는.)
- 104009 @1 으.(으.)
- 104009 #3 내일은 널 가곡 또 이 사름 널 가곡. 게문 것도 두 사름씩도 가는 수도 있어. 하도 므쉬가 하 놓니까.(내일은 널 가곡 또 이 사름 널 가곡. 그러면 것도 두 사름씩도 가는 수도 있어. 하도 마소가 많아 놓으니까.)
- 104009 #2 하문 경 허곡.(많으면 그렇게 하고.)
- 104009 #6 숫자 하문.(숫자 많으면.)

일컫는 말이다.

267) ‘우랭이’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268) ‘동서가름’은 한 마을에서 동쪽과 서쪽에 형성된 지역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

269) ‘동가름’은 한 마을에서 동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제보자는 ‘동카름’이라고도 하였다.

270) ‘서카름’은 한 마을에서 서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271) ‘번치다’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나 말을 모아 놓고 한두 사람씩 번갈아가며 들판에 이끌고 가서 돌보는 의미다.

272) ‘동카름번’은 한 마을에서 동쪽 지역 사람끼리 서로 교대로 마소를 돌보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다.

273) ‘서카름번’은 한 마을에서 서쪽 지역 사람끼리 서로 교대로 마소를 돌보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다.

274) ‘웃가름번’은 한 마을에서 위쪽 마을 사람끼리 서로 교대로 마소를 돌보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다.

104009 #3 하민 이제는 두 번씩.(많으면 이제는 두 번씩.)
 104009 @1 으.(으.)
 104009 #3 교대식으로.(교대식으로.)
 104009 @1 으.(으.)
 104009 #3 건 다 이제 멩단 즉양.(건 다 이제 명단 적어서.)
 104009 #2 멩단 즉양.(명단 적어서.)
 104009 #3 오늘은 누구, 누구? 게여 가지고 번치는 거주게.(오늘은 누구, 누구? 그래 가지고 ‘번치는’ 거지.)
 104009 @1 번치는 거잖아예? 게문 만약에 오늘 내가 췌 맥이레 갈 차례라예. 게문 그 췌 맥이는 사름ㄴ란 뭐렌 곶아?(‘번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내가 소 먹이러 갈 차례예요. 그러면 그 소 먹이는 사람보고 뭐라고 말해?)
 104009 #2 췌 보는 사름이주.(소 보는 사람이지.)
 104009 #3 췌 보는 사름.(소 보는 사람.)
 104009 @1 그냥 췌 보는 사름이렌 헤여마씨?(그냥 소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104009 #3 췌 보는 사름. 자연히 췌 보는 사람.(소 보는 사람. 자연히 소 보는 사람.)
 104009 #6 번치는 사름게.(‘번치는’ 사람.)
 104009 @1 번치는 사람. 게문 그 췌들은 번췌 험니까?(번치는 사람. 그러면 그 소들은 ‘번췌’ 험니까?)
 104009 #3 번췌.(‘번췌’.)
 104009 @1 어, 번췌렌 그냥 허는 거라예? 예예, 알았수다. 그다음에 삼촌은 췌 하영 질랏덴 허니까 췌 뭐 보레 가든.(어, ‘번췌’라고 그냥 하는 거네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삼촌은 소 많이 길렀다고 하니까 소 뭐 보러 가든.)
 104009 #6 췌 하영 질랏덴 허민 뭐 숫잘 많이 질룬 게 아니고.(소 많이 길렀다고 하면 뭐 숫잘 많이 기른 게 아니고.)
 104009 @1 으.(으.)
 104009 #6 계속 질룬 거주.(계속 기른 거지.)
 104010 @1 아, 계속 질룬 거예, 어쨌든 췌 질루멍은에 그 잊어 불지 못한 추억 같은 거. 췌 보레 갓당 췌 잊어 분 것도 이실 거고 그건 거?(아, 계속 기른 거요, 어쨌든 소 기르면서 그 잊어 버리지 못한 추억 같은 거. 소 보러 갔다가 소 잊어 버린 것도 있을 거고 그건 거?)
 104010 #6 그 잊어 부리지, 잊어 부리지 아년 건 소 보레 가는데.(그 잊어 버리지, 잊어 버리지 않은 건 소 보러 가는데.)
 104010 @1 예.(예.)
 104010 #6 그거 잊어 불어지지 안허여. 시에 저 중산간을 가는 버슬 탔는데.(그거 잊어 버려지지 않아. 제주시에 저 중산간을 가는 버슬 탔는데.)
 104010 @1 예.(예.)

104010 #6 돈 쓰리 당헿게.(돈 쓰리 당헿어.)
 104010 @1 아.(아.)
 104010 #6 그거 안 잊어 불어. 질 안 잊어 불어지는 거.(그거 안 잊어 버려. 질 안 잊어 버려지는 거.)
 104010 @1 으.(으.)
 104010 #6 뒷주머니에 낫는데 야, 거 춤 히안허대이. 막 밀리고 땡기고 허더라고, 버스 안에서.(뒷주머니에 낫는데 야, 거 참 희한하대. 막 밀리고 당기고 하더라고, 버스 안에서.)
 104010 @1 으.(으.)
 104010 #4 젠 만원 댜니까 영 험신가 헿는데 내중 목장 가 가지고.(그래서 만원 댜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가 헿는데 나중 목장 가 가지고.)
 104010 @1 으.(으.)
 104010 #6 돈 꺼내젠 헿 보난 돈이 셔?(돈 꺼내려고 해서 보니까 돈이 있어?)
 104010 @1 어, 계난 그 돈은 쉼 폰 돈이우파? 아니면은.(어, 그러니까 그 돈은 소 판 돈입니까? 아니면.)
 104010 #6 아니, 그냥 쉼 폰 돈은 아니고.(아니, 그냥 소 판 돈은 아니고.)
 104010 #3 쉼 목장에 올려댜게.(소 목장에 올려두고.)
 104010 #6 그때 어떻 헿신고 허민 소가.(그때 어떻게 헿는가 하면 소가.)
 104010 @1 예.(예.)
 104010 #6 소가 좀 이상해 가지고 그 목감²⁷⁵안티 부탁해 가지고 소를 좀 치플 헿려고.(소가 좀 이상해 가지고 그 목감한테 부탁해 가지고 소를 좀 치플 하려고.)
 104010 @1 예.(예.)
 104010 #6 경 헿 돈을 가지고 간 거주게.(그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간 거지.)
 104010 @1 아.(아.)
 104010 #4 경 헿난 일이 잇어게. 웃음.(그렇게 헿던 일이 잇어. 웃음.)
 104010 @1 어, 돈 잃은, 어 떡언.(어, 돈 잃은, 어 떡어서.)
 104010 #3 목장에 올린 거는 고사허고, 그땐 뭘 목장 안네 목감이 알양은에 쉼 잃으면 쉼 잃어 버렷젠 쉼 임제안티 연락 오면은.(목장에 올린 거는 고사하고, 그땐 뭘 목장 안에 ‘목감’이 알아서 소 잃으면 소 잃어 버렷다고 소 임자한테 연락 오면.)
 104010 @1 예.(예.)
 104010 #3 꺾치 강 좇기도 허곡 그런 것도 잇고. 또 어디 아팡근에 쉼가 출을 안 떡거나 뭘 허민 연락 오민.(같이 가서 좇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잇고. 또 어디 아팡근에 소가 꼴을 안 떡거나 뭘 하면 연락 오면.)
 104010 #2 연락 오는 거.(연락 오는 거.)
 104010 #3 그런 것도 가는 거 잇고. 그거는 뭘 그 목감 이시난 헿디. 변청 강.

275) ‘목감’은 예전에 목장에서 소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것도 가는 거 있고. 그거는 뭐 그 ‘목감’ 있으니까 하는데. ‘번쳐서’ 가서.)

104010 @1 예.(예.)

104010 #3 어디 조금 잘못허민.(어디 조금 잘못하면.)

104010 #2 잃어 먹었은에.(잃어 먹어서.)

104010 #3 행실 나쁘면은 어디 도망 가 불어. 암쇄 생각낭은에 가 불어.(행실 나쁘면 어디 도망 가 버려. 암소 생각나서 가 버려.)

104010 @1 예.(예.)

104010 #2 잃어 먹었은에 좇으레 땡기는 거.(잃어 먹어서 좇으러 다니는 거.)

104010 #3 게민 거 좇젠 허멍은에 춤 애 먹주기.(그러면 거 좇으려고 하면서 춤 애 먹지.)

104010 @1 예.(예.)

104010 #3 게문 이젠 화르륵²⁷⁶⁾ 땡기멍 이젠 방문이라고, 쉼 좇는 방문 놔.(그러면 이젠 화르륵 다니면서 이젠 방문이라고, 소 좇는 방문 놔.)

104010 @1 으.(으.)

104010 #3 이런 쉼 못 톱디가? 저런 쉼 못 톱디가? 이런 쉼 못 톱디가? 허민 봐지민 일로 가렌 허민 이젠 글로 좇아강 없으면은 또 그디 강 또 그디 사름덜신디 방문 낱.(이런 소 못 톱디까? 저런 소 못 톱디까? 이런 소 못 톱디까? 하면 보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젠 그리로 좇아가서 없으면 또 거기 가서 또 거기 사름들한테 방문 놔서.)

104010 @1 으.(으.)

104010 #3 게 가지고 그것이 쉼 애 먹고 그거 쉼 춤.(그래 가지고 그것이 쉼 애 먹고 그거 쉼 참.)

104010 #6 견디 그.(그러는데 그.)

104010 #3 뭐 남는 거주기. 추억에 남는 거주기.(뭐 남는 거지. 추억에 남는 거지.)

104010 #6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지는 쉼 볼, 쉼 볼 눈 물 볼 눈 이런 말이 있어.(다른 것도 마찬가지로지는 소 볼, 소 볼 눈 말 볼 눈 이런 말이 있어.)

104010 @1 예.(예.)

104010 #3 웃음.(웃음.)

104010 @1 건?(건?)

104010 #6 거 무슨 말이나 허면이.(거 무슨 말이나 하면.)

104010 #2 사름마다 다 보는 방향이 틀리다.(사람마다 다 보는 방향이 다르다.)

104010 #6 보는 눈이 틀리다는 거지.(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지.)

104010 @1 예.(예.)

104010 #6 소를 나가 길루면서 헤 봤는데 생각 웨에.(소를 내가 기르면서 해봤는데 생각 외에.)

276) ‘화르륵’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바빠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04010 @1 예.(예.)

104010 #6 생각 외에 사다근에 조금 질렀는데, 계난 예를 들어 만 원 쟁 사왔는데.(생각 외에 사다가 조금 길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 원 쥐서 사왔는데.)

104010 @1 예.(예.)

104019 #6 생각 외에 와서 만 오천 원 주켤 헐다 말여. 경 오천 원 남는 거 아니?(생각 외에 와서 만 오천 원 주겠다고 한다 말이야. 그렇게 오천 원 남는 거 아니?)

104010 @1 예.(예.)

104010 #6 경 풀곡.(그렇게 팔고.)

104010 @1 음.(음.)

104010 #6 그런 경우가 잇주게. 그래서 쉼 볼 눈 뭉 볼 눈 허는디.(그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소 볼 눈 말 볼 눈 하는데.)

104010 @1 으.(으.)

104010 #6 사름마다 요즘 말론 허민 지 눈에 안경엔 허는가.(사람마다 요즘 말론 하면 저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가.)

104010 #2 틀려 놓니까.(달라 놓으니까.)

104010 #3 계난 꼭 ㄴ똥 쉼라도.(그러니까 똑같은 소라도.)

104010 @1 예.(예.)

104010 #6 사름.(사람.)

104010 #3 이 사름 보든 만 오천 원이엔 해도 얼른 사 가는 사름 싯곡. 우린 가든 경 안 줄 건디 쉼가 경 안 좋다 허는 거 싯곡. 계난 이 눈이 다 틀리단 말이주. 쉼 볼 눈.(이 사름 보면 만 오천 원이라고 해도 얼른 사 가는 사름 있고. 우린 가면 그렇게 안 줄 건데 소가 그렇게 안 좋다 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 눈이 다 다르단 말이지. 소 볼 눈.)

104010 @1 어.(어.)

104010 #3 걸 가격 차이에서 그 소리고.(걸 가격 차이에서 그 소리고.)

104010 @1 예.(예.)

104010 #3 무신 뉼 그것뿐이 아니고 또 누구 뉼, 봐도 그런 소릴 많이 쓰주.(무슨 뉼 그것뿐이 아니고 또 누구 봐서도, 봐도 그런 소릴 많이 쓰지.)

104010 @1 으.(으.)

104010 #3 쉼 볼 눈 뭉 볼 눈 틀리단 건. 믱음이 가지각색이렌 이 말이주.(소 볼 눈 말 볼 눈 다르단 건. 마음이 가지각색이라는 이 말이지.)

104010 @1 걸 쉼 볼 눈 뭉 볼 눈.(걸 소 볼 눈 말 볼 눈.)

104010 #3 으, 으, 으.(으, 으, 으.)

104010 @1 거난 뉼을 잘 보는 이 값 쳐주는 이런 것들을 뉼 볼 눈 영 허는구나 예. 아까 삼춘 헐 때 방문허덴 말은 무신 말마씨?(그러니까 말을 잘 보는 이 값 쳐주는 이런 것들을 말 볼 눈 이렇게 하는군요. 아까 삼춘 할 때 방문한다는 말은 무

슨 말이에요?)

104010 #3 방 놓는다고 방문.(방 놓는다고 방문.)

104010 @1 예.(예.)

104010 #4 방문 놓명 쉼 좇아살 거 아니라게. 잃어 불민은.(방문 놓으면서 소 찾
아야할 거 아닌가. 잃어 버리면.)

104010 @1 으.(으.)

104010 #3 이 길도 이 길로 시카 부덴 이 길도 없으면은 예를 들영 이제 이 사
름 봐지면은 이디 이런 쉼 못 봅디까? 허거든.(이 길도 이 길로 있을까 보다고 이
길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 봐지면 여기 이런 소 못 봅디까? 하거든.)

104010 #2 방문 놓는 거라. 마을마다 강 뎡기명.(방문 놓는 거야. 마을마다 가서
다니면서.)

104010 #3 이제는, 이제는 못 본 쉼거든. 만약시 이런 쉼곡 석이나 꺾이는 거
봐지결랑은에 어디 살암시메 그레 연락 줌 해 줘서. 것이 방 놓는 거주게.(이제는,
이제는 못 본 소거든. 만약에 이런 소고 고삐나 끄는 거 봐지거든 어디 살고 있으
매 그리로 연락 줌 해 주십시오. 것이 방 놓는 거지.)

104010 @1 걸 방 놓넨 허고, 방문이렌 헤예? 예, 예, 예.(걸 방 놓는다고 하고,
방문이라고 해요? 예, 예, 예.)

104010 #3 그렇지.(그렇지.)

104010 #6 물을 방자 잊지 아녀게?(물을 방 자 잊지 않은가?)

말 기르기

104011 @1 예, 물어 보는 거? 으음. 알아수다. 게문 아간 쉼고, 물은 어떻 길릅
니까?(예, 물어 보는 거? 으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간 소고, 말은 어떻게 기릅니
까?)

104011 #6 물은 어떻 질좌? 쉼 질루**(말은 어떻게 길러? 소 기르**)

104011 #2 물도 똑 뒹 비슷허여.(말도 똑 뒹 비슷해.)

104011 #3 거의 다 ㄱ따.(거의 다 같아.)

104011 @1 경 해도 쉼 질를 때는 쉼막에 왕 잘 메기도 허주마는 물은 경 쉼막
에 안 행은에 드르에 메여 분덴 헉디다.(그렇게 해도 소 기를 때는 외양간에 와서
잘 매기도 하지만 말은 그렇게 외양간에 안 해서 들에 매어 버린다고 합디다.)

104011 #3 드르에 메주. 물줄²⁷⁷ 행.(들에 매지. ‘물줄’ 해서.)

104011 #6 겨울에는.(겨울에는.)

104011 @1 으.(으.)

104011 #6 물도 집, 춤 막에 메여게.(말도 집, 참 막에 매어.)

104011 @1 예.(예.)

277) ‘물줄’은 말을 들판의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맨 고삐에서부터 말뚝까지 연결
하는 긴 줄을 말한다.

104011 #3 겨울에는 대개 물이나 쇠나 막에 뗏고.(겨울에는 대개 말이나 소나 막에 뗏고.)

104011 @1 예.(예.)

104011 #3 소도 드르에도 매여. 안 매도 안 허영.(소도 들에도 매어. 안 매지도 않아서.)

104011 @1 음.(음.)

104011 #3 여름 때는.(여름 때는.)

104011 #2 에왕.(에워서.)

104011 #3 또 저 밭 담 다왕 에왕도 메곡. 경 아너민 쉼줄²⁷⁸에 해 가지고 빨에 허영 말뚝 박앙.(또 저 밭 담 쌓아서 에워서도 매고. 그렇게 얹으면 ‘쉼줄’에 해 가지고 빨에 해서 말뚝 박아서.)

104011 @1 예.(예.)

104011 #2 뭐 보리 비어 나민 보릿그르에도 강도 메곡.(뭐 보리 베어 나면 보릿그루에도 가셔도 매고.)

104011 @1 으.(으.)

104011 #3 출 비어 나민 그 안에서 출왓디도 메곡. 게민 또 질레도 메곡. 뭐 그런 정도. 물이나 쉼도 꼭 마찬가지로.(풀 베어 나면 그 안에서 풀밭에도 매고. 그러면 또 길에도 매고. 뭐 그런 정도. 말이나 소도 꼭 마찬가지로.)

104012 @1 몰도 그런 식으로 행 이제 질룬 거라예? 몰 종류는 어떤 거 잇수과? 것도 털 색깔에 따라.(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른 거네요? 말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것도 털 색깔에 따라서.)

104012 #3 옹지, 옹지.(옹지, 옹지.)

104012 @1 뜨난텐 험디다, 예. 그 종류 곱아줘 봅서.(다르다고 합디다, 예. 그 종류 말해줘 보십시오.)

104012 #6 검은 거는 가라몰.(검은 거는 가라말.)

104012 @1 예.(예.)

104012 #6 과란.(과란.)

104012 #3 노란 거. 일 가라, 이 청춘.(노란 거. 일 가라, 이 총이말.)

104012 #6 저 뭐고?(저 뭐니?)

104012 #2 일 가라, 이 청춘이. 삼.(일 가라, 이 총이말.)

104012 #3 삼 적대.(삼 절따.)

104012 #2 삼 적대.(삼 절따.)

104012 #3 오 유마.(오 유마.)

104012 #2 유마.(유마.)

104012 #6 적다엔 현 거는.(절따라고 한 거는.)

278) ‘쉼줄’은 소를 들판의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게 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맨 고삐에서부터 말뚝까지 연결하는 긴 줄을 말한다.

104012 #2 스 유마.(사 유마.)
 104012 #6 빨간 거.(빨간 거.)
 104012 #3 춤 스 유마.(참 사 유마.)
 104012 @1 예.(예.)
 104012 #1 청춘이.(총이말.)
 104012 #3 청춘이.(총이말.)
 104012 #2 이 청춘이.(이 총이말.)
 104012 #2 두 번째 쥐색.(두 번째 쥐색.)
 104012 #6 청춘이엔 흰 건 하얀 털허고.(총이말이라고 한 건 하얀 털허고.)
 104012 #3 털이 저 백여진 거.(털이 저 박힌 거.)
 104012 #2 쥐, 쥐색 토끼 모양으로 색.(쥐, 쥐색 토끼 모양으로 색.)
 104012 #1 쥐색.(쥐색.)
 104012 #2 색, 토끼색.(색, 토끼색.)
 104012 #6 흥끔 청춘이엔 허니까 푸리듯허텐 흰 거 아니?(조금 총이말이라고 하
 니까 푸르스름하다고 한 거 아니?)
 104012 @1 예, 예.(예, 예.)
 104012 #2 얼룩베기, 얼룩베기. 이 사람 머리 흰.(얼룩빼기, 얼룩빼기. 이 사람
 머리 흰.)
 104012 #6 청충매?(총이말.)
 104012 @1 청충매예, 예? 잠깐예, 가라말.(총이말요, 예? 잠깐요, 가라말.)
 104012 #3 일 가라.(일 가라.)
 104012 @1 일 가라.(일 가라.)
 104012 #6 이 청춘.(이 총이말.)
 104012 @1 이 청춘.(이 총이말.)
 104012 #3 삼 적다.(삼 절따.)
 104012 @1 삼 적다.(삼 절따.)
 104012 #6 적다엔 흰 건 노랑 거이.(절따라고 한 건 노란 거.)
 104012 #3 사 유마.(사 유마.)
 104012 #2 스 유마.(사 유마.)
 104012 @1 유마는 어떤 거우과?(유마는 어떤 겁니까?)
 104012 #1 백마도 잇어게. 흰 놈, 흰 말.(백마도 잇어. 흰 놈, 흰 말.)
 104012 @1 예.(예.)
 104012 #3 완전 흰 건 백마.(완전 흰 건 백마.)
 104012 @1 흰 건 백마.(흰 건 백마.)
 104012 #3 또 뵈고?(또 뵈이니?)
 104012 @1 얼룩얼룩헌 거?(얼룩얼룩한 거?)
 104012 #3 얼룩얼룩허는 거는?(얼룩얼룩한 거는?)

- 104012 #6 가라몰.(가라말.)
- 104012 #2 아이, 가라.(아니, 가라.)
- 104012 #3 가라는, 가라는.(가라는, 가라는.)
- 104012 @1 아까 가라는 검정색.(아까 가라는 검정색.)
- 104012 #3 가라몰.(가라말.)
- 104012 #6 아, 맞다. 나가 착각했저.(아, 맞다. 내가 착각했다.)
- 104012 #3 어.(어.)
- 104012 #2 그런 거는 등, 저 등급으로 안 허고 그냥.(그런 거는 등, 저 등급으로 안 하고 그냥.)
- 104012 #6 얼룩매? 얼룩마.(얼룩말? 얼룩말.)
- 104012 @1 월라, 월라.(월라, 월라.)
- 104012 #2 월, 월화²⁷⁹, 월화.(월, 월라, 월라.)
- 104012 @1 예, 월라몰.(예, 월라말.)
- 104012 #3 월라몰.(월라말.)
- 104012 #3 월라.(월라.)
- 104012 #2 월하가.(월라가.)
- 104012 #1 월하엔 허는가? 월레몰엔 허는가?(월라라고 하는가? ‘월레몰’이라고 하는가?)
- 104012 #3 월레몰.(월라말.)
- 104012 #1 월레몰.(월라말.)
- 104012 @1 예, 월레, 월레몰예?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잇수가?(예, 월라, 월라 말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 104012 #3 그다음에 이제 몰 저 등 오그라진 거는 뭐라?(그다음에 이제 말 저 등 오그라진 거는 뭐라?)
- 104012 @1 등 오그라진 건 뭐?(등 오그라진 건 뭐?)
- 104012 #2 곱세몰²⁸⁰.(‘곱세몰’.)
- 104012 #3 곱세. 곱세가 아니라 등 튀어난 것도 있어. 또 곱세도 있어.(곱사. 곱사가 아니라 등 튀어난 것도 있어. 또 곱사도 있어.)
- 104012 #2 곱세몰.(‘곱세몰’.)
- 104012 #3 곱세 활동이²⁸¹. 오그라진 거 활동이.(곱사 ‘활동이’. 오그라진 거 ‘활동이’.)
- 104012 #2 영, 알더레 휘와진 거 활동이.(영, 아래로 휘어진 거 ‘활동이’.)
- 104012 @1 아.(아.)
- 104012 #3 등땡이가 흑허게 오그라졌어. 거 활동이.(등때기가 흑허게 오그라졌어. 거 ‘활동이’.)

279) ‘월화’는 제보자가 ‘월라’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280) ‘곱세몰’은 등뼈가 굵어 큰 흑같이 불거진 등을 가진 말이다.

281) ‘활동이’는 등뼈가 우묵하게 활처럼 휘어진 말이다.

104012 @1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으.(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으.)
 104012 #3 활동이.(‘활동이’.)
 104012 @1 예, 활동이.(예, ‘활동이’.)
 104012 #3 또 곱세도 있어.(또 곱사도 있어.)
 104012 #2 곱세물.(‘곱세물’.)
 104012 #3 똑 튀어난 거. 등땡이 튀어난 거.(똑 튀어난 거. 등때기 튀어난 거.)
 104012 #2 우터래 튀어난 거.(위로 튀어난 거.)
 104012 @1 등땡이 튀어난 거는?(등때기 튀어난 거.)
 104012 #3 곱세물.(‘곱세물’.)
 104012 @1 등 튀어난 거. 그다음 또 뭐 잇수가?(등 튀어난 거. 그다음 또 뭐 있 습니까?)
 104012 #3 그다음에는 말이 없을걸.(그다음에는 말이 없을걸.)
 104012 @1 여기? 여기.(여기? 여기.)
 104012 #3 아, 태성백이.(아, 대성마.)
 104012 @1 예.(예.)
 104012 #2 태상백이.(대성마.)
 104012 @1 태성백이.(대성마.)
 104012 #3 간전이²⁸².(‘간전이’.)
 104012 @1 간전이.(‘간전이’.)
 104012 #3 간전이라는 거는 일로 해 가지고 코까지 거.(‘간전이’라는 거는 이리 로 해 가지고 코까지 거.)
 104012 @1 간전이.(‘간전이’.)
 104012 #3 코간전²⁸³.(‘코간전’.)
 104012 @1 예, 코간전예?(예, ‘코간전’요?)
 104012 #3 코간전.(‘코간전’.)
 104012 @1 예, 그다음에 입 주둥이 허영헌 것도 있지 아너우짜?(예, 그다음에 입 주둥이 허연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4012 #3 아이고, 그거는 잘 몰르켜.(아이고, 그거는 잘 모르겠다.)
 104012 @1 거홀마?(거할마?)
 104012 #3 알암신게, 거 거홀마가 맞아. 입 허영헌 거.(알고 있네, 거 거할마가 맞아. 입 허연 거.)
 104012 @1 예, 뭐 함부기 이런 말도 있고. 예. 안 들었수가?(예, 뭐 ‘함부기’ 이 런 말도 있고. 예. 안 들었습니까?)
 104012 #3 들어나긴 험디 잇어 부난 모르커라.(들었었긴 하는데 잇어 버리니까 모르겠어.)

282) ‘간전이’는 이마에서 코까지 흰 줄이 길게 나 있는 말이다.

283) ‘코간전’은 이마 밑에서 코까지 흰 줄이 길게 나 있는 말이다.

104012 @1 예.(예.)

104012 #4 거흠마로 해 붙어.(거할마로 해 버려.)

104012 @1 혹시 고라몰 이런 말도 들어 봅디가?(혹시 ‘고라말’ 이런 말도 들어 봅디까?)

104012 #3 고라? 어, 고라²⁸⁴.(‘고라’? 어, ‘고라’.)

104012 #1 가라, 가라몰이렌, 가라몰이엔.(가라, 가라말이라고, 가라말이라고.)

104012 #3 고라는?(‘고라’는?)

104012 #2 가라몰은 일 가라. 거 켈 색깔 알아주는 거.(가라말은 일 가라. 거 켈 색깔 알아주는 거.)

104012 @1 으.(으.)

104012 #3 거 고라는 그 것이 흐뎡 노란 거 뭐 들어간 것이 고랄 거라.(거 고라는 그 것이 조금 노란 거 뭐 들어간 것이 고랄 거라.)

104012 @1 예.(예.)

104012 #3 가라. 꺼문 거 허고 저 노란 거 들어간 거. 고라, 으. 그것이 고란 줄 아는데.(가라. 검은 거 허고 저 노란 거 들어간 거. 고라, 으. 그것이 고란 줄 아는데.)

104012 @1 고라.(‘고라’.)

104012 #3 고라몰도 들어나긴 들어났어.(‘고라말’도 들었었긴 들었었어.)

104012 @1 흐뎡 노랑헌 거. 유마도 뭐 즈유마, 이런 즈류마.(조금 노란 거. ‘유마’도 뭐 자류마, 이런 자류마.)

104012 #3 유마는 즈유마는 모르고, 유마란 거.(유마는 자류마는 모르고, 유마란 거.)

104012 @1 그냥 유마.(그냥 유마.)

104012 #3 것도 검은 털 박아진 거.(것도 검은 털 박힌 거.)

104012 #2 유마 거. 이 저 흔 뗏 가지 이실 거라.(유마 거. 이 저 한 뗏 가지 있을 거야.)

104012 #3 그 유마도.(그 유마도.)

104012 #2 색깔.(색깔.)

104012 @1 자주색깔. 붉은 기.(자주색깔. 붉은 기.)

104012 #2 게메. 들어난 적은 잇는데 어떤 거는 잘.(글쎄. 들었던 적은 잇는데 어떤 거는 잘.)

104012 @1 잘 모르겠고예, 예, 알았수다. 게문 그다음에 발도 허영헌 것도 잇지 안허우파?(잘 모르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발도 허연 것도 잇지 않습니까?)

104012 #3 발콧 흰 거? 발콧에 흰 털 박아진 거?(발톱 흰 거? 발톱에 흰털 박힌 거?)

284) ‘고라’는 털 색깔이 노르스름한 말이다.

- 104012 @1 예.(예.)
- 104012 #3 아이고, 몰르커라, 것도. 무신건지 몰르커라.(아이고, 모르겠어,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어.)
- 104012 @1 뭐 족백이, 스족백이 이런 말?(뭐 ‘족백이’, 사족백이 이런 말?)
- 104012 #3 족발이²⁸⁵엔 헌 건 발목이 긴 거.(‘족발이’이라고 한 건 발목이 긴 거.)
- 104012 @1 예.(예.)
- 104012 #3 길영 영 뒤터레 발이 땅더레 부트는 거, 발이 영 부트는 거.(길어서 이렇게 뒤로 발이 땅으로 붙는 거, 발이 이렇게 붙는 거.)
- 104012 @1 걸 뭐렌 헤마씨?(걸 뭐라고 해요?)
- 104012 #3 거 족발이엔 허던가? 족발.(거 ‘족발이’라고 하던가? 족발.)
- 104012 @1 족발이?(‘족발이’?)
- 104012 #3 으, 족발.(으, ‘족발’.)
- 104012 @1 족발이. 발 뒷발이 영 저기.(‘족발이’. 발 뒷발이 이렇게 저기.)
- 104012 #3 뒤터레 부트는 굴렁진 것들. 이 족 무르다. 앞족발이. 뒤쪽 무르다 족발이엔 허고.(뒤로 붙는 굴렁진 것들. 이 족 무르다. ‘앞족발이’. 뒤쪽 무르다 ‘족발이’라고 하고.)
- 104012 @1 족발이, 으.(‘족발이’, 으.)
- 104012 #3 또 경 아녕 통통헌 거.(또 그렇게 얇아서 통통한 거.)
- 104012 @1 예.(예.)
- 104012 #3 통통허영 그런 거 있고. 그런 것은 또 뭐 무슨 말이 엇어 족발만 있어났지.(통통해서 그런 거 있고. 그런 것은 또 뭐 무슨 말이 없어 ‘족발’만 있었었지.)
- 104012 @1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달리기 할 때 이거를 앞발허고 뒷발허고 ㄴ치 영 낡 가는 거?(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달리기 할 때 이거를 앞발하고 뒷발하고 같이 이렇게 놔서 가는 거?)
- 104012 #3 본심으로 가는 거엔 ㄴ는가. 몰 타 가지고 영 폴폴폴폴하는.(본심으로 가는 거라고 말하는. 말 타 가지고 이렇게 폴폴폴폴하는.)
- 104012 @1 예.(예.)
- 104012 #3 본심, 본심.(본심, 본심.)
- 104012 #2 제매²⁸⁶.(‘제마’.)
- 104012 #3 아, 제마.(아, ‘제마’.)
- 104012 @1 제매, 예.(‘제마’, 예.)
- 104012 #2 제매, 제매.(‘제마’, ‘제마’.)
- 104012 #3 제마게, 마, 제마. 제마.(‘제마’, 마, ‘제마’, ‘제마’.)

285) ‘족발이’는 걸음을 걸을 때 발회목 위가 내리 디디어지는 말을 말한다.

286) ‘제매’는 한편쪽 다리를 나란하게 옮기며 걷거나 달리는 말이다. ‘제매’를 타면 편안하여 타는 말로 많이 쓴다고 한다.

104012 @1 예.(예.)
104012 #3 제마, 제마.(‘제마’, ‘제마’.)
104012 @1 예, 제마.(예, ‘제마’.)
104012 #1 제마가 아니고 재미²⁸⁷.(‘제마’가 아니고 ‘재미’)
104012 #3 재미?(‘재미’?)
104012 @1 제매.(‘제마’.)
104012 #2 제매, 제매.(‘제마’, ‘제마’.)
104012 #3 제매.(‘제마’.)
104012 @1 예.(예.)
104012 #1 제매로 간다.(‘제마’로 간다.)
104012 #2 제마엔 현 건 건 물.(‘제마’라고 한 건 건 말.)
104012 #3 물로는 제매.(말로는 ‘제마’.)
104012 #2 제매, 제매.(‘제마’, ‘제마’.)
104012 @1 예, 제매예?(예, ‘제마’요?)
104012 #1 두 굽으로 뿔다.(두 굽으로 뿔다.)
104012 #3 네 굽으로 뿔다.(네 굽으로 뿔다.)
104012 #1 너 굽으로 뿔다.(네 굽으로 뿔다.)
104012 #2 너 굽으로.(네 굽으로.)
104012 @1 아.(아.)
104012 #3 네 굽으로 뿔다.(네 굽으로 뿔다.)
104012 #2 너 굽이엔 현 거는.(네 굽이라고 한 거는.)
104012 #3 그냥 막.(그냥 막.)
104012 #2 다릴 다 흔꺼번에 영.(다릴 다 한꺼번에 이렇게.)
104012 @1 예. 아, 계난 제매는 너 굽으로 뿔덴 영 굽니까?(예. 아, 그러니까 ‘제매’는 네 굽으로 뿔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104012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12 #1 이디.(여기.)
104012 #2 달리는 물보고 제매로 간덴 허고.(달리는 말보고 ‘제매’로 간다고 하
고.)
104012 @1 으.(으.)
104012 #3 제매는.(‘제마’는.)
104012 @1 예.(예.)
104012 #3 발 네 개를 흔번[뻘] 놓는 게 아니고.(발 네 개를 한번 놓는 게 아니
고.)
104012 #2 너 굽으로 뿔덴.(네 굽으로 뿔다고.)
104012 #3 천천히 탁탁탁탁탁 들어가지.(천천히 탁탁탁탁탁 들어가지.)

287) ‘재미’는 제보자가 ‘제마’를 잘못 발음한 것 같다.

104012 #1 한쪽에, 한쪽에는 영 농곡 영 농곡.(한쪽에, 한쪽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104012 @1 예.(예.)

104012 #1 가는 건.(가는 건.)

104012 #2 건 제매고.(건 ‘제마’고.)

104012 #1 제매고.(‘제마’고.)

104012 @1 제매.(‘제마’.)

104012 #2 너 굽에, 너 굽엔 현 거는.(네 굽에, 네 굽이라고 한 거는.)

104012 #1 영 너 굽 낱.(이렇게 네 굽 낱서.)

104012 #2 발 두 개 두 개 영.(발 두 개 두 개 이렇게.)

104012 #3 앞발 뒷발 ㄴ찌 뛰는 거.(앞발 뒷발 같이 뛰는 거.)

104012 @1 걸 너 굽으로 똬덴예?(걸 네 굽으로 똬다고요?)

104012 #2 발 네 갠데 두 개씩 영.(발 네 갠데 두 개씩 이렇게.)

104012 #3 앞발 뒷발 이렇게.(앞발 뒷발 이렇게.)

104012 @1 음, 이거, 이거는 경주마 같은 경우는 경 뛰켜예?(음, 이거, 이거는 경주마 같은 경우는 경 뛰겠네요?)

104012 #3 그렇지.(그렇지.)

104012 @1 예, 예.(예, 예.)

104012 #6 앞발 가난 디 뒷발 가곡.(앞발 갔던 데 뒷발 가고.)

104012 @1 예.(예.)

104012 #6 발 두 개가 흠치.(발 두 개가 한꺼번에.)

104012 #3 네 굽으로 똬다.(네 굽으로 똬다.)

104012 #1 웅매, 즈매 썩 놔뒤.(웅마, 자마 썩서 놔뒤.)

104012 @1 예, 웅매, 즈매.(예, 웅마, 자마.)

104012 #3 이제 나올 텡주.(이제 나올 테지요.)

104012 @1 예, 암수로예. 예, 알아수다.(예, 암수로요. 예, 알았습니다.)

104012 #6 견디 인척에.(그런데 아까.)

104012 @1 으.(으.)

104012 #6 소 허는디 요 근래에 와서는 그 미국소가 많이 들어왔주게.(소 하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그 미국소가 많이 들어왔지.)

104012 @1 예, 예.(예, 예.)

104012 #6 양종.(양종.)

104012 @1 예.(예.)

104012 #4 그거에 대해서는 안 썰어이.(그거에 대해서는 안 썰어.)

104012 @1 예, 그거는 뉘우짜?(예, 그거는 뉘니까?)

104012 #3 것도 종류가 으라 가지.(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104012 #6 계난.(그러니까.)

104012 @1 으.(으.)

104012 #6 최근에는 그 양종덜이 막 들어오지 안헛어게.(최근에는 그 양종들이 막 들어오지 않았어?)

104012 @1 예, 예.(예, 예.)

104012 #6 브라마니 무신 뭐.(브라마니 무슨 뭐.)

104012 @1 브라마.(브라마.)

104012 #6 싹타²⁸⁸.(‘싹타’.)

104012 #2 짜르레²⁸⁹.(‘짜르레’.)

104012 #6 짜르레니 뭐.(‘짜르레’니 뭐.)

104012 @1 짜르레, 예? 요즘 것들은 다 저 그냥 한우?(‘짜르레’, 예? 요즘 것들은 다 저 그냥 한우?)

104012 #3 요즘사 한우주게. 한우도 잇주마는 지금도 한우 아녀도 지금 저 반종도 잇주지.(요즘에야 한우지. 한우도 있지만 지금도 한우 않아도 지금 저 반종도 있지.)

104012 @1 반종덜도 잇고예?(반종들도 잇고요?)

104012 #3 반종은 거의 나 보긴 없어진 거 같은데. 요즘은.(반종은 거의 나 보긴 없어진 거 같은데. 요즘은.)

104012 @1 그다음에 웨 쉼나 몰이나 이 다리가 영 안짱다리 헛 것도 잇어예? 건 뭐렌 ㄴ는 지 알아지쿠과?(그다음에 왜 소나 말이나 이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 한 것도 잇지요? 건 뭐라고 말하는 지 알겠습니까?)

104012 #3 대우리. 안대우리 뒷대우리. 발을 영영 꼬와 가지고.(‘대우리’. 안짱다리 ‘뒷짱다리’. 발을 이렇게 이렇게 꼬와 가지고.)

104012 #2 안대우리, 밧대우리.(안짱다리, 밧장다리.)

104012 #3 안대우리, 밧대우리. 안터레 들어오난 안대우리.(안짱다리, 밧장다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짱다리.)

104012 #6 사름도 경 곧지 아녀게. 사름도.(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사람도.)

104012 @1 으.(으.)

104012 #2 사름도 곧곡, 쉼도 곧곡.(사람도 말하고, 소도 말하고.)

104012 #3 게난 안터레 들어온 거 허곡. 또 밧대우리 탁탁 걷는 소가 잇주게.(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온 거 하고. 또 밧장다리 탁탁 걷는 소가 있지.)

104012 @1 으.(으.)

104012 #3 게난 밧 갈 때에 밧대우리는 이 어디고 오리목매²⁹⁰로 헤 가지고.(그러니까 밧 갈 때에 밧장다리는 이 어디고 ‘오리목매’로 헤 가지고.)

288) ‘싹타’는 수입 소 종류의 하나다.

289) ‘짜르레’는 수입 소 종류의 하나다.

290) ‘오리목매’는 멩에의 붓줄 두 가닥 사이에 달린 비겨미에 달린 끈으로, 멩에를 쟁기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끈이다.

104012 @1 으.(으.)

104012 #3 오리목²⁹¹⁾ 해 가지고 이디 막 뱃겨지주게.(‘오리목’ 해 가지고 여기 막 뱃겨지지.)

104012 @1 아.(아.)

104012 #2 영 걷는 썬가 있어.(이렇게 걷는 소가 있어.)

104012 #3 양주머리 이디 뱃겨져.(양지머리 여기 뱃겨져.)

104012 #2 밧대우리. 안대우리 영 허영 걷고.(밭장다리. 안짱다리 이렇게 해서 걷고.)

104012 #3 건 일도 잘 못허곡.(건 일도 잘 못하고.)

104012 @1 잠깐예, 삼춘예, 안대우리가 어떻 거는 거?(잠깐요, 삼춘요, 안짱다리가 어떻게 걷는 거?)

104012 #3 안터레 들어가는 거.(안으로 들어가는 거.)

104012 #6 영.(이렇게.)

104012 @1 거 거꼴로 굴암신게.(거 거꾸로 말하고 있는데.)

104012 #3 영 영.(이렇게 이렇게.)

104012 #2 이건 밧대우리.(이건 밧장다리.)

104012 @1 예, 게난 영 걷는 게?(예,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게?)

104012 #6 안대우리.(안짱다리.)

104012 @1 안대우리.(안짱다리.)

104012 #3 안터레 들어오게 허는 게.(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104012 @1 영 밖으로 허는 게 밧대우리.(이렇게 밖으로 하는 게 밧장다리.)

104012 #6 밧대우리. 그렇지.(밭장다리. 그렇지.)

104012 @1 삼춘, 거꼴로 굴안, 아까.(삼춘, 거꾸로 말했어, 아까.)

104012 #2 밖으로 영 논 것이 밧대우리 줄 아는디.(밖으로 이렇게 놓은 것이 밧장다리 줄 아는데.)

104012 #3 게 밖으론게 밧대우리.(글썬 밖으론 밧장다리.)

104012 #2 게난 안으로 영 허는 건 안대우리.(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짱다리.)

104012 @1 아아. 안으로 헤영 밖으로 나간 게 안대우리우짱?(아아. 안으로 해서 밖으로 나간 게 안짱다리입니까?)

104012 #6 안대우리엔 허는 건 영 안으로 허는 거주게.(안짱다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안으로 하는 거지.)

104012 @1 게난 이제 거꾸로 굴안, 두 분이.(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했어, 두 분이.)

104012 #2 다리가 영 영 이런 디 탁탁 영 다택이멍 걸어, 그거 안대우리.(다리가

291) ‘오리목’은 멩예의 붓줄 두 가닥 사이에 매어진 비겨미 양쪽에 연결해 있는 끈으로, 멩예를 쟁기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 탁탁 이렇게 다닥치면서 걸어, 그거 안짱다리.)

104012 #3 안대우리 안티레 붙는 거.(안짱다리 안으로 붙는 거.)

104012 #6 사름도, 사름도 영 걷는 사름 잊지 아녀게.(사람도, 사람도 이렇게 걷는 사람 있지 않은가.)

104012 @1 예, 예.(예, 예.)

104012 #6 영영. 이거 안대우리게.(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짱다리.)

104012 #2 아니우다게.(아닙니다.)

104012 @1 계난 두 분이 지금 거꾸로 걸으멘.(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104012 #2 아니우다게. 안대우린 이디 이디 걸려마썸? 영, 췌가.(아닙니다. 안짱다리 여기 여기 걸려요? 이렇게, 소가.)

104012 #6 아니. 게 췌 몰른디 사름은.(아니, 글썸 손 모르는데 사름은.)

104012 #2 아니, 췌 말햐주게, 사름 말햐수가?(아니, 술 말하고 있지, 사람 말하고 있습니까?)

104012 #3 사름은.(사름은.)

104012 @1 논리적으로 볼 때.(논리적으로 볼 때.)

104012 #6 사름이나 췌나 마찬가지로 아니?(사람이나 소나 마찬가지로 아니?)

104012 #3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04012 #2 아이, 계난 이디 이디 나오명 가는 거. 저 안대우리.(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나오면서 가는 거. 저 안짱다리.)

104012 #3 안티레 안티레 이 무릎이 돌아오게 걷는 거 췌도.(안으로 안으로 이 무릎이 돌아오게 걷는 거 소도.)

104012 @1 예.(예.)

104012 #3 건 안대우리고.(건 안짱다리고.)

104012 @1 예.(예.)

104012 #3 이건 무릎 밧겨레 갖혀지는 건.(이건 무릎 밖으로 갖혀지는 건.)

104012 #2 밧대우린 영영 허명 가는 것ㄴ라.(밭장다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보고.)

104012 #6 바꺸터레 갖혀지는 건 밧대우리.(바꺸으로 갖혀지는 건 밧장다리.)

104012 #3 갖혀지는 건 밧대우리게.(갖혀지는 건 밧장다리.)

104012 #6 안티레 영 허는 건 안대우리.(안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짱다리.)

104012 @1 예, 예, 예. 알아수다.(예, 예, 예. 알았습니다.)

104012 #3 안네 오그라진 거. 밧대우리.(안에 오그라진 거. 밧장다리.)

104013 @1 그다음엔예, 어 들은 어떻게 주로 사용헌 겨우파?(그다음에는요, 어 말은 어떻게 주로 사용한 겁니까?)

104013 #3 들?(말?)

104013 @1 예.(예.)

104013 #3 몰사 뭐, 뭐 탕도 뎅기, 옛날은 몰 탕, 몰 탕도 뎅겨나고.(말이야 뭐, 뭐 타서도 다니, 옛날은 말 타서, 말 타서도 다녔었고.)

104013 @1 예.(예.)

104013 #3 마차.(마차.)

104013 @1 예.(예.)

104013 #3 구루마 허는 거고. 또 우선 방에 질 적에 방엿간.(마차 하는 거고. 또 우선 방아 짚을 적에 방앗간.)

104013 @1 예.(예.)

104013 #3 연자방아.(연자방아.)

104013 #2 밧 불릴 용도로도 많이 질렀주.(밭 밟는 용도로도 많이 길렀지.)

104013 #3 밧 불릴 용도로 많이 했주.(밭 밟는 용도로 많이 했지.)

104013 @1 으, 밧도 불리고예?(으, 밧도 밟고요?)

104013 #2 옛날게, 조 불릴 때덜 그 밧 불릴 용으로덜 몰덜 많이 했어.(옛날, 조 밟을 때들 그 밧 밟는 용으로들 말들 많이 했어.)

104013 #3 집에 질루곡 또 그 대신 동네마다 이제 마차 허는 분덜이 잇는데 뭐 우리 동네도.(집에 기르고 또 그 대신 동네마다 이제 마차 하는 분들이 잇는데 뭐 우리 동네도.)

104013 #2 그런 건 소수자고.(그런 건 소수자고.)

104013 #3 하지 아녀주마는 그런 분들은 몰덜 실헌 몰덜 헤 가지고.(많지 않지 만 그런 분들은 말들 실한 말들 해 가지고.)

104013 @1 예.(예.)

104013 #3 마차로도 쓰곡.(마차로도 쓰고.)

104013 @1 으.(으.)

104013 #3 겨곡 밧, 가정에 쓰는 거는 밧 불리는 거 허곡 또 짐 시켜 날르는 거. 또 방에 짚는 거.(그리고 밧, 가정에 쓰는 거는 밧 밟는 거 하고 또 짐 실어서 날르는 거. 또 방아 짚는 거.)

104013 @1 방에 짚는 거.(방아 짚는 거.)

104013 #3 사름으로 버치니까.(사람으로 부치니까.)

104013 @1 예.(예.)

104013 #3 경 헤 가지고 많이 했주.(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했지.)

104013 @1 으, 계난 여기는 몰방에 쉼로는 거의 안 허고 몰로 하영 했수가?(으, 그러니까 여기는 연자매 소로는 거의 안 하고 말로 많이 했습니까?)

104013 #6 쉼, 몰로도 했어.(소, 말로도 했어.)

104013 #2 쉼로도 허곡.(소로도 하고.)

104013 #6 우리 동네 경우는 말을 많이 안 길렀어.(우리 동네 경우는 말을 많이 안 길렀어.)

104013 @1 아, 계문 여기 몰 허영은에 뭐 저기 바령 허는 것들은 안 했수가?

(아, 그러면 여기 말 해서 뭐 저기 ‘바령’ 하는 것들은 안 했습니까?)

104013 #6 바령²⁹²) 허는 거는 뭐라?(‘바령’ 하는 거는 뭐야?)

104013 #3 저 바령 허는 건 가똥은에 질루는 거.(저 ‘바령’ 하는 건 가똥서 기르는 거.)

104013 @1 어.(어.)

104013 #3 여기도 허여.(여기도 해.)

104013 @1 아.(아.)

104013 #6 여기 어디 헤났어?(여기 어디 했었어?)

104013 @1 췌, 췌 허영.(소, 소 해서.)

104013 #3 저 사름네 장인 짚은게 암만, 저 뭐허난 줌이 안 왕게 밧디 강 돌 다 왔네게. 바령허는 거.(저 사름네 장인 짚은 암만, 저 뭐하니깐 줌이 안 와서 밧에 가서 돌 쌓았어. ‘바령’하는 거.)

104013 @1 밧 걸게 행은에. 췌들 거기 똥 싸게 헤영 허는 거.(밧 걸게 해서. 소들 거기 똥 싸게 해서 하는 거.)

104013 #3 아, 그런 것 엇고.(아, 그런 것 없고.)

104013 @1 예. 그런 건 없고.(예. 그런 건 없고.)

104013 #3 들 가똥 매는 거.(말 가똥서 매는 거.)

104013 @1 예, 예.(예, 예.)

104013 #3 남군이나 버령²⁹³) 현다 뭐 ㄱ꾸라 허지.(남군이나 ‘버령’ 현다 뭐 ㄱ꾸라 허지.)

104014 @1 여기는.(여기는.)

104013 #3 여기는 그런 건.(여기는 그런 건.)

104013 @1 알아수다, 알아수다. 그난 제주도가에 널러마씨?(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요 널러요.)

104014 #3 아이그.(아이고.)

104014 @1 물 나이는 어떻 췌니까?(말 나이는 어떻게 췌니까?)

104014 #3 이수, 삼수 그런 거 또.(이수, 삼수 그런 거 또.)

104014 @1 으, 자, 일 번부떠. 한 살부떠?(으, 자, 일 번부터. 한 살부터?)

104014 #3 건 잘 일수²⁹⁴).(건 잘 ‘일수’.)

104014 #2 일수엔 허는 거.(‘일수’라고 하는 거.)

104014 #3 일수 맞아게.(‘일수’ 맞아.)

104014 @ 아니우다게. 금승똥쟁이.(아닙니다. ‘금승망아지’.)

104014 #2 아, 금승똥쟁이²⁹⁵).(아, ‘금승망아지’.)

104014 #3 아, 곧 난 거 금승똥쟁이엔 허고.(아, 곧 난 거 ‘금승망아지’라고 하

292) ‘바령’은 밧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나 말을 밧에 가똥 똥과 오줌을 싸게 하는 것을 말한다.

293) ‘버령’은 제보자가 ‘바령’을 잘못 발음한 것 같다.

294) ‘일수’는 소의 나이의 한 살을 말한다.

295) ‘금승똥쟁이’는 한 살 된 망아지를 말한다.

고.)

104014 #2 그게 혼 술이 금승이고.(그게 한 살이 ‘금승’이고.)

104014 @1 금승똥생이 그다음.(‘금승망아지’ 그다음.)

104014 #3 이수²⁹⁶) 허여, 이수.(‘이수’ 해, ‘이수’.)

104014 #2 이수, 삼수²⁹⁷) 뭐 이런 식으로.(‘이수’, ‘삼수’ 이런 식으로.)

104014 #3 삼수 허민 스수²⁹⁸) 오수²⁹⁹).(‘삼수’ 하면 ‘사수’ ‘오수’.)

104014 #1 아니, 아니. 금승엔 현 건 소에 한해서, 소에 한해서. 소에 한해서. 물은 그게 아니라.(아니, 아니. ‘금승’이라고 한 건 소에 한해서, 소에 한해서. 소에 한해서. 말은 그게 아니라.)

104014 #3 똥생이.(망아지.)

104014 #2 금승, 금승똥생이. 금승똥생이.(하룻, ‘금승망아지’. ‘금승망아지’.)

104014 #3 똥생이.(망아지.)

104014 #1 똥생이.(망아지.)

104014 @1 예. 웃음.(예. 웃음.)

104014 #2 금승똥생이.(‘금승망아지’.)

104014 #1 똥생이, 똥생이지만 금승똥생이 헤나신가.(망아지, 망아지지만 ‘금승망아지’ 했었는가.)

104014 @1 예.(예.)

104014 #3 어린 거.(어린 거.)

104014 #2 예, 금승똥생이엔.(예, ‘금승망아지’라고.)

104014 #3 젓 먹는 거게, 금승똥생이게.(젓 먹는 거, ‘금승망아지’합디다. 웃음.)

104014 @1 예, 맞수다. 금승똥생이협디다게. 웃음.(예, 맞습니다. ‘금승망아지’합디다. 웃음.)

104014 #3 금승똥생이.(‘금승망아지’.)

104014 @1 그다음에 똥 질루명은에 잊어 붙지 못하는 추억, 아까 돈 잃어 먹었던 허는데 똥은?(그다음에 똥 기르면서 잊어 버리지 못하는 추억, 아까 돈 잃어 먹었다고 하는데 똥은?)

104014 #1 으.(으.)

104014 #3 것도 똥도 해주기.(것도 똥도 많지.)

104014 #1 게메 그.(글썸 그.)

104014 #3 즈매 창근에 막 도망가고.(자마 차서 막 도망가고.)

104014 #1 이, 이수 삼수 영 헤실 거여.(이, ‘이수’ ‘삼수’ 이렇게 했을 거야.)

104014 @1 예.(예.)

104014 #3 게메, 경 헛주게.(글썸, 그렇게 했지.)

296) ‘이수’는 말의 나이 두 살이다.

297) ‘삼수’는 말의 나이 세 살이다.

298) ‘스수’는 말의 나이 네 살이다.

299) ‘오수’는 말의 나이 다섯 살이다.

104015 @1 예, 계난 물 허멍 이제 잊어 버리지 못하는 추억 곱아 줘서? 삼촌.
(예, 그러니까 말 하면서 이제 잊어 버리지 못하는 추억 말해 주십시오? 삼촌.)

104015 #3 계메, 쉼 잃어. 물이 더해. 쉼보단.(글쎄, 소 잃어. 말이 더 해. 소보단.)

104015 @1 음.(음.)

104015 #3 물은 허게 뉘면은 삼스월 뉘면은 즈매가 냄새 나.(말은 하게 되면 삼사월 되면 자마가 냄새 나.)

104015 @1 예, 아.(예, 아.)

104015 #3 계민 즈매 좇앙 도망가는 수가 많주기.(그러면 자마 찾아서 도망가는 수가 많지.)

104015 @1 음.(음.)

104015 #3 계민 그때 환장하고 것도 잃어 불영 허곡. 그런 추억벧기 무신 그 전에는 뭐 그런 거는 없고.(그러면 그때 환장하고 것도 잃어 버려서 하고. 그런 추억밖에 무슨 그 전에는 뭐 그런 거는 없고.)

104015 #2 아이, 나가 쉼 질루단 추억 하나 있다, 춤.(아니, 내가 소 기르다가 추억 하나 있다, 참.)

104015 @1 예, 곱아 봅서.(예, 말해 보십시오.)

104015 #3 곱아 봐.(말해 봐.)

104015 #2 나가 그때 당시 혼 열으스 일곱썸이다.(내가 그때 당시 한 열여섯 일곱썸인데.)

104015 @1 예.(예.)

104015 #2 동네 사름 쉼덜을 문딱 나가 맥여주켄 허영은에 영 그 그거 허연에 들어서.(동네 사람 소들을 몽땅 내가 먹여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 그거 해서 들어서.)

104015 @1 예.(예.)

104015 #2 이제 일본 가 분 그 누구 잊지 아녀우짱? ○○ 씨. 큰내³⁰⁰)에 간 들이천 놔둬서 은얼 걸리는데, 삼봉으로.(이제 일본 가 버린 그 누구 잊지 않습니까? ○○ 씨. ‘큰내’에 가서 집어넣어서 놔두고서 은얼 걸리는데, 삼봉으로.)

104015 #3 웃음.(웃음.)

104015 #2 은어가 어떻사 잘 걸리는지 뭐. 쉼 불 생각은 아녀고 그 은어 걸리단 베려보니까.(은어가 어떻게야 잘 걸리는지 뭐. 소 불 생각은 앓고 그 은어 걸리다가 바라보니까.)

104015 @1 으.(으.)

104015 #2 그때가 팔월 멩질 아시날인데.(그때가 팔월 멩질 전날인데.)

104015 @1 예.(예.)

104015 #2 아, 쉼가 없단 말여. 낫전 걸런 나와 보니까 쉼가 혼 마리도 잊어. 혼

300) ‘큰내’는 외도천의 다른 이름이다.

열 개 정도 웬디. 아, 그걸 잃어 먹언 좃으는디 생심 좃아져. 저녁꺼지 좃아도 못 좃으니깐 이젠 뒷날 간 호호 방문 놓멍.(아, 소가 없단 말이야. 낮전 걸려서 나와 보니까 소가 한 마리도 없어. 한 열 개 정도 됐는데. 아, 그걸 잃어 먹어서 좃는데 생전 좃아져. 저녁까지 좃아도 못 좃으니깐 이젠 뒷날 가서 호호 방문 놓으면서.)

104015 @1 으.(으.)

104015 #2 저 광령으로 하간 딜로 돌아텡기멍 그 아까 식으로 방문 낫주게.(저 광령으로 온갓 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아까 식으로 방문 낫지.)

104015 @1 예.(예.)

104015 #2 방문 놓멍 헝 이젠 사준 사름신디 간에 들었어.(방문 놓으면서 해서 이젠 사준 사람한테 가서 들었어.)

104015 @1 으.(으.)

104015 #2 이 췌 고향이 어디냐고?(이 소 고향이 어디냐고?)

104015 #3 점치는 사름. 웃음.(점치는 사람.)

104015 #2 아니.(아니.)

104015 #3 점쟁이.(점쟁이.)

104015 #2 그 고향이 어디냐고. 사준 사름신디. ○○이가 사줬는데.(그 고향이 어디냐고. 사준 사람한테. ○○이가 사줬는데.)

104015 #3 아.(아.)

104015 #2 양○○이. 그디 간 들으니까 아, 그 췌 저 열안지³⁰¹⁾ 췌엔.(양○○이. 거기 가서 들으니까 아, 그 소 저 ‘열안지’ 소라고.)

104015 @1 으.(으.)

104015 #2 열안지 간 베려보니깐 그 일러 먹은 날이 저녁에 갔어. 췌가.(‘열안지’ 가서 바라보니깐 그 잃어 먹은 날에 저녁에 갔어. 소가.)

104015 #3 맞아.(맞아.)

104015 #2 문딱 꺾어 아전. 지선³⁰²⁾ 좃안.(몽땅 끌어 가지고. ‘지선’ 좃아서.)

104015 @1 아.(아.)

104015 #2 이녁 난 디 보고 지선이엔 허는디.(이녁 난 데 보고 ‘지선’이라고 하는데.)

104015 #3 지선이엔 곧주기.(‘지선’이라고 말하지.)

104015 @1 지선.(‘지선’.)

104015 #2 그 지선 좃안 바로 가 불언 말여.(그 ‘지선’ 좃아서 바로 가 버려서 말아야.)

104015 #3 그런 췌가 해주기.(그런 소가 많지.)

104015 #2 경 혜연 일주일 간 좃아도 못 좃으니까 일러먹은 걸로 혜연에 내 불 어났는데 아, 거기서 연락해 달렌 허니까 연락 완.(그렇게 해서 일주일 가서 좃아도

301) ‘열안지’는 제주도 봉개동에 있는 열안지오름을 말한다.

302) ‘지선’은 원래 있었던 곳, 소가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못 찾으니까 잃어 먹은 걸로 해서 내 버렸었는데 아, 거기서 연락해 달라고 하니까 연락 와서.)

104015 @1 으. 그때 멧 머리우파?(으. 그때 멧 마립니까?)

104015 #2 경 해연 췌 좇아완. 일곱 바리, 일곱 바리, 췌.(그렇게 해서 소 찾아 왔어.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소.)

104015 @1 일곱 바리.(일곱 마리.)

104015 #3 난.(난.)

104015 @1 아.(아.)

104015 #3 췌, 논일, 논일 헐 땀디.(소, 논일, 논일 할 땀데.)

104015 #2 아, 그거 일주일 간 놔** 일러 분 걸로 허연 혼났주기, 혼난.(아, 그거 일주일 가서 놔** 잃어 버린 걸로 해서 혼났지, 혼났어.)

104015 @1 음.(음.)

104015 #3 우린 그 일허단 논두둑 비단 반 췌는 담구멍에 췌는.(우린 그 일하다가 논둑 베다가 봐서 소는 담구멍에 소는.)

104015 #2 좇아오난 뭐 봉근 거 닳아, 봉근 거 닳아.(찾아오니까 뭐 주운 거 같아, 주운 거 같아.)

104015 #3 잘 매긴 멧는데 이거 뭐 논두둑 멘들양 췌 볼 생각났어. 내부난 췌가 셔?(잘 매긴 멧는데 이거 뭐 논둑 만들어서 소 볼 생각났어. 내 버리니까 소가 있어?)

104015 #2 아, 거 빨리 좇아가는 거데. 지선 좇안.(아, 거 빨리 좇아가는 거데. ‘지선’ 찾아서.)

104015 #3 줄로 가난 어떻허영 담장으로 말뚝 빠져 가지고 췌 즘 좇안 가 불 엇단 말여. 계난 이젠 낮 넘언 좇젠 허난 뭐 좇을 수가 있나. 아니 계난 광령으로 즘중이³⁰³)로 다 돌아 다녔어. 계연 낭중엔 보니까 췌는 가까운 디 낭 아래 놔뵈 췌 좇으려 헛걸음해졌더라고.(줄로 가니까 어떡해서 담장으로 말뚝 빠져 가지고 소는 꿈무니 쫓아서 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젠 낮 넘어서 찾으려고 하니까 뭐 좇을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광령으로 ‘즈중이’로 다 돌아다녔어. 그래서 나중엔 보니까 소는 가까운 데 나무 아래 놔뵈서 소 찾으러 헛걸음해졌더라고.)

104015 #6 업은 애기 일뵈 좇넌 허지 아녀?(업은 애기 이레 찾는다 하지 않아?)

104015 @1 예.(예.)

104015 #3 바로 그 말이여, 그 말.(바로 그 말이야, 그 말.)

104015 @1 업은 애기 일뵈 좇듯이.(업은 애기 이레 찾듯이.)

104015 #3 웨 그렇게 허냐면 말뚝 꺾은 내 부난에 내창으로 들어가단 그 돌에 걸려 가지고.(왜 그렇게 하느냐면 말뚝 꺾어서 내 버리니까 내로 들어가다가 그 돌에 걸려 가지고.)

104015 #2 아.(아.)

303) ‘즈중이’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자연마을이 하나다.

104015 #3 거기 ㄹ만이 산 거라.(거기 가만히 선 거야.)

104015 #2 ㄹ만이 산.(가만히 섰어.)

104015 #3 ㄹ만이 산.(가만히 섰어.)

104015 @1 으.(으.)

104015 #3 계난 이놈으 쉼은 먹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굶은 거지, 이젠 거 좇아가단.(그러니까 이놈의 소는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굶은 거지, 이젠 거 찾아가다가.)

104015 #2 계난 말톡 촌, 말톡 찬 쉼은 잃어 먹으면 위험하여.(그러니까 말톡 찬, 말톡 찬 소는 잃어 먹으면 위험해.)

104015 #3 위험도 허곡. 겨곡 말톡 좇은 거는 줄 잘, 가난 딜로만 비 와난 디혈 때는 그 줄에만 강 좇, 좇기도 허주기에.(위험도 하고. 그리고 말톡 좇은 거는 줄 잘, 가난 데로만 비 왔던 데 할 때는 그 줄에만 가서 좇, 좇기도 하지.)

104015 @1 예.(예.)

104015 #3 그 쉼줄 끄어난 디로.(그 소줄 끌었던 데로.)

104015 #2 겐디 길 ** 디는 게 ***(그런데 길 ** 데는 글썸 ***)

104015 #3 겐디 가는 디까지 **** 엇어 붙어 가지고.(그런데 가는 데까지 *** 없어 버려 가지고.)

104015 @1 으.(으.)

104015 #3 경 험 촌 애 먹어난 적이 잇는데.(그렇게 해서 참 애 먹었던 적이 잇는데.)

104015 #2 내창에 들어가 불민 그것이 엇어져 분 거주.(내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지.)

104015 #3 솔직히 먼 디도 아닌 옆에 놔똥 그 좇으레 뎅겨난 생각을 허니까.(솔직히 먼 데도 아닌 옆에 놔똥서 그 좇으러 다녔던 생각을 하니까.)

104015 @1 예, 알앗수다.(예, 알았습니다.)

104015 #2 아이고, 우리 일주일. 아, 농 빌언, 동네 사름덜 빌언 좇이레 뎅겨주.(아이고, 우리 일주일. 아, 농 빌려서, 동네 사람들 빌려서 좇으러 다녔지.)

104015 #3 맞주.(맞지.)

104015 @1 예, 완전 화륙져시쿠다예? 웃음. 계난 삼촌, 그거를 지선이렌 글아?(예, 완전 ‘화륙’졌겠습니까요? 웃음. 그러니까 삼촌, 그거를 ‘지선’이라고 말해?)

104015 #2 지선.(‘지선’.)

104015 #3 지선.(‘지선’.)

104015 #6 지선.(‘지선’.)

104015 #3 소 난 디. 소 난 디.(소 난 데. 소 난 데.)

104015 #2 쉼 난 고향이엔 지선.(소 난 고향이라고 ‘지선’.)

104015 #6 겐디 쉼도 경 허네이. 개는 영리허니까 개는 뭐 백 프로.(그런데 소도 그렇게 하데. 개는 영리하니까 개는 뭐 백 프로.)

104015 #3 질 알민 집이 딱 찾아가. 이녁 집이.(길 알면 집에 딱 찾아가. 이녁 집에.)

104015 @1 계난 그 고향인 거라예?(그러니까 그 고향인 거네요?)

104015 #2 지선 췌 췌는 꼭 지선을 췌여. 그 **덜을 잘 질뤄야 돼. 그 스월달 나 가든 그냥 그 지선 이녁 고향 생각나는 모양이라.(‘지선’ 췌 소는 꼭 ‘지선’을 췌어. 그 **들을 잘 길러야 돼. 그 사월 되어 가면 그냥 그 ‘지선’ 이녁 고향 생각나는 모양이야.)

104015 #3 이 새 풀 나가면은.(이 새 풀 나가면.)

104015 #2 풀도 안 먹곡 그냥 그레만.(풀도 안 먹고 그냥 그리로만.)

104015 #3 새 풀 나가면은. 그 지선 췌.(새 풀 나가면. 그 ‘지선’ 췌.)

104015 #2 그레만 가젠 허여.(그리로만 가려고 해.)

104015 #3 좋은 거 먹어난, 뭇사 허연산지 뭇헌지 고개 들렁 영 막 허주기.(좋은 거 먹었던, 무엇이야 했는지 뭇헌지 고개 들어서 이렇게 막 하지.)

104015 @1 아.(아.)

104015 #3 어, 계민 요거는.(어, 그러면 요거는.)

104015 #2 **마다 잘해야 ***(**마다 잘해야 ***)

104015 #3 지선 좇은 거여. 계난 그런 췌는 잘 매사.(‘지선’ 좇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는 잘 매야.)

104015 @1 예.(예.)

104015 #3 석도 매곡.(고삐도 매고.)

104015 #2 잘 매곡 경 아녀민 폴아 붙어사 허여.(잘 매곡 그렇게 얹으면 팔아 버려야 해.)

104015 #3 경 헤 가지고 혼 멧 개월 넘도록 해도 경 헤 가민 그런 거는 안 웨여.(그렇게 해 가지고 한 몇 개월 넘도록 해도 그렇게 해 가면 그런 거는 안 웨여.)

104015 #2 옥도록 경 허더라고. 옥도록.(크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크도록.)

104015 @1 아아, 영 허영 그.(아아, 이렇게 해서 그.)

104015 #3 어.(어.)

104015 @1 새 출 날 때에.(새 풀 날 때에.)

104015 #3 어게.(어.)

104015 @1 계영 막 영 영 허는 거는.(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104015 #3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4015 @1 아.(아.)

104015 #2 출도 잘 안 먹곡 지선 좇앙 가 붙어.(풀도 잘 안 먹고 ‘지선’ 찾아서 가 버려.)

104015 @1 경헌 걸 지선 좇암덴 허고예?(그런 걸 ‘지선’ 찾고 있다고 하고요?)

104015 #2 바로. 웬만한 담은 꺾꺾 뛰영 돌아나곡.(바로. 웬만한 담은 꺾꺾 뛰어서 달아나고.)

104015 #3 경 허곡말고.(그렇게 하고말고.)
 104015 #2 웃음. 겁나 가지고.(웃음. 겁나 가지고.)
 104015 @1 계난 아까 삼춘 말할 때 일곱 바리엔 헛어예?(그러니까 아까 삼춘 말할 때 일곱 ‘바리’라고 했어요?)
 104015 #2 예, 일곱 바리³⁰⁴.(예, 일곱 마리.)
 104015 @1 계민 쉼 혼 머리 두 머리 헛 걸 혼 바리 두 바리 영 션니까?(그러면 소 한 마리 두 마리 한 걸 한 ‘바리’ 두 ‘바리’ 이렇게 션니까?)
 104015 #3 오케이, 오케이, 으.(오케이, 오케이, 으.)
 104015 #6 맞아.(맞아.)
 104015 @1 계든 몰도 경 세여?(그러면 말도 그렇게 세여?)
 104015 #2 몰도 허곡.(말도 하고.)
 104015 #3 몰도.(말도.)
 104015 @1 혼 바리 두 바리예?(한 ‘바리’ 두 ‘바리’요?)
 104015 #3 혼 바리 두 바리.(한 ‘바리’ 두 ‘바리’.)
 104015 @1 혼 머리, 두 머리 안 허영 여긴 혼 바리, 두 바리.(한 마리, 두 마리 안 해서 여긴 한 ‘바리’, 두 ‘바리’.)
 104015 #2 일곱 바리.(일곱 ‘바리’.)

먹이

104016 @1 일곱 바리,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이 마소 먹이, 어떤 것덜 잇수 가?(일곱 ‘바리’,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소 먹이,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4016 #3 몰 먹이? 몰 먹이?(말 먹이? 말 먹이?)
 104016 @1 몰이나 쉼나 먹는 거?(말이나 소나 먹는 거?)
 104016 #3 뭐 비슷허주, 뭐.(뭐 비슷하지, 뭐.)
 104016 @1 으.(으.)
 104016 #3 먹는 거는.(먹는 거는.)
 104016 @1 계난 어떤 거?(그러니까 어떤 거?)
 104016 #1 곡식계.(곡식.)
 104016 #3 콩꼬질 ㄱ튼 거, 뭐, 뭐.(콩각지 같은 거, 뭐, 뭐.)
 104016 #1 곡식이. 곡식뿔엔 헛 건가? 곡식, 곡식 그 나무엔 헛 건가? 대엔 헛 건가? 그 전부.(곡식이. 곡식뿌리라고 할 건가? 곡식, 곡식 그 나무라고 할 건가? 대라고 할 건가? 그 전부.)
 104016 #3 계난 조집계. 조집.(그러니까 조짚, 조짚.)
 104016 #2 조집, 조집계.(조짚, 조짚.)
 104016 #3 산뒤짚.(밭벼짚.)
 104016 #6 암말은.(암말은.)

304) ‘바리’는 제주도 외도동에서 말의 수효를 셀 때 쓰는 단위. 즉 ‘마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4016 @1 예.(예.)
 104016 #3 감젓줄.(고구마줄기.)
 104016 #6 즈매.(자마.)
 104016 @1 예.(예.)
 104016 #6 건 썬?(건 썬어?)
 104016 @1 예, 아까 금방.(예, 아까 금방.)
 104016 #1 조짚.(조짚.)
 104016 #3 산디짚게.(밭짚.)
 104016 #1 콩꼬질.(콩각지.)
 104016 @1 예.(예.)
 104016 #1 뒤, 뒤, 뒤.(뒤, 뒤, 뒤.)
 104016 #6 소 먹는, 마찬가지로.(소 먹는, 마찬가지로.)
 104016 @1 예.(예.)
 104016 #1 무슨 뒤, 뒤, 예.(무슨 뒤, 뒤, 예.)
 104016 #3 감젓줄이나. 다 마찬가지로.(고구마줄기나. 다 마찬가지로.)
 104016 #1 산디짚도 먹고.(밭짚도 먹고.)
 104016 @1 예.(예.)
 104016 #1 안 먹는 거 셔?(안 먹는 거 있어?)
 104016 @1 예.(예.)
 104016 #4 것도 산에서 저 출 해영.(것도 산에서 저 풀 해서.)
 104016 #3 새꿀³⁰⁵게.(‘새꿀’.)
 104016 #1 새꿀 해영 놔둔 거 맥이곡.(‘새꿀’ 해서 놔둔 거 먹이고.)
 104017 @1 예, 알아수다. 그 산에서 허는 새꿀예, 그 출 비젠 허면은 어떻, 출은 어떻 비어났수가?(예, 알았습니다. 그 산에서 하는 ‘새꿀’요, 그 풀 베려고 하면은 어떻게, 풀은 어떻게 베었었습니까?)
 104017 #6 출 호미로 비주. 어떻 비여.(풀 낫으로 베지. 어떻게 베어.)
 104017 @1 예, 계난 호미로 비는데, 그 출 비젠 허면은 어느 철에.(예, 그러니까 낫으로 베는데, 그 풀 베려고 하면 어느 철에.)
 104017 #6 아, 팔월에.(아, 팔월에.)
 104017 @1 어느 사름덜 빌령 강 허는 그 과정을 쭉 글아 쥐 봄서.(어느 사름들 빌려서 가서 하는 그 과정을 쭉 말해 줘 보십시오.)
 104017 #6 아, 계난 식구가 많은, 많은 집인 이녁양으로 비곡.(아, 그러니까 식구가 많은, 많은 집에는 이녁대로 베고.)
 104017 @1 음.(음.)
 104017 #6 식구 없는 사름은 놉 빌령 비곡 그겨주게.(식구 없는 사름은 놉 빌려서 베고 그거지.)

305) ‘새꿀’은 소의 풀의 한 종류다. ‘소세’ 따위의 풀을 말한다.

104018 @1 계난 출 빌 때는 어떤 걸로 비엿수가?(그러니까 풀 벨 때는 어떤 걸로 베었습니까?)

104018 #6 호미로.(낫으로.)

104018 @1 호미로? 동쪽 가민 낫³⁰⁶으로 비언게?(낫으로? 동쪽 가면 ‘낫’으로 베던데.)

104018 #3 장낫³⁰⁷으로 비는데 동쪽은 장낫으로 허는데.(‘장낫’으로 베는데 동쪽은 ‘장낫’으로 하는데.)

104018 #6 여긴 호미.(여긴 ‘호미’.)

104018 #3 그 호민 장낫을 가정 이던 웨질 아녀.(그 낫은 ‘장낫’을 가져서 여긴 되질 않아.)

104018 @1 으.(으.)

104018 #3 여기는 다 테역출³⁰⁸엔 해 가지고.(여기는 다 ‘테역출’이라고 해 가지고.)

104018 #2 벻따, 벻따.(밭아, 밭아.)

104018 #3 춤소세³⁰⁹ 뭐허주마는 이 호미로 비지 아녕은 장낫이 안 돼주기. 계난 동촌덜은 어욱 ㄴ똥 거 막 거친 밧디 준둥 우로 비는 거.(‘춤소세’ 뭐하지만 이 낫으로 베지 않고 ‘장낫’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동촌들은 역새 같은 거 아주 거친 밧에 잔둥 위로 베는 거.)

104018 @1 예.(예.)

104018 #3 그런 게 허민 저기 이렇게 ㄴ려 가지고 허고.(그런 게 하면 저기 이렇게 깔겨 가지고 하고.)

104018 #6 쉽게 말허민 이제 말허고 잇주마는 동쪽디레는 녁쿨.(쉽게 말하면 이제 말하고 있지만 동쪽으로는 녁쿨.)

104018 @1 예.(예.)

104018 #6 녁쿨이니까 그 뭐.(냁쿨이니까 그 뭐.)

104018 #3 거친 디로.(거친 데로.)

104018 #6 여기는 잔디 모양으로.(여기는 잔디 모양으로.)

104018 @1 예.(예.)

104018 #3 문작허주게.(누글누글하지.)

104018 #2 벻따.(밭아.)

104018 @1 예.(예.)

104018 #6 이게 길이도 짧으고 뿌리 저 빨리 쪽이 단단허기 때문에 안 되여.(이게 길이도 짧고 뿌리 저 뿌리 쪽이 단단하기 때문에 안 되어.)

306) 여기에서 ‘낫’은 자루와 날이 보통의 낫보다 크고 긴 도구를 말한다. 달리 ‘장낫’이라고 하였다.

307) ‘장낫’은 자루와 날이 보통의 낫보다 크고 긴 도구를 말한다. 달리 ‘낫’이라고 한다. 보통의 낫을 제주에서는 ‘호미’ 또는 ‘춤호미’라고 한다.

308) ‘테역출’은 ‘테역’ 즉 잔디처럼 길이가 짧은 풀을 말한다.

309) ‘춤소세’는 풀의 일종이다. 역새에 비해 길이가 짧은 풀이다.

104018 @1 음, 거난 아까 삼촌 테역출엔 헌 게 그거우파?(음, 그러니까 아까 삼촌 ‘테역출’이라고 한 게 그겁니까?)

104018 #3 그렇주게.(그렇지.)

104018 #2 벋든 거 보고 테역출.(받은 거 보고 ‘테역출’.)

104018 @1 아, 벋든 출보고, ㄴ라 테역출예? 예.(아, 받은 꼴보고, 보고 ‘테역출’요? 예.)

104018 #3 테역출.(‘테역출’.)

104018 @1 그다음에 그 출 빌 때는 보통.(그다음에 그 꼴 벨 때는 보통.)

104018 #2 긴 건 웨동출³¹⁰엔 허고.(긴 건 ‘웨동출’이라고 하고.)

104018 @1 팔월 멩질 하면. 무신 출?(팔월 멩질 하면. 무슨 출?)

104018 #2 긴 건 웨동출엔.(긴 건 ‘웨동출’이라고.)

104018 @1 웨동?(‘웨동’?)

104018 #2 으, 웨동출.(으, ‘웨동출’.)

104018 #3 소세게, 소세게.(소세, 소세.)

104018 @1 예.(예.)

104018 #3 저 길게 땅 길게 나는 건 소세.(저 길게 땅 길게 나는 건 소세.)

104018 #2 웨동출.(‘웨동출’.)

104018 @1 웨동출. 찰는 거는 테역출. 예, 알았수다. 그다음에 그 보통 허면은 팔월에 빈덴 헛잖아예. 출. 팔월멩질 꼭 그 고비에.(‘웨동출’. 짧은 거는 ‘테역출’.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통 허면은 팔월에 벤다고 헛잖아요. 꼴. 팔월멩질 꼭 그 고비에.)

104018 #2 그 스시에 돼믄.(그 사이에 되면.)

104018 @1 예.(예.)

104018 #2 출이 익어.(꼴이 익어.)

104018 @1 으.(으.)

104018 #2 바라 가지고. 계난 그 그날 강 비영 아침이 비영 저녁이 무꼴 수도 잇주기. 잘허민.(바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날 가서 메어서 아침에 베어서 저녁에 뭍을 수도 잇지. 잘하면.)

104018 @1 계난 출 빌 때는 뭐 내려오면 출 빈덴 헉니까, 뭐 불민?(그러니까 꼴 벨 때는 뭐 내려오면 꼴 벤다고 합니까, 뭐 불면?)

104018 #6 아, 계난 이 저.(아, 그러니까 이 저.)

104018 #2 하늬.(하늬.)

104018 #6 하늬븍름.(하늬바람.)

104018 #2 하늬.(하늬.)

104018 #6 지금은 뭐 온난화현상이니 뭐니 현디. 지난날에는.(지금은 뭐 온난화 현상이니 뭐니 하는데. 지난날에는.)

310) ‘웨동출’은 꼴의 단을 만들 때, 한쪽으로도만 쳐서 뭍을 수 있을 만큼 긴 꼴을 말한다.

104018 @1 예.(예.)
104018 #6 꼭 계절 따라서 바람이 불었거든.(꼭 계절 따라서 바람이 불었거든.)
104018 @1 음.(음.)
104018 #6 출혈 하늬엔 허여.(꿀 할 하늬라고 해.)
104018 #3 그렇지. 출혈 하늬.(그렇지. 꿀 할 하늬.)
104018 #6 그때 뒤편은 하늬브름이 잘 붙어줘서게.(그때 되면 하늬바람이 잘 붙어줘서.)
104018 @1 음.(음.)
104018 #2 비 오라 나민 무조건 하늬 붙어.(비 와 나면 무조건 하늬 붙어.)
104018 @1 음.(음.)
104018 #1 추석, 추석날 전후 행덜 헛주.(추석, 추석날 전후 해서들 헛지.)
104018 #3 예.(예.)
104018 #2 예, 추석 전후.(예, 추석 전후.)
104018 @1 케니까 하늬 이름을 출혈 하늬렌 아예 경 글아 부는 거라예?(그러니까 하늬 이름을 꿀 할 하늬라고 아예 그렇게 말해 버리는 거네요?)
104018 #3 이제 선선허영 하늬 불영 아이고, 출 **, 바로 출 허여사켜 허주기.(이제 선선해서 하늬 붙어서 아이고, 꿀 **, 바로 꿀 해야겠다 하지.)
104018 @1 으.(으.)
104018 #3 게난 멧질 전의 허는 분덜토 있고.(그러니까 멧질 전에 하는 분들도 있고.)
104018 @1 예.(예.)
104018 #6 주로.(주로.)
104018 #3 멧질 넘영 허는 사름 있고. 늦게 허는 사름 멧질 넘영 허는 사름 있고.(멧질 넘어서 하는 사름 있고. 늦게 하는 사름 멧질 넘어서 하는 사름 있고.)
104018 @1 예.(예.)
104018 #6 출에 따라서 쪼금.(꿀에 따라서 쪼금.)
104018 #3 어.(어.)
104018 @1 그다음에.(그다음에.)
104018 #1 그 잔디밭이 저 출왓이이 자기 출왓이 잇는 사름도 있고, 없는 사름도 있고 그러는디 이 까까운 디 출왓이 잇는 것이 드, 드물곡.(그 잔디밭에 저 꿀밭이 자기 꿀밭이 잇는 사름도 있고, 없는 사름도 있고 그러는데 이 까까운 데 꿀밭이 잇는 것이 드, 드물고.)
104018 @1 예.(예.)
104018 #1 대개 목장밭디 이제 그 출왓을, 출 사기도 허고.(대개 목장밭에 이제 그 꿀밭을, 꿀 사기도 하고.)
104018 @1 예.(예.)
104018 #1 자기 밧디 강 허기도 허는데, 출 허젠 허든 세베 때 헤 가지고 아침

인척이 밥허영 먹고.(자기 밭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풀 하려고 하면 새벽 때 해 가지고 아침 일찍이 밥해서 먹고.)

104018 @1 으.(으.)

104018 #1 또 우마가 잇으면 우마에 다 질메 그 짐 시끌 수 잇는 질메 이 시끄 곡 행근에 강.(또 우마가 잇으면 우마에 다 길마 그 짐 실을 수 잇는 길마 이 싣고 해서 가서.)

104018 @1 예.(예.)

104018 #4 그 올라가 가지고 그 저 예, 눅도 빌영 가든 허곡 아니든 자기대로만 비여 가지고 여러 날 비면서 비 맞히고 거세기 허든 곤란허니까 그 몰라, 몰라 가는 상태를 봐 가면서 거 무끄곡.(그 올라가 가지고 그 저 예, 눅도 빌려서 가면 하고 아니면 자기대로만 베어 가지고 여러 날 베면서 비 맞히고 거시기 하면 곤란하니까 그 말라, 말라 가는 상태를 봐 가면서 거 묶고.)

104018 @1 예.(예.)

104018 #1 모아두고. 이 올 때는 또 흔 바리 시꺼.(모아두고. 이 올 때는 또 한 바리 실어.)

104018 #2 시깁.(실어서.)

104018 #1 아정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저 흔 스무 남은 바리. 마, 예, 므쉬 한, 하나 맥이는 것이 흔 스무 바리나 열 바리 이상은 확보해야 돼여.(가져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저 한 스무 남은 바리. 마, 예, 마소 한, 하나 먹이는 것이 한 스무 바리나 열 바리 이상은 확보해야 되어.)

104018 #2 열 바리를 저 흔.(열 바리를 저 한.)

104018 #1 경 행. 경 행 열 개 시끄민 맞아. 그레 시꺼와 가지고.(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열 개 실으면 맞아. 그리로 실어와 가지고.)

104018 @1 게민.(그러면.)

104018 #3 들 므쉬 흔 머리 맥이는 것이 열 바리주게. 기준으로.(말 마소 한 바리 먹이는 것이 열 바리지. 기준으로.)

104018 #2 열 바리 정도 허민.(열 바리 정도 하면.)

104018 @1 열 바리민 몇 개월을 맥이는 겨우파?(열 바리면 몇 개월을 먹이는 겁니까?)

104018 #2 흔 삼 개월. 겨울 허민.(한 삼 개월. 겨울 하면.)

104018 #1 봄 나도록게.(봄 되도록.)

104018 #3 봄 나도록 걸로 가정 텡겨살 겨주게.(봄 되도록 걸로 가져 다녀야할 거지.)

104018 @1 으.(으.)

104018 #1 드르에 내냥근에 먹을 수 잇을 때까지.(뜰에 내놔서 먹을 수 잇을 때까지.)

104018 @1 게든 흔 바리가 멧 못이라마씨?(그러면 한 바리가 멧 못이에요?)

- 104018 #3 서른 못, 서른 못.(서른 못, 서른 못.)
- 104018 @1 서른 못?(서른 못?)
- 104018 #3 못으로 서른 못.(못으로 서른 못.)
- 104018 #6 서른 못? 아니라.(서른 못? 아니야.)
- 104018 #2 아니, 저 새꿀³¹¹, 새꿀은 옥십 못이 혼 바리.(아니, 저 ‘새꿀’, ‘새꿀’은 옥십 못이 한 바리.)
- 104018 #3 새꿀은 옥십 못, 춤.(‘새꿀’은 옥십 못, 참.)
- 104018 #6 옥십 못이엔 해난디.(옥십 못이라고 했었는데.)
- 104018 #3 테역출은.(‘테역출’은.)
- 104018 #6 이젠 오십 못으로 허매.(이젠 오십 못으로 해.)
- 104018 #3 오십 못. 오십 못.(오십 못. 오십 못.)
- 104018 #6 오십 못.(오십 못.)
- 104018 @1 계난 작은 거는 그 예순 못 허고 거난 쉬운.(그러니까 작은 거는 그 예순 못 하고 그러니까 쉽.)
- 104018 #6 아니, 아니.(아니, 아니.)
- 104018 #2 조집은 서른 개 혼 바리.(조짚은 서른 개 한 바리.)
- 104018 #6 옛날은, 옛날은 옥십 못을 헛는데.(옛날은, 옛날은 옥십 못을 헛는데.)
- 104018 @1 예.(예.)
- 104018 #3 혼 바리라고.(한 바리라고.)
- 104018 #6 쪼끔씩 이젠 간소화 바람을 불어서 그런지 오십 못으로 허더라고.(쪼끔씩 이젠 간소화 바람을 불어서 그런지 오십 못으로 하더라고.)
- 104018 @1 아, 오십 못예?(아, 오십 못이요?)
- 104018 #3 아니 것도 또 틀려. 여기허고 동촌³¹²은 또.(아니 것도 또 달라. 여기 하고 ‘동촌’은 또.)
- 104018 #2 맞아.(맞아.)
- 104018 #3 동촌더렌 오십 못이라.(‘동촌’으론 오십 못이야.)
- 104018 #2 거 지방에 따라.(거 지방에 따라서.)
- 104018 @1 마흔 못 허는 데도 있고.(마흔 못 하는 데도 있고.)
- 104018 #3 여기는 옥십 못 기준. 옥십 못 기준인데.(여기는 옥십 못 기준. 옥십 못 기준인데.)
- 104018 @1 이 동네?(이 동네?)
- 104018 #2 이 동네 옥십 못.(이 동네 옥십 못.)
- 104018 #6 옥십 못 안 줘.(옥십 못 안 줘.)
- 104018 #3 옥십 못인데.(옥십 못인데.)
- 104018 @1 예.(예.)

311) ‘새꿀’은 꿀의 일종이다. 소세 따위의 꿀을 말한다.

312) ‘동촌’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 지역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104018 #3 옥십 못을 약헌 던 옥십 못 시끄질 못허여.(옥십 못을 약한 덴 옥십 못 신질 못해.)

104018 #2 게, 하.(글쎄, 많아.)

104018 #3 하. 계난 쪼끔 약헌 송애기 ㄴ똥 거 흥끔 저 중소는 오십 못도 시끄고.(많아. 그러니까 쪼끔 약한 송애지 같은 거 조금 저 중소는 오십 못도 싣고.)

104018 #2 마흔 못도 시끄곡.(마흔 못도 싣고.)

104018 #3 마흔 못도 시끄고, 그 저 계난 이 질멧골³¹³이 세 골이거든.(마흔 못도 싣고, 그 저 그러니까 이 ‘길맞골’이 세 골이거든.)

104018 @1 예.(예.)

104018 #3 아까 ㄴ치 계난 가운데로.(아까같이 그러니까 가운데로.)

104018 #2 뭐 흥 골, 흥 골에 열 못씩 흥은에 옥십 못이라.(뭐 한 골, 한 골에 열 못씩 해서 옥십 못이야.)

104018 #3 열 못씩, 으.(열 못씩, 으.)

104018 @1 예.(예.)

104018 #2 흥 바리.(한 바리.)

104018 #3 게 가지고 흥 골에 열 못이민 양쪽.(그래 가지고 한 골에 열 못이면 양쪽.)

104018 #2 옛날 하르방덜 ㄴ는 말이 있어.(옛날 할아버지들 말하는 말이 있어.)

104018 #3 양쪽 골이민 옥십 못을 흥 바리 잡앗주기게.(양쪽 골이면 옥십 못을 한 바리 잡았지.)

104018 @1 계난 여기는 정말 출이 작게.(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풀이 작게.)

104018 #3 으, 작아.(으, 작아.)

104018 @1 못도 작은게예?(못도 작은데요?)

104018 #3 계난. 어제.(그러니까. 어제.)

104018 #6 크게 무끄지 못허주게.(크게 묶지 못하지.)

104018 #3 뭐, 뭐 정 오다근앵 빠정. 계난 쉼 짐 빠졌젠, 쉼 그게 또 골탕 뭘로 허주게.(뭐, 뭐 저서 오다가 빠져서. 그러니까 소 짐 빠졌다고, 소 그게 또 골탕 무엇으로 하지.)

104018 @1 예, 예.(예, 예.)

104018 #3 잘못 시끄민 짐이 빠져 부는 수가 있어.(잘못 실으면 짐이 빠져 버리는 수가 있어.)

104018 #2 질메가 세, 짐 시끄는 디 세 골이니깐 으섯 골이라. 계난 옥십 못이라.(길마가 세, 짐 싣는 데 세 골이니깐 여섯 골이야. 그러니까 옥십 못이야.)

104018 #3 옥십 못.(옥십 못.)

104019 @1 예, 예, 예. 알아수다. 이제 경 허영은에 허고 그다음에 그 쉼 아까

313) ‘질멧골’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길마에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제 질메 행은에 그 짐 빠졌덴 허멍은에, 그 췌 그 출 운반허곡, 저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소 아까 이제 길마 해서 그 짐 빠졌다고 하면서, 그 소 그 출 운반하고, 저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4019 #2 놀어야주, 놀어.(가리어야지, 가려.)

104019 @1 으.(으.)

104019 #2 집에 왕. 놀굽³¹⁴에 놀어.(집에 와서. ‘놀굽’에 가려.)

104019 @1 놀굽에 놀어.(‘놀굽’에 가려.)

104019 #3 게고 또 그 출 허레 갈 때쯤은 대부분 그 목장에 헤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 막을 짓언 살았주기. 출 허젠 허민.(그리고 또 그 풀 하러 갈 때쯤은 대부분 그 목장에 헤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 막을 지어서 살았지. 풀 하려고 하면.)

104019 @1 아아.(아아.)

104019 #2 출막³¹⁵엔 허연.(‘출막’이라고 해서.)

104019 #3 출막엔 허영 느려와 불민은 일할 시간이 엇주게.(‘출막’이라고 해서 내려와 버리면 일할 시간이 없지.)

104019 #2 거기서 밥해 먹고 줌자곡.(거기서 밥해 먹고 잠자고.)

104019 #3 어.(어.)

104019 @1 멀어 부난예?(멀어 버리니까요?)

104019 #3 게난 놉덜은.(그러니까 놉들은.)

104019 @1 으.(으.)

104019 #3 놉덜은 내려와당.(놉들은 내려왔다가.)

104019 #2 갓다왔다 갓다왔다.(갓다왔다 갓다왔다.)

104019 #3 올라가지 못허지마는.(올라가지 못하지만.)

104019 #2 갓다왔다.(갓다왔다.)

104019 #3 밧 임제 주인은.(밭 임자 주인은.)

104019 @1 예.(예.)

104019 #3 막 짓영 거기서 살아사.(막 지어서 거기서 살아야.)

104019 @1 음.(음.)

104019 #3 경 해야 비가 쫘 와 가도 흥뽀믄 른 출은 오후 뉘면은 무경은에 데 미기도 허고.(그렇게 해야 비가 쫘 와 가도 조금 마른 풀은 오후 되면 묶어서 쟁이 기도 하고.)

104019 #2 데미기도 허곡.(쟁이기도 하고.)

104019 #3 어욱 비영 놉의 느람지 식으로 영 더경 놉두곡.(역새 베어서 남의 이 영 식으로 이렇게 덮어서 놉두고.)

314) ‘놀굽’은 짚이나 풀 따위를 둥그렇게 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리를 말한다. 보통 돌을 이어 붙여 둥그렇게 만든다.

315) ‘출막’은 풀 베는 철에 풀 베는 사람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처를 말한다.

104019 #2 그렇게 헛어.(그렇게 헛어.)

104019 #3 거의 살곡.(거의 살고.)

104019 @1 예.(예.)

104019 #3 눅덜은 그런 거 허곡. 게든 이젠 걸어강 눅덜 허민 이젠 부인들은 내려왕 밥해야, 눅 맥이레 가야 될 거 아니. 게든 쉼질메나 돌질메 지왕.(눅들은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이젠 걸어가서 눅들 하면 이젠 부인들은 내려와서 밥해야, 눅 먹이러 가야 될 거 아니. 그러면 소길마나 말길마 지워서.)

104019 @1 으.(으.)

104019 #3 *** 해 가지고.(*** 해 가지고.)

104019 #2 정심더레.(점심으로.)

104019 #3 가운데레 차롱에 헤영 거기에 시꺼아정 눅 맥이젠. 정 어떻 올라가 게.(가운데로 차롱에 해서 거기에 실어가지고 눅 먹이려고. 저서 어떻게 올라가.)

104019 @1 음.(음.)

104019 #3 무거우니까.(무거우니까.)

104019 #2 경 허당 들럭경은에 거.(그렇게 하다가 날뛰어서 거.)

104019 #3 밥 든 손아 불곡.(밥 몽땅 쏟아 버리고.)

104019 #2 밥 손아 불민 그날 굶곡 경 허곡.(밥 쏟아 버리면 그날 굶고 그렇게 하고.)

104019 @1 아.(아.)

104019 #3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

104019 @1 아, 거난 쉼질메에 밥도 쉼질메 행 가는 거라예?(아, 그러니까 소길마에 밥도 소길마 해서 가는 거네요?)

104019 #2 행 가당 들럭켜 놓든 이제 손아져 불어.(해서 가다가 날뛰어 놓으면 이제 쏟아져 버려.)

104019 #3 물이나 쉼나 착헌 거.(말이나 소나 착한 거.)

104019 @1 예.(예.)

104019 #3 암전히 가는 거.(암전히 걷는 거.)

104019 #2 맞아, 쉼 착헌 거에 시꺼사.(맞아, 쉼 착한 거에 실어야.)

104019 #3 그런 것에 시끄지. 쪼끔 나거치 보실령보실령허는³¹⁶⁾ 가는 시끄도 안 허여. 가는 꼭 이꺼사.(그런 것에 신지. 쪼끔 나같이 보실령보실령하는 가는 신지도 았아. 가는 꼭 이끌어야.)

104019 @1 음.(음.)

104019 #3 말 잘 들민 석 탁 뒤청 몰민 출왓디 쪽 들어가. 자기가 알앙. 이거 어디 일허레 감구나 허영.(말 잘 들으면 고삐 탁 뒤쳐서 몰면 꼴밭에 쪽 들어가. 자

316) '보실령보실령허다'는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마음이 탐탁지 않는 모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표준어 '궁시렁거리다'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 한다.

기가 알아서. 이거 어디 일하러 가고 있구나 해서.)

104019 #2 잘 훑앙 가. 또, 잘 훑앙 집 훑앙 오곡.(잘 찾아서 가. 또, 잘 찾아서 집 찾아서 오고.)

104019 #3 겐디 흐뎡 성질 나쁜 것에 시껏당은 실프민 맨들락허민 그자 털어정 불엿은에 밥 혈엿 허는 그런 거 잇어낫주.(그런데 조금 성질 나쁜 것에 실엿다가는 싫으면 매끈하면 그저 떨어져 버려서 밥 흘려서 하는 그런 거 있었었지.)

104020 @1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그 으물예, 쉼 뉘 밧 갈젠이나 허게 뉘면 으물은 어떤 식으로 마련허는 거라마씨?(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물요, 소 뉘 밧 갈려고나 하게 되면 여물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104020 #3 쉼겓 헤영 주는 거.(소여물 해서 주는 거.)

104020 @1 예.(예.)

104020 #3 어, 쉼겓 허영게. 보리도 저 뉘 허민게, 보리도 곶양은에.(어, 소여물 해서. 보리도 저 뉘 하면, 보리도 같아서.)

104020 #2 그때 당시는 이 보리.(그때 당시는 이 보리.)

104020 #3 죽 썰은에 맥이고.(죽 썰어서 먹이고.)

104020 #2 보리 먹젠 허단 즈썰³¹⁷⁾ ㄴ튼 거 그런 걸로 행은에.(보리 먹으려고 하다가 ‘즈썰’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104020 #3 깍³¹⁸⁾으로.(‘깍’으로.)

104020 #2 겓 헤연 쫓주.(겓 해서 쫓지.)

104020 #6 게난 그 밧을, 널 아침 갈젠 허믄.(그러니까 그 밧을, 널 아침 갈려고 하면.)

104020 @1 예.(예.)

104020 #6 널 갈젠 허면 오늘 저녁에 그 새풀이엔 헌 거.(널 갈려고 하면 오늘 저녁에 그 ‘새풀’이라고 한 거.)

104020 @1 예.(예.)

104020 #6 작두 잇잖아, 작두.(작두 잇잖아, 작두.)

104020 @1 예.(예.)

104020 #2 곶로 썰엿.(곶로 썰어서.)

104020 #6 작두로 요 정도 길이로 헤영 썰어.(작두로 요 정도 길이로 해서 썰어.)

104020 #3 즈질게 썰엿, 즈질게 썰어.(자잘하게 썰어서, 자잘하게 썰어.)

104020 @1 으.(으.)

104020 #6 게 가지고.(그래 가지고.)

104020 #2 누까³¹⁹⁾ 허영 버무령 주고.(‘누까’ 해서 버무리서 주고.)

104020 #6 어느 정도 쉼 맥일 정도로 생각헤영 헤영 그 보리.(어느 정도 소 먹

317) ‘즈썰’은 잘게 부서진 보리 쌀알을 말한다.

318) ‘깍’은 보리쌀 따위의 쌀을 만들기 위해 벗겨 놓은 겉껍질을 말한다.

319) ‘누까(ぬか)’는 보리쌀을 만들 때 나오는 가루, 즉 ‘보릿겨’를 말하는 일본어다.

일 정도로 생각해서 해서 그 보리.)

104020 @1 예.(예.)

104020 #6 채.(겨.)

104020 @1 예.(예.)

104020 #6 누까엔 현 거.('누까'라고 한 거.)

104020 @1 예.(예.)

104020 #6 그거 허영 버무려근에 경 맥이주게.(그거 해서 버무려서 그렇게 먹이지.)

104020 @1 아, 그 밧 갈기 전날예?(아, 그 밧 갈기 전날예요?)

104020 #6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20 #2 전날.(전날.)

104020 #6 전날 준비했다가 아침이.(전날 준비했다가 아침에.)

104020 #2 뒷날 아침이.(뒷날 아침에.)

104020 #6 아침이.(아침에.)

104020 @1 아, 아침에.(아, 아침에.)

104020 #2 세백이 일어남 해야지.(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104020 #3 동세백이 일어남 것도 해사.(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것도 해야.)

104020 @1 예.(예.)

104020 #2 경 해야게 일찍 강 밧도 갈 거지.(그렇게 해야 일찍 가서 밧도 갈 거지.)

104020 @1 계난 이제 특별식으로 맥여낭은에.(그러니까 이제 특별식으로 먹여서.)

104020 #3 아이고.(아이고.)

104020 @1 일 시켰구나예?(일 시켰군요?)

104020 #6 계.(그래.)

104020 @1 아, 맞아.(아, 맞아.)

104020 #3 짐승도 잘 먹여사 잘허곡, 이녁 쇠곡 헌디 안 맥영은 안 돼주기게.(짐승도 잘 먹여야 잘하고, 이녁 쇠고 하는데 안 먹여서는 안 되지.)

104020 @1 음.(음.)

104020 #3 힘이 차야, 것도 밥도.(힘이 차야. 것도 밥도.)

104020 #6 그치록 먹여야 낮에는.(그처럼 먹여야 낮에는.)

104020 @1 으.(으.)

104020 #6 낮에는 썰 때마다 그 것을 안 주고 그냥 그.(낮에는 썰 때마다 그 것을 안 주고 그냥 그.)

104020 #3 출.(꿀.)

104020 #6 출.(꿀.)

104020 #2 흔 줌씩 그자.(한 줌씩 그저.)

104020 #3 것도 주기도 허주마는 낮에는 출 쫓지, 낮에는.(것도 주기도 하지만 낮에는 쫓 쫓지, 낮에는.)

뺨감

104022 @1 낮에는 그냥 출 주고예? 그다음 삼촌, 요즘이야 다 가스주마는 옛날은 이 뺨감 허는 것도 큰일 아니었수가예?(낮에는 그냥 쫓 주고요? 그다음 삼촌, 요즘이야 다 가스지만 옛날은 이 뺨감 하는 것도 큰일 아니었습니까요?)

104022 #3 소로, 소로 거 다 산에 강은에 진을낭.(소로, 소로 거 다 산에 가서 뺨감.)

104022 #6 장작.(장작.)

104022 #3 진을낭 헤다가 이제 췌에 물에 다 시경 내려오곡.(뺨감 헤다가 이제 소에 말에 다 실어서 내려오고.)

104022 @1 예.(예.)

104022 #3 것도 혼 열흘 이상 텅기주.(것도 한 열흘 이상 다니지.)

104022 #2 아이고.(아이고.)

104022 @1 아.(아.)

104022 #2 열흘 이상 텅기곡말곡.(열흘 이상 다니고말고.)

104022 #3 보리 갈아뿔 일 웃이민 이제는 월동 준비 만들엉 이젠 뺨감을 해야 뻘난.(보리 갈아두고 일 없으면 이제는 월동 준비 만들어서 이젠 뺨감을 해야 되니까.)

104022 #2 옛날은 어욱 비레도 텅겅수게.(옛날은 억새 베러도 다녔잖아요.)

104022 #3 진을낭을 헤뿔. 어욱도 비곡.(뺨감을 해두고. 억새도 베고.)

104022 @1 으.(으.)

104022 #3 뉘.(뉘.)

104022 #2 어욱 비레도 텅겅다고.(억새 베러도 다녔다고.)

104022 #3 혼 보름 이상 막 텅겅주기.(한 보름 이상 막 다녔었지.)

104022 #2 나도 어욱 비레 많이 텅겅어.(나도 억새 베러 많이 다녔어.)

104022 @1 게문예, 그 진을낭은 나무고.(그러면요, 그 뺨감은 나무고.)

104022 #3 어.(어.)

104022 @1 그다음에 어욱 ㄱ튼 건 뉘렌 험니까?(그다음에 억새 같은 건 뉘라고 합니까?)

104022 #3 어욱게 그자, 어욱.(억새 그저, 억새.)

104022 @1 그냥 어욱.(그냥 억새.)

104022 #3 어욱 반 거. 헤영헌 거 반 거.(억새 반 거. 허연 거 반 거.)

104022 @1 헤영헌 거 빵은에, 으.(허연 거 뿔아서, 으.)

104022 #3 바랑은에 허문.(바라서 하면.)

104022 @1 게민.(그러면.)

104022 #6 짚을커렌 허주.(뽕감이라고 하지.)

104022 #2 짚을커엔 허주. 짚을커.(뽕감이라고 하지. 뽕감.)

104022 @1 짚을커예? 예. 짚을커 종류가 게믄 어떤 거 이신 거? 아까.(뽕감요? 예. 뽕감 종류가 그러면 어떤 거 있는 거? 아까.)

104022 #2 어욱.(억새.)

104022 @1 어욱.(억새.)

104022 #2 딱시 무신 저 검질덜 뽕 허지렁헌 것보고 전부 다 짚을커엔 허주.(또 무슨 저 검불들 뽕 허드레한 것보고 전부 다 뽕감이라고 하지.)

104022 @1 다 짚을커.(다 뽕감.)

104022 #6 겨고 여자 분들은.(그리고 여자 분들은.)

104022 @1 예.(예.)

104022 #6 술입.(술잎.)

104022 #3 술입.(술잎.)

104022 #6 이라고 해 가지고.(이라고 해 가지고.)

104022 #3 굽영.(굽어서.)

104022 #2 술입도 잘 허고.(술잎도 잘 하고.)

104022 #6 저 술에서, 술나무에서 떨어진 거.(저 술에서, 소나무에서 떨어진 거.)

104022 @1 예.(예.)

104022 #2 것도 굽곡.(것도 굽고.)

104022 #6 그걸 많이 굽어 왔어.(그걸 많이 굽어 왔어.)

104022 #3 그거 좋앗주기.(그거 좋았지.)

104022 #6 여자 분들은.(여자 분들은.)

104022 @1 음.(음.)

104022 #2 것도 연기 안 나고 잘 부뜨고.(것도 연기 안 나고 잘 붙고.)

104022 #6 연기 안 나고 그 불 잘 타곡.(연기 안 나고 그 불 잘 타고.)

104022 @1 게믄 술입 해당은에 다 게믄 집에.(그러면 술잎 해당다 다 그러면 집에.)

104022 #3 놀어.(가리어.)

104022 #2 놀어.(가리어.)

104022 #6 그렇지.(그렇지.)

104022 @1 어, 그런 놀은 무슨 놀 해마씨?(어, 그런 가리는 무슨 가리 해요?)

104022 #3 술입놀게.(술잎가리.)

104022 #2 술입놀.(술잎가리.)

104022 @1 아, 술입 허민 술입놀. 게 그거를 혼 열흘씩 헛어마씨?(아, 술잎 하면 술잎가리. 글썸 그거를 한 열흘씩 했어요?)

104022 #3 아, 그렇지게.(아, 그렇지.)

104022 @1 뽕감을.(뽕감을.)

104022 #2 보통 빨감은 열흘 이상 헤사 돼여.(보통 빨감은 열흘 이상 해야 되 어.)

104022 @1 어, 여기는 이런 소나무밭이 엿구나예?(어, 여기는 이런 소나무밭이 없군요?)

104022 #2 거의, 아, 잇긴 있어도.(거의, 아, 잇긴 있어도.)

104022 #3 잇어.(있어.)

104022 @1 예.(예.)

104022 #2 일부에 잇는 집덜은 겨울에 그런 거 아녕 장작 거시려당은에³²⁰⁾ 허 여도 돼곡. 없는 사람은 목장에 강 거 헤여 와야 돼곡.(일부에 잇는 집들은 겨울에 그런 거 앓고 장작 ‘거실러다가’ 해도 되고. 없는 사람은 목장에 가서 거 해 와야 되고.)

104022 #3 여기도 우리 집사람도 씨집완 이 칠삭동산³²¹⁾ 어디 술입 굶으레 잘 땡겼어.(여기도 우리 집사람도 시집와서 이 ‘칠삭동산’ 어디 술입 굶으러 잘 다녔 어.)

104022 #2 아니, 텡기곡말곡.(아니, 다니고말고.)

104023 @1 쉼뚱하고 뭉뚱도 씩니까?(소뚱하고 말뚱도 씩니까?)

104023 #2 건 저 집 저 굴목³²²⁾ 짚는 걸로.(건 저 집 저 ‘굴목’ 때는 걸로.)

104023 @1 아, 게민 그런 것도 좃이레 다녀 뵈디가?(아, 그러면 그런 것도 주우 러 다녀 뵈디까?)

104023 #2 건.(건.)

104023 #3 좃이레 가곡 말곡.(주우러 가고말고.)

104023 #6 우리 동네는 별로.(우리 동네는 별로.)

104023 #2 아, 난 어린 때 좃어났수다.(아, 난 어릴 때 주웠었습니다.)

104023 #1 아니, 부жат 사름덜은 오일장에 강 몬 장작도 풀곡.(아니, 부자 사람들 은 오일장에 가서 몽땅 장작도 팔고.)

104023 @1 예.(예.)

104023 #1 술입도 풀곡.(술입도 팔고.)

104023 @1 예.(예.)

104023 #1 픉니까 사당도 쓰곡.(괘니까 사다가도 쓰고.)

104023 @1 계난예, 장작을 풀 때는 영 무꿀 거 아니예? 게민 그건 뭇렌 헤?(그 러니까요, 장작을 팔 때는 이렇게 뭇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건 뭇라고 헤?)

104023 #6 흔 바리.(한 바리.)

104023 #1 흔 바리.(한 바리.)

104023 @1 흔 바리로?(한 바리로?)

104023 #1 서른 가지를.(서른 개비를.)

320) ‘거시려다’는 나뭇가지 따위를 숨아서 자르다는 의미다.

321) ‘칠삭동산’은 제주도 외도동의 지명 이름의 하나다.

322)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4023 #2 서른 가지가 혼 바리.(서른 개비가 한 바리.)
 104023 #1 혼 바리.(한 바리.)
 104023 @1 장작은 서른 가지가? 으.(장작은 서른 개비가? 으.)
 104023 #1 건 맞아, 혼 바리.(건 맞아, 한 바리.)
 104023 @1 혼 바리. 그다음에 저, 저 뭐는마씨?(한 바리. 그다음에 저, 저 뭐는
 요?)
 104023 #1 무시거?(무엇?)
 104024 @1 술입은?(술잎은?)
 104024 #3 술입은 저.(술잎은 저.)
 104024 #2 바리.(바리.)
 104024 #3 혼 짐.(한 짐.)
 104024 #1 쳐 가지고. 북*** 무경근에 허는디 혼.(쳐 가지고. 북*** 묶어서 하는
 데 한.)
 104024 #3 혼 발달³²³.(한 발달.)
 104024 #1 혼 발달³²⁴이엔 허는가?(한 ‘발달’이라고 하는가?)
 104024 #3 혼 발달, 발달, 혼 발달.(한 ‘발달’, 한 ‘발달’.)
 104024 @1 혼 발달, 발달.(혼 발달, 발달.)
 104024 #2 발달. 발달.(‘발달’. ‘발달’.)
 104024 #1 발달이고.(‘발달’이고.)
 104024 #6 발달.(‘발달’.)
 104024 #3 혼 발달.(한 ‘발달’.)
 104024 @1 혼 발달예?(한 ‘발달’요?)
 104024 #1 혼 발달게. 혼 짐, 혼 짐 뉘게.(한 ‘발달’. 한 짐, 한 짐 되게.)
 104024 #3 새끼로 딱허게 석 줄 낱 딱 무경 탁 정 오고.(새끼로 딱하게 석 줄
 낱서 딱 묶어서 탁 저서 오고.)
 104024 @1 게문 장작 혼 바리허고 이런 것들은 게문 혼나 이렇게 혼 바리 허면
 두 개를 시경 읍니까? 쉼 헐 때는.(그러면 장작 한 바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하
 나 이렇게 한 바리 하면 두 개를 실어서 읍니까? 소 할 때는.)
 104024 #3 쉼 양쪽게. 양쪽.(소 양쪽, 양쪽.)
 104024 #2 양쪽 험사 혼 바리. 거 열다섯 가지씩.(양쪽 해야 한 바리. 거 열다섯
 개비씩.)
 104024 @1 열다섯 가지씩 시끄는 거라예? 아.(열다섯 개비씩 싣는 거라고요?)
 104024 #3 게난 것도 열다섯 가지 시끄고 혼 바리 시끄는 쉼은 실헌 거고.(그러
 니까 것도 열다섯 개비 싣고 한 바리 싣는 소는 실헌 거고.)
 104024 @1 예.(예.)

323) ‘발달’은 제보자가 ‘보달’을 잘못 발음한 것이다. ‘보달’은 술잎 따위를 짐을 질 수 있게 네모나게 뭉쳐 놓은 덩이를 말한다.

324) ‘보달’은 술잎 따위를 짐을 질 수 있게 네모나게 뭉쳐 놓은 덩이를 말한다.

104024 #3 쪼끔 약헌 거는 건 뭐 알앙 **. (쪼끔 약한 거는 건 뭐 알아서 **.)

104024 #2 흔 스무 가지벧기 못 시꺼. (한 스무 개비밖에 못 실어.)

104024 @1 아, 갱은에 이제 하고. 그 아까 술입 걷으레 간 거예, 게 어떤 식으로 혜영은에 정 온 거라마씨? 그거는. (아, 그래서 이제 하고. 그 아까 술잎 걷으러 간 거요, 글썸 어떤 식으로 해서 져서 온 거예요? 그거는.)

104024 #1 글쟁이. (갈퀴.)

104024 #2 보달 청. ('보달' 쳐서.)

104024 #1 글쟁이라는 게 있어. 글쟁이. (갈퀴라는 게 있어. 갈퀴.)

104024 #2 보달 청은에. ('보달' 쳐서.)

104024 #1 이 제주도는 대나무로. (이 제주도는 대나무로.)

104024 @1 예. (예.)

104024 #1 대나무로 오그라지게끔 행 멘들앗고. (대나무로 오그라지게끔 해서 만 들었고.)

104024 @1 으. (으.)

104024 #1 또 근래에는 또 이. (또 근래에는 또 이.)

104024 #3 췌로도 허곡. (쇠로도 하고.)

104024 #1 췌줄. 술진 췌줄로 허영 오그려 가지고 굵, 굵게 멘들아 가지고. (쇠 줄. 살진 쇠줄로 해서 오그려 가지고 굵, 굵게 만들어 가지고.)

104024 @1 으. (으.)

104024 #1 그걸로 저 소나무밭. (그걸로 저 소나무밭.)

104024 @1 예. (예.)

104024 #1 데, 들어강은에. (데, 들어가서.)

104024 #1 밑에 그 쌓인 거 굵어다가. (밑에 그 쌓인 거 굵어다가.)

104024 @1 예. (예.)

104024 #1 모양은에 가정오는 거. (모아서 가져오는 거.)

104024 #2 하도 굵어 놓니까 소나무 아래는 깨끗허여. (하도 굵어 놓으니까 소나무 아래는 깨끗해.)

104024 @1 예. (예.)

104024 #2 경 해 놓니까 떨어지믄 굵기가 좋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떨어지면 굵기가 좋아.)

104024 @1 예, 맞아예? (예, 맞아요?)

104024 #3 게난 것도 출헌 쫓데 하늬브름 불어사 췌게. (그러니까 것도 꼴 한 끝에 하늬바람 불어야 췌게.)

104024 @1 예. (예.)

104024 #2 잘, 잘 털어지게. (잘, 잘 떨어지게.)

104024 #3 게야 술췌이 떨어지거든. (그래야 술잎이 떨어지거든.)

104024 @1 음. (음.)

104024 #3 게민 이젠.(그러면 이젠.)

104024 #2 추운 바람 불면게 낙엽 지민.(추운 바람 불면 낙엽 지면.)

104024 #3 아지망덜이 딱 ***을 허주. 오늘 하늬바람 부난 내일 어디 강 보민 시켜 허민.(아주머니들이 딱 ***을 하지. 오늘 하늬바람 부니까 내일 어디 가서 보면 시켜서 하면.)

104024 #2 솔입 좋켤.(솔잎 좋겏다고.)

104024 #3 놈 자기, 가기 전에.(남 자기, 가기 전에.)

104024 @1 예.(예.)

104024 #3 동세백이 ** 혼 세 시 일어낭. 게민 혼두 시 쫘 일어낭 문여 강 참여 허영.(꼭두새벽에 ** 한 세 시 일어나서. 그러면 한두 시 쫘 일어나서 먼저 가서 참여해서.)

104024 @1 음.(음.)

104024 #3 것도.(것도.)

104024 #2 맞아.(맞아.)

104024 #3 저 혼번에[혼빠네] 굽지 아녀. 모듈랑 모듈랑 모듈랑 모여 놔. 걸 가민은.(저 한꺼번에 굽지 았아. 모다기 모다기 모다기 모여 놔. 걸 가면은.)

104024 @1 예.(예.)

104024 #3 나 이신 디 침범헤영 오지 말라. 경 막 모듈악 허면은 강 보민 경 험 거든, 허민. 야, 무사 경 막 허염시니게. 나도 혼뽀 굽으켜 험은에 굽으기도 허곡. 강 오민 재미진 얘기 많이 허주기.(나 있는 데 침범해서 오지 말라. 그렇게 막 모다기 하면 가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 하면. 야, 왜 그렇게 막 하고 있니. 나도 고 굽 굽겏다고 해서 굽기도 하고. 가서 오면 재미난 얘기 많이 하지.)

104024 @1 예.(예.)

104024 #2 울로 저리랑 굽읍서. 굽기 좋은 디렌 이녁 허곡.(울로 저리는 굽으십시오. 굽기 좋은 데는 이녁 하고.)

104024 @1 아.(아.)

104024 #3 게민 ㄴ찌 가민은.(그러면 같이 가면.)

104024 @1 예.(예.)

104024 #3 혼자는 보달 싸기가 힘들어.(혼자는 ‘보달’ 싸기가 힘들어.)

104024 @1 아.(아.)

104024 #3 게민 ㄴ치 항상 벗허영 가주기.(그러면 같이 항상 벗해서 가지.)

104024 @1 예, 예.(예, 예.)

104024 #3 벗허영 강은에 이제는 베로 허영은에 보달 쌍 두 보달 올려놔야 혼 짐 헤영 내려오곡, 경 헛주기.(벗해서 가서 이제는 바로 해서 ‘보달’ 싸서 두 ‘보달’ 올려놔야 한 짐 해서 내려오고, 그렇게 했지.)

104024 @1 아, 혼 짐이 게민 두 보달예?(아, 한 짐이 그러면 두 ‘보달’요?)

104024 #3 두 보달.(두 ‘보달’.)

104024 @1 으.(으.)
 104024 #3 흔 보달사 무시거 요만이 허주기게.(한 ‘보달’이야 무엇 요만큼 하지.)
 104024 @1 예.(예.)
 104024 #2 무사 크게 허믄.(왜 크게 하면.)
 104024 #3 게난 우의 놓는 건 쪼금 족아. 우의 놓는 건.(그러니까 위에 놓는 건 쪼금 작아. 위에 놓는 건.)
 104024 #2 세 개. 베를 세 개 영 행 쪽 깔아놔.(세 개. 바를 세 개 이렇게 해서 쪽 깔아놔.)
 104024 @1 예.(예.)
 104024 #2 솔입 굽은에 밑에서 툽툽툽툽 박치믄 요만큼 영 허게 멩글아.(솔잎 굽어서 밑에서 툽툽툽툽 박치면 요만큼 이렇게 만들어.)
 104024 @1 예.(예.)
 104024 #2 경 헤영 슬째기 들러당 툽허게 놓곡 헤영 쪽 놔.(그렇게 해서 살짝 들어다가 툽하게 놓고 해서 쪽 놔.)
 104024 #3 베로도 허주, 베로.(바로도 하지, 바로.)
 104024 #2 뱅뱅허게 둥그리멍 직각³²⁵ 블르멍 다 둥그렁강 양쪽에 거 무끄면은 떼깅허여.(뱅뱅하게 굴리면서 딱딱하게 밟으면서 다 굴러가서 양쪽에 거 묶으면 단 단해.)
 104024 @1 어.(어.)
 104024 #2 보달이.(‘보달’이.)
 104024 @1 게영 그치룩 허영은에 정 오는 거?(그래서 것처럼 해서 저서 오는 거?)
 104024 #3 겹은에 그.(그래서 그.)
 104024 #2 읊으로 뉘쌍 정 오는 거.(옆으로 뒤집어서 저서 오는 거.)
 104024 #3 우의 건 죽은 보달 큰 보달 허주. 우의 놓는 건 죽게 허곡.(위에 건 작은 ‘보달’ 큰 ‘보달’ 하지. 위에 놓는 건 작게 하고.)
 104024 @1 아, 큰 거 허영은에 우의 하나 이렇게 얹형은에 오는 거라예?(아, 큰 거 해서 위에 하나 이렇게 얹혀서 오는 거네요?)
 104024 #2 웨 그러냐?(왜 그러냐?)
 104024 @1 예.(예.)
 104024 #2 그거 우알 보달 흔꺼번에 굽으면 등 질영 지질 못허여.(그거 위아래 ‘보달’ 한꺼번에 굽으면 등 길어서 지질 못해.)
 104024 #3 지질 못허주기.(지질 못하지.)
 104024 #2 게난 아래 것만 헤여근에 베 허영 짐을 멩글아 놔.(그러니까 아래 것만 해서 바 해서 짐을 만들어 놔.)
 104024 #3 멩글아 놔.(만들어 놔.)

325) ‘직각’은 몹시 굳고 단단하게라는 의미다.

104024 #2 계영 옷마치³²⁶를 거 똥글락헌 거 흐뎡 죽게 헌 거를 낱은에 또 무 쟁은에 오는 거주. 옷마치렌 헨.(그래서 ‘옷마치’를 거 똥그란 거 조금 작게 한 거를 낱서 또 묶어서 오는 거지. ‘옷마치’라고 해서.)

104024 @1 거를 옷마치엔 헤마씨? 계난 사람들은 다 말들을 만들멍예, 건 무사 옷마친고예?(거를 ‘옷마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말들을 만들면서요, 건 왜 ‘옷마치’일까요?)

104024 #3 우의 놓난 옷마치지.(위에 놓으니까 ‘옷마치’지.)

104024 #2 우의 놓난 옷마칠 테주.(위에 놓으니까 ‘옷마치’일 테지.)

104024 @1 계민 아래 건 알마치엔 헤마씨?(그러면 아래 건 ‘알마치’라고 해요?)

104024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25 @1 건 안 허고? 그냥 옷마치? 어, 그다음에 삼춘예, 나무허레는 남자들이 가는 거 아니우파?(건 안 하고? 그냥 ‘옷마치’? 어, 그다음에 삼춘요, 나무하러는 남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104025 #3 여자들도 가.(여자들도 가.)

104025 #2 여자들도 가고 남자도 가고.(여자들도 가고 남자도 가고.)

104025 @1 아, 나무헛던 얘기 한번 헤 줍서. 어떤 낭덜 행 와난 거?(아, 나무헛던 얘기 한번 헤 주십시오. 어떤 나무들 해서 왔던 거?)

104025 #3 그 목장에 강근에 게벼운 걸로 골령.(그 목장에 가서 가벼운 걸로 골라서.)

104025 #6 목장에 가르게, 뵈고?(목장에 가면, 뵈이니?)

104025 #1 종낭이 많이.(때죽나무가 많이.)

104025 #2 종낭허고 서리낭이 쥬 가뵈주기. 게믄.(때죽나무하고 서리나무가 쥬 가뵈지. 그러면.)

104025 @1 음.(음.)

104025 #3 빠른 사름은 삭은 거, 삭다리도.(빠른 사름은 삭은 거, 삭정이도.)

104025 @1 예.(예.)

104025 #2 빠른 사름은 내창. 주로 내창에 강 허여.(빠른 사름은 내. 주로 내에 가서 해.)

104025 @1 아, 내창 쪽에.(아, 내 쪽에.)

104025 #2 우린 어린 때 가니까 나가.(우린 어릴 때 가니까 내가.)

104025 #6 지금은 썬 거 찢르지도 못 허주마는.(지금은 썬 거 자르지도 못 하지만.)

104025 #2 우리는 십삼 일간 계속.(우리는 십삼 일간 계속.)

104025 #6 그때는 단속이 요즘처럼 안 허니까.(그때는 단속이 요즘처럼 안 하니까.)

104025 @1 예, 썬낭덜토.(예, 썬나무들토.)

326) ‘옷마치’는 짐을 질 때 본 짐 위에 별도로 얹어 놓는 짐을 말한다.

104025 #2 생냥을 허질 안허여.(생나무를 하질 않아.)
 104025 #3 계난 생냥은 안 허여. 삭다리, 삭은 거.(그러니까 생나무는 안 해. 삭정이, 삭은 거.)
 104025 @1 음.(음.)
 104025 #2 삭은 거.(삭은 거.)
 104025 @1 으.(으.)
 104025 #3 누게 큰 낭 짤라 불민 가지 ㄴ튼 거 ***도 허고.(누구 큰 나무 잘라 버리면 가지 같은 거 ***도 하고.)
 104025 #6 생냥이.(생나무가.)
 104025 #2 계난 옷드르³²⁷⁾ 사름덜이 가 가지고 솟을 굽젠 허믄 썩냥을 짤랑 솟 췌터든.(그러니까 ‘옷드르’ 사람들이 가 가지고 솟을 구우려고 하면 생나무를 잘라서 솟 구웠거든.)
 104025 @1 아.(아.)
 104025 #3 계난 그거 헤영 데껴 불민 우의 거.(그러니까 그거 해서 던져 버리면 위에 거.)
 104025 #3 그런 거.(그런 거.)
 104025 #2 그거 봉강은에 우리는 낭 깨 가지고.(그거 주워서 우리는 나무 깨 가지고.)
 104025 @1 으.(으.)
 104025 #6 그런 거 옛이민, 옛인 장소에 따라 옛일 수도 잇잖아.(그런 거 없으면, 없는 장소에 따라 없을 수도 잇잖아.)
 104025 @1 예, 예.(예, 예.)
 104025 #3 그때는 돌랑은에.(그때는 말라서.)
 104025 #6 경 허믄 썩나무여 아까 얘기헌 종냥이니 뭐니 허는 거는.(그렇게 하면 생나무다 아까 얘기한 때죽나무니 뭐니 하는 거는.)
 104025 #3 게벼운 거.(가벼운 거.)
 104025 #6 나무 자체가 가벼운 거.(나무 자체가 가벼운 거.)
 104025 @1 예.(예.)
 104025 #3 무기 안 나가.(무게 안 나가.)
 104025 #6 그런 거 짤랑도.(그런 거 잘라서도.)
 104025 @1 게믄, 게믄 그거 짤르젠 허민 뭘 가져강 짤르는 거?(그러면, 그러면 그거 자르려고 하면 뭘 가져가서 자르는 거?)
 104025 #6 톱허곡.(톱하고.)
 104025 @1 으.(으.)
 104025 #2 톱허곡 나대³²⁸⁾. 주로 나대 가정가.(톱하고 나다. 주로 나다 가져서

327) ‘옷드르’는 한라산 쪽 벽지에 이루어지 마을을 말한다. 반대로 바닷가 근처의 마을은 ‘알드르’라고 한다.

328) ‘나대[なた]’는 나무 따위를 자를 때 쓰는 연장 이름이다. 일본어 ‘나다’에서 온 말이다.

가.)

104026 @1 나대 가정예? 나대를 여기선 뭐렌 곶아낫수가? 옛날에?(나다 가져서
요? 나다를 여기선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옛날에?)

104026 #3 그대로 나대 맞아. 이거.(그대로 나다 맞아. 이거.)

104026 #6 미호미³²⁹엔도 허더라.(‘미호미’라고도 하더라.)

104026 #3 아, 미호미.(아, ‘미호미’.)

104026 @1 미호미예, 나대.(‘미호미’요? 나다.)

104026 #2 미호민 영 오그라진 거ㄴ라 미호미엔 허지 안허여?(‘미호미’는 이렇게
오그라진 것보고 ‘미호미’라고 하지 않아?)

104026 #3 아니, 나대고 미호미. 미호미 맞아.(아니, 나다고 ‘미호미’. ‘미호미’
맞아.)

104026 @1 예. 미호미예. 여기는 솟 안 귀 봤수가?(예. 미호미요. 여기는 솟 안
구워 봤습니까?)

104026 #6 아, 여기는 별로?(아, 여기는 별로?)

104027 @1 아, 여기는 솟을 안 구고예? 혹시 낭 허레 땡기명은에, 이 짚을낭 허
레 땡기명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 잇수가?(아, 여기는 솟을 안 굵고요? 혹시 나무 하
러 다니면서, 이 땡감 하러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 있습니까?)

104027 #3 마중 강.(마중 가서.)

104027 @1 예.(예.)

104027 #3 낭 마중 강.(나무 마중 가서.)

104027 @1 아.(아.)

104027 #2 헛걸음 허면은 그계 문제가 웨는 거주.(헛걸음 하면 그계 문제가 되
는 거지.)

104027 #3 낭 마중 강.(나무 마중 가서.)

104027 #2 낭 마중 헛걸음에.(나무 마중 헛걸음에.)

104027 #3 헛걸음도 안 걸곡 우린 곧초 가도.(헛걸음도 안 걷고 우린 곧장 가
도.)

104027 @1 예.(예.)

104027 #3 학교나 강근에 왕근에 마중허젠 늦을 때가 셔계.(학교나 가서 와서
마중하려고 늦을 때가 있어.)

104027 @1 예.(예.)

104027 #3 흐뎡 놀당 보민 늦어 불거든. 게문 어멍 아방은게 짐 정 오당 이놈의
새끼 언제나 흐뎡 갈라 지젠 험신고 베통히 봐당 보민 멀리 못 강근에 갈 때가 잇
다 말여. 경 허민. 웃음. 본인도 쫘 미안허주마는 욱을 아녀도 좋은디 이놈의 새끼
뒹 늦엇나 허민 춤 우리 아버지 성격이 독허민은 허는데.(조금 놀다가 보면 늦어 버

329) ‘미호미’는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손잡이 연장이다. 지역에 따라서 ‘메호미’, ‘장호미’라고 한다. 일본어
‘나다(なた)’와 같은 말이다.

리거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짐 져서 오다가 이놈의 새끼 언제나 조금 나눠 지려고 하고 있을까 빨리 보다가 보면 멀리 못 가서 갈 때가 있다 말이야. 그렇게 하면. 웃음. 본인도 쯤 미안하지만 욕을 않아도 좋은데 이놈의 새끼 뭐 늦었나 하면 참 우리 아버지 성격이 독하면 하는데.)

104027 @1 예.(예.)

104027 #3 몽둥이로 때리젠도 해놔어게. 게영 울멍 저도 와나서게.(몽둥이로 때리려고도 했었어. 그래서 울면서 저도 왔었어.)

104027 @1 예.(예.)

104027 #3 내외가 허민 또 그런 분도 잊지마는 멀리 자식 낭근에 아이 난 때게 가면은 아기 위험허민 아기 메껴뒀도 가고 해알 거 아니.(내외가 하면 또 그런 분도 있지만 멀리 자식 나서 아니 난 때게 가면은 아기 위험하면 아기 맡겨뒀서도 가고 해야할 거 아니.)

104027 @1 예.(예.)

104027 #3 게민 늦엉 가거든.(그러면 늦어서 가거든.)

104027 @1 예.(예.)

104027 #3 게민 나ㄴ치 독헌 남편이나 만나민 짐 그냥 부러뒀 오는 사름도 서놔어.(그러면 나같이 독한 남편이나 만나면 짐 그냥 부러두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

104027 @1 음.(음.)

104027 #3 너 정 오라고. 멀리 안 가시니까. 그런 예도 잇곡 추억이 많주.(너 저서 오라고. 멀리 안 갔으니까. 그런 예도 잇고 추억이 많지.)

104027 #1 웨람뒀 말이지, 이 말은.(외람뒀 말이지, 이 말은.)

104027 @1 예.(예.)

104027 #1 예, 천구백육십삼 년도니까.(예, 천구백육십삼 년도니까.)

104027 @1 예.(예.)

104027 #1 그때 지리산 대.(그때 지리산 대.)

104027 @1 예.(예.)

104027 #1 도벌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도벌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104027 @1 예.(예.)

104027 #1 이젠 여기서도 경찰서영 이제 산림과에서영 헐에 한라산.(이젠 여기서도 경찰서랑 이제 산림과에서랑 해서 한라산.)

104027 @1 으.(으.)

104027 #4 산림반에 국유림 지대에 이제 그 돌아보게 뒀는데.(산림반에 국유림 지대에 이제 그 돌아보게 뒀는데.)

104027 @1 음.(음.)

104027 #3 내가 그때 애월³³⁰⁾에 조금 실 땀디.(내가 그때 애월에 조금 있을 땀데.)

330)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를 가리킨다.

104027 #2 아, 케민 하○○네 저 조림할 때다.(아, 그러면 하○○네 저 조림할 때다.)

104027 #1 그때.(그때.)

104027 #2 조림. 하봉하가.(조림. 하○○가.)

104027 #1 삼월 하순이던가 사월달이라게.(삼월 하순이든가 사월이야.)

104027 @1 예.(예.)

104027 #1 겐 이제 지서 직원하고 이제 군청 직원하고 나하고 이제 서이가 올라갔다여.(그래서 이제 지서 직원하고 이제 군청 직원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서 올라갔어.)

104027 @1 음.(음.)

104027 #4 이십이이반 이십삼인반이대. 이 저 어승생으로 이 애월목장드레가이. (이십이이반 이십삼인반이대. 이 저 어승생으로 이 애월목장으로가.)

104027 @1 으.(으.)

104027 #1 저.(저.)

104027 #2 십칠 번부터.(십칠 번부터.)

104027 #1 거기 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 눈이 그냥 다 녹질 아녜어.(거기 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 눈이 그냥 다 녹질 않았어.)

104027 @1 으.(으.)

104027 #1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낭 끊어난 게이, 이, 그 조림헌 거라, 그게.(이렇게 쌓여 있는데 나무 끊었던 게, 이, 그 조림한 거야, 그게.)

104027 @1 예.(예.)

104027 #1 소낭을 아마 이, 이 일부러 여기서덜 다 조림덜 해 가지고 심은 거 같애.(소나무를 아마 이, 이 일부러 여기서들 다 조림들 해 가지고 심은 거 같아.)

104027 @1 예.(예.)

104027 #2 그때 하○○가게 그치록 헨게 스키목.(그때 하○○가 것처럼 해서 삼나무.)

104027 #1 소낭덜은 잘 자라는 소낭인디 이 눈이 이렇게 묻은 상태에서 그 소낭을 토벌을 했으니까이.(소나무들은 잘 자라는 소나무인데 이 눈이 이렇게 묻은 상태에서 그 소나무를 토벌을 했으니까.)

104027 @1 예.(예.)

104027 #4 사둑서 이걸 끊으니 마, 이 가슴 높이는 내 불고 이 우의만 끊어 간 거라이.(서두고서 이걸 끊으니 마, 이 가슴 높이는 내 버리고 이 위에만 끊어 간 거야.)

104027 @1 예, 예. 눈 와 부니까.(예, 예. 눈 와 버리니까.)

104027 #1 경 헨 *** 영 보니까 또 끊으려 왔단 놈 어떤 놈이 확 도망가 붙어. 좇진 못허고. 흐루는 이젠 경 헨에 이젠 영 돌아보단 보니까 도치 소리가 툅툅 나 거든게.(그렇게 해서 *** 이렇게 보니까 또 끊으려 왔던 놈 어떤 놈이 확 도망가 버

려. 찾진 못하고. 하루는 이젠 그렇게 해서 이젠 이렇게 돌아보다가 보니까 도치 소리가 툭툭 나거든.)

104027 @1 으.(으.)

104027 #1 겐디 그 자왈로이. 겐 이제 서이가 게도 포위허는 책 허영 거기 들어간 바라봤단 말여.(그런데 그 덤블로. 그래서 이제 셋이 그대도 포위하는 척 해서 거기 들어가서 바라봤단 말이야.)

104027 @1 음.(음.)

104027 #1 돌아보니까 거기다 마차, 우차.(돌아보니까 거기다 마차, 우차.)

104027 @1 예.(예.)

104027 #3 웃음.(웃음.)

104027 #1 쉼구루마 현 우차 놓고 보니까 그 남을 그 비어다가 그 자왈 앞의 뉘에.(소달구지 한 우차 놓고 보니까 그 나무를 그 베어다가 그 덤블 앞에 놔서.)

104027 @1 음.(음.)

104027 #1 이걸.(이걸.)

104027 #2 깨는 거.(깨는 거.)

104027 #1 아니주, 이걸 목재를 해 가지고.(아니지, 이걸 목재를 해 가지고.)

104027 #3 제자리³³¹로.(‘제자리’로.)

104027 #1 영 보니 나이가 많은 하르방이라.(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야.)

104027 @1 으.(으.)

104027 #1 흔 칠십 가까이 웬 하르방인디.(한 칠십 가까이 된 할아버진데.)

104027 #6 네 시.(네 시.)

104027 @1 으.

104027 #1 이제는 이래서 당신 어디요? 허난. 어음³³²이노렌 허여. 어음이.(이제는 이래서 당신 어디요? 하니까, 어음이노라고 해. 어음리.)

104027 #2 아이고.(아이고.)

104027 @1 으.(으.)

104027 #1 이 어음인가 해 가지고 이젠 현행범이니까 아니 돌아갈 수도 엇뎨 허연 돌아 아전에 거기서 이제 초기왔디 강 흐를 녹지 아녜어. 우리가.(이 어음인가 해 가지고 이젠 현행범이니까 아니 데려갈 수도 없다고 해서 데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표고밭에 가서 하루 줍지 았았어. 우리가.)

104027 @1 으.(으.)

104027 #1 뉘 가지고 거기서 초기왔디서 먹으는 거 보니까 그 그때 그이 밥은 뉘 서숙밥허고 저 보리밥 줍 정도이지만은. 보니까 그 이 반찬이엔 현 건 멀치이.(뉘 가지고 거기서 표고밭에서 먹는 거 보니까 그 그때 그이 밥은 뉘 조밥하고 저

331) ‘제자리’는 나무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도끼의 일종이다. 서서 사용한다.

332) ‘어음’은 제주도 애월읍 어음리를 말한다.

보리밥 좀 정도이지만은. 보니까 그 이 반찬이라고 한 건 멀치.)

104027 @1 예.(예.)

104027 #4 이루꾸엔 헨 거 그거 허연에 밥도 해주곡 허연 먹었다 말여. 경헌디 연락을 부져 줘시민 헨 건디 이 하르방은 그날 고향에 돌아가야 될 건디.(멀치라고 한 거 그거 해서 밥도 해주고 해서 먹었다 말이야. 그런데 연락을 붙여 줬으면 할 건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 고향에 돌아가야 될 건데.)

104027 @1 으.(으.)

104027 #1 마치 고향에서는 어떤 일이 잇었느냐 어음분교가 그날 개교허는 날 이랏어.(마치 고향에서는 어떤 일이 잇었느냐 어음분교가 그날 개교하는 날이었어.)

104027 @1 예, 예.(예, 예.)

104027 #1 사름들이 많이 모였던 모양이라이. 아, 사름 잃어 불엇거든. 난리가 난 모양이여이. 이젠.(사름들이 많이 모였던 모양이야. 아, 사람 잃어 버렸거든. 난리가 난 모양이야. 이젠.)

104027 #6 경헨 테주.(그럴 테지.)

104027 #1 뒷날은.(뒷날은.)

104027 #2 안 내려가 부니까.(안 내려가 버리니까.)

104027 #1 뒷날은 우리가 걸어와 가지고 하르방이 허여 놓니까 일후에 불르쿠 덴 헨에.(뒷날은 우리가 걸어와 가지고 할아버지가 해 놓으니까 이 후에 부르겠다고 해서.)

104027 @1 으.(으.)

104027 #1 갑센 보내 두고 해연 내려와난 예가 잇는데, 그렇게 소나물 많이 그냥 좀 토벌헤 버리고.(가십사고 보내 두고 해서 내려왔던 예가 잇는데, 그렇게 소나물 많이 그냥 좀 도벌헤 버리고.)

104027 #2 그거 집 짓젠 헤실 거라.(그거 집 지으려고 했을 거야.)

104027 #1 말도 못허겠더라이. 그 사삼사건 이후에 저.(말도 못하겠더라. 그 사삼사건 이후에 저.)

104027 #2 집 짓젠 허연.(집 지으려고 해서.)

104027 @1 불 태와 불고 허니까.(불 태워 버리고 하니까.)

104027 #1 저 다 복구허면서도 허고 여러 가지 이럴 때들 보니까 야, 이거 어마 허게 춤.(저 다 복구하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럴 때들 보니까 야, 이거 어마하게 참.)

104027 #3 케난 그 당시에.(그러니까 그 당시에.)

104027 #1 낭도 비여가 버렸구나 허는 것도 느껴봤어.(나무도 베어가 버렸구나 하는 것도 느껴봤어.)

104027 @1 예, 알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104027 #3 집도 짓고 헛지만은 화목 장서 헤 가지고 육지 사름덜 마차에 헤 가지고.(집도 짓고 헛지만은 화목 장사 해 가지고 육지 사름들 마차에 해 가지고.)

104027 @1 음.(음.)

104027 #3 도벌해 가지고 시에 왕 막 푸는 사람덜도 잇어낫주게.(도벌해 가지고 제주시와 와서 막 파는 사람들도 있었었지.)

104027 @1 낭예?(나무요?)

104027 #3 낭예, 짚을낭 헤영은에.(나무요, 빨감 해서.)
(부분 생략)

사냥

104028 @1 그 사냥했던 거는 어떤 거 헤낫수가?(그 사냥했던 거는 어떤 거 했었습니까?)

104028 #6 사냥?(사냥?)

104028 @1 예.(예.)

104028 #2 우린 사냥 허렌 텅겨보지 아녜어.(우린 사냥 하러는 다녀보지 않았어.)

104028 #6 여기선 별로.(여기선 별로.)

104028 #3 우리 들어본 말인데.(우리 들어본 말인데.)

104028 @1 예.(예.)

104028 #3 노루게, 노리.(노루, 노루.)

104028 @1 노리?(노루?)

104028 #3 노리 사냥도 허고.(노루 사냥도 하고.)

104028 @1 예.(예.)

104028 #3 또 지달이.(또 오소리.)

104029 @1 지달이.(오소리.)

104029 #3 지달이 허당, 뭐 지달이 울던 몽둥이 삼년 우려먹넨 들어나고.(오소리 하다가, 뭐 오소리 울던(?) 몽둥이 삼년 우려먹는다고 들었었고.)

104029 @1 예.(예.)

104029 #2 거 ○○가 셔시민 잘 알 건디.(거 ○○가 있었으면 잘 알 건데.)

104029 @1 어.(아.)

104029 #3 꿩 사냥도게.(꿩 사냥도.)

104029 @1 예.(예.)

104029 #3 꿩 사냥도 칠팔월 낭근에 막 더운 때 따올리면은.(꿩 사냥도 칠팔월 되어서 아주 더운 때 쫓으면.)

104029 @1 예.(예.)

104029 #3 애 먹어근앵에 박아지민 강 개 낱 잡아보기도 허고 그런 거.(애 먹어서 박아지민 가서 개 낱 잡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

104029 #6 겐디 우리는 안 해 받.(그런데 우리는 안 해 봤어.)

104029 @1 삼촌네는 안 해 받?(삼촌네는 안 해 봤어요?)

104029 #3 우리는 사냥하는 분들은 우리 없었고.(우리는 사냥하는 분들은 우리 없었고.)

104029 @1 예.(예.)

104029 #3 조금 올라가면 광령³³³.(조금 올라가면 광령.)

104029 @1 예.(예.)

104029 #6 말만 들었주.(말만 들었지.)

104029 #3 거기 사름덜 허고.(거기 사람들 하고.)

104029 @1 으.(으.)

104029 #3 우리도 무사 목장에 췌 올려 가지고 췌 보러 갈 때 꿩 따올려 낱 잡아난 기억도 췌.(우리도 왜 목장에 소 올려 가지고 소 보러 갈 때 꿩 쫓아서 낱서 잡았던 기억도 있어.)

104029 @1 예, 게문 그 꿩 다올려 잡아난 거는 어떤 식으로 잡아냈수가?(예, 그러면 그 꿩 쫓아서 잡았던 거는 어떤 식으로 잡았었습니까?)

104029 #3 게문 것도 망 봐사.(그러니까 것도 망 봐야.)

104029 @1 음.(음.)

104029 #3 흔 목에 잡으는 게 아니라 일로 절로 참 망보는 데가 있어. 동산으로 상.(한 목에 잡는 게 아니라 일로 절로 참 망보는 데가 있어. 동산으로 서서.)

104029 @1 음.(음.)

104029 #3 게문 일로 가민 꿩 따올리라 허민 꿩 놀았허거든.(그러면 이리로 가면 꿩 쫓으라 하면 꿩 날고 있다 하거든.)

104029 @1 예.(예.)

104029 #2 어디레 감췌, 어디레 감췌.(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104029 #3 게문 어디 박아점췌 허곡. 게문 거기서 망보는 사름이 또 그걸 거기서 앓지 못허게시리 손을 돌려 부는 거라.(그러면 어디 박히고 있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망보는 사름이 또 그걸 거기서 앓지 못하게끔 손을 돌려 버리는 거야.)

104029 @1 예.(예.)

104029 #3 게문 꿩이 지칠 거 아니? 막 놀아당. 게문 일로 박아지거든.(그러면 꿩이 지칠 거 아니? 막 날아가서. 그러면 어디로 박히거든.)

104029 @1 예.(예.)

104029 #4 게문 췌 나중에 꿩 본 사름이 어느 꿩 어디 박아졌췌 허민 그때 강 꿩을 잡아냈는데.(그러면 췌 나중에 꿩 본 사름이 어느 꿩 어디 박혔다고 하면 그때 가서 꿩을 잡았었는데.)

104029 @1 예.(예.)

104029 #3 꿩을 잡으면 그 자리에 박은 자리가 없어.(꿩을 잡으면 그 자리에 박힌 자리가 없어.)

104029 @1 으.(으.)

333) '광령'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를 말한다.

104029 #2 업더정 **. (얼어져서 **.)

104029 #3 어느 차례 돌아나 분 지 없어. 게문 그런 땀 개를 봐야 뉘곡. 사름으론 거 춤. (어느 차례 돌아나 버린 지 없어. 그러면 그런 땀 개를 봐야 되고. 사름으론 거 참.)

104029 #2 사름으론 그냥. (사름으론 그냥.)

104029 #3 좇도 못 허여. (찾지도 못해.)

104029 @1 개 들양 텡기멍 핑 잡아보진 안헨마씨?(개 데려서 다니면서 핑 잡아보진 않았어요?)

104029 #3 아니, 잡아보지 않고. (아니, 잡아보지 않고.)

104029 #1 아니, 개 들양 텡기멍 경 허는 거. 사냥개를. (아니, 개 데려서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사냥개를.)

104029 #2 우린 아녀고 거 육지 사름덜. (우린 않고 거 육지 사람들.)

104029 #1 그 흥번 핑 잡는 걸 봤는디이. (그 흥번 핑 잡는 걸 봤는데.)

104029 @1 예. (예.)

104029 #1 그 으름 땀디 쉘앗동산 흥쉴 우쪽에서 이제 흥 서너, 서너네 사름이 나가 가지고. (그 으름 땀디 ‘쉘앗동산’ 조금 위쪽으로 이제 흥 서너, 서너네 사름이 나가 가지고.)

104029 #3 여러이 옵니다. 여러이 와. (여럿이 옵니다. 여럿이 와.)

104029 #1 핑을 날렸어. (핑을 날렸어.)

104029 @1 예. (예.)

104029 #1 날리니까 이놈의 핑이 앓는 거라. (날리니까 이놈의 핑이 앓는 거야.)

104029 @1 으. (으.)

104029 #1 어디 썸 가 가지고 앓는 거라. 게난 갠 들고 갓는데 빨리 가 가지고 그 거길 좇아 가지고. (어디 썸 가 가지고 앓는 거야. 그러니까 갠 데리고 갓는데 빨리 가 가지고 그 거길 좇아 가지고.)

104029 @1 예. (예.)

104029 #1 따시 이걸 그 핑 앓인 디를이. (다시 이걸 그 핑 앓은 데를.)

104029 #2 ㄹ리쳐사 뉘텐. (가리켜야 된다고.)

104029 #1 아. (아.)

104029 @1 으. (으.)

104029 #1 여기 완 앓이니까 이 앓인 디 영 가는 게 아니고 일로 영 들안 이레 가데. 영 해 가지고 다시 핑을 날리는 거라. (여기 와서 앓으니까 이 앓은 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이렇게 데려서 이레 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핑을 날리는 거야.)

104029 @1 예. (예.)

104029 #1 좇안이, 그 날리니까 또 다른 디 어디 간 또 앓이난, 앓이난 또 개가 나가 가지고 걸 잡던데. (찾아서, 그 날리니까 또 다른 데 어디 가서 또 앓으니까,

앉으니까 또 개가 나가 가지고 걸 잡던데.)

104029 @1 예.(예.)

104029 #1 그 꿩이 경 행 지치는 생이데.(그 꿩이 그렇게 해서 지치는 모양이 데.)

104029 #2 세 번 다울리민 툴텐 험디다.(세 번 쫓으면 된다고 함디다.)

104029 #1 경 허연 잡더구만.(그렇게 해서 잡더구먼.)

104029 @1 예.(예.)

104029 #3 계난 꿩도 그 얼터거리³³⁴⁾ 무신 꿩이렌, 어린 꿩은.(그러니까 꿩도 그 ‘얼터거리’ 무슨 꿩이라고, 어린 꿩은.)

104029 @1 으.(으.)

104029 #3 멀리 늘지마는 얼터거리 허는 늙은 꿩은.(멀리 날지만 ‘얼터거리’ 하는 거는 늙은 꿩은.)

104029 @1 예.(예.)

104029 #3 이 뭐 늘지 아너민.(이 뭐 날지 않으면.)

104029 #2 늘개가 빠져 붙어 가지고.(날개가 빠져 버려 가지고.)

104029 #3 터럭이 다 빠져 부는 모양이라.(털이 다 빠져 버리는 모양이야.)

104029 @1 예.(예.)

104029 #3 빠지민 그 꿩은.(빠지면 그 꿩은.)

104029 #2 멀리 못 가.(멀리 못 가.)

104029 #3 흔 자리 두 자리 허주게. 흔 번 놀리꼭 두 번 놀리민 콕콕 박아져.(한 자리 두 자리 하지. 한 번 날리고 두 번 날리면 콕콕 쓰러져.)

104029 @1 아, 계난 늙은 꿩을 뭐렌 곶아마씨?(아, 그러니까 늙은 꿩을 뭐라고 말해요?)

104029 #3 얼터귀.(‘얼터귀’.)

104029 #2 얼터귀.(‘얼터귀’.)

104029 @1 얼터귀?(‘얼터귀’?)

104029 #3 이 위에 늘개에 저 뭐 털이 빠져.(이 위에 날개에 저 뭐 털이 빠져.)

104029 @1 으.(으.)

104029 #6 칠월이나 유월 뉘면은.(칠월이나 유월 되면.)

104029 #3 칠팔월.(칠팔월.)

104029 #6 묵은 털이 다 빠져 분다 허여.(묵은 털이 다 빠져 버린다 해.)

104029 @1 아.(아.)

104029 #6 털같이, 털같이 경, 그 시기에는.(털같이, 털같이 그렇게, 그 시기에는.)

104029 #3 우리 송 휘장 흔 밧 불릴 적에 조 갈앙 놔두민 꿩 그 따울리레 왕은

334) ‘얼터거리’는 것이 빠져 버린 늙은 꿩을 말한다. 뒤에 ‘얼터귀’라는 어휘가 나오는 걸 보면, 제보자가 ‘얼터귀’를 ‘얼터거리’로 잘못 발음한 게 아닌가 한다. 지역에 따라서 ‘얼터귀’, ‘얼털이’라고도 한다.

에 조밭 가는 등 마는 등 허여. 계민 우리 이놈의 **이여 막 욱허곡.(우리 송 회장 한 밭 밟을 적에 조 갈아서 놔두면 꿩 그 쫓으러 와서 조밭 가는 등 마는 등 해. 그러면 우리 이놈의 **이여 막 욱하고.)

104029 @1 음.(음.)

104029 #3 사농허는 놈안티 그냥.(사냥하는 놈한테 그냥.)

104029 #1 노리도 심어 봤어이, 나는.(노루도 잡아 봤어, 나는.)

104030 @1 노리 심어 봅디가? 노리 어떻 심어 봅디가?(노루 잡아 봅디까? 노루 어떻게 잡아 봅디까?)

104030 #1 그것이 천구백육십일 년인가.(그것이 천구백육십일 년인가.)

104030 @1 예.(예.)

104030 #1 여기 상당히 눈이 많이 왔지.(여기 상당히 눈이 많이 왔지.)

104030 @1 으.(으.)

104030 #3 천구백육십일 년.(천구백육십일 년.)

104030 #1 눈이, 눈이 많이 오니까 내가 저 하귀일리에 살 땀디 말이여.(눈이, 눈이 많이 오니까 내가 저 하귀일리에 살 땀테 말이야.)

104030 @1 예.(예.)

104030 #1 이제 우리가 그 기와를 만들어이, 허난.(이제 우리가 그 기와를 만들어, 하니까.)

104030 @1 예.(예.)

104030 #1 기와공장이 여기서든 이 킬로썸 떨어진 디라. 저기 우티레 올라간 디지. 그 저 우리 셋동생하고 같이 이제 그디 물건을 만들언 놔뵈는디 급자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허니까.(기와공장이 여기에서면 이 킬로썸 떨어진 데야. 저기 위로 올라간 데지. 그 저 우리 둘째동생하고 같이 이제 거기 물건을 만들어서 놔뵈는데 급자기 눈이 와 가지고 하니까.)

104030 #2 경 현 때가 잇엇수다. 우리.(그렇게 한 때가 있었습디다.)

104030 #1 얼어, 얼어 가지고.(얼어, 얼어 가지고.)

104030 #2 경 헨 절물로 막 따올런에 바당에도 강 빠져나곡, 노루가.(그렇게 해서 ‘절물’로 막 쫓아서 바다에도 가서 빠졌엇고, 노루가.)

104030 #1 경 허여근에 올라가는디, 그 올라가는, 가는 도중에.(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가는 도중에.)

104030 @1 예.(예.)

104030 #1 길옆의 밧디이 길보단 높은 덴디 영 넘어가단 보니까 거기에 그 천리터.(길옆의 밧에, 길보단 높은 덴테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면레터.)

104030 @1 예.

104030 #1 이 천리터가 하나 잇는디. 천리터에 대개 그, 그 버드나무덜을 싱그 지 아녀이?(이 면레터가 하나 잇는데. 면레터에 대개 그, 그 버드나무들을 심지 않아?)

104030 @1 예, 예.(예, 예.)

104030 #1 그것이 그 ○○이네 밧인데이, 그디가 귀가 바짝 헌 놈인디 말이여, 개 툅 저 세퍼드 개 모양으로 바짝 헨에 이레 바리는 거라.(그것이 그 ○○이네 밧인데, 거기가 귀가 쫘긋 한 놈인디 말이야, 개 툅 저 세퍼드 개 모양으로 쫘긋 해서 이리 보는 거야.)

104030 @1 예.(예.)

104030 #1 젠디 왜 그걸 의심있게 봤냐면 가단 보니까 밧이 네, 이 밧자국이 너 개 나야 되는데 말이여.(그런데 왜 그걸 의심나게 봤냐면 가다가 보니까 밧이 네, 이 밧자국이 네 개 나야 되는데 말이야.)

104030 @1 예.(예.)

104030 #1 밧자국이 식 개라게.(밧자국이 세 개야.)

104030 @1 아.(아.)

104030 #2 다리 병신.(다리 병신.)

104030 #1 다리가 식 개.(다리가 세 개.)

104030 @1 으.(으.)

104030 #1 이 식 개난 이상허다 헤 가지고 이제 가단 영 바려보난 그게고. 저건 나, 노리가 아니가? 노리 닥다 영 허난. 맞수다. 이거 툅 노리 * 닥다.(이 세 개니까 이상허다 헤 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고. 저건 나, 노루가 아니가? 노루 같다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툅 노루 * 같다.)

104030 @1 으.(으.)

104030 #1 이젠 그걸 우터레 데끼민 안 돼니까 영 허연 우로 강은에 알러레 몰아오젠 영 가니까 막 서로 내빼는 거라게.(이젠 그걸 위로 던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가서 아래로 몰아오려고 이렇게 가니까 막 서로 내빼는 거야.)

104030 @1 으.(으.)

104030 #1 계난 서쪽이 내창이거든.(그러니까 서쪽이 내거든.)

104030 #3 내창.(내.)

104030 #1 내창에 가 가지고 내창에서 영 노픈 디 잇자녀이.(내에 가 가지고 내에서 이렇게 높은 데 있잖아.)

104030 @1 으.(으.)

104030 #1 이놈의 게 내창에 가니까 이리저리 저리 올란 가젠 헌디 이디가 높아 놓니까 말이 망설이다가 헐 때 우리도 까까이 거기 가졌어게.(이놈의 게 내에 가니까 이리저리 저리 올라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높아 놓으니까 말이야 망설이다가 할 때 우리도 까까이 거기 갔어.)

104030 @1 으.(으.)

104030 #1 거저 내에 우리가 들이가 거의 다다를 때 아 그놈의 노리도 화딱 튀어 가지고 또.(거의 내에 우리가 들이가 거의 다다를 때 아 그놈의 노루도 활딱 튀어 가지고 또.)

104030 #2 돌아나 불언.(달아나 버렸어.)

104030 #1 그 서녁밭이 출왓이란 말여.(그 서쪽 밭이 풀밭이란 말이야.)

104030 @1 예.(예.)

104030 #1 출왓디레 갖다 말여. 출왓인디 그디 출에 그 족은 소나무덜이.(풀밭으로 갔단 말이야. 풀밭인데 거기 풀에 그 작은 소나무들이.)

104030 @1 예.(예.)

104030 #1 크지 아년 소나무들이 잇는다. 케연 그디 간 영 허니까 이디 잇는디 말여, 이것이 심젠 허민 착 허곡 착 허명 느시 심질 못허여.(크지 았은 소나무들이 잇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잇는데 말이야, 이것이 잡으려고 하면 착 하고 착 하면서 도무지 잡질 못해.)

104030 @1 음.(음.)

104030 #1 으, 심지 못 허여 가지고 이젠 그게 또 녁견에 소레기동산³³⁵)으로 헤여 가지고 어디냐 허른 바굽지오름³³⁶). 파군봉³³⁷)까지 목까지 아이고, 틀렀다. 틀런, 보니까 거기 김○○라는 사름 잇엇는데 말여. 꿩코³³⁸) 보레 뎡기단에.(으, 잡지 못 해 가지고 이젠 그게 또 지나서 ‘소레기동산’으로 해 가지고 어디냐 하면 ‘바굽지오름’. ‘파군봉’까지 목까지 아이고, 틀렀다. 틀렀어, 보니까 거기 김○○라는 사름 잇엇는데 말이야. ‘꿩코’ 보러 다니다가.)

104030 @1 으.(으.)

104030 #1 그 사름 만났다 말여. 야, 그거 잡으라, 그거 잡으라, 아이 폭허게 잡으난 거 폭허게 심어서게.(그 사름 만났다 말이야. 야, 그거 잡으라, 그거 잡으라, 아니 폭하게 잡으니까 거 폭하게 잡았어.)

104030 @1 으.(으.)

104030 #1 그디서 심어 가지고 이제 험 보니까 그 오리³³⁹)가 어린 오린디, 금승오린³⁴⁰)디.(거기서 잡아 가지고 이제 해서 보니까 그 노루가 어린 노루인데, ‘금승노루’인데.)

104030 @1 예.(예.)

104030 #2 노리.(노루.)

104030 @1 노리.(노루.)

104030 #1 이 다리 뒷다리가 울로 똑 허게 총 맞안에 그 잇어 부난에.(이 다리 뒷다리가 울로 똑 하게 총 맞아서 그 없어 버리니까.)

104030 @1 세 개로.(세 개로.)

104030 #1 세 개도 경 잘 뛰더라고. 세 개.(세 개도 그렇게 잘 뛰더라고. 세 개.)

104030 #6 제 기능을 발휘 못헌 거지.(제 기능을 발휘 못한 거지.)

335) ‘소레기동산’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지명의 하나다.

336) ‘바굽지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오름이다. 달리 ‘파군봉’이라고도 한다.

337) ‘파군봉’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오름이다. 달리 ‘바굽지오름’이라고도 한다.

338)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말한다.

339) 여기에서 ‘오리’는 제보자가 ‘노리’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340) 여기에서 ‘금승오리’는 제보자가 ‘금승노리’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금승노리’는 한 살짜리 노루를 말한다.

104030 @1 예.(예.)

104030 #1 세 개짜리 잡았다 이거여. 잡아 난 오란 그걸 잡아 가지고 술 먹어난 예가 잇는데.(세 개짜리 잡았다 이거야. 잡아 놔서 와서 그걸 잡아 가지고 술 먹었던 예가 잇는데.)

104030 @1 예, 알았수다.(예, 알았습니다.)

104030 #1 그거 게연 사냥, 큰 사냥.(그거 그래서 사냥, 큰 사냥.)

104030 @1 예, 큰 사냥 헤신게마씨. 웃음.(예, 큰 사냥 했는데요. 웃음.)

104030 #1 그거이 절대 산짐승 거 잡을 거 아니.(그거 절대 산짐승 거 잡을 거 아니.)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2 이 어땡 재수가 엇입디가?(이 어떻게 재수가 없습디까?)

104030 #1 재수 엇어.(재수 없어.)

104030 #3 안 돼여.(안 되어.)

104030 @1 그 이후에 재수 엇입디가?(그 이후에 재수 없습디까?)

104030 #1 재수 엇어.(재수 없어.)

104030 @1 어, 알아수다.(어, 알았습니다.)

104030 #3 핑코덜토 놓레도 텡겅지, 핑코.(‘핑코’들도 놓으려도 다녔지, ‘핑코’.)

104030 @1 핑코도 놓레 텡겅어예?(‘핑코’도 놓으려 다녔지요?)

104030 #6 핑코 놓레 다녔주.(‘핑코’ 놓으려 다녔지.)

104030 @1 아.(아.)

104030 #3 겐디 핑코 놓레 강.(그런데 ‘핑코’ 놓으려 가서.)

104030 @1 으.(으.)

104030 #3 놈의 핑코도 떼어도 나고.(남의 ‘핑코’도 떼어도 나고.)

104030 @1 예.(예.)

104030 #3 놈의 핑코로 저 발 넘어가게 핑 안 든덴 게도 허어나고.(남의 ‘핑코’로 저 발 넘어가게, 핑 안 든다고, 듣게도 했었고.)

104030 @1 아, 핑코 넘으면은 저기.(아, ‘핑코’ 넘으면 저기.)

104030 #3 핑 안 든다고.(핑 안 든다고.)

104030 @1 아.(아.)

104030 #3 게난 건 웨 경 허느냐 사름덜 발 다녀나민 핑들이 안 들거든게.(그러니까 건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 발 다녀나면 핑들이 안 들거든.)

104030 @1 음.(음.)

104030 #3 일부러 놈의 핑코덜 야심으로 핑도 앓지 못허게 경도 허곡.(일부러 남의 ‘핑코’들 야심으로 핑도 앓지 못하게 그렇게도 하고.)

104030 @1 으.(으.)

104030 #3 놈의 핑코 든 거 떼영 강 곱져근에 낭중 알양근에 이놈으 새끼덜 싸와도 나고.(남의 ‘핑코’ 든 거 떼어서 가서 숨겨서 나중에 알아서 이놈의 새끼들 싸

위도 나고.)

104030 #1 거 아주 안 좋아.(거 아주 안 좋아.)

104030 @1 예.(예.)

104030 #2 혼 발자국 저 그치록 행 넘어가나 불민 썩이 그 자리로 안 덩겨.(한 발자국 저 것처럼 해서 넘어가 버리면 썩이 그 자리로 안 다녀.)

104030 @1 예.(예.)

104030 #3 게여 부니까 놈의 썩 잡젠, 그 야심이주기, 야심.(그래 버리니까 놈의 썩 잡으려고, 그 야심이지, 야심.)

104030 @1 예.(예.)

104030 #3 시알로.(시샘으로.)

104030 @1 예.(예.)

104030 #2 썩도 ***(썩도 ***)

104030 #3 장난덜 많이 헤낫주.(장난들 많이 했었지.)

104030 #1 옛날 썩코, 썩코 허는디 난 그 지방돌³⁴¹⁾ 그 밧 우의 썩 올라간 디 그 저 이제 ○○네 그 저 밧 벌언, ○○이네 밧 이서냐? 그디 그 소낭밧디 그 저 썩코를 낫는디.(옛날 ‘썩코’, ‘썩코’ 하는데 난 그 ‘지방돌’ 그 밧 위에 썩 올라간 데 그 저 이제 ○○네 그 저 밧 벌어서, ○○네 밧 있더냐? 거기 그 소나무밧에 그 저 ‘썩코’를 낫는디.)

104030 @1 예.(예.)

104030 #1 썩코 난에 빙빙 도난 썩코 난 놔도, 다른 디 놓고 돌아오단 보난 썩 들어서고게.(‘썩코’ 놔서 빙빙 도니까 ‘썩코’ 놔서 놔도, 다른 데 놓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썩 들었던데.)

104030 @1 예.(예.)

104030 #2 경 험니다.(그렇게 합니다.)

104030 #3 경 험니다게.(그렇게 합니다.)

104030 @1 으.(으.)

104030 #1 경 드는디.(그렇게 드는데.)

104030 #3 돌아사민 썩코 들주.(돌아서면 ‘썩코’ 들지.)

104030 #1 거 잡앙 먹어 가지고 육이오 때 잡은 분이 우리 웨○○인데 죽어 불 언.(거 잡아서 먹어 가지고 육이오 때 잡은 분이 우리 외○○인데 죽어 버렸어.)

104030 @1 음.(음.)

104030 #3 거 죽젠 허난 죽엇수다게.(거 죽으려고 하니까 죽었습니다.)

104030 @1 웃음.(웃음.)

104030 #2 죽젠 허난 죽엇주.(죽으려고 하니까 죽었지.)

104030 #3 사름 말 ** 혀뜩헌 소리 므음 의심의 병이라.(사람 말 ** 해뜩한 소리 마음 의심의 병이야.)

341) ‘지방돌’은 제주시 외도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지방처럼 생긴 돌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104030 @1 맞아, 의심이 병.(맞아, 의심이 병.)

104030 #3 의심이 병이주.(의심이 병이지.)

104030 #1 강원도에이.(강원도에.)

104030 #2 사냥하는 사람 문밖 죽어 붙어.(사냥하는 사람 몽땅 죽어 버려.)

104030 @1 으.(으.)

104030 #1 아니, 아니. 그래. 강원도에이 잦을 때 보니까 이 강원도에 그 이 내.(아니, 아니. 그래. 강원도에이 잦을 때 보니까 이 강원도에 그 이 내.)

104030 @1 네.(네.)

104030 #1 냇가에 그 궤³⁴², 궤 닳은 디들 대개 보니까 거기다가 뭐 멧지 ㄱ튼 거이, 하간 그 저 집안에.(냇가에 그 ‘궤’, ‘궤’ 같은 데들 대개 보니까 거기다가 뭐 명주 같은 거, 온갖 그 저 집안에.)

104030 @1 예.(예.)

104030 #1 필요한 물건을 그런 디 그냥 담안 내 붙어.(필요한 물건을 그런 데 그냥 담아서 내 버려.)

104030 @1 으.(으.)

104030 #1 켄디 거기에서 이제 그걸 뭇뻥 ** 허멍 멧주 ㄱ튼 것도 이제 가지곡 그거 손 봐 가지고 행근에 허곡, 거기서 이제 또 득 심영은에 먹고 허난 그날 죽어 붙어, 그날. 나도 이거 참 그거지만 그날 죽어 붙어, 총 맞앙.(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뭇뻥 ** 하면서 명주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그거 손 봐 가지고 해서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닭 잡아서 먹고 하니까 그날 죽어 버려, 그날. 나도 이거 참 그거지만 그날 죽어 버려, 총 맞아서.)

104030 #2 아, 계난양, 역불로 잡으레 간 거는 재수가 없질 아녀고 사냥하는 사람덜 다 죽어 붙게. 어찌다가 우연의 일치로 늘짐승을 잡게 됐든 그거는 잡질 말아야 돼.(아, 그러니까요, 일부러 잡으러 간 거는 재수가 없질 았고 사냥하는 사람들 다 죽어 버리게. 어찌다가 우연의 일치로 날짐승을 잡게 되면 그거는 잡질 말아야 되어.)

104030 #1 예.(예.)

104032 @1 알아수다. 혹시 지달이 사냥하는 것도 봐 봄디가?(알았습니다. 혹시 오소리 사냥하는 것도 봐 봄디까?)

104032 #1 안 봤어.(안 봤어.)

104032 @1 아, 지달이 여기는, 다른 디 가민 지달이 사냥덜 한덴.(아, 오소리 여기는, 다른 데 가면 오소리 사냥들 한다고.)

104032 #2 거 웃드리덜.(‘웃드리’들.)

104032 #1 이, 이 웃동네.(이, 이 ‘웃동네’.)

104032 @1 웃동네예?(웃동네요?)

104032 #1 즈중이³⁴³나 이런 딴 많이 허주.(‘즈중이’나 이런 덴 많이 하지.)

342) ‘궤’는 위로 큰 바위가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곳을 말한다.

104032 #2 웃드리덜.(‘웃드리’들.)
 104032 @1 예, 족제비는?(예, 족제비는?)
 104032 #3 족제비는 우리 덧 낚았어.(족제비는 우리 덧 낚았어.)
 104032 @1 아, 덧 건 어떤 식으로?(아, 덧 건 어떤 식으로?)
 104032 #2 우리도 막 어린 때 덧 놓긴 해났어.(우리도 아주 어릴 때 덧 놓긴 했었어.)
 104032 #3 건 으남은 설 때. 장난으로 해 가민 막 득데멍이나 또 득.(건 여남은 살 때. 장난으로 해 가면 막 닭대가리나 또 닭.)
 104032 #2 거 허민 뱃기지 못헿 우린 안 해났어.(거 하면 뱃기지 못해서 우린 안 했었어.)
 104032 @1 음.(음.)
 104032 #2 혼 번 잡안에 뱃기지 못헿 안 해난.(한 번 잡아서 뱃기지 못해서 안 했었어.)
 104032 #3 족덜 해 가지고 나 하나 잡아났어, 건.(족제비덜 해 가지고 나 하나 잡았었어.)
 104032 @1 예, 거는 좃덜이렌 해예?(예, 거는 족제비덜이라고 해요?)
 104032 #3 족제비덜.(족제비덜.)
 104032 @1 예.(예.)
 104032 #3 족제비덜. 족덜.(족제비덜, 족제비덜.)
 104032 @1 겹은에 그 족제비는 주로 뭐 헿수가?(그래서 그 족제비는 주로 뭐 헿습니까?)
 104032 #3 주로 해서 거.(주로 해서 거.)
 104032 #2 풀앗주기, 뭐.(팔았지, 뭐.)
 104032 #3 거 사렌 뎅기는 사름 셔났어.(그거 사런 다니는 사람 있었어.)
 104032 #2 사레 뎅기는 사름.(사러 다니는 사람.)
 104032 #3 가죽.(가죽.)
 104032 @1 음.(음.)
 104032 #3 가죽 사레 뎅기는 사름, 잘.(가죽 사러 다니는 사람, 잘.)
 104032 #2 모피로 허젠.(모피로 하려고.)
 104032 #3 거 잘 뱃겨사.(거 잘 뱃겨야.)
 104032 @1 예.(예.)
 104032 #2 뱃길 줄 몰란 안 허여.(뱃길 줄 몰라서 안 해.)
 104032 #3 뱃길 줄 모르민 이, 건 하르방덜이 뱃겨.(뱃길 줄 모르면 이, 건 할아 버지들이 뱃겨.)
 104032 #2 못 허여.(못 해.)
 104032 #3 입으로 뱃겨 가지고.(입으로 뱃겨 가지고.)

343) ‘즈중이’는 제주도 애월읍 광령리의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04032 #2 상처 안 나게시리 잘 해사.(상처 안 나게끔 잘 해야.)

104032 #3 땡기면은 기냥 짝 나오주.(당기면 그냥 짝 나오지.)

104032 @1 음.(음.)

104032 #3 게 가지고 마디는.(그래 가지고 마디는.)

104032 @1 예.(예.)

104032 #3 발 헌 디 가른 이거 슬 부찌근에 그냥 똑 끊영 데끼곡.(발 한 데 가면 이거 살 붙여서 그냥 똑 끊어서 던지고.)

104032 @1 으.(으.)

104032 #2 경도 허고. 벗겨 놔도 그거 거 손보기가 그렇게 힘들영 말여.(그렇게 도 하고. 벗겨 놔도 그거 거 손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말이야.)

104032 #3 힘들어. 게문 하르방덜 거 짹 담양.(힘들어. 그러면 할아버지들 거 짹 답아서.)

104032 #1 족제비 또꼬망에 그 털.(족제비 꿈무니에 그 털.)

104032 @1 예.(예.)

104032 #1 꿈지에 털, 그거 상당히 그 저 붓.(꼬리에 털, 그거 상당히 그 저 붓.)

104032 @1 예.(예.)

104032 #6 붓 만들더라고.(붓 만들더라고.)

104032 #1 예, 붓 만드는. 왜냐, 붓이 좋냐면 이게 탄력이 있어 가지고.(예, 붓 만드는, 왜냐, 붓이 좋으냐면 이게 탄력이 있어 가지고.)

104032 @1 아.(아.)

104032 #2 오그라지질 아녀.(오그라지질 않아요.)

104032 #1 영 허영근에 허든 저 탁 허게 원래대로 잘 돌아가.(이렇게 해서 하면 저 탁 하게 원래대로 잘 돌아가.)

104032 #2 글발이 짹짹하게 써져.(글발이 짹짹하게 써져.)

104032 @1 으.(으.)

104032 #1 게난 그, 그것이 그걸로 멘든 붓이 일등 붓이주게.(그러니까 그, 그것이 그걸로 만든 붓이 일등 붓이지.)

104032 @1 아, 족제비털로 붓, 아, 예.(아, 족제비털로 붓, 아, 예.)

104032 #3 뱃기민 이제 그 안에 짹 헤영근에.(뱃기면 이제 그 안에 짹.)

104032 #6 풀리.(꼬리.)

104032 @1 풀리.(꼬리.)

104032 #2 풀리도 허고 털도 많이 씩니다게.(꼬리도 하고 털도 많이 씩니다.)

104032 @1 음.(음.)

104032 #3 털게, 목도리 허면은 게난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거 비싸났어.(털, 목도리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거 비쌌었어.)

104032 @1 음.(음.)

104032 #3 족제비털 받으레 땡겨낭덜. 그걸 해 가지고 잘 손을 뺑 물려사.(족제

비털 받으러 다녀서들. 그걸 해 가지고 잘 손을 봐서 말려야.)

104032 @1 예.(예.)

104032 #3 게른 게 가지고 이제는 그 째. 째 해 가지고 봉봉 몰아 가지고 그 슬 셔난 디 걸 담아 가지고.(그러면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 째. 째 해 가지고 봉봉 말 아 가지고 그 살 있었던 데 걸 담아 가지고.)

104032 @1 예.(예.)

104032 #3 봉봉허게 해 가지고 막 늘어나게 멘들아사.(봉봉하게 해 가지고 아주 늘어나게 만들어야.)

104032 #2 늘어나게.(늘어나게.)

104032 #3 게른 몽글아져.(그러면 모지라져.)

104032 @1 아.(아.)

104032 #3 게민 그거 담양 툄릴 때ㄱ지 걸 딱 헤영 낡은에 거 썩 불민 족제비 ㄱ치 썩 허게 나와.(그러면 그거 담아서 말릴 때까지 걸 딱 해서 놔서 썩 불면 족제 비 같이 썩 하게 나와.)

104032 @1 아.(아.)

104032 #1 그 당시에는 족제비에 의해 가지고 득이 많이 희생돼여이.(그 당시에 는 족제비에 의해 가지고 닭이 많이 희생되어.)

104032 @1 예.(예.)

104032 #1 족제비.(족제비.)

104032 @1 게난 족제비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라예?(그러니까 족제비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네요?)

104032 #3 득을 허민 득은 안 먹어. 머리로만 톡 잘라 불어.(닭을 하면 닭은 안 먹어.)

104032 @1 아.(아.)

104032 #1 득망, 득망 지어 가지고 이 득을 질파야 허는디 문쳐도 굴앗주마는 축담 우의 ㄱ쁜 디 영 올령만 내 부는 경우가 많이 있어.(닭 우리, 닭 우리 지어 가 지고 이 닭을 길러야 하는데 먼저도 말했지만 축담 위에 같은 데 이렇게 올려서만 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104032 @1 예, 예.(예, 예.)

104032 #1 많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이 잇주기.(많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 지.)

104032 #3 게난 득을 톡 우에만 잘라 불어.(그러니까 닭을 톡 위에만 잘라 버 려.)

104032 #1 이 족제비뎃이엔 현 거는.(이 족제비뎃이라고 한 거는.)

104032 @1 음.(음.)

104032 #1 영 저 우에 영 받앙 잇당은에 이디 톡톡 허영 탁 저 눌러지게끔.(이 령게 저 위에 이렇게 받아서 있다가 여기 톡톡 해서 탁 저 눌러지게끔.)

104032 @1 예.(예.)

104032 #1 경 해근에 눌러 잡는 건다이.(그렇게 해서 눌러 잡는 건데.)

104032 @1 음.(음.)

104032 #1 그 이 미끼는 대개 득데가리 ㄴ튼 거.(그 이 미끼는 대개 닭대가리 같은 거.)

104032 #3 득 머리. 득 저.(닭 머리. 닭 저.)

104032 #1 좋아하는 거 놔근에.(좋아하는 거 놔서.)

104032 #3 득 저 돛술 ㄴ튼 거 해당은에 ****.(닭 저 돼지털 같은 거 해당에 ****.)

104032 #1 탁 덧이 알려레 더꺼지게끔 해 가지고 이제 경 해영 잡는 거.(탁 덧이 아래로 덮어지게끔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잡는 거.)

104032 #3 족제비덧도 멘들젠 허민 것도 공 듭니다.(족제비덧도 만들려고 하면 공 듭니다.)

104032 @1 삼촌, 아까 그 돛술은 뭐마씨?(삼촌, 아까 그 ‘돛술’은 뭐예요?)

104032 #2 돛술, 돛술.(돼지털, 돼지털.)

104032 #3 * 돛통더레 강.(* 돼지우리로 가서.)

104032 #2 도새기털.(돼지털.)

104032 #3 돛터럭 툇허게 등겨당.(돼지털 툇허게 당겨다가.)

104032 @1 예.(예.)

104032 #2 거 냄새가 그끄령내³⁴⁴ 나주기.(거 냄새가 ‘그끄령내’ 나지.)

104032 #3 꿩기에 낱근에 그걸 구면은 그끄령내 나거든.(고기에 놔서 그걸 구우면 ‘그끄령내’ 나거든.)

104032 @1 예.(예.)

104032 #3 계민 족제비가 그 냄새 마탕.(그러면 족제비가 그 냄새 맡아서.)

104032 #2 냄새 마탕 그레 오는 거.(냄새 맡아서 그리로 오는 거.)

104032 #3 먹으레 오주기.(먹으러 오지.)

104032 @1 아.(아.)

104032 #3 계민 족덧에 걸 부짱 놔두면은.(그러면 족제비덧에 걸 붙여서 놔두면.)

104032 @1 으.(으.)

104032 #3 그거 보면은 들렛당 등기면은 아까 곶앗주마는 딱 눌러 불민. 것도 어떻 족제비덧이 족으민 머리뺍으로 들어강 발로 팡도 나오는 수도 잇고.(그거 보면 들었다가 당기면 아까 말했지만 딱 눌러 버리면. 것도 어떻게 족제비덧이 작으민 머리뺍으로 들어가서 발로 파서도 나오는 수도 잇고.)

104032 @1 으.(으.)

104032 #3 돌을 위의 낱은에 족덧 위의.(돌을 위에 놔서, 족제비덧 위에.)

344) ‘그끄령내’는 짐승의 털 따위가 타는 냄새를 말한다.

104032 #2 닳을 잘 쥐야. 닳을 잘 쥐야.(닳을 잘 쥐야. 닳을 잘 쥐야.)

104032 #3 게민 딱허게 탁 쓰러지민 ㄱ딱 못허게 멘들영. 조금 허술헌 거는 족제비 살앙 나오는 수 있어.(그러면 딱허게 탁 쓰러지면 까딱 못허게 만들어서. 조금 허술한 거는 족제비 살아서 나오는 수 있어.)

104032 @1 아.(아.)

104032 #3 땅 팡 기영 나와.(땅 파서 기어서 나와.)

104032 @1 그 닳은 뭐우파?(그 닳은 뭘니까?)

104032 #3 덧을 지지리는 것은 닳. 닳은.(덧을 지지르는 것은 닳, 닳은.)

104032 #2 우에 지지르는 돌.(위에 지지르는 돌.)

104032 #3 돌.(돌.)

104032 @1 닳이렌 곶아예?(닳이라고 말한다고요?)

104032 #3 덧, 덧.(덧, 덧.)

104032 @1 덧을 지지리는 것은 닳.(덧을 지지르는 것은 닳.)

104032 #3 닳.(닳.)

104032 @1 알앗수다. 여기까지 허쿠다.(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바다일

105001 @1 으, 이 동네는 이제 바다 동네잖아예? 게난 바다에서는 어떤 일 헛수가? 여자들은 어떤 일 허고 남자들은 어떤 일 헌 거?(으, 이 동네는 이제 바다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어떤 일 했습니까? 여자들은 어떤 일 하고 남자들은 어떤 일 한 거?)

105001 #5 남자들은 어부지.(남자들은 어부지.)

105001 @1 으.(으.)

105001 #4 베 탕 나강.(배 타고 나가서.)

105001 #5 여자들은 해녀고.(여자들은 해녀고.)

105002 @1 음, 혹시 그 듬복이나 감태도 즈물아난마씨?(음, 혹시 그 듬복이나 감태도 췌었어요?)

105002 #4 옛날엔 다 헛지.(옛날엔 다 헛지.)

105002 #5 옛날엔 감태도 즈물아 봤어.(옛날엔 감태도 캐 봤어.)

105002 @1 음.(음.)

105002 #5 겐디 이젠 감태가 없어.(그런데 이젠 감태가 없어.)

105002 #4 듬복도 막 굿디 밀리민 그거 헤영 쳐당 밧디도 끌아낫지게.(듬복도 막 가에 밀리면 그거 해서 쳐다가 밧에도 깔았었지.)

105002 #5 거름으로 췌거든.(거름으로 췌거든.)

105002 #4 경헌디 이젠 그런 거 허는 사름이 어디 있어. 춤 고급이주지.(그런데

이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참 고급이지.)

105002 #5 없어졌어, 그게.(없어졌어, 그게.)

105002 #4 없어지 건디 막 오래연.(없어진 지 아주 오래.)

105002 #5 바다에 그 해초가 없어졌어.(바다에 그 해초가 없어졌어.)

105002 #4 것도 웃어지고 허쟁도 안 허고.(것도 없어지고 하려고도 안 하고.)

105002 @1 으, 계난 그 듬복은 허면은 용도가 뭐라마씨? 혼 사람씩 곱아 줘서?(으, 그러니까 그 듬복은 허면은 용도가 뭐예요? 한 사람씩 말해 주십시오?)

105002 #5 거름용.(거름용.)

105002 @1 거름용?(거름용?)

105002 #5 으.(으.)

105002 @1 으.(으.)

105002 #4 밧디 곱앙 곱름게.(밭에 곱아서 거름.)

105002 @1 으.(으.)

105002 #5 보리 갈민 보리 뽕쪽뽕쪽 난 때 그걸 싹 곱아. 거민 보리가 잘 돼주게.(보리 갈면 보리 뽕쪽뽕쪽 날 때 그걸 싹 곱아. 그러면 보리가 잘 되지.)

105002 @1 보리 날 때 곱아예?(보릴 날 때 깐다고요?)

105002 #5 영 뽕쪽뽕쪽 난 때.(이렇게 뽕쪽뽕쪽 날 때.)

105002 @1 으.(으.)

105002 #5 보리가 자라 불민 안 돼곡. 뽕쪽뽕쪽 어린 때. 곱 이렇게 벌리면서 찢이면서 더퍼주주게. 계민 그 보리가 잘 돼여.(보리가 자라 버리면 안 되고. 뽕쪽뽕쪽 어릴 때. 곱 이렇게 벌리면서 찢으면서 덮어주지. 그러면 그 보리가 잘 되어.)

105002 #4 그 듬복도 즐게. 즐게 호미로 막 착착 헤영.(그 듬복도 잘게. 잘게 낮으로 막 착착 해서.)

105002 #5 그 정돈 아니고. 그냥 영.(그 정돈 아니고. 그냥 이렇게.)

105002 #4 계도.(그래도.)

105002 #5 펼치믄 퍼져. 경 허영 그때는 비료가 어려운 때라.(펼치면 퍼져. 그렇게 해서 그때는 비료가 어려운 때야.)

105002 @1 음.(음.)

105002 #5 그걸 거름으로 썼거든.(그걸 거름으로 썼거든.)

105002 @1 예, 그다음에 감태는 즈물양 뒸헌 거?(예, 그다음에 감태는 캐서 뒸한 거?)

105002 #5 건 뒸허는 디서 받아갓는지 몰라. 받아가났어.(건 뒸하는 데서 받아갓는지 몰라. 받아갓었어.)

105002 @1 음.(음.)

105002 #4 감텐 옛날 어른덜 밧디 곱민 그 사스락검질³⁴⁵⁾ 거 난덴 허영 아녀는 사름은 안 헤난.(감텐 옛날 어른들 밧에 곱면 그 ‘사스락검질’ 거 난다고 해서 앓는

345) ‘사스락검질’은 김의 일종이다.

사람은 안 했었어.)

105002 @1 예.(예.)

105002 #5 감태는 걸지 아년텐 허고.(감태는 걸지 않는다고 하고.)

105002 @1 예.(예.)

105002 #5 그 화약 재료로 들어간텐 헨 사가났어.(그 화약 재료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갔었어.)

105002 @1 아, 화약 재료예?(아, 화약 재료요?)

105002 #5 화약 재료로. 성냥공장에도 가곡. 뭐 무신 무시거 무신 그 화약 그런 걸로 간텐 우리 들어났어.(화약 재료로. 성냥공장에도 가고. 뭐 무엇 무엇 무슨 그 화약 그런 걸로 간다고 우리 들었었어.)

105004 @1 음, 경 허영은에 채취허고예? 알앗수다. 이 바당에 나는 그 보멸 종류?(음, 그렇게 해서 채취하고요? 알았습니다. 이 바다에 나는 그 고등 종류?)

105004 #5 으.(으.)

105004 @1 어떤 종류들 잇수가?(어떤 종류들 있습니까?)

105004 #5 보말?(고등?)

105004 #4 으라 종류.(여러 종류.)

105004 #5 수두리가 잇고.(팽이고등이 잇고.)

105004 #4 떡보말.(밤고등.)

105004 #6 기냥 떡보말이가 잇고. 코트테기가 잇고 문다드기가 잇곡.(그냥 밤고 등이 잇고. 남방울타리고등이 잇고 소라고등이 잇고.)

105004 #4 문다드린 뚜껍 더꺼진 거.(소라고등은 뚜껍 덮어진 거.)

105004 #5 까메기보말³⁴⁶ 잇고.(‘까메기보말’ 잇고.)

105004 @1 으.(으.)

105004 #5 거 그런 거.(거 그런 거.)

105004 #4 문다드린 뚜껍 더꺼진 거. 더꺼진 거.(소라고등은 뚜껍 덮어진 거. 덮어진 거.)

105004 #5 메옹이가 잇고.(두드럭고등이 잇고.)

105004 @1 뚜껍 더꺼진 게 문다드리예? 게문 그거는 어느 바당에 주로 나마 씨? 이제.(뚜껍 덮어진 게 소라고등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바다에 주로 나요? 이제.)

105004 #5 이 앞바당에 그거 종류 다 잇어.(이 앞바다에 그거 종류 다 잇어.)

105004 #4 모살조개도 잇고게이, 조개 이멘씩 현 거.(바지락조개도 잇고, 조개 이만큼 한 거.)

105004 @1 아, 모살조개예. 아, 여기 조개도 하영 납니까?(아, 바지락조개요. 아, 여기 조개도 많이 납니까?)

105004 #4 으, 조개 이제도 파레 텅겨.(으, 조개 이제도 파러 다녀.)

346) ‘까메기보말’은 고등의 일종이다. 색이 검고 가마귀 모양을 하고 있다.

105004 #5 흙으진 아녀도 요만씩 허긴 해도 나와.(굵진 았아도 요만씩 하긴 해도 나와.)

105004 @1 음.(음.)

105004 #4 겨고 이 외도 바다가 깨끗허텐 허여근에 뭐 허주게.(그리고 이 외도 바다가 깨끗하다고 해서 뭐 하지.)

105004 @1 음, 게문 조개는 어떤 종류들 잇수가? 게문.(음, 그러면 조개는 어떤 종류들 잇습니까? 그러면.)

105004 #5 조갠 그거 하나벳기.(조갠 그거 하나밖에.)

105004 #4 그거 준 거.(그거 잔 거.)

105004 @1 으, 모살조개?(아, 바지락조개?)

105004 #5 으.(으.)

105005 @1 그다음에 갱이는 어떤 갱이들 잇어?(그다음에 게는 어떤 게들 잇어?)

105005 #5 갱이도 으라 종류지. 참게가 잇고 또 이제 얼룩얼룩헌 그.(게도 여러 종류지. 참게가 잇고 또 이제 얼룩얼룩한 그.)

105005 #4 건 흑갱이³⁴⁷엔 헌 거.(건 ‘흑갱이’라고 한 거.)

105005 #5 저 뭐냐. 지름갱이³⁴⁸엔 헌 거 잇고. 풋갱이³⁴⁹엔 헌 것가 잇고, 돌갱이³⁵⁰가 잇고, 까메기갱이³⁵¹가 잇고, 으라 질이라.(저 뭐냐. ‘지름갱이’라고 한 거 잇고. ‘풋갱이’라고 한 것이 잇고, ‘돌갱이’가 잇고, ‘까메기갱이’가 잇고, 여러 질 이야.)

105003 @1 음, 그런 갱이도 이제 잡을 수 이십니까?(음, 그런 게도 이제 잡을 수 잇습니까?)

105003 #5 잇지.(잇지.)

105003 @1 아, 잇어? 걸 어떤 거를 봐야 이게 풋갱인지 이게. (웃음) 삼촌, 바다에 갈 때 멧 개 잡아다 줘서.(아, 잇어? 걸 어떤 거를 봐야 이게 ‘풋갱인’지 이게. (웃음) 삼촌, 바다에 갈 때 멧 개 잡아다 주십시오.)

105003 #4 웃음.(웃음.)

105003 @1 그다음에 그 게난 그 아까 보멸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행은에 잡는 거?(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그 아까 고등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잡는 거?)

105003 #5 돌 일령.(돌 일으켜서.)

105003 #4 돌 일령게.(돌 일으켜서.)

105003 @1 음.(음.)

105003 #4 돌 일리꼭 그 엉덕³⁵²에.(돌 일으키고 그 ‘엉덕’에.)

347) ‘흑갱이’는 게의 일종이다.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348) ‘지름갱이’는 게의 일종이다.

349) ‘풋갱이’는 게의 일종이다. 게가 팔처럼 작아서 붙인 이름이다.

350) ‘돌갱이’는 게의 일종이다. 게의 표면이 돌처럼 딱딱해서 붙은 이름이다.

351) ‘까메기갱이’는 게의 일종이다.

352) ‘엉덕’은 바다 바위가 낭떠러지처럼 깊이 파인 곳을 말한다.

105003 #5 돌 일렁도 트멍에 잇는 바위에 잇는 것도.(돌 일으켜서도 틈에 잇는 바위에 잇는 것도.)

105003 #4 엉덕에 영 보민 코트데기 떡보말은 박아정 잇어. 엉덕에 영 보민.(‘엉덕’에 이렇게 보면 눈알고등 밤고등은 박아져 잇어. ‘엉덕’에 이렇게 보면.)

105003 @1 엉덕에예.(‘엉덕’에요.)

105003 #5 보말도 으라 가지주, 보말.(고등도 여러 가지지, 고등.)

105003 @1 지금도 보말덜은 잡아져마씨?(지금도 고등들은 잡아져요?)

105003 #5 잡아.(잡아.)

105003 @1 음. 어느 철에, 보말은 어느 철에 잡는 겨우짜?(음. 어느 철에, 고등은 어느 철에 잡는 겁니까?)

105003 #5 보말은 철 엇이 그냥덜 잡아가.(고등은 철 없이 그냥들 잡아가.)

105003 @1 으.(으.)

105003 #4 옛날 어른덜 말이.(옛날 어른들 말이.)

105003 #5 여름에가 켈 그게 알이 벤덴.(여름이 켈 그게 알이 벤다고.)

105003 #4 삼월 보름이 질 그 물을 잘 싸는 그 거세긴 썩이라.(삼월 보름이 켈 그 물을 잘 싸는 그 거시긴 모양이야.)

105003 @1 으.(으.)

105003 #4 삼월 보름 물찌에 집의 앓인 것들은 놈의 집의 도둑질이나 허젠 앓는 거옌.(삼월 보름 물때에 집에 앓은 것들은 놈의 집의 도둑질이나 하려고 앓는 거라고.)

105003 @1 으.(으.)

105003 #4 그런 우시개도 잇어낫어.(그런 우스개도 있었었어.)

105003 #5 겐디 그제 보말 이 저 바다에서 나는 건 이 스월 오월.(그런데 그제 고등 이 저 바다에서 나는 건 이 사월 오월.)

105003 @1 예.(예.)

105003 #5 그때가 다 알 벨 때라.(그때가 다 알 벨 때야.)

105003 @1 음.(음.)

105003 #5 계난 그때가 켈 맛이 잇인 때.(그러니까 그때가 켈 맛이 있을 때.)

105003 @1 아, 보말들은예?(아, 고등들은요?)

105003 #5 으.(으.)

105003 @1 사오월에? 보통 여름에는 별로 맛엿텐 안 험니까?(사오월에? 보통 여름에는 별로 맛없다고 안 합니까?)

105003 #5 아니, 여름에도 그 사오월로부터 그거 알이 뱀 시작허믄.(아니, 여름에도 그 사오월로부터 그거 알이 베기 시작하면.)

105003 @1 으.(으.)

105003 #5 아메도 흔 유월쫘 뉘믄 유월꺼진 문 안 가고 다 알 싸 부는 썩이라.(아마도 한 유월쫘 되면 유월까진 몽땅 안 가고 다 알 싸 버리는 모양이야.)

105003 @1 음, 거난 여름엔 또 맛있는 거. 알 싸 불민예, 예?(음, 그러니까 여름엔 또 맛있는 거. 알 싸 버리면요, 예?)

105003 #5 겐디 또 수두리엔 현 거는 또 여름에가 알이 막 짝 차.(그런데 또 팽이고둥이라고 한 거는 또 여름이 알이 아주 짝 차.)

105003 @1 아.(아.)

105003 #5 소라도 그때가 알 차곡.(소라도 그때가 알이 차고.)

105003 @1 으.(으.)

105003 #5 그거 영 숲양 영 까든 하얀 게 그 꼬리에 잇주게.(그거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까면 하얀 게 그 꼬리에 있지.)

105003 @1 예.(예.)

105003 #4 하얀 게 슬진 거.(하얀 게 살찐 거.)

105003 @1 아.(아.)

105003 #5 그게, 그게 알.(그게, 그게 알.)

105003 #4 경 해야 맛 좋아.(그렇게 해야 맛 좋아.)

105003 @1 하얗게 뽀 게예?(하얗게 뽀 게요?)

105003 #5 그게 알. 보말은 숲양 까든 꼭데기에 하얀 것이 잇어야, 알이야.(그게 알. 고둥은 삶아서 까면 꼭데기에 하얀 것이 잇어야, 알이야.)

105003 @1 으.(으.)

105003 #4 경 험사 그것이 맛 좋든 허주.(그렇게 해야 그것이 맛 좋다고 하지.)

105003 @1 게든 그 어떤 건 보면 하얀색 잇잖아예? 게든 암수 구별도 험니까? 그걸로.(그러면 그 어떤 것은 보면 하얀색 잇잖아요? 그러면 암수 구별도 험니까? 그걸로.)

105003 #5 우린 그건 못허여.(우린 그건 못해.)

105003 @1 으, 그것 못허고 그냥.(으, 그것 못하고 그냥.)

105003 #5 으, 암수 수컷 그건 몰라.(으, 암수 수컷 그건 몰라.)

105003 @1 예.(예.)

105003 #5 갱인 알 수 잇어.(겐 알 수 잇어.)

105003 @1 갱인 알아. 갱인 어떤 식으로 구별험니까?(겐 알아. 겐 어떤 식으로 구별험니까?)

105003 #5 갱인 암커는 요디 것이 동글락허고.(게는 암컷은 여기 것이 동그략고.)

105003 @1 예, 배가.(예, 배가.)

105003 #5 수놈은 길쭉허고.(수놈은 길쭉하고.)

105003 @1 아.(아.)

105003 #5 배에 잇는다.(배에 잇는데.)

105003 @1 예.(예.)

105003 #5 이렇게 동그락허게 잇어이, 암컷.(이렇게 동그략게 잇어, 암컷은.)

105003 @1 으.(으.)

105003 #5 겨고 수커는 요렇게 있어.(그리고 수컷은 요렇게 있어.)

105003 @1 아, 가로로 이렇게 잇고.(아, 가로로 이렇게 잇고.)

105003 #5 으.(으.)

105003 @1 암놈은?(암놈은?)

105003 #5 게가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잖아.(게가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잖아.)

105003 @1 으.(으.)

105003 #5 게민 암커는 요디가 이디 동그랑허게 잇고, 수커는 이렇게 있어.(그러면 암컷은 여기가 여기 동그랑허게 잇고, 수컷은 이렇게 있어.)

105003 @1 아.(아.)

105003 #4 게는 수커 암커 알 수 있어.(게는 수컷 암컷 알 수 있어.)

105003 @1 알아지고. 으, 보멸은 안 돼고.(알아지고. 으, 고둥은 안 되고.)

105003 #4 그 갱이 게끔 보객이 물민 거 뭇엔 글아낫저마는.(그 게 거품 보객이 물민 거 무엇이라고 말했었다만.)

105003 #5 밥허라.(밥해라.)

105003 #4 밥허라 죽허라.(밥해라 죽해라.)

105003 #5 밥허라 죽허라 경 헛주기.(밥해라 죽해라 그렇게 했지.)

105003 @1 아.(아.)

105003 #5 그거 가만이 그 바위틈에 앉아서 부글부글부글 막 그 부글레길 막 내와, 거.(그거 가만히 그 바위틈에 앉아서 부글부글부글 막 그 거품 막 내워, 거.)

105003 #4 게끔 보객이 무는 갱이가 있어.(거품 보강이 무는 게가 있어.)

105003 #5 그게 뭇 행동인진 몰라. 겐디 그 바위틈에 앉아둬서 막 거품을 막 해. 게민 우린 밥허라 죽허라 밥허라 죽허라.(그게 뭇 행동인진 몰라. 그런데 그 바위틈에 앉아두고서 막 거품을 막 해. 그러면 우린 밥해라 죽해라 밥해라 죽해라.)

105003 #4 우리 생각으로 경 글아난. 생각으로.(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었어. 생각으로.)

105003 @1 예, 우리 밥헛 때 부각부각허니까예? 예.(예, 우리 밥할 때 보각보각 하니까요? 예.)

105003 #4 밥 부꿀 때 그런 식으로 뭇허난.(밥 끓을 때 그런 식으로 뭇하니까.)

105003 #5 게난 놀이가 엇이난 그런 걸 보명 다 놀이로 삼았지게.(그러니까 놀이가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다 놀이로 삼았지.)

105006 @1 예, 맞수다. 이 바당 동네니까예, 예. 옛날에 헛불 들렁도 뭇 잡으레 뎅겨마씨?(예, 맞습니다. 이 바다 동네니까요, 예. 옛날에 헛불 들어서도 뭇 잡으러 다녀요?)

105006 #5 낙지 잡으레.(낙지 잡으러.)

105006 @1 아.(아.)

105006 #4 낙지 잡으레.(낙지 잡으러.)

105006 #5 보말 ㄱ튼 거 소라 ㄱ튼 거 바위에 올라오주게.(고등 같은 거 소라 같은 거 바위에 올라오지.)

105006 @1 예.(예.)

105006 #5 여름에는 그게.(여름에는 그게.)

105006 @1 으.(으.)

105006 #5 그거 잡으레 햇불 썩 다녔지.(그거 잡으러 햇불 켜서 다녔지.)

105006 #4 밤의만 올라오는 생이라.(밤에만 올라오는 모양이야.)

105006 #5 낙지도.(낙지도.)

105006 #4 밤이 햇불 썩 덩기는 거 보민.(밤에 햇불 켜서 다니는 거 보면.)

105006 #5 그때만 해도 여기도 낙지도 잇엇거든.(그때만 해도 여기도 낙지도 잇엇거든.)

105006 @1 으.(으.)

105006 #5 이제는 낙지가 씨가 몰랐어.(이제는 낙지가 씨가 말랐어.)

105006 #4 낙지도 허곡, 우리 원 안네엔 허영 원 싸지주기게.(낙지도 하고, 우리 원 안이라고 해서 원 쌓아졌지.)

105006 @1 예, 예.(예, 예.)

105006 #4 원이라도. 경 허영 허영 허민 그 안네 돌만 일러도 조갱기 요만씩 한 거 부뎡 싣고 막 소라도 잇곡 해난디 이젠 씨가 었어.(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해서 하면 그 안의 돌만 일으켜도 오분재기 요만큼씩 한 거 붙어 있고 아주 소라도 있고 했었는데 이젠 씨가 없어.)

105006 @1 음.(음.)

105006 #5 하나토 그디 거 돌 시에서 왕 이레 똬쓰른 이레 똬쓰민 이레 똬쓰민 이레 똬쓰곡 하도 해 놓난.(하나도 거기 거 돌 제주시에서 와서 이리 뒤집으면 이리 뒤집으면 이리 뒤집으면 이리 뒤집곡 하도 해 놓으니까.)

105006 @1 으.(으.)

105006 #5 하 걸어 다니질 못허여. 궁글궁글 문딱 돌 뒤집어 놓난.(하 걸어 다니질 못해. 흔들흔들 몽땅 돌 뒤집어 놓으니까.)

105006 #4 뒤집어 놓난 그거 잡아나건 그대로 그 식으로 어퍼남시민 똬 건디.(뒤집어 놓으니까 그거 잡아나면 그대로 그 식으로 얹어 놓고 있으면 똬 건디.)

105006 @1 으.(으.)

105006 #4 일렁 떼영 기냥 내 불곡 내 불고 허난.(일으켜서 떼어서 이렇게 그냥 내 버리고 내 버리고 하니까.)

105006 #5 난 글로 물에 들레 가젠 허른 성가셔. 거 궁글궁글허른 어찌당 자빠 지른.(난 그리로 물에 들러 가려고 하면 성가셔. 거 흔들흔들하면 어찌다 쓰러지면.)

105006 @1 예, 큰일나잖아.(예, 큰일이잖아.)

105006 #5 계난 그레 가는 것이 잘도 싫어.(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 잘도 싫어.)

105007 @1 아, 계난 그 저 원담 넘영은에 가야 되는 거구나. 아직도 원담이 있어마씨?(아, 그러니까 그 저 ‘원담’ 넘어서 가야 되는 거구나. 아직도 ‘원담’이 있어요?)

105007 #5 으.(으.)

105007 @1 동글랑헤?(동그래.)

105007 #4 영.(이렇게.)

105007 @1 아.(아.)

105007 #5 봉그릇허게. 옛날에 그 원담³⁵³이 벨 뜨젠 옛날 어른덜 다운 거주게.(봉긋하게. 옛날에 그 ‘원담’이 멸치 뜨려고 옛날 어른들 쌓은 거지.)

105007 @1 으.(으.)

105007 #5 젠디 그 원 줄기가 있어.(그런데 그 원 줄기가 있어.)

105007 @1 계든 원담은 몇 개가 잇수가? 여기.(그러면 ‘원담’은 몇 개가 잇습니까? 여기.)

105007 #4 아니.(아니.)

105007 #5 두 군데지.(두 군데지.)

105007 @1 무슨 원, 무슨 원?(무슨 원, 무슨 원?)

105007 #5 죽은원³⁵⁴ 큰원³⁵⁵ 허주게.(‘죽은원’ ‘큰원’ 하지.)

105007 @1 아, 죽은원 큰원예?(아, ‘죽은원’ ‘큰원’요?)

105007 #5 으.(으.)

105007 #4 원담 다운 건 벨 들영 얼른 나가지 못허게 담을 다와난 생이라.(‘원담’ 쌓은 건 멸치 들어서 얼른 나가지 못허게 담을 쌓았던 모양이야.)

105007 #5 에와진 게 떠났지, 옛날은.(에워진 게 떴었지, 옛날은.)

105007 @1 요즘도 거기에 벨 듭니까?(요즘도 거기에 멸치 듭니까?)

105007 #5 어떤 때.(어떤 때.)

105007 @1 아.(아.)

105007 #4 어떤 땐 호갱이에 든 때가 셔난 생이라.(어떤 땐 웅덩이에 든 때가 있었던 모양이야.)

105007 @1 으.(으.)

105007 #4 이디 저 물싼 때 쫘은 까막여³⁵⁶라고 질게 싯주기계.(여기 저 물썰 때 쫘은 ‘까막여’라고 질게 있지.)

105007 @1 아.(아.)

105007 #4 그것 마라 까막여엔 허고.(그것보고 ‘까막여’라고 하고.)

105007 #5 진여³⁵⁷, 진여.(‘진여’, ‘진여’.)

353) ‘원담’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돌을 쌓아 만든 시설을 말한다.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썰물에 잡는다. 달리 ‘원’이라고도 한다.

354) ‘죽은원’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원 이름이다. ‘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붙은 이름이다.

355) ‘큰원’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원 이름이다. ‘작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356) ‘까막여’는 제주시 외도동 바다에 있는 여 이름이다. 여 모습이 까맣게 보여서 붙은 이름이다. 여가 길다고 해서 ‘진여’라고도 한다.

105007 #4 진여엔도 허곡 돌이 까망허니까 가막여엔도, 가막여엔도 허고 진여엔도 허고.(‘진여’라고도 하고 돌이 까마니까 ‘가막여’라고도, ‘가막여’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105007 @1 아, 진여. 여가 지니까. 여가.(아, ‘진여’. 여가 기니까. 여가.)

105007 #4 진여. 돌이 까망허니까 까망여.(‘진여’. 돌이 까마니까 ‘까막여’.)

105007 #5 개갯되 돌은 다 꺾으난 그던 워낙 길게 영 뺨쳐 이시난 진여.(바닷가 돌은 다 꺾으니까 거긴 워낙 길게 이렇게 뺨쳐 있으니까 ‘진여’.)

105007 @1 예, 그러면은 그 원에서 잡는 거는 멜만 들어?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예, 그러면은 그 원에서 잡는 거는 멸치만 들어?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

105007 #5 따른 거. 우리가 큰 후엔 못 봤어. 멜벳기.(다른 거. 우리가 큰 후엔 못 봤어. 멸치밖에.)

105007 #4 멜게.(멸치.)

105007 @1 멜, 원.(멸치, 원.)

105007 #4 다른 것도 들긴 들엄실 거라. 고기 ㄹ튼 거. 큰 고기도 들엄주마는 그런 거게.(다른 것도 들긴 들고 있을 거야. 고기 같은 거. 큰 고기도 들고 있지만 그런 거.)

105009 @1 계난 멜 잡을 땐 어떻게 잡았수가?(그러니까 멸치 잡을 땐 어떻게 잡았습니까?)

105009 #5 족바지.(뜰채.)

105009 @1 어.(어.)

105009 #5 멜 뜨는 족바지가 따로 잇지게. 은어 뜨는 거 말고.(멸치 뜨는 뜰채가 따로 있지. 은어 뜨는 거 말고.)

105009 @1 으.(으.)

105009 #5 족바지 집집마다 갯갯 어염덜은 잇어났어.(뜰채 집집마다 바닷가 옆에들은 있었었어.)

105009 @1 음.(음.)

105009 #5 그걸로 강 땡.(그걸로 가서 떠서.)

105009 @1 그 멜 들면 동네 사름덜이 왕 멜 들엇젠 허잖아예?(그 멸치 들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멸치 들었다고 하잖아요?)

105009 #5 으.(으.)

105009 @1 그거 흥번 굴아줘 봅서.(그거 한번 말해줘 보십시오.)

105009 #4 멜 들엇젠.(멸치 들었다고.)

105009 #5 멜이여, 멜이여 허지.(멸치야, 멸치야 하지.)

105009 #4 멜 들어서매 빨리 왕 잡으렌도 허고.(멸치 들었으니 빨리 와서 잡으라고도 하고.)

105009 #5 멜이여, 멜이여.(멸치야, 멸치야.)

357) ‘진여’는 제주시 외도동 바다에 있는 여 이름이다. 여가 길어서 붙은 이름이다. 달리 ‘까막여’라고도 한다.

- 105009 #4 친헌 찌레.(친한 끼리.)
- 105009 #5 막 소리치주게.(막 소리치지.)
- 105009 @1 예.(예.)
- 105009 #4 친헌 찌렌 다 곁아 주곡.(친한 끼리 다 말해 주고.)
- 105009 #5 동네 사름덜 알아들엉은에 나오주게.(동네 사람들 알아들어서 나오지.)
- 105009 @1 아.(아.)
- 105009 #4 멜 들언, 멜 들언.(멸치 들었어, 멸치 들었어.)
- 105009 #5 멜이여, 멜이여 허민 경 허곡.(멸치야, 멸치야 하면 그렇게 하고.)
- 105009 #4 멜.(멸치.)
- 105009 #5 혼자만 뜨민 욱해.(혼자만 뜨면 욱해.)
- 105009 @1 예.(예.)
- 105009 #4 게난 멜이여, 멜이여 막 소리쳐야.(그러니까 멸치야, 멸치야 막 소리쳐야.)
- 105009 #4 이 웃동네렌 잘 못 오거든, 잡으레. 알지도 못허곡. 경 허믄 춤 구덕에 들렁 강.(이 윗동네는 잘 못 오거든, 잡으리.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참 바구니 들어서 가서.)
- 105009 #5 폴레 강.(팔러 가서.)
- 105009 #4 풀기도 허곡 친헌 딴 먹으렌 거려 주기도 허곡.(팔기도 하고 친한 덴 먹으라고 떠 주기도 하고.)
- 105009 @1 음, 게믄 이 알동네에서는 멜덜 행은에 정들.(음, 그러면 이 아랫동네에서는 멸치들 해서 저서들.)
- 105009 #4 이딴 바당이 가까우니까 다 알아도 저 웃동넨 잘 모르주게. 한질동넨³⁵⁸ 잘 몰라.(여긴 바다가 가까우니까 다 알아도 저 윗동넨 잘 모르지. ‘한질동넨’ 잘 몰라.)
- 105008 @1 예, 그치록 허영은에 허고. 이 게믄 원³⁵⁹ 해 갖고 허면 허물어지잖아예?(예, 그처럼 해서 하고. 이 그러면 ‘원’ 해 갖고 하면 허물어지잖아요?)
- 105008 #5 으.(으.)
- 105008 @1 게믄 그거?(그러면 그거?)
- 105008 #5 보술 못헨 그냥 있어.(보술 못해서 그냥 있어.)
- 105008 @1 으, 지금은 못헨 거잖아예.(으, 지금은 못한 거잖아요.)
- 105008 #5 으.(으.)
- 105008 @1 옛날에는 그 원 보수는 언제 허여?(옛날에는 그 ‘원’ 보수는 언제 해?)
- 105008 #5 일 년에 혼 번 다 보술 헛덴.(일 년에 한 번 다 보술 했다고.)

358) ‘한질동네’는 큰길이 있는 동네를 말한다. 여기에서 ‘한질’은 ‘한길’, 즉 ‘큰길’을 말한다.

359) ‘원’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돌을 쌓아 만든 시설을 말한다.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썰물에 잡는다. 돌을 쌓아 만들기 때문에 ‘원담’이라고도 한다.

105008 @1 으.(으.)

105008 #5 옛날은 그걸. 경 해신디 이젠 그걸 누가 할 사람이 었넨.(옛날은 그걸. 그렇게 했는데 이젠 그걸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

105008 @1 으.(으.)

105008 #4 이젠 그런 건 엇고 뵈으로 알지도 아녀.(이젠 그런 건 없고 뵈으로 알지도 않야.)

105008 #5 그 원담으로 다왔던 돌들을 이레 그 원담으로 다왔던 그 돌이 다 툇이 나.(그 ‘원담’으로 썸았던 돌들을 이레 그 ‘원담’으로 썸았던 그 돌이 다 툇이 나.)

105008 @1 으.(으.)

105008 #5 쟈디 이 쟈으레 온 사름덜은 그걸 다 뒤집어 불어.(그런데 이 쟈으러 온 사름들은 그걸 다 뒤집어 버려.)

105008 @1 으.(으.)

105008 #5 게니까 툇은 뒤집으믄 썸이거든.(그러니까 툇은 뒤집으면 썸이거든.)

105008 @1 으.(으.)

105008 #5 발이 죽어 불어.(뿌리가 죽어 버려.)

105008 @1 예.(예.)

105008 #5 게난 툇이 막 줄어 불엇거든.(그러니까 툇이 아주 줄어 버렸거든.)

105008 @1 그 원에 거기에?(그 ‘원’에 거기에?)

105008 #5 으, 그 원담에서 툇이 많이 나거든.(으, 그 ‘원담’에서 툇이 많이 나거든.)

105008 @1 예.(예.)

105008 #4 뒤집어 부난.(뒤집어 버리니까.)

105008 #5 그때만 해도 백 오십 푸대씩 헷던 거 이젠 쓰무 개.(그때만 해도 백 오십 부대씩 헷던 거 이젠 스무 개.)

105008 #4 웃음.(웃음.)

105008 @1 아.(아.)

105008 #5 다 비어가 불곡.(다 베어가 버리고.)

105008 @1 비어가 불고예? 그다음에 그 그다음 뵈은 원담 말고 다른 식으로도 쟈아봤수가?(베어가 버리고요? 그다음에 그 그다음 뵈치는 ‘원담’ 말고 다른 식으로도 쟈아봤습니까?)

105008 #5 이 바위틈에 물 고여 잇는 디 그런 디.(이 바위틈에 물이 고여 잇는 데 그런 데.)

105008 @1 으.(으.)

105008 #5 지금도 그거는 가끔씩 잇어.(지금도 그거는 가끔씩 잇어.)

105008 #4 절 잘락 지치민 탁 박아, 박쳐 불민.(과도 잘락 끼엇으면 탁 부딪쳐, 부딪쳐 버리면.)

105008 #5 물든 때 그게 무사 가에가 오느냐 허면.(물밀 때 그게 왜 가에 오느냐 하면.)

105008 #4 싹 물이 내려가 불민 ㄴ치 내려가지 못한 거.(싹 물이 내려가 버리면 같이 내려가지 못한 거.)

105008 #5 그 멜 잡아먹는 고기가.(그 멸치 잡아먹는 고기가.)

105008 @1 예.(예.)

105008 #5 멜을 잡아먹을라고 막 따돌리면 급헌 절에 들어온 거야. 물든 때.(멸치를 잡아먹으려고 막 따돌리면 급한 김에 들어온 거야. 물밀 때.)

105008 @1 음.(음.)

105008 #5 아니른 멜베가 다녀가른 겁이 나서 지네가 도망친다고 헌 게 물든 때 그 돌에 고인 물에 오는 거라.(아니면 ‘멸치배’가 다녀가면 겁이 나서 지네가 도망친다고 한 게 물밀 때 그 돌에 고인 물에 오는 거야.)

105008 @1 음, 그게 호갱이우파?(음, 그게 웅덩이입니까?)

105008 #5 으.(으.)

105008 @1 물 고인 디가 으.(물 고인 데가 으.)

105008 #5 으, 돌호갱이³⁶⁰.(으, ‘돌웅덩이’.)

105008 @1 돌호갱이. 게문 돌호갱이에 거는 강 어떤 식으로 잡는 거?(‘돌웅덩이’. 그러면 ‘돌웅덩이’에 거는 가서 어떤 식으로 잡는 거?)

105008 #5 그것도 족바지로도 뜨고 작은 거에 건 차룽으로도 강 건지곡 막.(그것도 뜰채로도 뜨고 작은 거에 건 채룽으로도 가서 건지고 막.)

105008 @1 예.(예.)

105008 #5 차룽 아정강 건져단. 요번에도 차룽으로 건전 짓 담안 놔뒀어, 이제.(채룽 가져가서 건졌다가. 요번에도 채룽으로 건져서 짓 담가서 놔뒀어, 이제.)

105008 #4 영 허영 지쳐 불민 손으로도 강 줍고.(이렇게 해서 지쳐 버리면 손으로도 가서 줍고.)

105008 @1 아.(아.)

105008 #4 손으로도 주워져.(손으로도 주워져.)

105008 @1 여기 다 저 바당이난예?(여기 다 저 바다니까요?)

105008 #5 거 멜이 성질이 급헌 거라.(거 멸치가 성질이 급한 거야.)

105008 @1 어.(어.)

105008 #5 성질이 급헌 거라. 막 지네 냥으로 죽어, 죽어.(성질이 급한 거야. 막 저 대로 죽어, 죽어.)

105008 @1 음.(음.)

105008 #5 성질이 급허연.(성질이 급해서.)

105008 #4 잘락 지쳐 불민.(잘락 지쳐 불민.)

105008 #5 *** 막 담고망에도 잔뜩 담아지곡 경.(*** 막 담구멍에도 잔뜩 담아

360) ‘돌호갱이’는 주변이 돌로 둘러싸인 웅덩이를 말한다.

지고 그렇게.)

105008 @1 어, 그렇구나. 그 멜도 튀김 같은 것은 참 맛있는데.(어, 그렇구나. 그 멸치도 튀김 같은 것은 참 맛있는데.)

105008 #5 으.(으.)

105008 #4 아이고, 맛 좋주게.(아이고, 맛 좋지.)

105008 #5 튀김 허여.(튀김 해.)

105011 @1 예, 여기에는 꿩기 같은 거는 옛날 낚시들 허잖아예?(예, 여기에는 고기 같은 거는 옛날 낚시들 하잖아요?)

105011 #5 으.(으.)

105011 @1 케민 어떤 꿩기덜 나까신고예?(그러면 어떤 고기들 낚았는가요?)

105011 #5 고등어, 갈치.(고등어, 갈치.)

105011 @1 으.(으.)

105011 #5 그런 거, 생성 나끄곡.(그런 거, 옥돔 낚고.)

105010 @1 으, 아 여기, 이 바당에도 생선 나?(으, 아 여기, 이 바다에도 옥돔 나?)

105010 #5 으.(으.)

105010 @1 어.(어.)

105010 #5 이 바당에 건 저 난바당에 거 닻지 아녕 좀 좋아. 즐긴 헤도 맛이 틀리덴.(이 바다에 건 저 난바다에 거 같지 않아서 좀 잘아. 잘긴 헤도 맛이 다르다 고.)

105010 #4 애월³⁶¹로 서드렌 맛이 엇넨 허여.(애월로 서론 맛이 없다고 해.)

105010 @1 아.(아.)

105010 #4 애월로.(애월로.)

105010 @1 예.(예.)

105010 #4 애월로 이렌 경 막 ㄴ쁜 고기라도 맛 좋곡 허덴.(애월로 이렌 경 막 ㄴ쁜 고기라도 맛 좋곡 허덴.)

105010 #5 그디 건 크기는 막 커.(거기 건 크기는 아주 커.)

105010 @1 예.(예.)

105010 #5 경 허여도 맛이 아니엔 이.(경 허여도 맛이 아니엔 이.)

105010 #4 경 허난.(그렇게 하니까.)

105010 #5 이 앞바다에는.(이 앞바다에는.)

105010 #4 애월로.(애월로.)

105010 #5 작아도 맛이 잇곡.(작아도 맛이 있고.)

105010 #4 서르레 고긴 잘 알아주지 아녀. ㄴ쁜 까격이라도 큰 거주마는 죽은 걸 사.(서론 고긴 잘 알아주지 않아. 같은 가격이라도 큰 거지만 작은 걸 사.)

105010 @1 아.(아.)

361)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를 말한다.

105010 #4 아는 사람은.(아는 사람은.)

105010 @1 아는 사람은예? 맛이 여기.(아는 사람은요? 맛이 여기.)

105010 #5 모르는 사람은 큰 거. 지금도 큰 거 허주마는, 아는 사람은 이 앞바다에서 난 건 알아지주기.(모르는 사람은 큰 거. 지금도 큰 거 하지만, 아는 사람은 이 앞바다에서 난 건 알아지지.)

105010 @1 아아. 것도 거난 알아야 되는 거라. 요즘도 게문 그.(아아. 것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요즘도 그러면 그.)

105010 #4 으.(으.)

105010 @1 생선 잡는 사람 잇구나.(옥돔 잡는 사람 잇구나.)

105010 #5 으, 잇어.(으, 잇어.)

105010 @1 아.(아.)

105010 #5 이젠 주눅으로 잡암지.(이젠 주눅으로 잡고 있지.)

105010 #4 주눅하고 낮의덜 강.(주눅하고 낮에들 가서.)

105010 #5 주눅. 주눅으로 잡암지. 이젠 나끄는 사람은 엇고게. 생선 나끄는 사람. 우리 아버지네만 해도 생선 나끄레 다녔거든.(주눅. 주눅으로 잡고 있지. 이젠 낚는 사람은 없고. 옥돔 낚는 사람. 우리 아버지네만 해도 옥돔 낚으러 다녔거든.)

105010 @1 으.(으.)

105010 #5 겐디 이제는 그거 허는 사람은 없고.(그런데 이제는 그거 하는 사람은 없고.)

105010 @1 생선 나끌 때는.(옥돔 낚을 때는.)

105010 #5 주눅.(주눅.)

105010 @1 어떤 걸로 나끄는 거라?(어떤 걸로 낚는 거야?)

105010 #5 낚시로.(낚시로.)

105010 @1 낚시로. 이 옛날에는 낚되서, 낚되서 이제 그 춤대?(낚시로. 이 옛날에는 가에서, 가에서 이제 그 낚싯대?)

105010 #5 낚시줄 허는 거.(낚시줄 하는 거.)

105010 @1 그건?(그건?)

105010 #5 그거는 대개 그 지금이지예, 미역치 나끌 때.(그거는 대개 그 지금이지요, 미역치 낚을 때.)

105010 #4 메역치 가을에.(미역치 가을에.)

105010 #5 으, 이때.(으, 이때.)

105010 @1 으.(으.)

105010 #5 이때 미역치가 보문 바위틈에 막 때로 잇거든.(이때 미역치가 보문 바위틈에 막 때로 잇거든.)

105010 @1 예.(예.)

105010 #5 게문 그 고명덜 잘 알아. 낚시허는 사람덜이. 그 사는 구멍을. 그 고명에 왕 줄 대영 앓아시민 나깡 그거 이 가을엔 많이덜 잡앗지, 그거.(그러면 그 구

명들 잘 알아.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는 구멍을. 그 구멍에 와서 줄 대서 앉아있으면 낚아서 그거 이 가을엔 많이들 잡았지, 그거.)

105010 @1 미역치?(미역치?)

105010 #5 으.(으.)

105010 #4 미역치로 잇다근에 그 영 낙싯대 닳은.(미역치로 이따금 그 이렇게 낚싯대 닳은.)

105010 #5 걸로 쏘으른 혼이 나곡.(걸로 쏘이면 혼이 나고.)

105010 #4 손이라도 그 까시로 쏘으른 아이고 우리 집윗 아방³⁶²)도 옛날 경 허연 쏘아불언 오란 와들랑와들랑³⁶³) 들력퀴는디 아이고 볼 나위 웃언게.(손이라도 그 가시로 쏘이면 아이고, 우리 집의 아버지도 옛날 그렇게 해서 쏘아 버려서 와서 ‘와들랑와들랑’ 날뛰는데 아이고 볼 나위 없던데.)

105010 #5 저 바다에서나 솔치.(저 바다에서나 쭈기미.)

105010 @1 예.(예.)

105010 #5 솔치나 마찬가지로, 그 독이.(쭈기미나 마찬가지로, 그 독이.)

105010 #4 마찬가지로. 경 허난 것도이 물들어 가난 그것도 녹연.(마찬가지. 그렇게 하나까 것도 물밀어 가니까 그것도 녹여서.)

105010 @1 아.(아.)

105010 #5 아니 든물에 쏘이른 든물 돼도록 기다려야 돼고 썬물에 쏘으른 썬물 돼도록 기다리곡 옛날 어른덜 경 헛덴.(아니 밀물에 쏘이면 밀물 되도록 기다려야 되고 썰물에 쏘이면 썰물 되도록 기다리고 옛날 어른들 그렇게 했다고.)

105010 #4 막 경 헤연 들력퀴단 누게가 오란 아이고 물 들어가사 녹일 건디 녹일 건디 경 헤여서게.(막 그렇게 해서 날뛰다가 누가 와서 아이고 물밀어가야 녹일 건데 녹일 건데 그렇게 했어.)

105010 @1 아.(아.)

105010 #4 경 헤연게 물들어 가난 쭈 녹연게.(그렇게 해서 물밀어 가니까 쭈 녹였어.)

105010 @1 아, 그 미역치가 경 허는 거예?(아, 그 미역치가 그렇게 하는 거요?)

105010 #5 으, 거 독헌 거.(으, 거 독한 거.)

105010 @1 아까, 아까 삼춘 뭐? 물들 때 쏘은 거, 다시 한 번 곶아 볍서.(아까, 아까 삼춘 뭐? 물밀 때 쏘는 거, 다시 한 번 말해 보십시오.)

105010 #5 물쌀 때 쏘은 거는 따시 그 물이 들엇당 싸가야 녹이곡.(물쌀 때 쏘는 거는 다시 그 물이 밀었다가 썰어야 녹이고.)

105010 @1 으.(으.)

105010 #5 물이 들 때 쏘은 건.(물이 밀 때 쏘는 건.)

105010 #4 물이 들어야.(물이 밀어야.)

362) 여기에서 ‘아방’은 아이 아버지, 즉 남편의 의미로 쓰였다.

363) ‘와들랑와들랑’은 아파서 날뛰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105010 #5 그 물이 씻당 또 들어가야.(그 물이 씻다가 또 들어가야.)

105010 @1 녹이고.(녹이고.)

105010 #5 거 경 허는 거.(거 그렇게 하는 거.)

105010 @1 거는 솔치나 메역치나 똑ㄹ타?(거는 쭈기미나 미역치나 똑같아?)

105010 #5 으, 경 헌덴 허여.(으, 그렇게 한다고 해.)

105010 @1 아, 그다음에.(아, 그다음에.)

105010 #5 그게 확실헌 지는 몰라게. 젠디 그게 경 허믄 쭈 녹이는 모양이라.
(그게 확실한 지는 몰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쭈 녹이는 모양이야.)

105010 @1 으.(으.)

105010 #4 경 허여. 우리 집의 우리 *** 집이. ***.(그렇게 해. 우리 집의 우리 *** 집이. ***)

105010 #5 난 쏘아보지. 난 쏘아도 어떻 안 험디다.(난 쏘여보지. 난 쏘여도 어떻게 안 험디다.)

105010 #4 그 메역치 허연 영 낙시 영 떼단야 콧 쏘으난 아이고.(그 미역치 해서 이렇게 낚시 이렇게 떼다가 콧 쏘이니까 아이고.)

105010 #5 난 솔칠 발로 블라봤거든.(난 쭈기밀 발로 밟아봤거든.)

105010 @1 으.(으.)

105010 #4 와들랑와들랑 들럭귀고이.(‘와들랑와들랑’ 날뛰고.)

105010 #5 그거 영 불르난이 등가시 허영 발에 꿰전 나오난 할아버지가 그거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연 그걸 불에 구원이 나ㄹ라 그거 고기 다 먹으렌. 젠 또 솔치 고기 또 맛있어.(그거 이렇게 밟으니까 등지느러미 해서 발에 꿰어져서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이리 오라, 이리 오라 해서 그걸 불에 구워서 나보고 그거 고기 다 먹으라고. 그래서 또 쭈기미 고기 또 맛있어.)

105010 @1 어.(어.)

105010 #5 젠 그걸 다 먹었어. 게 아무충도 아녀더라고.(그래서 그걸 다 먹었어. 그래 아무렁지도 았더라고.)

105010 @1 아. 먹어 불언.(아, 먹어 버렸어.)

105010 #5 피는 줄줄 날뿐 헤도.(피는 줄줄 날뿐 헤도.)

105010 @1 아.(아.)

105010 #5 거 여러 개 가시가 영 웬 거잖아.(거 여러 개 가시가 이렇게 된 거잖아.)

105010 @1 으.(으.)

105010 #5 게난 영 불르난 여러 군데 발바닥에서 피가 낫거든. 맨발이고 허니까.(그러니까 이렇게 밟으니까 여러 군데 발바닥에서 피가 낫거든. 맨발이고 하니까.)

105010 @1 예.(예.)

105010 #5 건디 구원 먹으난산디 아무렁지도 았대.(그런데 구워서 먹어서인지

아무렇지도 않대.)

105010 @1 썩 먹어 불면 돼는구나.(구워서 먹어 버리면 되는구나.)

105010 #5 몰라. 계난 할아버지가 경 허더라고.(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고.)

105010 #4 그것이 죽어 부니까.(그것이 죽어 버리니까.)

105010 @1 으.(으.)

105010 #4 독이 없는 거지.(독이 없는 거지.)

105010 #5 몰라. 어떻게 해신디 할아버지가.(몰라. 어떻게야 했는지 할아버지가.)

105010 #4 죽어 부니까 독이 엇인 거.(죽어 버리니까 독이 없는 거.)

105010 #5 나 딸 이레 오라, 나 딸 이레 오라 해연 그거 심언이 불에 구워 이 고기 다 먹으라, 먹으라 허연 먹으니까 아, 맛도 좋더라고 그때.(내 딸 이리 오라, 네 딸 이리 오라 해서 그거 잡아서 불에 구워서 이 고기 다 먹어라, 먹어라 해서 먹으니까 아, 맛도 좋더라고 그때.)

105010 @1 으.(으.)

105010 #5 지금도 솔치는 비싸.(지금도 쭈기미는 비싸.)

105010 @1 예.(예.)

105010 #5 지금도 그거 봐지민 조레기³⁶⁴ 아정강 등그려단 이만 원 만팔천 원 쥐, 죽아도.(지금도 그거 보이면 ‘조레기’ 가져가서 굴러다가 이만 원 만팔천 원 쥐, 작아도.)

105010 #4 경 허난 솔치우럭. 등짝이 괄작.(그렇게 하니까 ‘솔치우럭’. 등짝이 곧게)

105010 #5 위협이 느끼민 그냥 그 영 헛단 것이 짝 영 돼주게.(위협이 느끼면 그냥 그 이렇게 했던 것이 짝 이렇게 되지.)

105010 @1 으.(으.)

105010 #5 사람이 가나 뭐가.(사람이 가나 뭐가.)

105010 #4 영 흐뎡 건드리기만 해도 경 허여.(이렇게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그렇게 해.)

105010 #5 지 해가 뿔 거 눈 텅 눈으로 봐. 눈으로 뺑.(저 해가 뿔 거 눈 떠서 눈으로 봐. 눈으로 봐서.)

105010 #4 웃음.(웃음.)

105010 #5 사름 가나 어떻 허든 짝 세우메, 지금도.(사람 가나 어떻게 하면 짝 세워, 지금도.)

105010 @1 아, 솔치예? 계난 그 솔치가 솔치우럭이우파?(아, 쭈기미요? 그러니까 그 쭈기미가 ‘솔치우럭’입니까?)

105010 #4 솔치우럭³⁶⁵.(‘솔치우럭’.)

364) ‘조레기’는 그물로 짚 작은 주머니를 말한다.

105010 #5 솔치, 솔치.(쭈기미, 쭈기미.)

105010 #4 것도 우럭 닮은 건디 그 가시가 이렇게 허니까 솔치우럭.(것도 우럭 닮은 건디 그 가시가 이렇게 하니까 ‘솔치우럭’.)

105010 @1 예.(예.)

105010 #5 거 솔치하고 솔치우럭은 틀려.(거 쭈기미하고 ‘솔치우럭’은 달라.)

105010 @1 아, 거는 틀려예?(아, 거는 달라요?)

105010 #5 우럭이 저 솔치 그치 생긴 것이 있어. 얼룩얼룩헌 게.(우럭이 저 쭈기미 같이 생긴 것이 있어. 얼룩얼룩한 게.)

105010 @1 음. 게든 또 옛날 이 고생이덜 이런 거 나끄는 거는?(음. 그러면 또 옛날 이 고생놀래기들 이런 거 낚는 거는?)

105010 #5 그것덜은 여름에덜게.(그것들은 여름에들.)

105010 @1 예.(예.)

105010 #5 막 그 뭐 세월 나끈텐 허나 뭐 그런 사름덜.(막 그 뭐 세월 낚는다고 하나 뭐 그런 사람들.)

105010 @1 건 세월 나끈텐 험니까?(건 세월 낚는다고 험니까?)

105010 #5 벌이론, 벌이론 안 되고게.(벌이론, 벌이론 안 되고.)

105010 #4 존존헌 거 오랑게 취미 상.(자잘한 거 와서들 취미 상.)

105010 @1 으.(으.)

105010 #4 지금도 낙시 들렁 이 아래 오랑덜 막.(지금도 낚시 들고 이 아래 와서들 막.)

105010 #5 여름에덜은 나끄메. 코생이 나끄레 왕.(여름에는 낚아. 고생놀래기 낚으러 와서.)

105010 @1 으, 게든 여름에 그치록 험 춤대 행은에 허는 걸 아이들 해난 거는 어떤 거 나까. 코생이허고.(으, 그러면 여름에 그처럼 해서 낚싯대 해서 하는 걸 아이들 했던 거는 어떤 거 낚아. 고생놀래기하고.)

105010 #5 그거주게. 고생이. 맥진다리³⁶⁶ 그런 거.(그거지. 고생놀래기. ‘맥진다리’ 그런 거.)

105010 @1 으.(으.)

105010 #4 맥진다리엔 헌 건 배가 빨락허난 맥진다리엔 허는 생이라.(‘맥진다리’라고 한 건 배가 빨락하니까 ‘맥진다리’라고 하는 모양이야.)

105010 #5 아니. 거 허안헌 거라. 우리 물에 들어보민이 영 헌 디 잊지 아녀우파? 돌 틈에, 툇 들어넣 그만이 눈만 펄롱펄롱허영 이시메. 옛날 어른덜 잘도 알았어. 맥진다리 그치록 앓암둬서.(아니. 거 희한한 거야. 우리 물에 들어보면 이렇게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돌 틈에, 툇 들어놔서 가만히 눈만 깜박깜박해서 있어. 옛날 어른들 잘도 알았어. ‘맥진다리’처럼 앓아두고서.)

365) ‘솔치우럭’은 우럭의 일종이다. ‘솔치’ 즉 쭈기미와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366) ‘맥진다리’는 어렁놀래기의 암컷을 말한다.

105010 #4 경 허난 아이덜.(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105010 @1 으.(으.)

105010 #4 밥만 흐뎡 하영 먹어, 하영 먹어도 아이고 맥진다리ㄴ치 앓아둡서.
(밥만 조금 많이 먹어, 많이 먹어도 아이고 ‘맥진다리’처럼 앓아두고서.)

105010 #5 처떡영 ㄴ만이 앓암젠.(처떡어서 가만히 앓아 있다고.)

105010 #4 밥만 처떡으라. 경.(밥만 처떡어라, 그렇게.)

105010 @1 아.(아.)

105010 #5 그것이어.(그것이.)

105010 #4 경. 봐나지도 아녀도 그런 말이 나.(그렇게. 봤었지 앓아도 그런 말이 나.)

105010 #5 어른덜이 그 말을 허여. 맥진다리ㄴ치룩 앓아둡서. 경 헌덴 헌디 우리 물에 들영 보문이 춤 영헌 디어.(어른들이 그 말을 해. ‘맥진다리’처럼 앓아두고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물에 들어서 보면 참 이런 데.)

105010 @1 으.(으.)

105010 #5 영 톡 부텅이 ㄴ만이 눈만 말뚱말뚱 행 잇는 것이 있어, 게난.(이렇게 톡 붙어서 가만히 말뚱말뚱 해서 잇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105010 @1 으.(으.)

105010 #5 아이고, 옛날 어른들 잘도 알았네. 윈 저걸 어떻 허연 알아신고?(아이고, 옛날 어른들 잘도 알았네. 윈 저걸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105010 @1 그치룩 허연 앓안 잇어예?(그렇게 해서 앓아서 있다고요?)

105010 #5 경 허영 잇는 것이 있어.(그렇게 해서 잇는 것이 있어.)

105010 @1 아.(아.)

105010 #5 맥진다리엔 헌 것이. 배가 뿔룩헌 게 아이라.(‘맥진다리’라고 한 것이. 배가 뿔룩한 게 아니야.)

105010 @1 으.(으.)

105010 #5 고기에 찜, 찜, 찜, 찜 찍어졌어.(고기에 찜, 찜, 찜, 찜 찍어졌어.)

105010 @1 으.(으.)

105010 #5 줍쌀 같은 찜. 똑 똑 똑 똑 찍어졌어.(줍쌀 같은 찜. 똑 똑 똑 똑 찍어졌어.)

105010 #4 요즘은 먹으라, 먹으라 스뎡 안 먹엄젠 막 부모덜이 허는다. 옛날은 게 먹젠만 보리밥이라도 배부르 먹젠만 맥진다리ㄴ찌 밥만 드렌 아념 시민 좋으켜, 경도 허곡.(요즘은 먹으라, 먹으라 사뎡 안 먹고 있다고 막 부모들이 하는데. 옛날은 먹으려고만 보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려고만 ‘맥진다리’처럼 밥만 달라고 앓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하고.)

105010 @1 아, 게난 먹으난 배가 뿔롱허니까 그렇구나.(아, 그러니까 먹으니까 배가 뿔롱허니까 그렇구나.)

105010 #5 배가 뿔롱허고 또.(배가 뿔롱하고 또.)

105010 #4 보리밥이난 옛날이.(보리밥이니까 옛날.)

105010 #5 활동을 많이 아녀, 그계.(활동을 많이 았아, 그계.)

105010 @1 아.(아.)

105010 #5 경 허난 경 앓아둬서 맥진다리ㄴ짜.(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앓아두고서 ‘맥진다리’처럼.)

105010 @1 으, 계난 사람들이 바당에서 강 그걸 다 보난 그 말 비유해 갖고 예?(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에서 가서 그걸 다 보니까 그 말 비유해 갖고요?)

105010 #5 옛날 해녀들이 알앙 굴으니까 그 말이 전해오는 생이라. 흐뎡 허민 맥진다리ㄴ짜 앓아둬서, 경.(옛날 해녀들이 앓아서 말하니까 그 말이 전해오는 모양 이야 조금 하면 ‘맥진다리’처럼 앓아두고서, 그렇게.)

105011 @1 음, 기구나. 그다음엔예, 그 낚시 허젠 허면 낙싯대, 여긴 낙싯대를 뉘렌 헛수가?(음, 그렇구나. 그다음에는요, 그 낚시 하려고 하면 낚싯대, 여긴 낚싯대를 뉘라고 했습니까?)

105011 #5 낙싯대 낙시.(낙싯대 낚시.)

105011 #4 춤대.(낙싯대.)

105011 #5 춤대.(낙싯대.)

105011 @1 춤대. 낙싯줄은 뉘렌 헤?(낙싯대. 낚싯줄은 뉘라고 해?)

105011 #5 줄은 뉘엔 헤신고.(줄은 뉘라고 했는가.)

105011 #4 낙시, 낙시 이신 거. 그 뉘엔.(낚시, 낚시 있는 거. 그 무엇이라고.)

105011 #5 줄.(줄.)

105011 #4 아니, 게메.(아니, 글썸.)

105011 #5 아이, 그 도새기 피 헤영 막 뉘여근앵에 그거 낡 쩡은에 허든 그계 버썸허거든.(아니, 그 돼지 피 해서 막 뉘여서 그거 뉘서 썸서 하면 그계 뉘뉘허거든.)

105011 @1 음.(음.)

105011 #4 노술³⁶⁷. 노술.(‘노술’. ‘노술’.)

105011 @1 으.(으.)

105011 #4 노술로 영 메영은앵에.(‘노술’로 이렇게 매서.)

105011 #5 노술로. 그냥 저 면으로 뉘 줄인다.(‘노술’로. 그냥 저 면으로 뉘 줄인데.)

105011 @1 예.(예.)

105011 #5 그거에다가 뉘지 피.(그거에다가 돼지 피.)

105011 @1 예.(예.)

105011 #5 그거 막 문혀 가지고 그걸 말려.(그거 막 문혀 가지고 그걸 말려.)

105011 @1 으.(으.)

105011 #4 말령은에 이제 썸디 낡 떡 치듯이 쳐.(말려서 이제 술에 뉘서 떡 썸

367) ‘노술’은 낚싯줄의 의미로 쓰였다.

듯이 썬.)

105011 @1 으.(으.)

105011 #4 게문 그 줄이 엉키질 아녀. 사락사락허영.(그러면 그 줄이 엉키질 않아. 사락사락해서.)

105011 @1 아.(아.)

105011 #4 사룩사룩허영이 엉키질 안허여. 경 허영 만들영 쓰더라고.(사룩사룩해서 엉키질 않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더라고.)

105011 @1 으.(으.)

105011 #5 이 먼바당엔 낚시 허는 건 그 줄로 허고, 우리 아버지네는 배로 강 허니까 보문 그렇게 해서 만들더라고.(이 먼바다엔 가에서 낚시 하는 건 그 줄로 하고, 우리 아버지네는 배로 가서 하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더라고.)

105011 #4 그건 노슬로 헨 거게.(그건 ‘노슬’로 한 거.)

105011 #5 줄.(줄.)

105011 #4 노슬. 먼바당에 강 허는 거.(‘노슬’ 먼바다에 가서 하는 거.)

105011 @1 그런 식으로 허고예?(그런 식으로 하고요?)

105011 #5 그냥 노슬로 영경은영에 허지 못헌덴.(그냥 ‘노슬’로 영켜서 하지 못한다고.)

105011 #4 노슬로 영.(‘노슬’로 이렇게.)

105011 #5 게난 엉키지 아녀게 그렇게.(그러니까 엉키지 않게 그렇게.)

105011 #4 차례대로 줄을 낚 가. 우리 집의 아방도 바당에 텅겨나신디.(차례대로 줄을 놔서 가. 우리 집의 아버지도 바다에 다녔었는데.)

105011 #5 아니, 겐디 그거 돼지 피 허영 맥영 막 그걸 그 줄이 사룩사룩허영 영켜지지 아녀게 만들더라고.(아니, 그런데 그거 돼지 피 해서 먹여서 막 그걸 그 줄이 사룩사룩해서 엉키지 않게 만들더라고.)

105011 @1 음, 질기곡예. 경 해영 하고. 그다음에 낚시도 이제 그 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 트난덴 허멍예?(음, 질기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낚시도 이제 그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면서요?)

105011 #5 으, 으, 으.(으, 으, 으.)

105011 #4 딱나주게.(다르지.)

105011 #5 주낚시나 낚시가 틀리고 그냥 낚시가 틀리고 또.(주낚시나 낚시가 다르고 그냥 낚시가 다르고 또.)

105011 #4 고생이낚시 딱나고.(고생놀래기낚시 다르고.)

105011 #5 저 뭐냐? 건장낚시³⁶⁸라고.(저 뭐냐? ‘건장낚시’라고.)

105011 @1 예.(예.)

105011 #5 고등어 걸리는 것이 잇엇주게.(고등어 걸리는 것이 있었지.)

105011 @1 으.(으.)

368) ‘건장낚시’는 낚시의 한 종류다. 고등어 따위를 낚을 때 사용하는데, 줄여서 ‘건장’이라고도 한다.

105011 #5 건장낙시 그거는.(‘건장낙시’ 그거는.)

105011 #4 그건 혼 서너 개 낙시 영 허민 영 웬덴.(그건 혼 서너 개 낙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된다고.)

105011 #5 네 개, 네 개, 네 개 헤여근에 영 꺼꼴로 돌아메영은에.(네 개, 네 개, 네 개 해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105011 #4 그건 허른 영 허른.(그거 하면 이렇게 하면.)

105011 #5 그거 영 영 허른 고등어 떼 만나른 착 허른 걸려.(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등어 떼 만나면 착 하면 걸려.)

105011 #4 떼어 가든 영 영 허영 헤 가민 떼로 놀아텡기다도 걸리곡 경 헌덴.(떼어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가면 떼로 날아다니다가도 걸리고 그렇게 한다고.)

105011 @1 으, 게난 고등어는 걸리는 거구나. 건 건장낙시?(으, 그러니까 고등어는 걸리는 거군요. 건 ‘건장낙시’?)

105011 #5 거난 건장낙시.(그러니까 ‘건장낙시’.)

105011 @1 어.(어.)

105011 #5 나끄기도 허고 건장³⁶⁹으로도 허고.(낙기도 하고 ‘건장’으로도 하고.)

105011 @1 건장으로도 허고예. 게든 두 개 가정 가근에 ㄴ치 허는 거구나.(건장으로도 하고요. 그러면 두 개 가져서 가서 같이 하는 거군요.)

105011 #5 경 헤난 거.(그렇게 했던 거.)

105011 @1 게든 여기 오징에 같은 거도 나.(그러면 여기 오징어 같은 거도 나.)

105011 #5 으.(으.)

105011 #4 오징어 나.(오징어 나.)

105011 @1 오징에는 또 낙시가 트나덴 허명마씨?(오징어는 또 낙시가 다르다고 하면서요?)

105011 #5 으. 돛보³⁷⁰. 돛보낙시³⁷¹, 돛보.(으. ‘돛보’. ‘돛보낙시’, ‘돛보’.)

105011 #4 돛보낙시게. 영 허영 존존헌 낙시 영 허연 그 영 웨연게.(‘돛보낙시’. 이렇게 해서 자잘한 낙시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되었어.)

105011 @1 음, 거는 돛보낙시렌 허고예? 예.(음, 거는 ‘돛보낙시’라고 하고요? 예.)

105011 #4 돛보, 돛보낙신 옷도 입지더라.(‘돛보’, ‘돛보낙시’는 옷도 입히더라.)

105011 #5 어게.(어.)

105011 #4 옷 입져. 웃음. 옷 입져근영 허른 그.(옷 입혀. 웃음. 옷 입혀서 하면 그.)

105011 #5 옛날은 그냥 헤신디 그 여 꼭대기에는 낙시 영 영 이곁으로 웬 게 이렇게 허른 이거 영 낙시가 영 웰 거 아니라.(옛날은 그냥 했는데 그 여 꼭대기에

369) ‘건장’은 낙시의 한 종류다. 고등어 따위를 낚을 때 사용하는데, 제보자는 ‘건장낙시’라고도 하였다.

370) ‘돛보’는 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낙시다. 제보자는 달리 ‘돛보낙시’라고도 하였다.

371) ‘돛보낙시’는 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낙시다. 제보자는 줄여서 ‘돛보’라고도 하였다.

는 낚시 이렇게 이렇게 미끼로 된 게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낚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05011 @1 으.(으.)

105011 #5 영 허믄 요 주둥이엔 빨간 걸로 요렇게 허영 입히꼭. 요딘 하얗게. (이렇게 하면 요 주둥이엔 빨간 걸로 요렇게 해서 입히고. 여긴 하얗게.)

105011 @1 아.(아.)

105011 #4 그걸 빨강현 걸 그 미끼로 알앙 지네 먹는 밥으로 알아근앵에.(그걸 빨간 걸 그 미끼로 알아서 저들 먹는 밥으로 알아서.)

105011 #5 젠디 지금은 그게 다 만들어져 나오니까.(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만들어져 나오니까.)

105011 @1 예.(예.)

105011 #4 옛날은.(옛날은.)

105011 #5 지금은 다 만들어정 나와, 그게.(지금은 다 만들어져서 나와, 그게.)

105011 #4 옛날 우리 집윗 아방 뒤희 땀 그거 만들어난, 아이고.(옛날 우리 집의 아버지 뒤희 땀 그거 만들었던, 아이고.)

105011 #5 우리도 그거 허민 아버지 허믄 막 같이 그거.(우리도 그거 하면 아버지 하면 막 같이 그거.)

105011 #4 만들어난, 돛보낚시엔 허영 만들어난.(만들었었어, ‘돛보낚시’라고 해서 만들었었어.)

105011 @1 집의서 만들영예?(집에서 만들어서요?)

105011 #5 하얀 천으로 허연.(하얀 천으로 해서.)

105011 @1 아.(아.)

105011 #4 만들어난.(만들었었어.)

105011 #5 옥양목엔 현 거 광목인디 하얀 것이 있어. 광목 말고.(옥양목이라고 한 거 광목인데 하얀 것이 있어. 광목 말고.)

105011 @1 으.(으.)

105011 #5 완전히 하얀 거. 그거 떠다가 그걸로 만들어.(완전히 하얀 거. 그거 떠다가 그걸로 만들어.)

105011 @1 으, 낚시도 만들언 옛날 경 쓴 거라예?(으, 낚시도 만들어서 옛날 그렇게 쓴 거라고요?)

105011 #5 경 허여난.(그렇게 했었어.)

105011 @1 그다음에 뽕들은 어떤 걸로 쓰는 거우꽈?(그다음에 뽕들은 어떤 걸로 쓰는 겁니까?)

105011 #5 뽕돌.(뽕돌.)

105011 @1 으.(으.)

105011 #5 뽕돌도 갈치 나끄는 거 틀리고.(뽕돌도 갈치 낚는 거 다르고.)

105011 @1 으.(으.)

105011 #5 또 생성 나끄는 거 틀리곡.(또 옥돔 낚는 거 다르고.)
 105011 @1 으.(으.)
 105011 #4 크고 죽음에 가.(크고 작음에 가.)
 105011 #5 크고 작은 것이 잇주게.(크고 작은 것이 있지.)
 105011 @1 으.(으.)
 105011 #4 크고 죽음에 가.(크고 작음에 가.)
 105011 @1 크고 죽음에예? 예, 알았수다.(크고 작음에요? 예, 알았습니다.)
 105011 #5 이제는 그거 엇이 허더라. 옛날은 옷걸이치룩 영 생긴 것인 양 줄에 줄을 매니까 뽕돌을 여기 돌아매여.(이제는 그거 없이 하더라. 옛날은 옷걸이처럼 이렇게 생긴 것인 대로 줄에 줄을 매니까 뽕돌을 여기 매달아.)
 105011 @1 가운데예, 예.(가운데요, 예.)
 105011 #5 경 헤연 헤낫주게.(그렇게 해서 했었지.)
 105011 @1 계난 그 낚시는 무슨 낚시렌 헤?(그러니까 그 낚시는 무슨 낚시라고 해?)
 105011 #5 거 뭇 낚시엔 현 지 모르커라. 뽕돌이엔만 허난.(거 뭇 낚시라고 한 지 모르겠어. 뽕돌이라고만 하나까.)
 105011 @1 그 저기 갈치 나끄는 거?(그 저기 갈치 낚는 거?)
 105011 #4 갈치 나끄는 거.(갈치 낚는 거.)
 105011 #5 큰 거 영 주먹만이.(큰 거 이렇게 주먹만큼.)
 105011 #4 갈치낙시³⁷². 기냥 무신 낚시엔도 아녀고 기자 갈치낙시 경.(‘갈치낙시’. 그냥 무슨 낚시라고도 앓고 그저 ‘갈치낙시’ 그렇게.)
 105011 @1 마삭이렌 현 말 안 들어봅디까?(‘마삭’이라고 한 말 안 들어봅디까?)
 105011 #5 으.(으.)
 105011 @1 마삭?(‘마삭’?)
 105011 #5 마삭.(‘마삭’.)
 105011 @1 으.(으.)
 105011 #4 마삭이엔 말은 안 들언.(‘마삭’이라는 말은 안 들었어.)
 105011 @1 마삭은 안 허고 그냥 갈치낙시예. 으, 다른 데 가면은 마삭이렌 헨 계마는?(‘마삭’은 안 하고 그냥 ‘갈치낙시’요. 으, 다른 데 가면은 ‘마삭’이라고 하더 니만?)
 105011 #4 우린 갈치낙시엔.(우린 ‘갈치낙시’라고.)
 105011 @1 어, 쟁은에 낭으로 행은에 영 행은에 가운데 뽕돌 현 거예?(어, 그래서 나무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뽕돌 한 거요?)
 105011 #5 낭이 그냥 낭이 아니거든, 드렛줄.(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거든. 다래나무줄기.)
 105011 @1 드렛줄로 행예, 으.(다래나무줄기로 해서요, 으.)

372) ‘갈치낙시’는 갈치를 낚을 때 쓰는 낚시다.

105011 #5 으, 얼른 꺼꺼지지 아녀는 드렛줄.(으, 얼른 꺾어지지 않는 다래나무 줄기.)

105011 @1 아, 드렛줄로 행 허는 거. 그치록 헤영은에 하고. 삼촌, 이제 가면 소살로 꿰기도 쏘아봘?(아, 다래나무줄기로 해서 하는 거. 것처럼 해서 하고. 삼촌, 이제 가면 작살로 고기도 쏘아봘어요?)

105011 #5 음.(음.)

105011 @1 어떤 꿰기들 쏘아봘?(어떤 고기들 쏘아봘어요?)

105011 #4 지금도 쏘주게. 봐지기만 허민 쏘주게.(지금도 쏘지. 봐지기만 하면 쏘지요.)

105011 #5 광어 우럭 그런 거.(광어 우럭 그런 거.)

105011 @1 소살로 꿰기 잘 쏘는구나.(작살로 고기 잘 쏘는구나.)

105011 #4 봐지기만 허민 잘 쏘아.(봐지기만 하면 잘 쏘아.)

105011 #5 다음달, 다음달 뒤편은 그제 이 가에 왕 산란을 허는 모양이라.(다음 달, 다음달 되면 그제 이 가에 와서 산란을 하는 모양이야.)

105011 @1 으.(으.)

105011 #5 게민 다음달 뒤편 가민 그제 자주 봐져. 게민 소살 가정 다니주게. (그러면 다음 달 되어 가면 그제 자주 봐져. 그러면 소살 가져서 다니지.)

105011 @1 으, 게민 어떤, 주로 어떻 꿰기덜 하영 쏘아봘수가? 물질허멍?(으, 그러면 어떤, 주로 어떤 고기들 많이 쏘아봘습니까? 물질하면서?)

105011 #5 난 켈 그것가 많이, 광어.(난 켈 그것이 많이, 광어.)

105011 @1 광어?(광어?)

105011 #4 넓삭헌 거.(넓적한 거.)

105011 @1 예.(예.)

105011 #5 쏘기도 좋고.(쏘기도 좋고.)

105011 @1 아.(아.)

105011 #4 넓으니까 쏘기 좋암지. (웃음)(넓으니까 쏘기 좋지. (웃음))

105011 #5 쏘기도 좋아, 그제. 경 허민 횃집이 가져가민 사기도 허고게.(쏘기도 좋아, 그제. 그렇게 하면 횃집이 가져가면 사기도 하고.)

105011 @1 예, 자연산이니까.(예, 자연산이니까.)

105011 #5 으, 으.(으, 으.)

105012 @1 으, 게민 이 꿰기들, 옛날에 게민 해녀들이 주로 쏘오는 꿰기 어떤 것들?(으, 그러면 이 고기들, 옛날에 그러면 해녀들이 주로 쏘는 고기 어떤 것들?)

105012 #5 북바리.(북바리.)

105012 @1 으.(으.)

105012 #4 우럭 종류.(우럭 종류.)

105012 #5 갓돔.(감성돔.)

105012 #4 갓돔 ㄴ튼 거. 우럭계.(감성돔 같은 거. 우럭.)

105012 @1 음.(음.)

105012 #5 우럭 그거.(우럭 그거.)

105012 #4 우럭은.(우럭은.)

105012 @1 다 좋은 고기들이네.(다 좋은 고기들이네.)

105012 #4 여에 고망에 박아지고 경 허니까.(여에 구멍에 박히고 그렇게 하니까.)

105012 #5 아이고, 여름엔 탁 나얏앙 잇입니다, 우럭도.(아이고, 여름엔 탁 나얏아서 있습니다, 우럭도.)

105012 #4 우럭도.(우럭도.)

105012 #5 예.(예.)

105012 #4 웃음.(웃음.)

105012 #5 연애도 허여. 그거.(연애도 해. 그거.)

105012 #4 아이고, 참.(아이고, 참.)

105012 @1 아, 어떻 연애해?(아, 어떻게 연애해?)

105012 #5 우럭도 딱 영 혜영 입 맞추멍 허여, 우럭.(우럭도 딱 이렇게 해서 입 맞추면서 해, 우럭.)

105012 #4 연애허니까.(연애하니까.)

105012 #5 우럭 송악헌 거라. 다른 고기 허는 건 못 봐신디 우럭은 여러 번 봤어.(우럭 흉악한 거야. 다른 고기 하는 건 못 봤는데 우럭은 여러 번 봤어.)

105012 @1 아.(아.)

105012 #4 경 허니까 그, 그거 알을 베염주게.(그렇게 하니까 그, 그거 알을 베고 있지.)

105012 #5 뱅뱅뱅뱅 돌아댕기당이 그것이 아마 이디 잇는 것이 암컨 생이라이.(뱅뱅뱅뱅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아마 여기 잇는 것이 암컷인 모양이야.)

105012 @1 으.(으.)

105012 #5 막 영 영 영 강 돌아댕기당이 딱 강 입맞춤허곡 경 허더라고.(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돌아다니다가 딱 가서 입맞춤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105012 @1 어.(어.)

105012 #5 나 여러 번 봤, 그거.(나 여러 번 봤어, 그거.)

105012 @1 아, 예.(아, 예.)

105012 #5 아. 우럭 연애허는 거 **. (아. 우럭 연애하는 거 **.)

105012 #4 경 허니까 그거 알을 베는 거 아니게. 고기도게.(그렇게 하니까 그거 알을 베는 거 아닌가. 고기도.)

105012 @1 계난.(그러니까.)

105012 #5 몰라게, 어떻사 허는 건 몰라도.(몰라, 어떻게야 하는 건 몰라도.)

105012 #4 경 허는 거. 뭘 짐승이든지 경 아녕 번성허느냐?(그렇게 하는 거. 뭘 짐승이든지 그렇게 앓고 번성하느냐?)

105012 #5 그것은 몰르고.(그것은 모르고.)

105012 #4 뭇이든지 경 해야 번성되는 거지.(뭇이든지 그렇게 해야 번성되는 거지.)

105012 @1 케난 바당 소굽에 가면 희한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라예? 어떤 세상입디까? 그 바당속은?(그러니까 바다 속에 가면 희한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세상입디까? 그 바다 속은?)

105012 #5 어떤 세상이라, 물속이사. 물 뭐.(어떤 세상이야, 물속이야. 물 뭐.)

105012 @1 으.(으.)

105012 #5 벨다른 뭐가 있어?(별다른 뭐가 있어?)

105012 @1 막 그 저 구쟁이 이런 것들도 막 저기 놀아 땡긴덴 허명예?(막 그 저 소라 이런 것들도 막 저기 날아 다닌다고 하면서요?)

105012 #5 무신 놀아 땡겨?(무슨 날아 다녀?)

105012 #4 기어 땡겨. 기영.(기어 다녀. 기어서.)

105012 #5 기어 다니주게.(기어 다니지.)

105012 @1 기어 다녀?(기어 다녀?)

105012 #5 기어 다니주게.(기어 다니지.)

105012 #4 이녁 고망 좃앙 땡검실 테주게.(이녁 구멍 찾아서 다니고 있을 테지.)

105012 #5 먹을 거 좃앙 기어 다니는 거주게. 땡기당 감태.(먹을 거 찾아서 기어 다니는 거지. 다니다가 감태.)

105012 @1 으.(으.)

105012 #5 감태에 돌아정 먹꼭 그겨주게. 전복도 마찬가지로.(감태에 매달려서 먹고 그겨지. 전복도 마찬가지.)

105012 @1 전복도?(전복도?)

105012 #5 논다, 논다, 논는 게 아니.(난다, 난다, 나는 게 아니.)

105012 #4 논는 건.(나는 건.)

105012 #5 전복은 빠르주게.(전복은 빠르지.)

105012 @1 아.(아.)

105012 #5 잘잘잘잘잘 가. 소라는 경 못 가는디 몸 무거왕. 전복은 빨라.(잘잘잘잘잘 가. 소라는 그렇게 못 가는데 몸 무거워서. 전복은 빨라.)

105012 @1 아, 전복은 빠르구나.(아, 전복은 빠르구나.)

105012 #5 케니까 논다 논다 허는 거주.(그러니까 난다 난다 하는 거지.)

105012 #4 소란 뚜꺼와 부난 못 감구나.(소란 두꺼워 버리니까 못 가고 있구나.)

105012 #5 전복은 논텐 옛날 어른들은 전복 논다 논다 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빠르다 그 말이지.(전복은 난다고 옛날 어른들은 전복 난다 난다 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빠르다 그 말이지.)

105013 @1 으, 기지예? 그다음에 여기 켈깃베들은 어떤 켈깃베들 주로 있어마 씨?(으,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고깃배들은 어떤 고깃배들 주로 있어요?)

105013 #5 아이고, 옛날은게.(아이고, 옛날은.)

105013 #4 낙베도 셔낫고.(낙베도 있었고.)

105013 #5 낙, 낙베도 잇어낫고. 노 저영 다니는 낙베.(낙, 낙베도 있었었고. 노 저어서 다니는 낙베.)

105013 @1 예.(예.)

105013 #4 노 젓영.(노 저어서.)

105013 #5 노 저영 뎅기는 건 낙베.(노 저어서 다니는 건 낙베.)

105013 @1 으.(으.)

105013 #5 또 저 기계선은 저 뺏고 통통베.(또 저 기계선은 저 무엇이니 통통베.)

105013 @1 으.(음.)

105013 #5 (웃음) 통통베엔 해낫주, 그때.((웃음) 통통베라고 했었지, 그때.)

105013 @1 예.(예.)

105013 #5 기계 잇는 벤 통통베.(기계 잇는 벤 통통베.)

105013 @1 통통베.(통통베.)

105013 #4 이젠 낙베 엇어.(이젠 낙베 없어.)

105013 @1 이제는 낙베 엇고예?(이제는 낙베 없고요?)

105013 #5 낙베 엇고말고. 우리 아버지가 켈 말제꺼지 해연.(낙베 없고말고. 우리 아버지가 켈 말짜까지 했어.)

105013 #4 네 젓영 허는 거.(노 저어서 하는 거.)

105013 #5 데껴 붙엇저.(던져 버렸지.)

105013 #4 영 네 젓영 허는 것이 낙베디 이젠 거 엇어.(이렇게 노 저어서 하는 것이 낙베디 이젠 거 없어.)

105013 @1 게른 그 낙베도 돛도 돌아져마씨?(그러면 그 낙베도 돛도 달아졌어요?)

105013 #5 으. 돛댄 바람 이시민 돛 들양 브름으로 가지게.(으. 돛댄 바람 있으면 돛 달아서 바람으로 가지.)

105013 #4 브름으로. 브름 영 영 허민 빨라, 것도.(바람으로. 바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빨라, 것도.)

105013 #5 그때는 노 안 젓주게. 돛 들양 바람으로 가니까.(그때는 노 안 젓지. 돛 달아서 바람으로 가니까.)

105013 @1 예, 게른 돛 몇 개 돌아난?(예, 그러면 돛 몇 개 달았었어요?)

105013 #5 두 개.(두 개.)

105013 #4 두 개.(두 개.)

105013 #5 큰 거 작은 거 두 개.(큰 거 작은 거 두 개.)

105013 @1 으.(으.)

105013 #5 낙베엔 두 개.(낙베엔 두 개.)

105013 @1 낙배에는 두 개예? 계문 이제.(낙배에는 두 개요? 그러면 이제.)
 105013 #5 물속에도 가문.(물속에도 가면.)
 105013 @1 예.(예.)
 105013 #5 물풍³⁷³엔 흰 것이 있어. 물에 가문 그 물에 끌어가지 말렌.(‘물풍’이라고 한 것이 있어. 물에 가면 그 물에 끌어가지 말라고.)
 105013 @1 예.(예.)
 105013 #5 물 알러레 풍³⁷⁴을 쳐.(물 아래로 ‘풍’을 쳐.)
 105013 @1 예.(예.)
 105013 #5 경 허문 그 물을 좀 영 받아져서 배가 잘잘 흘러가지 아녀는 거.(그렇게 하면 그 물을 좀 이렇게 받아져서 배가 잘잘 흘러가지 않는 거.)
 105013 @1 어.(어.)
 105013 #5 물속에도 풍이 있어.(물속에도 ‘풍’이 있어.)
 105013 @1 아, 밖에도 풍이 잇지마는?(아, 밖에도 ‘풍’이 있지만?)
 105013 #5 으.(으.)
 105013 @1 거는 물풍?(거는 ‘물풍’?)
 105013 #5 물풍.(‘물풍’.)
 105013 @1 물풍은 몇 개 해?(‘물풍’은 몇 개 해?)
 105013 #5 하나.(하나.)
 105013 @1 아, 물풍은 하나 허고. 거는 어느 펜이 허는 겨우파?(아, ‘물풍’은 하나 하고. 거는 어느 편에 하는 겁니까?)
 105013 #5 하튼 배 밑에 허는 거지.(하여튼 배 밑에 하는 거지.)
 105013 @1 으.(으.)
 105013 #5 배 밑에.(배 밑에.)
 105013 @1 앞에 해? 두에 해?(앞에 해? 뒤에 해?)
 105013 #5 하튼 중심으로 잡양 그것꺼지는 잘 모르겠는디.(하여튼 중심으로 잡아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105013 @1 으.(으.)
 105013 #4 앞에 험실 거라.(앞에 하고 있을 거야.)
 105013 #5 물풍엔. 앞에 허질 아녀고 가운데로 해야 허는 거 아닌가. 건 잘 몰르커라. 어디 허는 거는?(‘물풍’이라고. 앞에 하질 않고 가운데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건 잘 모르겠어. 어디 하는 거는?)
 105013 @1 물풍이렌 글아예? 이름을예?(‘물풍’이라고 말해요? 이름을요?)
 105013 #5 물풍.(‘물풍’.)
 105014 @1 알앗수다. 그다음에 이제 줌녀. 삼촌네도, 줌녀들이 채취허는 해산물 은 어떤 것 있어마씨?(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녀. 삼촌네도, 잠녀들이 채취하

373) ‘물풍’은 배가 쓸리어 가지 않도록 바닷물 속에 치는 물건이다.

374) ‘풍’은 배가 쓸리어 가지 않도록 바닷물 속에 치는 물건이다.

는 해산물은 어떤 것 있어요?)

105014 #5 옛날엔 뭐 미역을 주로 했거든.(옛날엔 뭐 미역을 주로 했거든.)

105014 @1 으.(으.)

105014 #5 미역을 헤신디 중간에 그 미역이 저 뭐냐, 완도에서 많이 나는 바람에 미역 시세가 싹.(미역을 했는데 중간에 그 미역이 저 뭐냐, 완도에서 많이 나는 바람에 미역 시세가 싹.)

105014 @1 으.(으.)

105014 #5 없어졌거든. 게난 미역을 안 즈물아.(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미역을 안 캐.)

105014 @1 으.(으.)

105014 #5 내 불어 기냥.(내 버려 그냥.)

105014 @1 이젠 내 불어예, 어.(이젠 내 버려요, 어.)

105014 #5 지금도 내 불지.(지금도 내 버리지.)

105014 #4 돈 얼마 안 주고 허난게.(돈 얼마 안 주고 하니까.)

105014 #5 그거 막 허여 놓민 지어오지도 못헿 버청 허멍 헿자 돈이 몇 폰 안 웨니까 내 불어, 기냥.(그거 막 해 놓으면 지어오지도 못해서 부쳐서 하면서 헿자 돈이 몇 폰 안 되니까 내 버려, 그냥.)

105014 @1 으, 메역 나긴 헤마씨? 이 바당에.(으, 미역 나긴 헤요? 이 바다에.)

105014 #5 아이고, 올히도 스뭇, 나 귀 빠진 후에 쳇 미역 난, 막, 막.(아이고, 올해도 사뭇, 나 귀 빠진 후에 쳇 미역 났어, 막, 막.)

105014 #4 올히? 올히?(올해? 올해?)

105014 #5 으.(으.)

105014 #4 경 허민 마 진덴 옛날 어른 곶아나신디.(그렇게 하면 장마 진다고 옛날 어른 말했었는데.)

105014 #5 아이고, 미역 때문에 소라 하나 좇질 못헿수다.(아이고, 미역 때문에 소라 하나 좇질 못헿습니다.)

105014 #4 미역, 바당에 미역 좋민 마 진덴 현다, 마 진덴 현다.(미역, 바다에 미역 좋으면 장마 진다고 한다, 장마 진다고 한다.)

105014 #5 겐디 아무디만 아니. 그 윈 두에만.(그런데 아무데만 아니. 그 '윈' 뒤에만.)

105014 @1 으.(으.)

105014 #4 게메.(글쎄.)

105014 #5 것도 아무디만이 아니.(것도 아무데만이 아니.)

105014 @1 게도 자연산 메역들은 비싸던데?(그래도 자연산 미역들은 비싸던데?)

105014 #5 아이고, 미역도 허여 드렌 해도 우리 안 해.(아이고, 미역도 해 달라고 해도 우리 안 해.)

105014 @1 너무 무거완?(너무 무거워서?)

105014 #5 돈은 몇 폰 안 돼곡 애만 먹으니까 아녀져.(돈은 몇 폰 안 되고 애만 먹으니까 안해져.)

105014 @1 아, 아까 삼촌 뭐마씨? 메역 어떻 허면 마진다고?(아, 아까 삼촌 뭐라고요? 미역 어떻게 하면 장마 진다고?)

105014 #4 메역 많이 난 해에 마 진텐.(미역 많이 난 해에 장마 진다고.)

105014 @1 으.(으.)

105014 #4 경 헤난.(그렇게 했었어.)

105014 #5 게도 마 안 져수게. 올히.(그래도 장마 안 졌습니다. 올해.)

105014 #4 경 곶안.(그렇게 말했어.)

105014 #5 경 미역 하영 나도 올히 장마 안 져어.(그렇게 미역 많이 나도 올해 장마 안 졌어.)

105014 @1 겨울 마 삼촌은.(겨울 장마 삼촌은.)

105014 #4 오월장마가 엇이난 지금 그 대신 영 영 허는 거엔.(오월장마가 없으니까 지금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105014 #5 오월 유월장마는 꾸어 와도 잇넨 허거든, 옛날.(오월 유월장마는 꾸어 와도 있다고 하거든, 옛날.)

105014 @1 예.(예.)

105014 #4 경 곶아난.(그렇게 말했었어.)

105014 #5 꾸어 와도 꼭 장마는 헌텐 헌디 올힌 경 큰 장마가 엇었어. 미역은 막 나도.(꾸어 와도 꼭 장마는 한다고 하는데 올힌 그렇게 큰 장마가 없었어. 미역은 막 나도.)

105014 #4 게난 그 대신으로 영 주룩주룩허는 생이엔 허더라. 어떤 할무니.(그러니까 그 대신으로 이렇게 주룩주룩하는 모양이라고 하더라. 어떤 할머니.)

105014 @1 으, 이 겨울에 너무 비 완예? 요즘예?(으, 이 겨울에 너무 비 왔지요? 요즘요?)

105014 #4 장마, 장마가 웃엇게마는 장만 어느 어느 텔 강 꺾 와도 진텐 허는디 올힌 오월장마가 웃언.(장마, 장마가 없더니만 장만 어느 어느 텔 가서 꺾 와도 진다고 하는데 올힌 오월장마가 없었어.)

105014 #5 오월장마가.(오월장마가.)

105014 #4 그 대신으로 가을에 영 허는 생이렌.(그 대신으로 가을에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고.)

105014 #5 꺾 와도 꼭 잇넨 허주게.(꺾 와도 꼭 있다고 하지.)

105014 @1 으, 꺾 와도.(으, 꺾 와도.)

105014 #5 꼭 잇넨.(꼭 있다고.)

105014 #4 어디 강 툽 꺾 와도.(어디 가서 툽 꺾 와도.)

105014 #5 그냥 지나진 아넨텐.(그냥 지나진 앓는다고.)

105014 #4 장만 진텐 해낫주게.(장만 진다고 했었지.)
105014 @1 예.(예.)
105014 #4 경헌디.(그런데.)
105014 #5 그냥 지나지 아녀. 올해도 여러 날은 장만 저낫주기.(그냥 지나지 않아. 올해도 여러 날은 장만 졌었지.)
105014 #4 경 해도게 옛날ㄴ치 경 안 허난.(그렇게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105014 @1 맞수다.(맞습니다.)
105014 #5 혼 들썩.(한 달씩.)
105014 @1 게난예, 그 아까 메역허고 그다음 또 어떤 것들 헤?(그러니까요, 그 아까 미역하고 그다음 또 어떤 것들 헤?)
105014 #5 여름엔 저 뭐냐 청각.(여름엔 저 뭐냐 청각.)
105014 @1 예.(예.)
105014 #5 청각 해난.(청각 했었어.)
105014 #4 정각.(청각.)
105014 @1 으.(으.)
105014 #5 청각도 허믄 그뻘 받으레 와낫어게.(청각도 하면 그뻘 받으러 왔었어.)
105014 @1 아.(아.)
105014 #5 그때만 해도 거 혼 가마니에 얼마?(그때만 해도 거 한 가마니에 얼마?)
105014 #4 정각.(청각.)
105014 #5 가마니에 담양 그뻘이. 거 저울이믄 웰 거 아니? 겐디 가마로, 가마니로.(가마니에 담아서 그뻘. 거 저울이면 될 거 아니? 그런데 가마로, 가마니로.)
105014 @1 으.(으.)
105014 #5 풀아낫어, 옛날은.(팔았었어, 옛날은.)
105014 #4 일일이 저울이기 실편 그런 거주.(일일이 저울이기 싫어서 그런 거지.)
105014 #5 저울을 몰란 거라. 그냥 그 거에 담양.(저울을 몰라서 거야. 그냥 그 거에 담아서.)
105014 @1 예.(예.)
105014 #5 ㄴ득은 거만 알안.(가득한 것만 알아서.)
105014 @1 게믄 정각허고, 게믄 가을에는?(그러면 청각하고, 그러면 가을에는?)
105014 #5 가을엔게 이제 소라 잇지.(가을엔 이제 소라 잇지.)
105014 @1 으, 소라허고. 여기 소라를 여기서 뭐렌 허여?(으, 소라하고. 여기 소라를 여기서 뭐라고 헤?)
105014 #4 구쟁기, 구쟁기.(‘구쟁기’, ‘구쟁기’.)

105014 @1 으, 구쟁기, 으, 구쟁기.(으, 소라, 으, 소라.)

105014 #5 구쟁기. 웃음.(소라. 웃음.)

105014 #4 구쟁기 잡으레 가게 경 해난.(소라 잡으러 가자 그렇게 했었어.)

105014 #5 구쟁이. 구쟁이 잡으레 가게.(소라. 소라 잡으러 가자.)

105014 @1 예.(예.)

105014 #5 경 헤신디.(그렇게 했는데.)

105014 @1 그다음에 구쟁기도 허곡. 강은에 뭐 잡았수가?(그다음에 소라도 하고. 가서 뭐 잡고 있습니까?)

105014 #5 문어.(문어.)

105014 @1 으.(으.)

105014 #5 어찌다 가끔 전복.(어찌다 가끔 전복.)

105014 @1 으.(으.)

105014 #5 이 외도 바당엔 전복이 많이 나났거든.(이 외도 바다엔 전복이 많이 나왔거든.)

105014 @1 아, 옛날에 으?(아, 옛날에 으?)

105014 #5 겐디 이제는 씨 멸종해 불언.(그런데 이제는 씨 멸종해 버렸어.)

105014 #4 이 무시거.(이 무엇.)

105014 #5 멸종돼여 불언.(멸종되어 버렸어.)

105014 #4 모욕탕 잇기로 더게.(목욕탕 잇기로 더.)

105014 #5 아니, 아니, *영.(아니, 아니, *영.)

105014 #4 *영.(*영.)

105014 #5 모욕탕 물은 다 저레 감수계게. *영 짓을 때 그디서 몇 달 동안을 흑탕물이 막 내려왔거든.(목욕탕 물은 다 저리로 가고 있습니다. *영 지을 때 거기서 몇 달 동안을 흑탕물이 막 내려왔거든.)

105014 @1 으.(으.)

105014 #5 씨가 죽어 분 거라, 다.(씨가 죽어 버린 거야, 다.)

105014 @1 으.(으.)

105014 #5 그 후에 없어져 불었어. 바당에 왕 흑으로 기냥 딱 굴라앗앗단 그 날 세니까 그 자리 걸어져 부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하얗게 돼 불었어.(그 후에 없어져 버렸어. 바다에 와서 흑으로 그냥 딱 가라앉았다가 그 날 세니까 그 자리 걸어져 버리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하얗게 돼 버렸어.)

105014 @1 아아.(아아.)

105014 #4 씨가 문딱 그거 흑에 돌린 쫓어가 불언?(씨가 몽땅 그거 흑에 말려서 끌어가 버렸어요?)

105014 #5 해초 나는 것도 안 나고 그냥 헤영해 불었어.(해초 나는 것도 안 나고 그냥 하애 버렸어.)

105014 #4 해초도 안 나.(해초도 안 나.)

105014 @1 *영에 손해배상 해야커라.(*영에 손해배상 해야겠네.)
 105014 #5 정각도 꽤마농 싱근 밧 잇지이.(청각도 꽤 심은 밧 잇지.)
 105014 @1 으.(으.)
 105014 #4 그렇게 짹 깔러낫주게. 하나토 안 낡 그냥 바닥이 해양해 불엇지게.
 (그렇게 짹 깔렸엇지. 하나토 안 나서 그냥 바닥이 하애 버렸지.)
 105014 @1 으, 손해배상 해야컨게, *영에.(으, 손해배상 해야겠는데, *영에.)
 105014 #5 아이고, 손해배상 해영. 우린 힘이 어디 잇어 내 불주.(아이고, 손해
 배상 해서. 우린 힘이 어디 잇어 내 버리지.)
 105014 #4 정각은 양념허여근에 김장헐 때에도 영 그.(청각은 양념해서 김장할
 때에도 이렇게 그.)
 105014 @1 으.(으.)
 105014 #4 소 담곡.(소 담고.)
 105014 #5 양념해 난 험덴 허영 육지서 받으레 오고 헛주게.(양념해서 나서 한
 다고 해서 육지서 받으러 오고 헛지.)
 105014 #4 소 담양은애.(소 담아서.)
 105014 @1 아.(아.)
 105014 #4 경 허믄 춤 막 맛 좋게덜 헛주게.(그렇게 하면 참 아주 맛 좋게들 헛
 지.)
 105014 #5 김치가 싱싱험덴 허영, 그거.(김치가 싱싱한다고 해서, 그거.)
 105014 #4 싱싱허고 그, 그거 줍아 먹고 그.(싱싱하고 그, 그거 집어 먹고 그.)
 105014 #5 겐디.(그런데.)
 105014 #4 이제 꽤 놓득기 옛날은.(이제 꽤 놓듯이 옛날은.)
 105014 #5 정각 싹 엇어져 불언, 이젠 그거.(청각 싹 엇어져 버렸어, 이젠 그
 거.)
 105014 #4 정각무채³⁷⁵ 맛 좋아낫주기, 춤.(‘정각무채’는 맛 좋았엇지, 참.)
 105014 #5 먹는몹³⁷⁶도 그것도 허영 깨 써낫주게.(‘먹는몹’도 그것도 해서 꽤 썼
 었지.)
 105014 #4 엇어?(없어?)
 105014 #5 그거 그 정각 나는 자리에 그 몹이 나거든. 겨믄이 중간으로만 강 비
 여와. 알러렌.(그거 그 청각 나는 자리에 그 모자반이 나거든. 그러면 중간으로만
 가서 베어와. 아래론.)
 105014 @1 어.(어.)
 105014 #5 부글레기가 만허난.(공기주머니가 많으니까.)
 105014 @1 으.(으.)
 105014 #5 중간으로만 강 비어와신디 허여신디 이젠 흔 폐기도 안 남수게.(중간

375) ‘정각무채’는 청각과 무를 넣어서 무친 음식을 말한다.
 376) ‘먹는몹’은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을 말한다. ‘춤’이라고 한다.

으로만 가서 베어 왔는데 했는데 이젠 한 포기도 안 나고 있습니다.)

105014 @1 웃음.(웃음.)

105014 #4 어디 가 불었어?(어디 가 버렸어?)

105014 #5 자리가 혜영혜 부난.(자리가 하애 버리니까.)

105014 @1 웃음. 그때 흑탕물들이 깔렸었구나예?(웃음. 그때 흑탕물들이 깔렸었군요?)

105014 #5 다 죽언. 게난 그게 소생하질 못하는 생이라.(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소생하질 못하는 모양이야.)

105014 @1 음.(음.)

105014 #4 것마라 춤뭉이엔 혜낫주게. 우리 춤뭉.(것보고 ‘춤뭉’이라고 했었지. 우리 ‘춤뭉’.)

105014 #5 이제는 모자반이엔은 허더라마는 춤뭉, 춤뭉, 먹는 거엔 춤뭉, 춤뭉 했주게.(이제는 모자반이라고는 허더라마는 ‘춤뭉’, ‘춤뭉’, 먹는 거엔 ‘춤뭉’, ‘춤뭉’ 했지.)

105014 @1 으, 춤뭉예?(으, ‘춤뭉’요?)

105014 #4 춤뭉 그거 허영 옛날 어른덜 장항에 영 커근에 지이로도 먹어나고 이.(‘춤뭉’ 그거 해서 옛날 어른들 장독에 이렇게 담가서 장아찌로도 먹었었고.)

105014 @1 으.(으.)

105014 #5 돼지 뺏다귀에 끓인 물은 그것이 최고. 뭉이 최고.(돼지 뺏다귀에 끓인 물은 그것이 최고. 모자반이 최고.)

105014 #4 뭉국. 뭉국.(‘모자반국’. ‘모자반국’.)

105015 @1 그다음에 삼촌, 물질허젠 허민 어떤 도구들 가져강 물질했수가?(그다음에 삼촌, 물질하려고 하면 어떤 도구들 가져가서 물질했습니까?)

105015 #5 무시거 허여. 지금은.(무엇 해. 지금은.)

105015 #4 지금은게 그.(지금은 그.)

105015 #5 옛날엔 속곳³⁷⁷⁾ 입엇주마는 지금은 고무옷 입으난게.(옛날엔 ‘속곳’ 입엇지만 지금은 고무옷 입으니까.)

105015 @1 으.(으.)

105015 #4 망아리.(망사리.)

105015 @1 망아리허고.(망사리하고.)

105015 #5 까꾸리³⁷⁸⁾.(‘까꾸리’.)

105015 @1 까꾸리.(‘까꾸리’.)

105015 #4 테왁, 테왁.(테왁, 테왁.)

105015 @1 테왁 으.(테왁 으.)

105015 #5 테왁도 옛날엔 꼭박으로 헤엇거든. 겐디 그거 멧 년 아녕 까지곡. 뭉

377)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무명으로 만든 옷을 말한다.

378) ‘까꾸리’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소라 등을 잡기 위해 갖고 가는 도구다.

이젠 뭐 아이스박스³⁷⁹⁾ 그 그거 나오난 그걸로 허난 데껴 붙어도 안 깨지고.(테왁도 옛날엔 박으로 하였던거든. 그런데 그거 몇 년 않아서 깨지고. 뭐 이젠 뭐 아이스박스 그 그거 나오니까 그걸로 하나까 던져 버려도 안 깨지고.)

105015 @1 으.(으.)

105015 #4 여에 다대겨도 안 까져이?(여에 부딪쳐도 안 깨져?)

105015 #5 예, 안 까져. 부서져 더러 나오긴 해도 어떻 아녀. 게난 씹주게.(예, 안 깨져. 부서져서 더러 나오긴 해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싸고 있지.)

105015 @1 으.(으.)

105015 #5 그걸 무사 씹 *. 수협에서 나와. 그 싸는 거. 빨경헌 거.(그걸 왜 싸고 *. 수협에서 나와. 그 싸는 거. 빨건 거.)

105015 @1 예.(예.)

105015 #5 홍실감³⁸⁰⁾ 생긴 거. 게문 그걸로 싸. 게문 어디 강 다쳐도 부서지지 아녀.(홍시처럼 생긴 거. 그러면 그걸로 싸. 그러면 어디 가서 다쳐도 부서지지 아냐.)

105015 @1 음, 그치록 해영 하고. 전복 트는 거는 무신겨우파?(음, 것처럼 해서 하고. 전복 따는 거는 무엇입니까?)

105015 #5 비창.(비창.)

105015 @1 으, 비창. 이제 비창도 가정 가곡예, 예. 그다음 망사리도 보면 큰 거 있고 쪼끄만 것도 가져가고?(으, 비창. 이제 비창도 가져서 가고요. 예. 그다음 망사리도 보면 큰 거 있고 쪼끄만 것도 가져가고?)

105015 #5 조레기³⁸⁰⁾.(‘조레기’.)

105015 @1 건 조레기? 으.(건 ‘조레기’? 으.)

105015 #5 조레기.(‘조레기’.)

105015 @1 으.(으.)

105015 #4 조레긴 건 굴후이 돌아맹 뎅겸주기, 뭐 뜯 거 봉가지믄.(‘조레기’는 건 별도로 매달아서 다니고 있지, 뭐 다른 거 주워지면.)

105015 #5 거 문어나 잡으민 그디 놓곡.(거 문어나 잡으면 거기 놓고.)

105015 #4 그레 들이, 들이치젠. 고망이 즈니까.(그리로 들이, 들이뜨리려고. 구멍이 자잘하니까.)

105015 #5 신발 가명 신영 강 그디 들이청, 그디 들이치곡.(신발 가면서 신어서 가서 거기 들이뜨려서, 거기 들이뜨리고.)

105015 @1 조레기는 몇 개 가정가?(‘조레기’는 몇 개 가져가?)

105015 #5 하나개.(하나.)

105015 @1 건 하나만 가정가고? 그다음에.(건 하나만 가져가고? 그다음에.)

105015 #4 하나에만 그득아도 좋주기. 웃음.(하나에만 가득해도 좋지. 웃음.)

379) 여기에서 ‘아이스박스’는 아이스박스를 만드는 재료, 즉 스티로폼의 의미로 쓴 말이다.

380) ‘조레기’는 해녀들이 물질을 때 갖고 가는 작은 그물주머니다. 전복 등을 따서 넣는다.

105016 @1 음, 옛날에 그 케니까 삼촌네 옛날 그 가져갈 때 도구들 하고 요즘 하고 물질하는 게 어떻 달라졌수가?(음, 옛날에 그 그러니까 삼촌네 옛날 그 가져갈 때 도구들 하고 요즘하고 물질하는 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05016 #5 물질하는 건 마찬가지로.(물질하는 건 마찬가지로.)

105015 @1 예.(예.)

105015 #4 비창.(비창.)

105015 #5 그 저 도구덜이 틀렸다는 것 뿐이주.(그 저 도구들이 달랐다는 것 뿐이지.)

105015 @1 으.(으.)

105015 #5 옷도 고무옷 입고 허니까.(옷도 고무옷 입고 하니까.)

105015 @1 으.(으.)

105015 #5 그게 달라진 거지, 뭐. 다른.(그게 달라진 거지, 뭐. 다른.)

105015 #4 고무옷 달라진 거지.(고무옷 달라진 거지.)

105015 #5 물에 달라진 거지.(물에 달라진 거지.)

105015 #4 고무옷 입은 거 달라진 거지. 옛날은 속곳 입어나신디.(고무옷 입은 거 달라진 거지. 옛날은 속곳 입었었는데.)

105015 @1 경 허여도게.(그렇게 해도.)

105015 #5 망아리도 다 그 저 미빠쟁이 빠당 새끼 꼬양 다 망아릴 만들었수게. 겐디 요즘은 뭐 구물 나난 구물 강 이만이만 강 사오민 망아리 하나 만들고 얼마나 편헌디.(망사리도 다 그 저 새품 뽑아다가 새끼 꼬아서 다 망사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그물 나니까 그물 가서 이만큼만 가서 사오면 망사리 하나 만들고 얼마나 편헌데.)

105016 @1 계난 옛날에는 이 도구들 하고 옛날 도구허고 지금 도구허면 하영 달라진 거 아니우짜?(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도구들 하고 옛날 도구하고 지금 도구하면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105016 #5 하이고, 많이 달라졌지.(하이고, 많이 달라졌지.)

105016 @1 예, 그런 거를 골아줘 봅서.(예, 그런 거를 말해줘 보십시오.)

105016 #5 우리 그 저 망아릴 만들젠 허문.(우리 그 저 망사릴 만들려고 하면.)

105016 @1 으.(으.)

105016 #5 그 저 억새 잇잖어.(그 저 억새 잇잖아.)

105016 @1 예.(예.)

105016 #5 억새 그 막 피기 전에 그걸 강 빠 와, 다.(억새 그 막 피기 전에 그걸 가서 뽑아 와, 다.)

105016 @1 으.(으.)

105016 #5 빠 왕 그걸 다 속에 거 빼내곡 그걸로.(뽑아 와서 그걸 다 속에 거 빼내고 그걸로.)

105016 #4 꼬왕.(꼬아서.)

105016 #5 꼬아.(꼬아.)
 105016 @1 으.(으.)
 105016 #5 새끼 까늘게.(새끼 가늘게.)
 105016 @1 으.(으.)
 105016 #5 그걸 꼬아 가지고 그걸로 망아릴 만들었거든.(그걸 꼬아 가지고 그걸로 망아릴 만들었거든.)
 105016 @1 으.(으.)
 105016 #4 것이 막 질기주게. 그것이 막 질기주게.(것이 아주 질기지. 그것이 아주 질기지.)
 105016 #5 으, 경 헤어났어, 그건.(으, 그렇게 했었어, 그건.)
 105016 @1 예. 경 허영 예음도 트나지 안해?(예. 그렇게 해서 어음도 다르지 않아?)
 105016 #5 드렛줄.(다래나무줄기.)
 105016 @1 예.(예.)
 105016 #5 드렛줄로 현디 이제는 뭐 파이프 (웃음) 그걸로 허난 얼마든지.(다래나무줄기로 하는데 이제는 뭐 파이프 (웃음) 그걸로 하니까 얼마든지.)
 105016 #4 드렛줄 허래.(다래나무줄기 하러.)
 105016 #5 드렛줄.(다래나무줄기.)
 105016 @1 드렛줄예.(다래나무줄기요.)
 105016 #5 으.(으.)
 105016 #4 거 가민 공짜로 강 어디 강 헤영 올 건디 안 가주기. 웃음.(거 가면 공짜로 가서 어디 가서 해서 올 건데 안 가지. 웃음.)
 105016 #5 산에만 가든 그건 뭐 얼마든지 해오는다.(산에만 가면 그건 뭐 얼마든지 해오는데.)
 105016 @1 예.(예.)
 105016 #5 드렛줄로 헤어났주.(다래나무줄기로 했었지.)
 105016 @1 그런 식으로 드렛줄 허고. 그 케난 물질 가는 시간도 옛날 속곳 입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물에 드는 시간도 달를 거 아니라예?(그런 식으로 다래나무줄기 하고. 그 그러니까 물질 가는 시간도 옛날 속곳 입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물에 드는 시간도 다를 거 아닌가요?)
 105016 #4 아이고.(아이고.)
 105016 #5 아이고, 속곳 입을 때 이십 분도 못 살았어.(아이고, 속곳 입을 때 이십 분도 못 살았어.)
 105016 #4 멧 곱 헤염주.(멧 곱 하고 있지.)
 105016 @1 케니까.(그러니까.)
 105016 #5 겐디 지금은 네 시간 다섯 시간 사난. 웃음.(그런데 지금은 네 시간 다섯 시간 사니까. 웃음.)

105016 @1 게, 이십 분 혜영 또 들고 또 들고 허는 거?(글쎄, 이십 분 해서 또 들고 또 들고 하는 거?)

105016 #5 왕 불 초왕 또 가곡 불 초왕 제게 아니 일어 사가든 이제 ○○이 어명이. 불이 맨발로 막 발락발락발락 불랑 귀와 불어.(와서 불 쪼어서 또 가고 불 쪼어서 재우 아니 일어서가면 이제 ○○이 어머니. 불이 맨발로 막 발락발락발락 밟아서 꺼 버려.)

105016 @1 으.(으.)

105016 #5 맨발로.(맨발로.)

105016 #4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5016 #5 발이 췌덩인 생이라.(발이 췌덩인 모양이야.)

105016 @1 어.(어.)

105016 #5 빨리 안 일어삼젠이 막이 불을 기냥 맨발로 올라산 발락발락발락 불랑 귀와 불어. 겨민 할 수 엇이 불 다 끄민 그디 뭐허레 앓아게. 게민 일어상 옷도 같아 입엇덜 가곡 경 혜낫주.(빨리 안 일어선다고 막 불을 그냥 맨발로 올라서서 발락발락발락 밟아서 꺼 버려. 그러면 할 수 없이 불 다 끄면 거기 뭐하려고 앓아. 그러면 일어서서 옷도 같아 입고들 가고 그렇게 했었지.)

105016 #4 우린 물질 아녀낫주마는 옛날 물질허영 속곳 입을 때 불 초는 거 보민 이디가 얼룩얼룩얼룩허여.(우린 물질 앓았었지만 옛날 물질해서 ‘속곳’ 입을 때 불 쪼는 거 보면 여기가 얼룩얼룩얼룩해.)

105016 @1 으.(으.)

105016 #4 불 초와 가민.(불 쪼 가면.)

105016 @1 예.(예.)

105016 #5 불게, 영게, 앓앙 초와 가민 이런 디가게 얼룩얼룩허주게.(불, 이렇게, 앓아서 쪼어 가면 이런 예가 얼룩얼룩하지.)

105016 #4 물에 강 하도 실려 놓난 얼룩얼룩.(물에 가서 하도 실려 놓으니까 얼룩얼룩.)

105016 #5 게도 또 실려나곡 지금은 물로 헤우니까 헌디 짬물이잖아, 그때만 해도.(그래도 또 실렸었고 지금은 물로 행구니까 하는데 짬물이잖아, 그때만 해도.)

105016 @1 으.(으.)

105016 #5 짬물. 경 허곡 허니까 막 그 실려왕 불에 굽곡 허민 얼럭얼럭 안 허영 배겨게.(짬물. 그렇게 하고 하니까 막 그 실려워서 불에 굽고 하면 얼룩얼룩 안 해서 배겨.)

105016 #4 해녀 목욕탕이 시난, 헤녀 목욕탕이 시난 그뎨 그런 거 엇어낫거든.(해녀 목욕탕이 있으니까, 헤녀 목욕탕이 있으니까 그뎨 그런 거 없었었거든.)

105016 @1 예.(예.)

105016 #5 이젠 몸 헹지 못허영 옛날은 수도에서 몸 헹젠 허든, 스뎨.(이젠 몸 행구지 못해서 옛날은 수도에서 몸 행구려고 하면, 사뎨.)

105016 #4 수도에서 허여게, 집의나 가사 곱앗주 **.(수도에서 하는가, 집에나 가야 감았지 **.)

105016 #5 에이그, 수도에서 곱앗수게, 우리.(에이그, 수도에서 감았습니다, 우리.)

105016 @1 으.(으.)

105016 #4 불 초왕은에 얼룩얼룩얼룩.(불 쪼서 얼룩얼룩얼룩.)

105016 #5 처음엔 수도에서 허단.(처음엔 수도에서 하다가.)

105016 @1 으.(으.)

105016 #5 이젠 우리 집의 이제 보일라 허니까 연탄 보일라 허난.(이젠 우리 집에 이제 보일러 하니까 연탄 보일러 하니까.)

105016 @1 으.(으.)

105016 #5 그 통에 물 앓젓당 그거 퍼당 허곡 헤엇지.(그 통에 물 안쳤다가 그거 퍼다가 하고 하였지.)

105016 @1 바로 바당이난예, 예?(바로 바다이니까요, 예?)

105016 #5 으, 바로 즈깃되도.(으, 바로 곁에도.)

105016 @1 으.(으.)

105016 #5 경 헤여났어.(그렇게 했었어.)

105016 #4 지금은 해녀목욕탕 딱 허엿주기.(지금은 해녀목욕탕 딱 했지.)

105016 #5 이제는 모욕탕 이시난 불 출 일도 엇고.(이제는 목욕탕 있으니까 불 쪼 일도 없고.)

105016 #4 영헌 방도 잇고게, 다 경 허난.(이런 방도 있고, 다 그렇게 하니까.)

105016 #5 전기장판, 전기보일라 허난.(전기장판, 전기보일러 하니까.)

105016 @1 으, 이제는 막 저기 작업하기가 좋아전예?(으, 이제는 막 저기 작업하기가 좋아졌죠?)

105016 #4 고급이주, 고급. 이젠.(고급이지, 고급. 이젠.)

105016 @1 웃음.(웃음.)

105016 #5 너무 고급 햄주, 춤. 누구 말따나 나라가 잘 돼난 헛주기, 암만 노력해도 나라에서 잘 안 돼문 경 헤질로고, 호강헤질로고. 아메도 나라 잘된 덕택이지.(너무 고급 하고 있지, 참. 누구 말따나 나라가 잘 되니까 했지, 암만 노력해도 나라에서 잘 안 되면 그렇게 헤지겠는가, 호강헤지겠는가. 아마도 나라 잘된 덕택이지.)

105018 @1 예, 툇은 어떻 헤났수가? 여기 툇도 잇지양?(예, 툇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기 툇도 잇지요?)

105018 #5 으, 일 년에 혼 번 캐지.(으, 일 년에 한 번 캐지.)

105018 @1 건 언제?(건 언제?)

105018 #5 삼월.(삼월.)

105018 @1 삼월에.(삼월에.)

105018 #5 음력 삼월에. 음력 삼월 보름이든 꼭 허여.(음력 삼월에. 음력 삼월 보름이면 꼭 해.)

105018 @1 음.(음.)

105018 #4 삼월 보름에 허민 툃³⁸¹도 옛날은 바다에덜 안 간 사름 트멍에 잇주게. 어디 볼 일이나 성 허믈. 아이고, 바다에 이 삼월 보름 물찌에 집의 앓은 거는, 집의 도둑질이나 허젠덜 앓앗주지. 우시개로게.(삼월 보름에 하면 ‘툃발’도 옛날은 바다에들 안 간 사람 틈에 있지. 어디 볼 일이나 있어서 하면. 아이고, 바다에 이 삼월 보름 물때에 집에 앓은 거는, 집에 도둑질이나 하려고들 앓앗지. 우스개로.)

105018 @1 음, 음.(음, 음.)

105018 #5 경, 그만큼 옛날 선비도 도포 입은 냥 바다에 갓젠 허주게.(그렇게, 그만큼 옛날 선비도 도포 입은 대로 바다에 갔다고 하지.)

105018 @1 으.(으.)

105018 #4 우시개로 경 골아난.(우스개로 그렇게 말했었어.)

105018 @1 그만큼 할 일이 많고예?(그만큼 할 일이 많고요?)

105018 #4 살기가.(살기가.)

105018 @1 그뎨 공동으로 뭐 이런 툃덜은 채취한 거 아니예?(그뎨 공동으로 뭐 이런 툃들은 채취한 거 아니예요?)

105018 #5 으, 지금도 공동으로 허여. 우리 수협에, 저 어촌계에서.(으, 지금도 공동으로 해. 우리 수협에, 저 어촌계에서.)

105018 @1 어촌계에서. 으. 여기는 우미 ㄱ튼 건 안 납니까?(어촌계에서. 으. 여기는 우뭇가사리 같은 건 안 납니까?)

105018 #5 나도 멧 개 안 나.(나도 멧 개 안 나.)

105018 @1 아, 여기는.(아, 여기는.)

105018 #5 으.(으.)

105018 @1 동쪽에는 우미 하영 헨게마는게.(동쪽에는 우뭇가사리 많이 하더니만.)

105018 #5 막 그디는 우미 허영 돈 벌주게.(아주 거기는 우뭇가사리 해서 돈 벌지.)

105018 #4 옛날 이디도 우미사 좋아낫주마는이.(옛날 여기도 우뭇가사리아 좋았었지만.)

105018 #5 나난 자리가 문딱 헤영케 죽어 부난게.(났던 자리가 몽땅 하얗게 죽어 버리니까.)

105018 @1 별도로 우미 즈물진 안헤마씨?(별로로 우뭇가사린 캐진 않아요?)

105018 #5 즈물야.(캐.)

105018 @1 으.(으.)

381) ‘툃발’은 툃이 많이 나는 곳을 ‘발’에 비유해서 한 말이다.

105018 #5 잘허민 열 푸대.(잘하면 열 부대.)
 105018 @1 으.(으.)
 105018 #5 경 허영 폴아먹곡게.(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105019 @1 계난 우미는 언제 허는 겨우짜?(그러니까 우뭇가사리는 언제 하는 겁니까?)
 105019 #5 그건 스월, 스월.(그건 사월, 사월.)
 105019 @1 스월에?(사월에?)
 105019 #5 으.(으.)
 105019 @1 우미도 공동으로 허는 거? 아니면 개인이 허는 거?(우뭇가사리도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
 105019 #5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105019 #4 해너덜만 허난게.(해너들만 하니까.)
 105019 #5 서이뿐이난 서이만 즈물야.(셋뿐이니까 셋만 캐.)
 105019 #4 해너덜만 허난.(해너들만 하니까.)
 105019 @1 이젠 그 이 바당 주인이 셋이구나, 게문. (웃음)(이젠 그 이 바다 주인이 셋이구나, 그러면. (웃음))
 105019 #5 예.(예.)
 105019 #4 옛날부터 이 서, 이 외돈 해너들이 경 옛언게.(옛날부터 이 셋, 이 외돈 해너들이 그렇게 없었어.)
 105019 @1 아.(아.)
 105019 #5 몸, 몸덜을 예경 못 견딘 일을 허젠 안허여. 허단 사름덜도 다 설러 불언.(몸, 몸들을 아껴서 못 견딘 일을 하려고 앓아. 하던 사람들도 다 그만뒀 버렸어.)
 105019 #4 내도³⁸²도 하고 저 연디³⁸³엔 현 디도 한다.(내도도 많고 저 ‘연대’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105019 #5 연딘 게도 이제 열둘인가라.(‘연댄’ 그래도 이제 열둘인가야.)
 105019 @1 으.(으.)
 105019 #4 지금도.(지금도.)
 105019 #5 켜디.(그런데.)
 105019 @1 으.(으.)
 105019 #4 내도도 지금. 게문 내도보단 연대가 더 하다이.(내도도 지금. 그러면 내도보단 ‘연대’가 더 많다.)
 105019 #5 예, 내돈 이제 우리영 ㄱ트우다. 셋뿐.(예, 내돈 이제 우리랑 같습니다. 셋뿐.)
 105019 @1 으.(으.)

382) ‘내도’는 제주시 내도동을 가리킨다.

383) ‘연디’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연대가 있어서 붙은 지명이다.

105019 #4 서착엔 이 이 외도엔 현 던 옛날부터 경 물질을 잘 허진 안허연게.
(서쪽엔 이 이 외도라고 하는 덴 옛날부터 그렇게 물질을 잘 하려고 않았어.)

105019 @1 아, 게든 무신 일을 현 거라?(아, 그러면 무슨 일을 한 거야?)

105019 #4 기냥 그자.(그냥 그저.)

105019 #5 밧일덜이나 허곡게, 원.(밭일들이나 하고, 전혀.)

105019 #4 일덜이나 허곡 어떻 그럭저럭.(일들이나 하고 어떻게 그럭저럭.)

105019 @1 옛날 모자³⁸⁴ 즐곡 영 허니까 그런가.(옛날 모자 곁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105019 #4 경 아녀.(그렇게 알아.)

105019 #5 모즈, 모즈 즐 시기는 한참 지나고.(모자, 모자 곁을 시기는 한참 지나고.)

105019 @1 으.(으.)

105019 #4 우리.(우리.)

105019 #5 우리 막 어린 때 모즌 즐안.(우리 아주 어릴 때 모잔 곁었어.)

105019 #4 우리 ㄱ똥 사름은 물질 배웁젠 헤도 못허연게. 들어가지 못허연.(우리 같은 사람은 물질 배우려고 해도 못하던데. 들어가지 못해서.)

105019 #5 우리 어머니 밤이 놀레 가지 못허게 허연 그, 그거 즐렌. 모자 즐렌 허영. 어떻사 성질 난디. 웃음.(우리 어머니 밤이 놀러 가지 못하게 해서 그, 그거 곁으라고. 모자 곁으라고 해서. 어떻게야 성질 나는지. 웃음.)

105019 @1 웃음.(웃음.)

105019 #4 놀레 못 가게 허영 그거 밤의 즐렌게. 게든 에이그, 이런 거, 이딴 거 아녀첸 막 허든. 그거 밤이 지집년이 걸랑걸랑 놀레 뎅기든 안 쉼덴 허명. 어머니가 그거 허렷허연 그거 앳앙 해났어.(놀러 못 가게 해서 그거 밤에 곁으라고. 그러면 에이그, 이런 거, 이딴 거 앳쨌다고 막 하면. 그거 밤에 계집년이 걸랑걸랑 놀러 다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거 하라고 해서 그거 앳아서 했었어.)

105020 @1 음, 그다음에 전복허고 소라는 언제가 가장 허영 허는 거마씨?(음, 그다음에 전복하고 소라는 언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105020 #5 전복은 이젠 못허고 지금, 지금 소라 많이 날 때주.(전복은 이젠 못하고 지금, 지금 소라 많이 날 때지.)

105020 @1 음, 지금 소라 날 때.(음, 지금 소라 날 때.)

105020 #4 전복 즈무는 것도 철이 있어?(전복 캐는 것도 철이 있어?)

105020 #5 전복은 뭐 아무 때나 허는디 전복이 이젠 나 일 년에 하나도 못합니 다.(전복은 뭐 아무 때나 하는데 전복이 이젠 나 일 년에 하나도 못합니다.)

105020 @1 아.(아.)

105020 #4 이 무신 하나사 못헤게.(이 무슨 하나야 못해.)

105020 #5 메. 전복은 ** 몰라 불엇덴 허난.(참. 전복은 ** 말라 버렸다고 하니

384) 여기에서 '모자'는 갓 모자를 말한다.

까.)

105020 @1 으.(으.)

105020 #5 옛날은 소라 혼 망아리 해와봐봤자 돈이 얼마 안 땀거든.(옛날은 소라 한 망사리 해봐봤자 돈이 얼마 안 땀거든.)

105020 @1 으.(으.)

105020 #5 나 소라 안 즈물아났어.(나 소라 안 췌어.)

105020 @1 아.(아.)

105020 #5 전복 좇으레만 땡견. 하날 해도 돈이 얼마디 에 저까지 소라 짐만 뵈게 안 헌다 허연.(전복 좇으러만 다녔어. 하날 해도 돈이 얼마디 에 저까지 소라 짐만 되게 안 한다 해서.)

105020 @1 으.(으.)

105020 #5 모살통³⁸⁵ ㄱ튼 딴 줌 기프지.(‘모살통’ 같은 덴 줌 깊지.)

105020 @1 으.(으.)

105020 #4 모살 잇는 디 가믄 돌 하나씩 영 잇는 디 가믄 전복 잇거든.(모래 잇는 데 가면 돌 하나씩 이렇게 잇는 데 가면 전복 잇거든.)

105020 @1 으.(으.)

105020 #5 난 그것만 허레 땡겘주, 소라 개꼴로 헨 완.(난 그것만 하러 다녔지, 소라 개꼴로 해서 왔어.)

105020 @1 음.(음.)

105020 #5 경 해신디 이젠 그런 디 가믄 뵈 그 전복 부뵈던 돌이 헤영헤 불었거든.(그렇게 했는데 이젠 그런 데 가면 뵈 그 전복 불었던 돌이 하얗게 불었거든.)

105020 @1 아.(아.)

105020 #5 게난 아예 좇이레 땡기지도 안 허여.(그러니깐 아예 좇으러 다니지도 안 해.)

105020 #4 오염으로.(오염으로.)

105020 #5 게난 다음 돌 셤들이나 나믄 해삼.(그러니깐 다음 달 셤달이나 나면 해삼.)

105020 @1 예.(예.)

105020 #5 해삼이 쪼끔씩 나주게.(해삼이 쪼끔씩 나지.)

105020 @1 음.(음.)

105020 #5 경 허믄 그런 땡 이제 모살통에 좇으레 땡기는 거라.(그렇게 하면 그런 땡 이제 ‘모살통’에 좇으러 다니는 거야.)

105020 @1 음, 해삼은 모살에 사니까.(음, 해삼은 모래에 사니까.)

105020 #5 모살통에 이시니까.(‘모살통’에 있으니까.)

105020 @1 예.(예.)

105020 #5 그런 때 강 허주게.(그럴 때 가서 하지.)

385) ‘모살통’은 바다 중에 모래가 많이 깔려 있는 웅덩이를 말한다.

105021 @1 케난 전복도 그 옛날, 크기에 따라 부르지는 이름도 트나예?(그러니깐 전복도 그 옛날,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다르지요?)

105021 #5 크기에 따라가 아니고.(크기에 따라가 아니고.)

105021 @1 으.(으.)

105021 #5 그 전복이 동글락하게 허영 냅작헌 게 잇고.(그 전복이 동글랏게 해서 납작한 게 잇고.)

105021 @1 으.(으.)

105021 #5 영, 보통으로 헌 건 영헌 거잖아.(이렇게, 보통으로 한 건 이렇게한 거잖아.)

105021 @1 으.(으.)

105021 #5 겐디 동글락헌 거를 우린 암침복 암침복 헛거든.(그런데 동그란 거를 우린 암전복 암전복 헛거든.)

105021 @1 으.(으.)

105021 #5 옛날에.(옛날에.)

105021 @1 으.(으.)

105021 #5 암침복이 아니.(암전복이 아니.)

105021 #4 암침복이 아니?(암전복이 아니?)

105021 #5 종류가 그런 거.(종류가 그런 거.)

105021 @1 으.(으.)

105021 #4 거 암침복엔 해낫인디.(거 암전복이라고 했었는데.)

105021 #5 게메. 그걸 암침복 암침복 헤신디 그거 아니엔.(글쎄. 그걸 암전복 암전복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105021 @1 수침복은 어떤 겨우파?(수전복은 어떤 겁니까?)

105021 #5 그냥 영 오무룩헌 거 이제 많이 나오는 거.(그냥 이렇게 오목한 거 이제 많이 나오는 거.)

105021 @1 으.(으.)

105021 #5 그걸 수침복엔 옛날 어른덜은 헛거든.(그걸 수전복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헛거든.)

105021 @1 으.(으.)

105021 #5 겐디 종묘사에서 굳는 거 보난 당추 아니엔. 종류가 그런 거.(그런데 종묘사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당취 아니라고. 종류가 그런 거.)

105021 #4 납작헌 건 그것이 암침복이엔 허고.(납작한 건 그것이 암전복이라고 하고.)

105021 #5 납작헌 게 동글락허주게, 그계.(납작한 게 동글지, 그계.)

105021 @1 예.(예.)

105021 #5 겐디 요게 혼 번 부뻗다 허른 얼른 어디레 가질 아녀.(그런데 요게 한 번 붙었다 하면 얼른 어디로 가질 않아.)

105021 @ 으.(으.)
 105021 #5 그거는. 그 수커는 막 여기저기 땡기는다.(그거는. 그 수컷은 아주 여기저기 다니는데.)
 105021 #4 돌아댕겨.(돌아다녀.)
 105021 #5 요거는이 부뻐다 허믈이 어디레 얼른 가지 아녀. 그거 암침복ㄱ치 즈그못흔³⁸⁶ 년.(요거는 붙었다 하면 어디로 얼른 가지 았아. 그거 암전복처럼 ‘즈그못한’ 년.)
 105021 @1 으.(으.)
 105021 #4 흐뵍허믈 저 모지직헌³⁸⁷ 여자보고.(조금하면 저 ‘모지직한’ 여자보고.)
 105021 @1 예, 예.(예, 예.)
 105021 #5 암침복ㄱ치 모지직헌 년.(암침복처럼 ‘모지직한’ 년.)
 105021 @1 으.(으.)
 105021 #5 옛날 어른덜 경 곱아났어. 요 암침복ㄱ치 즈그못헤엿젠.(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었어. 요 암전복처럼 ‘즈그못하였다’고.)
 105021 @1 어, 즈그못헤엿젠. 그게 무슨 말이우짜?(어, ‘즈그못하였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5021 #5 그게 머, 머, 무신 말이라게.(그게 뭐, 뭐, 무슨 말이야.)
 105021 #4 **. (**.)
 105021 #5 켈 이제 즈그못허다헌 게 아멩헤도.(켈 이제 ‘즈그못하다’ 한 게 아무래도.)
 105021 #4 ㅁ음이 기냥.(마음이 그냥.)
 105021 #5 마음이.(마음이.)
 105021 #4 꺽꺽하지 아녀다 그 말이지.(꺽꺽하지 았다 그 말이지.)
 105021 #5 활발허질 못 헤 가지고 그, 그런 사람.(활발하질 못 헤 가지고 그, 그런 사람.)
 105021 @1 으.(으.)
 105021 #5 마음이 활. 활발허지 못헌 사름. 그런 사름.(마음이 활. 활발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105021 @1 쫘 욱으로 허는 겨우짜? 즈그못허게.(쫘 욱으로 하는 겁니까? ‘즈그못하게’.)
 105021 #5 욱으로 허는 거지.(욕으로 하는 거지.)
 105021 @1 으.(으.)
 105021 #5 쫘 잘못웨영 뉘 의논을 헤도 통화가 안 텔 그런 경우 잇잖아.(쫘 잘못되어서 뉘 의논을 헤도 통화가 안 텔 그런 경우 잇잖아.)

386) ‘즈그못하다’는 고집이 세고 단단하여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질이 있다는 의미다.

387) ‘모지직하다’는 한번 먹은 마음이나 뜻을 굳게 다잡는 성질이 있다는 의미다.

105021 @1 예.(예.)

105021 #5 경 허민 에이고 암침복ㄹ치 즈그못헤여듬서. 웃음.(그렇게 하면 아이고 암침복처럼 ‘즈그못해’ 두고서. 웃음.)

105021 @1 어, 그렇게 헤영 즈그못허게 허고 그다음.(어, 그렇게 해서 ‘즈그못하게’ 하고 그다음.)

105021 #4 흐뎡 늑광 흐뎡 틀어져도 얼른 그.(조금 남과 조금 틀어져도 얼른 그.)

105021 #5 말 안 곶양.(말 안 말해서.)

105021 #4 말 안 곶안 아이고, 성질머리도 즈그못허게, 예그. 경 허주게. 지금도 경 해, 경 곶아.(말 안 말해서 아이고, 성질머리도 ‘즈그못하게’, 아이고. 그렇게 하지. 지금도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해.)

105021 @1 지금도 곶아.(지금도 말해.)

105021 #5 지금도 할망덜은 경 곶아. 얼른 우린 성질이 바쁘니까 만약 드렀다 허민 나가 먼저 말 곶아 붙어.(지금도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해. 얼른 우린 성질이 바쁘니까 만약 다뤘다 하면 내가 먼저 말 말해 버려.)

105021 @1 으.(으.)

105021 #5 경헌디 얼른 말 안 곤는 사람이 잇주게.(그런데 얼른 말 안 말하는 사람이 있지.)

105021 @1 으, 으.(으, 으.)

105021 #5 경 허민 이그, 곶툑쟁이 암침복 모양으로 즈그못헤여듬서.(그렇게 하면 아이고, 곶툑쟁이 암침복 모양으로 ‘즈그못해’ 두고서.)

105021 @1 어.(어.)

105021 #5 곶툑쟁이.(곶툑쟁이.)

105021 @1 곶툑쟁이, 으. 웃음.(곶툑쟁이, 으. 웃음.)

105021 #5 막 경 허주게.(아주 그렇게 하지.)

105021 @1 예. 경 허영 하고. 전복도 이제, 왜 전복 새끼ㄹ라는 뭐렌 험니까?(예. 그렇게 해서 하고. 전복도 이제, 왜 전복 새끼보고는 뭐라고 험니까?)

105021 #4 조갱기³⁸⁸.(‘조갱기’.)

105021 #5 새끼 허민 조갱기.(새끼 허민 ‘조갱기’.)

105021 #4 조갱기.(‘조갱기’.)

105021 @1 아, 조갱기예?(아, ‘조갱기’요?)

105021 #5 물조갱이.(‘물조갱이’.)

105021 @1 어?(어?)

105021 #5 물조갱이.(‘물조갱이’.)

105021 #4 물조갱기.(‘물조갱기’.)

388) ‘조갱기’는 제주시 외도에서 작은 전복을 일컫을 때 쓰는 말이다. 제보자는 달리 ‘물조갱이’, ‘물조갱기’라고도 하였다.

105021 #5 작은 거 물조갱이.(작은 거 ‘물조갱이’.)
 105021 @1 물조갱이, 아. 전복 작은 거를예?(‘물조갱이’, 아. 전복 작은 거를
 요?)
 105021 #5 으.(으.)
 105021 @1 예.(예.)
 105021 #4 에이그.(아이고.)
 105021 @1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요것들은 감태 먹어?(그다음에 이제 보통 요것
 들은 감태 먹어?)
 105021 #5 감태 먹고 미역도 먹고 몹 그런 거 해초 다 먹어.(감태 먹고 미역도
 먹고 모자반 그런 거 해초 다 먹어.)
 105021 @1 아, 해초 다 먹고예? 게문 전복 허면은 그 뚜껑을 뭐렌 헛수가? 여
 기서?(아, 해초 다 먹고요? 그러면 전복 하면 그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105021 #5 거평.(‘거평’.)
 105021 @1 거평예? 거평 행은에.(‘거평’요? 전복갑 해서.)
 105021 #4 거평이엔 현 건 큰 거 큰 전복 뚜껑ㄴ라.(‘전복갑’이라고 한 건 큰 거
 큰 전복뚜껑보고.)
 105021 #5 거평이엔 허주게.(‘전복갑’이라고 하지.)
 105021 @1 거평 행은에 하고. 물질허레 갈 때 영 허영은에 이 전복 조갱이 가
 정도 가잖아예?(전복갑 해서 하고. 물질하러 갈 때 이렇게 해서 이 전복 ‘조갱이’
 가져서도 가잖아요?)
 105021 #5 건 본보기³⁸⁹.(건 ‘본보기’.)
 105021 @1 어.(어.)
 105021 #5 허리에 영 창 갓당.(허리에 이렇게 차고 갔다가.)
 105021 @1 으.(으.)
 105021 #5 만약 점복을 볼 거 아니라게. 게문 숨은 다 뿔 거 아니?(만약 전복을
 볼 거 아닌가. 그러면 숨은 다 뿔 거 아니?)
 105021 @1 으.(으.)
 105021 #5 그걸 이걸 이걸 이걸 놔똥 나왕.(그걸 이걸 이걸 이걸 놔똥서 나와
 서.)
 105021 @1 으.(음.)
 105021 #5 숨 쉬어 가지고 그거 방 강 떼여.(숨 쉬어 가지고 그거 봐서 가서
 떼.)
 105021 #4 ** 들어가곡이.(** 들어가고.)
 105021 #5 봄조갱이³⁹⁰.(‘봄조갱이’.)

389) ‘본보기’는 어떤 표시로 삼기 위한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전복 따위를 발견해
 서 따지 못하면 그 자리에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지물을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표지가 작은 전복
 껍데기다. 제보자는 이를 ‘봄조갱이’라고 하였다. ‘조갱이’는 제주시 외도동에서 작은 전복을 일컫는 말이다.

390) ‘봄조갱이’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전복 따위를 발견해서 따지 못하면 그 자리에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105021 @1 본조쟁이.(‘본조쟁이’.)

105021 #5 봄조쟁이.(‘봄조쟁이’.)

105021 #5 아고. 그것ㄴ라 봄조쟁이. 거 건드리난 켜지네. 웃음.(아고. 그것보고 ‘봄조쟁이’. 거 건드리니까 켜지네. 웃음.)

105021 @1 웃음.(웃음.)

105021 #5 봄조쟁이엔 허지. 그거 허리에. 옛날엔 속곳³⁹¹⁾ 입으난 그 끈에 영허영 감양 들어가났거든.(‘봄조쟁이’라고 하지. 그거 허리에. 옛날엔 ‘속곳’ 입으니까 그 끈에 이렇게 해서 감아서 들어갔었거든.)

105021 @1 으음.(으음.)

105021 #5 게믄 전복 봐지민 그거 놔똥 왕. 경 허믄 만약 다른 사름이 기어 탕기당 그거 볼 수도 잇잖아.(그러면 전복 봐지면 그거 놔두고 와서. 그렇게 하면 만약 다른 사람이 기어 다니다 그거 볼 수도 잇잖아.)

105021 @1 예.(예.)

105021 #5 게믄 그걸 놔 잇이믄 아, 이거는 본 사름이 잇구나 허영 기냥 올라오곡.(그러면 그걸 놔 있으면 아, 이거는 본 사람이 잇구나 해서 그냥 올라오고.)

105021 @1 아.(아.)

105021 #5 지금은 그거 아니. 그냥 탕기니까 아무라도 먼저 기어 다니당 먼저 떼민 말민 똥여.(지금은 그거 아니. 그냥 다니니까 아무라도 먼저 기어 다니다가 먼저 떼면 말면 되어.)

105021 @1 음, 게도 옛날에는 누게나 놓니까 그걸 안 헨 거라예?(음, 그래도 옛날에는 누구나 놓으니까 그걸 안 한 거네요?)

105021 #5 으.(으.)

105021 @1 양심적으로.(양심적으로.)

105021 #5 게니까 다 알거든게.(그러니까 다 알거든.)

105021 @1 예, 예, 예.(예, 예, 예.)

105021 #5 경 허니까 그걸 봄, 봄조쟁이엔 허지.(그렇게 하니까 그걸 ‘봄’, ‘봄조쟁이’라고 하지.)

105021 @1 음,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고. 아까 구쟁기?(음,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고. 아까 소라?)

105021 #5 으.(으.)

105021 @1 그것도 종류별로 크기에 따랑도 이름도 트나지 안헉니까?(그것도 종류별로 크기에 따라서도 이름도 다르지 않습니까?)

105021 #5 거 빨이 엇영 막 영 몽글락헉 것이 잇주게.(거 빨이 없어서 막 이렇게 몽툭한 것이 있지.)

105021 @1 으.(으.)

사용하는 표지물을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표지가 작은 전복껍데기다.
391)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면 따위로 만든 옷이다.

105021 #5 문둥구쟁이³⁹².(‘문둥구쟁이.’)
 105021 @1 으.(으.)
 105021 #5 문둥이.(‘문둥이.’)
 105021 @1 문둥이.(‘문둥이.’)
 105021 #5 그건 문둥구쟁이. 쌀구쟁이³⁹³.(그건 ‘문둥구쟁이’. ‘쌀구쟁이’.)
 105021 #4 영 벌겨진 거 그거 영 쌀 신 건 그건 쌀구쟁기³⁹⁴.(이렇게 벌겨진 거
 그거 이렇게 돌기 있는 건 그건 ‘쌀구쟁기’.)
 105021 @1 예.(예.)
 105021 #5 이제 곧 깨운 건 조쿠쟁이³⁹⁵.(이제 곧 깬 건 ‘조쿠쟁이’.)
 105021 @1 조쿠쟁이.(‘조쿠쟁이’.)
 105021 #4 존 것³란 조쿠쟁이.(잔 것보고는 ‘조쿠쟁이’.)
 105021 #5 조쿠쟁이.(‘조쿠쟁이’.)
 105021 @1 예.(예.)
 105021 #4 세 가지, 일름도.(세 가지, 이름도.)
 105021 #5 예, 세 가지주게.(예, 세 가지지.)
 105021 @1 으, 게문 영 쌀 잇는 게 쥘.(으, 그러면 이렇게 돌기 잇는 게 쥘.)
 105021 #5 쌀구쟁이, 그건.(‘쌀구쟁이’, 그건.)
 105021 @1 쌀구쟁이. 뭐가 맛 좋습니까?(‘쌀구쟁이’. 뭐가 맛 좋습니까?)
 105021 #5 쌀구쟁이가 맛있지.(‘쌀구쟁이’가 맛있지.)
 105021 @1 아, 문둥구쟁이보단도.(아, ‘문둥구쟁이’보다도.)
 105021 #5 문둥구쟁이 질겨.(‘문둥구쟁이’ 질겨.)
 105021 @1 아.(아.)
 105021 #5 늣엇거든.(늣엇거든.)
 105021 @1 늣으난예?(늣으니까요?)
 105021 #5 건 질겨.(건 질겨.)
 105021 @1 어.(어.)
 105021 #5 으물도 쌀구쟁이보다 죽고.(여물도 ‘쌀구쟁이’보다 적고.)
 105021 @1 으, 게난 구쟁이 살 때 쌀구쟁이로 사야쿠다예?(으, 그러니까 소리
 살 때 ‘쌀구쟁이’로 사야겠네요?)
 105021 #5 으, 쌀구쟁이가 으물이 하.(으, ‘쌀구쟁이’가 여물이 많아.)
 105021 @1 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이 이 뚜껍들 이름도
 다 트납니까? 이렇게 허면 구쟁이 허면 꺾테기 이름허고 이 뚜께 이름허고 다 불르
 는 이름이 있어?(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이 이 뚜껍들 이름

392) ‘문둥구쟁이’는 꺾질에 나 있던 돌기가 떨어져 매끈하게 된 소리를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문둥이’라고 하였다.

393) ‘쌀구쟁이’는 꺾질에 난 돌기가 왕성한, 성숙한 소리를 말한다. 달리 ‘쌀구쟁기’라고도 하였다.

394) ‘쌀구쟁기’는 꺾질에 난 돌기가 왕성한, 성숙한 소리를 말한다. 달리 ‘쌀구쟁이’라고도 하였다.

395) ‘조쿠쟁이’는 꺾질의 돌기가 크지 않은 작은 소리를 말한다.

도 다 다릅니까? 이렇게 하면 소라 하면 껍데기 이름하고 이 뚜껑 이름하고 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

105021 #5 구쟁이딱살. 그 저 똥그란 거.(소라껍질. 그 저 똥그란 거.)

105021 #4 뚜껑 ㄹ라.(뚜껑보고.)

105021 #5 딱살.(껍질.)

105021 @1 뚜껑은 딱살. 으.(뚜껑은 껍질. 으.)

105021 #5 구쟁이겍죽엔만 허난 그건 몰르کن게.(소라껍질이라고만 하나까 그건 모르겠네.)

105021 @1 으, 그 속에, 속에도 뭐 이름 불리는 것이 있어?(으, 그 속에, 속에도 뭐 이름 부르는 것이 있어?)

105021 #5 속에?(속에?)

105021 @1 으.(으.)

105021 #4 그 속곳³⁹⁶엔 헌 거 있어.(그 ‘속곳’이라고 한 거 있어.)

105021 #5 아, 속곳엔 헌 거.(아, 속곳이라고 한 거.)

105021 @1 으.(으.)

105021 #5 영 씨와정 잇주게.(이렇게 씨워져 있지.)

105021 #4 그거 뱃겨 불어야.(그거 벗겨 버려야.)

105021 #5 그거 먹으민 씨.(그거 먹으면 씨.)

105021 #4 그거, 씨, 씨.(그거, 씨, 씨.)

105021 @1 건 속곳예? 어, 것도 구쟁이도 속곳을 다 입영 잇어예?(건 ‘속곳’요? 어, 것도 소라도 ‘속곳’을 다 입어서 있지요?)

105021 #5 으.(으.)

105022 @1 그다음에 옛날 여기 테우도 헛수가?(그다음에 옛날 여기 떼도 했습니까?)

105022 #5 으.(으.)

105022 #5 자리 테우.(자리돔 떼배.)

105022 #4 자리 떠난 테우.(자리 떴던 떼배.)

105022 #5 자리 떠난 테우 잇어났어.(자리 떴던 떼배 있었었어.)

105022 @1 으, 아버지 자리로 헤영 헤여난?(으, 아버지 자리돔으로 해서 했었어요?)

105022 #5 우리 아버진 그건 안 허고.(우리 아버진 그건 안 하고.)

105022 @1 아.(아.)

105022 #4 아녓주마는 그 시절까진 셔낫일 거라.(않았지만 그 시절까진 있었을 거야.)

105022 @1 으, 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겨우짜? 테우는.(으,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떼배는.)

396) ‘속곳’은 소라의 ‘땡냥’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양이 ‘속곳’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105022 #5 거 나무 허영 영 다 여경은에 테우 만든 거게.(거 나무 해서 이렇게 다 엮어서 떼배 만든 거.)
 105022 @1 으.(으.)
 105022 #5 지금도 텔레비도 나오난 보아가든.(지금도 텔레비전도 나오니까 보아가면.)
 105022 @1 예, 예.(예, 예.)
 105022 #5 마찬가지로.(마찬가지.)
 105022 #4 통낭으로, 통낭으로이.(통나무로, 통나무로.)
 105022 @1 으.(으.)
 105022 #4 통낭으로 영 여깁.(통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105022 #5 마찬가지로. 영 다 여경 만들영 그거.(마찬가지. 이렇게 다 엮어서 만들어서 그거.)
 105022 @1 으.(으.)
 105022 #5 그거 허영 그걸로.(그거 해서 그걸로.)
 105022 #4 시○이 아버지 그 자리 테우 허연 헤여났어이.(시○이 아버지 그 자리 떼배 해서 했었었어.)
 105022 @1 으.(으.)
 105022 #5 연대³⁹⁷도 헤였수게게.(‘연대’도 했었습니다.)
 105022 @1 으.(으.)
 105022 #5 연대 장난꾸레기 하르방 우리 들양 준여[주녀]³⁹⁸에 물에 들레 가든 이년 난 것덜아 다른 디 가라. 자리 따올리지 말렌. 웃음.(연대 장난꾸러기 할아버지 우리 데려서 ‘준여’에 물에 들러 가면 이년 난 것들아 다른 데 가라. 자리뎌 내 쫓지 말라고. 웃음.)
 105022 @1 아.(아.)
 105022 #5 경 헤여났어게.(그렇게 했었어.)
 105022 @1 경은에 거는 자리 허는 거예?(그래서 거는 자리뎌 하는 거요?)
 105022 #5 으.(으.)
 105022 @1 게든 자리 테우 하면은 자리 거리젠 허면 뭘 가정 가는 거?(그러면 자리뎌 떼배 하면은 자리 뜨려고 하면 뭘 가져서 가는 거?)
 105022 #5 족바지 큰 거.(뜰채 큰 거.)
 105022 #4 사드레. 사드레라고 헤난. 사드레.(사들. 사들이라고 했었어. 사들.)
 105022 #5 그것ㄴ라 사들이엔 허주. 사들.(그것보고 사들이라고 하지. 사들.)
 105022 #4 사드레.(사들.)
 105022 @1 사드레예?(사들요?)
 105022 #5 사들. 큰 족바지지게. 이 집만큼 현 거.(사들. 큰 뜰채. 이 집만큼 한

397) 여기에서 ‘연대’의 의미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이 하나인 연대가 있는 동네를 가리키는 말이다.

398) ‘준여’는 제주시 외도동 바닷가에 있는 여 이름이다.

거.)

105022 @1 으.(으.)

105022 #5 거 혼자서는 못 하여. 둘이서나 해주.(거 혼자서는 못 해. 둘이서나 하지.)

105022 @1 아, 게민 둘이 강 허는 거라예? 어.(아, 그러면 둘이 가서 하는 거네요? 어.)

105022 #4 멜 뜨는 족바지 닮은 거라도 큰 거.(멜치 뜨는 뜰채 같은 거여도 큰 거.)

105022 @1 예.(예.)

105022 #5 그거 보는 망안경 닮은 거 이만은 현 거 잇주게. 그걸로 보명 그 자리가 그디 들어가믄 들러내곡 경 헛지.(그거 보는 망원경 같은 거 이만큼 한 거 있지. 그걸로 보면서 그 자리돔이 거기 들어가면 들어내고 그렇게 헛지.)

105022 @1 아.(아.)

105022 #5 우리 같으믄 수정 닮은 건디.(우리 같으면 수정 같은 건데.)

105022 @1 예, 예, 예.(예, 예, 예.)

105022 #5 요만큼 현 것이 잇어.(요만큼 한 것이 잇어.)

105022 @1 아.(아.)

105022 #5 그거 보는 거?(그거 보는 거?)

105022 @1 그거 이름이 뭐렌 해?(그거 이름이 뭐라고 해?)

105022 #5 그거 마라 무신거여 헛주마는 얼른 생각 안 나네.(그거보고 무엇이디 닮지만 얼른 생각 안 나네.)

105022 #4 무신거?(무엇?)

105022 #5 그.(그.)

105022 @1 자리 보는 거.(자리돔 보는 거.)

105022 #5 자리 보는 거. 그걸.(자리돔 보는 거. 그걸.)

105022 #4 그거 물안경이엔 헛주게.(그거 물안경이라고 헛지.)

105022 #5 아니 물안경이엔 현 건 우리가 쓰는 거고. 테우에서 이만인 현 거 잇수다게. 이만인 현 거. 그거 보는 거.(아니 물안경이라고 한 건 우리가 쓰는 거고. 떼배에서 이만큼 한 거 있습니다. 이만큼 한 거. 그거 보는 거.)

105022 #4 뭇엔 하여.(무엇이라고 해.)

105022 #5 수정, 수정.(수정, 수정.)

105022 #4 아니.(아니.)

105022 #5 수정인 거 닮아, 수정. 우리가 수정 안경이렌 허는디 수정이엔 현 거 닮아.(수정인 거 같아, 수정. 우리가 수정 안경이라고 하는데 수정이라고 한 거 같아.)

105022 #4 물안경. 물안경 말로 들어나신디.(물안경. 물안경 말로 들었었는데.)

105022 #5 아니, 수정이나 뭐 물안경이나 그제 그건디.(아니, 수정이나 뭐 물안

경이나 그게 그건데.)

105022 @1 그게 그 말인디, 으.(그게 그 말인데, 으.)

105022 #5 켄디 그때만 해도 수경이엔 헨 거 다향.(그런데 그때만 해도 수경이라고 한 거 같아.)

105022 @1 으, 어쨌든 테우 허면은 물속에 행은에.(으, 어쨌든 떼배 하면은 물속에 해서.)

105022 #4 영 보는 거게.(이렇게 보는 거.)

105022 @1 보는 거예?(보는 거요?)

105022 #4 자리 어떻게 잇고 영.(자리 어떻게 잇고 영.)

105022 #5 수경이 맞은 거 다향. 그냥 말 그대로.(수경이 맞은 거 같아. 그냥 말 그대로.)

105022 @1 예.(예.)

105022 #5 물속을 본다 해서 수경.(물속을 본다 해서 수경.)

105023 @1 예, 아무튼 알았수다. 그다음 이제 삼촌네 아버지 헛던 돛배?(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삼촌네 아버지 헛던 돛배?)

105023 #5 으.(으.)

105023 @1 으, 돛배는 어떤, 그 아는 대로 글아줘 봅서. 돛배.(으, 돛배는 어떤, 그 아는 대로 말해줘 보십시오. 돛배.)

105023 #5 처음에는 풍선 헛고.(처음에는 풍선 헛고.)

105023 @1 으.(으.)

105023 #5 나중에는 기젯배 헛지게.(나중에는 기계선 헛지.)

105023 @1 음, 계난 그 낙배.(음, 그러니까 그 낙배.)

105023 #4 낙배가 풍선 들렛주기.(낙배가 풍선 달렸지.)

105023 @1 아, 낙배에 풍선 들린 거예. 계문 그걸로 헤영 뭐 헨 거? 아버지는?(아, 낙배에 풍선 달린 거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뭐 한 거? 아버지는?)

105023 #4 고기 나끄레.(고기 낚으러.)

105023 #5 고기 나끄레 다녔지.(고기 낚으러 다녔지.)

105023 @1 어떤 고기들?(어떤 고기들?)

105023 #5 생성도 나끄곡 고등어도 나끄곡 뭐 각제기도 나끄곡 그런 거 헛지.(옥돔도 낚고 고등어도 낚고 뭐 전갱이도 낚고 그런 거 헛지.)

105023 #4 우럭계, 우럭이여 불락이영 그런 거 다게.(우럭, 우럭이다 불락이다 그런 거 다.)

105023 #5 우럭 불락은 나끄지 아녔수다. 배로 강 그거 나끄레 안 가.(우럭 불락은 낚지 않았습시다. 배로 가서 그거 낚으러 안 가.)

105023 #4 그런 건.(그런 건.)

105023 @1 아.(아.)

105023 #5 그건 행 별이가 안 돼거든.(그건 해서 별이가 안 되거든.)

105023 #4 게도게 닥치는 대로 물민 데껴 불지 아녀거든게.(그래도 닥치는 대로 물면 던져 버리지 않았거든.)

105023 @1 으.(으.)

105023 #5 경 해도 그거 나끄레 일부러 가진 아녀주.(그렇게 해도 그거 낚으러 일부러 가진 않지.)

105023 @1 으.(으.)

105023 #5 다른 거 나끄레 갓당 물민 그거는 허주마는.(다른 거 낚으러 갔다가 물면 그거는 하지만.)

105023 @1 게은 주로 나끄는 게는 어떤 거를 헨 거라? 돈 웨는 게.(그러면 주로 낚는 거는 어떤 거를 한 거야? 돈 되는 게.)

105023 #5 이 철에 이제 고등어 나끄지.(이 철에 이제 고등어 낚지.)

105023 @1 으.(으.)

105023 #5 각제기 아지³⁹⁹.(전쟁이, 전쟁이.)

105023 @1 으.(으.)

105023 #5 그거 나끄지. 이 철엔 그걸 대목 나깻어.(그거 낚지. 이 철엔 그걸 대목 낚았어.)

105023 @1 으, 아지는 어떤 고기우파?(으, ‘아지’는 어떤 고기입니까?)

105023 #5 각제기.(전쟁이.)

105023 @1 각제기를 아지렌 해?(전쟁이를 ‘아지’라고 해?)

105023 #5 예.(예.)

105023 @1 어.(어.)

105023 #4 아지엔 말은 저 육지 사름덜이 아지, 아지 허대.(‘아지’라는 말은 저 육지 사람들이 ‘아지’, ‘아지’ 하대.)

105023 #5 거 지역마다 틀립디다. 전쟁이엔 허는 디도 잇고. 우린 각제기엔 허는다.(거 지역마다 틀립디다. 전쟁이라고 하는 데도 잇고. 우린 ‘각제기’라고 하는 데.)

105023 #4 전라도 사름덜은 아지엔 허대.(전라도 사람들은 ‘아지’라고 하대.)

105023 @1 예.(예.)

105023 #5 아지엔 허는 디 잇고 전쟁이엔 허는 디 잇고. 거 지역마다 뜯납디다.(‘아지’라고 하는 데 잇고 전쟁이라고 하는데 잇고. 거 지역마다 다릅디다.)

105023 #4 우리 제주도만 그냥 각제기.(우리 제주도만 그냥 ‘각제기’.)

105023 #5 각제기.(전쟁이.)

105023 @1 예, 예, 제주도는 각제기예?(예, 예, 제주도는 ‘각제기’요?)

105023 #5 그거.(그거.)

105024 @1 혹시 돛대 부분 명칭들 알아지쿠과?(혹시 돛대 부분 명칭들 알겠습니까?)

399) ‘아지(あじ)’는 전쟁이의 일본어다.

105024 #5 으?(으?)

105024 @1 부분 명칭. 이름, 이름들.(부분 명칭. 이름, 이름들.)

105024 #4 부분 명칭.(부분 명칭.)

105024 @1 으, 배 앞에는 뭐렌 해?(으, 배 앞에는 뭐라고 해?)

105024 #5 앞코지.(이물.)

105024 @1 으, 앞코지. 뒤에는?(으, 이물. 뒤에는?)

105024 #5 뒤코지ㄴ라 뵈엔 현다마는 뒤ㄴ라. 무신 자리, 무신 자리에는 현디 생각이 안 나네.(고물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만 뒤보고. 무슨 자리, 무슨 자리라고는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105024 @1 아, 그다음에.(아, 그다음에.)

105024 #4 이물. 이물.(이물. 이물.)

105024 #5 이물이엔 해신가.(이물이라고 했는가.)

105024 #4 이물이엔 헛어. 우리 집의 아방은 춤 기계 봐낫주마는 그.(이물이라고 했어. 우리 집의 아버지는 참 기계 봤었지만 그.)

105024 #5 앞코쟁이허고 뒤허고 낚시질 허는 건 왓다⁴⁰⁰주기.(이물하고 뒤하고 낚시질 하는 건 최고지.)

105024 #4 이물.(이물.)

105024 #5 뒤허고 앞은.(뒤하고 앞은.)

105024 @1 이물. 고물.(이물. 고물.)

105024 #5 맞아. 그거 경 현 거 닻아.(맞아. 그거 그렇게 한 거 같아.)

105024 @1 어.(어.)

105024 #4 고물. 고물. 뒤에, 뒤에 고물.(고물. 고물. 뒤에, 뒤에 고물.)

105024 @1 앞에는 이물. 으.(앞에는 이물. 으.)

105024 #5 이물 고물 현 거 닻아.(이물 고물 한 거 같아.)

105024 @1 게른 듯 영 다는 대는?(그러면 듯 이렇게 다는 대는?)

105024 #5 으, 그 앞에 건 큰 거 뒤에 거는 작은 거.(으, 그 앞에 건 큰 거 뒤에 거는 작은 거.)

105024 @1 으, 혹시 돛을 옛날 초석이렌도 헤난 거 들었지예?(으, 혹시 돛을 옛날 ‘초석’이라고도 했던 거 들었지요?)

105024 #5 초석엔도 헤낫주게.(‘초석’이라고도 했었지.)

105024 @1 으.(으.)

105024 #4 초석, 초석.(돛, 돛.)

105024 @1 초석예?(‘초석’요?)

105024 #5 초석이엔도 헤낫주게.(‘초석’이라고도 했었지.)

105024 #4 베초석.(돛.)

105024 #5 베초석.(돛.)

400) ‘왓다’는 ‘아주 좋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105024 @1 무신 초석?(무슨 ‘초석’?)

105024 #4 베초석. 베에 달리는 거나 베초석.(뚫. 베에 달리는 거니까 뚫.)

105024 #5 베초석.(뚫.)

105024 @1 베초석. 알았수다. 잠깐만예?(뚫.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6. 의생활

옷감

(부분 생략)

106001 @1 삼촌?(삼촌?)

106001 #4 윤디, 윤디 화룻불에 불살랑 윤디 영 진엇당 영 허영 다리곡.(인두, 인두 화룻불에 불살라서 인두 이렇게 때었다가 이렇게 해서 다리고.)

106001 @1 게, 옛날 옷 멘들어난 거예, 요즘도 허주만 옛날 옷 멘들어난 옷곰 덜은 어떤 거 잇수가?(글쎄, 옛날 옷 만들었던 거요, 요즘도 하지만 옛날 옷 만들었던 옷감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106001 #4 옷곰덜게 영허영 진 곰 영 허영 허곡게, 혼착은 질게 허민 영 코콜레 기 영 허영 허민 그것 ㄱ란 진 곰엔 허고. 옷음.(옷고름들 이렇게 해서 긴 고름 이렇게 해서 하고, 한쪽은 길게 하면 이렇게 고리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보곤 긴 고름 이라고 하고. 옷음.)

106001 @1 으.(으.)

106001 #4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6001 @2 옷감.(옷감.)

106001 @1 옷감, 그 뭐 멩지여 뭐 미녕이여 허는 거 어떤,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잇어난마씨? 친 종류?(옷감, 그 뭐 명주다 뭐 무명이다 하는 거 어떤,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었어요? 친 종류?)

106001 #4 멩지, 미녕 ㄱ튼 건 우리 할머니네 적에 그 짜는 거 봐낫인디. 우리 어릴 때에, 경 허난 옛날은 ㄱ스락 불살랑이.(명주, 무명 같은 건 우리 할머니네 적에 그 짜는 거 봤었는데. 우리 어릴 때에, 그렇게 하니까 옛날은 까끄라기 불살라서.)

106001 @1 으.(으.)

106001 #4 불 ㄱ스락 보리장만 헤난 ㄱ스락 헤영 메왕 낫당 그 ㄱ스락 불 살랑 그 미녕 그 꼬리, 그것 ㄱ라 꼬리엔 곧주기게.(불 까끄라기 보리장만 했던 까끄라기 해서 모아 낫다가 그 까끄라기 불 살라서 그 무명 그 실뚝, 그것보고 실뚝이라고 말하지.)

106001 @1 예.(예.)

106001 #4 이만씩 허여근에 그 숨 테우는 디 멘네도 갈아근에이 멘네 헤영 씨

블르는 거 무르웨, 그것ㄴ라 무르웨엔 허여. 영 허영 허든 영 영 허영 허든 씨 털어 지곡. 경 허난 그런 속담도 있어. 어, 저 구름은 밋밋 콩썬 닥닥. 그런 그 막 우시겔 해낫주게.(이만큼씩 해서 그 숨 타는 데 면화도 같아서 면화 해서 씨 바르는 거 씨 아, 그것보고 씨아라고 해. 이렇게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씨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속담도 있어. 어, 저 구름은 밋밋 콩썬 닥닥. 그런 그 아주 우스겔 했었지.)

106001 @1 음.(음.)

106001 #4 경 허난 무슨 뜻으로 헛인고 허든 멘네 영 허영 무르웨엔 춤 저 그 블르는 거 무르웨엔 허주기. 경 허여근에 영 허영 블라가민 맥영 멘네 씨 신 거 영 블라가민 썬 탁탁 털어, 이레 털어지곡. 안트레 털어지곡 기냥 숨 거세기 블라진 거 저 벳겨디레 가민 그런 속담게.(그렇게 하니까 무슨 뜻으로 했는가 하면 면화 이렇게 해서 씨아엔 참 저 그 바르는 거 씨아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발라 가면 먹여서 면화 씨 있는 거 이렇게 발라가면 썬 탁탁 떨어, 이리로 떨어지고. 안으로 떨어지고 그냥 숨 거시기 발라진 거 저 바깥으로 가면 그런 속담.)

106001 @1 으.(음.)

106001 #4 구름. 그 영 블르는 거 저레 나가 가민 구름은. 구름 헤영 허지 아녀. 경 허민 구름은 밋밋 콩썬 닥닥 경 허명 막 그런 우시개도 허여난.(구름. 그 이렇게 바르는 거 저리로 나가 가면 구름은. 구름 하양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구름은 밋밋 콩썬 닥닥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런 우스개도 했었어.)

106001 @1 어, 무르웨 헐 때예? 아.(아, 씨아 할 때요?)

106001 #4 그거 허연. 씨 블를 때.(그거 했어. 씨 바를 때.)

106001 @1 씨 블를 때.(씨 바를 때.)

106001 #4 씨 블를 때 허곡. 그 이제 저 숨 옛날 숨 탭는 디이. 그디 오랑 숨 테와근영에 그거 헤영 영 이만큼씩 허영 들앙, 영 영 들앙 오랑 그거 허영 무르에 허영 영 썬 빵.(씨 바를 때 하고. 그 이제 저 숨 옛날 숨 타는 데. 거기 와서 숨 타서 그거 해서 이렇게 이만큼씩 해서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와서 그거 해서 씨 아에 해서 이렇게 실 뽑아서.)

106001 @1 으.(으.)

106001 #4 영 등기멍.(이렇게 당기면서.)

106001 @1 예.(예.)

106001 #4 영 허영 헤영, 썬 경 영 허영 나와게. 영 허영 영 허영은에 썬 나와. (이렇게 해서 해서, 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실 나와.)

106001 @1 계난 그게 미녕 허는 거.(그러니까 그게 무명 하는 거.)

106001 #4 미녕 허는 거.(무명 하는 거.)

106001 @1 으.(으.)

106001 #4 그거 허영.(그거 해서.)

106001 @1 여기는 멍지는 안 해놔수가?(여기는 명주는 안 했었습니까?)

106001 #4 아년난.(안 했어.)

106001 @1 아.(아.)

106001 #4 멍진, 멍진 육지서 허여놔주, 이 제주돈 안 해나실 거라.(명준, 명준 육지서 했었지, 이 제주돈 안 했었을 거야.)

106001 @1 다른 데는. 게믄 미녕 잇고 멍지 잇고 또 천 어떤 종류 잇수가?(다른 데는. 그러면 무명 잇고 명주 잇고 또 천 어떤 종류 있습니까?)

106001 #4 미녕허고 멍지 그거만 알아져.(무명하고 명주 그거만 알아져.)

106001 @1 베?(베?)

106001 #4 벤 여기선 아니 허여.(벤 여기선 아니 해.)

106001 @1 아.(아.)

106001 #4 벤 짜지 아녀나고 그 베엔 현 건 진이엔 현 거이.(벤 짜지 았았었고 그 베라고 한 건 왕모시라고 한 거.)

106001 @1 예.(예.)

106001 #4 우리 할머니 적에 그거 허연 해신디, 밧에염에 영 나주게. 경 허믄 그거 허영 그 진 그 이파리가 너풀너풀허여게. 그거 허여다근엥에 뭐 헛어신디 그런 거 허연 옷 허는 건 우리 안 봐나고.(우리 할머니 적에 그거 해서 했었는데, 밧 가장자리에 이렇게 나지. 그렇게 하면 그거 해서 그 왕모시 그 이파리가 너풀너풀 해. 그거 해다가 뭐 했는데 그런 거 해서 옷 하는 건 우리 안 봤었고.)

106001 @1 아.(아.)

106001 #4 진이엔 현 거 그거 해엿당 그거 ㅂ, 그 나뭇가지 닳은 거 영 빼어뒤 근에 그거 허영 무시겨 영 꼬와근에이 무시겨 허곡 허는 건 봐난.(왕모시라고 한 거 그거 했다가 그거 바, 그 나뭇가지 닳은 거 이렇게 빼두고 그거 해서 무엇 이렇게 꼬아서 무엇 하고 하는 건 봤었어.)

106001 @ 아.(아.)

106001 #4 그걸로 옷 허는 거. 그 육지선 그걸로 베 짜곡 현텐 해연게.(그걸로 옷 하는 거. 그 육지선 그걸로 베 짜고 한다고 하던데.)

106001 @1 예, 모시도 허고예? 예, 진으로예?(예, 모시도 하고요? 예, 왕모시로 요?)

106001 #4 모시가 또 따로 있어. 진허고 모시허고 따로.(모시가 또 따로 있어. 왕모시하고 모시하고 따로.)

106001 @1 으, 따로.(으, 따로.)

106001 #4 모시 이파린 밧겿 등어리가 흐뎡 해또록허곡 경 허연게. 우리 할머니 네 적에 경 모시왔디 강 검질메사켜. 검질메사켜 경 허는 말도 들어나고.(모시 이파린 바깥 등이 조금 해뜩하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 할머니네 적에 그렇게 모시받에 가서 김매야겠다. 김매야겠다 그렇게 하는 말도 들었었고.)

106001 @1 아, 게믄 할머니네는 모시도 짜놔수가?(아, 그러면 할머니네는 모시

도 봤었습니까?)

106001 #4 모신 아녀고 미녕만 짜는 거 봐난.(모신 않고 무명만 짜는 거 봤었어.)

106001 @1 아, 미녕만 짜는 거예?(아, 무명만 짜는 거요?)

106001 #4 그 모시가 경 그 밧디가 하영 나니까 모시왓디 강 검질메켄 허멍 허여난 게. 다른 농서허영.(그 모시가 그렇게 그 밧에가 많이 나니까 모시밭에 가서 김매겠다고 하면서 했었던 게. 다른 농사해서.)

106001 @1 예.(예.)

106001 #4 모시 짜는 건 안 봐나고 미녕 짜는 것만 봐난.(모시 짜는 건 안 봤었고 무명 짜는 것만 봤었어.)

106001 @2 으.(으.)

명주

106002 @1 게믄 그 멩지썰 허는 것도 안 봐나시켜예?(그러면 그 명주실 하는 것도 안 봤었겠네요?)

106002 #4 으, 그런 것도 안 봐난. 여기선 멩진 안 해낫주게.(으, 그런 것도 안 봤었어. 여기선 명준 안 했었지.)

106002 @1 예.(예.)

106002 #4 멩진 육지서 헛일 거라. 몰라도.(명준 육지서 했을 거야. 몰라도.)

106002 @1 멩지 종류는 어떤 거 잇인 거 알아지쿠과?(명주 종류는 어떤 거 잇는 거 알겠습니까?)

106002 #4 그건 몰르커라.(그건 모르겠어.)

106004 @1 멩지는 안 해나 부난예. 게믄 멩지로는 어떤 옷들 헛니까? 여기서는?(명주는 안 했어 버리니까요. 그러면 명주로는 어떤 옷들 헛니까? 여기서는?)

106004 #4 여기서 옛날게 멩지로 호상덜 허곡게.(여기서 옛날 명주로 수의들 하고.)

106004 @1 으.(으.)

106004 #4 지금도 멩지 호상덜 헛실 거라.(지금도 명주 수의들 하고 있을 거야.)

106004 @1 멩지로예, 으, 삼춘 저기 결혼할 때는 무신 옷 입언?(명주로요, 으, 삼춘 저기 결혼할 때는 무슨 옷 입었어요?)

106004 #3 저 저 결혼할 땐 기냥게 그 족두리 쓰고 기냥 기자 한복 허연이.(저 저 결혼할 땐 그냥 그 족두리 쓰고 그냥 그저 한복 해서.)

106004 @1 으.(으.)

106004 #4 기냥 옷 허연 입고. 우의 그 뵈트 입어 부난 몰르주게.(그냥 옷 해서 입고. 위에 그 뵈트 입어 버리니까 모르지.)

106004 @1 으, 장옷.(으, 장옷.)

106004 #4 장옷게. 그것 ㄴ라 장옷게.(장옷. 그것보고 장옷.)

106004 @1 으, 그때 한복 저고리 시집에서는 멩지웃 안 해 줬수가?(으, 그때 한복 저고리 시집에서는 멩주웃 안 해 줬습니까?)

106004 #4 저 양단으로 해연.(저 양단으로 했어.)

106004 @1 아, 양?(아, 양?)

106004 #4 잘해 주누렌 그거 허연 양단으로.(잘해 주노라고 그거 해서 양단으로.)

106004 @1 음, 양단으로예? 예.(음, 양단으로요? 예.)

무명

106007 @1 아까, 미녕쌀 멘드는 그 과정 한번 곱아 줘 봅서. 어떤 식으로 헛인지?(아까, 무명쌀 만드는 그 과정 한번 말해 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했는지?)

106007 #4 그 멘네 불량게.(그 면화 발라서.)

106007 @1 으.(으.)

106007 #4 메, 그 밧디 멘네 갈민 그 그거 허영 멘네 그거 다 허영 혼이 됬민 그것이 짹짹 벌어진게. 우리 할머니네 헐 때.(메, 그 밧에 면화 갈면 그 그거 해서 면화 그거 다 해서 한이 되면 그것이 짹짹 벌어진데. 우리 할머니네 할 때.)

106007 @1 으.(으.)

106007 #4 영 보난 짹짹 벌렁, 벌어진민 그거 허영 그 숨광 영 뽑아오주기게.(이렇게 보니까 짹짹 벌어져서, 벌어진면 그거 해서 그 숨과 이렇게 뽑아오지.)

106007 @1 으.(으.)

106007 #4 경 허민 그디 씨가 들었어. 그 안네.(그렇게 하면 거기 씨가 들었어. 그 안에.)

106007 @1 예.(예.)

106007 #4 경 허민 그 무루웨에서 영 허영 맥이민 영 영 둘러 가민 썬 닥닥 앞더레 털어지곡 그건 영 밧것더레 가민 경 허민 그런 뜻으로 구름은 밧밧 하늘에 구름이 허영허지 아녀게. 그런 뜻인 셈이라.(그렇게 하면 그 씨아에서 이렇게 해서 먹이면 이렇게 이렇게 둘러 가면 썬 닥닥 앞으로 떨어지고 그건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그런 뜻으로 구름은 밧밧 하늘에 구름이 하야지 않은가. 그런 뜻인 모양이야.)

106007 @1 예.(예.)

106007 #4 구름은 밧밧 콩썬 닥닥 경 허멍.(구름은 밧밧 콩썬 닥닥 그렇게 하면서.)

106007 @1 으, 경 허연은에 불량. 그다음 썰은 어떻 만들어?(으, 그렇게 해서 발라서. 그다음 실은 어떻게 만들어?)

106007 #4 썰 경 허영 ** 그 숨 테우는 디 옛날 숨 테우는 기계가 잇어났어.(실 그렇게 해서 ** 그 숨 타는 데 옛날 숨 타는 기계가 있었었어.)

106007 @1 으.(으.)

106007 #4 저 우리 할머니네 애월면⁴⁰¹ 금덕⁴⁰² 그 유수암⁴⁰³엔 현 디 살아신디. 그때 이 외도만 숨 테우는 기계가 셔난게.(저 우리 할머니네 애월면 금덕 그 유수암이라고 한 데 살았었는데. 그때 이 외도만 숨 타는 기계가 있었어.)

106007 @1 음.(음.)

106007 #4 경 허난 그디서 이까지 오랑이 숨 테와근앵에 그 이치룩 그거 경 허민 영 영 무르웨를 그걸 허영 흐끔씩 몰앙 허영 허면은 그 무르웨에 영 허영 처음엔 썰 흐끔 영 영 영 영 브병 허영 그것그라 가레기엔 허던게.(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까지 와서 숨 타서 그 이처럼 그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물레를 그걸 해서 조금씩 말아서 해서 하면 그 물레에 이렇게 해서 처음엔 실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해서 그것보고 가락이라고 하던데.)

106007 @1 음.(음.)

106007 #4 가레기에 영 허영 흐끔 영 헛당 허민 영 둘렁 영 해 가민 그거 썰이 나와게.(가락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했다가 하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해 가면 그거 실이 나와.)

106007 @1 으.(으.)

106007 #4 경 허민 영 허여근앵에 그 그레 영 감아지곡. 또 영 허영 영 영 영 영 해여 가민 영 나오민 또 이젠 이 저 이 들르는 걸 흐끔 중단 쪼끔만 둘렁 영 허영 그레 감곡 경 허데.(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 그리로 이렇게 감아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젠 이 저 이 두르는 걸 조금 중단 쪼끔만 둘러서 이렇게 해서 그리로 감고 그렇게 하데.)

106007 @1 음, 계난 아까 소게 테와근앵에 영 영 그 밀면 그건 뭐렌 꼴아?(음, 그러니까 아까 숨 타서 이렇게 이렇게 그 밀면 그것 뭐라고 말해요?)

106007 #4 정.(정.)

106007 @1 그건 정이렌 허고.(그건 정이라고 하고.)

106007 #4 정 마는 거.(정 마는 거.)

106007 @1 게문 꼬리는 뭐우파?(그러면 실뚫은 뭘니까?)

106007 #4 꼬린 그 썰 그 빠근앵에 그 영 현 그 무시것에 그, 그거 담는 그 거 세기가 셔.(실뚫은 그 실 그 뽑아서 그 이렇게 한 그 무엇에 그, 그거 담는 그 거시기가 있어.)

106007 @1 으.(으.)

106007 #4 경 허민 미녕 차젠 허민 영 허영 그 초신착 닳은 거 영 허영 허민 영 등기곡 영 번으민 영 허영 그 알로 영 허영 꼬리 이거.(그렇게 하면 무명 짜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 짚신짜 닳은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번으면 이렇게 해서 그 아래로 이렇게 해서 실뚫 이거.)

106007 @1 예.(예.)

401) '애월면'은 '애월읍'의 전 행정체제 이름이다.
402) '금덕'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옛 이름이다.
403) '유수암'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를 말한다.

106007 #4 이거 영 허영 허민 영 영 허영 차곡.(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짜고.)

106007 @1 으.(으.)

106007 #4 또 영 등경 영 허민 또 영 차곡 경 허데, 우리 할머니네 우리 어린 때 보난.(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짜고 그렇게 하데, 우리 할머니네 우리 어릴 때 보니까.)

106007 @1 예, 경 허고. 혹시 그 미녕 찰 때 허면 이게 뭐 멧 새 미녕이여 허는 이런 말도 들어봅디가?(예, 그렇게 하고. 혹시 그 무명 짤 때 하면 이게 뭐 멧 새 무명이다 하는 이런 말도 들어봅디가?)

106007 #4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곡 기냥 미녕만.(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 그냥 무명만.)

106007 @1 아, 미녕만 하고.(아, 무명만 하고.)

106007 #4 할머니네 허는 거만 봐난게.(할머니네 하는 거만 봤었어.)

106010 @1 뭐 토목 이런 말도 안 들어보곡?(뭐 토목 이런 말도 안 들어보고?)

106010 #4 그런 것도 안 들어보곡.(그런 것도 안 들어보고.)

106010 @1 광목은?(광목은?)

106010 #4 광목도 여기선 안 헛일 거라.(광목도 여기선 안 했을 거야.)

106010 @1 으, 무사 미녕을 차든 광목 사오면 삼춘 그냥 옷 못 멘들잖아예? 그러면은 그걸 막 바레영은에 빨앙 넣고 허지 안헛니까?(으, 왜 무명을 짜든 광목 사오면 삼춘 그냥 옷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아주 바래서 빨아서 넣고 하지 않습니까?)

106010 #4 게, 바레영게.(글쎄 바래어서.)

106010 @1 빨기 전에 미녕은 무슨 미녕 헛니까?(빨기 전에 무명은 무슨 무명 헛니까?)

106010 #4 이불. 지금은 그 춤 빨래허영 허는 그 거세기덜이 지난 헛디. 그때는 저 우리 할머니네 허는 거 보난 그 이불안 ㄹ쁜 것도 버물민이.(이불. 지금은 그 춤 빨래해서 하는 그 거시기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때는 저 우리 할머니네 하는 거 보니까 그 이불안 같은 것도 더러우면.)

106010 @1 예.(예.)

106010 #4 물에 강 빨아근에 허난 지, 지금은 그 락스여 무시거영 허여근에 허지 아녀게.(물에 가서 빨아서 하니까 지, 지금은 그 락스다 무엇이냐 해서 하지 않는가.)

106010 @1 예.(예.)

106010 #4 경헌디 보난 화리에 불살라근영에 막 재.(그런데 보니까 화로에 불살라서 막 재.)

106010 @1 음.(음.)

106010 #4 재 허영 그걸 팔리여근에 그 잿물을 허여근에 빨래도 습곡 경 헛난,

허는 거 봐난.(재 해서 그걸 달귀서 그 잣물을 해서 빨래도 삶고 그렇게 했었어, 하는 거 봤었어.)

106010 @1 음, 예.(음, 예.)

106010 #4 그런 걸로. 비누 옷인, 비누 어려운 때에.(그런 걸로. 비누 없을, 비누 어려운 때에.)

106010 @1 예, 예.(예, 예.)

106010 #4 경 허여난.(그렇게 했었어.)

106010 @1 으.(으.)

106010 #4 그거.(그거.)

106010 @1 게른 미녕 허영은 어떤 옷덜 만들었수가?(그러면 무명 해서 어떤 옷들 만들었습니까?)

106010 #4 갈옷게. 감 들영.(갈옷. 감 들여서.)

106010 @1 으.(으.)

106010 #4 옷 멘들아근에이. 옷도 미녕옷도 경 허영 허민 할머니네 허는 거 봐신디 어린 때에게 봐신이. 갈중의⁴⁰⁴덜 허곡 춤 갈옷덜 허곡. 여즈 갈중의 남즈 갈중의 딱나주기게.(옷 만들어서. 옷도 무명옷도 그렇게 해서 하면 할머니네 하는 거 봤는데 어릴 때에 봤는데. ‘갈중의’들 하고 참 갈옷들 하고. 여자 ‘갈중의’ 남자 ‘갈중의’ 다르지.)

106010 @1 예.(예.)

106010 #4 경 허영 허민 우리 할머니는 여즈 갈중의 허민 이만이 널른 거 허영 허민 영 영 허여근에 이까지 영 허여근에 다림 청.(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할머니는 여자 ‘갈중의’ 하면 이만큼 넓은 거 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까지 이렇게 해서 대님 쳐서.)

106010 @1 음.(음.)

106010 #4 다림 쳐근에 헤영 밧디 땡기곡 경.(대님 쳐서 해서 밧에 다니고 그렇게.)

106010 @1 게른 그게 굴중의⁴⁰⁵우파? 흑시.(그러면 그게 ‘굴중의’입니까? 흑시.)

106010 #4 아니, 그건 감중의⁴⁰⁶. 감 들영 경.(아니, 그건 ‘감중의’. 감 들여서 그렇게.)

106010 @1 아, 감중의예?(아, ‘감중의’요?)

106010 #4 굴중의엔 현 건 치메 소굽에.(‘굴중의’라고 한 건 치마 속에.)

106010 @1 으.(으.)

106010 #4 지금 속옷 입듯기. 그것ㄴ라 굴중의엔 허연게. 경 허연 허난 영 허여근에 터진 거게.(지금 속옷 입듯이. 그것보고 ‘굴중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하

404) ‘갈중의’는 감물을 들어서 만든 중의다. 달리 ‘감중의’라고도 한다.

405) ‘굴중의’는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자들이 입는 옷이다.

406) ‘감중의’는 감물을 들어 만든 중의다. 달리 ‘갈중의’라고도 한다.

니까 이렇게 해서 터진 거.)

106010 @1 예.(예.)

106010 #4 뒤에 터진 거.(뒤에 터진 거.)

106010 @1 으.(으.)

106010 #4 경 허여근엥에 화장실에 가도 그것만 두이로 걸영 영 내립지 아녕
걸영 영 허영 뉘근에 치메 내립곡.(그렇게 해서 화장실에 가도 그것만 뒤로 걸어서
이렇게 내리지 않고 걸어서 이렇게 해서 뉘서 치마 내리고.)

106010 @1 치메 내립곡 으.(치마 내리고 으.)

106010 #4 경 허연게.(그렇게 하던데.)

106011 @1 게든 그 광목은 언제 나온 겨우파?(그러면 그 광목은 언제 나온 겁
니까?)

106011 #4 광목은 언제 광목은 여기서 허는 거 안 봐나난 몰르커라.(광목은 언
제 광목은 여기서 하는 거 안 봐나니까 모르겠어.)

106011 @1 아.(아.)

106011 #4 미녕 허는 것만 할머니네.(무명 하는 것만 할머니네.)

106011 @1 미녕 허는 것만.(무명 하는 것만.)

106011 #4 할머니네 미녕허는 것만.(할머니네 무명하는 것만.)

106011 @1 광목으로도 옷 허영 입었수가? 옛날에.(광목으로도 옷 해서 입었습
니까? 옛날에.)

106011 #4 광목으로도 헛지. 광목 바래여근엥에 이불안도 허곡 춤 미녕도 바래
영 이불안 허곡 경. 미녕 허영 현 거 이녁 집의서 현 어른덜이 경 허연 허어나곡.
광목. 광목은 이 제주도에선 아년 것 닻아. 미녕 주장.(광목으로도 헛지. 광목 바래
어서 이불안도 하고 참 무명도 바래서 이불안 하고 그렇게. 무명 해서 한 거 이녁
집에서 한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했었고. 광목. 광목은 이 제주도에선 았은 것 같
아. 무명 주장.)

106011 @1 미녕 주장예? 예.(무명 주장요? 예.)

106011 #4 미녕 주장.(무명 주장.)

106011 @1 예. 알았수다. 혹시 옛날 흥세미녕이렌 허영 들어봄디가?(예. 알았습
니다. 혹시 옛날 ‘흥세미녕’이라고 해서 들어봄디까?)

106011 #4 흥세 씨집 장계갈 때게.(혼서 시집 장가갈 때.)

106011 @1 예.(예.)

106011 #4 흥세옷⁴⁰⁷. 미녕으로 필로.(‘흥세옷’. 무명으로 필로.)

106011 @1 예.(예.)

106011 #4 흥세함이엔 현 거 영 허영 하꼬⁴⁰⁸이.(‘흥세함’이라고 한 거 이렇게
해서 상자.)

407) ‘흥세옷’은 혼서함에 넣은 무명으로 만든 옷

408) ‘하꼬(はこ)’는 상자의 일본어다.

106011 @1 예.(예.)

106011 #4 하꼬 허여근앵에 그것도 매 집이 엇잉 그것도 흥끔 영 사는 집안에 그런 거 허영 허민 그거 빌어다근앵에 그레 미녕 필로.(상자 해서 그것도 매 집에 없어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사는 집안에 그런 거 해서 하면 그거 빌려다가 그리로 무명 필로.)

106011 @1 예.(예.)

106011 #4 필로 영 허영 담곡 그레 옛날 씨집 장개갈 때 남즈 집에서 예문 예장이라고이.(필로 이렇게 해서 담고 그리로 옛날 시집 장가갈 때 남자 집에서 예문 예장이라고.)

106011 @1 예.(예.)

106011 #4 그 칙감⁴⁰⁹. 이녁 집안에 칙감 쓰는 것⁴⁰⁹라 예문 예장이엔 현. 그런 무시거 허영 광목 거세기레 농곡 경 허는 거 봐나신디 이젠 간단하게 뭐 무신 그런 거 허염서, 아념주기게.(그 ‘칙감’. 이녁 집안에 ‘칙감’ 쓰는 것보고 예문 예장이라고 하는. 그런 무엇 해서 광목 거시기로 놓고 그렇게 하는 거 봤었는데 이젠 간단하게 뭐 무슨 그런 거 하고 있어, 앓고 있지.)

106011 @1 음.(음.)

106011 #4 경 허난 우리 할머니네가 장손으로 막 춤 옷대 거세기로 허영 뭐 허여낫주게. 경 허연 하르버지네 경 허어나신디 베리움⁴¹⁰을 베리움을 현 거 허는 말 들언 현디. 요만씩 현 거 그 기냥 끈 들곡 허영은에 칭칭이 영 허영 그디 영 낡 허문. 문세 그든 것도 농곡이.(그렇게 하니까 우리 할머니네가 장손으로 아주 참 옷대 거시기로 해서 뭐 했었지.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네 그렇게 했었는데 ‘베리움’을 ‘베리움’을 한 거 하는 말 들어서 했는데. 요만큼씩 한 거 그 그냥 끈 달고 해서 층층이 이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놔서 하면. 문서 같은 것도 놓고.)

106011 @1 으.(으.)

106011 #1 기일 제스 때에 그 떡 ⁴⁰⁹는 거, 붓.(기일 제사 때에 그 떡 가는 거, 붓.)

106011 @1 예.(예.)

106011 #4 그런 것도 농곡 경 허는 것도 허엿는디 그거 우리 할머니 하르버지 돌아가서 불곡 이 외도 완 살아가난 우리 스촌 오래비 골동품으로 플렌 허난 폴아 불언.(그런 것도 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했었는데 그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서 버리고 이 외도 와서 살아가니까 우리 사촌 오라비 골동품으로 팔라고 하니까 팔아 버렸어.)

106011 @1 으.(으.)

106011 #4 폴아도났어. 경허고 우리 친정 옛날 조상이 저 육지 과걸 가낫젠.(팔기도 했었어. 그리고 우리 친정 옛날 조상이 저 육지 과걸 샀었다고.)

409) ‘칙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

410) ‘베리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

106011 @1 예.(예.)

106011 #4 과걸 간에 현디 상품이엔 현 건 돌안반.(과걸 가서 했는데 상품이라고 한 건 다듬잇돌.)

106011 @1 으.(으.)

106011 #4 돌로 댜 영 이만큼 현 안반이, 돌안반이엔 현 거 상품으로 그걸 경허난 이것도 상품. 우리 할머니가 옛날 조상덜 이거 과거 간 때에 상품으로 타 온 거난 이거 언제나 이거 영 허영 그것에서 이젠 춤 이불안이고 뵈이고 풀허민 그것에 놔근에 마께이.(돌로 뵈 이렇게 이만큼 한 안반이, ‘돌안반’이라고 한 거 상품으로 그걸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상품. 우리 할머니가 옛날 조상들 이거 과거 간 때에 상품으로 타 온 거니까 이거 언제나 이거 이렇게 해서 그것에서 이젠 참 이불안이고 뵈이고 풀하면 그것에 놔서 방망이.)

106011 @1 예.(예.)

106011 #4 마께로 영 영 허영 뚜드렁 빈찍빈찍허게 잘 뚜드렁 거세기 풀 사게 꾸리 헤영 허곡 허난. 그것도 우리 스촌 오래비 폴아 불언.(방망이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들겨서 반짝반짝허게 잘 두들겨서 거시기 풀 서게끔 해서 하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사촌 오라비 팔아 버렸어.)

106011 @1 으.(으.)

106011 #4 골동품으로 누게 사래 와시난. 그거 골동품으로 다 풀안. 저 떡실일 [떡실일] 때에.(골동품으로 누구 사러 왔으니까. 그거 골동품으로 다 팔았어. 저 떡 ‘실일’[떡실일] 때에.)

106011 @1 예.(예.)

106011 #4 쓸 킷다근앵에 제물 혈 쓸 킷다근앵에 건정은에 허든 남방에.(쌀 담갔다가 제물 할 쌀 담갔다가 건져서 하면 남방아.)

106011 @1 예.(예.)

106011 #4 그 도고리 닳은 거 이만인 허곡 그 가운데 요만큼 현 그 돌혹 영 허여근앵에. 거든 그 영 찡는 그 즈룩 신 거 거세기 허영 남방에. 영 허영 서르 간에 영 찍영.(그 함지박 같은 거 이만큼 하고 그 가운데 요만큼 한 그 돌혹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이렇게 찡는 그 자루 있는 거 거시기 해서 남방아. 이렇게 해서 서르 간에 이렇게 찡어서.)

106011 @1 으.(으.)

106011 #4 그것에서 ㄹ르, 쓸 킷다근앵에 그것에서 뵈앙 체로 치곡, 청.(그것에서 가루, 쌀 담갔다가 그것에서 빵아서 체로 치고, 쳐서.)

106011 @1 으.(으.)

106011 #4 옛날은 흐뵈 뵈헌 집안엔 경 헤낫젠. 우리 할머니네도 흐뵈 춤 뵈헌 집안 거세기난이, 세미⁴¹¹⁾ 은절미⁴¹²⁾.(옛날은 조금 뵈헌 집안엔 그렇게 했었다고.)

411) ‘세미’는 메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팔소 등을 넣어 집어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412) ‘은절미’는 쌀이나 메밀가루를 반죽한 후 얇게 밀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후에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

우리 할머니네도 조금 참 뭐한 집안 거시기니까, ‘세미’ ‘인절미’.)

106011 @1 예.(예.)

106011 #4 떡도이. 저 제물 헐 거. 세미, 세민 저 은절미엔 헌 건 영 허영 흥깃대⁴¹³)로 영영 허영 밀어근엥에 영 허영 썰영 뇌개반득 반듯허게시리 헌 건 은절미. 세미엔 헌 건 동글락허게 무신 판으로 영 떠근엥에.(떡도. 저 제물 할 거. ‘세미’, ‘세미’는 저 ‘은절미’라고 한 건 이렇게 해서 흥두께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렇게 해서 썰어서 네모반듯 반듯하게끔 한 건 ‘은절미’. ‘세미’라고 한 건 동그략게 무슨 판으로 이렇게 떠서.)

106011 @1 으.(으.)

106011 #4 그거 허영 그레 쉬 영 뇌근에 영 좁아.(그거 해서 그리로 소 이렇게 놔서 이렇게 집어.)

106011 @1 으.(으.)

106011 #4 경 허영 세미 은절미. 또 솔벤 절벤은 쫄ㄴ를로.(그렇게 해서 ‘세미’ ‘은절미’. 또 ‘솔벤’ 절편은 쌀가루로.)

106011 @1 예.(예.)

106011 #4 흰쫄ㄴ를로 헤여근엥에 들반착떡⁴¹⁴)이.(흰쌀가루로 해서 ‘들반착떡’.)

106011 @1 예.(예.)

106011 #4 들반착떡엔 글아났어.(‘들반착떡’이라고 말했었어.)

106011 @1 으.(으.)

106011 #4 그땐 솔벤 절벤이엔 헤나신디. 그 중간에 흐뎡 새 사름덜은 들반착떡엔 헤났어. 그거 허곡 또 요만씩 허영 떡 허여근엥에 그 영 영 동글락허게 허영 영 두 개 영 툇 부짱. 툇 부짱은엥에 영 영 영 영 그런 것ㄴ란 또 저 솔, 솔, 절벤이엔 허던가.(그땐 ‘솔벤’ 절편이라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조금 새 사름들은 ‘들반착떡’이라고 했었어. 그거 하고 또 요만씩 해서 떡 해서 그 이렇게 이렇게 동그략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툇 붙여서. 툇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 보고는 또 저 솔, 솔, 절편이라고 하던가.)

106011 @1 으.(으.)

106011 #4 그 영 판으로 뜬 건 솔벤. 소랑헌 들반착떡은 솔벤. 그것ㄴ란 절벤이엔 헤여근에 거 하나로 아년 두 개 영 동글락허게 손뿌리 만씩 동글락허게 두 개 영 툇 부짱은에 바위 문딱 좁아 붙지 아녕.(그 이렇게 판으로 뜬 건 ‘솔벤’. 기름한 ‘들반착떡’은 ‘솔벤’. 그것보곤 절편이라고 해서 거 하나로 앓고 두 개 이렇게 동그략게 손부리 만큼씩 동그략게 두 개 이렇게 툇 붙여서 가장자리 몽땅 집어 버리지 앓고.)

106011 @1 예.(예.)

한다.
413) ‘흥깃대’는 표준어 ‘흥두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흥두께’를 밀대로 사용해서인지 제보자는 밀대의 의미로 흥두께를 사용하고 있다.
414) ‘들반착떡’은 떡 모양이 반달 모양이어서 붙인 이름이다. ‘솔벤(솔편)’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106011 #4 바월 흐뎡 영 허게시리 두 개 부쩍 거 알게.(가장자리를 조금 이렇게 하계끔 두 개 붙인 거 알.)

106011 @1 예.(예.)

106011 #4 경 허연 영 허영 허곡 허여난, 우리 할머니네 적에.(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했었어, 우리 할머니네 적에.)

106011 @1 예.(예.)

106011 #4 경 허연.(그렇게 했어.)

106011 @1 계난 그 아까 그 흥세미녕 허잖아예?(그러니까 그 아까 그 ‘흥세미녕’ 하잖아요?)

106011 #4 으.(으.)

106011 @1 그 미녕 허면 그거는 뭐 허는 겨우짜?(그 무명 하면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106011 #4 그거 뭐 허여게. 그거 흥세미녕 그 반양 허영 허든 신랑침의서 신부 침이 가져오민 그거 허영 이불안도 허곡게, 경 허연 쓰주기에.(그거 뭐 해. 그거 ‘흥세미녕’ 그 받아서 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가져오면 그거 해서 이불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쓰지.)

106011 @1 아, 이불안도 허고 그걸로.(아, 이불안도 하고 그걸로.)

106011 #4 이불안도 허곡게 옷도 허영 입곡 경 허연.(이불안도 하고 옷도 해서 입고 그렇게 했어.)

106011 @1 보통 혼 필?(보통 한 필?)

106011 #4 으, 하나. 아니 두 필씩 놔.(으, 하나. 아니 두 필씩 놔.)

106011 @1 두 필씩.(두 필씩.)

106011 #4 착 채움으로.(짜 채움으로.)

106011 @1 아, 두 필. 게든 혼 필이 몇 자우짜?(아, 두 필. 그러면 한 필이 몇 자입니까?)

106011 #4 그 미녕 옛날은 그 마은 자라 혼 필이엔 허여.(그 무명 옛날은 그 마흔 자보고 한 필이라고 해.)

106011 @1 아, 잘도 하영 현 거라예? 두 필 허영 오민예?(아, 잘도 많이 한 거 네요? 두 필 해서 오면요?)

106011 #4 경 허영. 경 허곡 그 흥세함드레 하꼬에 그거 허영 담곡, 그 우의 예문 예장게. 글월이지, 뭐 사젠 허민 글월 뭐 쓰듯기.(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 ‘흥세함’으로 상자에 그거 해서 담고, 그 위에 예문 예장. 글월이지, 뭐 사려고 하면 글월 뭐 쓰듯이.)

106011 @1 예, 예.(예, 예.)

106011 #4 그거 경 씨근에 거 놓곡 허영 가정은 거 봐난.(그거 그렇게 써서 거 놓고 해서 가져온 거 봤었어.)

106011 @1 으.(으.)

106011 #4 경헌디 지금은 그것저것 혼헌 때난 건 치와 두고 예문 예장만 썬 놓는 거 허여난, 지금은.(그런데 지금은 그것저것 혼헌 때니까 건 치워 두고 예문 예장만 써서 놓는 거 했었어, 지금은.)

106011 @1 예, 이젠 그런 건 안 허고예?(예, 이젠 그런 건 안 하고요?)

106011 #4 이젠 예문 예장도 안 험주기게. 이젠 안 험실 거라.(이젠 예문 예장도 안 하고 있지. 이젠 안 하고 있을 거야.)

106011 @2 안 험, 안 험수다.(안 했어, 안 합니다.)

106011 #4 안 험주기게.(안 하고 있지.)

106011 @1 삼, 삼촌네도 멘네 갈아볶디가?(삼, 삼촌네도 면화 갈아볶디가?)

106011 #4 아니 해판.(아니 해봤어.)

106011 @1 아, 멘네는예?(아, 면화는요?)

106011 #4 할머니네 적어.(할머니네 적에.)

106011 @1 어, 어떤 식으로 멘네 갑디가?(어, 어떤 식으로 면화 갑디가?)

106011 #4 멘네게 경 해난. 밧디 경 갈양 허민이 그거 허영 방 벌영 소팡은에 허믈 그 드레 요만씩 허영 올라. 멘넛드레.(면화 그렇게 했었어. 밧에 그렇게 갈아서 하면 그거 해서 방 벌여서 숙아서 하면 그 다래 요만큼씩 해서 열어. 목화다래.)

106011 @1 으.(으.)

106011 #4 멘넛드레 허믈. 그걸 그 익, 익으면 솜으로나 영 벌어지민 그걸 솜을 타당은엔에 무르웨엔 허영 씨 털곡 그거 허영 미녕 좃고 해신디. 그 그 드레 요멘씩 해연 처음 올라근엔에 뭐 헌 댐이 그거 우리 할머니네 몰르게 타 먹어난.(목화다래 하면. 그걸 그 익, 익으면 솜으로나 이렇게 벌어지면 그걸 솜을 따서 씨아라고 해서 씨 떨고 그거 해서 무명 좃고 했는데. 그 그 다래 요만큼씩 해서 처음 열어서 뭐 한 때는 그거 우리 할머니네 몰르게 따 먹었었어.)

106011 @1 음.(음.)

106011 #4 그거 허민 흐뎡 들코롬허곡게. 그거 연헌 때.(그거 하면 조금 달콤하고. 그거 연한 때.)

106011 @1 예.(예.)

106011 #4 경 허영 허믈 에이그, 거 타 먹지 말렌 허멍 허곡 해여난게.(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고, 거 따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하고 했었어.)

106011 @1 예.(예.)

106011 #4 경 해연 그것이 크민 이젠 막 혼참 그것이 벌어지민 솜 돼영 그거 뭐 허곡 경 허연게.(그렇게 해서 그것이 크면 이젠 막 한참 그것이 벌어지면 솜 되어서 그거 뭐 하고 그렇게 하던데.)

모시

106012 @1 예. 여기는 모시도 안 허곡.(예. 여기는 모시도 안 하고.)

삼

106017 @1 삼엔 헌 거는 삼베 허는 거는?(삼엔 하는 거는 삼베 하는 거는?)

106017 #4 삼베 허는 건 우린 못 봤.(삼베 하는 건 우린 못 봤어.)

106017 @1 예, 그것도 못 보고예, 예?(예, 그것도 못 보고요, 예?)

도구

106019 @1 그다음에 베클은?(그다음에 베틀은?)

106019 #4 베클, 베클은 그 미녕 짜는 것도 베클이엔 허주게.(베틀, 베틀은 그 무명 짜는 것도 베틀이라고 하지.)

106019 @1 아.(아.)

106019 #4 미녕 영 영 허영 허민 크게 영 허영 허민 가운데로 거세기 헤영 영 허영 허민 그 신착, 초신착 영 허여근에 거 영 허영 허민 영 허영 탁 차곡. 영 등기 민 또 우알 영 들러지민 영 꼬리, 그것 마라 꼬리엔 허주기.(무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크게 이렇게 해서 하면 가운데로 거시기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신착, 짚신착 이렇게 해서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탁 짜고. 이렇게 당기면 또 위아래 이렇게 들어지면 이렇게 실뚫, 그것보고 실뚫이라고 하지.)

106019 @1 예, 예.(예, 예.)

106019 #4 꼬리 담는 거엔 허고. 그런 거 허는 거 할머니네 허는 거 봐난.(실뚫 담는 거라고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할머니네 하는 거 봤었어.)

106019 @1 게른 썰 허는 것도 물르웨고.(그러면 실 하는 것도 물레고.)

106019 #4 무르웨.(물레.)

106019 @1 씨 불리는 것도 물르웨 험니까? 이름이.(씨 바르는 것도 ‘물르웨’ 합니까? 이름이.)

106019 #4 그거 몰라. 이젠 무르웨엔 헛일 거라. 무르웨로 그거 허영 씨 블라사컬, 씨 블라사컬, 경 씨 블라사컬.(그거 몰라. 이젠 ‘무르웨’라고 했을 거야. 씨아로 그거 해서 씨 발라야 할 걸, 씨 발라야 할 걸, 그렇게 씨 발라야 할 걸.)

106019 @1 씨 블라사컬 무르웨. 썰 짓는 것도 무르웨?(씨 발라야 할 걸 씨아. 썰 짓는 것도 ‘무르웨’?)

106019 #4 썰, 썰 영 허는 것도 그걸 거. 잘 모르켄게.(실, 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걸 거. 잘 모르겠는데.)

106019 @1 예.(예.)

106019 #4 씨 불리는 건 하여튼 무르웨, 멘네 블, 씨 불리는 무르웨, 무르웨 경 허곡 경 해난. 웨정시대 댜 그것도 못허게 막 허영 허민이 포장 청 캄캄허게 허영 허곡.(씨 바르는 건 하여튼 씨아, 면화 바, 씨 바르는 씨아, 씨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 일제강점기 댜 그것도 못허게 막 해서 하면 포장 쳐서 캄캄허게 해서 하고.)

106019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6019 #4 뭣이든지 공출만 허렌 허영.(뭣이든지 공출만 하라고 해서.)

바느질

106022 @1 웃음. 삼촌 계민 바느질. 집에서 바느질할 때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
코예?(웃음. 삼촌 그러면 바느질. 집에서 바느질할 때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까요?)

106022 #4 윤디 잇주기계. 영 영 다리는 거이.(인두 있지. 이렇게 이렇게 다리는
거.)

106022 @1 예.(예.)

106022 #4 영 즈룩 잇고 기자 요만인 현 그 쪼짜코쟁이 허곡 윤디 화리 헤영
진엇당근엥에 이치룩 오그라진 디 영 허영 싹 허영 다리곡 또 나도 저고린 헤 봐신
디.(이렇게 자루 잇고 그저 요만큰 한 그 뽀족코 하고 인두 화로 해서 때었다가 이
처럼 오그라진 데 이렇게 해서 싹 해서 다리고 또 나도 저고린 헤 봤는데.)

106022 @1 음.(음.)

106022 #4 헤영 허른 스미이.(해서 하면 소매.)

106022 @1 예.(예.)

106022 #4 저구릿 스미도 영 허영 폐와근에 이녁 생각으로.(저고리 소매도 이렇
게 해서 퍼서 이녁 생각으로.)

106022 @1 으.(으.)

106022 #4 생각으로 영 허영 허른 요거 흐끔 비스름하게 영 허여근엥에.(생각으
로 이렇게 해서 하면 요거 조금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106022 @1 으.(으.)

106022 #4 그 둘르곡 경 허연.(그 두르고 그렇게 했어.)

106022 @1 윤디 필요허고.(인두 필요허고.)

106022 #4 윤디.(인두.)

106022 @1 그다음 바.(그다음 바.)

106022 #4 화리.(화로.)

106022 @1 화리 필요허고. 그다음에 바느질허젠 허민 바농도 필요.(화로 필요하
고. 그다음에 바느질하려고 하면 바늘도 필요.)

106022 #4 바농허곡계, 또 저.(바늘하고, 또 저.)

106022 @1 찔도 필요허고.(실도 필요허고.)

106022 #4 찔도 필요허곡. 바농 영 허여근에 허영 허른 그.(실도 필요허고. 바늘
이렇게 해서 하면 그.)

106022 @2 골미.(골무.)

106022 #4 이디 영 아프지이?(여기 이렇게 아프지?)

106022 @1 예.(예.)

106022 #4 경 허영 허른 그거 허영 찌는 것ㄴ라 골미.(그렇게 해서 하면 그거
해서 끼는 것보고 골무.)

106022 @1 골미.(골무.)
106022 #4 골미.(골무.)
106022 @1 아.(아.)
106022 #4 골미.(골무.)
106022 @1 골미도 필요허곡.(골무도 필요하고.)
106022 #4 그거 영 허민 바농 영 찢르민 영 허영 밀려사 바농 영 나오난에 그
것ㄴ라 골미.(그거 이렇게 하면 바늘 이렇게 찢르면 이렇게 해서 밀려야 바늘 이렇
게 나오니까 그것보고 골무.)
106022 @1 게난 골미는 어느 손에 끼우는 거우꽈?(그러니까 골무는 어느 손에
끼우는 겁니까?)
106022 #4 골미게, 영 허민 이 손에 헤사.(골무, 이렇게 하면 이 손에 해야.)
106022 @1 오른손에?(오른손에?)
106022 #4 으, 오른손에 헤사. 바농질을 오른쪽으로 허난. 영 허영 영 허영 허민
밀려사게 허난 오른손에.(으, 오른손에 해야. 바농질을 오른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밀려야 하니까 오른손에.)
106022 @1 골미허고.(골무하고.)
106022 @2 두 번째우꽈? 세 번째우꽈?(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106022 #4 영 허난 이걸로 헤진 거 닻아.(이렇게 하니까 이걸로 헤진 것 같아.)
106022 @2 으, 으. 상손가락예?(으, 으. 가운데손가락이요?)
106022 @1 게난 허고. 그다음에 자도 필요허잖아예?(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자도 필요하잖아요?)
106022 #4 자.(자.)
106022 @1 으.(으.)
106022 #4 자도 요만큼 허영근엥에 그 경 멧 치, 멧 치 그것ㄴ라.(자도 요만큼
씩 해서 그 그렇게 멧 치, 멧 치 그것보고.)
106022 @1 으.(으.)
106022 #4 이거 흔 자 멧 치. 그 반 자문 멧 치. 경 헤영근에 이만큼 자엔 소랑
헌 거 요만이 영 허영 허영 허민 요만큼 그 치가 잇주기.(이거 한 자 멧 치. 그 반
자면 멧 치. 그렇게 해서 이만큼 자라고 기름한 거 요만큼 이렇게 해서 해서 하면
요만큼씩 그 치가 있지.)
106022 @1 예.(예.)
106022 #4 경 헌 것ㄴ라 멧 치.(그렇게 한 것보고 멧 치.)
106022 @1 으.(으.)
106022 #4 흔 치, 두 치.(한 치, 두 치.)
106022 @1 흔 치 두 치 허고.(한 치 두 치 하고.)
106022 #4 경.(그렇게.)
106022 @1 그다음에 천 이렇게 찢르젠 허민 뭐가 필요헛수가?(그다음에 천 이

렇게 자르려고 하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106022 #4 가위계.(가위.)

106022 @1 가위를 여기선 뭐렌 굴안? 옛날 말로?(가위를 여기선 뭐라고 말해? 옛날 말로?)

106022 #4 ㄹ세.(가위.)

106022 @1 예, ㄹ세. 그런 바농이영 ㄹ세영 담아 놔두는 도군 뒤에 담안, 그 건?(예, 가위. 그런 바늘이랑 가위랑 담아 놔두는 도군 뒤에 담았어요, 그건?)

106022 #4 다 잊어 불언, 그거 **. (다 잊어 버렸어, 그거. **)

106022 @1 바농상지.(반진고리.)

106022 #4 으, 바농상지.(으, 반진고리.)

106022 @1 예.(예.)

106022 #4 바농상지 가정오라 경 허곡.(반진고리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106022 @1 아.(아.)

106022 @2 바농은 뒤에 찢러놔수가?(바늘은 뒤에 찢렸었습니까?)

106022 #4 바농상지, 바농상지. 바농 지금도 웃음 나 우리 집인 웃인디 우리 딸 렌 바농상지 헤여근에이 영 바농 찢르는 거 셔.(반진고리, 반진고리. 바늘 지금도 웃음 나 우리 집엔 없는데 우리 딸은 반진고리 해서 이렇게 바늘 찢르는 거 있어.)

106022 @1 예. 그건 이름이 뭐렌 험니까?(예. 그건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106022 #4 몰르커라.(모르겠어.)

106022 @1 바농졸레.(바늘겨레.)

106022 #4 바농, 바농, 바농졸레가 맞을 거라. 찢르는 거니까. 졸레.(바늘, 바늘, 바늘겨레가 맞을 거야. 찢르는 거니까. 바늘겨레.)

106022 @1 으, 그다음에 보면 막 찢이영 찢패영 헤근에 바농영 놔근에 무신 천 천으로 영 만듭디다.(으, 그다음에 보면 막 실이랑 실패랑 해서 바늘이랑 놔서 무슨 천으로 이렇게 만듭디다.)

106022 #4 바농 똥?(바늘 놔서?)

106022 @1 으, 뭐 천 쪼가리영 이런 거영 영 그 바농상지 속에 허면 영 네모나게 천 만들영은에 거기에 다 담고 허연게마는.(으, 뭐 천 쪼가리랑 이런 거랑 이렇게 그 반진고리 속에 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천 만들어서 거기에 다 담고 하던데.)

106022 #4 담은, 그 바농상지벳기 더 셔게?(담은, 그 반진고리밖에 더 있어?)

106022 @1 예, 고녕이포⁴¹⁵) 이런 거는 여긴 안 험니까?(예, ‘고녕이포’ 이런 거는 여긴 안 합니까?)

106022 #4 아니.(아니.)

106022 @1 아, 건 안 허여예? 알았수다.(아, 건 안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106022 #4 바농상지 기자.(반진고리 그저.)

415) ‘고녕이포’는 실이나 바늘, 천 쪼가리 따위를 넣기 위해 천으로 네모나게 만든 주머니다. 한쪽에 긴 끈을 달아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둘둘 말아 고정시킨다.

106023 @1 바농질할 때도 보면 이 허는 방법도 으라 가지지예?(바느질할 때도 보면 이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요?)

106023 #4 여라 가지주. 이녁만 거세기만씩게.(여러 가지지. 이녁만 거시기만큼 씩.)

106023 @1 게든 뭐 바농질 종륜 어떤 거 잇수가? 흠질이여.(그러면 뭐 바느질 종륜 어떤 거 있습니까? 흠질이다.)

106023 #4 바농질 종륜, 종륜게. 그 남즈 바지 여자 거 뜨나고 허난 옷도 뜨나 곡 허난 경 허연 허난 잘 몰르커라. 이젠 잇어 불언.(바느질 종륜, 종륜. 그 남자 바지 여자 거 다르고 하니까 옷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잘 몰르겠어. 이젠 잇어 버렸어.)

106023 @1 으, 뭐 감치기 허는 거?(으, 뭐 감치기 하는 거?)

106023 #4 감, 감치기 허는 거 것도 허고. 옛날 우리 어머니도 바느질을 허여낫 주게.(감, 감치기 하는 거 것도 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도 바느질을 했었지.)

106023 @1 예.(예.)

106023 #4 샅바느질.(샅바느질.)

106023 @1 아.(아.)

106023 #4 샅바느질 동네에 그 신랑신부 그 옷게. 경 허영 우리 어머니가 허여 나신디 그 샅[쌩]바느질. 경 허영 허곡. 경 허든 운디로 경 허영 다리명 뭐 허곡 허여난. 이젠 다 잇어 불영 몰르커라.(샅바느질 동네에 그 신랑신부 그 옷.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했었는데 그 샅바느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인두로 그렇게 해서 다리면서 뭐 하고 했었어. 이젠 다 잇어 버려서 모르겠어.)

106023 @1 예, 게난 이불 같은 거 헐 때는 듬성듬성 영 허잖아예? 걸 뭐 허염 덴 해?(예,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거 할 때는 듬성듬성 이렇게 하잖아요? 걸 뭐 하고 있다고 해?)

106023 #4 으.(으.)

106023 @1 호암찌?(호고 있다?)

106023 #4 영 영 듬성듬성 호으라, 경.(이렇게 이렇게 듬성듬성 호라, 그렇게.)

106023 @1 듬성듬성 호으라 허곡. 이런 단 같은 거 감으멍 허는 거는?(듬성듬성 호아라 하고. 이런 단 같은 거 감으면서 하는 거는?)

106023 #4 단?(단?)

106023 @1 으.(으.)

106023 #4 감추라.(감쳐라.)

106023 @1 감추라 허곡. 촘촘허게 영 박는 거는?(감쳐라 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박는 거는?)

106023 #4 촘촘허게 박는 건게. 이제 몰라.(촘촘하게 박는 건. 이제 몰라.)

106023 @1 뎅침.(박음질.)

106023 #4 몰라게.(몰라.)

106023 @1 으.(으.)

106023 #4 잊어 불언. 다 이젠 잊어 불언. 영 감추라 기자 저 송당송당 주라, 기자.(잊어 버렸어. 다 이젠 잊어 버렸어. 이렇게 감춰라 그저 저 듚성듬성 기워라, 그저.)

106023 @1 듚성듬성.(듚성듬성.)

106023 #4 송당송당 주라 현 건 드물게 주라 현 말이주게.(듚성듬성 기워라 현 건 드물게 기워라 한 말이지.)

106023 @1 예.(예.)

106023 #4 송당송당 주라 영.(듚성듬성 기워라 이렇게.)

옷 종류

106024 @1 알았수다. 옷 종류예, 남자옷 종류는 어떤 종류들 잇어나신고예? 옛날예.(알았습니다. 옷 종류요, 남자옷 종류는 어떤 종류들 있었었나요? 옛날요.)

106024 #4 남자덜 바지저고리게.(남자들 바지저고리.)

106024 @1 예.(예.)

106024 #4 두루막.(두루마기.)

106024 @1 바지저고리 두루막.(바지저고리 두루마기.)

106024 #4 그거주기게, 조께.(그거지, 조끼.)

106024 @1 쪼께.(조끼.)

106024 #4 쪼께허곡 어른덜 흐뎡 집안에 뭐 현 집안에 휘양이라고이. 휘양이라고 영 허영 겨울에 쓰는 휘양. 우리 하르버지네도 써나신디 휘양이, 휘양, 휘양 허영 현디 그거 따습게, 겨울에.(조끼하고 어른들 조금 집안에 뭐 한 집안에 휘양이라고. 휘양이라고 이렇게 해서 겨울에 쓰는 휘양. 우리 할아버지네도 썼었는데 휘양이, 휘양, 휘양 해서 했는데 그거 따습게, 겨울에.)

106024 @1 예.(예.)

106024 #4 경 현 것도 허고 흐뎡 집안에 뭐현 집안에 어른덜은 어디 나갈 뎨 갖 쓰고.(그렇게 한 것도 하고 조금 집안에 뭐한 집안에 어른들은 어디 나갈 뎨 갖 쓰고.)

106024 @1 예.(예.)

106024 #4 갖 쓰곡이 경 혜연 간. 우리 하귀⁴¹⁶⁾ 외하르버지가 옛날 우리 어린 뎨디이. 그때 흐뎡 베와시민 눈뜰 건디.(갖 쓰고 그렇게 해서 갔어. 우리 하귀 외할 아버지가 옛날 우리 어릴 뎨데. 그때 조금 배웠으면 눈뜰 건데.)

106024 @1 음.(음.)

106024 #4 욱 들으명도 어린 때에게 흐.(욕 들으면서도 어릴 때에 한.)

106024 @1 예.(예.)

106024 #4 흐 예실굽 설 전에게 경 허영 허믄 우리 외하르버지가 한문 선생이

416)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라난 건 알아져.(한 예닐곱 살 전에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문 선생이었던 건 알아져.)

106024 @1 음.(음.)

106024 #4 한문 선생이라난 건 알아지는데. 경 현디 옛날 시절에 우리 어머니도 그 시절에도 참 우리 외삼촌네 서월 살곡 다 허여근에 현디 펜지 거래 펜지 쓰고 편지 쓰곡 익곡.(한문 선생이었던 건 알아지는데. 그렇게 했는데 옛날 시절에 우리 어머니도 그 시절에도 참 우리 외삼촌네 서울 살고 다 해서 했는데 편지 거래 편지 쓰고 편지 쓰고 읽고.)

106024 @1 예.(예.)

106024 #4 경 혜연 혜여신디 그걸 배울 건디 경 어린 때라 부난 슬편게. 그 지금 ㄴ치 육앗이민 그거 흐끔 흐 제나 더 뵈젠 허영 배와실 건디.(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배울 건데 그렇게 어릴 때여 버리니까 싫어서. 그 지금 같이 컸으면 그거 조금 한 자나 더 배우려고 해서 배웠을 건데.)

106024 @1 예.(예.)

106024 #4 경 허곡 우리 저 무시거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난 콩죽을 썰이.(그렇게 하고 우리 저 무엇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니까 콩죽을 썰서.)

106024 @1 음.(음.)

106024 #4 경 허영 먹을 거 아니? 즈냐 때에 콩죽을 썰 먹으면 껌은솏디 누렁이가 늘 거 아니게. 경 허믄 그 누렁이 영 팡 먹으면 코시롱허여근영에 그거 맛 좋아 배영 그거 먹젠 허민 우리 외하르버지가 누렁이 아이덜 안 먹나. 경 현 건 튼나져. 맛 존게. 그냥, 무사 저 먹으면 어떻허여? 맛 존디 경 허믄. 참 옛날 어른 말이 누렁이 먹으면 땅빈댕이 ㄴ짜 크지 아년덴 허곡 저 공부도 못헌덴 현다. 그런 말 들어난 거 잊어 붙어지지 아녀.(그렇게 해서 먹을 거 아니? 저녁 때에 콩죽을 썰서 먹으면 검은술에 누렁지가 늘 거 아인가. 그렇게 하면 그 누렁지 이렇게 파서 먹으면 고소해서 맛 좋아 보여서 그거 먹으려고 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누렁지 아이들 안 먹는다. 그렇게 한 건 생각나. 맛 좋은데. 그냥, 왜 저 먹으면 어떡해? 맛 좋은데 그렇게 하면. 참 옛날 어른 말이 누렁지 먹으면 땅빈대 같이 크지 않는다고 하고 저 공부도 못한다고 한다. 그런 말 들었던 거 잊어 버려지지 않아.)

106024 @1 예.(예.)

106024 #4 누렁일 경 못허게 허데게.(누렁질 그렇게 못하게 하데.)

106024 @1 으.(으.)

106024 #4 아이덜 안 먹는 거엔 허명.(아이들 안 먹는 거라고 하면서.)

106025 @1 알아수다. 겨고 아까 남자 옷은 경 허곡 여자 옷은 종류가 어떤 거 있어마씨?(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자 옷은 그렇게 하고 여자 옷은 종류가 어떤 거 있어요?)

106025 #4 여자 옷은게 어떻게. 치마저고리허곡게.(여자 옷은 어떻게. 치마저고리하고.)

106025 @1 예.(예.)

106025 #4 경헌 치마저고리허곡 그 갈중의엔 헌 거이, 감 들영 입영 아래 퍼지고 헌 거 허여신디.(그런 치마저고리하고 그 ‘갈중의’라고 한 거, 감 들여서 입어서 아래 퍼지고 한 거 했는데.)

106025 @1 으.(으.)

106025 #4 이제 몸빼 이런 건 지금 웨정시대 나니까 몸빨 입은 거라.(이제 몸빼 이런 건 지금 일제강점기 되니까 몸빨 입은 거야.)

106025 @1 예, 아.(예, 아.)

106025 @2 으.(으.)

106025 #4 몸빨 웨정시대 나난 우리, 우리 어린 때라도 몸빼 난 허난에 지금은 영 고무로 영 허영 내립곡 올리곡 허여신디 옛날은 몸빼도이.(몸빨 일제강점기 되니까 우리, 우리 어릴 때여도 몸빼 나서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해서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옛날은 몸빼도.)

106025 @1 으.(으.)

106025 #4 저 앞이 영 허여근영에 이 양옆이 텅.(저 앞에 이렇게 해서 이 양옆에 텅.)

106025 @1 으.(으.)

106025 #4 앞인 막아지곡 이 두에 거만 영 즐라멧당은에게 영 내려와근영에 화장실에도 강 영 허영 허주게. 경 허난 그건 나도 잊어 불어지지 안허여. 우리 켤당 할머니가 아이고 예펜이 궁둥이 내영. 경 허는 말 들어난 거 잊어 불지 안허여.(앞엔 막아지고 이 뒤에 것만 이렇게 즐라멧다가 이렇게 내려서 화장실에도 가서 이렇게 해서 하지. 그렇게 하니까 그건 나도 잊어 버려지지 않아. 우리 켤당 할머니가 아이고 여자가 궁둥이 내어서. 그렇게 하는 말 들었던 거 잊어 버려지지 않아.)

106025 @1 음.(음.)

106025 #4 경.(그렇게.)

106025 @1 보통 여자털은 치마저고리 입고. 이제 굴중의 저기.(보통 여자들은 치마저고리 입고. 이제 ‘굴중의’ 저기.)

106025 #4 갈중의.(‘갈중의’.)

106025 @1 갈중의 입고예?(‘갈중의’ 입고요?)

106025 #4 갈중의게 옛날은게. 웨정시대 이 일본시대 나난 이 몸빼가 나온 거라. 일본시대.(‘갈중의’ 옛날은. 일제강점기 이 일본강점기 되니까 이 몸빼가 나온 거야. 일제강점기.)

106025 @1 예, 계난 여름에 입는 거 하고 겨울에 입는 거 허곤 또 뜨나마씨?(예, 그러니까 여름에 입는 거 하고 겨울에 입는 거 하곤 또 달라요?)

106025 #4 여름에 입는 거게, 그 옛날이사 경 구별허연 입어졌어? 그자. 그자 몸빼여 허민 그거 허영 입곡 경 헛주게. 갈중의게.(여름에 입는 거, 그 옛날에야 그렇게 구별해서 입어졌어? 그저. 그저 몸빼다 하면 그거 해서 입고 그렇게 했지.)

‘갈중의’.)

106025 @1 으.(으.)

106025 #4 일하는 사람들은 갈중의. 감 들영 헤사 버문 중 몰르게.(일하는 사람들은 ‘갈중의’. 감 들여서 해야 더러운 줄 몰르게.)

106025 @1 예.(예.)

106025 #4 버문 중 몰르곡 기자 풀 안 죽영 감 들이난이 버지락허영 허민 확 기냥 헤왕 널어도 기냥 그 풀이 안 죽으난 경 허곡.(더러운 줄 모르고 그저 풀 안 죽어서 감 들이니까 뺏뺏해서 하면 확 그냥 행귀서 널어도 그냥 그 풀이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하고.)

106025 @1 으.(으.)

106025 #4 옛날은 그 헤 흐뎡 현 뭐 현 집안엔 거세기 허영 허른 몸빼 입어도 이.(옛날은 그 해 조금 하는 무엇 하는 집안엔 거시기 해서 하면 몸빼 입어도.)

106025 @1 으.(으.)

106025 #4 치마 입어근영에 영 허영 허리에 영 감아근에 읍에 확 둘렁 땡겨났 어게.(치마 입어서 이렇게 해서 허리에 이렇게 감아서 옆에 확 둘러서 다녔었어.)

106025 @1 으.(으.)

106025 #4 경 허영 허여신디 이제 그것도 춤 막 옛날 적에 경 헤여난.(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참 아주 옛날 적에 그렇게 했었어.)

106025 @1 음.(음.)

106025 #4 그거 흐뎡 집안에 흐뎡 영 뭐 현 집안엔 그 몸빼만 입영 땡기기가 뭐 허근영에 경 뭐 허여났주기게.(그거 조금 집안에 조금 이렇게 무엇 하는 집안엔 그 몸빼만 입어서 다니기가 뭐 해서 그렇게 뭐 했었지.)

106025 @1 으.(으.)

106025 #4 경 허영 허른 몸빼 입곡 허여도 치말 경 굴루히⁴¹⁷⁾ 입어근영에 영 허영 허영 획 둘러근에 영 허영 땡기곡 경 헤여난.(그렇게 해서 하면 몸빼 입고 해도 치말 그렇게 ‘굴루히’ 입어서 이렇게 해서 해서 획 둘러서 이렇게 해서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

106025 @1 나갈 때는 치마를 둘렁 가는 거라예, 예?(나갈 때는 치마를 둘러서 가는 거네요, 예?)

106025 #4 경 허연.(그렇게 했어.)

106026 @1 혹시 예기들 옷은 따로 엇인가마씨?(혹시 아기들 옷은 따로 없는데요?)

106026 #4 아기덜 옷은게 무시거 지금이난 아이덜토 내의여 무시거여 험주기. 옛날은 경 헛어게? 경 아녀났주기게. 거 미녕베 그런 걸로 기냥 허영 뭐 허곡게.(아기들 옷은 무엇 지금이니까 아이들도 내의다 무엇이냐 하고 있지. 옛날은 그렇게 했어? 그렇게 앓았었지. 거 무명 그런 걸로 그냥 해서 뭐 하고.)

417) ‘굴루히’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별도로’라는 뜻이다. 제보자에 따라 ‘굴루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106026 @1 으, 그 태어날 때, 금방 애기 태어났는데 입는 옷은 무슨 옷이런 험
니까?(으, 그 태어날 때, 금방 아기 태어나서 입는 옷은 무슨 옷이라고 합니까?)

106026 #4 베넷. 베네저구리게.(베넷. 베넷저고리.)

106026 @1 으.(으.)

106026 #4 베넷저구리.(베넷저고리.)

106026 @1 베넷저구리.(베넷저고리.)

106026 #4 그거 그거 그거 허여근에 허영 그거 아무상엇이 놔두지 말렌 허곡.
(그거 그거 그거 해서 해서 그거 아무 일 없이 놔두지 말라고 하고.)

106026 @1 으.(으.)

106026 #4 잘 보관허렌 허곡, 옛날 어른덜 경 허여난.(잘 보관하라고 하고, 옛날
어른들 그렇게 했었어.)

106026 @1 으.(으.)

106026 #4 아이덜이 옥아도.(아이들이 커도.)

106026 @1 예.(예.)

106026 #4 경 흙불로 데껴 불지 말라, 그런 건. 그런 경 골아난. 흙불로 데껴,
베넷저고리.(그렇게 함부로 던져 버리지 말라, 그런 건. 그런 그렇게 말했었어. 함부
로 던져, 베넷저고리.)

106026 @1 으.(으.)

106026 #4 흙불로 경 데껴 불지 말렌.(함부로 그렇게 던져 버리지 말라고.)

106026 @1 그 베넷저고리는 뭘론 멘듭니까?(그 베넷저고리는 무엇으로 만듭니
까?)

106026 #4 그것도게 미녕베로게.(그것도 무명으로.)

106026 @1 아, 미녕베로 헤영은에 게난 삼춘네도?(아, 무명으로 해서 삼춘네
는?)

106026 #4 미녕베로 허곡 흐뎡 정성허는 집은이, 저 정성허는 사름덜은 베.(무
명으로 하고 조금 정성하는 집은, 저 정성하는 사름들은 베.)

106026 @1 으.(으.)

106026 #4 등 ㄱ릅지 말렌.(등 가렵지 말라고.)

106026 @1 예.(예.)

106026 #4 그 베로 허영 입정, 곧 난 때 베는 허영 입정 허영 허민 벤 흐뎡 ㄴ
슬지 아녀게. 미녕베보단이.(그 베로 해서 입혀서, 곧 낳을 때 베는 해서 입혀서 해
서 하면 벤 조금 날카롭지 않은가. 무명보단.)

106026 @1 으.(으.)

106026 #4 경 허난 등 ㄱ릅지 말렌 그 베로 경. 그것ㄱ라 베창옷⁴¹⁸.(그렇게 하
니까 등 가렵지 말라고 그 베로 그렇게. 그것보고 ‘베창옷’.)

106026 @1 베창옷.(‘베창옷’.)

418) ‘베창옷’은 베로 만든 소창옷을 말한다.

106026 #4 베창옷엔 허여근엔애 그.(‘베창옷’이라고 해서 그.)

106026 @1 으.(으.)

106026 #4 경 허연 입저난. 흐뎡 뭐 헌 사름덜은.(그렇게 해서 입혔었어. 조금 뭐 한 사름들은.)

106026 @1 예, 게, 삼촌네도 그런 거 입전?(예, 게, 삼촌네도 그런 거 입혔어요?)

106026 #4 아니, 난 그런 거 안 허연. 우리 시절허고 옛날 우리 할머니네 시절 곤는 거 들엇주기, 우리도게.(아니, 난 그런 거 안 했어. 우리 시절하고 옛날 우리 할머니네 시절 말하는 거 들엇지, 우리도.)

106026 @1 삼촌네는 안 해보고예?(삼촌네는 안 해보고요?)

106026 #1 안 허연.(안 했어.)

106026 @1 애기들도 보면 강알 영 터진 것도 입지 아녜니까? 오줌 싸곡.(아기들도 보면 밀 이렇게 터진 것도 입지 않습니까? 오줌 누고.)

106026 #4 그것ㄴ라, 그것ㄴ라 뵈엔 지성치마⁴¹⁹엔도 허곡이.(그것보고,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지성치마’라고도 하고.)

106026 @1 예.(예.)

106026 #4 지성치마.(‘지성치마’.)

106026 @1 으.(으.)

106026 #4 지성치마 여자 지집아이덜은 지성치마 입지라 경 허여근애 헤어나신디 몰라 스나이놈들은 어떻사 허여신디.(‘지성치마’ 여자 계집아이들은 ‘지성치마’ 입혀라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몰라 사내놈들은 어떻게야 했는지.)

106026 @2 강알터진바지?(‘강알터진바지’?)

106026 #4 강알 터진 거.(밀 터진 거.)

106026 @1 으.(으.)

106026 #4 아무디나 그 앓앙 싸갯구리. 옷 안 젓게구리 강알 터진 거 경.(아무데나 그 앓아서 누게끔. 옷 안 젓게끔 밀 터진 거 그렇게.)

106026 @1 예.(예.)

106026 #4 경 해도 일어서민 터진 거 몰르주게. 앓이민 아무디나 아무디나 앓앙 싸갯구리 경.(그렇게 해도 일어서면 터진 거 모르지. 앓으면 아무데나 아무데나 앓아서 누게끔 그렇게.)

106026 @1 예.(예.)

106026 #4 지성치마여 무신 고장중의여 허난.(‘지성치마’다 무슨 고쟁이다 하니까.)

106027 @1 음, 게든.(음, 그러면.)

106027 #4 잇어 불언.(잇어 버렸어.)

106027 @1 게난 그 삼촌도 저고리 만들어낫덴 허명예? 그 저고리 만드는 과정

419) ‘지성치마’는 여자아이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 쉽게 밀을 터서 만든 옷이다.

을 한번 곁아 줘서. 어떤 식으로 헤영 저고리 만드는지?(그러니까 그 삼촌도 저고리 만들었다고 하면서요? 그 저고리 만드는 과정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저고리 만드는지?)

106027 #4 으, 그 무시거게. 윤디 화리에 불 살라근에 윤디 영 농곡이. 윤디 낱 따습게.(으, 그 무엇. 인두 화로에 불 살라서 인두 이렇게 놓고. 인도 놔서 따습게.)

106027 @1 으.(으.)

106027 #4 허여근에 허민 영 바농질 이치룩 쥬 허민 이치룩 썰밥으로 영 영 오그령 영 허영 그것으로 똑 누르뜨민 그 썰밥이 잘 눅게꾸리.(해서 하면 이렇게 바농질 이처럼 기워서 하면 이처럼 실밥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그려서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똑 누르면 그 실밥이 잘 눅게끔.)

106027 @1 으.(으.)

106027 #4 그거 경 허연 허여난.(그거 그렇게 해서 했었어.)

106028 @1 으, 알았수다. 게민예, 이제는 이제 저고리가 영 영 텔 거 아니우파예?(으,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이제 저고리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요?)

106028 #4 으.(으.)

106028 @1 예. 이렇게 이렇게 돼잖아예? 게민 여기 이 여기 이름은 뭐렌 험니까?(예.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여기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106028 #4 그거, 이것ㄱ란 오른쪽에 영 허영 이거 이거 밧섭.(그거, 이것보고는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이거 밧섭.)

106028 @1 밧섭.(밧섭.)

106028 #4 이거 이게 안으로 영 헤연 허난 안안섭⁴²⁰.(이거 이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까 ‘안안섭’.)

106028 @1 안안섭.(‘안안섭’.)

106028 #4 밧섭 그거.(밧섭 그거.)

106028 @1 밧섭, 여기 밧섭예? 그다음에 여기는?(밧섭, 여기 밧섭이요? 그다음에 여기는?)

106028 #4 거 동전.(거 동정.)

106028 @1 여긴 동전.(여긴 동정.)

106028 #4 동, 짓 든지 후제 영 동전을 들주게.(동, 짓 단 후에 이렇게 동전을 달지.)

106028 @1 예, 짓. 여기는 짓.(예, 짓. 여기는 짓.)

106028 #4 으.(으.)

106028 @1 그다음 여기는마썸. 이거는 뭐렌 험니까? 여기 이거?(그다음 여기는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거?)

106028 #4 요건 좇쟁이.(요건 겨드랑이.)

420) ‘안안섭’은 안섭의 안쪽 부분을 말한다.

106028 @1 여긴 좃쟁이.(여긴 겨드랑이.)

106028 #4 그거.(그거.)

106028 @1 예, 그다음 여기 영 허민 손 영 웬 디는?(예, 그다음 여기 이렇게 하면 손 이렇게 된 데는?)

106028 #4 그건 몰르커라. 그거는 아녀곡 기자 이거 좃쟁이.(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얹고 그저 이거 겨드랑이.)

106028 @1 예, 여기 등 이신 두에는?(예, 여기 등 있는 뒤편에는?)

106028 #4 두에 등곳.(뒤에 깃고대.)

106028 @1 어디 뭐마씨?(어디 뭐요?)

106028 #4 등곳이엔 허엿어. 등곳 잘 폐왕 입으라, 경.(깃고대라고 했어. 깃고대 잘 펴서 입어라, 그렇게.)

106028 @1 등곳 여기 우에.(깃고대 여기 위에.)

106028 #4 으, 경 허영 영 허영 잇아근엿에 급헌 때나 영 허영 허민 흐뎡 오그라지믄 경 허민 경 흐는 말 들어난. 그 등곳이나 잘 폐왕 입으라, 경.(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어서 급한 때나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오그라지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말 들었었어. 그 깃고대나 잘 펴서 입어라, 그렇게.)

106028 @1 등곳예. 게믄 여기도 천이 잇지 아녀우파예?(깃고대요. 그러면 여기 도 천이 잇지 않습니까요?)

106028 #4 안깃.(안깃.)

106028 @1 안깃.(안깃.)

106028 #4 안깃인디이.(안깃인데.)

106028 @1 예.(예.)

106028 #4 이제 옛날 어른덜 경 곶아난. 적삼덜 허영 허민 적삼덜은 안팓 안 허영게이.(이제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었어. 적삼들 해서 하면 적삼들은 안팓 안 해서.)

106028 @1 예.(예.)

106028 #4 그거 영 허영 허영 허민 등곳을 다 줍지 아녕.(그거 이렇게 해서 하면 깃고대를 다 기우지 않아서.)

106028 @1 으.(으.)

106028 #4 무사 경 헛인고 허민 그 만약에 예를 들영 돌아가신 때에 그 혼적삼엔 헤여낫주게. 혼적삼⁴²¹.(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때에 그 ‘혼적삼’이라고 했었지. ‘혼적삼’.)

106028 @1 예, 혼적삼.(예, ‘혼적삼’.)

106028 #4 혼적삼 그걸로 허영 혼을 불령.(‘혼적삼’ 그걸로 해서 혼을 불려서.)

106028 @1 예.(예.)

106028 #4 아무가이 멧 나 멧. 경 허영 혼을. 옛날은 경 허여낫젠. 그런 말은 들

421) ‘혼적삼’은 사람이 죽었을 때 망인의 혼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적삼이다.

어났어. 저 옛날은 저승도 왔다갔다 하여났텐.(아무개 몇 나이 몇. 그렇게 해서 혼을. 옛날은 그렇게 했었다고. 그런 말은 들었었어. 저 옛날은 저승도 왔다갔다 했었다고.)

106028 @1 으.(으.)

106028 #4 경 허연 왔다갔다 하여근에 왕 아이덜 뺑 가고 경 허연 하여나신디, 이제 자꾸 경 허연 해 가난 아이덜이 와시난 어멍 와시난 이제랑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 말 들어났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멍 가달을 영 심언.(그렇게 해서 왔다갔다 해서 와서 아이들 봐서 가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해서 해 가니까 아이들이 왔으니까 어머니 왔으니까 이제랑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 말 들었었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머니 다리를 이렇게 잡아서.)

106028 @1 으.(으.)

106028 #4 이제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허연 허난 이젠 시간에 못 가난.(이제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해서 하니까 이젠 시간에 못 가니까.)

106028 @1 예.(예.)

106028 #4 시간에 못 가난 그디선 이제 강남 체시가 이제 어멍 허연 아니 왓시난 허난에 경 아기덜이 경 허염젠 허난 혼을 빠가 불언.(시간에 못 가니까 거기선 이제 강남 차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아니 오고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아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혼을 빠가 버렸어.)

106028 @1 음.(음.)

106028 #4 그 전엔, 처음엔 갔다 저승도 가곡 이승에 완 아기덜토 돌보곡 헤신디 혼을 빠가부난 그 식으로.(그 전엔, 처음엔 갔다 저승도 가고 이승에 와서 아기들도 돌보고 했는데 혼을 빠가 버리니까 그 식으로.)

106028 @1 으.(으.)

106028 #4 사람은 죽으면 지붕 상마르레 올라상 혼을 불러났젠. 혼을 불르는 거렌.(사람은 죽으면 지붕 용마루에 올라서서 혼을 불었었다고. 혼을 부르는 거라고.)

106028 @1 예.(예.)

106028 #4 혼 돌아오렌.(혼 돌아오라고.)

106028 @1 예.(예.)

106028 #4 경 허연 그 식으로 불르곡. 지금도 이제 상마르레 올라 경 허는 식은 옷주마는 장밋되라도 가민 혼적삼 해간 혼 불러. 지금도.(그렇게 해서 그 식으로 부르고. 지금도 이제 용마루에 올라서 그렇게 하는 식은 없지만 장지라도 가면 ‘혼적삼’ 해가서 혼 불러. 지금도.)

106028 @1 예.(예.)

106028 #4 장밋되 강이라도. 집의서 못허영 허문.(장지 가서라도. 집에서 못해서 하면.)

106028 @1 으.(으.)

106028 #4 그 식이엔게, 경. 경 헤났젠. 갔다왔다 허연 하여나신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허연 아기덜이 막 허연 허난 시간에 못 가 부난에 기냥.(그 식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했었다고. 갔다왔다 해서 했었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해서 아기들이 막 해서 하니까 시간에 못 가 버리니까 그냥.)

106028 @1 으.(으.)

106028 #4 문 다 중간 못 가게, 아기덜이.(문 다 잠가서 못 가게, 아기들이.)

106028 @1 예.(예.)

106028 #4 못 가게 허난 경 허난 상머를 터지완에 상머로 들은 혼을 빠가 난 시첸 죽어 불곡.(못 가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용마루를 터서 용마루로 들어서 혼을 빠가니까 시첸 죽어 버리고.)

106028 @1 으.(으.)

106028 #4 혼은 빠가 분 거 아니. 경 허난 그 식으로 지금도 사람 죽으면 상머를레 지붕 위에 올라 혼 불러냈거든.(혼은 빠가 버린 거 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 식으로 지금도 사람 죽으면 용마루에 지붕 위에 올라서 혼 불렀었거든.)

106028 @1 예.(예.)

106028 #4 경헌디 지금은 장밋디 강 불르곡. 우리 집의 아방⁴²²도 (웃음) 이제 몇 해 됐주마는 요젠이 허연 살 때 그 친구 아지방이 옥상에 올라간이.(그런데 지금은 장지 가서 부르고. 우리 집의 남편도 (웃음) 이제 몇 해 됐지만 요쪽에 해서 살 때 그 친구 아주버니가 옥상에 올라가서.)

106028 @1 예.(예.)

106028 #4 지붕 위의 못 올라가곡.(지붕 위에 못 올라가고.)

106028 @1 예, 예.(예, 예.)

106028 #4 장 덤고 뭐 허는 옥상에 그디 올라간 혼 불르명 허여났어.(장 담그고 뭐 하는 옥상에 거기 올라가서 혼 부르면서 했었어.)

106028 @1 예.(예.)

106028 #4 혼 돌아오렌 허영 경 허는 거엔.(혼 돌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106028 @1 경 허난 안짓을 다 안 박는 거예?(그렇게 하니까 안짓을 다 안 박는 거라고요?)

106028 #4 경 허난 다 안 박는 거엔.(그렇게 하니까 다 안 박는 거라고.)

106028 @2 으.(으.)

106028 #4 혼적삼으로.(‘혼적삼’으로.)

106028 @1 혼적삼으로예, 게문, 삼촌, 이 몸통은 뭐렌 험니까?(‘혼적삼’으로요, 그러면, 삼촌, 이 몸통은 뭐라고 합니까?)

106028 #4 그건게, 이거 밧, 밧적삼⁴²³으로 이건 안.(그건, 이거 밧, ‘밧적삼’으로 이건 안.)

422) ‘아방’은 아버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아버지, 즉 남편의 의미로 썼다.

423) ‘밧적삼’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

106028 @1 으.(으.)

106028 #4 밧, 밧짓이엔 허는가. 요 짓은 밧짓, 요건 안짓이고.(겉, 겉짓이라고 하는가. 요 짓은 겉짓, 요건 안짓이고.)

106028 @1 예, 예, 예.(예, 예, 예.)

106028 #4 경 험디.(그렇게 하는데.)

106028 @1 이런 몸통은?(이런 몸통은?)

106028 #4 밧, 그거 잘 몰르커라.(겉, 그거 잘 모르겠어.)

106028 @1 예, 거는 모르고. 여기 허민 영 여기 밑에도 들지 안합니까? 소매 끝에.(예, 거는 모르고. 여기 하면 이렇게 여기 밑에도 달지 않습니까? 소매 끝에.)

106028 #4 꾀동전.(꾀동.)

106028 @1 으.(으.)

106028 #4 영 그 그거 지금은 뭐 허여도 옛날은게 동전 영 뜯 거이.(이렇게 그 그거 지금은 뭐 해도 옛날은 꾀동 이렇게 뜯 거.)

106028 @1 예.(예.)

106028 #4 뜯 거 영 부찌근예. 영 꾀동전.(뜯 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꾀동.)

106028 @1 꾀동전예? 꾀동전.(꾀동요? 꾀동.)

106028 #4 꾀으로 허는 거난 꾀동전.(꾀으로 하는 거니까 꾀동.)

106028 @1 예.(예.)

106028 #4 이.(이.)

106028 @1 목예.(목예.)

106028 #4 모가지에 허는 건 동전.(모가지에 하는 건 동정.)

106028 @1 동전, 여기는 꾀동전. 예, 알았수다. 이거는 이제 저고리라예. 그다음 여기 영 허면은 영 허영은예.(동정, 여기는 꾀동.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고리지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106028 @2 곶.(고름.)

106028 #4 곶계.(고름.)

106028 @1 으.(으.)

106028 #4 진 곶 즈른 곶 경.(긴 곶름 짧은 곶름 그렇게.)

106028 @1 어, 진 곶 즈른 곶. 그다음 이거는 저고리라예?(어, 긴 곶름 짧은 곶름. 그다음 이거는 저고리예요?)

106028 #4 저고리.(저고리.)

106028 @1 만약에 치마 같은 경우는?(만약에 치마 같은 경우는?)

106028 #4 치마, 치마도이, 깝치마 아니. 깝 영 들르는 거.(치마, 치마도, 풀치마 아니. 선단 이렇게 두르는 거.)

106028 @1 예.(예.)

106028 #4 터진 거이.(터진 거.)

106028 @1 예.(예.)

106028 #4 깍치마 허민 양반덜은 저 웬깍⁴²⁴을 둘러낫젠 영 웨로.(풀치마 하면 양반들은 저 ‘웬깍’을 둘러냈다고 이렇게 외로.)

106028 @1 예.(예.)

106028 #4 양반덜은. 영 허영 입으민 웨로 영 허곡. 지금은 우리 보통으로 오른 짝으로 다 누구나 막 허는디 옛날은 경 해낫젠.(양반들은. 이렇게 해서 입으면 외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우리 보통으로 오른쪽으로 다 누구나 막 하는데 옛날은 그렇게 했었다고.)

106028 @1 으, 양반덜은 웬깍예? 게문 이 부분은 뭐렌 험니까?(으, 양반들은 ‘웬깍’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106028 #4 어디?(어디?)

106028 @1 치마가 영 생길 거 아니우파예? 깍치마가 허민 여기.(치마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요? 풀치마가 하면 여기.)

106028 #4 허리게.(허리.)

106028 @1 이건 허리. 여기 허리에도 영 허영 뭐.(이건 허리. 여기 허리에도 이렇게 해서 뭐.)

106028 #4 허릿곰⁴²⁵게 그.(‘허릿곰’ 그.)

106028 @1 이건 허릿곰. 게문 여기는 뭐렌 험니까? 이거는, 여기, 여기, 여기 옆에?(이건 ‘허릿곰’.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여기, 여기, 여기 옆에?)

106028 #4 그거 그거 이거 영 내린 것사 치마 지러기 아니라.(그거 그거 이거 이렇게 내린 것이야 치마 길이 아닌가.)

106028 @1 예.(예.)

106028 #4 경 허큰 영 웬깍 들르라. 느든깍⁴²⁶ 들르라 경 허여근에. 느든깍은 일로 영 허영 허민 이 웬깍은 안터레 가게 느든깍은 바깥터레 가게 영 들르민 거 느든깍.(그렇게 하려거든 이렇게 ‘웬깍’ 둘러라. ‘느든깍’ 둘러라 그렇게 해서. ‘느든깍’은 이리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웬깍’은 안으로 가게 ‘느든깍’은 바깥으로 가게 이렇게 두르면 거 ‘느든깍’.)

106028 @1 예.(예.)

106028 #4 거 육지 사름덜은 지금도 뭐 헌 사름덜은 웬깍으로 영 헌덴.(거 육지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한 사람들은 ‘웬깍’으로 이렇게 한다고.)

106028 @1 예, 예. 웬깍으로예, 예. 이 여기 밑에는 뭐렌 해?(예, 예. ‘웬깍’으로 예, 예. 이 여기 밑에는 뭐라고 해?)

106028 #4 게, 치맛단. 그거 단게, 단.(게, 치맛단. 그거 단, 단.)

106028 @1 치맛단예, 예. 이거 여기 허면 영 영 허민 여기?(치맛단요? 예. 이거 여기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424) ‘웬깍’은 풀치마의 왼쪽 선단을 말한다.

425) ‘허릿곰’은 허리에 달려 있는 끈이다.

426) ‘느든깍’은 풀치마의 오른쪽 선단을 말한다.

106028 #4 치메주름.(치맛주름.)

106028 @1 이거는 주름. 치멧주름 잇어예?(이거는 주름. 치맛주름 있지요?)

106028 #4 으.(으.)

106028 @1 이거는 허고. 남자 바지는? 이렇게 뒤잖아예? 영 허영은에 영 돼나?(이거는 하고. 남자 바지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

106028 @2 으.(으.)

106028 @1 그러면은 여기 남자도 여기 허면 이거는 허리?(그러면은 여기 남자도 여기 하면 이거는 허리?)

106028 #4 허리게.(허리.)

106028 @1 여기 남자 것도 여기 저기?(여기 남자 것도 여기 저기?)

106028 #4 아니, 엇어.(아니, 없어.)

106028 @1 남자는 엇어.(남자는 없어.)

106028 #4 으.(으.)

106028 @1 남자는 필로 험니까. 영 허면?(남자는 무엇으로 험니까. 이렇게 하면?)

106028 #4 남자 옷은 기냥 허민 영 허영 허릿곰 따로 영 줄라매지.(남자 옷은 그냥 하면 이렇게 해서 '허릿곰' 따로 이렇게 줄라매지.)

106028 @1 건 따로예?(건 따로요?)

106028 #4 으.(으.)

106028 @1 허릿곰 따로 허곡.('허릿곰' 따로 하고.)

106028 #4 따로, 그 곰 부찌지 아녕 따로.(따로, 그 고름 붙이지 않고 따로.)

106028 @1 예, 이 부분은 뭐렌 해? 이런 거. 셋복이여 헌 것도 들어봅디가? 큰 셋복 작은셋복 험 남자 바지?(예, 이 부분은 뭐라고 해? 이런 거. 사폭이다 한 것도 들어봅디가? 큰사폭 작은사폭 해서 남자 바지?)

106028 #4 남자 바지 큰셋복은 큰셋복은게 그 영 굳작허게 흐끔 그것이라 큰셋복.(남자 바지 큰사폭은 큰사폭은 그 이렇게 곧게 조금 그것보고 큰사폭.)

106028 @1 예.(예.)

106028 #4 작은셋복은 이.(작은사폭은 이.)

106028 @1 옆으로.(옆으로.)

106028 #4 이 안으로 영 헌 건 건 족지 아녀게.(이 안으로 이렇게 한 건 건 작지 않은가.)

106028 @1 예, 예, 예.(예, 예, 예.)

106028 #4 경 허난 작은셋복 경.(그렇게 하니까 작은사폭 그렇게.)

106028 @1 어, 큰셋복 작은셋복 헤낫어예? 예.(어, 큰사폭 작은사폭 했었지요? 예.)

106028 #4 경 허연.(그렇게 했어.)

106028 @1 그다음 남자들은 여기 영 허영 뭐 무끄지 안험니까?(그다음 남자들

은 여기 이렇게 해서 뭐 묶지 않습니까?)

106028 #4 다림.(대님.)

106028 @1 건 다림.(건 대님.)

106028 #4 다림 쳐. 다림 쳐.(대님 쳐. 대님 쳐.)

106028 @1 으, 다림 쳐 허잖아예? 여기는 뭐렌 해? 이 밑에는?(으, 대님 쳐 하
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해? 이 밑에는?)

106028 #4 옷 밑에.(옷 밑에.)

106028 @1 예, 바지.(예, 바지.)

106028 #4 옷 밑에 바지, 바지 밑에 다림 치렌 허꼭게. 경 허연.(옷 밑에 바지,
바지 밑에 대님 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106028 @1 영 허영 주지 안허여? 여기는.(이렇게 해서 기우지 않아? 여기는.)

106028 #4 아니게, 영 허민 옛날 어른덜은 영 이 저 바깥으로이.(아니, 이렇게
하면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이 저 바깥으로.)

106028 @1 예.(예.)

106028 #4 영 허영, 영 허여근에 다림을 쳐낫거든.(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
님을 쳤었거든.)

106028 @1 예, 예, 예.(예, 예, 예.)

106028 #4 영 허영, 영 허영 이것이 바짓가달 아니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짓가랑이 아닌가.)

106028 @1 예.(예.)

106028 #4 남저덜 바짓가달이민 저 이치룩 안으로 아녀고.(남자들 바짓가랑이면
저 이처럼 안으로 앓고.)

106028 @1 으.(으.)

106028 #4 이치룩 영 허여근에 이렇게.(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6028 @2 밖으로 으.(밖으로 으.)

106028 @1 밖으로 허여근에.(밖으로 해서.)

106028 #4 밖으로 안터레.(밖으로 안으로.)

106028 @1밖으로 안터레.(밖으로 안으로.)

106028 #4 경 허영 다림 영 허영 똑 영 줄라매여근에 것도 이쁘게 코콜레기 잘
이쁘게 허영 텅기는 사름도 싯꼭.(그렇게 해서 대님 이렇게 해서 똑 이렇게 줄라매
어서 것도 예쁘게 고 잘 예쁘게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106028 @1 예.(예.)

106028 #4 아멩이나 줄라매는 사름도 싯꼭게. 그런. 웃음.(아무렇게나 줄라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웃음.)

106028 @1 으, 이 삼춘, 보선. 옛날은 양말 아녕 보선 허엿잖아예?(으, 이 삼춘,
버선. 옛날은 양말 앓고 보선 했잖아요?)

106028 #4 보선게.(버선.)

106028 @1 혹시 이름 알아지쿠과? 이 우에.(혹시 이름 알겠습니까? 이 위에.)
 106028 #4 이디 영 허영 허른 코젍이보선⁴²⁷이엔 허꼭 허난에.(여기 이렇게 하면 ‘코젍이보선’이라고 하고 하니까.)
 106028 @1 코젍이보선예? 예. 게든 이 부분 뭐 수눅 허는 말 들어판?(‘코젍이보선’요? 예. 그러면 이 부분 뭐 수눅 하는 말 들어봤어요?)
 106028 #4 수 옛날은 그 보선에 수도 놓고이.(수 옛날은 그 버선에 수도 놓고.)
 106028 @1 으.(으.)
 106028 #4 수도 놔놔신디, 몰라.(수도 놔었는데, 몰라.)
 106028 @1 예, 이 부분은 뭐렌 험니까? 여기는.(예, 이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106028 #4 거 몰라.(거 몰라.)
 106028 @1 영 앞에.(이렇게 앞에.)
 106028 #4 보선창.(버선 바닥.)
 106028 @1 으, 보선창. 여기 영 들어간 디는?(으, 버선 바닥. 여기 이렇게 들어간 데는?)
 106028 #4 건 몰르커라.(건 모르겠어.)
 106028 @1 여, 여, 여기도 들어가예? 영 발.(여, 여, 여기도 들어가지요? 이렇게 발.)
 106028 #4 뒷꿈치게.(뒤꿈치.)
 106028 @1 으, 뒤꿈치. 혹시 애톡⁴²⁸은 어디우파?(으, 뒤꿈치. 혹시 ‘애톡’은 어디니까?)
 106028 #4 으?(으?)
 106028 @1 애톡이렌 현 말은 안 들어봄디가?(‘애톡’이라고 한 말은 안 들어봄디까?)
 106028 #4 애톡엔 현 말 못 들어판.(‘애톡’이라고 한 말 못 들어봤어.)
 106028 @1 여기는. 여기 영 발 들어가는 디는?(여기는. 여기 영 발 들어가는 디는?)
 106028 #4 그거게, 보선목.(그거, 버선목.)
 106028 @1 예, 이거는 보선목예. 예, 알앗수다.(예, 이거는 보선목요. 예, 알앗습니다.)
 106028 #4 경 허영 사름이이.(그렇게 해서 사름이.)
 106028 @1 예.(예.)
 106028 #4 흥꿈 영 뭐 현 사름 뭐 허텐 누겐 영영 허연 영 허영 친구덜 찌레라도 곱아가민 사름 속을 무슨 보선목이랑 뒤싸봐져?(조금 이렇게 뭐 한 사람 뭐 하다고 누군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친구들 ‘찌레’라도 말해가면 사람 속을

427) ‘코젍이보선’은 버선코가 뽀족하게 나와 있는 버선을 말한다.

428) ‘애톡’은 버선의 뒤꿈치 위에 툇이 진 곳을 말한다. ‘애톡’이 있기에 버선을 신었을 때 쉬 벗어지지 않는다.

무슨 보선목이랑 뒤집어봐져?)

106028 @1 으.(으.)

106028 #4 경 돌아놔주기게.(그렇게 말했었지.)

106028 @1 예.(예.)

106028 #4 보선 ㄱ뜨민 확 돼싸나 본다 그 사람 속을 어떻 아느니?(보선 같으면 확 뒤집어나 본다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아니?)

106028 @1 으.(으.)

106028 #4 그 식이라.(그 식이야.)

106028 @1 예.(예.)

106028 #4 보선목이랑 돼싸 봐져? 경.(버선목이어서 뒤집어 봐져? 그렇게.)

106029 @1 보선목이랑 돼싸 봐져? 으, 그다음에 단추도 옛날에는 어떤 단추?(버선목이어서 뒤집어 봐져? 으, 그다음에 단추도 옛날에는 어떤 단추?)

106029 #4 ㄱ작단추.(매듭단추.)

106029 @1 ㄱ작단추.(매듭단추.)

106029 #4 ㄱ늘게 그 물흐레기 허영근에 ㄱ늘게 영 영 쥐근에이.(가늘게 그 나 부랭이 해서 가늘게 이렇게 이렇게 기워서.)

106029 @1 예.(예.)

106029 #4 ㄱ작단추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ㄱ작단추 잘 못아나신디.(매듭단추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매듭단추 잘 맺었었는데.)

106029 @1 으.(으.)

106029 #4 몰르컬라, 이젠.(모르겠어, 이젠.)

106029 @1 예, 삼촌은 안 못아보고?(예, 삼촌은 안 맺어보고?)

106029 #4 아니. 그것 ㄱ라 ㄱ작단추.(아니. 그것보고 매듭단추.)

106029 @1 으, 계난 ㄱ작단추 헌 다음에 그다음엔 어떤 단추들 나옵디가?(으, 그러니까 매듭단추 한 다음에 그다음엔 어떤 단추들 나옵디까?)

106029 #4 ㄱ작, ㄱ작단추 허면 이디 그 영 허영 그 찌르는 거 코콜레기 요만이 허여근에 허면 요디 허영 허면은 그 ㄱ작단추 못인 걸 요영 허영 허면 이 우리 단추 허듯기.(매듭, 매듭단추 하면 여기 그 이렇게 해서 그 찌르는 거 고 요만큼 해서 하면 여기 해서 하면 그 매듭단추 맺은 걸 요렇게 해서 하면 이 우리 단추 하듯이.)

106029 @1 예.(예.)

106029 #4 그치룩 허영 땡겨주게.(그처럼 해서 다녔지.)

106029 @1 으.(으.)

106029 #4 것 ㄱ라 ㄱ작단추엔 돌아난.(것보고 매듭단추라고 말했었어.)

106029 @1 예.(예.)

106029 #4 그거 허영 ㄱ늘게 줘은에게 어떻 허연 경 못안게. 못앙 영 호로싸민 경 돼연게.(그거 해서 가늘게 기워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맺던데. 맺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그렇게 되던데.)

106029 @1 예.(예.)

106029 #4 나 이제 헐 충 몰른디 그런 거 어머니네 허는 거 봐나난게.(나 이제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 어머니네 하는 거 봤었어.)

재단과 염색

106030 @1 예, 알았수다. 옷 멘들젠 허면 삼촌 미녕 만약에 옛날 상 왓잖아예? 게문 그 옷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허연마씨? 그냥 바로 옷 못 멘들지 안헐니까?(예, 알았습니다. 옷 만들려고 하면 삼촌 무명 만약에 옛날 사서 왓잖아요? 그러면 그 옷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냥 바로 옷 못 만들지 않습니까?)

106030 #4 옷ㄴ음.(옷감.)

106030 @1 으, 옷ㄴ음 가져오면.(으, 옷감 가져오면.)

106030 #4 가져오면?(가져오면?)

106030 @1 으.(으.)

106030 #4 기냥 그디서 거세기 허영 가져오면 다르웨.(그냥 거기서 거시기 해서 가져오면 다리미.)

106030 @1 으.(으.)

106030 #4 다르웨 이만인 헌 거 헤영 즈룩 진 거 싯주게.(다리미 이만큼 한 거 해서 자루 긴 거 있지.)

106030 @1 예.(예.)

106030 #4 경 허민 그디 숯불 살랑이.(그렇게 하면 거기 숯불 살라서.)

106030 @1 으.(으.)

106030 #4 숯불 살아근앵에 치메도 허여 낱 다리, 다리주기. 허민, 다리웨 심은 어른은 영 허영 혼착 손에 다르웨 심곡 알 그 치메 통 너른 딜로 혼착 발론 영 허곡 혼착 발로 영 허민 맞앗은 사름ㄴ라 주름 잡은덴.(숯불 살라서 치마도 해 놓아서 다리, 다리지. 하면, 다리미 잡은 어른은 이렇게 해서 한쪽 손에 다리미 잡고 아래 그 치마 통 너른 데로 한쪽 발론 이렇게 하고 한쪽 발로 이렇게 하면 마주앗은 사람보고 주름 잡는다고.)

106030 @1 으.(으.)

106030 #4 그 잘 주름 썩게 잘 잡으라. 경허영 영 영 다리곡.(그 잘 주름 세우게 잘 잡아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고.)

106030 @1 으, 게 그 옷감 헐 때 발렐 때는 어떻 식으로 허연 발래여?(으, 글썽 그 옷감 할 때 바렐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바래?)

106030 #4 옷감 발렐 때 옛날은 지금은 락스에 크곡 하간 거 허난 저 헤양허는 디. 옛날은 저 그 잿물이.(옷감 바렐 때 옛날은 지금은 락스에 잠그고 온갖 거 하나 까 저 하야는데. 옛날은 저 그 잿물.)

106030 @1 예.(예.)

106030 #4 잿물이라고 저 불 습아난 그, 그것도 숯강알엿 불치가 아니고.(잿물

이라고 저 불 때었던 그, 그것도 솔 밑의 재가 아니고.)

106030 @1 으.(으.)

106030 #4 화리에 불 살르지 아녀. 옛날은 그 춤 막 뒤 헌 때난 화리에 불 살랑 영헌 방에도 낡 추곡 마리에도 먹실일 때 낡 취나신디. 그것에 허여근에 우리 할머니네 허는 거 봐나신디 불을 살라근엥에 허든 그 켈 막 기냥 영 파근엥에 그레 불 살라근엥에 허민 그 켈 팔게.(화로에 불 사르지 않아. 옛날은 그 참 막 뒤 할 때니까 화로에 불 살라서 이런 방에도 놔서 쪼고 마루에도 ‘먹실일’ 때 놔서 쪼었었는데. 그것에 해서 우리 할머니네 하는 거 봤었는데 불을 살라서 하면 그 켈 막 그냥 이렇게 파서 그리로 불 살라서 하면 그 켈 마르게.)

106030 @1 으.(으.)

106030 #4 뜨겁게 헤여사 허는 생이라.(뜨겁게 해야 하는 모양이야.)

106030 @1 으.(으.)

106030 #4 경 허는 거 봐난.(그렇게 하는 거 봤었어.)

106030 @1 으.(으.)

106030 #4 경 허여근엥에 가문 무시거 영 불, 불 영 살람수가? 허든.(그렇게 해서 가면 무엇 이렇게 불, 불 이렇게 사르고 있습니까? 하면.)

106030 @1 으.(으.)

106030 #4 경 굳는 말 들어나난.(그렇게 말하는 말 들었었어.)

106030 @1 으.(으.)

106030 #4 아이고, 저 잣물스답 허젠 거 재 흐뎡 팔리멘⁴²⁹ 경.(아이고, 저 잣물빨래 하려고 거 재 조금 ‘팔리’고 있어 그렇게.)

106030 @1 으.(으.)

106030 #4 잣물스답 허젠 허난 경.(잣물빨래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106030 @2 재 팔다라고 헉니까?(재 ‘팔다’라고 합니까?)

106030 @1 으, 팔다, 뜨겁게 허는 거?(으, ‘팔다’, 뜨겁게 하는 거?)

106030 #4 뜨겁게 허는 것ㄴ라. 재 팔리와근엥에 팔게 헌덴 허는 말이주. 팔게. 재 팔령은에 잣물스답 허젠 그레 불 살랏주기, 경.(뜨겁게 하는 것보고. 재 뜨겁게 해서 ‘팔리’어서 ‘팔게’ 한다고 하는 말이지. ‘팔게’. 재 ‘팔려서’ 잣물빨래 하려고 그리로 불 살랏지, 그렇게.)

106030 @1 으, 잣물스답예?(으, 잣물빨래요?)

106030 #4 으, 잣물스답.(으, 잣물빨래.)

106030 @1 경 허영은에 그렇게 빨양은에.(그렇게 해서 그렇게 빨아서.)

106030 #4 그렇게 빨양게 발레주기게, 널영게.(그렇게 빨아서 바래지, 널어서.)

106030 @1 건 흐번만 헉니까? 아니면은 몇 번 발랩니까?(건 한번만 합니까? 아니면은 몇 번 바랩니까?)

106030 #4 몇 번 발래영게. 몇 번.(몇 번 바래여서. 몇 번.)

429) ‘팔리다’는 재를 뜨겁게 하다는 의미다.

106030 @1 아.(아.)

106030 #4 자꾸 허여사게 발주기게.(자꾸 해야 바래지.)

106030 @1 으.(으.)

106030 #4 저 봄에가 더 반덴.(저 봄이 더 반다고.)

106030 @1 아.(아.)

106030 #4 봄빛이.(봄별이.)

106030 @1 예.(예.)

106030 #4 더 가을빛보다.(더 가을별보다.)

106030 @1 아.(아.)

106030 #4 경 허난 속담이이 저 딸엿 손진 가을벧 맞히곡.(그렇게 하니까 속담이 저 딸의 손잔 가을별 맞히고.)

106030 @1 예.(예.)

106030 #4 딸엿 손지가 더 아깝는 생이라. 웨손지.(딸의 손자가 더 아까운 모양이다. 외손자.)

106030 @1 케니까.(그러니까.)

106030 #4 딸엿 손진 가을벧 맞치곡 아들에 손지 봄벧 맞힌덴 그런 속담도 있어난.(딸의 손잔 가을별 맞히고 아들의 손자 봄별 맞힌다는 그런 속담도 있었어.)

106030 @1 으, 맞수다.(으, 맞습니다.)

106030 #4 그런 속담도 있어나고이.(그런 속담도 있었었고.)

106030 @1 으.(으.)

106030 #4 이제 저 걸어, 걸, 아이가 어린아이덜 허민 하나은 업곡 하나은 걸리민. 아이고, 춤.(이제 저 걸어, 걸, 아이가 어린아이들 하면 하나는 업고 하나는 걸리면. 아이고, 춤.)

106030 @1 으.(으.)

106030 #4 경 허연 그 말산디. 그 어땡허연사 그 말산디. 업은, 업은 아기 걸영뎡기, 걸영 가는 아기가 더 춤곡 뭐 헐 건디 업은 예기 발 실려왓쨌, 빨리 글라, 빨리 글라.(그렇게 해서 그 말인지. 그 어떡하여서 그 말인지. 업은, 업은 아기 걸어서 다니, 걸어서 가는 아기가 더 춤고 뭐 할 건데 업은 아기 발 실리고 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106030 @1 으.(으.)

106030 #4 경도 헌덴 글아나곡.(그렇게도 한다고 말했었고.)

106030 @1 예. 게 그 업은 예기는 어느 예기를 업으는고양?(예. 글쎄 그 업은 아기는 어느 아기를 업는 건가요?)

106030 #4 어린 걸 업엇주마는.(어린 걸 업엇지만.)

106030 @1 으.(으.)

106030 #4 어린 걸 업엇주마는 업은 아긴게 아메도 어땡 등뎡이 헤지민 어땡 짐으로도 흐뎡 뜻고 헐 거 아니게.(어린 걸 업엇지만 업은 아긴 아마도 어머니 등뎡

이 해지면 어머니 김으로도 조금 따뜻하고 할 거 아닌가.)

106030 @1 예.(예.)

106030 #4 걸영 가는 아긴 울어 가민 업은 예기 발 실려왓찌, 빨리 글라, 빨리 글라.(걸어서 가는 아긴 울어 가면 업은 아기 발 실리고 있다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106030 @1 웃음.(웃음.)

106030 #4 경 헌텐.(그렇게 한다고.)

106030 @2 업은 애기는 딸에 손지우짱? 아덜에 손지우짱?(업은 아기는 딸의 손 잡니까? 아들의 손잡니까?)

106030 #4 ㄱ쁜 아기라도.(같은 아기여도.)

106030 @1 어린 걸 업으난.(어린 걸 업으니까.)

106030 #4 어린 걸 업으난 경 업은 애기 발 실려왓찌. 빨리 글렌 경 허곡.(어린 걸 업으니까 그렇게 업은 아기 발 시리고 있다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하고.)

106030 @1 으.(으.)

106030 #4 경헌 속담도 싯곡이, 딸은 출가웨인이난.(그런 속담도 있고, 딸은 출가외인이니까.)

106030 @1 예.(예.)

106030 #4 출가웨인이난 ㄱ쁜 일을 들영 ㄱ쁜 일을 나민.(출가외인이니까 같은 일을 들어서 같을 일을 나면.)

106030 @1 예.(예.)

106030 #4 ㄱ쁜, 흐를에 ㄱ쁜 일을 날 적에는 씨집, 씨집일 문여 가주.(같은, 하루에 같은 일을 날 적에는 시집, 시집엘 먼저 가지.)

106030 @1 예.(예.)

106030 #4 친정에 와지느냐?(친정에 와지니?)

106030 @1 으.(으.)

106030 #4 경 허난 그 속담으로 딸은 출가웨인이다.(그렇게 하니까 그 속담으로 딸은 출가외인이이다.)

106030 @1 예.(예.)

106030 #4 경 헌텐.(그렇게 한다고.)

106030 @1 예.(예.)

106030 #4 씨집일 문여 가야주기계. 이녁 친정보단.(시집엘 먼저 가야지. 이녁 친정보단.)

106030 @2 그 말은 맞수다.(그 말은 맞습니다.)

106030 #4 경 허난 경헌 뜻으로 딸은 나민 출가웨인.(그렇게 하니까 그런 뜻으로 딸은 나면 출가외인.)

106030 @1 으.(으.)

106030 #4 경 허주기.(그렇게 하지.)

106031 @1 으, 삼촌 옷 허멍은에 염색도 해봐마씨? 물들여 봤수가?(으, 삼촌 옷 하면서 염색도 해봤어요? 물들여 봤습니까?)

106031 #4 옷 허연 물 안 들연. 감 들이는 건 허여도.(옷 해서 물 안 들었어. 감 들이는 건 하여도.)

106031 @1 예, 감 들이는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파?(예, 감 들이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6031 #4 감 타근앵에 풀감으로 타근앵에 익기 전이 타근앵에 팔월 때에 잘 허여게.(감 따서 풋감으로 따서 익기 전에 따서 팔월 때에 잘 해.)

106031 @1 으.(으.)

106031 #4 풀감으로 타근앵에 그 팔월 돼기 전이.(풋감으로 따서 그 팔월 되기 전에.)

106031 @1 예.(예.)

106031 #4 경 허영 팔월 나가민 감이 조금 익주기게. 익기 전이 여름에, 여름에.(그렇게 해서 팔월 나가면 감이 조금 익지. 익기 전에 여름에, 여름에.)

106031 @1 예.(예.)

106031 #4 여름에 허영 거 뺏앙. 뺏아근앵에 그 낭으로 웬 도고리가 싯주기, 옛날은.(여름에 해서 거 뺏아서. 뺏아서 그 나무로 된 함지박이 있지, 옛날은.)

106031 @1 으.(으.)

106031 #4 그것에서 그레 앓정 그레도 굴곡이 콩도 굴곡.(그것에서 멧돌 안쳐서 멧돌도 같고 콩도 같고.)

106031 @1 으.(으.)

106031 #4 막 경 허영 현디 그것에서 감 뺏앙. 감 뺏아근앵에 허영 그 감 들영 감옷⁴³⁰도 허곡.(아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에서 감 뺏아서. 감 뺏아서 해서 그 감 들여서 ‘감옷’도 하고.)

106031 @1 으.(으.)

106031 #4 경 허민 우린 오독오독 앓앙 그 감씨 허영 뺏앙 감 그득이 옷에 들 영 영 영 문대겨가민 감에 꺾데기 벗어정 해뜩해뜩허주게.(그렇게 하면 우린 ‘오독 오독’ 앓아서 그 감씨 해서 뺏아서 감 그득하게 옷에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문대가면 감의 꺾데기 벗겨져서 해뜩해뜩하지.)

106031 @1 예.(예.)

106031 #4 그걸 먹을커엔 앓앙 먹어 가민 풀 죽넨 허멍 감씨 못 좇어 먹게 막 옥 들곡 해났어.(그걸 먹을거리라고 앓아서 먹어 가면 풀 죽는다고 하면서 감씨 못 주워 먹게 아주 꾸중 듣고 했었어.)

106031 @1 아.(아.)

106031 #4 거 경 좇어 먹어 불민 옷에 그 풀 죽나, 풀 죽나.(거 그렇게 주워 먹어 버리면 옷의 그 풀 죽나, 풀 죽나.)

430) ‘감옷’은 감물을 들여 만든 옷이다. 달리 ‘갈옷’이라고도 한다.

106031 @1 풀 죽나고예. 경 허여은에 허곡. 그 아까 ㄹ레 앓정은에 허는 도고리 그 도고리 이름은 뭐렌 험니까?(풀 죽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아까 멧돌 안쳐서 하는 함지박 그 함지박 이름은 뭐라고 험니까?)

106031 #4 저 ㄹ렛도고리⁴³¹.(저 ‘ㄹ렛도고리’.)

106031 @1 ㄹ렛도고리.(‘ㄹ렛도고리’.)

106031 #4 ㄹ렛도고리엔 허고. 옛날은 지금 ㄹ찌 무신거 그 춤 지금은 이제 기냥 솟차 들러냥 메도 거리곡 허지 아녀.(‘ㄹ렛도고리’라고 하고. 옛날은 지금같이 무엇 그 찰 지금은 이제 그냥 솔째 들어와서 메도 뜨고 하지 앓아.)

106031 @1 으.(으.)

106031 #4 겐디 옛날은 멧도고리⁴³²라고 있어.(그런데 옛날은 ‘멧도고리’라고 있어.)

106031 @1 으.(으.)

106031 #4 멧썰일 때에 그 그런 멧썰일 하영 허는 장손으로이.(‘멧썰일’ 때에 그 그런 ‘멧썰일’ 많이 하는 장손으로.)

106031 @1 예.(예.)

106031 #4 경헌디 멧도고리라고 우리 할머니네 현 거 보민 나무로 웬 도고리.(그런데 ‘멧도고리’라고 우리 할머니네 하는 거 보면 나무로 된 함지박.)

106031 @1 예, 예.(예, 예.)

106031 #4 조그만허게 경 춤 멧도고리 가져오라 메 푸져.(조그마하게 그렇게 참 ‘멧도고리’ 가져와라 메 푸졌다.)

106031 @1 으.(으.)

106031 #4 경 곶아난. 멧도고리 가져오라 메 푸져 허곡. ㄹ레 ㄹ는 건 그 ㄹ레 곶커매 이레 ㄹ레 ㄹ는 그 도고리 큰 거 가정오라.(그렇게 말했었어. ‘멧도고리’ 가져와라 메 푸졌다 하고. 멧돌 가는 건 그 멧돌 갈졌으니 이리로 멧돌 가는 그 함지박 큰 거 가져와라.)

106031 @1 멧도고리허고 ㄹ레 ㄹ는 도고리는 탄난 거?(‘멧도고리’하고 멧돌 가는 함지박은 다른 거?)

106031 #4 멧도고린 조그만허게 허영 아메도 더 곱게.(‘멧도고리’는 조그맣게 해서 아마도 더 곱게.)

106031 @1 예.(예.)

106031 #4 현 거. 지금 ㄹ치 무신 냥푼이나 거세기 엇고 지금은 솟차 들러냥 메도 거리곡 솟차 들러냥 밥도 푸곡 허는디 옛날은.(한 거. 지금같이 무슨 양푼이나 거시기 없고 지금은 솔째 들어와서 메도 뜨고 솔째 들어와서 밥도 푸고 하는데 옛날은.)

106031 @1 예, 예, 예.(예, 예, 예.)

431) ‘ㄹ렛도고리’는 ‘ㄹ레’ 즉 ‘멧돌’을 안쳐서 곡식 따위를 갈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그릇을 말한다.

432) ‘멧도고리’는 메를 뜯 때 사용하는 함지박을 말한다. ‘메’는 제사 때, 신위 앞에 올리는 밥을 말한다.

106031 #4 경 멧도고리. 멧도고리.(그렇게 ‘멧도고리’. ‘멧도고리’.)

106031 @1 으.(으.)

106031 #4 메 거리는 거. 그 멧도고리 이레 앓아내라 메 거리져, 경.(메 뜨는 거. 그 ‘멧도고리’ 이리로 가져내어라 메 뜨겠다, 그렇게.)

106031 @1 예, 예. 아, 케난 도고리도 종류가 으라 갠 거라예?(예, 예. 아, 그러니까 함지박도 종류가 여러 갠 거네요?)

106031 #4 으, 그 케난 그 멧도고리 가져오라 이제. 솟디 밥허민 그 멧도고리 가져오라 메 푸져.(으, 그 그러니까 그 ‘멧도고리’ 가져와라 이제. 솔에 밥하면 그 ‘멧도고리’ 가져와라 메 푸졌다.)

106031 @1 으.(으.)

106031 #4 경 곶아난.(그렇게 말했었어.)

신발

106032 @1 게민 삼촌, 옛날에 신들은 어떤 신 신었수가?(그러면 삼촌, 옛날에 신들은 어떤 신 신었습니까?)

106032 #4 초신계.(짚신.)

106032 @1 초신. 삼촌도 직접 초신 삼아봤?(짚신. 삼촌도 직접 짚신 삼아봤어요?)

106032 #4 초신, 초신 신은디 우리 하르버지가 초신 삼앙 신영 허연 현디 이 뒤꿈치 벗겨정이.(짚신, 짚신 신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짚신 삼아서 신어서 했는데 이 뒤꿈치 벗겨져서.)

106032 @2 으.(으.)

106032 #4 옛날은 양발도게 우리 썰 그대로 허민 손으로 그 짱도 신어났어.(옛날은 양말도 우리 실 그대로 하면 손으로 그 짜서도 신었었어.)

106032 @1 으.(으.)

106032 #4 손으로 양발 짜곡이 장갑도 영 험 짜곡.(손으로 양말 짜고 장갑도 이렇게 해서 짜고.)

106032 @1 아.(아.)

106032 #4 경 헤난. 경헌디 초신 신으민 뒤꿈치 벗겨정계.(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짚신 신으면 뒤꿈치 벗겨져서.)

106032 @1 예.(예.)

106032 #4 경 허영 막 울, 울어근앵에 허민 막 기냥 거 멜랑 신으민 멜랑, 뒤치기 멜라지민이 멜랑 신엄젠 욱 듣곡.(그렇게 해서 아주 울, 울어서 하면 아주 그냥 거 납작하게 해서 신으면 납작하게 해서, 뒤축 납작하면 납작하게 신고 있다고 욱 듣고.)

106032 @1 으.(으.)

106032 #4 경 헤난.(그렇게 했었어.)

- 106032 @1 예.(예.)
- 106033 #4 남신도 신어나곡. 나무로 신 파근에.(나막신도 신었었고. 나무로 신 파서.)
- 106033 @1 예.(예.)
- 106033 #4 비 온 때.(비 올 때.)
- 106033 @1 예.(예.)
- 106033 #4 비 온 때 나무로 허영 옛날은 고무신 이런 것도 웨정시대 나난 낫주 기계.(비 올 때 나무로 해서 옛날은 고무신 이런 것도 일제강점기 되니까 낫지.)
- 106033 @1 음.(음.)
- 106033 #4 옛날은 이 산간부락덜은 나무. 남신이라고 코쟁이 조쪽허게 들고 곱 게 허여근에, 팡이.(옛날은 이 산간마을은 나무. 나막신이라고 코 뽕족하게 들고 곱 게 해서, 파서.)
- 106033 @1 으.(으.)
- 106033 #4 경 험 나도 우리 하르버지네 남신 파 쥘 신언 땡기단 (웃음) 비 온 때 신언 걷단 쩌글락허난 아이고 이디 귀마리 ㄱ무간 막 울어도 난 거 잊어 불어지 지 아녀.(그렇게 해서 나도 우리 할아버지네 나막신 파 줘서 신어서 다니다가 (웃 음) 비 올 때 신어서 걷다가 삐끗하니까 아이고, 여기 발목 삐어서 아주 울어도 난 거 잊어 버려지지 않아.)
- 106033 @1 예.(예.)
- 106033 #4 경 험난.(그렇게 했었어.)
- 106033 @1 예. 남신도 이제 신어나곡. 게난 할아버지가 파쥘마씨?(예. 나막신도 이제 신었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파쥘어요?)
- 106033 #4 파쥘. 옛날은게 그거 어려운 시대난 남신 파근에 비 온 때 신곡. 초 신. 날 좋을 땐 초신 신고. 고무신 엇어낫주기계.(파쥘어. 옛날은 그거 어려운 시대 니까 나막신 파서 비 올 때 신고. 짚신. 날 좋을 땐 짚신 신고. 고무신 없었었지.)
- 106033 @1 예.(예.)
- 106033 #4 일본시대 나난에 이거 고무신.(일제강점기 되니까 이거 고무신.)
- 106033 @1 게문 씨집갈 때 험 때는 뭐 가족신 신었수가? 무슨 신 신어난?(그러 면 시집갈 때 할 때는 뭐 가족신 신었습니까? 무슨 신 신었어요?)
- 106033 #4 그, 그것 ㄱ라 가막창신⁴³³이엔.(그, 그것보고 ‘가막창신’이라고.)
- 106034 @1 아, 가막창신.(아, ‘가막창신’.)
- 106034 #4 가막창신. 까무룽헌 게 코쟁이 돌곡 막 그림 그려지곡 곱주게.(‘가막 창신’. 까무스레한 게 코 들고 아주 그림 그려지고 곱지.)
- 106034 @1 예.(예.)
- 106034 #4 경 허난 가막창신. 노래에도 싯주게.(그렇게 하니까 ‘가막창신’. 노래 에도 있지.)

433) ‘가막창신’은 검정색의 가족신을 말한다.

106034 @1 으.(으.)

106034 #4 에리와 씨집갈 때는 가막창신이 웬 말이더냐. 그런 노래도 서나고.
(에리와 씨집갈 때는 ‘가막창신’이 웬 말이더냐. 그런 노래도 있었었고.)

106034 @1 무신거 씨집갈 때는.(무엇 씨집갈 때는.)

106034 #1 결혼할 때 그 가마 타고 씨집갈 땐 그 그런 돌리는 가막, 가매에 부
뜬 가막창신이 셋어.(결혼할 때 그 가마 타고 씨집갈 땐 그 그런 돌리는 ‘가막’, 가
매에 붙은 ‘가막창신’이 있었어.)

106034 @1 으.(으.)

106034 #4 서근에 혜영 허민 씨집 에리와 씨집갈 때는 가막창신이 웬 말이더냐.
가막창신 신영, 신영은에 씨집을 가점구나. 경헌데. 그거 신영 생전 신는 게 아니고
결혼할 때만 신어.(있어서 해서 하면 씨집 에리와 씨집갈 때는 ‘가막창신’이 웬 말
이더냐. ‘가막창신’ 신어서, 신어서 씨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 신어서 생
전 신는 게 아니고 결혼할 때만 신어.)

106034 @1 예.(예.)

106034 #4 그 가매에 ㄴ찌 뜨랑 오는 거.(그 가매에 같이 따라서 오는 거.)

106034 @1 으, 계난 삼춘도 가막창신 신영 간?(으, 그러니까 삼춘도 ‘가막창신’
신어서 갔어요?)

106034 #4 아니, 우린 그때 시절엔 이제 웨정시대 넘언 거세기 허난.(아니, 우린
그때 시절엔 이제 일제강점기 업어서 거시기 하니까.)

106036 @1 고무신?(고무신?)

106036 #4 으.(으.)

106036 @1 으, 그다음에 아까 초신도 종류가 으라 가지 잇수가?(으, 그다음에
아까 짚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106036 #4 아니, 으라 가지 잇어. 종류. 이제 초신 영 허영 허민 요 일로 각 영
영 허영은애에 허영 허곡. 이딘 흐뎡 터져.(아니, 여러 가지 잇어. 종류. 이제 짚신
이렇게 해서 하면 요 이리로 총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하고. 여긴 조금 터져.)

106036 @1 예.(예.)

106036 #4 가운데 터지곡. 뒤치기 또 영 쪼짝허게 요영 허영 허민 뒤치기 노프
게 허민 이 양말이라도 신영 헤시민, 그땐 양말도 경 어려운 때난이 허영 허민.(가
운데 터지고. 뒤축 또 이렇게 뽀족하게 요렇게 해서 하면 뒤축 높게 하면 이 양말
이라도 신어서 했으면, 그땐 양말도 그렇게 어려운 때니까 해서 하면.)

106036 @1 예.(예.)

106036 #4 경 뒤치기 벗어지민 막 울어가민 그것에 울엄시넨 욱 듣고 경 헤난.
(그렇게 뒤축 벗겨지면 아주 울어가면 그것에 울고 있느냐고 욱 듣고 그렇게 했었
어.)

106036 @1 계민 ** 저기 초신 할 때는 무신걸로 멘들안마씨?(그러면 ** 저기
짚신 할 때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106036 #4 째 두드렁.(짚 두들겨서.)
 106036 @1 어.(어.)
 106036 #4 째 두드리곡. 그 이제 초신 놀이엔 현 건 잇어게.(짚 두들기고. 그 이제 짚신 날이라고 한 건 있어.)
 106036 @1 예.(예.)
 106036 #4 놀이엔 현 건 그것 ㄴ라 뭇엔 허더라마는 이젠 잇어 불엇저게.(날이라고 한 건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하더라만 이젠 잇어 버렸네.)
 106036 @2 미?('미')?
 106036 #4 그거 그 뭇이엔 허더라마는. 잇어 불어신게. 그거 허여당 놀 꼬아근에 잇어 불어신게.(그거 그 뭇이라고 하더라만. 잇어 버렸는데. 그거 해다가 날 꼬아서 잇어 버렸는데.)
 106036 @2 미뽕쟁이.(억새꽃.)
 106036 #4 영 발앙. 그 신을 사름 발로 영 발민 짐작을 허는 생이라.(이렇게 밟아서. 그 신을 사람 발로 이렇게 밟으면 짐작을 하는 모양이야.)
 106036 @1 아.(아.)
 106036 #4 영 허영 발렌 허영 발아근에 허영 허믄 그거 허여근에 허민 그 째으로 영 허여근엔에 무시거 막 경 허연 현 거 알아져.(이렇게 해서 밟으라고 해서 밟아서 해서 하면 그거 해서 하면 그 째으로 이렇게 해서 무엇 막 그렇게 해서 한 거 알아져.)
 106036 @1 예.(예.)
 106036 #4 계영 우리도 초신 신어난.(그렇게 해서 우리도 짚신 신었었어.)
 106036 @1 으.(으.)
 106036 #4 계난 일본시대 나난 저 고무신 신언게.(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되니까 저 고무신 신어서.)
 106036 @1 으.(으.)
 106036 @2 계난 그때 미⁴³⁴로 허는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그때 '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106036 #4 미로게.('미'로.)
 106036 @2 예, 미로예?(예, '미'로요?)
 106036 #4 경 허난 저 미뽕쟁이 미로 거세기 현디 그것이 막 올라왕 세민 그 꽃이 팍 피주기. 미뽕쟁이엔 현 거.(그렇게 하니까 저 새폼 '미'로 거시기 하는데 그것이 막 올라와서 쇠면 그 꽃이 팍 피지. 새폼이라고 한 거.)
 106036 @1 예.(예.)
 106036 #4 경 허믄 그런 속담도 셔났어. 절산디⁴³⁵에 꼬박꼬박허는 것이 뭇고? 미뽕쟁이. 경 허믄 미뽕쟁이인 현디. 희민 하르비여. 경 허믄 하르빈 등 굽는다. 등 굽

434) '미'는 억새의 꽃을 싸고 있는 속껍질을 말한다.

435) '절산디'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나 지명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으민 쉼질멧가지여. 쉼질, 쉼에 시끄는 질메가 흐뎡 영 잇지 안허여?(그렇게 하면 그런 속담도 있었었어. ‘절산디’에 꼬박꼬박하는 것이 뭣이니? 새뎡. 그렇게 하면 새뎡은 희다. 희면 할아버지야.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는 등 굽는다. 등 굽으면 소길맛가지다. 소길, 소에 싣는 길마가 조금 이렇게 있지 않는가?)

106036 @1 예.(예.)

106036 #4 계난 등 굽으민 쉼질멧가지여. 경 허믄 그 쉼질멧가지도 영 고망이 나는, 나는 주게. 계난 쉼질멧가진 너 고냥 난다. 경 허믄 너 고냥 나민 시리여, 떡 치는 시리.(그러니까 등 굽으면 소길맛가지다. 그렇게 하면 그 소길맛가지도 이렇게 구멍이 나는, 나는 지. 그러니까 소길맛가진 네 구멍 난다. 그렇게 하면 네 구멍 나면 시루다, 떡 찌는 시루.)

106036 @1 예.(예.)

106036 #4 떡 치는 시리 알로 고망 나지 아녀게.(떡 찌는 시루 아래로 구멍 나지 않는가.)

106036 @2 시리.(시루.)

106036 #4 시리여 허믄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귀여. 경 허믄 가마권 눅뜨다. 경 허믄 눅뜨민 심방이여. 경 허곡. 심방은 굿허젠 허믄.(시루다 하면 시룬 검다. 검으면 까마귀다. 그렇게 하면 까마권 눅뜨다. 그렇게 하면 눅뜨면 심방이다. 그렇게 하고. 심방은 굿하려고 하면.)

106036 @2 두드린다.(두들긴다.)

106036 #4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옛날은 그 호미나 골쟁이나 골젠 허믄 불미칩이 푸걱푸걱 부끄멍 그걸 베려난 그것ㄴ라.(심방은 두들긴다. 두들기면 철장이다. 옛날은 그 낫이나 호미나 갈려고 하면 대장간에 푸걱푸걱 피우면서 그걸 베렸던 그것보고.)

106036 @1 베리는 거.(벼리는 거.)

106036 #4 베리. 그거 골쟁이 베리레 가자, 호미 베리레 가자 헤낫주게.(벼리. 그거 호미 벼리러 가자, 낫 벼리러 가자 했었지.)

106036 @1 예.(예.)

106036 #1 경 허연 허여난.(그렇게 해서 했었어.)

106036 @1 으, 아까 절산디는 뭐우파?(으, 아까 ‘절산디’는 뭘니까?)

106036 #4 절산디에 꼬박꼬박허는 건, 절산디엔 힌 건 옛날 우리 하르버지네가 애월면 금덕을 살아나신디, 금덕 그 대왓이 경 막 널러났어.(‘절산디’에 꼬박꼬박하는 건, ‘절산디’라고 한 건 옛날 우리 할아버지네가 애월면 금덕을 살았었는데, 금덕 그 대밭이 그렇게 아주 널렸었어.)

106036 @1 음.(음.)

106036 #4 널른 동네렌. 동네주기. 경 허영 허믄게 그 우시개로게.(너른 동네라고. 동네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우스개로.)

106036 @1 으.(으.)

106036 #4 절산디에 구박구박허는 것이 뭇고? 허민. 그 뱃름 불어 가민 대가 구박구박 안 허여게.(‘절산디’에 꾸벅꾸벅하는 것이 무엇이니? 하면. 그 바람 불어 가면 대가 꾸벅꾸벅 안 하는가.)

106036 @1 예.(예.)

106036 #4 절산디에 구박구박허는 건 뭇고? 허민 미뿌쟁이여. 미뿌쟁인 흰다. 경 허믄 희민 하르비여 허민 하르빈 등 굽나. 등 굽으민 쉼질뻬가지여. 경 쉼질뻬가진 너 구냥 난다. 너 구냥 나민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귀여. 가마귀 늣뜨다. 경 허믄 늣뜨민 심방이여.(‘절산디’에 꾸벅꾸벅하는 건 무엇이니? 하면 새폼이다. 새폼은 희다. 그렇게 하면 희면 할아버지다 하면 할아버진 등 굽나. 등 굽으면 소길뻬가지다. 그렇게 소길뻬가진 네 구멍 난다. 네 구멍 나면 시루다. 시룬 검다. 검으면 까마귀다. 까마귀 냅뜨다. 그렇게 하면 냅뜨면 심방이다.)

106036 @1 으.(으.)

106036 #4 경 우시개로 헤난.(그렇게 우스개로 했었어.)

106036 @1 예.(예.)

106036 @2 절산디는.(‘절산디’는.)

106036 #4 절산디엔 현 건 그 대왓덜 막 한 디.(‘절산디’라고 한 건 그 대밭들 아주 많은 데.)

106036 @1 으.(으.)

106036 #4 그 우리 하르버지 살아난 금덕이엔 현 디이.(그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금덕이라고 한 데.)

106036 @1 예.(예.)

106036 #4 막 널른 디 비스름현 디 대가 그 스뭇 대가.(아주 너른 데 비탈진 데 대가 그 사뭇 대가.)

106036 @2 금덕 같으면 건 절동산⁴³⁶이야.(금덕 같으면 건 ‘절동산’이야.)

모자 등

106037 @1 음, 그다음에 옛날 써난 모자들예?(음, 그다음에 옛날 썼던 모자들요?)

106037 #4 모자.(모자.)

106037 @1 모자들 종류는 어떤 거 잇었수가?(모자들 종류는 어떤 거 잇었습니까?)

106037 #4 모잔⁴³⁷, 모자덜토 우리 연거리에도 막 줄아나신디 난 안 줄아뵤.(모잔, 모자들도 우리 또래에도 막 곁었었는데 난 안 곁어뵤어.)

106037 @1 음.(음.)

106037 #4 그물은 못아뵤, 그물이.(그물은 짜뵤어, 그물이.)

436) ‘절동산’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지명 이름이다.

437) 여기에서 제보자가 말하는 ‘모자’는 갓모자다.

106037 @1 그물 못아보고.(그물 짜보고.)

106037 #4 그물은 영 건 웨정시대 나온 거세긴디 그물썰⁴³⁸⁾ 그 타당이.(그물은 이렇게 건 일제강점기 나온 거시긴데 ‘그물실’ 그 타다가.)

106037 @1 예.(예.)

106037 #4 폭는 디가 셔. 그거 허영 사당 그물은 못아근에 헤나신디. 그 모즌 안 좋아봐신디 모자 그거 좋아, 탕근이 요만인 현 거 모자 거세기 탕근치록 허영 특 씨왕은에 그것에 처음엔 그 탕근 영헌 가운데 헤영 허른 생잇방석⁴³⁹⁾, 생잇방석 이엔 돌아난게.(파는 데가 있어. 그거 해서 사다가 그물은 짜서 했었는데. 그 모잔 안 걸어봤는데 모자 그거 걸어, 탕건이 요만큼 한 거 모자 거시기 탕건처럼 해서 특 씨워서 그것에 처음엔 그 탕건 이런 가운데 해서 하면 ‘생잇방석’, ‘생잇방석’이라고 말했었어.)

106037 @1 예, 생잇방석.(예, ‘생잇방석’.)

106037 #4 동글락하게 흥끔 시작허영 허민 그레 특 부찌근엔에 그거 허영 못양.(동그랗게 조금 시작해서 하면 그리로 특 붙여서 그거 해서 짜서.)

106037 @1 으.(으.)

106037 #4 그거, 그거 허영 못양은에 못인 걸로 그걸로 탕근도 멘들곡 경 헤난 생이라.(그거, 그거 해서 짜서 짠 걸로 그걸로 탕건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야.)

106038 @1 예, 갓도 하고예?(예, 갓도 하고요?)

106038 #4 갓도.(갓도.)

106038 @1 음, 그다음에 여름에 쓰는 모자는 어떤 거 잇었수가? 밧디 검질멜 때라도 허는 거?(음, 그다음에 여름에 쓰는 모자는 어떤 거 잇었습니까? 밧에 김멜 때라도 하는 거?)

106038 #4 검질멜 때에 허는 건 샷갓.(김멜 때 하는 건 샷갓.)

106038 @1 예.(예.)

106038 #4 샷갓게. 샷갓 대로 현 거.(샷갓. 샷갓 대로 한 거.)

106038 @1 으.(으.)

106038 #4 샷갓.(샷갓.)

106038 @1 그다음에 대로 현 건 샷갓이고. 밀낭 현 거?(그다음에 대로 한 건 샷갓이고. 밀대 한 거?)

106038 #4 거 페랭이게.(거 패랭이.)

106038 @1 으.(으.)

106038 #4 밀낭페랭이, 밀낭페랭이 우리도 거 짜난.(밀짚모자, 밀짚모잔 우리도 거 짤았어.)

106038 @1 아.(아.)

438) ‘그물썰’은 그물을 짜는 실이다.

439) ‘생잇방석’은 탕건을 걸을 때 가운데 부분의 둥근 모양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106038 #4 저 밀 허영이, 보릿낭으론 못 허고. 야런.(저 밀 해서, 보릿대론 못 하고. 야려서.)

106038 @1 예.(예.)

106038 #4 밀낭은 그 고고리 나완 디 영 영 복복 뽑으면 질곡 건 질겨.(밀짚은 그 이삭 나온 데 이렇게 이렇게 복복 뽑으면 길고 건 질겨.)

106038 @1 예.(예.)

106038 #4 경 허민 그걸로 영 허여근에 이제 영 다왕이. 우리 머리 답듯기.(그렇게 하면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땅아서. 우리 머리 땅듯이.)

106038 @1 예.(예.)

106038 #4 영 허영 다왕은앵에 그거 처음엔 생잇방석엔 허영 영 동글락허게 허여 낱 그거 영 그 따운 걸 영 돌아가명.(이렇게 해서 땅아서 그거 처음엔 ‘생잇방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랴게 해 놓아서 그거 이렇게 그 땅은 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106038 @1 으.(으.)

106038 #4 주왕.(기워서.)

106038 @1 예.(예.)

106038 #4 경 허연 밀낭페랭이도 허여난.(그렇게 해서 밀짚모자도 했었어.)

106038 @1 아, 밀낭페랭이도예? 예.(아, 밀짚모자도요? 예.)

106038 #4 경 허난 그 밀남으로 허니까 밀낭페랭이.(그렇게 하니까 그 밀짚으로 하니까 밀짚모자.)

106038 @1 맞수다.(맞습니다.)

106038 #4 경 허연. 경 허여난.(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었어.)

106039 @1 그다음에 겨울에 쓰는 모자는?(그다음에 겨울에 쓰는 모자는?)

106039 #4 겨울에 쓰는 거 휘양.(겨울에 쓰는 거 휘양.)

106039 @1 예.(예.)

106039 #4 어른덜 남저 어른덜 쓰는 거, 휘양이. 휘양이엔 해난. 거멍헌 거세기로.(어른들 남자 어른들 쓰는 거, 휘양. 휘양이라고 했었어. 거멍 거시기로.)

106039 @1 으.(으.)

106039 #4 휘양, 예점 집의서 쓰곡 경 허는 거.(휘양, 예사 집에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

106039 @1 예.(예.)

106039 #4 휘양이엔 허곡. 탕근이여 그 갓이여 헌 건 나갈 때 쓰곡 어른들이.(휘양이라고 하고. 탕건이다 그 갓이다 한 건 나갈 때 쓰고 어른들이.)

106039 @1 예.(예.)

106039 #4 나갈 때 쓰곡. 그 휘양이엔 헌 건 집에서 추우민.(나갈 때 쓰고. 그 휘양이라고 한 건 집에서 추우면.)

106039 @1 으.(으.)

106039 #4 예점 이 올레에 나올 때도 쓰곡 영 휘양. 우리 하르버지네도 거 쓴 거 봐난.(예사 이 올레에 나올 때도 쓰고 이렇게 휘양. 우리 할아버지네도 거 쓴 거 봤었어.)

106039 @1 으.(으.)

106039 #4 휘양 영 허민 상곡데기⁴⁴⁰ 터지곡.(휘양 이렇게 하면 ‘상곡데기’ 터지고.)

106039 @1 아.(아.)

106039 #4 상곡데기 터지곡 영 폭 쓰민 영 귀 막아지곡 뒤엔 흐뎡 질곡.(‘상곡데기’ 터지고 이렇게 폭 쓰면 이렇게 귀 막아지고 뒤엔 조금 길고.)

106039 @2 으, 으.(으, 으.)

106039 @1 예, 예.(예, 예.)

106039 #4 경 허연.(그렇게 했어.)

106039 @2 건 겨울에예?(건 겨울에요?)

106039 #4 겨울에, 겨울에게.(겨울에, 겨울에.)

106039 @1 여기 쉼 보레 갈 때나 비 오거나 헐 때 입는 옷은 뭐렌 험니까? 새로 멘든 거.(여기 소 보러 갈 때나 비 오거나 할 때 입는 옷은 뭐라고 험니까? 따로 만든 거.)

106039 #4 새로 멘든 거 휘양.(따로 만든 거 휘양.)

106039 @1 아니, 휘양 말고.(아니, 휘양 말고.)

106044 @2 우장.(도롱이.)

106044 #4 우장, 우장, 우장. 으, 우장. 새로 영 으까근에.(도롱이, 도롱이, 도롱이. 으, 도롱이. 따로 이렇게 엮어서.)

106044 @1 예.(예.)

106044 #4 경 현 거.(그렇게 한 거.)

106044 @1 우장은 어떤 때 주로 현 거?(도롱이는 어떤 때 주로 한 거?)

106044 #4 거 비 온 때게. 비 온 때만, 비 온 때만.(거 비 올 때. 비 올 때만, 비 올 때만.)

106044 @1 계난 삼춘도 그 우장 써 봄디가?(그러니까 삼춘도 그 도롱이 써 봤습니까?)

106044 #4 아니.(아니.)

106044 @2 웃음.(웃음.)

106044 #4 어린 때난. 우리 하르버지네 경 쓰는 거 봐전. 경 허민이.(어릴 때니까. 우리 할아버지네 그렇게 쓰는 거 봐졌어. 그렇게 하면.)

106044 @1 으.(으.)

106044 #4 안넌 영 새가 으깡 허영 허민 새가 칭칭이 영 영 우로 허영 허민 물이 찰찰찰찰 알려레 내려.(안넌 이렇게 띠가 엮어서 해서 하면 띠가 층층이 이렇게

440) ‘상곡데기’는 머리의 맨 윗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위로 해서 하면 물이 찰찰찰찰 아래로 내려.)

106044 @1 으.(으.)

106044 #4 옷 안 젖어.(옷 안 젖어.)

106044 @1 예.(예.)

106044 #4 옷 안 젖어.(옷 안 젖어.)

106044 @1 예.(예.)

106044 #4 옷 안 젖어.(옷 안 젖어.)

106044 @1 경 허영 허고. 알았수다.(그렇게 해서 하고. 알았습니다.)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1 옛날예?(옛날요?)

107001 #4 으.(으.)

107001 @1 여기서 밥 해 먹어난 종류들은 어떤 밥덜 행 먹어났수가?(여기서 밥 해서 먹었던 종류들은 어떤 밥들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01 #4 옛날예?(옛날예?)

107001 @1 예.(예.)

107001 #4 옛날에 주로게 맨 보리밥이주기게.(옛날에 주로 맨 보리밥이지.)

107001 @1 예.(예.)

107001 #4 보리밥 허곡 가을 들민[뜰민] 좁쌀 서경.(보리밥 하고 가을 들면 좁쌀 섞어서.)

107001 @1 으.(으.)

107001 #4 겨영 그거 경 허영 밥허곡. 경 먹당 남으민 춤 지금은 음료수여 하간 거 먹으난 현디 옛날은 그런 거 엇이난.(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서 밥하고. 그렇게 먹다가 남으면 참 지금은 음료수다 온갖 거 먹으니까 하는데 옛날은 그런 거 없으니까.)

107001 @1 으.(으.)

107001 #4 쉰다리⁴⁴¹라고이.(‘쉰다리’라고.)

107001 @1 예.(예.)

107001 #4 헤영, 누룩 헤영 낫다근에, 누룩 헤영 낫당 그 누룩 툫아 농곡 경 허영 쉰다리 허영 보글보글 케민 그거 생차로도 남자덜은 영 들이싸곡 씨원허게 들이싸곡 여자덜은 숲양 그거라.(해서, 누룩 해서 낫다가, 누룩 해서 낫다가 그 누룩 뜯어 넣고 그렇게 해서 ‘쉰다리’ 해서 보글보글 괴면 그거 생차로도 남자들은 이렇게

441) ‘쉰다리’는 쉬어 가는 밥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 만든 음료다. 여름철에 많이 해 먹었다.

들어켜고 시원하게 들어켜고 여자들은 삶아서 그거야.)

107001 @1 으.(으.)

107001 #4 순다릴 솜양 경 허영 먹곡 경 허여난. 저 우리 나 막 어린 때에게 저 웨정시대에난 나가 어렸주기. 춤 나가 뭐했주기. 헌디, 우리 할머니네가 우리 하르 버지가 장손으로 우리 하르버지네 형제간이 스 형제라나신디 장손으로 허연 알론 경 문여 돌아가시고 몇 성제 경 헤 불고 경 허난 헌디 우리 족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선, 형제라나신디 돌아가서 부난 우리 족은아버지가 일본서 막 오랜 허 연 기냥 지금은 전화상인디 그땐 아니 오민 막 편지 해봐도 아니 오곡 경 허난 춤 지금 ㄱ트민 파출소주기.(‘순다리’를 삶아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렇게 했었어. 저 우리 나 아주 어릴 때에 저 일제강점기니까 내가 어렸지. 참 내가 뭐했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네가 우리 할아버지가 장손으로 우리 할아버지네 형제간이 사 형제였는데 장손으로 해서 알래론 그렇게 먼저 돌아가시고 몇 현재 그렇게 해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형제였는데 돌아가서 버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일본서 아주 오라고 해서 그냥 지금은 전화상인데 그 땐 아니 오면 아주 편지 해봐도 아니 오고 그렇게 하니까 참 지금 같으면 파출소 지.)

107001 @1 예.(예.)

107001 #4 경 허난 저 그땐 주재소, 주재소 허여낫주게.(그렇게 하니까 저 그땐 주재소, 주재소 했었지.)

107001 @1 예.(예.)

107001 #4 경 허는 딜로 완 호출허다실편 불러드렌 허영 우리 족은아버지네도 완 허여신디 나가 우리 족은아버지네 이제 저 아덜이 성젠디, 우리 족은아버진, 춤 저 족은아버지 족은아덜은 우리 말젯하라버님 아덜 알로 양가 불고 우리 이제 족은 아버지 큰아덜은 우리 아버지가 큰아방이니까 큰아방 큰아방 어머니 제, 기일 제스 자기가 허켄 헤연 이제 허연 허고. 경 허염주기. 경 허영 헌디, 그 견디 나 생전 잊 어 불어지지 아녀, 어린 때라도. 우리 스춘덜이 족은아버지네 그 동생 아이덜이 부, 춤 자식은 부모 따른덴 헨게 부모가 경 허난산디사 경 날 생각허곡 기냥 우리 스춘 아시 나가 그른 일을 해도. 웃음.(그렇게 하는 데로 와서 호출허다실편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 작은아버지네도 와서 했는데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네 이제 저 아들이 형 젠데, 우리 작은아버진, 참 저 작은아버지 작은아들은 우리 둘째할아버지 아들 아래 로 양자가 버리고 우리 이제 작은아버지 큰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니까 큰 아버지 큰아버지 어머니 제, 기일 제사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그런데 내 생전 잊어 버려지지 않아, 어릴 때여도. 우리 사촌들이 작은아버지네 그 동생 아이들이 부, 참 자식은 부모 따른다고 하던데 부모가 그렇게 해서인지 그렇게 날 생각하고 그냥 우리 사촌 아우 내가 그른 일을 해도. 웃음.)

107001 @1 음.(음.)

107001 #4 나신디레 욱을 못허영 우리 스촌 아시신디레 나 지금도 경 곶아. ㄱ
찌 저 딸네 동네 부영⁴⁴² 살주게. 스촌 아시가.(나한테로 욱을 못해서 우리 사촌 아
우한테로 나 지금도 그렇게 말해. 같이 저 딸네 동네 부영 살지. 사촌 아우가.)

107001 @1 예.(예.)

107001 #4 그런 옛말 곧주기. 느 나 덕분 욱 하영 들었저.(그런 옛말 말하지. 너
내 덕분 욱 많이 들었다.)

107001 @1 예.(예.)

107001 #4 나 적시도 욱 듣곡. 언니, 그런 생각도 잊어볼지도 아녕 잘 험수다,
경. 웃음.(내 뭇도 욱 듣고. 언니, 그런 생각도 잊어버리지도 앗고 잘 하고 있습니
다, 그렇게. 웃음.)

107001 @1 예, 알아수다.(예, 알았습니다.)

107001 #4 웃음.(웃음.)

107002 @1 게믄 그 밥해 먹어난 쌀 종류들은 어떤 쌀. 게믄 보리쌀허고.(그러면
그 밥해 먹었던 쌀 종류들은 어떤 쌀. 그러면 보리쌀하고.)

107002 #4 보리쌀 헤여근에 땃들을 옛날은.(보리쌀 해서 땃들을 옛날은.)

107002 @1 음.(음.)

107002 #4 땃들에 앗정. 바르르르허게 그퍼허여근에 허영 허믄 온보리쌀 싣고
그 벌러진 보리쌀 싣주기. 경 허믄 경 곶아난. 그 옛날 노인덜은. 예고, 보리쌀 의새
끼 가근에 퀘와사 밥헿 먹컬. 발랑발랑 강 이제 재게 강 헤여사 보리쌀 의새끼엔
곶아났어.(땃들에 안쳐서. 바르르르허게 거피해서 해서 하면 통보리쌀 있고 그 짜개
진 보리쌀 있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했었어. 그 옛날 노인들은. 아이고, 보리쌀
어이새끼 가서 꿔야 밥해서 먹을걸. 발랑발랑 가서 이제 재우 가서 해야 보리쌀
어이새끼라고 말했었어.)

107002 @1 예, 예.(예, 예.)

107002 #4 그 흔착쌀 허고 온쌀 시난에 예고 보리쌀 의새끼 강 퀘와사 밥을 헤
영 먹컬 경.(그 짜개하고 통쌀 있으니까 아이고 보리쌀 어이새끼 가서 꿔야 밥을
해서 먹을걸, 그렇게.)

107002 @1 음.(음.)

107002 #4 그런 것도 서나고이.(그런 것도 있었고.)

107002 @1 게믄 보리쌀 의새끼 현 거는 보리쌀 어멍허고 아.(그러면 보리쌀 어
이새끼 한 거는 보리쌀 어머니하고 아.)

107002 #4 그 온착 거 허고 영 벌러진 거 허곡 그것ㄴ라 보리쌀 의새끼.(그 통
째 거 하고 이렇게 벌러진 거 하고 그것보고 보리쌀 어이새끼.)

107002 @1 예.(예.)

107002 #4 예고, 보리쌀 의새끼 강 퀘와사컬 경.(아이고, 보리쌀 어이새끼 가서
꿔여야할걸 그렇게.)

442) '부영'은 아파트 상호다.

107002 @1 예.(예.)

107002 #4 궤와사궤 헨 말은 재게 강 그 밥을 헤사궤 허는 뜻인 생이라. 보리쌀 의새끼 강 궤와사 먹궤, 경.(궤여야 할궤 하는 말은 재우 가서 그 밥을 해야 할궤 하는 뜻인 모양이야. 보리쌀 어이새끼 가서 궤여야 먹을궤, 그렇게.)

107003 @1 예, 그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허엿수가? 옛날에.(예, 그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옛날에.)

107003 #4 옛날엔게 기냥 물 농곡 기냥 그것만 허곡. 궤 헨 땐 가을에 궤 헨 땐 궤도 놔근에 궤치.(옛날엔 그냥 물 넣고 그냥 그것만 하고. 팔 할 땐 가을에 팔 할 땐 팔도 놔서 같이.)

107003 @1 으.(으.)

107003 #1 궤치 허고. 콩 골양 허민 콩국 궤리곡.(같이 하고. 콩 갈아서 하면 콩국 궤이고.)

107003 @1 으.(으.)

107003 #4 콩죽도, 옛날은 주로 기자 콩죽을 많이 쥘, 즈냐이 때엔.(콩죽도, 옛날은 주로 그저 콩죽을 많이 쥘, 저녁 때엔.)

107003 @1 아, 즈냐이때엔예, 예.(아, 저녁때는요, 예.)

107003 #4 콩죽을 많이 허여.(콩죽을 많이 해.)

107003 @1 알앗수다. 게른 밥은 보통 보리밥을 헨 거라예?(알앗습니다. 그러면 밥은 보통 보리밥을 한 거라고요?)

107003 #4 보리밥게, 좁쌀이나 헤영 서끄곡. 또 존 가을 들어사 허곡 경 허난 예.(보리밥, 좁쌀이나 해서 쥘고. 또 존 가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니까.)

107003 @1 예.(예.)

107003 #4 좁쌀 허영 경 허영 흐린좁쌀 모인좁쌀 경 허곡.(좁쌀 해서 그렇게 해서 차좁쌀 메좁쌀 그렇게 하고.)

107003 @1 으.(으.)

107003 #4 흐린좁쌀은 지금 그 꺼문흐린좁쌀⁴⁴³⁾ 지금도게 그게 잇주게. 저 지금은 춤.(차좁쌀은 지금 그 ‘검은차좁쌀’ 지금도 그게 있지. 저 지금은 참.)

107003 @1 으.(으.)

107003 #4 흐린좁쌀엔도 굳고 차좁쌀엔도 허고 허는디 그거 경 허영 허곡. 궤 허영 콩밭디. 궤 지금은 딱로덜 가는다.(차좁쌀이라고도 말하고 차좁쌀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하고. 참궤 해서 콩밭예. 참궤 지금은 따로들 가는데.)

107003 @1 예.(예.)

107003 #4 옛날은 콩 갈민 콩밭디 머드레엔 헤여근에 궤쌀 기냥 땡기명 삭삭 헤영 궤영 허민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톱툱이 나누기.(옛날은 콩 갈면 콩밭예 대우라고 해서 참궤씨를 그냥 다니면서 삭삭 해서 뿌려서 하면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톱툱이 나지.)

443) ‘꺼문흐린좁쌀’은 차좁쌀의 일종이다. 색이 거무스레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7003 @1 으.(으.)

107003 #4 건 굴룬 걸로.(건 군 걸로.)

107003 @1 예.(예.)

107003 #4 굴룬 걸로 경 허영 께 헤여근에 께 털엉 그 양념도 허고 지름도 빠 먹고.(군 걸로 그렇게 해서 참깨 해서 참깨 떨어져서 그 양념도 하고 기름도 짜 먹고.)

107004 @1 예, 옛날에 또 반지기밥이런 현 거는 뭐를 말허는 겨우짜?(예, 옛날에 또 ‘반지기밥’이라고 한 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107004 #4 반지기⁴⁴⁴엔 현 건 그게 그 말이주기. 그 보리쌀에 좁쌀에 거세기 허영 반지기.(‘반지기’라고 한 건 그게 그 말이지. 그 보리쌀에 좁쌀에 거시기 해서 ‘반지기’.)

107004 @1 아, 반씩 논 거 반지기예?(아, 반씩 넣은 거 ‘반지기’요?)

107004 #4 경 허난 반지기.(그렇게 하니까 ‘반지기’.)

107005 @1 예, 옛날은 곤밥은 언제 먹었수가?(예, 옛날은 흰밥은 언제 먹었습니까?)

107005 #4 곤밥은 멥질 때나 제스 때에나.(흰밥은 멥질 때나 제사 때에나.)

107005 @1 음.(음.)

107005 #4 경 허곡. 이 고기 적갈도이 경현 때나 맛보주기게.(그렇게 하고. 이 고기 산적도 그런 때나 맛보지.)

107005 @1 으.(으.)

107005 #4 우리, 우리 할머니넨 무사산디 지금도 경 허주마는 옛날은 남자 허는 집인 적갈 ㄹ튼 건 남자가 현디 우리 할머니넨 똑 우리 할머니가 허여.(우리, 우리 할머니넨 왜인지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옛날은 남자 하는 집엔 산적 같은 건 남자가 하는데 우리 할머니넨 꼭 우리 할머니가 해.)

107005 @1 으.(으.)

107005 #4 적갈 ㄹ튼 거 경 허영 다 허영 허민 그 어려운 때난에 우리 동생 하나 나 밑에 셔신디 춤 세상을 떠 불언게. 경 허연 저 서월 간[간] 결혼허연 서월 간[간] 살안 허여신디 경 현디. 영 허영 성체가 앓이민 오독오독⁴⁴⁵ 앓이민 그거 문 허여냥.(산적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하면 그 어려운 때니까 우리 동생 하나 나 밑에 있었는데 참 세상을 떠 버렸어. 그렇게 해서 저 서울 가서 결혼해서 서울 가서 살아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형제가 앓으면 ‘오독오독’ 앓았으면 그거 몽땅 해두고.)

107005 @1 으.(으.)

107005 #4 브시레기나 흐뎡 주젠 허주게, 할머니.(부스러기나 조금 주려고 하지, 할머니.)

444) ‘반지기’는 보리쌀에 좁쌀이나 쌀 따위를 반씩 넣어서 지은 밥이다.

445) ‘오독오독’은 아이가 한쪽에 웅기종기 앓아 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107005 @1 예.(예.)

107005 #4 어린 때니까. 적갈 문여 허영 경 허영 허믄, 저 우리 하르버지 허는 말이 가네덜 쥐 즈손이 먹어야 조상도 잉감헌텐.(어릴 때니까. 산적 먼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저 우리 할아버지 하는 말이 개네들 쥐 자손이 먹어야 조상도 흠향한다고.)

107005 @1 음.(음.)

107005 #4 즈손이 먹어야 조상도 잉감허곡 위허는 거옌. 가네덜 쥐, 쥐. 막 하르버지가.(자손이 먹어야 조상도 흠향하고 위하는 거라고. 개네들 쥐, 쥐. 막 할아버지가.)

107005 @1 예.(예.)

107005 #4 그 앓은 거 보믄 안쓰러와 벤 생이라.(그 앓은 거 보면 안쓰러워 보인 모양이야.)

107005 @1 예.(예.)

107005 #4 우리 할아버지가 경 헤난 생각 윈 잊어 불지 안허여.(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생각 전혀 잊어 버리지 않아.)

107006 @1 옛날에 조팍힐 땐 어떤 식으로 헛수가?(옛날에 조밥할 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7006 #4 조팍은 그 좁쌀만 낱 힐 땐 감저 썰어낱이.(조팍은 그 좁쌀만 놔서 할 땐 고구마 썰어놔서.)

107006 @1 예.(예.)

107006 #4 고구마. 고구마 썰어 낱근엥에 솥당, 솥당 좁쌀 놔근엥에 경 허영.(고구마. 고구마 썰어 놔서 삶다가, 삶다가 좁쌀 놔서 그렇게 해서.)

107006 @1 으.(으.)

107006 #4 ** 맨 조팍 힐 때도 싯주마는 고구마 낱 허영 허민 밥이 더 흐리곡이. 고구마가 흐뎡 들코롬허지 아녀게.(** 맨 조팍 할 때도 있지만 고구마 놔서 해서 하면 밥이 더 차지고. 고구마가 조금 달콤하지 않은가.)

107006 @1 예.(예.)

107006 #4 경 허믄 그런 땃으로 경 허영 감저 썰어 낱 헤, 기자 조팍 힐 땐.(그렇게 하면 그런 땃으로 그렇게 해서 고구마 썰어 놔서 헤, 그저 조팍 할 땐.)

107007 @1 조팍 힐 땐 감저 썰어 낱 허고예?(조팍 할 땐 고구마 썰어 놔서 하고요?)

107007 #4 고구마 썰어 낱.(고구마 썰어 놔서.)

107007 @1 팍팍은 어떻 헤마씨?(팍팍은 어떻게 해요?)

107007 #4 팍팍은 보리쌀에게 ㄴ찌 낱.(팍팍은 보리쌀에 같이 놔서.)

107007 @1 음.(음.)

107007 #4 ㄴ찌 낱 ㄴ찌 솥아근에 경 허영 허고.(같이 놔서 같이 삶아서 그렇게 해서 하고.)

107008 @1 으, 팟밥은 이제 경 혜영 먹고. 여기도 피 갈아놨수가?(으, 팟밥은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여기도 피 갈았었습니까?)

107008 #4 피 갈안, 피 셔난.(피 갈았어, 피 있었어.)

107008 @1 아.(아.)

107008 #4 저 이 논에이.(저 이 논에.)

107008 @1 예.(예.)

107008 #4 논에 나록 허영 싱그민 핀 아니 싱, 싱그진 아녀고.(논에 벼 해서 심 으면 핀 아니 심, 심진 았고.)

107008 @1 예.(예.)

107008 #4 경헌디 그 피가 어떻허연 나와게. 그 나록밭디.(그런데 그 피가 어떡 해서 나와. 그 '벧논'에.)

107008 @1 으.(으.)

107008 #4 경 허믄 아이고, 나록밭디 강 피 메여살컬, 피 메여살컬 그런 말도 들어나곡.(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고, 벧논에 가서 피 매야할걸, 피 매야할걸 그런 말도 들었었고.)

107009 @1 피를 가정은에 뭐 밥을 행 먹거나는 안 허고예? 여기는예. 아.(피를 가져서는 뭐 밥을 해서 먹거나 안 하고요? 여기는요. 아.)

107009 #4 경.(그렇게.)

107009 @1 게믄 감저 썰어 낱 허는 밥은 어떤 밥들? 아까.(그러면 고구마 썰어 놔서 하는 밥은 어떤 밥들? 아까.)

107009 #4 경 허난 그건게 감저 숲, 감저 숲다근에 좁쌀 놔근에 헤여 먹을 때도 싯곡, 그건 이녁 거세기 대로 허젠 허민 이녁 즈유니까.(그렇게 하나까 그건 고구마 삶, 고구마 삶다가 좁쌀 놔서 해 먹을 때도 있고, 그건 이녁 거시기 대로 하려고 하면 이녁 자유니까.)

107009 @1 으.(으.)

107009 #4 보리쌀에 ㄹ치 놔근엔에도 허영 뭐 헌딘 영 썰어 놔근엔도 허곡 경 아년 디 온차 숲다근에 밥 젓영 거릴 땐 팍팍팍팍 찍으민이.(보리쌀에 같이 놔서 해서 뭐 한데는 이렇게 썰어 놔서도 하고 그렇게 았은 데는 통째 삶다가 밥 저어서 뜰 땐 팍팍팍팍 찍으면.)

107009 @1 으.(으.)

107009 #4 이제 감저에 그 밥에 ㄹ치 서꺼지민 들코롬허영 허믄 그런 뿔으로도 먹곡 경 헤여난.(이제 고구마에 그 밥에 같이 섞어지면 달콤해서 하면 그런 뿔으로도 먹고 그렇게 했었어.)

107009 @1 옛날은 감저 헤영은에 밥 하영 행 먹엇구나예?(옛날은 고구마 해서 밥 많이 해서 먹엇군요?)

107009 #4 감저도 경 많이 허곡. 경 허곡 또 저 그 공출덜 경 막 웨정시대에 헤 부니까.(고구마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저 그 공출들 그렇게 막 일제

강점기에 해 버리니까.)

107009 @1 예.(예.)

107009 #4 경 허여근영에 허엿주기게. 경 허영 허믄 그 이제 저 봄 나민 지슬 싱것당이, 봄 나민 가을 들어 가민 그거 허영 파민 지슬도 허영 청 떡곡. 이제 지슬 ㄴ라 지금은 감저, 감저 허지이.(그렇게 해서 했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이제 저 봄 되면 감자 심었다가, 봄 되면 가을 들어 가면 그거 해서 파면 감자도 해서 찌서 먹고. 이제 ‘지슬’보고 지금은 ‘감저’, ‘감저’ 하지.)

107009 @1 으.(으.)

107009 #4 경 허는디 그, 그것도 헤영 청 떡곡 경 해난. 옛날 계난 우리 어린 때에 우리 할머니네가 집 가까운 디 출왓을 쉼 메곡 영 허난 출왓이 션 나가 어린 때 영 ㄴ치 들란 간에 집이 혼웃이 멀지 아녀난 간 영 허연 현디. 할머니네 허는 거 보멍 허진 못허여도 영 ㄴ찌 영 즈름에 앓안에 영 뭐 허노렌 현디 그대에 그 해방 뭐 허기 전이난 일본 군인덜 막 땡길 때난에 그 우리, 나 출 비엄시난에 질긋 밧이난 영 넘어가단. 넘어가, 일본 군인덜이.(그렇게 하는데 그, 그것도 해서 찌서 먹고 그렇게 했었어. 옛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네가 집 가까운 데 꿀밭을 소 매고 이렇게 하니까 꿀밭이 있어서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같이 따라서 가서 집이 그다지 멀지 앓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할머니네 하는 거 보면서 하진 못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꿈무니에 앓아서 이렇게 뭐 하노라고 했는데 그대에 그 해방 뭐 하기 전이니까 일본 군인들 막 다닐 때니까 그 우리, 나 꿀 베고 있으니까 길가 밧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다가. 넘어가, 일본 군인들이.)

107009 @1 으.(으.)

107009 #4 넘어가단 나가 그때 머리가 막 질언.(넘어가다가 내가 그때 머리가 아주 길었어.)

107009 @1 으.(으.)

107009 #4 경 허난에 그 조선 군인 우리 한국 군인도 하나 셔난, 신 생이라게. (그렇게 하니까 그 조선 군인 우리 한국 군인도 하나 있었던, 있는 모양이야.)

107009 @1 으.(으.)

107009 #4 경 허난 이제 일본말로 머리ㄴ라 가미, 가미 헛주게.(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말로 머리보고 ‘가미’, ‘가미’ 했지.)

107009 @1 아.(아.)

107009 #4 경현디 우리 한국말론 머리 아니라게.(그런데 우리 한국말론 머리 아닌가.)

107009 @1 예.(예.)

107009 #4 경 허난 아이고, 머리로 질었네. 경 허멍 넘어가.(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머리로 길었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

107009 @1 으.(으.)

107009 #4 경 허난, 아고게 조선 군인이다 나가 경 허난 우리 조선 군인이다 경

허난. 그 췌 허난.(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조선 군인이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조선 군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췌 하니까.)

107009 @1 으.(으.)

107009 #4 곧지 말렌. 그 일본 군인덜광 ㄹ찌 가지난.(말하지 말라고. 그 일본 군인들과 같이 가지니까.)

107009 @1 으.(으.)

107009 #4 한국, 조선 군인덜인 줄 알든 막 뒤 허카 부덴 경 현 생이라.(한국, 조선 군인들인 줄 알면 막 뒤 할까 봐서 그렇게 한 모양이야.)

107009 @1 으.(으.)

107009 #4 경 현 거 잊어 붙어지지 아녀. 경 허난 췌 경 허연. 웃음.(그렇게 한 거 잊어 버려지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췌 그렇게 했어. 웃음.)

107010 @1 웃음. 경 헛구나예. 으, 삼춘, 그 밥헛 땀 늠뵈도 ㄹ치 낱 밥도 헛니 까? 여기도.(웃음. 그렇게 했군요. 으, 삼춘, 그 밥할 땀 무도 같이 놔서 밥도 헛니 까? 여기도.)

107010 #4 우리 할머니넨 그런 무수 낱 허여보진 아녀고 기자 주로 감저.(우리 할머니넨 그런 무 놔서 해보진 았고 그저 주로 고구마.)

107011 @1 주로 감저예?(주로 고구마요?)

107011 #4 으.(으.)

107011 @1 여기 막 그 흥년, 송년들 때 툷도 낱 밥허는 거 봤수가? 툷밥.(여기 막 그 흥년, 흥년들 때 툷도 놔서 밥하는 거 봤습니까? 툷밥.)

107011 #4 툷밥 경 허영 먹넨 말은 들어신디 우리 할머니넨 경은 아녀. 아메도 우리 할머니네 재산이 셔낱주기.(툷밥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말은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넨 그렇게는 았았어. 아마도 우리 할머니네 재산이 있었지.)

107011 @1 예.(예.)

107011 #4 밧덜이.(밭들이.)

107011 @1 아.(아.)

107011 #4 밧 췌고 논 췌고 나록도 헤나고이. 경 허연.(밭 있고 논 있고 벼도 했었고. 그렇게 했어.)

107011 @1 음, 계난 툷밥 늠 헤 먹는 거는 안 봐나고?(음, 그러니까 툷밥 낱 헤 먹는 거는 안 봤었고?)

107011 #4 안 봐난.(안 봤었어.)

107011 @1 툷밥은 안 허고예?(툷밥은 안 하고요?)

107011 #4 우리 할머니네도 헤연 먹, 그런 거 헤 먹어 보진 안허연.(우리 할머니네도 해서 먹, 그런 거 헤 먹어 보진 았았어.)

107011 @1 예.(예.)

107011 #4 보리쌀 줍쌀 기자 췌 낱 행 먹고. 콩은 곶아당 저녁 땀 헤 죽 췌곡.(보리쌀 줍쌀 그저 팔 넣어서 해서 먹고. 콩은 곶아다가 저녁 땀 헤 죽 췌곡.)

107011 @1 으.(으.)

107011 #4 므뎡 굴아근엿에 므뎡츄뵁기엿 해근에 콩죽 솟디 낡 므뎡초뵁기, 므뎡초뵁기 경 허뎡 허엿, 경 해난.(뵁뎡 갈아다가 뵁뎡수제비라고 해서 콩죽 솥에 놔서 뵁뎡수제비, 뵁뎡수제비 그렇게 하면서 했어, 그렇게 했었어.)

107012 @1 게난 그 옛날에 물룣에 뵁 낡도 뵁 밥해 먹거나?(그러니까 그 옛날에 뵁에 뵁 넣어서도 뵁 밥해 먹거나?)

107012 #4 물룣.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그뵁.(뵁.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그뵁.)

107012 @1 아, 게뎡 삼촌네는 할머니네가 잘 사니까예, 예?(아, 그러면 삼촌네는 할머니네가 잘 사니까요, 예?)

107012 #4 기낡 뎡뵁 집 즈뵁디 뵁뎡토 쫓고 저 장손 뵁으로 뵁썰일도 다 허곡 재산이 좋아난. 경 허난.(그낡 뵁뵁 집 곁에 뵁들도 있고 저 장손 뵁으로 ‘뵁썰일’도 다 하고 재산이 좋았었어. 그렇게 하니까.)

107012 @1 으.(으.)

107012 #4 그런 뵁 그런 거세기 먹는 건 해 먹어, 안 봐나고, 저 무사산디 우갯도 막 널르곡 경 허엿 헌디 그 승키 그거 허여 먹는 것을 어뵁난산디 대옴허여근에 허뎡, 우리 뵁 나뎡.(그런 뵁 그런 거세기 먹는 건 해 먹어, 안 봤었고, 저 왜인지 터알도 아주 너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푸성귀 그거 해 먹는 것을 어뵁해서인지 게을러서 하면, 우리 뵁 되뵁.)

107012 @1 예.(예.)

107012 #4 삼월 나뎡 보리왓디 뵁기뎡 드룣늑뵁이렌 허여근에 그 지금 그뵁뎡 유채늑뵁 하나씩.(삼월 되뵁 보리밭에 다니면서 들나뵁이라고 해서 그 지금 같으면 유채나뵁 하나씩.)

107012 @1 예.(예.)

107012 #4 그 뵁디 쫓는 거라게.(그 밭에 있는 거야.)

107012 @1 음.(음.)

107012 #4 경 허뎡 그 드룣늑뵁 캐레 가자 헤엿 뵁뎡이엿 경 허엿 보리왓디 뵁기뎡 허엿 늑뵁 캐여나고.(그렇게 하면 그 들나뵁 캐러 가자 해서 뵁들이랑 그렇게 해서 보리밭에 다니면서 해서 나뵁 캐었었고.)

107012 @1 으.(으.)

107012 #4 난시 캐고이, 미나리.(냉이 캐고, 미나리.)

107012 @1 으.(으.)

107012 #4 이 논어엿에 헤엿 미나리 캐여당 거세기.(이 논가에 해서 미나리 캐다가 거시기.)

107012 @1 으.(으.)

107012 #4 헤엿 승키로 뵁곡 경 해난.(해서 푸성귀로 먹고 그렇게 했었어.)

107013 @1 게뎡 옛날에 국 허여난 건 어떤 국들은 헐 먹어신고마씨?(그러면 옛

날에 국 했던 건 어떤 국들을 해서 먹었는가요?)

107013 #4 국덜은게 국도 그거 기자 승키 놓고 콩 주장으로 콩국.(국들은 국도 그거 그저 푸성귀 넣고 콩 주장으로 콩국.)

107013 @1 으.(으.)

107013 #4 콩국, 경 허난 우리 하르버지가 풍으로 춤 뭐 허연에 몸이 안 좋안 혼 저 밧뒋 일을 잘 못허연 허난 쉼덜, 쉼 밧 가는 쉼 밧갈쉼⁴⁴⁶⁾ 밧갈쉼 허주게. 경 허영 허영 허른 쉼 웃은 사름그라 느네 농스도 허곡 우리 것도 헤드렌 헤여근에 쉼에.(콩국, 그렇게 하나까 우리 할아버지가 풍으로 참 뭐 해서 몸이 안 좋아서 한 저 밧의 일을 잘 못해서 하나까 소들, 솔 밧 가는 소 ‘밧갈쉼’ ‘밧갈쉼’ 하지. 그렇게 해서 하면 소 없는 사람보고 너의 농사도 하고 우리 것도 해달라고 해서 소에.)

107013 @1 으.(으.)

107013 #4 거세기 헤영 경 허는 것도 허연 봐나고.(거시기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해서 봤었고.)

107013 @1 으.(으.)

107013 #4 경 헤연.(그렇게 했었어.)

107013 @1 게난 국은 그냥 승키 허영은에 그냥 허는 거라예?(그러니까 국은 그냥 푸성귀 해서 그냥 하는 거네요?)

107013 #4 콩국 킬리고.(콩국 끓이고.)

107013 @1 콩국 끌리고.(콩국 끓이고.)

107013 #4 콩국 킬리고 웬장국게.(콩국 끓이고 된장국.)

107013 @1 으.(으.)

107013 #4 웬장국.(된장국.)

107014 @1 게른 누물국은 웬장국이우과?(그러면 배춧국은 된장국입니까?)

107014 #4 으, 누물국은 웬장국.(으, 배춧국은 된장국.)

107014 @1 으.(으.)

107014 #4 웬장 냥.(된장 넣어서.)

107014 @1 웬장 냥.(된장 넣어서.)

107014 #4 경 허곡 콩 삶아근에 메주 허영 저 지금은 그, 지금은 그런 것도 웃 주마는 그 중간에 헤영 춤 보선이나 새 보선 저 곤 거 신곡 그 우의 비니루 허영 콩 영 거세기에 냥 블랑도 허여낫주마는 그때 시절엔 그런 것도 었언.(그렇게 하고 콩 삶아서 메주 해서 저 지금은 그,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그 중간에 해서 참 버선이나 새 버선 저 고운 거 신고 그 위에 비닐 해서 콩 이렇게 거시에기에 놔서 밧아서도 했었지만 그때 시절엔 그런 것도 없었어.)

107014 @1 으.(으.)

107014 #4 기자 마께로 도고리에 냥 영 콩도 뵈앙 메주 영 쉼곡 경 헤난.(그저 방망이로 함지박에 놔서 이렇게 콩도 뵈아서 메주 이렇게 쥐고 그렇게 했었어.)

446) ‘밧갈쉼’는 주로 밧을 갈 때 사용하는 소를 말한다.

107014 @1 예.(예.)

107014 #4 뽕앙.(뽕아서.)

107015 @1 뽕앙예, 예. 늬뽕국 같은 거는 안 해 먹어마씨?(뽕아서요, 예. 뽕국 같은 거는 안 해 먹어요?)

107015 #4 무사 안 해 먹어. 늬뽕도 국 끌렁 먹고.(왜 안 해 먹어. 무도 국 끓여서 먹고.)

107015 @1 으.(으.)

107015 #4 늬뽕도.(무도.)

107015 @1 늬뽕도 건?(무도 건?)

107015 #4 국 끌렁 웬장국도 끌렁 먹곡. 그 막 어려운 때난 어려운 때난에 우리 하르버지가 경 일을 경 풍으로 못허난 이젠 우린 할머니네 우리 어린 때라도 소낭 밧도 큰 밧 셔나난 그런 소낭덜 허영 허믄 형제간덜이나 친족이영 허여근에 허여다 드렌 허믄 낭허영근에 춤 췌에 시끄곡 문 헤영 오믄 어려운 시절이난게 콩국 허영 혼 솟 끌려근에 헤영 밥허영 우리 할머니 지금은 질로지만씩⁴⁴⁷⁾ 밥을 거렁 먹엄 주마는 낭푼이에 거렁이.(국 끓여서 된장국도 끓여서 먹고. 그 아주 어려운 때니까 어려운 때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그렇게 풍중으로 못하니까 이젠 우린 할머니네 우리 어릴 때여도 소나무밭도 큰 밧 있었으니까 그런 소나무들 해서 하면 형제간들이나 친족이랑 해서 해와 달라고 하면 나무해서 참 소에 신고 몽땅 해서 오면 어려운 시절이니까 콩국 해서 한 숟 끓여서 해서 밥해서 우리 할머니 지금은 ‘질로지만씩’ 밥을 떠서 먹고 있지만 양푼에 떠서.)

107015 @1 예.(예.)

107015 #4 낭푼이에 거렁. 낭푼이라 그 남박세기.(양푼에 떠서. 양푼이야 그 나무바가지.)

107015 @1 예, 예, 예, 남박세기.(예, 예, 예, 나무바가지.)

107015 #4 그 박세기 큰 것에이, 경 허영 거렁, 거리곡 콩국은 따로따로 영 허영 허영 허믄 막 더 먹으렌 막 기냥 허영 거려 주민 아이고, 우리 아주머닌 우리 저 그 셋하르버지 말췌하르버지네 경 허영. 스 형제라났어.(그 바가지 큰 것에, 그렇게 해서 떠서, 뜨고 콩국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해서 하면 막 더 먹으라고 막 그냥 해서 떠 주면 아이고, 우리 아주머닌 우리 저 그 둘째할아버지 셋째할아버지 네 그렇게 해서. 사 형제였었어.)

107015 @1 예.(예.)

107015 #4 경 허영 허믄 아주머닌 기자 으, 아주머님엔 허영 아주머님.(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머닌 그저 으, 아주머님이라고 해서 아주머님.)

107015 @1 으.(으.)

107015 #4 아주머님은 기자 먹으라 먹으라만 헤영 경 허명 그런 말 반가운 소리로이.(아주머님은 그저 먹으라 먹으라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 반가운 소리

447) ‘질로지만씩’은 여럿이 다 저마다 따로따로의 의미다. 지역에 따라서 ‘질로지씩’이라고도 한다.

로.)

107015 @1 예, 예.(예, 예.)

107015 #4 반가운 소리게. 먹으라, 먹으라 허니까.(반가운 소리. 먹으라, 먹으라 하니까.)

107015 @1 음.(음.)

107015 #4 그런 그 생각나곡. 흥번은 밥을 꺼문숫되게 옛날은.(그런 그 생각나고. 한번은 밥을 검정술에 옛날은.)

107015 @1 예.(예.)

107015 #4 밥해연에 불 습, 검질불 습안에 영 그 췌 질루난 췌 먹어난 췌데치⁴⁴⁸)엔 허주기. 췌 먹어난 거 그 잘 안 먹은 거ㄴ라이.(밥해서 불 때, 검불불 때서 이렇게 그 소 기르니까 소 먹었던 ‘췌데치’라고 하지. 소 먹었던 거 그 잘 안 먹은 거보고.)

107015 @1 예, 예.(예, 예.)

107015 #4 그거 허영 불 습양 밥을 허민 췌데치 췌데치.(그거 해서 불 때서 밥을 하면 ‘췌데치’, ‘췌데치’.)

107015 @1 으.(으.)

107015 #4 췌데치 허여근에 숫강알⁴⁴⁹)에 영 불 습아 나쁜 숫강알에 불치가 이실 거 아니?(‘췌데치’ 해서 술 밑에 이렇게 불 때 나면 술 밑에 재가 있을 거 아니?)

107015 @1 으.(으.)

107015 #4 경 허영 현 디게, 즈끗디 간 검질메연에 헨 완 집의 강 밥 먹주긴 허연 바로 알력밭⁴⁵⁰), 알력밭 영. 알력밭 무신 산 쓴 밧은 산앗인밭⁴⁵¹).(그렇게 해서 한 데. 곁에 가서 김매서 해서 와서 집에 가서 밥 먹자 해서 바로 ‘알력밭’, ‘알력밭’ 이렇게. ‘알력밭’ 무슨 묘 쓴 밧은 ‘산앗인밭’.)

107015 @1 예.(예.)

107015 #4 또 어떠난산디 기백이밭⁴⁵²)이엔 또 현 거세기가 셔났어.(또 어때서인지 ‘기백이밭’이라고 또 한 거시기가 있었어.)

107015 @1 으.(으.)

107015 #4 기백이밭. 경 헤영 기백이밭은 무신 밧이우파? 허난 난 아느냐? 우리 할머니가.(‘기백이밭’. 그렇게 해서 ‘기백이밭’은 무슨 밧입니까? 하니까 난 아느냐? 우리 할머니가.)

107015 @1 예.(예.)

107015 #4 난 아느냐? 경 허곡. 아, 산앗인밭은 산은 쓰니까 산앗인밭, 알력밭이

448) ‘췌데치’는 소가 먹다 남은 꼴의 부분을 말한다.

449) ‘숫강알’은 걸어 놓은 술의 아래 부분, 즉 술 밑을 말한다.

450) ‘알력밭’은 현재의 위치보다 아래쪽에 있는 밧 이름이다.

451) ‘산앗인밭’은 밧에 ‘산’, 즉 묘소가 있는 밧 이름이다. 밧 안에 묘가 있어서 붙은 것 같다.

452) ‘기백이밭’은 기백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밧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이다.

엔 헌 건 집 알력 펜이니까 알력بات이엔 험구나. 우리 어린 때도이.(난 아느냐? 그렇게 하고. 아, '산앗인بات'은 묘는 쓰니까 '산앗인بات', '알력بات'이라고 한 건 집 아래편 이니까 '알력بات'이라고 하고 있구나. 우리 어릴 때도.)

107015 @1 예, 예.(예, 예.)

107015 #4 경 헤여낫주게. 경 허연 헌디, 아이그, 그 경 허연 혼번은 오란 집 즈 깃이난 집의 강 밥 먹영 오게. 집의 오란 보난 그 일본군인덜 막 한국 온 때에.(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이고, 그 그렇게 해서 한번은 와서 집 곁이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서 오자.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일본군인들 막 한국 온 때에.)

107015 @1 으.(으.)

107015 #4 배고광게, 막 하영 죽엇주기.(배고파서, 아주 많이 죽었지.)

107015 @1 으.(으.)

107015 #4 배고판. 경 허연 허난 그 일, 그 군인 신어난 군대 그.(배고팠어. 그렇게 해서 하니깐 그 일, 그 군인 신었던 군대 그.)

107015 @1 으.(으.)

107015 #4 그 신발이.(그 신발이.)

107015 @1 으.(으.)

107015 #4 허난 솟강알 이거 영 허영 허믄 영 허영 솟두깁이 올양 손으로 막 췌경 먹어나곡이 영 허영 허민 그 불치에 구뎡발 그 자국이 퍼뜩퍼뜩 성 허믄 아고, 할머니. 저 이 군인덜 오란 밥 먹어신게. 내 불라, 오죽 배고파사 경 허느냐.(하니까 솔 밑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솔뚜껍 열어서 손으로 막 쥐어서 먹었었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재에 구뎡발 그 자국이 퍼뜩퍼뜩 있어서 하면 아고, 할머니. 저 이 군인들 와서 밥 먹었는데. 내 버려라, 오죽 배고파야 그렇게 하느냐.)

107015 @1 으.(으.)

107015 #4 내 불라. 우리 할머니가 경 헤여난.(내 버려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었어.)

107015 @1 으, 할머니가 마음이 막 좋아신게.(으, 할머니가 마음이 아주 좋았네.)

107015 #4 내 불라 오죽 배고파사 경 허느냐, 알아시민 그냥 믰음 낡 먹영 가렌 허 췌.(내 버려라 오죽 배고파야 그렇게 하느냐, 알았으면 그냥 마음 놔서 먹어서 가라고 할 췌.)

107015 @1 으.(으.)

107015 #4 경 허연. 그 웃은 트멍에 경 오랑 봐근에 사름 웃어도게.(그렇게 했었어. 그 없는 틈에 그렇게 와서 봐서 사람 없어도.)

107015 @1 예.(예.)

107015 #4 경 허연 먹언 가난 알아시민 경 거세기 허지 말앙 기냥 믰음 낡 먹영 가렌 허 췌. 경 허멍.(그렇게 해서 먹어서 가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거시기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놔서 먹어서 가라고 할 췌. 그렇게 하면서.)

107015 @1 으.(으.)

107015 #4 경도 헤어나고이. 그 일본군인덜 온 때에 그 막 몰 큰 몰이.(그렇게 도 했었고. 그 일본군인들 온 때에 그 아주 말 큰 말이.)

107015 @1 예.(예.)

107015 #4 그것 ㄴ라 호달매, 호달매 헤낫어, 그때.(그것보고 호마, 호마 했었어 어, 그때.)

107015 @1 예, 호달매예.(예, 호마요.)

107015 #4 호달매. 호달매, 호달매 헤영 헌디 올레에 방에 짙는 그 방앗간이 서 낫어. 몰 메와근에 영 허곡. 쉼 메왕.(호마. 호마, 호마 해서 했는데 오래에 방아 짙는 그 방앗간이 있었어. 말 메워서 이렇게 하고. 소 메워서.)

107015 @1 예.(예.)

107015 #4 영 돌아가명. 이제 그 신제주로타리⁴⁵³도 그 방.(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신제주로타리도 그 방.)

107015 @1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15 #4 기념물 방앗간 그런 걸로.(기념물 방앗간 그런 걸로.)

107015 @1 예.(예.)

107015 #4 경 허영 헤영 헐 때 그 몰덜이 오라근에 그 비 온 때영 그 방앗간에 메영 허른 오죽 배고파사 경 허여. 새로 그 방에 짙는 그 집을 짓을 거 아니. 짓언 경 허연 허여신디. 그순새⁴⁵⁴ 막 빼떡언게.(그렇게 해서 해서 할 때 그 말들이 와서 그 비 올 때랑 그 방앗간에 매서 하면 오죽 배고파야 그렇게 해. 새로 그 방아 짙는 그 집을 지을 거 아니. 지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순새’를 막 빼떡었어.)

107015 @1 으.(으.)

107015 #4 군인 그 몰덜이 막 경 허영 허른 아이고, 막 집 막 뜯어 붙어신게, 할머니. 경 허민, 아고야 오죽 배고파사 몰도 경 허느냐. 경 허영 맨 중 알아시민 야, 출 혼 못, 출 가져당 그레 데껴주, 데경 놔둘걸게. 경 올 줄 알아시민. 경 허멍 우리 할머니.(군인 그 말들이 아주 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고, 막 집 막 뜯어 버렸는데,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아고야 오죽 배고파야 말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맨 줄 알았으면 야, 풀 한 못, 풀 가져다가 그리로 던지지, 던져서 놔둘걸. 그렇게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할머니.)

107015 @1 으, 할무니가 마음이 완전 좋은 할머니예, 으.(으, 할머니가 마음이 완전 좋은 할머니네요, 으.)

107015 #4 경 헤난. 우리 할머니 친정은 저 납읍⁴⁵⁵.(그렇게 했었어. 우리 할머니 친정은 저 납읍리.)

107015 @1 예.(예.)

107015 #4 지금은 납읍엔 허느냐 옛날, 옛날은 과납⁴⁵⁶이엔 헤낫주.(지금은 납

453) ‘신제주로타리’는 제주시 연동의 지명 이름이다.

454) ‘그순새’는 지붕을 덮었던 목은 띠를 말한다.

455) ‘납읍’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를 말한다.

읍이라고 하느냐 옛날, 옛날은 ‘과납’이라고 했었지.)

107015 @1 과납예.(‘과납’요.)

107015 #4 과납. 지금은 이제 표준말로 납읍 현디 과납. 친정이 과납, 경 혜영이 라낫주게.(‘과납’. 지금은 이제 표준말로 납읍 하는데 ‘과납’. 친정이 ‘과납’, 그렇게 해서였지.)

107015 @1 경 혜연 삼춘 또 그 호박잎국도 하영 허영 먹었어예?(그렇게 해서 삼춘 또 그 호박잎국도 많이 해서 먹었지요?)

107015 #4 아이고, 호박입국⁴⁵⁷.(아이고, 호박잎국.)

107015 @1 호박입국은?(호박잎국은?)

107015 #4 그걸 승기로 주로 대목. 무사산디사 우갯도 널르곡 경 허여도 경 승 키덜이 어려왕 우리 난시 캐레 미나리 캐레 꿩마농 캐레 막 경 텅겨난.(그걸 푸성귀로 주로 대목. 왜인지 터알도 너르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푸성귀들이 어려워서 우리 냉이 캐러 미나리 캐러 달래 캐러 막 그렇게 다녔었어.)

107015 @1 으. 게난 호박입국은 어떤 식으로 끌리는 거우파?(으. 그러니까 호박잎국은 어떤 식으로 끓이는 겁니까?)

107015 #4 호박입도게 집 허텅게.(호박잎도 깃 흠어서.)

107015 @1 예.(예.)

107015 #4 물 팔팔 꿩와근엔 그 들이청은엔에 호박입 거저 익은 거 닻으민 그 낭푼이에 ㄱ를 카근엔에 영 허영 영 들렁 막 젓으멍 허영 허든.(물 팔팔 끓여서 그 들이뜨려서 호박잎 거의 익은 거 같으면 그 양푼에 가루 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막 저으면서 해서 하면.)

107015 @1 으.(으.)

107015 #4 모실모실모실 그 수제비 웨는 건 수제비.(몽글몽글몽글 그 수제비 되는 건 수제비.)

107015 @1 예.(예.)

107015 #4 요만씩 돼곡 기냥 그 춤 집 허터저근엔에 경 허민 그거 흔 그릇씩 먹으민.(요만씩 되고 그냥 그 참 깃 흠어서 그렇게 하면 그거 한 그릇씩 먹으면.)

107015 @1 으.(으.)

107015 #4 춤, 아이고, 배불게 먹어졌져, 좋다 경 허곡, 경 혜난.(참, 아이고, 배부르게 먹어졌다, 좋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

107015 @1 으, 게영 집 허명예. 집 허트는 건 어떤 ㄱ를로 허연마씨?(으, 그래서 깃 흠어서요. 깃 흠는 건 어떤 가루로 했어요?)

107015 #4 그 집 허트는 건 그때도 저 그 밀을 갈아낫주기.(그 깃 흠는 건 그때도 저 그 밀을 갈았었지.)

107015 @1 아.(아.)

456) ‘과납’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의 옛 이름이다.

457) ‘호박입국’은 호박잎을 재료로 하여 밀가루 등 가루를 풀어 넣어서 끓인 국이다.

107015 #4 밀 갈양 허민 밀꺾리.(밀 갈아서 하면 밀가루.)
 107015 @1 으.(으.)
 107015 #4 밀꺾리도 허곡 믈꺾리도 허영은엿에 수제비도 경 허영 먹곡 현디
 집 허트는 건 그 밀꺾리, 밀.(밀가루도 하고 메밀가루도 해서 수제비도 그렇게 해서
 먹고 했는데 깃 훑는 건 그 밀가루, 밀.)
 107015 @1 밀로예?(밀로요?)
 107015 #4 밀, 밀, 밀 갈양, 밀 허여난, 밀. 경 허연.(밀, 밀, 밀 갈아서, 밀 했던,
 밀. 그렇게 했어.)
 107019 @1 여기는 바당 읍이니까 몀으로도 국 헛수가?(여기는 바다 옆이니까
 모자반으로도 국 헛습니까?)
 107019 #4 으, 몀국.(으, 모자반국.)
 107019 @1 몀국 건.(모자반국 건.)
 107019 #4 몀국은 이 저 무신것에 좋주게. 웨야지고기 그 삶. 이디도 그 잔치
 때나 무신 이 대소상 때나 지금은 뭐 허주마는 경 허영 몀국을 그, 그런 고기 삶아
 난.(모자반국은 이 저 무엇에 좋지. 돼지고기 그 삶. 이디도 그 잔치 때나 무슨 이
 대소상 때나 지금은 뭐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자반국을 그, 그런 고기 삶았던.)
 107019 @1 예.(예.)
 107019 #4 막 큰 솟디 고길 삶을 거 아니라.(아주 큰 솥에 고길 삶을 거 아닌
 가.)
 107019 @1 으.(으.)
 107019 #4 삶아나민 그 고기 삶아난 국물에 몀 헤영은엿에.(삶아나면 그 고기
 삶았던 국물에 모자반 해서.)
 107019 @1 으.(으.)
 107019 #4 국 끌령 허면은 경 막 사름덜이 스뭇 춤. 지꺼정 맛 좋덴 허멍. 오죽
 어려와사 경 허카이.(국 끓여서 하면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사뭇 참. 기빠서 맛 좋
 다고 하면서. 오죽 어려워야 그렇게 할까.)
 107019 @1 예.(예.)
 107019 #4 경, 경 헤난.(그렇게. 그렇게 했었어.)
 107019 @1 이 바당에도 몀이 하낫구나예?(이 바다에도 모자반이 많았었군요?)
 107019 #4 하난.(많았었어.)
 107019 @1 으.(으.)
 107019 #4 지금도 몀 싯주게. 실 거라게.(지금도 모자반 있지. 있을 거야.)
 107019 @1 예.(예.)
 107019 #4 몀 셔. 이 바른 아래 지금은 오염웨연 이 해○○ 모욕탕 싯기 때문
 에.(모자반 있어. 이 바른 아래 지금은 오염되어서 이 해○○ 목욕탕 싯기 때문에.)
 107019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19 #4 오염 웨연.(오염 되어서.)

107019 @1 으.(으.)

107019 #4 오염 뒤연에 전복 ㄱ튼 것도 헤 엇어점젠 글안게.(오염 되어서 전복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하던데.)

107019 @1 으, 쟁은에 이제 넁국 ㄱ튼 경우는 이제 대소상 때나.(으, 그래서 이제 모자반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상 때나.)

107019 #4 으.(으.)

107019 @1 잔치 때나 보통.(잔치 때나 보통.)

107019 #4 그 고기 쏘아난 국물에.(그 고기 삶았던 국물에.)

107019 @1 예, 예.(예, 예.)

107019 #4 국물에 넁국 끓렁은에 쟁 허른 것도 맛 좋덴 허멍덜 쟁. 웃음.(국물에 모자반국 끓여서 그렇게 하면 것도 맛 좋다고 하면서들 그렇게. 웃음.)

107020 @1 으, 쟁선국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으, 옥돔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7020 #4 쟁선국 그런 건 먹실일 때벳기게 아너주게. 쟁영 끓리는 거게.(옥돔국 그런 건 ‘먹실일’ 때밖에 앓지. 쟁 끓이는 거.)

107020 @1 쟁영 끓리는 거예요?(쟁 끓이는 거요?)

107020 #4 쟁영.(쟁.)

107020 @1 그 쟁선이 옥돔인가마씨?(그 쟁선이 옥돔인가요?)

107020 #4 옥돔게.(옥돔.)

107020 @1 옥돔 으.(옥돔 으.)

107020 #4 옥돔게. 쟁 허영 허른 쟁성 사당은에게 지금은 넁른 거 얼마든지 오일장에 강도 사곡 마트에 강도 사는다. 옛날은 그게 춤 넁 허영 허른 이 등사근에 바당 강 온 중 알민 역불 강 등삿당 쟁성 사당 배강 영 고쟁이 쟁영.(옥돔. 그렇게 해서 하면 옥돔 사다가 지금은 넁른 거 얼마든지 오일장에 가서도 사고 마트에 가서도 사는데. 옛날은 그게 참 넁 해서 하면 이 지켜 서서 바다 가서 온 줄 알면 역불 가서 지켜 섰다가 옥돔 사다가 배따서 이렇게 꼬쟁이 쟁어서.)

107020 @1 예.(예.)

107020 #4 줄 허영 영 넁 허여근에 집 앓에영 이런 집 앓에 영 걸영 넁리왕.(줄 해서 이렇게 넁 해서 집 앓에랑 이런 집 앓에 이렇게 걸어서 넁려서.)

107020 @1 으.(으.)

107020 #4 쟁도 허영 허곡. 또 예, 저 이 지금은 이디 외, 이 바닷가 가까운 넁 거세기 허영 허주마는 옛날은 그 산촌에, 산촌에 쟁헌 디 고기 사레 옴도 그냥 넁 허주기게.(그렇게도 해서 하고. 또 예, 저 이 지금은 여기 외, 이 바닷가 가까운 넁 거세기 해서 하지만 옛날은 그 산촌에, 산촌에 그런 데 고기 사러 오기도 그냥 넁 하지.)

107020 @1 으.(으.)

107020 #4 쟁 허른 갈치 장시덜이 가주게.(그렇게 하면 갈치 장수들이 가지.)

107020 @1 예.(예.)

107020 #4 역불 뒤편에 바쿠젠도 정 가곡 경 허문 흐뎡 뒤편 허영 어려운 거세 긴 보민 그 갈치 상, 점수 으라 개 나는 거엔이.(역불 뒤편에 바쿠려고도 쳐서 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뒤편 해서 어려운 거시긴 보민 그 갈치 상, 점수 여러 개 나는 거라고.)

107020 @1 예, 예.(예, 예.)

107020 #4 갈치 사근엔에 요만씩 썰어근에.(갈치 사서 요만큼씩 썰어서.)

107020 @1 으.(으.)

107020 #4 배강 경 허연 고쟁이 꿩영 널엇당 갈치로도 제숙 쓰곡.(배따서 그렇게 해서 꼬쟁이 꿩어서 널엇다가 갈치로도 제숙 쓰고.)

107020 @1 아, 갈치도 제숙 써, 제숙 써예?(아, 갈치도 제숙 써, 제숙 쓴다고요?)

107020 #4 그 어려운 때난 경 해난.(그 어려운 때니까 그렇게 했었어.)

107020 @1 예, 으.(예, 으.)

107020 #4 지금은 어디 경 해계?(지금은 어디 그렇게 해?)

107020 @1 으.(으.)

107020 #4 그때도 뒤편 우리 할머니넌 그런 건 아녀 보곡 기자 조긴 썬어.(그때도 뒤편 우리 할머니넌 그런 건 안 해 보고 그저 조긴 썬었어.)

107020 @1 예.(예.)

107020 #4 조기허곡 생성은 썬어신디 갈치 안 썬어신디 영 보민 경 허영 허곡. 또 이 산촌엔 경 저 무시거고. 우리 큰고모네도 금덕⁴⁵⁸ 살아신디 영 강 보민 갈치 허영 배카근에.(조기하고 옥돔은 썬었는데 갈치 안 썬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 산촌엔 그렇게 저 무엇이니. 우리 큰고모네도 금덕 살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갈치 해서 배따서.)

107020 @1 으.(으.)

107020 #4 고쟁이에 꿩영 집가지 아래 돌아메영.(꼬쟁이에 꿩어서 처마 아래 매달아서.)

107020 @1 예.(예.)

107020 #4 돌아메영 물리와근에 경 허영 허문 그 망데기에 찢.(매달아서 말려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망데기’에 찢.)

107020 @1 예.(예.)

107020 #4 찢 영 허영 깔아근에 그레 허영 들른 갈치 영 농곡 그다음에 찢 깔 앙 들른 갈치 영 농곡 경 해여근엔에 확 먹썰일 돌아오른 확허게 바당이나 썬어 불 곡 허문.(썰 이렇게 해서 깔아서 그리로 해서 마른 갈치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썰 깔아서 마른 갈치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확 ‘먹썰일’ 돌아오르면 확하게 바다나 세 버리고 하면.)

458) ‘금덕’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옛 이름이다.

107020 @1 으.(으.)

107020 #4 지금ㄴ째 그뻐 오일장도 경 엇고 엇날게.(지금같이 그뻐 오일장도 그렇게 없고 엇날.)

107020 @1 맞수다.(맞습니다.)

107020 #4 경 현 때난. 경 허영, 허영 계속 쓰는 것도 봐나고.(그렇게 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해서 제수 쓰는 것도 봤었어.)

107020 @1 음, 짝으로 영 헤영예? (음, 짝으로 이렇게 해서요?)

107020 #4 경 포주경 농민 그 부떠근영에 아메도 뭐할 거난 영, 아 망데기⁴⁵⁹) 아래 짝 영 짝앙.(그렇게 겹쳐 놓으면 그 붙어서 아마도 뭐할 거니까 이렇게, 아 ‘망데기’ 아래 짝 이렇게 갈아서.)

107020 @1 으.(으.)

107020 #4 그 우의 헤영 또 그 꿩기 낀 우의 또 짝 흐뎀 영 산산허게⁴⁶⁰) 영 깎 아근예.(그 위에 해서 또 그 고기 간 위에 또 짝 조금 이렇게 산산하게 이렇게 갈아서.)

107020 @1 으.(으.)

107020 #4 경 허는 거 봐난. 경 허영 향아리에 그 망데기 경 허든 망데기도 딱 더뜨지 안허영이.(그렇게 하는 거 봤었어. 그렇게 해서 향아리에 그 ‘망데기’ 그렇게 하면 ‘망데기’도 딱 덮지 않아서.)

107020 @1 예.(예.)

107020 #4 흐뎀 영 베옥영⁴⁶¹).(조금 이렇게 ‘베옥’여서.)

107020 @1 예.(예.)

107020 #4 공기 나가게 베옥영 그런 것도 고펡 안네 들여받게게.(공기 나가게 ‘베옥’여서 그런 것도 고펡 안에 들여놓던데.)

107020 @1 예.(예.)

107020 #4 그 아이덜 뭐 허당 그 먹어 불카부덴 경.(그 아이들 뭐 하다가 그 먹어 버릴까봐서 그렇게.)

107020 @1 웃음.(웃음.)

107020 #4 경 허는 거 봐난.(그렇게 하는 거 봤었어.)

107020 @ 예, 게믄 그 생선국 허는 거는 그 저기 게영 할 때는 경 허잖아예. 일반 바당 뭐 고등엇국이나 뭐 각제깃국 이런 것도 풀립니까?(예, 그러면 그 옥돔국 하는 거는 그 저기 갱 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 바다 뭐 고등엇국이나 뭐 전갱잇국 이런 것도 풀립니까?)

107020 #4 그런 건 아녀곡.(그런 건 앓고.)

107020 @1 그런 건.(그런 건.)

107020 #4 각제긴 저 게영국으로 끌런게.(전갱인 저 갱으로 끓이던데.)

459)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웅기를 말한다.

460) ‘산산허다’는 여기저기 흩어지다는 의미다.

461) ‘베옥이다’는 닫히거나 덮인 것을 약간 틈나게 열다는 의미다.

107020 @1 아, 각제긴 허고예?(아, 전갱인 하고요?)

107020 #4 비닐 신 거니까.(비닐 있는 거니까.)

107020 @1 예, 예.(예, 예.)

107020 #4 고등엔 아녀곡.(고등엔 앓고.)

107021 @1 으, 그런 건 안 하고예? 예. 메역국은 언제 먹는 거우파?(으, 그런 건 안 하고요? 예. 미역국은 언제 먹는 겁니까?)

107021 #4 메역국은 그때 시절엔이 메역도 어려왔주기게.(미역국은 그때 시절엔 미역도 어려웠지.)

107021 @1 으.(으.)

107021 #4 지금이난 허고 이 뭐 허영 허주. 지금도 저 웃드리에선 그 메역국 춤.(지금이니까 하고 이 뭐 해서 하지. 지금도 저 '웃드리'에선 그 미역국 참.)

107021 @1 으.(으.)

107021 #4 생일 때나 무신 거세기 그런 떡쌀일 때에도 메역국은 저 영 곶안게. 이제 떡쌀일 때에 게영국 메역으로 안 끌리는 거엔, 경 허민.(생일 때나 무신 거시기 그런 '떡쌀일' 때에도 미역국은 저 이렇게 말하던데. 이제 '떡쌀일' 때에 갱 미역으로 안 끓이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107021 @1 으.(으.)

107021 #4 건 무사마썸? 경 허민. 곶아났어. 우리 들어났어.(건 왜요? 그렇게 하면. 말했었어. 우리 들었었어.)

107021 @1 예.(예.)

107021 #4 경 허영 허민 이 메역은 미끄러운 거니까 조상들이 잉감혜영 허지. 그것도 문제주기게.(그렇게 해서 하면 이 미역은 미끄러운 거니까 조상들이 응감해서 하지. 그것도 문제지.)

107021 @1 예, 예.(예, 예.)

107021 #4 경헌 뗏으로 메역국은 안 끌려근에 똑 무수나이.(그런 뗏으로 미역국은 안 끓여서 똑 무나.)

107021 @1 예.(예.)

107021 #4 경 낭 끓리곡.(그렇게 놔서 끓이고.)

107021 @1 아, 그.(아, 그.)

107021 #4 미끄러 부는 거난 메역국은. 경 허난 지금도 우리도 우리 씨어머니네 경 곶아나난 우리도 게영 끌릴 때 메역은 안 끌려.(미끄러져 버리는 거니까 미역국은.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우리도 우리 씨어머니네 그렇게 말했었으니까 우리도 갱 끓일 때 미역은 안 끓여.)

107021 @1 아. 우리 집엔 혜연게마는 웃음.(아, 우리 집엔 하더니만. 웃음.)

107021 #4 그런 그 그런 거세기 있어.(그런 그 그런 거시기 있어.)

107021 @1 예.(예.)

107021 #4 신 생이라.(있는 모양이야.)

107021 @1 아.(아.)

107021 #4 아니, 기냥 우리 먹는 건 현디 상에 올릴 때.(아니, 그냥 우리 먹는 건 하는데 상에 올릴 때.)

107021 @1 상에 올릴 때는예, 예, 예?(상에 올릴 때는요, 예, 예?)

107021 #4 딱로 경, 딱로 경 허연게.(따로 그렇게, 따로 그렇게 하던데.)

107021 @1 게른 여름 같은 경우는 냉국을 하여 먹었지양?(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냉국을 많이 먹었지요?)

107021 #4 으게. 냉국.(으, 냉국.)

107021 @1 무슨 냉국?(무슨 냉국?)

107021 #4 누들 삶은 것도게 헤영 썰어 낱게 웬장 농곡게 냉수 놓민 냉국 아니라게.(배추 삶은 것도 해서 썰어 놔서 된장 넣고 냉수 넣으면 냉국 아니야.)

107021 @1 으.(으.)

107021 #4 경 허영, 허영 먹고. 옛날 우리 웨할머니네가 하귀⁴⁶²디이.(그렇게 해서, 해서 먹고. 옛날 우리 외할머니네가 하귀네.)

107021 @1 예.(예.)

107021 #4 하귀. 옛날은 지금은 하귀고 옛날은 귀리⁴⁶³엔 곱아났어.(하귀. 옛날은 지금은 하귀고 옛날은 ‘귀리’라고 말했었어.)

107021 @1 예.(예.)

107021 #4 귀릿장⁴⁶⁴에 가자. 귀릿장에 가자 경 허여나신디 우리 웨할머니네 집긔 집인디. 집 앞이 장을 사나신디. 영 허영 보든 경 그 어려운 시절이난 바당에 몹도 막 헤영 올랑 허민 그거 허영 헤여당 그 장터에 막 물리왕이.(‘귀릿장’에 가자. ‘귀릿장’에 가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네 길가 집인데. 집 앞에 장을 썼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바다에 모자반도 막 해서 올라서 하면 그거 해서 해다가 그 장터에 막 말려서.)

107021 @1 으.(으.)

107021 #4 그거 허영 보리왔디 영 곱아.(그거 해서 보리밭에 이렇게 곱아.)

107021 @1 예.(예.)

107021 #4 곱양 곱 곱름으로 경 허는 것도 봐나고, 경 허연.(깎아서 곱 곱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봤었고, 그렇게 했었어.)

107015 @1 으, 집에서 그 콩누물예. 여기서 콩누물을 뭐렌 곱아났수가?(으, 집에서 그 콩나물요. 여기서 콩나물을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7015 #4 콩누, 지금 그때도 콩누물인엔도 허곡 저 콩주름.(콩나, 지금 그때도 콩나물이라고도 하고 저 콩기름.)

107015 @1 예.(예.)

462)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463) ‘귀리’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옛 이름이다.

464) ‘귀릿장’은 예전에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섰던 오일장 이름이다. ‘귀리’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옛 이름이다.

107015 #4 콩주름.(콩기름.)

107015 @1 으, 콩주름.(으, 콩기름.)

107015 #4 망데기에 허영 콩주름 허영 놔사 이제 아무 날 떡썰일 돌아오난 그 때 먹어사허킬 경 허여근엥에.(‘망데기’에 해서 콩기름 해서 놔야 이제 아무 날 ‘떡 썰일’ 돌아오니까 그때 먹어야할걸 그렇게 해서.)

107015 @1 으.(으.)

107015 #4 허곡, 또 그 중간에 우리 흐뎡 옥아가난에 그 시룬 그 알 터진 거 아니?(하고, 또 그 중간에 우리 조금 커가니까 그 시룬 그 아래 터진 거 아니?)

107015 @1 예.(예.)

107015 #4 그레 험벅 깎아근엥에 그레 허영 그 콩 영 허영 놔근엥에 거세기 허 영 허든 우로 영 물 주민 알로 영 세는디 옛날은 그런 거세기도 춤 혈 충사 몰라신 디 허든이.(그리로 형겅 깔아서 그리로 해서 그 콩 이렇게 해서 놔서 거시기 해서 하면 위로 이렇게 물 주면 아래로 이렇게 세는데 옛날은 그런 거시기도 참 할 줄이 야 몰랐는지 하면.)

107015 @1 예.(예.)

107015 #4 시리.(시루.)

107015 @1 예.(예.)

107015 #4 시리에 헤여근엥에 그 형겅 영 깎아근에엥에.(시루에 해서 그 형겅 이렇게 깔아서.)

107015 @1 으.(으.)

107015 #4 물 콩 낱, 콩 놔근엥에 허영 뽀족뽀족허여 가든 무신 그특게 영 헤여 근에 막대이 영 낱 그레 시리에.(물 콩 놔서, 콩 놔서 해서 뽀족뽀족해 가면 무슨 그릇에 이렇게 해서 막대 이렇게 놔서 그리로 시루에.)

107015 @1 으.(으.)

107015 #4 영 걸청이.(이렇게 걸쳐서.)

107015 @1 으.(으.)

107015 #4 경 허영 그자 물 거렁 영 영 주곡. 우리 지금은 찻장이엔 허지 아 녀.(그렇게 해서 그저 물 떠서 이렇게 이렇게 주고. 우리 지금은 찻장이라고 하지 않는가.)

107015 @1 으.(으.)

107015 #4 그릇 어프는 디 찻장이엔 허는디 살레.(그릇 얹는 데 찻장이라고 하는데 ‘살레’.)

107015 @1 예, 살레.(예, ‘살레’.)

107015 #4 살레. 그릇 어프는 거 살레. 경 허영 그 왜정시대에도 경 헤여난. 그 지금은 춤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지금 세상에는 다 질로지만씩 영 집안도 뭐 허영 칩고 뭐 허영 허는디 그뎡 왜정시대엔 쟁겅.(‘살레’. 그릇 얹는 거 ‘살레’. 그렇게 해서 그 왜정시대에도 그렇게 했었어. 그 지금은 참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지금 세상

에는 다 제만씩 이렇게 집안도 뭐 해서 치우고 뭐 해서 하는데 그땐 왜정시대엔 청결.)

107015 @1 예.(예.)

107015 #4 청결허렌 헤영은앵에 그 마을에 구장.(청결하라고 해서 그 마을에 구장.)

107015 @1 음.(음.)

107015 #4 지금은 동장인디이 구장이엔 허여근앵에 왕 문 조사허곡.(지금은 동장인데 구장이라고 해서 와서 몽땅 조사하고.)

107015 @1 으.(으.)

107015 #4 청결, 그 봄나민 청결허렌.(청결, 그 봄되면 청결하라고.)

107015 @1 예.(예.)

107015 #4 흔 번씩 집안에 청결허렌 경 허영 허문 그 지금은 찻장이라도 살레엔 헤영이 그것도 문 내여낭 시치곡.(한 번씩 집안에 청결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지금은 찻장이라도 ‘살레’라고 해서 그것도 몽땅 내어와서 씻고.)

107015 @1 으.(으.)

107015 #4 경 허연도 허여난.(그렇게 해서도 했었어.)

107015 @1 예.(예.)

107015 #4 허는 거 봐난. 우리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네.(하는 거 봤었어. 우리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네.)

107015 @1 예, 청결허렌예?(예, 청결하라고요?)

107015 #4 그런 것도 흔 번씩 마을에서 왜정시대에도 청결허렌 허영. 그것ㄴ라 청결허렌. 웃음.(그런 것도 한 번씩 마을에서 왜정시대에도 청결하라고 해서. 그것 보고 청결하라고. 웃음.)

107023 @1 음, 알아수다. 경 허고 이 여기 그 요즘 성게예?(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여기 그 요즘 성게요?)

107023 #4 성게.(성게.)

107023 @1 으, 거는 뭐렌 해? 이 동네서는.(으, 거는 뭐라고 해? 이 동네서는.)

107023 #4 지금은 성게엔 허는디 옛날은 구살.(지금은 성게라고 하는데 옛날은 ‘구살’.)

107023 @1 구살. 게문 구살로도 국 해반마씨?(‘구살’. 그러면 성게로도 국 해봤어요?)

107023 #4 구살로도게, 게, 메역국게.(성게도로. 그래, 미역국.)

107023 @1 건 어떤 식으로 끌리든 맛 줍니까?(건 어떤 식으로 끓이면 맛 줍니까?)

107023 #4 그거, 구살은 메역 놔야.(그거, 성게는 미역 넣어야.)

107023 @1 으.(으.)

107023 #4 메역이 테와.(미역이 타고나.)

107023 @1 아, 메역이 테운 거.(아, 미역이 타고난 거.)

107023 #4 구살은, 구살은 메역이 테와.(성게는, 성게는 미역이 타고나.)

107023 @1 게문 어떻 끌리는 순서를 곁아 붙서. 어떻 허여야 맛 좋은지?(그러면 어떻게 끓이는 순서를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맛 좋은지?)

107023 #4 게 물 켜민게 구살 농곡게 메역 농곡게, 경. 물 켜여근에이.(글쎄, 물 끓으면 성게 넣고 미역 넣고, 그렇게. 물 끓어서.)

107023 @1 물 켜 다음에?(물 끓은 다음에?)

107023 #4 으, 구살도 놔사 그 구살이 헤싸지지 아녕이.(으, 성게도 놔야 그 성게가 헤어지지 않아서.)

107023 @1 예.(예.)

107023 #4 토락토락허영 허곡. 경 허민 메역도 농곡 경 허영. 구살은 메역이 테왕, 메역.(토락토락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미역도 넣고 그렇게 해서. 성게는 미역이 타고나서, 미역.)

107023 @1 물 켜왕 허는 거구나예? 으으, 그다음에 보말은?(물 끓여서 하는 거군요? 으으, 그다음에 고등은?)

107023 #4 으.(으.)

107023 @1 보말국은?(‘보말국’은?)

107023 #4 보말도 마찬가지로. 보말도이 보말국은 끌리젠 허문 그 메역에, 메역에 보말은 그 영 허영 내민 그 딱지⁴⁶⁵ 문 떼여뒀이.(고등도 마찬가지로. 고등도 ‘보말국’은 끓이려고 하면 그 미역에, 미역에 고등은 그 이렇게 해서 내면 그 ‘딱지’ 몽땅 떼어두고.)

107023 @1 예.(예.)

107023 #4 일일이 공들주게. 그 이만씩 현 거.(일일이 공들지. 그 이만큼씩 한 거.)

107023 @1 으.(으.)

107023 #4 딱지⁴⁶⁶ 떼여뒀근에 그건 춤 막 무락무락 무르췌민 똥이 헤싸질 거 아니게.(‘딱지’ 떼어두고 그건 참 막 ‘무락무락’ 무르췌면 똥이 헤벌어질 거 아니.)

107023 @1 예.(예.)

107023 #4 경 헤영 헤여사 국이 맛 좋고.(그렇게 해서 해야 국이 맛 좋고.)

107023 @1 으.(으.)

107023 #4 경 헤연.(그렇게 해서.)

107023 @1 보말도 메역 낱?(고등도 미역 넣어서?)

107023 #4 메역 낱. 메역이 테왕.(미역 넣어서. 미역이 타고나서.)

107023 @1 아, 게문 그 넓페엔 현 것도 잇수가? 이 바당에.(아, 그러면 그 넓페라고 한 것도 있습니까? 이 바다에.)

465) ‘딱지’는 고등의 살에 붙어 있는 두껍 역할을 하는, 비닐 비슷한 물건을 말한다.

466) ‘딱지’는 고등의 살에 붙어 있는 두껍 역할을 하는, 비닐 비슷한 물건을 말한다.

107023 #4 넘페.(넙페.)

107023 @1 예, 넘페?(예, 넙페?)

107023 #4 넘페. 메역 다음에 넘페. 건 흥꿈 뚜껍곡 까실까실허주گی게.(넙페. 미역 다음에 넙페. 건 조금 두껍고 까끌까끌하지.)

107023 @1 으.(으.)

107023 #4 그런 것도 경 허영 툃아다근에 헤영 먹곡. 경헌디 이젠 그런 건 허질 안허여.(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따서 해서 먹고. 그런데 이젠 그런 건 하질 않아.)

107023 @1 이젠 안 헤예?(이젠 안 해?)

107023 #4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23 @1 게난 옛날 넘페국도 허고.(그러니까 옛날 넙페국도 하고.)

107023 #4 으, 넘페국은 이녁 먹젠 먹썰일 땐 아녀고.(으, 넙페국은 이녁 먹으려고 먹썰일 땐 앓고.)

107023 @1 먹썰일 땐 안 허고예?(먹썰일 땐 안 하고요?)

107023 #4 이녁 먹젠. 넘페 강 메영, 넘페 메레 가게. 넘페 강 메여당 국 끌렁 먹게. 경 허여근에 이녁 먹쟁덜.(이녁 먹으려고. 넙페 가서 매어서, 넙페 매러 가자. 넙페 가서 매다가 국 끓여서 먹자. 그렇게 해서 이녁 먹으려고들.)

107023 @1 으.(으.)

107023 #4 먹젠 가곡. 메역세엔 현 거 셔. 메역 님은 거이.(먹으려고 가고. 미역 쇠라고 한 거 있어. 미역 같은 거.)

107023 @1 예.(예.)

107023 #4 요만씩 현 거 허영 허른 그건 허여당 기냥도 먹곡. 메역센 또 먹썰일 때도 놈도 뉼곡 메역 ㄴ짜 현 거난. 알룬 거니까.(요만큼씩 한 거 해서 하면 그건 해다가 그냥도 먹고. 미역쇠는 또 먹썰일 때도 놈도 되고 미역처럼 한 거니까. 앓은 거니까.)

107023 @1 음.(음.)

107023 #4 경도 허곡 허영.(그렇게도 하고 해서.)

107023 @1 메역세로 현 건 메역세국?(미역쇠로 한 건 미역쇠국?)

107023 #4 으, 메역 잇고 메역세.(으, 미역 잇고 미역쇠.)

107023 @1 예.(예.)

107023 #4 메역센 쥌쥌한 거 기냥 그 담에, 저 여예영 부뎡 성 허른 그거 저 우리 메역세 툃으렌 어, 저 뎡기건 이젠 바다에 딱 어촌계서 금허니까.(미역쥌 자잘한 거 그냥 그 담에, 저 여예랑 붙어서 있어서 하면 그거 저 우리 미역쇠 따러는 어, 저 다니건 이젠 바다에 딱 어촌계서 금하니까.)

107023 @1 으.(으.)

107023 #4 소라 ㄴ뎡 거 가근앵에 허여 와 불카 부뎡 못 뎡기게 허주게.(소라 같은 거 가서 해 와 버릴까 봐서 못 다니게 하지.)

107023 @1 음.(음.)

107023 #4 해녀덜벧기.(해녀들밖에.)

107023 @1 음.(음.)

107023 #4 그런 그 조합으로 허영 다 해녀덜이 돈 내곡.(그런 그 조합으로 해서 다 해녀들이 돈 내고.)

107023 @1 으.(으.)

107023 #4 그 준준헌 조쟁기 새끼 요멘이헌 거 어디서사 그걸 씨전사 허영 허는디 어촌계에서 허영 오민 그거도, 그거 헤영 사근에 해녀덜이 바당에 막 뿌려근에.(그 자잘한 전복 새끼 요만큼한 거 어디에서야 그걸 씨져서야 해서 하는지 어촌계에서 해서 오면 그거도, 그거 해서 사서 해녀들이 바다에 막 뿌려서.)

107023 @1 으.(으.)

107023 #4 허주게. 경 허른 그것도 바당에 뿌려도 어뎡어뎡 허영 그 여 좇앙 살아나젠 여에 오랑 부뜨는 생이라.(하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바다에 뿌려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여 찾아서 살아나려고 여에 와서 붙는 모양이야.)

107023 @1 예.(예.)

107023 #4 경 허영 허곡 허른 바당에 저 못 뎡겨.(그렇게 해서 하고 하면 바다에 저 못 다녀.)

107023 @ 1 으.(으.)

107023 #4 지금, 지금도 못 뎡겨.(지금, 지금도 못 다녀.)

107023 @1 아까, 그거 경 뿌리는 게 무신거마씨?(아까, 그거 그렇게 뿌리는 게 무엇이라고요?)

107023 #4 조쟁기게.(‘조쟁기’.)

107023 @1 조쟁기가 뭐우짜?(‘조쟁기’가 뭘니까?)

107023 #4 그 전복 새끼 요멘씩 헌 것이라 조쟁기엔 허주게.(그 전복 새끼 요만큼씩 한 것보고 ‘조쟁기’라고 하지.)

107023 @1 아, 전복 새끼를 조쟁기렌 헤예?(아, 전복 새끼를 ‘조쟁기’라고 한다고요?)

107023 #4 조쟁기.(‘조쟁기’.)

107023 @1 예.(예.)

107023 #4 그거 허여근에 뿌린덴 허연게. 우린 그 허여보진 안헤신디, 해녀덜이.(그거 해서 뿌린다고 하던데. 우린 그 해보진 았았는데, 해녀들이.)

107023 @1 으.(으.)

107023 #4 그걸, 그걸 어뎡사 씨전중⁴⁶⁷사 허염신디 경 허여근에 허기 덕분에 우린 이런 사름 여에나 가근에 허른 그 소라나 그런 거라도 영 부떠 시민 떼여와 불카부덴 못 뎡기게.(그걸, 그걸 어떻게야 ‘씨전중’이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허기 덕분에 우린 이런 사름 여에나 가서 하면 그 소라나 그런 거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떼어와 버릴까 봐서 못 다니게.)

467) ‘씨전중’은 대를 이를 씨를 계속 잇게 하는 일을 말한다.

107023 @1 음.(음.)
 107023 #4 이 굿되서 조개 파는 건.(이 가에서 조개 파는 건.)
 107023 @1 허고.(하고.)
 107023 #4 기냥 내 부는디.(그냥 내 버리는데.)
 107023 @1 으.(으.)
 107023 #4 경 허여. 조개 파곡 갱이 잡는 건 내 부는디. 경 허영. 여에 덩기는 건 못허게.(그렇게 해. 조개 파고 게 잡는 건 내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여에 다니는 건 못허게.)
 107023 @1 여에는.(여에는.)
 107023 #1 지금도.(지금도.)
 107023 @1 아, 지금도예?(아, 지금도요?)
 107023 #4 해녀들이 다 돈 내영 허는 거난.(해녀들이 다 돈 내어서 하는 거니까.)
 107023 @1 음, 가시리도국 험니까?(음, 풀가사리도국 험니까?)
 107023 #4 가시리국 안 허여.(풀가사리국 안 해.)
 107023 @1 아, 가시리는 안 허고.(아, 풀가사리는 안 하고.)
 107023 #4 옛날, 옛날은 가시리 헤여근앵에 그것도 발래영 풀 허여근앵에 뭐 그 븃른바구리⁴⁶⁸도 블르곡이.(옛날, 옛날은 풀가사리 해서 그것도 바래서 풀 해서 뭐 그 ‘븃른바구리’도 바르고.)
 107023 @1 으.(으.)
 107023 #4 그치룩은 허어나신디.(그처럼은 했었는데.)
 107023 @1 으.(으.)
 107023 #4 가시린, 녀페국은 헤여도, 녀페, 메역세.(풀가사린, 녀페국은 헤여도, 녀페, 미역쇠.)
 107023 @1 으.(으.)
 107023 #4 그런 건 해도 가시린, 가시리 거 풀 허는 거.(그런 건 해도 풀가사린, 풀가사리 거 풀 하는 거.)
 107023 @1 가시리는 풀 허는 거예, 예?(풀가사리는 풀 하는 거요, 예?)
 107023 #4 그 발래근에 풀 썬근에 거 오죽 어려와사 경 허여게. 지금은.(그 바래서 풀 썬서 거 오죽 어려워야 그렇게 해. 지금은.)
 107023 @1 예.(예.)
 107023 #4 밀ㄴ리라도 썬 허주마는.(밀가루라도 썬서 하지만.)
 107023 @1 예.(예.)
 107023 #4 경 허난 그거 허영 븃른바구리로 무시거 기지에덜 허영 봉강 블랑. 그것ㄴ라 븃른바구리, 븃른바구리. 바구리에 우리 그 승키바구리⁴⁶⁹ 블르민 그거

468) ‘븃른바구리’는 바구니에 종이나 천 따위를 붙여서 만든 물건이다. 가루 등을 담을 때 사용한다.

469) ‘승키바구리’는 ‘승키’ 즉 푸성귀를 캐거나 씻을 때 사용하는 바구니다.

벗른바구리렌 허여근에. 웃음.(그렇게 하니까 그거 해서 '벗른바구리'로 무엇 천에들 해서 주워서 발라서. 그것보고 '벗른바구리', '벗른바구리'. 바구니에 우리 그 '송키 바구리' 바르면 그거 '벗른바구리'라고 해서. 웃음.)

107023 @1 예.(예.)

107023 #4 허주게.(하지.)

107023 @1 예, 벗른바구리예. 그다음 프레는마씨?(예, '벗른바구리'요. 그다음 파래는요?)

107023 #4 프렌, 프레도 거 바당에 나는, 나는 건디 프렌 그 프리롱허니까 프레 엔 허는 거.(파랜, 파래도 거 바다에 나는, 나는 건덴 파랜 그 파르스름하니까 파래 라고 하는 거.)

107023 @1 예.(예.)

107023 #4 프레도 허영 국도 끌령 떡곡, 경.(파래도 해서 국도 끓여서 먹고, 그렇게.)

107023 @1 아, 프레도예?(아, 파래도요?)

107023 #4 프레도 춤프레 싯곡.(파래도 '춤프레' 있고.)

107023 @1 예.(예.)

107023 #4 밧디 허는 프레 싯곡, 딱나.(밭에 하는 파래 있고, 달라.)

107023 @1 음, 밧디 허는 프레는 무신 프레 허여?(음, 밧에 하는 파래는 무슨 파래 해?)

107023 #4 막 훑언게, 그건.(아주 굵어서, 그건.)

107023 @1 건 훑은 거. 아, 그걸로도 밧디 허여예?(건 굵은 거. 아, 그걸로도 밧에 한다고요?)

107023 #4 밧디 강 뿌려근에. 경 허민 뭐 현 사름들은 잘 아년덴 현게. 저 무신 거 스앵이검질 난테 허영 옛날은.(밭에 가서 뿌려서. 그렇게 하면 뭐 한 사름들은 잘 앓는다고 하던데. 저 무엇 영경퀴 난다고 해서 옛날은.)

107023 @1 아.(아.)

107023 #4 그걸 허민 경 현덴 곶아나신디 이젠게 그런 거 저런 거 아녕 그자 농스도 아너곡 허는 사름은 비료나 헤영 허곡.(그걸 하면 그렇게 하다고 말했었는데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앓고 그저 농사도 앓고 하는 사름은 비료나 해서 하고.)

107023 @1 예.(예.)

107023 #4 이제사 삶이 대통령 삶이주기.(이제야 삶이 대통령 삶이지.)

107023 @1 맞수다. 웃음. 물웨 ㄱ튼 거는 어떤 걸 헤여 먹어신고예?(맞습니다. 웃음. 물외 같은 거는 어떤 걸 해 먹었는가요?)

107023 #4 물웨도게 삼월 나민 월 그 갈아근앵에 헤영 우리 하귀 웨가에도 웨 놉근앵에 춤 이제 뭐 허영 밧디 웯막 짓어근앵에 직허멍 허는 거 우리 아인 때에 봐나신디. 물웨, 물웨도게 지금 이디 그 오이게.(물외도 삼월 되면 월 그 갈아서 해서 우리 하귀 외가에도 외 놉서 참 이제 뭐 해서 밧에 웯막 지어서 지키면서 하는

거 우리 아인 때에 봤었는데. 물외, 물외도 지금 여기 그 오이.)

107023 @1 예.(예.)

107023 #4 그거라도 훑은 거이, 그런 물웨 이젠 웃어.(그거라도 굵은 거, 그런 물외 이젠 없어.)

107023 @ 으.(으.)

107023 #4 물웨엔 흰 거 허영 이만씩힌 거 허영 그 익은 건 씨 허영근에게 그 거울⁴⁷⁰차 헤영 그걸 썩여근영에 헤여사.(물외라고 한 거 해서 이만큼씩 한 거 해서 그 익은 건 씨 해서 그 ‘거울’째 해서 그걸 썩혀서 해야.)

107023 @1 으.(으.)

107023 #4 씨가 웬덴 허영 경 헤여난.(씨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어.)

107023 @1 예.(예.)

107023 #4 경 허영 춤 물웨 그 잘 익은 건 흐뎡 새금트랑도 허주게.(그렇게 해서 참 물외 그 잘 익은 건 조금 시금하기도 하지.)

107023 @1 예.(예.)

107023 #4 경 허영 허민 씨 허젠 역불 경 익여.(그렇게 해서 하면 씨 하려고 부러 그렇게 익혀.)

107023 @1 음.(음.)

107023 #4 익형. 그거 씨도 파민 거울차 ㄱ치.(익혀서. 그거 씨도 파면 속째 같이.)

107023 @1 예.(예.)

107023 #4 ㄱ치 헤여근에 어떻 썩영사 허영 허여신디 허곡. 호박도 옛날은 호박 헤영 싱그젠 허민 호박 그 거울차 영 허영 옛날은 이 부엌 ㄱ뜬 디 어디 축담 ㄱ뜬 디 대개 그 거울차 영 짝 부드대겨근영에 그거 허영 물류왕 허곡 헌디 지금은 기냥 물류와도 돼주기마는 옛날은 경 허던게, 무사산디.(같이 해서 어떻게 썩혀서야 해서 했는지 하고. 호박도 옛날은 호박 해서 심으려고 하면 호박 그 속째 이렇게 해서 옛날은 이 부엌 같은 데 어디 바람벽 같은 데 대개 그 속째 이렇게 짝 붙여서 그거 해서 말려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말려도 되지만 옛날은 그렇게 하던데, 왜인지.)

죽류

107024 @1 맞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까 삼촌, 죽 콩죽도 해 먹었던 헤 신디 집에서 해 먹어난 죽 종류는 어떤 것들 잇어마씨?(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까 삼촌, 죽 콩죽도 해 먹었다고 했는데 집에서 해 먹었던 죽 종류는 어떤 것들 잇어요?)

107024 #4 죽 종류, 죽 종륜 콩죽계 경 썩. 집의서 배수기라고이.(죽 종류, 죽 종륜 콩죽 그렇게 썩서. 집에서 죽젓개라고.)

470) ‘거울’은 오이의 씨가 있는 속 부분을 말한다. 달리 ‘어울’이라고도 한다.

107024 @1 으.(으.)

107024 #4 저치룩 헌 거 긴 거 허여근에 영 영 것으멍 기냥 헤영 콩죽 줍쌀에, 모힌줍쌀에.(저처럼 한 거 긴 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그냥 해서 콩죽 줍쌀에, 메줍쌀에.)

107024 @1 예.(예.)

107024 #4 흐린줍쌀은 안 돼고.(차줍쌀은 안 되고.)

107024 @1 음.(음.)

107024 #4 모힌줍쌀에 그 콩ㄱ르레 서경. 콩ㄱ를만 허영 허여도 모트레기⁴⁷¹⁾ 지나까 줍쌀에 영 허영 서경 허민.(메줍쌀에 그 콩가루에 섞어서. 콩가루만 해서 해도 ‘모트레기’ 지나까 줍쌀에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하면.)

107024 @1 으.(으.)

107024 #4 영 그룩에 허영 영 비와 가멍 그 베수기로 영 영 것으민 모트레기가 안 지거든.(이렇게 그릇에 해서 이렇게 부어 가면서 그 죽것개로 이렇게 이렇게 저 으면 ‘모트레기’가 안 지거든.)

107024 @1 예.(예.)

107024 #4 콩ㄱ를 따르 비우민 모트레기 저.(콩가루 따로 부우면 ‘모트레기’ 저.)

107024 @1 음.(으.)

107024 #4 경 허곡. 콩국 끌릴 때도 그 뭐허는 사름덜은 이제 그 흐끔 옛날 아니라근에 그 흐끔 젊은 사름덜은 아메도 그런 걸 몰랑 경 헌 생이라.(그렇게 하고. 콩국 끓일 때도 그 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조금 옛날 아니라서 그 조금 젊은 사름덜은 아마도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한 모양이야.)

107024 @1 으.(으.)

107024 #4 기냥 그 콩죽, 콩국 끌릴 때도 영 ㄱ를로 영 영 영 허영 헌덴 허는 사름도 서서.(그냥 그 콩죽, 콩국 끓일 때도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사름도 있었어.)

107024 @1 예.(예.)

107024 #4 겐디 콩국, 콩국도 끌리젠 허민 모트레기 지지 아너게 그룩에 카근에, 카근앵에에 그자 영 것으멍. 누물 먼여 놔야.(그런데 콩국, 콩국도 끓이려고 하면 ‘모트레기’ 지지 않게 그릇에 타서, 타서 그저 이렇게 저으면서. 나물 먼저 놔야.)

107024 @1 예.(예.)

107024 #4 경 허여사 그 모트레기가 안 정 누물에 경 허영 돼여. 경 아너든 놀어 불곡.(그렇게 해야 그 ‘모트레기’가 안 저서 나물에 그렇게 해서 되어. 그렇게 앉 으면 놀어 버리고.)

107024 @1 으.(으.)

471) ‘모트레기’는 가루 따위가 엉켜서 뭉쳐 있는 작은 덩이를 말한다.

107024 #4 문여 콩꺾를 비우민 경 허곡. 그런 것도 싯곡. 우린 경 헤여난. 콩꺾를 기냥 영 그룩에 카근에, 카근앵에 이 솟디레 영 농멍 것으멍 영허영 허민 두께 더껍 잘못허당 왈락 부꺼⁴⁷²⁾ 불민 아무 것도 엇어.(먼저 콩가루 부우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린 그렇게 했었어. 콩가루 그냥 이렇게 그릇에 타서, 타서 이 솔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저으며 이렇게 해서 하면 뚜껍 덮어서 잘못하다가 ‘왈락’ ‘부꺼’ 버리면 아무 것도 없어.)

107024 @1 아아.(아아.)

107024 #4 다 부꺼 불민 경 허영 허른 흐뎡 영 짐 나듯 헤여 가든 올라.(다 ‘부꺼’ 버리면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이렇게 짐 나듯 해 가면 열어.)

107024 @1 예.(예.)

107024 #4 올라근앵에 영 보민 뽀그레기⁴⁷³⁾ 들무레기⁴⁷⁴⁾ 그 둠비 거세기허듯게 올라와게. 경 허영 허른 느뎡 헤여근앵에 영 가운데레 영 놉근에 그 뭐 국자로나 무시거 영 허영 허민 창에 놓지 아녀게꾸리.(열어서 이렇게 보면 ‘뽀그레기’ ‘들무레기’ 그 두부 거시기하듯 올라와. 그렇게 해서 하면 나물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놉서 그 뭐 국자로나 무엇 이렇게 해서 하면 바닥에 놓지 않게끔.)

107024 @1 으, 으.(으, 으.)

107024 #4 느뎡을 창더레 가게.(나물을 바닥으로 가게.)

107024 @1 예.(예.)

107024 #4 경 허영 들무레기 허른 콩국이 드박드박⁴⁷⁵⁾ 경 허영.(그렇게 해서 ‘들무레기’ 하면 콩국이 ‘드박드박’ 그렇게 해서.)

107024 @1 으.(으.)

107024 #4 허곡 경.(하고 그렇게.)

107024 @1 삼촌, 들무레기 허는 말은 무신 말이우짜?(삼촌, ‘들무레기’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7024 #4 들무레기 허는 말은 보각이 지금.(‘들무레기’ 하는 말은 보각이 지금.)

107024 @1 으.(으.)

107024 #4 보각허게 올라온덴 말이주기. 지금 표준말론.(보각허게 올라온다는 말이. 지금 표준말론.)

107024 @1 예.(예.)

107024 #4 보각허게 올라온덴 영. 옛날은 경 들무락허게⁴⁷⁶⁾ 올라와짜, 경.(보각허게 올라온다는 이렇게. 옛날은 그렇게 ‘들무락허게’ 올라온다, 그렇게.)

472) ‘부끄다’는 끓어 넘치다는 의미다.

473) ‘뽀그레기’는 콩국을 끓일 때 콩가루가 보각허게 위로 올라온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474) ‘들무레기’는 콩국을 끓일 때 보각허게 위로 올라온 콩가루가 달처럼 둥근 모양을 한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475) ‘드박드박’은 콩국을 끓일 때 넣은 가루들이 두부처럼 엉켜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476) ‘들무락허다’는 콩국을 끓일 때 넣은 가루가 위로 보각허게 올라와 당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107025 @1 아, 들무라하게 올라와져, 예. 곤죽은 언제 허여 먹었수가?(아, ‘들무라하게’ 올라온다, 예. 흰죽은 언제 해서 먹었습니까?)

107025 #4 곤죽은 그 찰 어려운 때난 흰찰 어려운 때난이 몸이라도 아파근에 뭐 음식 못 먹을 때 헤영 주곡.(흰죽은 그 찰 쌀 어려운 때니까 흰찰 어려운 때니까 몸이라도 아파서 뭐 음식 못 먹을 때 해서 주고.)

107025 @1 으.(으.)

107025 #4 경 헤연게.(그렇게 하던데.)

107025 @1 건 아무 때나 헤 먹는 건 아니라예?(건 아무 때나 헤 먹는 건 아니지요?)

107025 #4 지금은 찰 뭐 허염주기마는 그 시절엔 이녁이 논 신 사름은이 찰 이 나룩 메 낱 것도이.(지금은 찰 뭐 하고 있지만 그 시절엔 이녁이 논 있는 사름은 찰이 벗모 놔서 것도.)

107025 @1 으.(으.)

107025 #4 메 놔근엔헤 헤영 싱그곡 경 방벌영477) 싱그곡 경 헛당 먹썰일 허는 사름덜 경 찰 먹썰일 때나 쌀밥 먹주기.(모 놔서 해서 심고 그렇게 ‘방벌여서’ 심고 그렇게 했다가 먹썰일 하는 사름들 그렇게 찰 먹썰일 때나 쌀밥 먹지.)

107025 @1 예.(예.)

107025 #4 옛날은 찰 경 헤난. 아이고, 경 허믄 권당침의 제스 돌아와젠 허믄 그 흰찰밥 흔 적 얻어먹젠 강덜 앗앙.(옛날은 찰 그렇게 했었어. 아이고, 그렇게 하면 권당집에 제사 돌아온다고 하면 그 흰찰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가서들 앗아서.)

107025 @1 으.(으.)

107025 #4 아이덜이영. 남저덜은 그 제보젠 허니까 가주마는 아이덜토 경 허영 가나곡 경 허연, 예.(아이들이랑. 남자들은 그 제지내려고 하니까 가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해거 갔었고 그렇게 했어, 예.)

107026 @1 예, 좁쌀로도 죽 합니까?(예, 좁쌀로도 죽 합니까?)

107026 #4 모힌좁쌀 콩에 서경게.(메좁쌀 콩에 섞어서.)

107026 @1 으.(으.)

107026 #4 콩, 콩ㄴ르에 서경, 콩, 콩ㄴ를만 서경은 죽이 안 돼주게.(콩, 콩가루에 섞어서, 콩, 콩가루만 섞어서는 죽이 안 되지.)

107026 @1 예.(예.)

107026 #4 경 허믄 모힌좁쌀 콩ㄴ르에 서꺼근에 허민 경 맛 좋아.(그렇게 하면 메좁쌀 콩가루에 섞어서 하면 그렇게 맛 좋아.)

107026 @1 으.(으.)

107026 #4 맛 좋곡 경.(맛 좋고 그렇게.)

107026 @1 게영 경 좁쌀로 쏜 죽은 무슨 죽 헤마씨?(그래서 그렇게 좁쌀로 쏜 죽은 무슨 죽 헤요?)

477) ‘방벌이다’는 모종의 간격을 일정하게 띄우다는 의미다.

107026 #4 콩죽에 경 허영 허난 콩죽이엔 허곡계. 기냥 모힌좁쌀만 낱도 죽 쑤 주기계. 그것ㄴ라도 기자 근는 거라렌 모힌좁쌀 낱 죽 쑤라 경.(콩죽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콩죽이라고 하고. 그냥 메좁쌀만 놔서도 죽 쑤지. 그것보고도 그저 말하는 거라고 메좁쌀 놔서 죽 쑤라 그렇게.)

107026 @1 응, 게든 건 조죽?(으, 그러면 건 조죽?)

107026 #4 아이, 모인, 모인좁쌀 낱 죽 쑤라, 경 곶으곡.(아니, 메, 메좁쌀 놔서 죽 쑤라, 그렇게 말하고.)

107026 @1 뭐 무슨 죽 이름은 안 곶으곡예?(뭐 무슨 죽 이름은 안 말하고요?)

107026 #4 안 곶으곡.(안 말하고.)

107029 @1 예, 그다음에 믰물로도, 믰물쌀로도 죽 쑤마씨?(예, 그다음에 메밀로도, 메밀쌀로도 죽 쑤요?)

107029 #4 믰멸은 죽은 안 쑤고 믰물 곶아당 수제비이.(메밀은 죽은 안 쑤고 메밀 곶아다가 수제비.)

107029 @1 으.(으.)

107029 #4 지금 ㄴ뜨민 그뎨 곶안 그뎨 즈베기. 믰멸, 믰멸이나 혼 뉘 그레 그 멧돌.(지금 같으면 그뎨 곶아서 그뎨 수제비. 메밀, 메밀이나 한 뉘 그리로 그 멧돌.)

107029 @1 으.(으.)

107029 #4 그 ㄴ레 앓정은앵에 믰물쌀이나 그레 곶라, 즈베기나 행 먹게. 경 허영.(그 멧돌 안쳐서 메밀쌀이나 그리고 곶아라, 수제비나 해서 먹자. 그렇게 해서.)

107029 @1 으, 경 허영예, 죽은 안 쑤 먹고예? 으.(으, 그렇게 해서요, 죽은 안 쑤 먹고요? 으.)

107029 #4 기냥 그걸로 죽은 믰멸죽은 아니 허곡 수제비이 그 콩죽 ㄴ쁜 디이. 기냥도 수제비도이.(그냥 그걸로 죽은 메밀죽은 아니 하고 수제비 그 콩죽 같은 데. 그냥도 수제비도.)

107029 @1 으.(으.)

107029 #4 믰물쌀 곶양 경 허연.(메밀쌀 곶아서 그렇게 했어.)

107030 @ 녹디죽도 쑤마씨?(녹두죽도 쑤요?)

107030 #4 으, 녹디죽. 녹디죽도 맛 좋지.(으, 녹두죽. 녹두죽도 맛 좋지.)

107030 @1 아, 맛 좋아.(아, 맛 좋아.)

107030 #4 녹디도게 쌀 놔근에 경 녹디.(녹두도 쌀 넣어서 그렇게 녹두.)

107030 @1 녹디죽 쑤는 방법 곶아줘 봅서.(녹두죽 쑤는 방법 말해줘 보세요.)

107030 #4 녹디도게 ㄸ다근앵이 ㄸ당 그 조리로나 무신거. 지금은 조리가 ㅅㅅ기 아녀. 그런 걸로 허영 걸러근앵에 옛날은 그런 거 웃이난이.(녹두도 삶다가 삶다가 그 조리로나 무엇. 지금은 조리가 ㅅㅅ지 앓아. 그런 걸로 해서 걸러서 옛날은 그런 거 없으니까.)

107030 @1 으.(으.)

107030 #4 채롱착으로 경 헤영 그것에 허영 걸렁 허민 녹디 주시가 나게.(채롱 착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에 해서 걸러서 하면 녹두 찌꺼기가 나.)

107030 @1 예.(예.)

107030 #4 경 허영 허민 경 허영 쓸 낱 죽 쭉곡. 것도 벨미로 옛날은.(그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해서 쌀 놔서 죽 쭉고. 것도 벨미로 옛날은.)

107030 @1 예, 맞수다, 으.(예, 맞습니다, 으.)

107030 #4 벨미로덜, 벨미로.(벨미로들, 벨미로.)

107030 @1 요즘은 녹디죽은 안 썰 먹잖아예, 잘예?(요즘은 녹두죽은 안 썰서 먹잖아요, 잘요?)

107030 #4 잘, 간세로게 실평, 쭉민 맛 좋앙 허주마는.(잘, 게으름으로 게을러서, 쭉면 맛 좋아서 하지만.)

107030 @1 으.(으.)

107030 #4 어디 허염젠 허민 사 먹으렌 가카 몰라 집이선 아녀. 웃음.(어디 하고 있다고 하면 사 먹으려는 갈까 몰라 집에선 앓아. 웃음.)

107031 @1 맞수다. 맞수다. 그다음에 득죽은 언제 쭉 먹었수가?(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닭죽은 언제 쭉 먹었습니까?)

107031 #4 득죽은 유월 쓰무날 거 약재로.(닭죽은 유월 스무날 거 약재로.)

107031 @1 음.(음.)

107031 #4 우리 할머니네 헤영 정월 나민 그 득 계란 나는 거 메와근엥엥 헤영 허민 그 득이 안아근에이 그 춤 아기 품듯이 안아근에에 허영 그 날짜 허영 가까워 가른 막 득이 몸질을 쳐근에 막 계란을 둥그렇게.(우리 할머니네 해서 정월 되면 그 닭 계란 나는 거 모아서 해서 하면 그 닭이 안아서 그 참 아기 품듯이 안아서 해서 그 날짜 해서 가까워 가면 막 닭이 몸부림을 쳐서 막 계란을 굴려.)

107031 @1 음.(음.)

107031 #4 경 허영 허민 그 노린알 흰알 영 서꺼지게 경 허는 생이라.(그렇게 해서 하면 그 노른자 흰자 이렇게 섞어지게 그렇게 하는 모양이야.)

107031 @1 으.(으.)

107031 #4 경 허영 허민 어떤 거세기로산디 경 허영 허민 그 지금도 계란은 흔 펜인 흥끔 두껍고 이 ***인 흥끔 뽀족한 디 싯지이.(그렇게 해서 하면 어떤 거시기 로인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지금도 계란은 한편은 조금 두껍고 이 ***인 조금 뽀족한 데 있지.)

107031 @1 예.(예.)

107031 #4 글로 문여 터지완게.(그리로 먼저 깨던데.)

107031 @1 아, 뽀족한 디로예? 으.(아, 뽀족한 데로요? 으.)

107031 #4 으, 그 영. 그 다 허여근에에 그 안에서 계란 그 빙아리가 다 뒤편갈 * 보든, 영 보든 콧콧 좇으면 경 허영, 허영 나오곡.(으, 그 이렇게. 그 다 해서 그 안에서 계란 그 빙아리가 다 되어갈 * 보면, 이렇게 보면 콧콧 쫓으면 그렇게 해서,

해서 나오고.)

107031 @1 으.(으.)

107031 #4 경 허연게.(그렇게 하던데.)

107031 @1 쟁, 유월 쓰무날 이제.(그래서, 유월 스무날 이제.)

107031 #4 유월 쓰무날 그 약재로.(유월 스무날 그 약재로.)

107031 @1 예.(예.)

107031 #4 그 아마 지금은 먹고픈 대로 아무 때나 허주마는 어려운 때난게.(그 아마 지금은 먹고픈 대로 아무 때나 하지만 어려운 때니까.)

107031 @1 예.(예.)

107031 #4 그거 유월 쓰무날, 유월 쓰무날 뉘민 아이고, 어느제랑 유월 쓰무날 돌아오랑 득죽 썩 먹코 정도 허곡.(그거 유월 스무날, 유월 스무날 되면 아이고, 언제랑 유월 스무날 돌아와서 닭죽 썩서 먹을까 그렇게도 하고.)

107031 @1 음.(음.)

107031 #4 정도 어려운 때난. 지금은 이녁 즈유로 아무 때나 이녁 기루민 행 먹 옛주마는 얼마나 옛날 어른덜 춤 뒤희게 살안.(그렇게도 어려운 때니까. 지금은 이녁 자유로 아무 때나 이녁 그리우면 해서 먹었지만 얼마나 옛날 어른들 참 뒤희게 살았어.)

107032 @1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옛날에 국죽이렌 현 것도 잇수가?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옛날에 갱죽이라고 한 것도 있습니까?)

107032 #4 국죽은.(갱죽은.)

107032 @1 으.(으.)

107032 #4 그 밥이라도 먹당게 식은밥 남으민이.(그 밥이라도 먹다가 찬밥 남으면.)

107032 @1 으.(으.)

107032 #4 그런 거 놔근에 국죽게.(그런 거 놔서 갱죽.)

107033 @1 예, 경 허영은에 국죽하고, 꿩죽은 삼촌은?(예, 그렇게 해서 갱죽하고, 꿩죽은 삼촌은?)

107033 #4 어?(어?)

107033 @1 꿩죽.(꿩죽.)

107033 #4 꿩?(꿩?)

107033 @1 예.(예.)

107033 #4 꿩도게, 꿩도 *, 드르에 사는 거난 거 잡아오민 것도 득죽 쓰듯기.(꿩도, 꿩도 *, 들에 사는 거니까 거 잡아오면 것도 닭죽 쓰듯이.)

107033 @1 아, 득죽 쓰듯기 어.(아, 닭죽 쓰듯이 어.)

107033 #4 어떤 말산디사 우리 그런 말 들어났어. 꿩꿩 장서방 경 허영. 꿩 아다 장꿩이 경 거 말은 안 곱아실 건디 이치적으로 생각허는 거 뒤희로 경 옛날 어른덜 곱은 것 닳아. 꿩꿩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느냐 허민. 알녁밧디 강 콩 혼 방울

좃어 떡곡 그럭저럭 웃넉밧디 강 콩 혼 방울 좃어떡엉 그럭저럭 사노라. 그런 그 속담이 있어났어게.(어떤 말인지야 우리 그런 말 들었었어. 꿩꿩 장서방 그렇게 해서. 꿩 아 다 장끼가 그렇게 거 말은 안 말했을 건데 이치적으로 생각하는 거 뺏으로 그렇게 옛날 어른들 말한 것 같아. 꿩꿩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느냐 하면. 아래 밭에 가서 콩 한 알 주워먹고 그럭저럭 위의 밭에 가서 콩 한 알 주워 먹고 그럭저럭 사노라. 그런 그 속담이 있었어.)

107033 @1 으.(으.)

107033 #4 그건 꿩이 경 곶은 것은 아니다.(그건 꿩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107033 @1 예, 예.(예, 예.)

107033 #4 이녀 속담, 생각으로 경계. 그 꿩은 텅기명 드르에 텅기명 좃어 떡엉 사니까.(이녀 속담, 생각으로 그렇게. 그 꿩은 다니면서 들에 다니면서 주워 먹고 사니까.)

107033 @1 예.(예.)

107033 #4 콩 간 때엔 콩도 좃어 떡곡이. 경 허연 사니까 이녀 그 생각으로 경 현 곶는 곶 들어난, 우리.(콩 간 때엔 콩도 주워 먹고. 그렇게 해서 사니까 이녀 그 생각으로 그런 말하는 곶 들었었어, 우리.)

107033 @1 예, 알녜, 알녜밧디 강도 떡곡 웃넉밧디 강도 떡곡.(예, 아래, 아래쪽 밭에 가서도 먹고 위쪽 밭에 가서도 먹고.)

107033 #4 경 허영 그런 말이 성. 어른덜이 꿩꿩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느냐 허민. 웃음. 알녜밧디 강 콩 혼 방울 웃넉밧디 강 콩 혼 방울 좃어 떡곡 그럭저럭 사노라 경 헤영.(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있어서. 어른들이 꿩꿩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느냐 하면. 웃음. 아래쪽 밭에 가서 콩 한 알 위쪽 밭에 가서 콩 한 알 주워 먹고 그럭저럭 사노라 그렇게 해서.)

107033 @1 예.(예.)

107033 #4 경현 속담도 싯곡이. 어른덜이 저 이제 뭐헌 말로 그 얼굴 곱고 속 곱인 건 난전밧⁴⁷⁸디 간절귀라. 그런 김질메명 그런 노래 불르는 것도 들어났어.(그런 속담도 있고. 어른들이 저 이제 뭐헌 말로 그 얼굴 곱고 속 곱은 건 ‘난전밭’의 개똥참외야. 그런 김매면서 그런 노래 부르는 것도 들었었어.)

107033 @1 예.(예.)

107033 #4 얼굴 곱고 속 좋은 것은 난전밧디 간절귀더라. 얼굴 곱고, 얼굴 곱고.(얼굴 곱고 속 좋은 것은 ‘난전밭’의 개똥참외야. 얼굴 곱고, 얼굴 곱고.)

107033 @1 예.(예.)

107033 #4 속 좋은 것은 난전밧디 두릅이더라. 경현 건 그 산에 그 두릅이렌 헌 그 짐승이 셔난 생이라. 꿩 닭은 것이.(속 좋은 것은 ‘난전밭’의 두루미더라. 그런 건 그 산에 그 두루미라고 한 그 짐승이 있었던 모양이야. 꿩 같은 것이.)

478) ‘난전밭’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비옥하지 않은 밭을 말한다.

107033 @1 예.(예.)
 107033 #4 목에 진진허곡 쫄락쫄락게 계난 그것ㄴ란 뚜럼이엔게.(목이 길디길고 길쭉길쭉 그러니까 그것보고 ‘뚜럼’이라고.)
 107033 @1 으.(으.)
 107033 #4 뚜럼. 그런 그 짐승은 먹음이 좋아난 생이라, 경 허난.(두루미. 그런 그 짐승은 마음이 좋았던 모양이야, 그렇게 하니까.)
 107033 @1 예.(예.)
 107033 #4 얼굴 꺾고 춤 속 좋은 건 난전밭디 뚜럼이더라.(얼굴 꺾고 참 속 좋은 건 ‘난전밭’의 두루미더라.)
 107033 @1 음.(음.)
 107033 #4 얼굴 곱고 속 꺾인 건 난전밭디 간절기, 드르에 간절기 그.(얼굴 곱고 속 꺾은 건 ‘난전밭’의 개똥참외, 들에 개똥참외 그.)
 107033 @1 예.(예.)
 107033 #4 요멘씩 현 종네기 간절귀엔 현 거 싯주기게.(요만큼씩 한 종류 개똥참외라고 한 거 있지.)
 107033 @1 예, 예.(예, 예.)
 107033 #4 그건 쓰곡 시곡 경 허주게. 곱닥헌 노랑게 익으면 곱긴 허여도.(그건 쓰고 시고 그렇게 하지. 곱다란 노랑게 익으면 곱긴 해도.)
 107033 @1 으.(으.)
 107033 #4 흐품 싯 거세기가 싯곡.(조금 싯 거시기가 있고.)
 107033 @1 으.(으.)
 107033 #4 선 때엔 쓰곡게.(선 때엔 쓰고.)
 107033 @1 음.(음.)
 107033 #4 경 허니까 얼굴 곱고 속 꺾인 건 난전밭디 간절귀여. 얼굴 꺾고 속 꺾인 건, 속 곧 건 난전밭디 뚜럼이더라.(그렇게 하니까 얼굴 곱고 속 꺾은 건 ‘난전밭’의 개똥참외다. 얼굴 꺾고 속 꺾은 건, 속 곧 건 ‘난전밭’의 두루미더라.)
 107033 @1 으, 곧 건예?(으, 고운 건요?)
 107033 #4 뚜럼은 또 나쁜 짓을 안 허는, 안 해난 생이라.(두루미는 또 나쁜 짓을 안 하는, 안 했던 모양이야.)
 107033 @1 예에.(예에.)
 107033 #4 그런 속담이 있어.(그런 속담이 있어.)
 107033 @1 으.(으.)
 107033 #4 뚜럼이엔 현 건 고개가 진진허곡 쫄락쫄락 뭐 걷는 짐승이 셔난.(두루미라고 한 건 고개가 길디길고 길쭉길쭉 뭐 걷는 짐승이 있었어.)
 107033 @1 예.(예.)
 107033 #4 막 웃드리⁴⁷⁹게.(아주 ‘웃드리’)

479)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웃드

107033 @1 막 웃드리예.(아주 ‘웃드리’요.)

107033 #4 산중에, 산중에 사는 거.(산중에, 산중에 사는 거.)

107033 @1 음, 알았수다.(음, 알았습니다.)

107033 #4 그런.(그런.)

범벅과 수제비

107034 @1 삼촌, 범벅도 해 먹었?(삼촌, 범벅도 해 먹었어요?)

107034 #4 범벅은 모멸핍벅게, 감저 썰어놓곡게.(범벅은 메밀범벅, 고구마 썰어
놓고.)

107034 @1 예, 계문 모멸핍벅 하나?(예, 그러면 메밀범벅 하나?)

107034 #4 모멸핍벅게. 그것ㄱ란 모멸핍벅엔 허주. 감저 썰어낱 모멸핍떡이나
허라 경 허곡. 경도 허영 허곡.(메밀범벅. 그것보고 메밀범벅이라고 하지. 고구마 썰
어놔서 메밀범벅이나 해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도 해서 하고.)

107034 @1 강이 잡아당은에 범벅은 안 해 먹었수가?(계 잡아다가 범벅은 안 해
먹었습니까?)

107034 #4 강이범벅은 안 허곡, 강인 잡양 죽은 쭈지.(계범벅은 안 하고, 계는
잡아서 죽은 쭈지.)

107034 @1 아, 강이 잡양 죽은 쭈고예?(아, 계 잡아서 죽은 쭈고요?)

107034 #4 죽 쭈민 맛 좋아.(죽 쭈면 맛 좋아.)

107034 @1 어.(어.)

107034 #4 강이 잡아당 뽕양이, 뽕아근에 강이 잡양오민 물에 켕 거 든물 문딱
츄 짠물 바까 불곡 경 허민 그거 허영 뽕아근에 걸렁.(계 잡아다가 빵아서, 빵아서
계 잡아오면 물에 담갔다가 거 단물 몽땅 참 짠물 뺏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해서 빵아서 걸려서.)

107034 @1 음.(음.)

107034 #4 걸러근에 죽 쭈민 막 지름기가 직까허곡 막 베지근허여⁴⁸⁰.(걸려서
죽 쭈면 아주 기름기가 뽕뽕하고 아주 ‘베지근해’.)

107034 @1 아.(아.)

107034 #4 강이, 바당옛 강이.(계, 바다에 계.)

107034 @1 바당옛 강이에, 예? 아, 강이죽들은 하영 헤영 먹엄구나. 그거 허민
뽕 다리 아픈 디도 좋다 이런 말도 헨게.(바다에 계요, 예? 아, 계죽들은 많이 해서
먹고 있구나. 그거 하면 뽕 다리 아픈 데도 좋다 이런 말도 하던데.)

107034 #4 옛날은계 다리 아픈 디도계. 강인 발발발발 잘 기어댕기난 그거 속담
으로 그거주기게.(옛날은 다리 아픈 데도. 켜 발발발발 잘 기어다니니까 그거 속담
으로 그거지.)

르'라고도 한다.

480) ‘베지근허다’는 입안에 기름기가 감돌아 맛이 있다는 뜻이다.

107034 @1 음.(음.)

107034 #4 부디 먹영 그것이 좋은 건 아니, 좋은 건 아니라도 그런 생각에.(부디 먹어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니, 좋은 건 아니라도 그런 생각에.)

107034 @1 예.(예.)

107034 #4 강이 잡아당, 강이 많이 먹으면 다리도 덜 아프다, 무시거 한다. 그건 이녀 생각으로 기자 글아지는 거엔 곧는 말.(게 잡아다, 게 많이 먹으면 다리도 덜 아프다, 무엇 한다. 그건 이녀 생각으로 그저 말해지는 거라고 말하는 말.)

107034 @1 으, 으. 게영 삼춘도 강이죽 행 썩 먹어보고.(으, 으. 그래서 삼춘도 게죽 해서 썩서 먹어보고.)

107034 #4 그, 그 전에사게 경 허연 먹엇주기게.(그, 그 전에야 그렇게 해서 먹엇지.)

107034 @1 웃음.(웃음.)

107034 #4 경헌디 그거 난 므음 약행 경 거세기 못 허영. 발발발발 기어 뎅기는 거 그 마계로 그 그릇에 낱 딱딱 뺏아가민 아이고, 그거 돌아, 살아나젠 막 돌아나 곡 경 허는 거 못허연게.(그런데 그거 난 마음 약해서 그렇게 거시기 못 해서. 발발 발발 기어 다니는 거 그 방망이로 그 그릇에 놔서 딱딱 뺏아가면 아이고, 그거 달아, 살아나려고 막 달아나고 그렇게 하는 거 못했어.)

107034 @1 아, 마음 약해 갖고.(아, 마음 약해 갖고.)

107034 #4 웃음.(웃음.)

107035 @1 아까 이제 그 저베기, 저베기는 어떤 즈베기덜 해 먹어마씨?(아까 이제 그 수제비, 수제비는 어떤 수제비들 해 먹어요?)

107035 #4 즈베기는 므물썰 글아근에이 그런 므물츠베기엔도 허곡, 므물크르로 현 건 므물츠베기.(수제비는 메밀쌀 갈아서 그런 메밀수제비라고도 하고, 메밀가루로 한 건 메밀수제비.)

107035 @1 으.(으.)

107035 #4 또 기냥 그 콩죽 쭈는 디 수제비 기냥 그런 건 기냥 그 밀ㄹ리도 반죽헤영게. 건 이녀 생각대로.(또 그냥 그 콩죽 쭈는 데 수제비 그냥 그런 건 그냥 그 밀가루도 반죽해서. 건 이녀 생각대로.)

107035 @1 예.(예.)

107035 #4 영 밀어근에 칼국수로 썰어근에도 허영 먹고.(이렇게 밀어서 칼국수로 썰어서 해서 먹고.)

107035 @1 으, 칼국수도 허영 먹고. 보릿ㄹ를로는 안 됩니까?(으, 칼국수도 해서 먹고. 보릿가루로는 안 됩니까?)

107035 #4 보릿ㄹ를도 무사 아녀게. 경 허난 어려운 때난 옛날 그건.(보릿가루도 왜 안 해.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 때니까 옛날 그건.)

107035 @1 으.(으.)

107035 #4 요즘 어디 그런 거 먹는 사름 셔?(요즘 어디 그런 거 먹는 사름 셔?)

107035@1 예.(예.)

107035#4 옛날 보리떡 경 허난계 아이고, 보리쌀 곶아당 보리츄베기나 허영 떡 카? 경계.(옛날 보리떡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보리쌀 곶아다가 보리수제비나 해서 먹을까? 그렇게.)

107035@1 으.(으.)

107035#4 옛날은 반찬도 그런 거 웃이니까 그런 거세길 허여.(옛날은 반찬도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시길 해.)

107035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35 #4 김치 ㄹ튼 거 즐바로 허연 먹엇어게?(김치 같은 거 제대로 해서 먹엇어?)

107035 @1 으.(으.)

107035 #4 김치 ㄹ튼 것도. 흘 줄 몰랑 못 허연. 흘 줄 몰란. 그 우갓덜 하곡 누 물 곶아근에[까라근에] 해도 돼주마는 경 허연.(김치 같은 것도. 할 줄 몰라서 못 했어. 할 줄 몰라서. 그 터알들 많고 배추 곶아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했어.)

김치

107037 @1 예, 경 허영은에 이제 허고. 계문 짐치 해 먹은 거는 어떤 거로 해 먹언?(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러면 김치 해 먹은 거는 어떤 거로 해 먹엇어 요?)

107037 #4 짐친게 그 이 옛날 산간에 사는 사람. 웃드리 사는 사람덜은 짐치도 잘 안 헨 먹언.(김친 그 이 옛날 산간에 사는 사람. ‘웃드리’ 사는 사람들은 김치도 잘 안 해서 먹엇어.)

107037 @1 으.(으.)

107037 #4 경 허난 우리 웨, 성할머니넨 애월면⁴⁸¹⁾ 금덕⁴⁸²⁾이엔 현 디이. 그디 허연 옛날 금덕도 지금 표준말이라.(그렇게 하니까 우리 외, 친할머니넨 애월면 금 덕이라고 한 데. 거기 해서 옛날 금덕도 지금 표준말이야.)

107037 @1 예.(예.)

107037 #4 이수암.(‘유수암’.)

107037 @1 음.(음.)

107037 #4 이라낫주. 그디 허곡 우리 웨가는 하귀⁴⁸³⁾라, 지금이.(이엇엇지. 거기 하고 우리 외가는 하귀야, 지금.)

107037 @1 으.(으.)

107037 #4 하귀출장소 즈갓디 우리 웨하르버지가 저 한문 선생.(하귀출장소 곶 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 한문 선생.)

481) ‘애월면’은 제주시 애월읍의 옛 행정명이다.

482) ‘금덕’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옛 행정리 이름이다.

483)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107037 @1 으.(으.)

107037 #4 으로이, 깐는깐는헌 막대이 영 딱 허게 창문 베꼈디 거치록 허영 놓곡.(으로, 가는가는한 막대 이렇게 딱 하게 창문 바깥에 거처럼 해 놓고.)

107037 @1 으.(으.)

107037 #4 그디 앓아근에 우리 웨삼촌네 답도리허는 거 봐난게.(거기 앓아서 우리 외삼촌네 잡도리하는 거 봤었어.)

107037 @1 어.(어.)

107037 #4 한자 가르치젠 허든게. 어린 때난게 실평 오래 앓앙 헤가민 뒤 헤영 헤 가든 탁 때리멍.(한자 가르치려고 하면. 어린 때니까 게을러서 오래 앓아서 헤가면 뒤 해서 헤 가면 탁 때리면서.)

107037 @1 으.(으.)

107037 #4 너 정구리 한번 맞을래? 허민. 정갱이 말이, 너 그 정구리 한번 이걸로 맞을래? 경헌 것도 나 들어나고이.(너 정강이 한번 맞을래? 하면. 정강이 말이, 너 그 '정구리' 한번 이걸로 맞을래? 그런 것도 나 들었었고.)

107037 @1 으.(으.)

107037 #4 경 허곡, 콩죽 옛날은 콩죽을 대목 저녁에 어려운 때난이.(그렇게 하고, 콩죽 옛날은 콩죽을 대목 저녁에 어려운 때니까.)

107037 @1 으.(으.)

107037 #4 죽을 췌. 경 허영 허든 그 콩죽 다 먹어나민 굵에 잘 젓느렌 헤여도 누렁지가 돼지게.(죽을 췌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콩죽 다 먹어나면 밑에 잘 젓노라고 해도 누렁지가 되지.)

107037 @1 예, 예.(예, 예.)

107037 #4 경 허영 허든 그 말재엔 누렁지 허영 영 확확확확확 그게 손가락으로 확확 찢렁 허민 그것이 ***이 들리지곡 허영 허민 코시롱허지 노랑게 허면.(그렇게 해서 하면 그 말재엔 누렁지 해서 이렇게 확확확확확 그게 손가락으로 확확 찢러서 하면 그것이 ***이 들어지고 해서 하면 고소하지, 노랑게 하면.)

107037 @1 예, 예.(예, 예.)

107037 #4 코시롱게. 그거 먹젠, 먹젠덜 막 기냥 나도 먹젠, 나도 먹젠 허여 가민 우리 웨하르버지 허는 말이이.(고소하게. 그거 먹으려고, 먹으려고들 막 그냥 나도 먹으려고, 나도 먹으려고 해 가면 우리 외할아버지 하는 말이.)

107037 @1 으.(으.)

107037 #4 누렁이 먹으면 공부 못헌덴.(누렁지 먹으면 공부 못한다고.)

107037 @1 음.(음.)

107037 #4 으, 경헌 말 들어난. 누렁지 먹으면 공부 못헌덴.(으, 그런 말 들었었어. 누렁지 먹으면 공부 못한다고.)

107037 @1 으.(으.)

107037 #4 경 허멍 허연 허여난. 우리 웨하르버지 한문 가르쳐난 건 난 알아

져.(그렇게 하면서 해서 했었어. 우리 외할아버지 한문 가르쳤던 건 난 알아져.)

107037 @1 예.(예.)

107037 #4 경 허곡 강 씨라나신디이 강 스장, 강 스장 경 헤어나고.(그렇게 하고 강 씨였는데 강 사장, 강사장 그렇게 했었고.)

107037 @1 음.(음.)

107037 #4 강 스장엔도 허곡 강 우장⁴⁸⁴엔도 허곡.(강 사장이라고도 하고 강 ‘우장’이라고도 하고.)

107037 @1 예.(예.)

107037 #4 상교, 시에 상곶동산⁴⁸⁵ 지금 잇지이.(향교, 제주시에 ‘향곶동산’ 지금 잇지.)

107037 @1 예.(예.)

107037 #4 그 상교에 늘 그 휘 보레 우리 웨하르버지가.(그 향교에 늘 그 회 보러 우리 외할아버지가.)

107037 @1 으.(으.)

107037 #4 땡겨나고. 경 허연.(다녔었고. 그렇게 했었어.)

107037 @1 아.(아.)

107037 #4 경. 경헌디 우리 웨삼촌도 식 성젠디 경 허연 어떻 허연 우리 큰삼촌이 서울 간 삼 시작 허난 문딱 동생덜 서울 돌아간 헤연 그디서 돌아가션.(그렇게. 그런데 우리 외삼촌도 세 형젠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큰삼촌이 서울 가서 살기 시작 하니까 몽땅 동생들 서울 데려가서 해서 거기서 돌아가셨어.)

107037 @1 예.(예.)

107037 #4 하귀 집이라나신디 경 허연. 하귀 집은 이디 산소덜 시난에 우리 어머니³라 누님 살명 벌초나 허영 삼센 허연 경 헤연.(하귀 집이었는데 그렇게 했어. 하귀 집은 여기 산소들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보고 누님 살면서 벌초나 해서 사십사고 해서 그렇게 했어.)

107037 @1 으.(으.)

107037 #4 살안, 흔 곶아난 거 나가 알아지곡. 동네에서 옛날은, 옛날은 공부덜 못 허엇거든게.(살았어, 한 말했던 거 내가 알아지고. 동네에서 옛날은, 옛날은 공부들 못 했거든.)

107037 @1 예.(예.)

107037 #4 경 허난 네낭중 못헤신디.(그렇게 하니까 너나 못했는데.)

107037 @1 예.(예.)

107037 #4 우리 셋삼촌이 경 우리 하르버지가 경 허난이 춤 공불 허곡 글을 경 잘 써신³라 동, 그 아기덜이 문딱 육지 강 살아 불민 * 옛날은 전화 통화가 엇어 낫거든이.(우리 둘째삼촌이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참 공불 하고 글

484) ‘우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

485) ‘상곶동산’은 제주향교가 있는 동네의 지명이다.

을 그렇게 잘 썼는지 동, 그 아기들이 몽땅 육지 가서 살아 버리면 * 옛날은 전화 통화가 없었거든.)

107037 @1 음, 음.(음, 음.)

107037 #4 경 허난 편지 빌영 쓰레 경 오라.(그렇게 하니까 편지 빌려서 쓰러 그렇게 와.)

107037 @1 음.(음.)

107037 #4 동넛 할망덜이. 우리 어린 때라도 거 알아져. 영 허영 편지 혼 장씩 써줘게, 미안하여도게. 경 허른 삼촌, 뭇엔 씩니까?(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어릴 때 여도 거 알아져. 이렇게 해서 편지 한 장씩 써줘, 미안해도. 그렇게 하면 삼촌, 뭇이라고 씩니까?)

107037 @1 으.(으.)

107037 #4 경 허여. 그 어른덜이 경 허른 우리 웨삼촌 셋웨삼촌, 셋삼촌이 허는 말이. 지가 알양 써게. 나 뭇엔 글을 처레 몰르커라. 지가 알양 써. 경 허른 어떻사 아는디 그 어른 속엿말을 다 기자.(그렇게 해.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외삼촌 둘째외삼촌, 둘째외삼촌이 하는 말이. 저가 알아서 써. 나 무엇이라고 말할 차례 모르겠어. 저가 알아서 써. 그렇게 하면 어떻게야 아는지 그 어른 속말을 다 그저.)

107037 @1 으.(으.)

107037 #4 춤 부모님전 상서 경헌, 경 근. 그영 허명 쓰는 건 나가 들어나서게. (참 부모님전 상서 그런, 그렇게 말한. 그렇게 하면서 쓰는 건 내가 들었었어.)

107037 @1 예.(예.)

107037 #4 경 허영 쓰* 썩 놈의 어른 속엿말을 어떻사 쓰는디 허영 썩 허민 자꾸 편지 빌영 쓰레 오라난 거 나가 기억해져.(그렇게 해서 쓰* 써서 놈의 어른 속말을 어떻게야 쓰는지 해서 써서 하면 자꾸 편지 빌려서 쓰러 왔던 거 내가 기억해져.)

107037 @1 음.(음.)

107037 #4 우리 저 우리 삼촌, 스나이 삼촌덜이 웨삼촌덜이 식 성젠디 셋삼촌이 경 뛰어나게 흐뎡 공불 경. 동넛 어른덜 경 춤 편지 쓰레 잘 와난 거 경 허영 기억해져.(우리 저 우리 삼촌, 남자 삼촌들이 외삼촌들이 세 형젠데 둘째삼촌이 그렇게 뛰어나게 조금 공불 그렇게. 동네 어른들 그렇게 참 편지 쓰러 잘 왔던 거 그렇게 해서 기억해져.)

107038 @1 예, 알았수다. 여기 게른 그 김, 짐치들 하영 안 해긴 헛주마는 배추 짐치예, 여기는 배추 옛날 누물.(예, 알았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 김, 김치들 많이 안 하긴 했지만 배추김치요, 여기는 배추 옛날 '누물'.)

107038 @1 으.(으.)

107038 #4 배추누물짐친 어떤 식으로?(배추김친 어떤 식으로?)

107038 #4 배추누물짐친 그 아이고, 소금 그걸 어려왕이. 소금 돈 드는 거엔 허

영. 웃음. 바당에 강 시청, 바당에 호갱이에 경 돌 지들황.(배추김치 그 아이고, 소금 그걸 어려워서. 소금 돈 드는 거라고 해서. 웃음. 바다에 가서 씻어서, 바다에 웅덩이에 담가서 돌 지질러서.)

107038 @1 으.(으.)

107038 #4 그거 허영 그 절여질 거 아니라.(그거 해서 그 절여질 거 아닌가.)

107038 @1 예.(예.)

107038 #4 경 허영 허문 허영 건져다근에 시청 바당에서 시치곡이 그디 허영 호갱이에 켜.(그렇게 해서 하면 건져다가 씻어서 바다에서 씻고 거기 해서 웅덩이에 담갔어.)

107038 @1 예.(예.)

107038 #4 돌 지들좌근에 떠나지 못하게.(돌 지질러서 떠나지 못하게.)

107038 @1 예.(예.)

107038 #4 돌 지들좌당 헛당. 뒷날은 경 허영 잘 돌 지들루민 춤 떠나지 아녕게.(돌 지질렀다가 했다가. 뒷날은 그렇게 해서 잘 돌 지지르면 참 떠나지 않아서.)

107038 @1 예.(예.)

107038 #4 경 허문 뒷날은 건져당 시청 김치허곡 경 해낫주.(그렇게 하면 뒷날은 건져다가 씻어서 김치하고 그렇게 했었지.)

107038 @1 양념들은 무신거 낱 해마씨?(양념들은 무엇 놔서 해요?)

107038 #4 양념은게 고추 멜젓게.(양념은 고추 멀치젓.)

107038 @1 멜젓 어.(멀치젓 어.)

107038 #4 멜젓 낱 기냥. 지금은 새우젓을 놔사 이 김치가 싱싱허거든, 더.(멀치젓 놔서 그냥. 지금은 새우젓을 놔야 이 김치가 싱싱하거든, 더.)

107038 @1 으.(으.)

107038 #4 멜젓보단.(멀치젓보단.)

107038 @1 아.(아.)

107038 #4 멜젓은 많이 놓면 김치가 검어.(멀치젓 많이 넣으면 김치가 검어.)

107038 @1 아.(아.)

107038 #4 경 허곡 새우젓을 많이 놓은 색깔도 좋곡 익어갈수록 색깔도 좋곡.(그렇게 하고 새우젓을 많이 넣으면 색깔도 좋고 익어갈수록 색깔도 좋고.)

107038 @1 으.(으.)

107038 #4 기냥 춤 맛도 중앙 싱싱허여근에 현디, 멜젓은.(그냥 참 맛도 좋아서 싱싱해서 하는데, 멀치젓은.)

107038 @1 으.(으.)

107038 #4 확 허게 그 아메도 더 재게 풀이 죽는 생이라.(확 하게 그 아메도 더 재우 풀이 죽는 모양이야.)

107038 @1 으.(으.)

107038 #4 짐치가.(김치가.)

107038 @1 예.(예.)

107038 #4 색깔도 검곡 경 허난 지금도 새우젓을 많이 놔, 영 보믄.(색깔도 검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새우젓을 많이 놔, 이렇게 보믄.)

107039 @1 음. 새우젓예, 예? 그다음에 여기 츠마기김치들도 헤마씨?(음. 새우젓요, 예? 그다음에 여기 열무김치들도 해요?)

107039 #4 츠마기김치 지금은 잘 아녀. 츠마기김치 허여도게 깍데기로이.(열무김치 지금은 잘 앓아. 열무김치 해도 깍두기로.)

107039 @1 으.(으.)

107039 #4 깍데기로 썰영게. 기냥게 그 예점 우리 허영 허곡. 옛날은 그, 그런 그 나가 영 헤여, 흐뭇 옥은지후제 허여신디 흐뭇 훗게 썰영이.(깍두기로 썰어서. 그냥 그 예사 우리 해서 하고. 옛날은 그, 그런 그 내가 이렇게 해, 조금 큰 이후에 했는데 조금 굵게 썰어서.)

107039 @1 예, 예.(예, 예.)

107039 #4 훗게 썰어근에 버물영 딱 허게 헤영 허믄 거 싱근지라고.(굵게 썰어서 버물여서 딱 하게 해서 하면 거 싱근지라고.)

107039 @1 으.(으.)

107039 #4 국물 우터레 막 올르, 올르민이.(국물 위로 아주 오르, 오르면.)

107039 @1 예.(예.)

107039 #4 그거 경 허영 먹고 헤신디.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허염서. 요새 사름 덜은 아념주기에. 기냥 김장은 허는디.(그거 그렇게 해서 먹고 했는데.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어. 요새 사람들은 앓고 있지. 그냥 김장은 하는데.)

107039 @1 예.(예.)

107039 #4 김치 허여도 쪼끔 기자 흐뭇 멧 푸기 허여근영에 허주기, 일 년 먹을 거, 옛날은 일 년 먹을 거 헤실 거라.(김치 해도 쪼끔 그저 조금 멧 포기 해서 하지, 일 년 먹을 거, 옛날은 일 년 먹을 거 했을 거야.)

107039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39 #4 일 년 먹을 거 딱 허영근에.(일 년 먹을 거 딱 해서.)

107039 @1 으.(으.)

107039 #4 어디 풀 디 엇이난 사례 못 가고 경 헤신디 지금은 마트에 얼마든지 김치도 풀곡 다 반찬덜 폭난 지금 경 아까도 나 이레 올 때 우리 아는 친구 요, 요 펜이.(어디 팔 데 없으니까 사러 못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마트에 얼마든지 김치도 팔고 다 반찬들 파니까 지금 그렇게 아까도 나 이리 올 때 우리 아는 친구 요, 요쪽에.)

107039 @1 으.(으.)

107039 #4 느물 사례 오일장 가노렌 허명 김치 허젠 느물 사례 가노렌 헤고나 마는 이젠 경 허는 사름 엇어.(배추 사러 오일장 가노라고 하면서 김치 하려고 배추 사러 가노라고 하더니만 이젠 그렇게 하는 사름 없어.)

107039 @1 예.(예.)

107039 #4 젊은 사람덜은 더군다나 참 마트에 강 허곡. 이 경 불렁덜 떡곡 경 허연.(젊은 사람덜은 더군다나 참 마트에 가서 하고. 이 그렇게 불려서들 먹고 그렇게 했어.)

107040 @1 음, 그다음에 그 늬빠 아까 싱건지 헛지마는 늬빠 이만큼씩 썰엉은 에 하영 답앗잖아예?(음, 그다음에 그 무 아까 싱건지 했지만 무 이만큼씩 썰어서 많이 답앗잖아요?)

107040 #4 그거, 그거 허영 허른게 그건 훑으니까 소금물을 많이 헤여사.(그거, 그거 해서 하면 그건 굵으니까 소금물을 많이 해야.)

107040 @1 으.(으.)

107040 #4 헤여사 그 우터레 그 국물이 올라사 경 허영 허른 참 그거 허영 썰 영 허른 싱근지엔 허여근영에 수왕수왕⁴⁸⁶ 맛 좋곡.(헤여 그 위로 그 국물이 올라 야 그렇게 해서 하면 참 그거 해서 썰어서 하면 싱건지라고 해서 서걱서걱 맛 좋 고.)

107040 @1 으, 옛날도 싱건지렌 헨예? 어, 삼촌, 여기 제주도 떠낭 살아봅디 가?(으, 옛날도 싱건지라고 했다고요? 어, 삼촌, 여기 제주도 떠나서 살아봅디까?)

107040 #4 으, 나 저.(으, 나 저.)

107040 @1 어디 강 살아봅디가?(어디 가서 살아봅디까?)

107040 #4 목포. 우리 고모네 목포 살안.(목포. 우리 고모네 목포 살았어.)

107040 @1 으.(으.)

107040 #4 그디 간 뒤 해 살단 완.(거기 가서 뒤 해 살다가 왔어.)

107040 @1 뒤 해? 멧 슬에?(뒤 해? 멧 살에?)

107040 #4 그때 나 어린 때에.(그때 나 어릴 때에.)

107040 @1 으.(으.)

107040 #4 어린 때에 흔 열댓 슬에 짬은 간.(어릴 때 한 열댓 살에 짬에 갔어.)

107040 @1 아.(아.)

107040 #4 간.(갔어.)

107040 @1 경허곡 여기 물김치도 헤마씨?(그리고 여기 물김치도 해요?)

107040 #4 지금이사 물김치 헤영 먹주게.(지금에야 물김치 해서 먹지.)

107040 @1 예전에는 안 헤판?(예전에는 안 해봤어요?)

107040 #4 예전에 우린 아너곡. 게도 허는 딴 허여.(예전에 우린 앓고. 그래도 하는 덴 해.)

107040 @1 으.(으.)

107040 #4 물김치도. 깍데기 썰영 물김치게.(물김치도. 깍두기 썰어서 물김치.)

107040 @1 아, 깍데기 썰영.(아, 깍두기 썰어서.)

107040 #4 육지 영 그때 어린 때라도 보른이 우리 고모네 보른. 저 목포 해남

486) '수왕수왕'은 배나 무 따위를 입에 베어 물 때 시원하게 나는 소리다.

사름덜이.(육지 이렇게 그때 어린 때라도 보면 우리 고모네 보면. 저 목포 해남 사람들.)

107040 @1 으.(으.)

107040 #4 반찬덜토 잘허곡 이 김치 ㄴ쁜 거.(반찬들도 잘하고 이 김치 같은 거.)

107040 @1 으.(으.)

107040 #4 잘헌텐 허여낫주기게.(잘한다고 했었지.)

107040 @1 으.(으.)

107040 #4 잘허연. 손맛이 더 춤 잘허여근앵에 그.(잘했어. 손맛이 더 참 잘해서 그.)

107040 @1 예.(예.)

107040 #4 허곡. 저 옛날은 멜춧동이, 멜춧동이 허영 알은 영 빨아지고 우 벌어진.(하고. 저 옛날은 ‘멸치젓동이’, ‘멸치젓동이’ 해서 아래는 이렇게 빨아진 위 벌어진.)

107040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40 #4 멜춧동이가 잇어낫어.(‘멸치젓동이’가 있었었어.)

107040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40 #4 그거 육지서 들어오란. 전라도서 그런.(그거 육지서 들어왔어. 전라도서 그런.)

107040 @1 이렇게 생긴 거예?(이렇게 생긴 거요?)

107040 #4 그것도 들어와난 생이라.(그것도 들어왔던 모양이야.)

107040 @1 예.(예.)

107040 #4 경 허민 멜춧동이, 멜춧동이 허멍 허연 그 육지서 멜을 ㄴ 맞게 허영 허염신 ㄴ라 그 육짓멜춧 그거 허영 동이로 사근앵에 멜을, 그 멜춧망데기⁴⁸⁷엔도 아년 멜춧동이 멜춧동이 허대.(그렇게 하면 ‘멸치젓동이’, ‘멸치젓동이’ 하면서 해서 그 육지서 멸치를 ㄴ 맞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 ‘육지멸치젓’ 그거 해서 동이로 사서 멸치를, 그 ‘멜춧망데기’라고도 앓고 ‘멜춧동이’ ‘멜춧동이’ 하대.)

107040 @1 으.(으.)

107040 #4 경 허여근에 허곡 허어나신디 이젠 이디도, 이디도 잘덜 허난 이젠 그런 거세기가 엇주기게.(그렇게 해서 하고 했었는데 이젠 여기도, 여기도 잘들 하니까 이젠 그런 거시기가 없지.)

107040 @1 예.(예.)

107040 #4 옛날은 경 해난.(옛날은 그렇게 했었어.)

107041 @1 으, 그다음에 이제 동지⁴⁸⁸로도 짐치헤마씨?(으, 그다음에 이제 ‘동지’로도 김치해요?)

487) ‘멜춧망데기’는 멸치젓을 담글 때 사용하는 작은 용기다.

488) ‘동지’는 배추 따위에서 돌아난 아주 연한 장다리다.

107041 #4 동지김치⁴⁸⁹계.(동지김치.)
 107041 @1 으.(으.)
 107041 #4 동지.(동지.)
 107041 @1 으.(으.)
 107041 #4 배추 허영 동지 살 거 아니라게. 경 허문게 그거 꺼짱게.(배추 해서 ‘동지’ 설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그거 꺾어서.)
 107041 @1 으.(으.)
 107041 #4 그것ㄴ라 동지김치.(그것보고 ‘동지김치’.)
 107041 @1 으.(으.)
 107041 #4 그것도 김친 푹 ㄴ트게 그것도 배추김치나 양념은 ㄴ뜨게 허영.(그것도 김친 푹 ㄴ트게 그것도 배추김치나 양념은 ㄴ뜨게 허영.)
 107043 @1 으, 동지김친 맛 좋아예?(으, ‘동지김친’ 맛 좋지요?)
 107043 #4 맛 좋주게.(맛 좋지.)
 107043 @1 예, 동지김치 이제 하영 허고. 그다음에 파로도 김치헤마씨?(예, ‘동지김치’ 이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파로도 김치해요?)
 107043 #4 으, 파김치계.(으, 파김치.)
 107043 @1 파김치 허여? 무신, 무신 파로 허는 겨우파?(파김치 해? 무슨, 무슨 파로 하는 겁니까?)
 107043 #4 이제 우리 파. 양념허는 파계. 그런 거로계. 그것ㄴ라 파김치엔 허는 겨우기.(이제 우리 파. 양념하는 파. 그런 거로. 그것보고 파김치라고 하는 거지.)
 107043 @1 그 파를 이 동네서는 뭐렌 불러낫수가?(그 파를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07043 #4 기냥 패마농.(그냥 ‘패마농’.)
 107043 @1 어, 패마농. 게문 패마농김치?(어, ‘패마농’. 그러면 ‘패마농김치’?)
 107043 #4 으, 패마농. 지금은 현뎃말로 파, 파엔 허주마는.(으, ‘패마농’. 지금은 현대말로 파, 파라고 하지만.)
 107043 @1 예.(예.)
 107043 #4 그뎃 패마농.(그뎃 ‘패마농’.)
 107043 @1 으.(으.)
 107043 #4 콥데산이.(마늘.)
 107043 @1 예, 예, 예. 패마농, 콥데산이. 아까 이제 꿩마농 캐러 하영 뎃갓뎃 허명예?(예, 예, 예. 쪽파, 마늘. 아까 이제 달래 캐러 많이 다녔다고 하먼서요?)
 107043 #4 꿩마농 캐곡 그 미나리 캐레이 어디 담어염⁴⁹⁰에 어디 논어염⁴⁹¹에 이 경현디 승키 그 어려운 때난 경계, 그거 주 삼아 경 허여난.(달래 캐고 그 미나리 캐러 이 어디 ‘담어염’에 어디 ‘논어염’에 그런데 푸성귀 그 어려운 때니까 그렇

489) ‘동지김치’는 배추 따위에서 돌아난 아주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다.

490) ‘담어염’은 밭 등의 울타리를 쌓아놓은 담이 있는 가장자리라는 의미다.

491) ‘논어염’은 논외의 가장자리라는 의미다.

게, 그거 주 삼아 그렇게 했었어.)

107044 @1 으, 게든 평마농으로도 김치해마씨?(으, 그러면 달래로도 김치해요?)

107044 #4 평마농김치도 맛 좋지.(달래김치 맛 좋지.)

107044 @1 아, 건 어떤 식으로 됩니까?(아, 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7044 #4 기냥 그 파김치 허듯기게.(그냥 그 파김치 하듯이.)

107044 @1 으으.(으으.)

107044 #4 양념 그대로.(양념 그대로.)

107044 @1 으음.(으음.)

107044 #4 평마농김치가 더 파마농김치보다 더 코시롱해.(달래김치가 더 파김치보다 더 고소해.)

107044 @1 아.(아.)

107044 #4 빨리가 요맨씩 헌 거 허영.(뿌리가 요만큼씩 한 거 해서.)

107044 @1 예.(예.)

107044 #4 거 ㄴ치 서꺼근에 허민 맛 좋아.(거 같이 섞어서 하면 맛 좋아.)

107044 @1 것도 고춧가루도 농곡 행?(것도 고춧가루도 넣고 해서?)

107044 #4 기냥 그 지금 우리 배추김치 양념 허듯기 허여근에 그치룩 허여근에.(그냥 그 지금 우리 배추김치 양념 하듯이 해서 것처럼 해서.)

107045 @1 아, 갯 걸 평마농김치예?(아, 그래서 걸 달래김치요?)

107045 #4 으.(으.)

107045 @1 여기는 갯을 여기서는 뭐렌 꼴아마씨?(여기는 갯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107045 #4 갯?(갯?)

107045 @1 머리 아니, 아니. 그 저 누들 닳은 거. 갯누물.(머리 아니, 아니. 그 저 배추 같은 거. '갯누물'.)

107045 #4 갯누멸.(갯.)

107045 @1 으.(으.)

107045 #4 그것 ㄴ라게 갯누멸김치게.(그것보고 갯김치.)

107045 @1 갯누물김치도 허여?(갯김치도 해?)

107045 #4 갯누물김치도 허영 속 담곡.(갯김치도 해서 속 담고.)

107045 @1 아.(아.)

107045 #4 배추에 영.(배추에 이렇게.)

107045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45 #4 속 담곡.(속 담고.)

107045 @1 배추에 속 담곡. 게든 갯누물김치로만 따로 허지 안합니까?(배추에 속 담고. 그러면 갯김치로만 따로 하지 않습니까?)

107045 #4 따로도 허영 먹곡게. 따로 허곡 속에 담으민 거 흥꿈 배추김치가 맛이 있게 그거 흥꿈씩 그 속 담곡게.(따로도 해서 먹고. 따로 하고 속에 담으면 거

조금 배추김치가 맛이 있게 그거 조금씩 그 속 담고.)

107045 @1 속 담곡.(속 담고.)

107045 #4 갯늬물짐친 딱로 허여.(갯김친 따로 해.)

107045 @1 으.(으.)

107045 #4 갯늬물은 흐끔 독허주게. 경 허영 허믄 갯늬물은 경 양념흐곡 허민 배추김치보다 더 독허영 쪼끔 더 메웁곡. 잘 익어사 맛 좋곡.(갯은 조금 독하지. 그렇게 해서 하면 갯은 그렇게 양념하고 하면 배추김치보다 더 독해서 쪼끔 더 맵고. 잘 익어야 맛 좋고.)

107045 @1 으.(으.)

107045 #4 잘 익어사.(잘 익어야.)

107045 @1 그걸로도 물짐치도 험니까? 갯늬물.(그것으로도 물김치도 험니까? 갯.)

107045 #4 갯늬물 물짐치 옛날은 기냥 허영 고춧꺾를 기냥 흐끔 농곡 기냥 그 물짐치로 옛날 어른덜.(갯 물짐치 옛날은 그냥 해서영 고춧가루 그냥 조금 넣고 그냥 그 물김치로 옛날 어른덜.)

107045 @1 으.(으.)

107045 #4 경 허여난.(그렇게 했었어.)

107045 @1 물 하영 낭예, 물짐치로?(물 많이 넣어서요, 물김치로?)

107045 #4 옛날은게 지금꺾치 허연 살았어게? 기자 준 브튼 이 공으로 살았주 기게.(옛날은 지금처럼 해서 살았어? 그저 잔 ‘브튼 이 공’으로 살았지.)

107045 @1 으.(으.)

107045 #4 뵈이든지 절약으로 경 허연. 경 해난.(뵈이든지 절약으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었어.)

107045 @1 예, 브튼 이 공 험니까?(예, ‘밭은 이 공’ 험니까?)

107045 #4 브뜨, 그것꺾라 지금은 절약허영 험 거 브뜨니 공으로.(밭은, 그것보 고 지금은 절약해서 한 거 밭은 이 공으로.)

107045 @1 으.(으.)

107045 #4 브뜨게 살았다 말로게.(밭게 살았다 말로.)

107045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45 #4 브튼 이 공으로.(밭은 이 공으로.)

107045 @1 이제 경허곡.(이제 그렇게 하고.)

107045 #4 아이고, 옛날이사 브뜨니 공으로 살았주기, 경.(아이고, 옛날에야 밭은 이 공으로 살았지, 그렇게.)

107045 @1 으.(으.)

107045 #4 경 곶안.(그렇게 말했어.)

107045 @1 맞수다. 그다음에 새우리짐치도 해?(맞습니다. 그다음에 부추김치도 해?)

107045 #4 으?(으?)

107046 @ 새우리김치?(부추김치?)

107046 #4 새우리김치. 나도 요디 어엽에 흔 밧 싯주마는 새우리김치도게 헤여도게 경 하영은 아녀주게.(부추김치. 나도 여기 가장자리에 한 밧 있지만 부추김치도 해도 그렇게 많이는 않지.)

107046 @1 으.(으.)

107046 #4 새우린이 옛날 어른덜은 그 초가집 아니?(부추는 옛날 어른들은 그 초가집 아니?)

107046 @1 예.(예.)

107046 #4 경 허믄 그 집 아래 헤여근엥에 그 새우릴 그 밧 그 제라허게 들게 아녀근에 그 굴룬 거세기로.(그렇게 하면 그 집 아래 해서 그 부출 그 밧 그 제대로 들게 얹아서 그 군 거시기로.)

107046 @1 으.(으.)

107046 #4 그 집가지 아래 경 허여근에 새우리 싱경 경 툃아근엥에 그 장에도 썰엥, 웬장에도 썰어낭 웬장도 데경 떡곡 경 허연게.(그 처마 아래 그렇게 해서 부추 심어서 그렇게 따서 그 장에도 썰어서, 된장에도 썰어놔서 된장도 짝어서 먹고 그렇게 하던데.)

107046 @1 으, 저 뭐는. 저기 김치는 잘 안 하고?(으, 저 뭐는. 저기 김치는 잘 안 하고?)

107046 #4 김치는 그거 지금ㄴ치 경 풍부허지 아녀난게. 그 경을 헐 층 몰란게.(김치는 그거 지금처럼 그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그 그렇게 할 줄 몰라서.)

107046 @1 으.(으.)

107046 #4 그 밧디 갈아시, 그거 불휘 파당 밧덜 널르니까 밧디 싱거도 웨주마는 그영 헐 층을 옛날은 몰라놔주기게.(그 밧에 갈았, 그거 뿌리 파다가 밧들 너르니까 밧에 심어도 되지만 그렇게 할 줄을 옛날은 몰랐었지.)

107047 @1 웃음. 경 허영 하고예? 으,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녹물김치 그 배추김치 허는 순서는, 순서를 다시 한 번 곶아 줍서. 어떤 식으로 행은에 양념까지 허는 거. 순서. 배추 싯으는 거 영 캐영 왕은에.(웃음. 그렇게 해서 하고요? 으,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배추김치 그 배추김치 하는 순서는, 순서를 다시 한 번 말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양념까지 하는 거. 순서. 배추 싯는 거 이렇게 캐서 와서.)

107047 #4 옛날은 배추 캐영 오라근엥에 허영 허믄 층 그 소금 아까왕이, 바당에 강.(옛날은 배추 캐어서 와서 해서 하면 참 그 소금 아까워서, 바다에 가서.)

107047 @1 예.(예.)

107047 #4 바다에 강 시청 그디 허영 호갱이에 영 허영 절여근에 돌 지들황 낫당 그 흐끔 몸 죽으민 건정 오랑. 경도 옛날 그 소금도 경 아까왕.(바다에 가서 싯어서 거기 해서 웅덩이에 이렇게 해서 절여서 돌 지질러서 왔다가 그 조금 몸 죽으

면 건져서 와서. 그렇게도 옛날 그 소금도 그렇게 아까워서.)

107047 @1 음.(음.)

107047 #4 어려운 때난 경 허여난.(어려운 때니까 그렇게 했었어.)

107047 @1 케민 양념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허여마씨?(그러면 양념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요?)

107047 #4 양념들은 그 참 마치 혼 가지로 허여도 지금 마치 경 양념 그것저것은 못 낚지. 옛날 어른덜. 멜젓 주장.(양념들은 그 참 마치 한 가지로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양념 그것저것은 못 낚지. 옛날 어른들 멀치젓 주장.)

107047 @1 으.(으.)

107047 #4 멜젓 주장.(멀치젓 주장.)

107047 @1 멜젓에.(멀치젓에.)

107047 #4 멜젓 그거게. 멜젓 농곡 그거 소금 뇌근에 멜젓 국물 많이 헤여낱 소금으로 근 맞창게.(멀치젓 그거. 멀치젓 넣고 그거 소금 뇌서 멀치젓 국물 많이 해 놓아서 소금으로 간 맞춰서.)

107047 @1 으.(으.)

107047 #4 지금까지 경 맛 좋게 허주기 뭐할 그런 능력이 엇이 살았주기, 옛날덜은. 경.(지금같이 그렇게 맛 좋게 하지 뭐할 그런 능력이 없이 살았지, 옛날들은. 그렇게.)

107047 @1 케민 고춧가루덜은 어떤 식으로 헛수가?(그러면 고춧가루들은 어떤 식으로 헛습니까?)

107047 #4 고치, 옛날 고춧가루를 거세긴 기자 그 고치 허여도 갈앙이.(고추, 옛날 고춧가루를 거세긴 그저 그 고추 해도 갈아서.)

107047 @1 으.(으.)

107047 #4 고치 갈앙은에 경 허민 헤 기자 칼로 허영 즈질이 썰곡, 또 이 썰어 뇌근엔에 거 요만인 현 우리 할머니넨 그 영 뺏는 그 도귀통이 셔나서, 쪼끄만헌 거.(고추 갈아서 그렇게 하면 해 그저 칼로 해서 자잘하게 썰고, 또 이 썰어뇌서 거 요만큼 한 우리 할머니넨 그 이렇게 뺏는 그 절구통이 있었어, 쪼끄마한 거.)

107047 @1 으, 으.(으, 으.)

107047 #4 그것에 허영은에 허는 거 봐나곡. 옛날도 풀래라고이 옛날은 미녕이불안 광목이불안 옛날은 미녕이불안이 주장이주기게.(그것에 해서 하는 거 봤었고. 옛날도 풀래라고 옛날은 무명이불안 광목이불안 옛날은 무명이불안이 주장이었지.)

107047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47 #4 경 허연 현 때도 허영 이불안에 풀허젠 허민 그 쓸 커근에이.(그렇게 해서 할 때도 해서 이불안에 풀하러 하면 그 쓸 담갔다가.)

107047 @1 예.(예.)

107047 #4 흰쌀 커근에 맏, 그 풀래라고 셔낱어게.(흰쌀 담갔다가 맏, 그 풀래

라고 있었어.)

107047 @1 으.(으.)

107047 #4 영 허영 굴곡. 동글락허게 허영 영 허영 풀 그 ㄱ는 물 내리는 디 요거 조작허게 허영 허믄 그레 그릇 받아근에 손가락으로 영 허영 그레 영 거러 놓멍 그 쓸 들어가게 거러 놓멍 영 글아근에 허민 그 물 허영 쓸 글은 거 나오민 그거 받아들 풀 썩 이불안도 허여나고 이불안에 풀도 허곡.(이렇게 해서 같고.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풀 그 가는 물 내리는 데 요거 뽕족하게 해서 하면 그리로 그릇 받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로 이렇게 떠 놓으면서 그 쌀 들어가게 떠 놓으면서 이렇게 갈아서 하면 그 물 해서 쌀 간 거 나오면 그거 받아서 풀 썩서 이불안도 했었고 이불안에 풀도 하고.)

107047 @1 으.(으.)

107047 #4 옷에 풀도 허곡.(옷에 풀도 하고.)

107047 @1 예.(예.)

107047 #4 경 헤난.(그렇게 했었어.)

107047 @1 아, 그런 식.(아, 그런 식.)

107047 #4 우리 할머니네 허는 거 봐난.(우리 할머니네 하는 거 봤었어.)

107047 @1 예, 풀 ㄱ레예?(예, 풀매에?)

107047 #4 그 풀 ㄱ레도 아무디나 엇영.(그 풀매도 아무데나 없어서.)

107047 @1 으.(으.)

107047 #4 아무디나 엇영 허믄 우리 할머니넨 그거 성 허믄 즈꿋디 동네 사름덜 다 오랑 글아가곡 경 헤난.(아무데나 없어서 하면 우리 할머니넨 그거 있어서 하면 곁에 동네 사름들 다 와서 갈아가고 그렇게 했었어.)

107047 @1 으.(으.)

107047 #4 경 헤난.(그렇게 했었어.)

107047 @1 게믄 아까 늬, 늬뻬짐치 그 크게 썰영 담으는 그 순서는 어떤 식으로 담야? 거는?(그러면 아까 무, 무김치 그 크게 썰어서 담그는 그 순서는 어떤 식으로 담가? 거는?)

107047 #4 순서는게 그것도게 그 싱근지라고 저 무시거 소금물 많이 허여 놓곡게 그 늬뻬도.(순서는 그것도 그 싱근지라고 저 무엇 소금물 많이 해 놓고 그 무도.)

107047 @1 으.(으.)

107047 #4 뉘게 허여근앵에 기냥 온찬 그 준 건 허여도 큰 건 영 벌르곡게 경 허여근에게.(되게 해서 그냥 통젠 그 잔 건 하여도 큰 건 이렇게 쪼개고 그렇게 해서.)

107047 @1 으.(으.)

107047 #4 그 ㄱ 소금물 ㄱ 맞춘 것에 등강.(그 ㄱ 소금물 ㄱ 맞춘 것에 담가서.)

107047 @1 예.(예.)

107047 #4 경 허영 허곡. 옛날 어른들은 그 짐치도 그것저것 무신 맛 좋게 허주 기 허연 돈 들 거 아까와근에 경 허연 먹었어?(그렇게 해서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 짐치도 그것저것 무슨 맛 좋게 하지 해서 돈 들 거 아까워서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47 @1 예.(예.)

107047 #4 지금, 지금이나 춤 꼬끔이라도 맛 좋게 허영 먹젠덜 막 다 허엿주기. 옛날은 돈 들 생각만 허곡게.(지금, 지금이나 참 꼬끔이라도 맛 좋게 해서 먹으려고 들 막 다 하였지. 옛날은 돈 들 생각만 하고.)

젓갈

107048 @1 맞수다. 삼촌 젓갈은 어떤 거 답아봅디가?(맞습니다. 삼촌 젓갈은 어떤 것 답가봅디까?)

107048 #4 뭘 젓갈?(뭘 젓갈?)

107048 @1 젓갈. 바닷에 허연 젓갈 허는 거? 아까 멜젓처럼.(젓갈. 바다에 해서 젓갈 하는 거? 아까 멀치젓처럼.)

107049 #4 멜젓?(멀치젓?)

107049 @1 으.(으.)

107049 #4 멜젓은게 멜젓도게.(멀치젓은 멀치젓도.)

107049 @1 으.(으.)

107049 #4 멜 게영 폴레 땡겜 시민 그거 사근엔에 기냥 소금 버물영이.(멀치 그 래서 팔러 다니고 있으면 그거 사서 그냥 소금 버무려서.)

107049 @1 으.(으.)

107049 #4 망데기에 딱 허영, 그 국물 우터레 올라와야 뭘 헌덴 허여근에 딱 돌 지둘와근에 경. 경 아녀른 그 내음새 마황 쉬프리 그 왕프리가 프리덜이 그 똥 싸 민 그 냄새에 똥 싸민 버랭이 켜덴 허영. 딱 영 허영 뭘 험벅.(‘망데기’에 딱 해서, 그 국물 위로 올라와야 뭘 한다고 해서 딱 돌 지질러서 그렇게. 그렇게 앓으면 그 냄새 맡아서 쉬파리 그 왕파리 파리들이 그 똥 누면 그 냄새에 똥 누면 벌레 쫓다고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뭘 형죵.)

107049 @1 으.(으.)

107049 #4 이 기지 헤여근에 딱 둘러쌍.(이 천 해서 딱 둘러싸서.)

107049 @1 으.(으.)

107049 #4 지금은 고무줄도 흔했주마는 옛날은 그런 것이 셋어?(지금은 고무주 도 흔했지만 옛날은 그런 것이 있었어?)

107049 @1 으.(으.)

107049 #4 무신거 허영 그 미⁴⁹²⁾, 저 무시거 신늘 옛날은 초신 삼을 때난 그런 걸로 허여근에 딱 졸라메곡. 무신 몰르레기 봉가당 졸라메곡.(무엇 해서 그 ‘미’, 저

492) ‘미’는 역새꽃을 찢던 속껍질을 말한다.

무엇 신날 옛날은 짚신 삼을 때니까 그런 걸로 해서 딱 줄라매고. 무슨 ‘몰르레기’ ‘봉가다가’ 줄라매고.)

107049 @1 으.(으.)

107049 #4 지금 마뜨민 고무줄로 허영 허주마는.(지금 같으면 고무줄로 해서 하지만.)

107049 @1 으.(으.)

107049 #4 경헌 옛날 어른덜 춤 뒀헌 세상 살안.(그런 옛날 어른들 차 뒀한 세상 살았어.)

107050 @1 게든 그 멜컷 헐 때 소금허고 멜허고 분량은 어느 정도 놔마씨?(그러면 그 멀치젓 할 때 소금하고 멀치하고 분량은 어느 정도 놔요?)

107050 #4 경 허난 것도 그 지금 자리젓 허듯기.(그렇게 하니까 것도 그 지금 자리젓 하듯이.)

107050 @1 예.(예.)

107050 #4 알아맞창 지금이나. 영 서꺼 보명이.(알아맞혀서 지금이나. 이렇게 섞어 보면서.)

107050 @1 으.(으.)

107050 #4 경 허난 저 그때 경 곱아났어.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마뜨난 저 멜컷 혼 말, 자리젓,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혼 말에 소금 저 반싱⁴⁹³ 하나.(그렇게 하니까 저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 자리젓이나 멀치젓이나 같으니까 저 멀치젓 한 말, 자리젓, 자리젓이나 멀치젓이나 한 말에 소금 저 ‘반싱’ 하나.)

107050 @1 음.(음.)

107050 #4 반싱 하나 영 허영 허든 곤 맞넌 곱안.(‘반싱’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간 맞는다고 말했어.)

107050 @1 게난 혼 말에 반싱으로 하나예?(그러니까 한 말에 ‘반싱’으로 하나요?)

107050 #4 녀 돼. 녀 돼가 혼 말 아니게?(녀 되. 녀 되가 한 말 아니?)

107050 @1 예.(예.)

107050 #4 게난 반싱 하나 혜영은에 버무령 허민 곤 맞아.(그러니까 ‘반싱’ 하나 해서 버무리서 하면 간 맞아.)

107050 @1 반싱 하나레 허면은?(‘반싱’ 하나에 하면?)

107050 #4 지금 돼싱 돼 반게.(지금 되 반.)

107050 @1 으, 걸로 반으로예, 혼 말에 소금은 반만 놓든 돼는 거.(으, 걸로 반으로요, 한 말에 소금은 반만 놓으면 되는 거.)

107050 #4 저.(저.)

107050 @1 그 저 돼로?(그 저 되로?)

107050 #4 으, 자리젓이나 멜젓이나.(으, 자리젓이나 멀치젓이나.)

493) ‘반싱[半升]’은 반 되 크기의 되를 말한다.

107050 @1 멜젓이나 똑ㄱ타예? 어.(멜치젓이나 똑같다고요? 어.)

107050 #4 경 근 맞넨. 경 곶아낫어.(그렇게 간 맞다고. 그렇게 말했었어.)

107050 @1 으.(으.)

107050 #4 경 허난 나도 헤연 먹어나신디 잊어 불언, 이젠 문 몰라.(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서 먹었었는데 잊어 버려서, 이젠 몽땅 몰라.)

107050 @1 삼촌은 자리젓을 하영 헛수가? 멜젓을 하영 헛수가?(삼촌은 자리젓을 많이 했습니까? 멜치젓을 많이 했습니까?)

107050 #4 난 멜젓 경 하영 아녀고, 자리젓 기자 쪼끔씩이.(난 멜치젓 그렇게 많이 않고, 자리젓 그저 쪼끔씩.)

107050 @1 으.(으.)

107050 #4 망데기 요만인 현 것에 헤영 조끔 헤영 허문 춤 벌겅게 허문 양념해 놓른 맛 좋넨덜 허멍.(‘망데기’ 요만큼 한 것에 해서 조끔 해서 하면 참 벌겅게 하면 양념해 놓으면 맛 좋다고들 하면서.)

107049 @1 음, 게난 자리젓 맛 좋게 담으는 법 곶아쥐 볶서, 게문.(음, 그러니까 자리젓 맛 좋게 담그는 법 말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107049 #4 그계 소금 근 맞으민 맛 좋은 거주기계.(그계 소금 간 맞으면 맛 좋은 거지.)

107049 @1 아. 게난 딱 그거는 소금으로만 근해?(아, 그러니까 딱 그거는 소금으로만 간해?)

107049 #4 으, 소금으로만계.(으, 소금으로만.)

107049 @1 게문 나중에 허문.(그러면 나중에 하면.)

107049 #4 멜젓도 그거 자리젓도 그거계.(멜치젓도 그거 자리젓도 그거.)

107049 @1 음, 먹을 땐 게문 어떤 식으로 헤영 먹는 거?(음, 먹을 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먹는 거?)

107049 #4 먹을 때는 딱 익으민게. 익으민 춤 자리젓도 익으민이 쿠싱헌 냄새 나.(먹을 때는 딱 익으면. 익으면 참 자리젓도 익으면 구수한 냄새 나.)

107049 @1 음, 그런 옛날에는 반찬이렌 현 게 자리젓.(음, 그런 옛날에는 반찬이라고 한 게 자리젓.)

107049 #4 그거계. 자리젓. 웬장 기자 그거. 지금은 웬장 양념허는 것도 꿰어 뒤 거 문 마농도 뺏아 농곡 다 허주마는. 옛날은 그런 거 저런 거 원 헐 총사 몰랑 것산디 아까완 것산디 경헌 양념을 경 아녕 먹어.(그거. 자리젓. 된장 그저 그거. 지금은 된장 양념하는 것도 참깨다 뒤 별 거 몽땅 마늘도 빵아 놓고 다 하지만. 옛날은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할 줄이야 몰라서 것인지 아까워서 것인지 그런 양념을 그렇게 얹아서 먹어.)

107051 @1 음, 게문 옛날에 생선으로 헤영은에 우리 생선 어우생이렌 험니까? 뒤 영?(음, 그러면 옛날에 생선으로 해서 우리 생선 아가미라고 합니까? 뒤 이렇게?)

107051 #4 으, 아우생이.(으, 아가미.)

107051 @1 아우생이. 아우생이로도 저기?(아가미. 아가미로도 저기?)

107051 #4 젓 허여난.(젓 했었어.)

107051 @1 아, 젓 헤여낫수가? 건 무신 젓?(아, 젓 했었습니까? 건 무슨 젓?)

107051 #4 알게미젓이라고.(아감젓이라고.)

107051 @1 아.(아.)

107051 #4 그거 고기 그 아우생이이.(그거 고기 그 아가미.)

107051 @1 으.(으.)

107051 #4 그 저 고등어 아우생이나 아무거나도 경 허여근에 거문 창지 부청 이.(그 저 고등어 아가미나 아무거나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창자 붙여서.)

107051 @1 예.(예.)

107051 #4 그 창지에도 그 고기 똥창지가 시민 그거 똥 영 빠똥.(그 창자에도 그 고기 창자가 있으면 그거 똥 이렇게 빼두고.)

107051 @1 으.(으.)

107051 #4 빠똥근에 아우생이 ㄴ치 허영 젓, 그것 ㄴ라 알게미젓.(빠똥서 아가미 같이 해서 젓, 그것보고 아감젓.)

107051 @1 알게미젓?(아감젓?)

107051 #4 알게미젓 경 ㄴ 맞게 허민 맛 좋넌 허여낫주게.(아감젓 그렇게 간 맞게 하면 맛 좋다고 했었지.)

107051 @1 삼촌도 알게미젓 허영 먹어봤?(삼촌도 아감젓 해서 먹어봤어요?)

107051 #4 허여 먹어봤.(해 먹어봤어.)

107051 @1 아, 게민 주로 고등어?(아, 그러면 주로 고등어?)

107051 #4 고, 그 창지.(고, 그 창자.)

107051 @1 으.(으.)

107051 #4 고등어 창지나 각제기 창지나게 그.(고등어 창지나 전갱이 창지나 그.)

107051 @1 으.(으.)

107051 #4 저 갈치라도 거 창지이, 창지젓 ㄴ란 알게미젓.(저 갈치라도 거 창자, 창지젓보고 아감젓.)

107051 @1 예, 건 아우생이영 ㄴ치 낱예?(예, 건 아가미랑 같이 놔서요?)

107051 #4 ㄴ치 낱. 게 큰 거세기랑 떼여 불곡이.(같이 놔서. 게 큰 거시기는 떼어 버리고.)

107051 @1 으.(으.)

107051 #4 막 벌겨진 아우생이랑 떼여 불곡 경 허연에. 허연 허여난. 아이그, 옛날. 옛날 어른덜 춤 뒤 허게 살단 돌아가션. 웃음.(막 벌어진 아가미는 떼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서 했었어. 아이고, 옛날. 옛날 어른들 참 뒤 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웃음.)

107052 @1 음, 그거는 알게미젓. 그다음 강이도 젓 해마씨?(음, 그거는 아감젓. 그다음 게도 젓 해요?)

107052 #4 강이젓도 맛 좋지. 강이젓 헐 댐이.(게젓도 맛 좋지. 게젓 할 댐.)

107052 @1 으.(으.)

107052 #4 그뎐이 콩 보깡 서깡.(그뎐 콩 볶아서 섞어서.)

107052 @1 그걸 한번 곱아줘 볶서. 어떤 식으로 해신디.(그걸 한번 말해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했는지.)

107052 #4 강이젓게 허민게 강이 잡아 오민이.(게젓 하면 게 잡아 오면.)

107052 @1 으.(으.)

107052 #4 든물에 커근에 흐뎀 짠 거 쫄물 흐뎀 빼여두곡 기냥 그 강이젓 콩 보깡 서깡게.(단물에 담가서 조금 짠 거 쫄물 조금 빼어두고 그냥 그 게젓 콩 볶아서 섞어서.)

107052 @1 예.(예.)

107052 #4 장물에게.(간장에.)

107052 @1 음.(음.)

107052 #4 간장 낱 영 근 맞창 기자 경 허연.(간장 놔서 이렇게 간 맞춰서 그저 그렇게 했어.)

107052 @1 게민예, 강이가 어떤 종류로 해 갖고 강이는?(그러면요, 게가 어떤 종류로 해 갖고 게는?)

107052 #4 강이게, 춤강이⁴⁹⁴ 싯곡 식강이⁴⁹⁵ 잇어.(게, ‘춤강이’ 있고 ‘식강이’ 잇어.)

107052 @1 예.(예.)

107052 #4 춤강이엔 현 건 기냥 춤 이제 이 아래도 거세기 허영 허민 춤강이엔 현 거고 식강인 그 등뎐이가 알록알록 흐뎀 거무룽허곡이.(‘춤강이’라고 한 건 그냥 참 이제 이 아래도 거시기 해서 하면 ‘춤강이’라고 한 거고 ‘식강이’는 그 등뎐이가 알록알록 조금 거무스레하고.)

107052 @1 예.(예.)

107052 #4 춤강이엔 현 건 경 아녕, 경 아녀주게. 경 현 것ᄇ란 춤강이.(‘춤강이’라고 한 건 그렇게 안해서, 그렇게 안하지. 그렇게 한 것보고 ‘춤강이’.)

107052 @1 으.(으.)

107052 #4 흐뎀 얼룩얼룩현 건 흐뎀 강이도 커.(조금 얼룩얼룩한 건 조금 게도 커.)

107052 @1 으.(으.)

107052 #4 돌고망에만 박아지곡 경 허영 현 것ᄇ란 식강이엔 허곡.(돌구멍에만 박히고 그렇게 해서 한 것보곤 ‘식강이’라고 하고.)

494) ‘춤강이’는 개의 일종이다.

495) ‘식강이’는 개의 일종이다. 등껍질 무늬가 삼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107052 @1 음.(음.)

107052 #4 경 허여.(그렇게 해.)

107052 @1 케민 젓 담글 때는 무신걸로 담그는 거?(그러면 젓 담글 때는 무엇으로 담그는 거?)

107052 #4 그 찰갠이로.(그 ‘찰갠이’로.)

107052 @1 찰갠이로. 거는 색깔이 혼 가지우파?(‘찰갠이’로. 거는 색깔이 한 가지입니까?)

107052 #4 찰갠이, 거 이 지금 오일장에도 갠이젓 푸는 디 실 거라.(‘찰갠이’, 거 이 지금 오일장에도 게젓 푸는 데 있을 거야.)

107053 @1 으, 갠이젓 하고예? 그다음에 옛날에는 반찬 허민 출레렌 곶아서예?(으, 게젓 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반찬 하면 ‘출레’라고 말했지요?)

107053 #4 출레.(‘출레’.)

107053 @1 무사 출레렌 헛수가?(왜 ‘출레’라고 했습니까?)

107053 #4 그 지금은 반찬 그 신식 말인디 옛날은 아이고, 출레 지지라. 몰라게. 무신 뜻으로산디.(그 지금은 반찬 그 신식 말인데 옛날은 아이고, ‘출레’ 조려라. 몰라. 무슨 뜻으로인지.)

107053 @1 으.(으.)

107053 #4 아이고, 강 출레라도 지지사 저녁 먹컬. 밧디 강 일허당도.(아이고, 가서 ‘출레’라도 조려야 저녁 먹을걸. 밧에 가서 일하다가도.)

107053 @1 으.(으.)

107053 #4 아이고, 강 출레라, 출레라도 지지사 밥 먹컬. 웬장국이라도 끌리곡 출레 지지사 허컬 허민 젓부지⁴⁹⁶).(아이고, 가서 ‘출레’라, ‘출레’라도 조려야 밥 먹을걸. 된장국이라도 끓이고 ‘출레’ 조려야 할 걸 하면 ‘젓부지’.)

107053 @1 음.(음.)

107053 #4 그런 것도 지정 먹어난, 옛날은.(그런 것도 조려서 먹었어, 옛날은.)

107053 @1 으.(으.)

107053 #4 지정. 자리젓도 지지곡이 저 멜젓도 한 거 허영 지지곡.(조려서. 자리젓도 조리고 저 멀치젓도 한 거 해서 조리고.)

107053 @1 으.(으.)

107053 #4 경 허연.(그렇게 했었어.)

107053 @1 걸 젓부지엔 헉니까?(걸 ‘젓부지’라고 합니까?)

107053 #4 지금은 젓부지엔 허는디 옛날은 그것⁷란 무신 자리젓이민 자리젓 지금은, 도 자리젓이민 자리젓 멜젓은 멜젓이엔 허는디.(지금은 ‘젓부지’라고 하는데 옛날은 그것보고 무슨 자리젓이면 자리젓 지금은, 도 자리젓이면 자리젓 멀치젓은 ‘멜젓’이라고 하는데.)

496) ‘젓부지’는 자리젓이나 멀치젓 따위를 가지고 지진 음식을 말한다.

107053 @1 으.(으.)

107053 #4 옛날도 경 허연. 그것ㄴ라 그 짜니까 출레렌. 무사산디 출레 강, 출레 라도 지저사 밥 먹컬 경 헤난.(옛날도 그렇게 했어. 그것보고 그 짜니까 ‘출레’라고. 왜인지 ‘출레’ 가서, ‘출레’라도 조려야 밥 먹을걸 그렇게 했었어.)

107053 @1 으, 게믄 출레 지지는 건 뭘로 지지는 거라마씨?(으, 그러면 ‘출레’ 조리는 건 무엇으로 조리는 거예요?)

107053 #4 뭘로게, 자리젓도 지지민 그 거세기 허곡, 멜젓도 지지민 뉘허곡게 그거게, 그거.(무엇으로, 자리젓도 조리면 그 거시기 하고, 멸치젓도 조리면 뉘하고 그거, 그거.)

107053 @1 게믄 그것은 뉘에서 지젓수가?(그러면 그것은 뉘에서 조렸습니까?)

107053 #4 그 지금은 냄비에덜 허는디 옛날은 그 몰라게. 흐뵂 냄비라도 꺼멍헌 거 흐뵂 뚜꺼운 거 우리 할머니 적에 우리 어린 때에 헤영 보민 그것ㄴ라 사용⁴⁹⁷ 이엔 헨가. 자꾸 즈주 사용허는 거난.(그 지금은 냄비에들 하는데 옛날은 그 몰라. 조금 냄비라도 꺼먼 거 조금 두꺼운 거 우리 할머니 적에 우리 어린 때에 해서 보면 그것보고 ‘사용’이라고 하던가. 자꾸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107053 @1 으.(으.)

107053 #4 그런 뜻인 거 닻아. 지금 생각에.(그런 뜻인 거 같아. 지금 생각에.)

107053 @1 예, 예.(예, 예.)

107053 #4 그 사용에 놉근엿에 그 출레 지저, 지저사 밥 먹컬이, 경.(그 ‘사용’에 놉서 그 ‘출레’ 조려, 조려야 밥 먹을걸, 그렇게.)

107053 @1 음.(음.)

107053 #4 경 헤난.(그렇게 했었어.)

107053 @1 사용에예?(‘사용’에요?)

107053 #4 사용에.(‘사용’에.)

107053 @1 게믄 그거는?(그러면 그거는?)

107053 #4 까망헌 거.(까만 거.)

107053 @1 까망헌 거예? 어, 혹시 이 전복꺽데기.(까만 거요? 어, 혹시 이 전복 꺽.)

107053 #4 그런, 그런.(그런, 그런.)

107053 @1 거평?(전복꺽.)

107053 #4 거평. 그, 그런 것에도 옛날은이 무시거 멜젓 ㄴ똥 거 낱 바글바글 지정도 떡곡 경 헛주게.(전복꺽. 그, 그런 것에도 옛날은 무엇 멸치젓 같은 거 놉서 바글바글 조려서도 먹고 그렇게 했지.)

107053 @1 으.(으.)

107053 #4 오죽 어려와사 경허카. 냄비 어려왕, 냄비도 못 상이, 경 전복꺽데기 큰 거.(오죽 어려워야 그럴까. 냄비 어려워서, 냄비도 못 사서, 그렇게 전복꺽 큰

497) ‘사용’은 정확히 어떤 그릇인지 알 수 없지만 제보자는 그릇 이름으로 사용한 것 같다.

거.)

107053 @1 예.(예.)

107053 #4 그거.(그거.)

107053 #1 경 허영 헛덴 허명예. 게문 그거는 어떤 식으로 헤영 거기 놓는 거라 마씨? 거기 고망도 이신디.(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 놓는 거예요? 거기 구멍도 있는데.)

107053 #4 그거 허영 허문게 고망 어떻 허영 뿔으로사 막암신디 막아근엥에 허문 그것도 그 영헌 사이, 그 무시거 영 그 시발췌 닳은 거 영 헌 거 싯주게.(그거 해서 하면 구멍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야 막고 있는지 막아서 하면 그것도 그 이런 사이, 그 무엇 이렇게 삼발이 닳은 거 이렇게 한 거 있지.)

107053 @1 예.(예.)

107053 #4 경 허민 그레 앓져근엥에 그것에 알로 불 슴양.(그렇게 하면 그리로 앓혀서 그것에 아래로 불 때서.)

107053 @1 음, 경 허영 그게 출레라예?(음, 그렇게 해서 그게 반찬이네요?)

107053 #4 경 허난 출레 지지라, 경.(그렇게 하니까 ‘출레’ 조려라, 그렇게.)

107053 @1 으. 출레 지지라, 경.(으, ‘출레’ 조려라, 그렇게.)

107053 #4 출레 지지라 헌 건, 그 짠 것 말로사 그것산디 무사산디 기자 경, 경 굴아. 출레나 지저사 밥 먹컬, 경.(‘출레’ 조려라 한 건, 그 짠 것 말로야 그것인지 왜인지 그저 그렇게, 그렇게 말해. ‘출레’나 조려야 밥 먹을걸, 그렇게.)

107053 @1 으, 게문 그거에 영 장 적시멍 먹는 거라예?(으, 그러면 그거에 이렇게 장 적셔서 먹는 거네요?)

107053 #4 그거 적정 먹주기게. 그거 지금 우리 고기반찬 먹듯기.(그거 적셔서 먹지. 그거 지금 우리 고기반찬 먹듯이.)

107053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53 #4 경 허연. 아이고.(그렇게 했어. 아이고.)

장아찌와 회

107054 @1 예, 경 허영 허고. 그다음 여기 지들도 하영 담양 먹어수가?(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 여기 장아찌들도 많이 담가서 먹었습니까?)

107054 #4 으.(으.)

107054 @1 마농지나, 허는 지?(마늘장아찌나, 하는 장아찌?)

107054 #4 지, 마농지게. 아이고, 옛날은 마농지도 어려왕이.(장아찌, 마늘장아찌. 아이고, 옛날은 마늘장아찌도 어려워서.)

107054 @1 으.(으.)

107054 #4 우짖을 경 싯곡 경 헤도 그거 흥뽀만 뭘 허영 허문 지만큼은 먹을 건디 옛날은 그 어려운 때난 웨정시대 공출덜 막 허영 춤. 이 춤 보리 공출이.(터알을 그렇게 있고 그렇게 해도 그거 조금만 뭘 해서 하면 장아찌만큼은 먹을 건데 옛

날은 그 어려운 때니까 왜정시대 공출들 막 해서 참. 이 참 보리 공출이.)

107054 @1 예.(예.)

107054 #4 그런 거 다 쫄 ㄴ쁜 거 콩 ㄴ쁜 거 공출 해 불민 경 어려왕 허영 허
른, 밥을 경 배부른 밥을 삼실 못 먹었거든.(그런 거 다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공
출 해 버리면 그렇게 어려워서 해서 하면, 밥을 그렇게 배부른 밥을 삼실 못 먹었
거든.)

107054 @1 으.(으.)

107054 #4 경 허영 허른 우리도 어려운 때에 마농지 헤여근에 그건 거 일 년
반찬으로 허는 거라.(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도 어려운 때에 마늘장아찌 해야 그건
거 일 년 반찬으로 하는 거야.)

107054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54 #4 어른덜이.(어른들이.)

107054 @1 예.(예.)

107054 #4 장항뒤에 망데기에 허영 허른 그거 그 굴른 거 뭐 사 먹을 것도 웃
곡 이제 겨영 허른 배고프곡 뭐 헌 땀 그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나 알민 그거 경 먹
업젠 옥허카부텐 모르게.(장독대에 ‘망데기’에 해서 하면 그거 그 군 거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하면 배고프고 뭐 할 땀 그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나 알면
그거 그렇게 먹고 있다고 옥할까봐서 모르게.)

107054 @1 으.(으.)

107054 #4 모르게 마농지 허영 슬째기 앗앙 찢영도 먹곡 헤여난.(모르게 마늘장
아찌 해서 살짝 가져다가 찢어서도 먹고 했었어.)

107054 @1 으, 모르게.(으, 모르게.)

107054 #4 모르게.(모르게.)

107054 @1 으, 간식으로예?(으, 간식으로요?)

107054 #4 간식으로. 그거 간식이명 말명 기자 그 심심허난게 경계. 그거, 그거
입주정으로 경 먹었주기에. 아이고.(간식으로. 그거 간식이며 말며 그저 그 심심하
니까 그렇게. 그거, 그거 주전부리로 그렇게 먹었었어. 아이고.)

107056 @1 웃음. 경 허면은 그럼 마농지처럼 지 담가 먹는 거는 뭇로, 무슨 지
담양 먹언마씨?(웃음. 그렇게 하면 그럼 마늘장아찌처럼 장아찌 담가 먹는 거는 무
엇으로, 무슨 장아찌 담가서 먹었어요?)

107056 #4 지게, 마농지도 장물 놔근에.(장아찌, 마늘장아찌도 간장 놔서.)

107056 @1 으.(으.)

107056 #4 장물 꿰왕이, 저 장물도 꿰우민 더운 때 놔 불민 그것이 익어 불영
안 돼주.(간장 끓여서, 저 간장도 끓이면 더운 때 놔 버리면 그것이 익어 버려서 안
되지.)

107056 @1 으.(으.)

107056 #4 꿰, 꿰우는 건 무사 꿰와신고 허민 마농진 아멩해도 장물ㄴ찌 덜 찼

거 아니라. 소금을 허더라 해도.(끓, 끓이는 건 왜 끓였는가 하면 마늘장아찌 아무래도 간장처럼 덜 짠 거 아닌가. 소금을 허더라 해도.)

107056 @1 예.(예.)

107056 #4 경 허난 변허지 말렌 허영 장물을 변허지 말렌 궤왕 장물을 궤왕 식형.(그렇게 하니까 변하지 말라고 해서 간장을 변하지 말라고 끓여서 간장을 끓여서 식혀서.)

107056 @1 으.(으.)

107056 #4 식형 그 마농지에도 넣고 아무 늪빠지에도 농곡 경.(식혀서 그 마늘 장아찌에도 넣고 아무 무장아찌에도 넣고 그렇게.)

107055 @1 아, 늪빠지도 헤 먹언예?(아, 무장아찌도 해서 먹었다고요?)

107056 #4 으, 으.(으, 으.)

107056 @1 옛날도?(옛날도?)

107056 #4 으, 늪빠지.(으, 무장아찌.)

107056 @1 아.(아.)

107056 #4 늪빠 썰어근에 늪빠지.(무 썰어서 무장아찌.)

107055 @1 게문 늪빠지도 허고.(그러면 무장아찌도 하고.)

107055 #4 늪빠도이.(무도.)

107055 @1 예.(예.)

107055 #4 썰어근엔에 흐끔 크게 썰영.(썰어서 조금 크게 썰어서.)

107055 @1 으.(으.)

107055 #4 그거 썰영 그걸 물리와근에 시들시들허게 물리와근엔 허영 지 헐 때엔 물에 등갓당.(그거 썰어서 그걸 말려서 시들시들허게 말려서 해서 장아찌 할 때엔 물에 담갔다가.)

107055 @1 으.(으.)

107055 #4 등갓당 경 허문 경 맛 좋아.(담갔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맛 좋아.)

107055 @1 아.(아.)

107055 #4 시들황.(시들게 해서.)

107055 @1 시들황예?(시들게 해서요?)

107055 #4 등갓당.(담갔다가.)

107055 @1 게문 크기는 어떤 식으로?(그러면 크기는 어떤 식으로?)

107055 #4 게난 요 지러기 허곡게, 아메도게 기자 영 허영 흐끔 두껍게 썰영.(그러니까 요 길이 하고, 아마도 그거 이렇게 해서 조금 두껍게 썰어서.)

107055 @1 아.(아.)

107055 #4 두껍게 썰영 지로게.(두껍게 썰어서 장아찌로.)

107055 @1 지로예? 아.(장아찌로요? 아.)

107055 #4 반찬으로 먹을 거난. 경 험 늪빠지.(반찬으로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무장아찌.)

107055 @1 으.(으.)

107055 #4 마농지 그거.(마늘장아찌 그거.)

107055 @1 마농지. 또 여긴 반추지 이런 것도 해놔수가?(마늘장아찌. 또 여긴 파초방아찌 이런 것도 했었습니까?)

107055 #4 반출?(파초?)

107055 @1 반추렌 현 말 안 들어반? 반치.(‘반추’라고 한 말 안 들어봤어요? 파초.)

107055 #4 안 들어반.(안 들어봤어.)

107055 @1 혹시 뭉으로도? 찰뭉 행도.(혹시 모자반으로도? ‘찰뭉’ 해서도.)

107055 #4 으, 찰뭉⁴⁹⁸은이.(으, ‘찰뭉’은.)

107055 @1 으.(으.)

107055 #4 옛날 우리 할머니네 허는 거 우리 어린 때에 봐나신디 장을 뜸을 거 아니? 항아리에 장을 뜸은 찰뭉 해여다근엔에 저 ㄱ꺠 시켜똥 빨아똥이.(옛날 우리 할머니네 하는 거 우리 어릴 때에 봤었는데 장을 뜸글 거 아니? 항아리에 장을 뜸그면 ‘찰뭉’ 해다가 저 꺠꺠이 씻어두고 빨아두고.)

107055 @1 으.(으.)

107055 #4 바닷물 빨아똥근엔에 저 물 딱 짱 장항에 영 켕.(바닷물 빨아두고 저 물 딱 짜서 장독에 이렇게 답가서.)

107055 @1 으.(으.)

107055 #4 웬장 그 이영 담은 때에 웬장 거리기 전의.(된장 그 이랑 담은 때에 된장 뜨기 전에.)

107055 @1 으.(으.)

107055 #4 켕 허영 장물에 컷다근엔에 그걸 반찬으로 흐뭍씩 허영 먹어똥주게. 그것 ㄱ꺠 뭉치.(그렇게 해서 간장에 답꺠다가 그걸 반찬으로 조금씩 해서 먹었었지. 그것보고 모자반장아찌.)

107055 @1 켕 뭉치예, 예. 켕뭉 뭉치는 물랑은에 놓는 거우파? 아니면은?(켕 모자반장아찌요, 예. 그러면 모자반장아찌는 말려서 넣는 꺠니까? 아니면?)

107055 #4 아니 기냥게, 그 빨아근에게.(아니 그냥, 그 빨아서.)

107055 @1 놀 거?(날 거?)

107055 #4 놀 거.(날 거.)

107055 @1 아.(아.)

107055 #4 물론 뭉이라도 찰 놀 거라도 그 물리와근에 물리왓당 거 빨앙게.(마른 모자반이어도 찰 날 거여도 그 말려서 말리었다가 거 빨아서.)

107055 @1 아, 물리왓당은에 빨앙은에 켕 행.(아, 말렸다가 빨아서 그렇게 해서.)

107055 #4 빨아근에 장항에 켕 등가, 등가근에.(빨아서 장독에 그렇게 답가, 담

498) ‘찰뭉’은 모자반의 한 종류다.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이서 ‘찰(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서.)

107055 @1 으.(으.)

107055 #4 경 허른 그거 흥뽀 건져당 찢이멍 그걸 반찬으로 경 먹었주. 겨난 그것ㄴ라 몐치.(그렇게 하면 그거 조금 건져다가 찢으면서 그걸 반찬으로 그렇게 먹었지, 그리니까 그것보고 모자반장아찌.)

107055 @1 예, 몐치. 게른 이제 바당 걸로 허는 거는 몐치 하나?(예, 모자반장아찌. 그러면 이제 바다 걸로 하는 거는 모자반장아찌 하나?)

107055 #4 그거게.(그거.)

107055 @1 으.(으.)

107055 #4 몐치.(모자반장아찌.)

107057 @1 쟁, 그다음에 바당에 걸로 휘 헤 먹는 고기는 어떤 거 잊어났수가?(그래서, 그다음에 바다에 걸로 회 헤 먹는 고기는 어떤 거 있었었습니까?)

107057 #4 휘 허영 먹는 건게, 그때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상어 ㄴ쁜 거어.(회 해서 먹는 건, 그때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상어 같은 거.)

107057 @1 상어, 예.(상어, 예.)

107057 #4 상어 ㄴ쁜 거 건 기자 경 헤난.(상어 같은 거 건 그저 그렇게 했었어.)

107057 @1 상어는 휘 먹는 게 어떤, 이름은 어떤 상어?(상어는 회 먹는 게 어떤, 이름은 어떤 상어?)

107057 #4 상, 그건 몰르커라. 상어엔만 허난게, 상어, 상어휘 헤영 먹게, 상어 휘 헤영 먹게. 경헌 말만 주로 들어난.(상, 그건 모르겠어. 상어라고만 하니까, 상어, 상어회 해서 먹자, 상어회 해서 먹자. 그런 말만 주로 들었었어.)

107057 @1 상어휘예?(상어회요?)

107057 #4 지금은 사시미도 떡곡 상어로 다 햄실 거라게.(지금은 회로도 먹고 상어로 다 하고 있을 거야.)

107057 @1 으음, 그다음에 자리도 물휘 ㄴ쁜 건 허지예? 자리휘.(으음, 그다음에 자리돔도 물회 같은 건 하지요? 자리돔휘.)

107057 #4 으, 자리도 자리 비늘 거시려똥이, 거시려똥은에 읍가지 꼴랑지 다 헤 똥근에 비늘 거시령 허민 나풀나풀나풀 썰어근에 허당 머리똥덜을 실 거 아니라?(으, 자리돔도 자리돔 비늘 거슬러똥이, 거슬러똥이 옆지느러미 꼬리 다 헤 똥이 비늘 거스러서 하면 나풀나풀나풀 썰어서 하다가 머리똥덜을 있을 거 아니야?)

107057 @1 으.(으.)

107057 #4 머리똥덜은 ㄴ로 헤영 낫당 닥닥닥 막 좇아.(머리똥들은 따로 해서 똥다가 닥닥닥 막 마아.)

107057 @1 예.(예.)

107057 #4 막 좇아근엔에 허른 그 옛날 어른덜 거세기 허른 머리똥을 좇아 놔사 자리똥이 맛 좋나.(막 마아서 하면 그 옛날 어른들 거시기 하면 머리똥을 마아

놔야 자리돔회가 맛 좋다.)

107057 @1 음.(음.)

107057 #4 그거 꼴박세기⁴⁹⁹) 그 거세기에 그 지름이 이시니까 그런 거 허영 머리뺨은 막 좇아놔.(그거 ‘꼴박세기’ 그 거세기에 그 지름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해서 머리뺨은 막 마아 놔.)

107057 @1 으.(으.)

107057 #4 자린 기냥 영 쏘쏘 흐뎡 줘야 먹은 것 닻게.(자리돔은 그냥 이렇게 송송 조금 집어 먹을 것 같게.)

107057 @1 예.(예.)

107057 #4 그 술은 먹곡 자린 머리뺨은 막 좇앙.(그 술은 먹고 자리돔은 머리뺨은 막 마아서.)

107057 @1 으.(으.)

107057 #4 좇아 놔근에. 경 헤여사 그 머리뺨 좇아놔사 자리돔회가 맛 좋앙.(마아 놔서. 그렇게 해야 그 머리뺨 마아 놔야 자리돔회가 맛 좋아서.)

107057 @1 으, 요즘은 경 거의 다 찼라 부는디예? 으.(으, 요즘은 그렇게 거의 다 찼라 버리는데요? 으.)

107057 #4 옛날은 그걸, 그걸 헤여근에 놔사 맛 좋넨.(옛날은 그걸, 그걸 해서 놔야 맛 좋다고.)

107057 @1 음, 그다음에 예전에 그 도새기새끼훤 이런 것들도 헤냏어예?(음, 그다음에 예전에 그 돼지새끼회 이런 것들도 했었지요?)

107057 #4 도새기새끼게. 도새기새끼 그 돼야지 잡은 때에게.(돼지새끼. 돼지새끼 그 돼지 잡을 때에.)

107057 @1 아.(아.)

107057 #4 잡은 때에, 역볼 거 크는 새끼 아녀고.(잡을 때에, 부러 거 크는 새끼 앓고.)

107057 @1 으.(으.)

107057 #4 도새기 새끼 뺨 돼야지 잡을 거 아니가? 아니라게.(돼지 새끼 뺨 돼지 잡을 거 아니야? 아니야.)

107057 @1 으.(으.)

107057 #4 먹썰일 때에든지 기냥 옛날은 먹썰일 때 아니라도 고기덜 지금 ㄴ치 판장 웃인 때난.(먹썰일 때에든지 그냥 옛날은 먹썰일 때 아니어도 고기들 지금처럼 식육점 없을 때니까.)

107057 @1 예.(예.)

107057 #4 먹고프민 돼야지 추렴이나 허카? 경 허연.(먹고프면 돼지 추렴이나 할까? 그렇게 해서.)

107057 @1 으.(으.)

499) ‘꼴박세기’는 머리뺨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107057 #4 그런 말 들어났어. 우리 돼야지 추렴이나 허영 먹카? 경헌 말 들어났어. 경 허영 허믄 그 춤 새끼 밴 도새길 허영 허믄 그 새끼훤⁵⁰⁰)는.(그런 말 들었었어. 우리 돼지 추렴이나 해서 먹을까? 그런 말 들었었어.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참새끼 밴 돼질 해서 하면 그 ‘새끼회’는.)

107057 @1 으.(으.)

107057 #4 그 도새기새끼훤⁵⁰¹). (그 ‘돼지새끼회’.)

107057 @1 으.(으.)

107057 #4 그것도 훤 허영 먹고. 아이고, 경 헤난.(그것도 회 해서 먹고. 아이고, 그렇게 했었어.)

107057 @1 예. 그다음에 이제 조림 같은 거?(예. 그다음에 이제 조림 같은 거?)

107057 #4 조림?(조림?)

107057 @1 예.(예.)

107057 #4 조, 조림은게 그 고기 ㄴ쁜 거게 졸르는 것ㄴ라 조림, 조림이엔 허는 거주기게.(조, 조림은 그 고기 같은 거, 조리는 것보고 조림, 조림이라고 하는 거지.)

107057 @1 게난 졸르는 거는 어떤 고기덜 헛수가?(그러니까 조리는 거는 어떤 고기들 했습니까?)

107057 #4 갈치도 허여근엥에 그 옛날은 그 어려운 때난에 갈치 계속 쓰는 사람덜토 셔났어.(갈치도 해서 그 옛날은 그 어려운 때니까 갈치 제수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

107057 @1 으.(으.)

107057 #4 거 환전동으로(?). 경 허믄 풀랭이 머리뺍. 경 허영 졸랑.(거 환전동으로(?). 그렇게 하면 꼬리 머리뺍. 그렇게 해서 조려서.)

107057 @1 으.(으.)

107057 #4 그거 허영 반찬으로 꺼문숯되 허여근엥에 춤 낭불로 허영 ㄴ늘게 허영 낭불 베통허게 허영. 우리 할머니네 경 곤는 말 들언. 폭허게 잘 허여근에 허영 졸라사 빼다구영 즈근즈근 씹영 먹어진다 경 허곡.(그거 해서 반찬으로 검은술에 해서 참 나뭇불로 해서 가늘게 해서 나뭇불 반하게 해서. 우리 할머니네 그렇게 말하는 말 들었어. 폭하게 잘 해서 해서 조려야 빼다귀랑 차근차근 씹어서 먹어진다 그렇게 하고.)

107057 @1 으, 으.(으, 으.)

107057 #4 경도 허곡 경 허여난.(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

107057 @1 으, 자리 같은 거는 경 허영 허믄 맛 좋아예?(으, 자리돔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하면 맛 좋지요?)

107057 #4 자리도게 잘 지지민 맛 좋주기.(자리돔도 잘 조리면 맛 좋지.)

500) ‘새끼훤’는 돼지의 태를 잘게 다진 후에 물과 마늘, 식초, 참기름 등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음식이다.

501) ‘도새기새끼훤’는 돼지의 태를 잘게 다진 후에 물과 마늘, 식초, 참기름 등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음식이다.

107057 @1 으, 졸랑 먹는덴 허고예? 우럭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헤영 먹어?
(으, 조려서 먹는다고 하고요? 우럭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먹어?)

107057 #4 우럭, 우럭도 춤 우럭이 가시가 세지. 잘 졸랑 먹어사 헌덴 허영 잘
졸랑 먹어. 지금도 경 허여, 우럭은.(우럭, 우럭도 참 우럭이 가시가 세지. 잘 조려
서 먹어야 한다고 해서 잘 조려서 먹어. 지금도 그렇게 해, 우럭은.)

107057 @1 예.(예.)

107057 #4 잘 조려사게. 경 허곡 저 흐끔 뭐 허영 허민이 우럭 졸를 때도 콩
이.(잘 조려야. 그렇게 하고 저 조금 뭐 해서 하면 우럭 조릴 때도 콩이.)

107057 @1 예.(예.)

107057 #4 콩 낱 조리민 콩도 맛 좋곡.(콩 놔서 조리면 콩도 맛 좋고.)

107057 @1 으.(으.)

107057 #4 콩도 맛 좋아.(콩도 맛 좋아.)

107057 @1 또 마농지도 낱 조리지 안협니까?(또 마늘장아찌도 놔서 조리지 않
습니까?)

107057 #4 마농지도 놓곡. 그 늘래 난 고기니까 마농도 낱 지지민 마농지도 맛
좋곡. 그 콩 낱 졸르다, 콩 그 허여근에 허영 졸르민 콩도 그 고깃물 들엉.(마늘장
아찌도 놓고. 그 비린내 나는 고기니까 마늘도 놔서 조리면 마늘장아찌도 맛 좋고.
그 콩 놔서 조리다, 콩 그 해서 해서 조리면 콩도 그 고깃물 들어서.)

107057 @1 으.(우.)

107057 #4 거도 반찬으로게.(거도 반찬으로.)

107057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57 #4 지금 어디 경 허는 사름 셔게?(지금 어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107057 @1 경 허니까.(그렇게 하니까.)

107057 #4 옛날은.(옛날은.)

107057 @1 옛날 그런 게 더 맛 존디.(옛날 그런 게 더 맛 좋은데.)

107057 #4 아이고, 옛날 어른덜 춤.(아이고, 옛날 어른들 참.)

107057 @1 으.(으.)

107057 #4 먹어볼 거 못 먹어봐 돌아가섯주기.(먹어볼 거 못 먹어봐서 돌아가섯
지.)

107057 @1 고사리도 허영은에 하영 반찬 헛수가?(고사리도 해서 많이 반찬 했
습니까?)

107057 #4 고사리 보깡도 먹곡 저 고사리국⁵⁰²은이.(고사리 볶아서도 먹고 저
고사릿국은.)

107057 @1 으.(으.)

107057 #4 돼야지 백다귀 그거 허영 막 딸령이.(돼지 뼈다귀 그거 해서 푹 고아

502) '고사릿국'은 돼지고기 육수에 고사리를 넣어서 푹 끓인 음식을 말한다. 오늘날의 육개장과 비슷한 음식이
다.

서.)

107057 @1 으.(으.)

107057 #4 딸렁 싹 건져근엥에 저도 허곡 저 기냥 고사리국은 돼야지 그 갈리 빼.(고아서 싹 건져서 저도 하고 저 그냥 고사릿국은 돼지 그 갈비빼.)

107057 @1 예.(예.)

107057 #4 판장에 강이.(식육점에 가서.)

107057 @1 예.(예.)

107057 #4 그런 거 사당 나도 멧 번 아이덜 주곡 불런 주고 해봐신디. 판장에 강 등빼 빼다귀이.(그런 거 사다가 나도 멧 번 아이들 주고 불려서 주고 해봤는데. 식육점에 가서 등빼 빼다귀.)

107057 @1 예.(예.)

107057 #4 그거 허영 사당 폭 딸려근엥에 허른 그게 가운데 등빼에 골, 골이영 그 윗갈리 그 술이영 부뜨주기게.(그거 해서 사다가 폭 고아서 하면 그게 가운데 등 빼에 골, 골이랑 그 옆갈비 그 살이랑 붙지.)

107057 @1 으.(으.)

107057 #4 경 허영 허른 가지 탁탁 털으민 고기도 많이 나와. 경 허른 고사리 숲양 고사리에 그 고기에.(그렇게 해서 하면 가지 탁탁 떨면 고기도 많이 나와. 그렇게 하면 고사리 삶아서 고사리에 그 고기에.)

107057 @1 으.(으.)

107057 #4 ㄹ치 낱 막 무르췌영⁵⁰³이. 무르췌영 고사리 썰어 놓, 고사리도 지니까 썰어야지. 경 허른 막 무르췌여근에 허영 그것에도 밀ㄹ리나 쪼끔 집 쪼끔 허 텅.(같이 놔서 막 ‘무르췌어서’. ‘무르췌어서’ 고사리 썰어 놓, 고사리도 기니까 썰어야지. 그렇게 하면 막 ‘무르췌어서’ 해서 그것에도 밀가루나 쪼끔 깃 쪼끔 흘어서.)

107057 @1 으.(으.)

107057 #4 쪼끔 허터근에 허영 허른 나, 나도 춤 딸네 사위덜 불런, 웃음. 맥여 난, 자꾸. 경 허영 허른 저 신제주⁵⁰⁴ 우리 죽은딸도 사는디 경 허영 오랑 먹을다 허민 와났어. 웃음.(쪼끔 흘어서 해서 하면 나, 나도 참 딸네 사위들 불려서, 웃음. 먹였었어, 자꾸. 그렇게 해서 하면 저 신제주 우리 작은딸도 사는데 그렇게 해서 와서 먹을래 하면 왔었어. 웃음.)

107057 @1 음, 고사리국 행은에예?(음, 고사릿국 해서요?)

107057 #4 사위덜이여.(사위들이다.)

107057 @1 삼촌이 그 고사리국을 잘 허는구나예?(삼촌이 그 고사릿국을 잘 하는군요?)

107057 #4 경 해연 고사리국 끌렛저 오랑 먹으라 경 허민, 경 오라난.(그렇게 해서 ‘고사리국’ 끓였다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왔었어.)

503) ‘무르췌다’는 짓무르게 주무르다는 의미다.

504) ‘신제주’는 민간에서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지역을 일컫는 이름이다. 이와 상대해서 예전에 도심이 형성된 제주시는 ‘구제주’라고 한다.

107057 @1 예, 곁 고사리국.(예, 곁 고사릿국.)

107057 #4 고사리국.(고사릿국.)

107057 @1 으.(으.)

107057 #4 고사리국 허곡 동네에 저 무신 큰일이 성이 잔치나 무신 대소상 때 라도 허민 웨야질 춤 기냥 웨야지로 사당 잡아근엥에 허지, 허여낫주기. 경 허영 허 른 그 국물에 또 경헌 집의서도 또 고사리국을 끌령은에 즈긋 되셔.(고사릿국 하고 동네에 저 무슨 큰일이 있어서 잔치나 무슨 대소상 때여도 하면 돼질 참 그냥 돼지 로 사다가 잡아서 하지, 했었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 국물에 또 그런 집에서 또 ‘고사릿국’을 끓여서 곁에서.)

107057 @1 음.(음.)

107057 #4 춤 강 심바람 헌 사름들 경 맥이곡 경 해난.(참 가서 심부름 한 사 람 들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했었어.)

107057 @1 고사리국 행예? 예, 그.(고사릿국 해서요? 예, 그.)

107057 #4 몬, 몬국이나 고사리국이나 ㄱ뜨주기게. 몬국도 경 허영 허민 맛 좋 곡, 고사리국도 경 허영.(모자반, 모자반국이나 고사릿국이나 같지. 모자반국도 그런 게 해서 하면 맛 좋고, 고사릿국도 그렇게 해서.)

107057 @1 음, 옛날은 물웨들도 허영 같아서예?(음, 옛날은 물외들도 많이 같았 지요?)

107057 #4 으. 아이고, 물웨 갈아근에 허민 물웨냉국게.(으. 아이고, 물외 갈아서 하면 물외냉국.)

107057 @1 예.(예.)

107057 #4 물웨냉국 허영 여름엔 주로 허영 떡곡 경 허연.(물외냉국 해서 여름 엔 주로 해서 먹고 그렇게 했어.)

107057 @1 물웨는 냉국 행 떡곡. 호박도 반찬 허영 헤영 먹었지예?(물외는 냉 국 해서 먹고. 호박도 반찬 많이 해서 먹었지요?)

107057 #4 호박도게 이 제, 기일 제사 때도 호박채소도 헤낫주기게.(호박도 이 제, 기일 제사 때도 호박채소도 했었지.)

107057 @1 음.(음.)

107057 #4 호박채소도 채로 안 허영이 옛날은 기냥 춤 요만씩 요만씩 우리 지 금 저 무시거 국 끌리젠 허민 썰دت기.(호박채소도 채로 안 해서 옛날은 그냥 참 요 만큼씩 요만큼씩 우리 지금 저 무엇 국 끓이려고 하면 썰دت이.)

107057 @1 으.(으.)

107057 #4 그치록 썰어근엥에 호박채⁵⁰⁵.(그처럼 썰어서 ‘호박채’.)

107057 @1 호박채.(‘호박채’.)

107057 #4 떡썰일 때에.(‘떡썰일’ 때에.)

107057 @1 떡썰일 때에예. 것도 호박채. 계민 식게칩 가면은 그 호박채 헤영

505) ‘호박채’는 호박을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썰어서 삶은 후에 소금과 참깨 등을 넣고 무친 음식이다.

취났어예?(‘떡썰일’ 때예요. 것도 ‘호박채’. 그러면 제삿집 가면 그 ‘호박채’ 해서 줬었지요?)

107057 #4 호박채, 호박채, 호박채 경.(‘호박채’, ‘호박채’, ‘호박채’ 그렇게.)

107058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계난 옛날 반찬이렌 허면 봄에 주로 해 먹는 반찬은 어떤 거 했수가?(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옛날 반찬이라고 하면 봄에 주로 해 먹는 반찬은 어떤 거 했습니까?)

107058 #4 봄에 주로 해영 먹는 건 옛날게 무시거. 옛날 반찬 경 험 먹었어게. 기냥 춤 무시거 해영, 봄, 봄엔 그 난시 썩마농 그런 거 나난이.(봄에 주로 해서 먹는 건 옛날 무엇. 옛날 반찬 그렇게 해서 먹었어. 그냥 참 무엇 해서, 봄, 봄엔 그 냉이 달래 그런 거 나니까.)

107058 @1 으.(으.)

107058 #4 그런 거 허영 우갓이 셔도 무사산디 그런 걸 경 캐레 땡겨났어.(그런 거 해서 터알이 있어도 왜인지 그런 걸 그렇게 캐러 다녔었어.)

107058 @1 예.(예.)

107058 #4 우리도 할머니네 우갓도 싯곡 경 막 뭉 허여도 경.(우리도 할머니네 터알도 있고 그렇게 막 뭉 해도 그렇게.)

107058 @1 으.(으.)

107058 #4 친구덜이영 경 미나리 캐레 그런 썩마농, 난시.(친구들이랑 그렇게 미나리 캐러 그런 달래, 냉이.)

107058 @1 으.(으.)

107058 #4 그런 거 경. 캐나, 캐 와났어.(그런 거 그렇게. 캐나, 캐 왔었어.)

107058 @1 봄에는 그런 거. 여름에는?(봄에는 그런 거. 여름에는?)

107058 #4 여름, 여름에는 벨다른 그 거세기가 엇언 기자. 기자 이녁 우영에 누 물이나 갈양 기자 경 허영 허곡 여름에 역불 밥 하영 현 거 닳아. 이제 생각엔.(여름, 여름에는 벨다른 그 거시기가 없어서 그저. 그저 이녁 터알에 배추나 갈아서 그저 그렇게 해서 하고 여름에 부러 밥 많이 한 거 같아. 이제 생각에는.)

107058 @1 으.(으.)

107058 #4 밥 해여근에 해영 그 쉰다리이 허영 허믄 밧디 강 일 허영 왕 더운 때 여름에 썩은이.(밥 해서 해서 그 ‘쉰다리’ 해서 하면 밧에 가서 일 해서 와서 더울 때 여름에 썩은.)

107058 @1 으.(으.)

107058 #4 그거 허영 확허게 혼 그릇씩 들이싸곡 씨윈, 아이고, 씨윈허영 좋다.(그거 해서 확허게 한 그릇씩 들이켜고 시원, 아이고, 시원해서 좋다.)

107058 @1 예.(예.)

107058 #4 허는 말 들어난.(하는 말 들었었어.)

107058 @1 음, 계믄 여름엔 경 허곡 가을에는?(음, 그러면 여름에 그렇게 하고 가을에는?)

107058 #4 가을에는 기냥계. 기냥 기자 국 끌리곡 다 아메도 그런 냉국은 안 좋지.(가을에는 그냥. 그냥 그저 국 끓이고 다 아마도 그런 냉국은 안 좋지.)

107058 @1 예, 예.(예, 예.)

107058 #4 가을에 경 허난 경 허연.(가을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

107058 @1 예. 겨울에 같은 데는 뭐?(예. 겨울에 같은 데는 뭐?)

107058 #4 경 허곡, 우리 할머니네 적엔 우잣이 널르곡 감냥이 우잣에 빙허게 싱거난.(그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네 적엔 터알이 너르고 감나무가 터알에 빙허게 심었었어.)

107058 @1 아.(아.)

107058 #4 감 잘 올곡. 산물냥⁵⁰⁶이라고이. 그 저 그거 지금은 산, 중간엔 이 지금은 뿔엔사 곤는지 중간엔 산물이엔도 허곡 옛날은 정꿀엔 헛났어. 그것ㄴ라.(감 잘 열고. ‘산물냥’이라고. 그 저 그거 지금은 산, 중간엔 이 지금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중간엔 ‘산물’이라고도 하고 옛날은 ‘정꿀’이라고 했었어. 그것보고.)

107058 @1 아.(아.)

107058 #4 정꿀.(‘정꿀’.)

107058 @1 정꿀?(‘정꿀’?)

107058 #4 요만씩 현 거 감만씩 현 거 요만씩 현 거이, 것도 아무 집의나 엇어.(요만큼씩 한 거 감만큼씩 한 거 요만큼씩 한 거, 것도 아무 집에나 없어.)

107058 @1 예, 예.(예, 예.)

107058 #4 그 나무를. 우리 할머니넨 그 장손이고 그런 먹쌀일을 주로 허니까 우영에 그 남을 싱건. 막 켜, 잘도 켜.(그 나무를. 우리 할머니넨 그 장손이고 그런 먹쌀일을 주로 하니까 터알에 그 나무를 심어서. 아주 커서, 잘도 커서.)

107058 @1 으.(으.)

107058 #4 경 허난 그 그것ㄴ라 정꿀엔 곶아낫주게. 경 허영 올민 그거 막 익형.(그렇게 하니까 그 그것보고 ‘정꿀’이라고 말했었지. 그렇게 해서 열면 그거 막 익혀서.)

107058 @1 예.(예.)

107058 #4 익혀근엔에 탕 그것도 허영 그 망데기에이. 짹 깔명 그치록 허명.(익혀서 따서 그것도 해서 그 ‘망데기’에. 짹 깔면서 것처럼 하면서.)

107058 @1 으.(으.)

107058 #4 칭칭이 낫당은엔에 그걸 과일로 경 썬난.(층층이 낫다가 그걸 과일로 그렇게 썬었어.)

107058 @1 과일로.(과일로.)

107058 #4 지금ㄴ치 사과여 배여 무시거영 옛날 허엿어? 과일 썬어게? 경 허난 그것도 먹쌀일 허는 집이나 그거 경 허곡. 아무 집의나 그것도 엇어난. 그 나무가.

506) ‘산물냥’은 글의 한 가지다. 제보자에 따르면 ‘산물’을 ‘정꿀’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정꿀’은 동정 글을 가리키는 것 같다.

(지금같이 사과다 배다 무엇이든 옛날 했어? 과일 썼어?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먹
쓸일 하는 집이나 그거 그렇게 하고. 아무 집이나 그것도 없었어. 그 나무가.)

107058 @1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예?(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요?)

장 담그기

107059 @1 삼촌, 옛날은 집집마다 다 장들 담았잖아양?(삼촌, 옛날은 집집마다
다 장들 담았잖아요?)

107059 #4 장게.(장.)

107059 @1 장은 언제 담아마씨?(장은 언제 담가요?)

107059 #4 장은 저 봄에 담아야 잘 우리나라 꼭넌 허영 봄에 담주기게.(장은 저
봄에 담아야 잘 우리나라 꼭넌 해서 봄에 담그지.)

107059 @1 으.(으.)

107059 #4 겨울에, 가을 들어가민[뜨러가민] 메주 콩 삶았어.(겨울에, 가을 들
어가면 메주 콩 삶아서.)

107059 @1 예.(예.)

107059 #4 콩 삶아근영에 그거 허영 불르던지 마개로 뺏던지 헤영 메줏덩어리
멘들아근영에 돌아매주기. 짬 허여근에.(콩 삶아서 그거 해서 밍든지 방망이로 뺏든
지 해서 메줏덩이 만들어서 매달지. 짬 해서.)

107059 @1 예.(예.)

107059 #4 영 허영. 영헌 디 마리에 영 허영 돌아매영 허민 그것이, 그것도 메
주도 잘 텅.(이렇게 해서. 이런 데 마루에 이렇게 해서 매달아서 하면 그것이, 그것
도 메주도 잘 떠서.)

107059 @1 으.(으.)

107059 #4 헤영헌 곰팍 피멍 잘 터야 장이 맛 좋넌.(하얀 곰팡이 피면서 잘 떠
야 장이 맛 좋다고.)

107059 @1 으.(으.)

107059 #4 맛 좋넌 헤났어게. 경 허여근에 돌아매영 그거 경 허영 허민. 봄 나
민 정월 나민 그 가을에 다.(맛 좋다고 했어. 그렇게 해서 매달아서 그거 그렇게
해서 하면. 봄 되면 정월 되면 그 가을에 다.)

107059 @1 으.(으.)

107059 #4 가을에 그걸 허영 삶아 돌아매여근에 뭐 허영 허민 정월 나민 장 듭
으면 봄 나야 장도 잘 우려난덴.(가을에 그걸 해서 삶아서 매달아서 뭐 해서 하면
정월 되면 장 담그면 봄 되어야 장도 잘 우려난다고.)

107059 @1 예.(예.)

107059 #4 뜻아야 우려난덴 경 허영 경 ****.(따뜻해야 우려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

107059 @1 음.(음.)

107059 #4 답아난.(답갔었어.)

107059 @1 케른 장허곡 영 갈라야 될 거 아니우파예?(그러면 장하고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요?)

107059 #4 경 허른 메주 건저근에.(그렇게 하면 메주 건저서.)

107059 @1 으.(으.)

107059 #4 찢어근에 망데기 따로 허곡. 장물은 장물대로 경.(찢어서 ‘망데기’ 따로 하고. 간장은 간장대로 그렇게.)

107059 @1 케난 그거는 장 갈르는 건 언제?(그러니까 그거는 장 나누는 건 언제?)

107059 #1 봄, 봄에.(봄, 봄에.)

107059 @1 아, 봄에. 담는 거는 겨울에 담앗다가?(아, 봄에. 담그는 거는 겨울에 담갔다가?)

107059 #4 으, 가을에, 가을에.(으, 가을에, 가을에.)

107059 @1 가을에 담앗다가 으으.(가을에 담갔다가 으으.)

107059 #4 동지 선들 나가민 그걸 헤영 솥아근에 경 허영 담으민 경 허여.(동지 선달 되가면 그걸 해서 삶아서 그렇게 해서 담그면 그렇게 해.)

107060 @1 음, 게도 이제 장, 장도 그 종류가 이십니까? 뭐 웬장?(음, 그래도 이제 장, 장도 그 종류가 있습니까? 뭐 된장?)

107060 #4 아니, 종류는 엇어. 우린 기냥 그 메주 허영 소금 곶앙 향아리에 들이청 기자 허영 허른 그거 발강케 우러나주기, 장이, 잘 돼민.(아니, 종류는 없어. 우린 그냥 그 메주 해서 소금 갈아서 향아리에 들이뜨려서 그저 해서 하면 그거 발강케 우러나지, 장이, 잘 되면.)

107060 @1 으.(으.)

107060 #4 발강케 일어나. 경 허난 장항도 자주 올라야.(발강케 일어나. 그렇게 하니까 장독도 자주 열어야.)

107060 @1 으.(으.)

107060 #4 벧 맞혀야.(벧 맞혀야.)

107060 @1 으.(으.)

107060 #4 경 아녀민 곰팍 피어 불곡이. 경 허난에 자꾸 장항을 올라사.(그렇게 않으면 곰팡이 피어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장독을 열어야.)

107060 @1 으.(으.)

107060 #4 벧 난 때마다 올라사.(벧 날 때마다 열어야.)

107060 @1 으, 곰팡이를 곰팍이렌 험니까?(으, 곰팡이를 ‘곰팍’이라고 합니까?)

107060 #4 그, 그것 ㄴ라 곰팡이 핀덴 허주기. 지금은 곰팍 핀덴 허지마는.(그, 그것보고 곰팡이 핀다고 하지. 지금은 곰팡이 핀다고 하지만.)

107060 @1 으.(으.)

107060 #4 그때는 예그, 장항 자꾸 올라사 경 아녀민 곰팡이 피영, 곰팡이 피영,

경.(그때는 예그, 장독 자꾸 열어야 그렇게 얹으면 곰팡이 피어서, 곰팡이 피어서, 그렇게.)

107061 @1 으, 곰팡이 피영예, 예? 그다음에 고치장도 담아난마씨?(으, 곰팡이 피어서요, 예? 그다음에 고추장도 담갔었어요?)

107061 #4 고치장은 안 담아봐.(고추장은 안 담가봤어.)

107061 @1 아, 고치장은 안 담아보고예?(아, 고추장은 안 담가보고요?)

107061 #4 옛날이사 고치장 담곡 경허지 아녀, 마농진 담앗지마는 고치장은 안 담앗주기게.(옛날에야 고추장 담그고 그렇게 하지 않아, 마늘장아찌 담갔지만 고추장은 안 담갔지.)

107061 @1 으.(으.)

107061 #4 마농진 그거 반찬으로 그자 줘야 먹젠 허민 그 밧디 가도 마농지 가 경장 거 반찬으로.(마늘장아찌 그거 반찬으로 그저 집어 먹으려고 하면 그 밧에 가도 마늘장아찌 가져가서 거 반찬으로.)

107061 @1 예.(예.)

107061 #4 밥하고 기자 그 마농지나 가져강 먹영. 김치 ㄴ쁜 거 옛날이사 헤여 봤어게 아녜트주기. 마농지 주장.(밥하고 그저 그 마늘장아찌나 가져가서 먹어서. 김치 같은 거 옛날이야 해 봤어, 안했지. 마늘장아찌 주장.)

107061 @1 마농지 주장예. 게난 그 장 담젠 해도 웬장으로만 허지 않고 거기에 밥을 보리밥을 행 논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해판마씨?(마늘장아찌 주장요. 그러니까 그 장 담그려고 해도 된장으로만 하지 않고 거기에 밥을 보리밥을 해서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107061 #4 기냥 우린 콩만 삶앙.(그냥 우린 콩만 삶아서.)

107061 @1 아, 삼촌넌 콩만 삶안 허연예?(아, 삼촌넌 콩만 삶아서 했다고요?)

107061 #4 콩 삶아근에 그 영 방엿혹으로 뺏아근에 문짝 뺏아근에 그거 메줏덩 어리 이만씩 허영. 경 허영.(콩 삶아서 그 이렇게 방아혹으로 뺏아서 문짝 뺏아서 그거 메줏덩이 이만큼씩 해서. 그렇게 해서.)

107062 #4 돌아매영은에. 찢으로 영 허영 으깬 돌아매영 허민 그거 그것도 잘 터사 장맛 좋넌 헤낫어.(매달아서. 찢으로 이렇게 해서 엮어서 매달아서 하면 그거 그것도 잘 떠야 장맛 좋다고 했었어.)

107062 @1 음.(음.)

107062 #4 곱게 터야.(곱게 떠야.)

107062 @1 터야예?(떠야요?)

107062 #4 그것도 거멍헌 곰팍이나 피여 불민 안 좋.(그것도 거면 곰팡이나 피어 버리면 안 좋.)

107062 @1 음.(음.)

107062 #4 넌 허곡 경 허연.(다고 하고 그렇게 했어.)

107063 @1 그래도 메주 삶을 때는 날 뺑 허지 안헛니까양?(그래도 메주 삶을

때는 날 봐서 하지 않습니까요?)

107063 #4 날 뺏.(날 봐서.)

107063 @1 어떤 날 뺏은에 허는 거?(어떤 날 봐서 하는 거?)

107063 #4 그거 득날 ㄱ튼 때가 좋넨.(그거 닭날 같은 때가 좋다고.)

107063 @1 으.(으.)

107063 #4 그 득날 이치적으로게 그거주기게. 득날은 득이 고달이영 빨강허곡 경 허난 득날. 경 허곡 저 그거 장 듭글 때도 이녁 본명일엔 안 듭넨 헤낫어.(그 닭날 이치적으로 그거지. 닭날은 닭이 벗이랑 빨강고 그렇게 하니까 닭날. 그렇게 하고 저 그거 장 닭글 때도 이녁 본명일엔 안 닭근다고 했었어.)

107063 @1 음.(음.)

107063 #4 경 헤낫어.(그렇게 했었어.)

107063 @1 본명일에 안 닭고.(본명일에 안 닭그고.)

107063 #4 경 글아난.(그렇게 말했었어.)

107063 @1 예. 그다음에 또 장 그 저 메주 쓸 때라도 어느 헤치 헐 때는 안 닭는 헤치도 잊지 않으우까?(예. 그다음에 또 장 그 저 메주 쓸 때라도 어느 띠 할 때는 안 닭그는 띠도 잊지 않습니까?)

107063 #4 경 현, 저 그 믈날 ㄱ튼 때에이.(그렇게 한, 저 그 말날 같은 때에.)

107063 @1 음.(음.)

107063 #4 득날 ㄱ튼 때에 그것이 좋넨.(닭날 같은 때에 그것이 좋다고.)

107063 @1 으, 믈날허고 득날허고예? 예. 본명일 안 하고. 음, 그다음?(으, 말날 하고 닭날하고요? 예, 본명일 안 하고. 음, 그다음?)

107063 #4 득도게 고달이 빨강허고게 뭐 허난 우리 생각, 지금 생각인디 그때 전에 우리 생각도 못 헤신디.(닭도 벗이 빨강고 뭐 하니까 우리 생각, 지금 생각인 데 그때 전에 우리 생각도 못 했는데.)

107063 @1 으.(으.)

107063 #4 지금 생각엔 득도 기자 고달이 빨강허곡 뭐 허곡 뭐, 뭐, 뺏이든지 무슨 집안에 일 발리젠 해도 믈날이 집안에 본명일만 엇으민.(지금 생각엔 닭도 그 저 벗이 빨강고 뭐 하고 뭐, 뭐, 뺏이든지 무슨 집안에 일 발리려고 해도 말날이 집안에 본명일만 없으면.)

107063 @1 으.(으.)

107063 #4 믈날이 좋넨 헤낫주게.(말날이 좋다고 했었지.)

107063 @1 아, 믈날이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장 닭을 때라든가 그 이제 메주 쓸 때도 경 날 보고.(아, 말날이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장 닭글 때라든가 그 이제 메주 쓸 때도 그렇게 날 보고.)

107063 #4 으, 날 봐.(으, 날 봐.)

107063 @1 장 갈를 때도 날 보고?(장 가를 때도 날 보고?)

107063 #4 아니, 장 걸를 때엔 경현 날은 경 안 환 기자 뺏헐디. 닭을 때.(아니,

장 거를 때엔 그런 날은 그렇게 안 봐서 그저 뭐한데. 담글 때.)

107063 @1 담을 때.(담글 때.)

107063 #4 담을 때 날 뽕은에 담아.(담글 때 날 봐서 담가.)

107063 @1 메주 쏘 때 날 보고 담을 때 보고 그것도 똑ㄹ타마씨? 날이.(메주 쏘 때 날 보고 담글 때 보고 그것도 똑같아요? 날이.)

107063 #4 으, 경 저 그것도 일 년 먹을 그 뭐시기난 날을 뽕 허는 거엔 곱아 난, 옛날 어른덜.(으, 그렇게 저 그것도 일 년 먹을 그 무엇이니까 날을 봐서 하는 거라고 말했었어, 옛날 어른들.)

107063 @1 음.(음.)

107063 #4 일 년 먹는 거니까 날 보고.(일 년 먹는 거니까 날 보고.)

107063 @1 으.(으.)

107063 #4 담는 사람 본명일에 아니 허곡.(담그는 사람 본명일에 아니 하고.)

107063 @1 으.(으.)

107063 #4 경 헌텐.(그렇게 한다고.)

107063 @1 으, 그치록 허영은에 날, 저기 장들 막 고려 부는 사람덜도 있어예? (으, 그처럼 해서 날, 저기 장들 막 고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107063 #4 장 그런 건 그건 어떻 근해 못 맞춘 거주게. 싱겨우나 어떻 허민 장 을 고려 부는 거.(장 그런 건 그건 어떻게 간해서 못 맞춘 거지. 싱겁거나 어떻게 하면 장을 고려 버리는 거.)

107063 @1 음.(음.)

107063 #4 싱겁거나 어떻 허민 허영. 우린 옛날 그, 그 혼 허벅에.(싱겁거나 어떻게 하면 해서. 우린 옛날 그, 그 한 허벅에.)

107063 @1 예.(예.)

107063 #4 물 허벅 씻지 아녀? 물 혼 허벅에 소금 웨싱 석 웨 곱민 꼭 좋넨 곱 아난.(물 허벅 있지 않아? 물 한 허벅에 소금 되 석 되 갈면 꼭 좋다고 말했었어.)

107063 @1 음.(음.)

107063 #4 경 허연 헤여난.(그렇게 해서 했었어.)

107063 @1 음.(음.)

107063 #4 경헌디 허벅은 웃인, 허벅을 웃어 부난 허벅 웃인 때엔 바가수이.(그 런데 허벅은 없는, 허벅을, 없어 버리니까 허벅 없을 때엔 양동이로.)

107063 @1 예.(예.)

107063 #4 바가수 저 보통 바가수 혼 허벅에 두 개.(양동이 저 보통 양동이 한 허벅에 두 개.)

107063 @1 으.(으.)

107063 #4 그 가량 허영.(그 가량 해서.)

107063 @1 으.(으.)

107063 #4 바가수 두 바가수민 혼 허벅 가량 그치록 허연 장 담아난.(양동이 두

양동이면 한 허벅 가랑 것처럼 해서 장 담갔었어.)

107063 @1 음, 계란 보통 옛날에는 이제 허벅에 물 질어 오난예?(음,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이제 허벅에 물 질어 오니까요?)

107063 #4 으, 물 질어근에. 계란 허벅으로 짐작허여근에 거세기. 계란 흔 허벅에 소금 돼싱 석 돼 허민 꼭 좋넨 경 해난.(으, 물 길어서. 그러니까 허벅으로 짐작해서 거시기. 그러니까 한 허벅에 소금 되 석 되 하면 꼭 좋다고 그렇게 했었어.)

107063 @1 으, 경 허여근에 장 담곡. 계란 그 장 하면 갈르면 하나는 웬장이고?(으, 그렇게 해서 장 담그고. 그러면 그 장 하면 가르면 하나는 된장이고?)

107063 #4 하난 그 간장계.(하난 그 간장.)

107063 @1 간장을 여기서 뭇엔 불러낫수가?(간장을 여기서 무엇이라고 불렀었습니까?)

107063 #4 간장, 이젠 잊어불커라, 그 간장ㄴ라.(간장, 이젠 잊어버리겠어. 그 간장보고.)

107063 @1 장물?(간장?)

107063 #4 장물, 으. 장물. 장물 거려 오라, 경.(간장, 으. 간장. 간장 떠 와라, 그렇게.)

107063 @1 으.(으.)

107063 #4 장물 거려 오라, 경.(간장 떠 와라, 그렇게.)

107063 @1 장물이엔 해서예? 예. 삼춘, 막 지치우파?(‘장물’이라고 했지요? 예. 삼춘, 많이 지칩니까?)

107063 #4 아니, 무사 지쳐?(아니, 왜 지쳐?)

107063 @1 웃음. 안 지쳐?(웃음. 안 지쳐?)

107063 #4 웃음.(웃음.)

떡류

107064 @1 계란 옛날 그 식게 허젠 허민 떡들 헛잖아양? 떡 종류는 어떤 떡들 떡 종류들 해낫수과? 떡 종류 쪽 글아줘 봅서? 한번.(그러면 옛날 그 제사 하려고 하면 떡들 헛잖아요? 떡 종류는 어떤 떡들 떡 종류들 했었습니까? 떡 종류 쪽 말해줘 보십시오? 한번.)

107064 #4 떡도이, 중간엔 그자 허지 좋게 이녁 즈유로 이녁 생각대로 쉽게 허난 지금은 송편 주장 아니?(떡도, 중간엔 그저 하기 좋게 이녁 자유로 이녁 생각대로 쉽게 하니까 지금은 송편 주장 아니?)

107064 @1 예.(예.)

107064 #4 설기떡허고 송편 주장인디 그 옛날은 저 모멸 헤여근엔에 반죽허영 막 돛베에 영 헤영 큰 그 안반돛베에 놔근에 거 미는 걸로 허영 막 널리 밀어근에 그 판이 셔.(백설기하고 송편 주장인데 그 옛날은 저 메밀 해서 반죽해서 막 도마에 이렇게 해서 큰 그 안반에 놔서 거 미는 걸로 해서 막 널리 밀어서 그 판이 있어.)

107064 @1 으.(으.)
 107064 #4 뜨는 그 종갓집 그런 던 판이.(뜨는 그 종갓집 그런 덴 판.)
 107064 @1 예.(예.)
 107064 #4 경 허영 허른 그 그것에 헤영 은절민 영 영 끊어근에 영 밀어낱 끈
 어근엿에 건 이녁 생각대로 끊으민 돼는다.(그렇게 해서 하면 그 그것에 해서 인절
 민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밀어놔서 끊어서 건 이녁 생각대로 끊으면 되는
 데.)
 107064 @1 으.(으.)
 107064 #4 세미⁵⁰⁷ 뜨는 그 판⁵⁰⁸이 있어.(‘세미’ 뜨는 그 ‘판’이 있어.)
 107064 @1 예.(예.)
 107064 #4 세미떡 허는 건.(‘세미떡’ 하는 건.)
 107064 @1 으.(으.)
 107064 #4 똥글락헌 거. 그걸로 허영 떠근에 그 쫓 그레 쪼끔 쉬 담양이.(동근
 거. 그걸로 해서 떠서 그 팔 그리로 조금 소 담아서.)
 107064 @1 예.(예.)
 107064 #4 좁아근에.(집어서.)
 107064 @1 으.(으.)
 107064 #4 좁아근엿에 허곡. 그것 ㄴ란 세미은절미⁵⁰⁹.(집어서 하고. 그것보고
 ‘세미인절미’.)
 107064 @1 세미은절미?(‘세미은절미’?)
 107064 #4 또 저 지금은 쉽게 뭐 헌 사름은 들반착⁵¹⁰이여 뵈여 허영 허는다
 옛날은 그 흰떡으로이.(또 저 지금은 쉽게 뭐 한 사람은 ‘들반착’이다 무엇이다 해
 서 하는데 옛날은 그 흰떡으로.)
 107064 @1 예.(예.)
 107064 #4 쌀떡으로 ** 소랑허게 판이 있어, 것도.(쌀떡으로 ** 기름하게 ‘판’이
 있어, 것도.)
 107064 @1 예.(예.)
 107064 #4 뜨는 판이. 들반착 ㄴ치.(뜨는 ‘판’이. ‘솔편’처럼.)
 107064 @1 으.(으.)
 107064 #4 그 판 이, 시민 솔벤.(그 ‘판’ 이, 있으면 ‘솔편’.)
 107064 @1 솔벤.(‘솔편’.)
 107064 #4 으, 솔벤. 동글락헌 거 절벤 경 헤난.(으, ‘솔편’. 동근 거 절편 그렇
 게 했었어.)

507) ‘세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집은 후에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세미떡’이라고도 하였다.

508) 여기에서 ‘판’은 떡 모양을 만들어주는 떡살을 말한다.

509) ‘세미은절미’는 ‘세미떡’과 ‘은절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 두 개의 떡이 메밀로 만들어서 제보자가 한꺼번에 아울러 이르는 게 아닌가 한다.

510) ‘들반착’은 반달 모양으로 만든 흰떡이다. 달리 ‘솔벤’이라고도 한다.

107064 @1 으.(으.)
 107064 #4 경 곶아난.(그렇게 말했었어.)
 107064 @1 예. 게문 이제 그.(예. 그러면 이제 그.)
 107064 #4 겨고 지름떡이.(그리고 기름떡.)
 107064 @1 예.(예.)
 107064 #4 지름떡엔 현 건 또 그 판이 또 잇어게, 영.(기름떡이라고 한 건 또 그 ‘판’이 또 있어, 이렇게.)
 107064 @1 으.(으.)
 107064 #4 요만씩 허여근에 꼭 지름떡은 그 허대.(요만씩 해서 꼭 기름떡은 그 허대.)
 107064 @1 으.(으.)
 107064 #4 그 경 허영 그 우터레 질 마지막으로 우터레 영.(그 그렇게 해서 그 위로 쨌 마지막으로 위로 이렇게.)
 107064 @1 으.(으.)
 107064 #4 ㄴ찌 허영. 그것도 신디 지금은 그거 아녀곡 그 고장떡⁵¹¹⁾이라고 영 영 영 현 거 허주게. 지금은.(같이 해서. 그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 앓고 그 ‘고장떡’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거 하지. 지금은.)
 107064 @1 예, 예.(예, 예.)
 107064 #4 지금은 그건디 옛날은 그 판이 셔.(지금은 그건데 옛날은 그 ‘판’이 있어.)
 107064 @1 음.(음.)
 107064 #4 꼭 그거.(꼭 그거.)
 107064 @1 게문 아까 고장떡은 뭐우짜?(그러면 아까 ‘고장떡’은 뭐니까?)
 107064 #4 고장, 고장떡은게 영 좁은 거게, 영.(‘고장’, ‘고장떡’은 이렇게 집은 거, 이렇게.)
 107064 @1 좁은 거를 고장떡이렌 헤예?(집은 거를 고장떡이라고 한다고요?)
 107064 #4 손부리로 영 허민 고장 닥지 아녀게. 영 영 쪼끔 영 동글락허게 쪼끔 그것도이.(손부리로 이렇게 하면 꽃 같지 앓아. 이렇게 이렇게 쪼끔 이렇게 동글게 쪼끔 그것도.)
 107064 @1 으.(으.)
 107064 #4 기냥 하나만 영 허여근에 영 허여근에 허질 아녀고 요만씩 허영은엔 에 두 개에.(그냥 하나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질 앓고 요만씩 해서 두 개에.)
 107064 @1 예.(예.)
 107064 #4 두 개에 헤여근에 그걸 마주 부쩌근엔에 허영 마주 부쨌 꼭 누르땡 은에 영 영 영 영 헤가든 바위가.(두 개에 해서 그걸 마주 붙여서 꼭 눌러서 이렇게

511) ‘고장떡’은 떡 모양이 꽃처럼 생긴 떡을 말한다. 떡가루에 색을 입혀서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가장자리가.)

107064 @1 으.(으.)

107064 #4 그 뭐허게 말앙.(그 뭐하게 말고.)

107064 @1 으.(으.)

107064 #4 그 두 개 부쩍 거 알아지게.(그 두 개 붙인 거 알게.)

107064 @1 예.(예.)

107064 #4 알아지게 쪼끔 튀 나게꾸리 헤영 그 경 헤여났어.(알게 쪼끔 티 나게 해서 그 그렇게 했었어.)

107064 @1 응, 게든 이제는 고장떡, 옛날에는?(응, 그러면 이제는 ‘고장떡’, 옛날에는?)

107064 #4 아이, 그것ㄴ라 기냥 그 고장떡게, 영.(아니, 그것보고 그냥 그 ‘고장떡’, 이렇게.)

107064 @1 예, 고장떡 허영예. 아, 고장떡에 물도 들여나수가?(예, ‘고장떡’ 해서요. 아, ‘고장떡’에 물도 들었었습니까?)

107064 #4 물들여나신디 우리 할머니넨 그런 물은 안 들여 받.(물들였었는데 우리 할머니넨 그런 물은 안 들여 봤어.)

107064 @1 으.(으.)

107064 #4 물들이는 건 몰라, 윈. 어떻 헐디. 물은 안 들여 받, 기냥 희게.(물들이는 건 몰라, 윈, 어떻게 했는지. 물은 안 들여 봤어, 그냥 희게.)

107064 @1 희게예?(희게요?)

107064 #4 희게. 기냥 고장떡, 뿐으로만 고장ㄴ찌 영 손부리로 영 영 영 영 영 허영 줍앙은예.(희게. 그냥 ‘고장떡’, 본으로만 꽃처럼 이렇게 손부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서.)

107065 @1 경 허난 고장떡. 게든 하나씩 물어보커라예? 옛날 시리떡. 시리떡은 어떤 떡들 했수가?(그렇게 하니까 ‘고장떡’. 그러면 하나씩 물어보겠어요? 옛날 시루떡. 시루떡은 어떤 떡들 했습니까?)

107065 #4 시리떡은 지금은 설귀엔 허는디, 그전, 그전에 시리떡은 침떡. 침떡은 이.(시루떡은 지금은 백설기라고 하는데, 그전, 그전에 시루떡은 ‘침떡’. ‘침떡’은.)

107065 @1 예.(예.)

107065 #4 기냥 영 간 때 갈라떡젠 기자 줍쓸 헤여근예.(그냥 이렇게 간 때 나눠 먹으려고 그저 줍쌀 해서.)

107065 @1 으.(으.)

107065 #4 꽃 영 거세기 허영 친 것ㄴ란 침떡이엔 허곡. 그것도 허연 허어나고. 게, 이제 설귀떡이엔 헐 것도 건 상에 올릴 거.(팔 이렇게 거시기 해서 찢 것보고 ‘침떡’이라고 하고. 그것도 해서 했었고. 게, 이제 백설기라고 한 것도 건 상에 올릴 거.)

107065 @1 으.(으.)

107065 #4 상에 올리는 걸로 허여근엥에 풋 징징이 풋 놓멍.(상에 올리는 걸로 해서 팔 커켜이 팔 넣으면서.)

107065 @1 으.(으.)

107065 #4 시리에.(시루에.)

107065 @1 예.(예.)

107065 #4 영 허영 짐작 삼아 박세기로 영 거러 놓앙 풋 영 서경 허영 허민 그 우터레 따로 이제 영 허영 짐작허여근에 혼 징씩 허게꾸리 허영 허른 그 풋 그 거 세기로.(이렇게 해서 짐작 삼아 바가지로 이렇게 떠 놓아서 팔 이렇게 섞어서 해서 하면 그 위로 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짐작해서 한 커씩 하게끔 해서 하면 그 팔 그 거시기로.)

107065 @1 으.(으.)

107065 #4 고물로 딱허게 갈라져게, 부뜨질 아녕.(고물로 딱하게 갈라져. 붙질 않고.)

107065 @1 예, 예.(예, 예.)

107065 #4 풋 논 거. 경 현 거 해난.(팔 넣은 거. 그렇게 한 거 했었어.)

107065 @1 게난 그 떡은 무신 떡?(그러니까 그 떡은 무슨 떡?)

107065 #4 설귀떡.(백설기.)

107065 @1 건 설귀떡?(건 백설기?)

107065 #4 으.(으.)

107065 @1 게른 그 설기떡 상에 올릴 때도 풋 논 것도 올립니까?(그러면 그 백설기 상에 올릴 때도 팔 놓은 것도 올립니까?)

107065 #4 풋 논 것도 경 올려나신디, 옛날 어른덜은 경 허연 부뜨지 아녀게 경 해연 올려나신디.(팔 놓은 것도 그렇게 올렸었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붙지 않게 그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107065 @1 으.(으.)

107065 #4 그 중간엔 그거 풋은 흐끔 저 안 좋은 거엔 허영 방법이엔 허여근엥에 기냥 설귀로만.(그 중간엔 그거 팔은 조금 저 안 좋은 거라고 해서 비법이라고 해서 그냥 백설기로만.)

107065 @1 으.(으.)

107065 #4 헛지. 옛날은 그 풋 그 부뜨지 아녀게꾸리 옛날 어른덜은.(헛지. 옛날은 그 팔 그 붙지 않게끔 옛날 어른들은.)

107065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65 #4 그렇게 해난.(그렇게 했었어.)

107065 @1 음, 대썸 낱은에 해보지 안허고예?(음, 댓잎 놔서 해보지 않고요?)

107065 #4 대썸은 그 시리떡 칠 때.(댓잎은 그 시루떡 찢 때.)

107065 @1 예.(예.)

107065 #4 칠 때에 그 시리에 그 윗에 부뜨, 부뜨민게 영 비우민 얼른 뒤희지

안 허여.(찢 때에 그 시루에 그 옆에 붙, 붙으면 이렇게 부으면 얼른 뭐 하지 않아.)

107065 @1 으.(으.)

107065 #4 계난 시리에 그 떡 친 걸 부뜨지 아녀게꾸리 영 처음에 영 허영 허민 대썩 영 허영 놔근앵에 경.(그러니까 시루에 그 떡 찢 걸 붙지 않게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댓잎 이렇게 해서 놔서 그렇게.)

107065 @1 시리 옆에 영.(시루 옆에 이렇게.)

107065 #4 옆에 영 세와.(옆에 이렇게 세워.)

107065 @1 옆에 영 세우는 거구나예. 아아.(옆에 이렇게 세우는 거군요. 아아.)

107065 #4 시리에 떡을 부뜨지 못하게 그 대썩은 난.(시루에 떡을 붙지 못하게 그 댓잎은 놔어.)

107065 @1 음, 밑에 끼는 게 아니고.(음, 밑에 까는 게 아니고.)

107065 #4 경 대썩도 놔나고. 또 팟 아니 허여근앵에 헐 때엔 그 영 대썩도 놔근앵에이.(그렇게 댓잎도 놔었고. 또 팟 아니 해서 할 때엔 그 이렇게 댓잎도 놔서.)

107065 @1 으.(으.)

107065 #4 그거 경 허영 허민 설귀떡.(그거 그렇게 해서 하면 백설기.)

107066 @1 설귀떡 행예, 예? 그치룩 허영은에 이제 그 상에 이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송편도 헤마씨?(백설기 해서요, 예?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상에 이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송편도 해요?)

107066 #4 송편, 옛날은 송편을 아녕. 송편으로 저 솔벤 절벤이엔 헌 거. 들반착떡 헌 거 허고 동글락헌 거 영 허고 거세기 영 허여나신디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그 쉽게꾸리 헤영 송편이지, 그거. 솔벤 절벤 대신 송편 흔 곳 아니게?(송편, 옛날은 송편을 안 해서. 송편으로 저 솔편 절편이라고 한 거. ‘들반착떡’ 한 거 하고 동근 거 이렇게 하고 거시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그 쉽게끔 해서 송편이지, 그거. 솔편 절편 대신 송편 한 ‘곳’ 아니?)

107066 @1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66 #4 설귀떡허고 송편. 경 허곡 또 흐뎡 그 뭐헌 딘 그 영 고장떡이라고 그거 허곡. 지금도 그건 허주게.(백설기하고 송편. 그렇게 하고 또 조금 그 뭐한 텐 그 이렇게 ‘고장떡’이라고 그거 하고. 지금도 그건 하지.)

107066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66 #4 고장떡이라고.(‘고장떡’이라고.)

107067 @1 그렇지, 지름떡 그거예?(그렇지, 기름떡 그거요?)

107067 #4 으.(으.)

107067 @1 으, 그다음 여기 빙떡도?(으, 그다음 여기 ‘빙떡’도?)

107067 #4 빙떡도 허영 허믄.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적엔 보믄 팟은 그 영혼에 흐뎡.(‘빙떡’도 해서 하면.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적엔 보면 팟은 그 영혼에 조금.)

107067 @1 음.(음.)

107067 #4 반대 거세기라근앵에 저 무수.(반대 거시기여서 저 무.)

107067 @1 예.(예.)

107067 #4 채 썰엉이, 채 썰엉 그것에 양념혜영.(채 썰어서, 채 썰어서 그것에 양념해서.)

107067 @1 으.(으.)

107067 #4 껌ㄱ틀이여 기냥 그 뭐 양념허영 흐뎀 우리 좁아 먹게 싱겁.(깨소금 이다 그냥 그 뭐 양념해서 조금 우리 집어 먹게 싱겁.)

107067 @1 으.(으.)

107067 #4 짜다 뭐허게 말아근에 양념허여근에 그 빙떡에 그거 경 놓곡.(짜다 뭐허게 말고 양념해서 그 ‘빙떡’에 그거 그렇게 넣고.)

107067 @1 으.(으.)

107067 #4 꺾은 먹은, 먹는 건 허여도 꺾은 그 붉은[빨근] 거니까 영혼상에.(꺾은 먹은, 먹는 건 해도 꺾은 그 붉은 거니까 영혼상에.)

107067 @1 으.(으.)

107067 #4 올리지 아년텐 허영. 몰라 이젠 그전엔 다른 디 어떻사. 우리 할머니넨 경 허데. 꺾은 영혼허고 반대엔. 반대난에 경 허영 그 무수 채 썰엉.(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몰라 이젠 그전엔 다른 데 어떻게야. 우리 할머니넨 그렇게 하데. 꺾은 영혼하고 반대라고. 반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무 채 썰어서.)

107067 @1 음.(음.)

107067 #4 무수 채 썰어근에 양념혜여근에 빙떡 몰아난.(무 채 썰어서 양념해서 ‘빙떡’ 말았었어.)

107067 @1 음, 게문 그 빙떡 문 것도 상에 올려예?(음, 그러면 그 ‘빙떡’ 만 것도 상에 올린다고요?)

107067 #4 으. 빙떡 채소 거세기난 경 혜연 상에 올려.(으. ‘빙떡’ 채소 거시기니까 그렇게 해서 상에 올려.)

107067 @1 상에 올리고. 건 따로 떡에 안 허고 따로 올려?(상에 올리고. 건 따로 떡에 안 하고 따로 올려?)

107067 #4 딱로게. ㄱ치.(따로. 같이.)

107068 @1 음, 그다음 상웨떡도 여기 헤낫수가?(음, 그다음 상화떡도 여기 했었습니까?)

107068 #4 상웨떡은 그 밀ㄱ르 반죽혜영 그, 그 이제, 이제 빵집이 빵 꺾는 것 ㄱ라 옛날은 상웨떡이엔 헤낫주기게.(상화떡은 그 밀가루 반죽해서 그, 그 이제, 이제 빵집의 빵 꺾는 것보고 옛날은 상화떡이라고 했었지.)

107068 @1 예, 예.(예, 예.)

107068 #4 상웨떡게.(상화떡.)

107068 @1 으.(으.)

107068 #4 그것도게 밀ㄱ리 반죽허영 부경. 부끄게시리 우의 무시거 반죽허영 우의 무시거 더끄곡 뜻은 옛날은 그 방 땀 디이.(그것도 밀가루 반죽해서 부풀어서.)

부풀게끔 위에 무엇 반죽해서 위에 무엇 덮고 따뜻한 옛날은 그 방 땀 데.)

107068 @1 으.(으.)

107068 #4 딱튼 뜻은 디 낳은에 허영 영 보멍 부궤이 부껴가민 그걸 것ᄃ라 상웨떡엔 헤영 그거 헤어나고.(다른 따뜻한 데 놔서 해서 이렇게 보면이 부각이 부풀어가면 그걸 것보고 상화떡이라고 해서 그거 했었고.)

107068 @1 게난 그것도 올리는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그것도 올리는 거 아닌가요?)

107068 #4 거 올리주게.(거 올리지.)

107068 @1 상웨떡은 주로 어느 계절에 헤마씨?(상화떡은 주로 어느 계절에 헤요?)

107068 #4 아니, 것도 먹썰일 때에 허는 집인 먹썰일 때에도 허꼭게.(아니, 것도 먹썰일 때에 하는 집엔 먹썰일 때에도 하고.)

107068 @1 으.(으.)

107068 #4 아무 때나.(아무 때나.)

107068 @1 아무 때나.(아무 때나.)

107068 #4 먹썰일 때에 허는 집인 헤여.(먹썰일 때에 하는 집은 해.)

107068 @1 식계떡도 허고.(제사떡도 하고.)

107068 #4 허는디.(하는데.)

107068 @1 게민 상웨떡도 보면?(그러면 상화떡도 보면?)

107068 #4 그것도 허여근에 옛날 지금은 질로지만썸 허영 다 이젠 쌀밥덜 먹꼭 그런 거 먹고픈 거 다 먹을 때난이.(그것도 해서 옛날 지금은 저만큼썸 해서 다 이젠 쌀밥들 먹고 그런 거 먹고픈 거 다 먹을 때니까.)

107068 @1 으.(으.)

107068 #4 옛날은 이녁 반 안넨 제술 돌아왕 제술 넘을 거 아니?(옛날은 이녁 반 안넨 제사를 돌아와서 제사를 넘길 거 아니?)

107068 @1 으.(으.)

107068 #4 경 허민 이녁 반 안넨 동, 이녁 반.(그렇게 하면 이녁 반 안에는 동, 이녁 반.)

107068 @1 예.(예.)

107068 #4 멧 집 헤영 반 안넨 다 그 반 떡을 놔놔어.(멧 집 해서 반 안넨 다 그 반기 떡을 나놔었어.)

107068 @1 으.(으.)

107068 #4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난.(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니까.)

107068 @1 예.(예.)

107068 #4 경 서르 간에 경.(그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107068 @1 으.(으.)

107068 #4 그 집의도 경 제스 넘어나민 경 서로 간에 경 헤어나신디 이젠게 경

아녀난 기자 상에 올릴 거나 허여근에 허곡, 허곡 춤 초즈녁이 켜당덜 먹으레 오민
기자 영 내와근앵에 그자 입가심힐 거.(그 집에도 그렇게 제사 넘어나면 그렇게 서
로 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앓으니까 그저 상에 올릴 거나 해서 하고,
하고 참 초저녁에 권당들 먹으러 오면 그저 이렇게 내와서 그저 입가심힐 거.)

107068 @1 으.(으.)

107068 #4 그거 허염주기.(그거 하고 있지.)

107068 @1 맞아.(맞아.)

107068 #4 경 허난 펜안허지, 지금은.(그렇게 하니까 편안하지, 지금은.)

107068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68 #4 옛날은 동네에 경 이녁 반 안넌 반엿 사름신디 다 느와난.(옛날은 동
네에 그렇게 이녁 반 안엔 반의 사람한테 다 나뉘었어.)

107068 @1 음, 경 허민 떡도 하영 해야 돼고예?(음, 그렇게 하면 떡도 많이 해
야 되고요?)

107068 #4 아이고, 하영 해야 돼고.(아이고, 많이 해야 되고.)

107068 @1 으, 게문 그때 헐 때 상웨떡덜 하영 현 겨우짜?(으, 그러면 그때 할
때 상화떡들 많이 한 겁니까?)

107068 #4 경 허연게. 경 허연.(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107068 @1 으.(으.)

107068 #4 상웨떡이나 허여사 그거 흐끔 영 반에 반 안네게 매 집의게.(상화떡
이나 해야 그거 조금 이렇게 반에 반 안에 매 집에.)

107069 @1 예, 그러면은 우리 식게 때 삼춘네, 옛날 보면 식게떡 헐, 식게헐 때
떡 올리는 떡 레는 순서 알아지쿠과?(예, 그러면은 우리 제사 때 삼춘네, 옛날 보면
제사떡 할, 제사할 때 떡 올리는 떡 레는 순서 알겠습니까?)

107069 #4 레는 순선, 그것도 그 풋 논 건 뉘 허여근에 우리 그 옛날은 좁쌀도
허영 침떡엔 헤여낫주기.(레는 순선, 그것도 그 팔 놓은 건 뉘 해서 우리 그 옛날은
좁쌀도 해서 시루떡이라고 했었지.)

107069 @1 예, 예.(예, 예.)

107069 #4 좁쌀침떡. 그건 먹젠 경 허는 거고.(좁쌀시루떡. 그건 먹으려고 그렇
게 하는 거고.)

107069 @1 으.(으.)

107069 #4 초즈냐이덜 오랑 앓이민 심심허영 앓이민 먹젠 경 역불로 그건 따로
허는 거고. 경 그 설귀떡은 춤 제스상엔 그 풋, 풋이 그 풋은 무사 경 거세기 현고
허민 옛, 지금 옛날은 사름, 동네에 누게 집안에 돌아가시민 풋죽을 써나지 아녜어
게.(초저녁에들 와서 앓으면 심심해서 앓으면 먹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건 따로 하
는 거고. 그렇게 그 백설기는 참 제사상엔 그 팔, 팔이 그 팔은 왜 그렇게 거시기
한가 하면 옛, 지금 옛날은 사람, 동네에 누구 집안에 돌아가시면 팔죽을 썼지 앓은
가.)

107069 @1 예, 예.(예, 예.)

107069 #4 팏죽을 썰거든. 팏죽을 썰 허영 허믄 이제 흐뎡 영 켤당덜토 허영 사돈칩의도 옛날은 가쟁 허민 장난 디 가젠 허믄 죽 썰 허벅에 질언 전 뎡겨낫어.(팏죽을 썰거든. 팏죽을 썰서 해서 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켤당들도 해서 사돈집에도 옛날은 가려고 하면 장난 데 가려고 하면 죽 썰서 허벅에 길어서 저서 다녔었어.)

107069 @1 으, 으.(으, 으.)

107069 #4 옛날은.(옛날은.)

107069 @1 예, 맞아마씨.(예, 맞아요.)

107069 #4 죽 썰. 죽 썰 팏죽도 쭈곡 흰죽도 쭈곡. 경 상제마다. 상제덜 으라 집의. 딸 씨집의서나 누게 어디 메누리 친정에서나 경 허영 허믄 흰죽이엔 허여근에 쓸만 낡 썰 혼 허벅 질곡.(죽 썰서. 죽 썰서 팏죽도 쭈고 흰죽도 쭈고. 그렇게 상제마다. 상제들 여러 집에. 딸 씨집에서나 누구 어디 머느리 친정에서나 그렇게 해서 하면 흰죽이라고 해서 쓸만 놔서 썰서 한 허벅 길고.)

107069 @1 으.(으.)

107069 #4 팏죽이엔 허영 또 거 방법으로.(팏죽이라고 해서 또 거 방법으로.)

107069 @1 예.(예.)

107069 #4 팏은 방법이니까. 경도 허영 가민 이건 어느 상제 즈름에 왓젠 허영, 어려운 시절이난게.(팏은 비법이니까. 그렇게도 해서 가면 이건 어느 상제 뒤로 왓다고 해서, 어려운 시절이니까.)

107069 @1 으.(으.)

107069 #4 해영 맥이곡. 이건 어느 상제 조름에 어느 딸상제 즈름이엔 해연 맥이곡.(해서 먹이고. 이건 어느 상제 뒤로 어느 딸상제 뒤라고 해서 먹이고.)

107069 @1 으.(으.)

107069 #4 경 허연 멧 츠레 경 맥이는 거.(그렇게 해서 멧 차례 그렇게 먹이는 거.)

107069 @1 으.(으.)

107069 #4 우리 봐나신디. 경 현디 이제사 경 햐서게? 경 옛날 어려운 시절이난 경.(우리 봤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옛날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렇게.)

107069 @1 계난 그 식게힐 때 삼춘, 아까 돌아강예, 맨 밑에 이제 떡 올리젠 허면 맨 밑에는 설귀떡 올리는 거 아니예?(그러니까 그 제사할 때 삼춘, 아까 돌아가서요, 맨 밑에 이제 떡 올리려고 하면 맨 밑에는 백설기 올리는 거 아니예요?)

107069 #4 으.(으.)

107069 @1 멧 개 올려?(멧 개 올려?)

107069 #4 두 빗⁵¹²게.(두 ‘빗’.)

107069 @1 두 빗 올령. 그 우의는 뭐 올립니까?(두 ‘빗’ 올려서. 그 위에는 뭐

512) ‘빗’은 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를 말한다.

올릅니까?)

107069 #4 두 빗 올령. 그 우의는게 그 옛날식으로 헌 때엔게 그 솔벤 절벤 그 런 거.(두 ‘빗’ 올려서. 그 위에는 그 옛날식으로 할 때엔 그 솔편 절편 그런 거.)

107069 @1 으.(으.)

107069 #4 거세기.(거시기.)

107069 @1 게든 솔벤을 먼저 올려마씨? 절벤을 먼저 올려?(그러면 ‘솔편’을 먼저 올려요? 절편을 먼저 올려?)

107069 #4 그 소랑한 그 거세기 헤여사 동글, 절, 솔벤은 들반착⁷라 솔벤엔 허 거든. 설귀떡 우에 그거 놓곡게.(그 기름한 그 거시기 해야 동글, 절, 솔편은 ‘들반 착’보고 ‘솔편’이라고 하거든. 백설기 위에 그거 놓고.)

107069 @1 설귀떡 우에 저 뭐 은절미?(백설기 위에 저 뭐 인절미?)

107069 #4 으, 은절미⁵¹³.(으, 인절미.)

107069 @1 으, 은절미 놓곡.(으, 인절미 놓고.)

107069 #4 은절미 놓곡 솔벤 절벤게, 그거. 세미은절미 하나에 경 다 퀘는 거 봐난.(인절미 놓고 솔편 절편, 그거. ‘세미은절미’ 하나에 그렇게 다 퀘는 거 봤었 어.)

107069 @1 으.(으.)

107069 #4 하나에.(하나에.)

107069 @1 하나에예?(하나에요?)

107069 #4 설귀떡 놓민 그 하나에.(백설기 놓으면 그 하나에.)

107069 @1 하나에.(하나에.)

107069 #4 하나에 그 우터레게.(하나에 그 위로.)

107069 @1 차근차근 허민 맨 밑에는 설귀떡?(차근차근 하면 맨 밑에는 백설 기?)

107069 #4 질 설귀떡. 그다음엔 솔벤, 저 솔벤, 솔벤인가 절벤인가 그 너개반떡 ⁷물로 헌 거.(절 백설기. 그다음엔 솔편, 저 솔편, 솔편인가 절편인가 그 네모반듯 메밀로 한 거.)

107069 @1 예, 예.(예, 예.)

107069 #4 그거 허영 영 퀘고 그다음엔 저 세미은절미.(그거 해서 이렇게 괴고 그다음엔 저 ‘세미은절미’.)

107069 @1 예.(예.)

107069 #4 세미은절미 혼 거세기난 혼 색깔이난 경 허영 허곡. 그다음엔 또 이제 지름떡이여.(‘세미은절미’ 한 거시기니까 한 색깔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엔 또 이제 기름떡이다.)

107069 @1 으.(으.)

107069 #4 무시거여 경 허연.(무엇이다 그렇게 했어.)

513) ‘은절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후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107069 @1 으.(으.)
 107069 #4 흔 상에.(한 상에.)
 107069 @1 흔 상에예?(한 상에요?)
 107069 #4 하나에 경 헤연게. 그것저것 따로따로 옛날은 못허연게.(하나에 그렇게 하던데. 그것저것 따로따로 옛날은 못했어.)
 107069 @1 계난 맨 우에는 뭐 놔?(그러니까 맨 위에는 뭐 놔?)
 107069 #4 우에는게 그 저 무시거. 숭구락떡⁵¹⁴이라고 싯주거, 또.(위에는 그 저 무엇. ‘숭구락떡’이라고 싯, 또.)
 107069 @1 아, 숭가락떡.(아, ‘숭가락떡’.)
 107069 #4 이만큼 허여근에 허영 허민 숭가락 즈룩으로 영 허영 허곡 영 허영 허곡 두 반디이.(이만큼 해서 해서 하면 숭가락 자루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두 군데.)
 107069 @1 예, 예.(예, 예.)
 107069 #4 그것도 허영 헤나고. 또 지금은 춤 뭐 경 아녀건 디가 오래신디 옛날은 숭가락떡이엔 허연 경도 허고. 또 저, 저 무시거 병것떡⁵¹⁵이엔 헤여근에 세미 ㄴ치 쫂꼬만허게이.(그것도 해서 했었고. 또 지금은 참 뭐 그렇게 앓은 지가 오랬는데 옛날은 ‘숭가락떡’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하고. 또 저, 저 무엇 ‘병것떡’이라고 해서 ‘세미’같이 조그맣게.)
 107069 @1 예.(예.)
 107069 #4 쫂꼬만허게 헤여근에 쉬 쫂폼 낱.(쫂그맣게 해서 소 쫂폼 놔서.)
 107069 @1 으.(으.)
 107069 #4 쉬 쫂폼 놔근엔에 영 영 세미ㄴ찌 헐 거 아니?(소 쫂폼 놔서 이렇게 이렇게 ‘세미’같이 할 거 아니?)
 107069 @1 으.(으.)
 107069 #4 그거 허민 요영 오그려근엔에 똑 좁아 놓민.(그거 하면 요렇게 오그려서 똑 집어서 놓으면.)
 107069 @1 으.(으.)
 107069 #4 그것 ㄴ라 병것떡이엔 헤난.(그것보고 ‘병것떡’이라고 했었어.)
 107069 @1 병것떡. 게문 그것도 위에 놓곡, 으.(‘병것떡’. 그러면 그것도 위에 놓고, 으.)
 107069 #4 그거.(그거.)
 107069 @1 숭가락떡?(‘숭가락떡’?)
 107069 #4 이. 숭가락떡⁵¹⁶과 ㄴ찌 허영.(이. ‘숭가락떡’과 같이 해서.)
 107069 @1 아, ㄴ찌 헤영은에.(아, 같이 해서.)

514) ‘숭구락떡’은 숭가락 자루로 꼭꼭 눌러 문양을 놓으며 타원형으로 기름하게 만든 떡이다.

515) ‘병것떡’은 쌀가루를 반죽한 후에 병거지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516) ‘숭가락떡’은 떡 모양이 숭가락 비슷해서 붙은 이름 같은데, 제보자는 ‘숭구락떡’을 ‘숭가락떡’이라고 한 것 같다.

107069 #4 손가락떡 다음에 그거 병것떡 우터레.('손가락떡' 다음에 그거 '병것떡' 위로.)

107069 @1 병것떡을 쥘 위에 놓은 거라예? 그것도 식게 때도 그거 해마씨?('병것떡'을 쥘 위에 놓은 거라고요? 그것도 제사 때도 그거 해요?)

107069 #4 식게 때도, 흠. 우리 뭐 허도록은 그거 헤여낫주기.(제사 때도, 참. 우리 뭐 하도록 그거 했었지.)

107069 @1 아.(아.)

107069 #4 헤여난.(했었어.)

107069 @1 게문 삼춘도 그 멧 년까지 헤여난? 멧 년도까지?(그러면 삼춘도 그 멧 년까지 했었어요? 멧 년도까지?)

107069 #4 멧 년도산디 몰라. 그거 경 허여난, 우리도. 경 허여난. 요즘은 집의서 번창허난에 뭐허연 헌디 옛날은 다 집의서 허쟁 허민 켜당덜 오랑 떡허곡 다 헤나신디 이젠 그걸 뭐허난 맞추왕 허여도.(멧 년도인지 몰라. 그거 그렇게 했었어,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 요즘은 집에서 번잡하니까 뭐해서 하는데 옛날은 다 집에서 하려고 하면 켜당들 와서 떡하고 다 했었는데 이젠 그걸 뭐하니까 맞춰서도 해도.)

107069 @1 으.(으.)

107069 #4 그걸 허여 드렌 헨 헤여낫어.(그걸 해 달라고 해서 했었어.)

107069 @1 아, 그거 헤여도렌예?(아, 그거 해 달라고요?)

107069 #4 떡집의서 맞창.(떡집에서 맞춰서.)

107069 @1 떡집의서 아아.(떡집에서 아아.)

107069 #4 그거 헤여 나니까.(그거 해 나니까.)

107069 @1 예, 예.(예, 예.)

107069 #4 맞추왕.(맞춰서.)

107069 @1 요즘도 게문 그걸 험구나덜예?(요즘도 그러면 그걸 하고 있군요?)

107069 #4 경 허영 허는 집은 헌디.(그렇게 해서 하는 집은 하는데.)

107069 @1 으.(으.)

107069 #4 지금은 그 대신, 그것저것 경 허는 디 엇어. 이집은 그것저것 다 설러두고 설귀민 설귀 그 송편.(지금은 그 대신, 그것저것 그렇게 하는 데 없어. 이집은 그것저것 다 그만두고 백설기면 백설기 그 송편.)

107069 @1 예.(예.)

107069 #4 그것만 헤여.(그것만 해.)

107069 @1 이제는예?(이제는요?)

107069 #4 이제는 그것만. 뵈이던지 간단하게 허염실 거라. 지금은.(이제는 그것만. 뵈이든지 간단하게 하고 있을 거야. 지금은.)

107069 @1 예.(예.)

107069 #4 옛날ㄴ치 옛날 고려시대 그런 거 경.(옛날같이 옛날 고려시대 그런 거 그렇게.)

107069 @1 엇어예?(없어요?)

107069 #4 엇어.(없어.)

107070 @1 케른 그 집에 상 나면? 그때는 문딱 해야 되는 거 아니우파? 상 난 때는예?(그러면 그 집에 상 나면? 그때는 몽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 난 때는데요?)

107070 #4 상, 무시거?(상, 무엇?)

107070 @1 사람 돌아가실 때.(사람 돌아가실 때.)

107070 #4 어떻.(어떻게.)

107070 @1 돌아가실 때 떡들은 어떤 떡들을 허여?(돌아가실 때 떡들은 어떤 떡들을 해?)

107070 #4 떡들은 옛날은 저 고적⁵¹⁷)이라고 지금은 부주로 다 켜당덜토 허곡 다 해나신디 옛날은 고적이라고 그 장 나민이.(떡들은 옛날은 저 ‘고적’이라고 지금은 부주로 다 켜당들도 하고 다 했었는데 옛날은 ‘고적’이라고 그 장 나면.)

107070 @1 예.(예.)

107070 #4 친족이나 누계 장 나야, 장 낭 허민 지금은 돈으로 부주허니까 간단 허거든.(친족이나 누구 장 나야, 장 나서 하면 지금은 돈으로 부조하니까 간단하거든.)

107070 @1 으.(으.)

107070 #4 경헌디 옛날은이 떡 헤여근엔에 저 떡으로 고적을. 고적이엔 허여근에 부줄.(그런데 옛날은 떡 해서 저 떡으로 ‘고적’을. 고적이라고 해서 부줄.)

107070 @1 부줄?(부줄?)

107070 #4 떡으로 헤여 가났어. 경 허른 장밧디서 떡으로 기냥 그 장 난 디 강 일헌 사름도 떡으로 맥여.(떡으로 해서 갔었어. 그렇게 하면 장지서 떡으로 그냥 그 장 난 데 가서 일한 사름도 떡으로 먹여.)

107070 @1 케른 그?(그러면 그?)

107070 #4 경 허영 허곡 저 소, 무시거 물떡⁵¹⁸)이엔 헌 건 세미 영 줍양 쉬 놔 근엔에 크게.(그렇게 해서 하고 저 소, 무엇 ‘물떡’이라고 한 건 ‘세미’ 이렇게 집어서 소 놔서 크게.)

107070 @1 예.(예.)

107070 #4 크게 헤영 영 헌 건 물떡이엔 허영은에 그것 쉬정을 더 허연. 더 내놓넨 허는 거 들어났어.(크게 해서 이렇게 한 건 ‘물떡’이라고 해서 그것 숫자를 더 해서. 더 내놓는다고 하는 거 들었었어.)

107070 @1 음.(음.)

107070 #4 그거허곡. 또 저 그것⁷란 또 이젠 잊어불엇저. 그건 그 물떡엔 헌 건 경 해나신디 또 이제 저 니게반득허게 허영 크게, 아니 저 동글락떡. 동글락헌

517) ‘고적’은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때 친척끼리 만들어 가거나 부주로 갖고 가는 떡이나 쌀을 말한다.

518)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빚은 후에 그 안에 팔소나 무채를 넣어서 삶아낸 떡이다.

것도 그 떡도 포부쟁.(그거하고. 또 저 그것보고 또 이젠 잊어버렸다. 그건 그 ‘물떡’이라고 한 건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제 저 네모반듯하게 해서 크게, 아니 저 동근떡. 동근 것도 그 떡도 겹쳐서.)

107070 @1 으.(으.)

107070 #4 포부썬근에 기치록 허영 그거 부주로 장밋디도 허여난.(겹쳐서 것처럼 해서 그거 부조로 장지에도 했었어.)

107070 @1 돌레떡?(도래떡?)

107070 #4 돌, 그거 동글락헌 거난 돌레떡이 맞을 거라.(돌, 그거 동그란 거니까 도래떡이 맞을 거야.)

107070 @1 어.(어.)

107070 #4 돌레떡.(도래떡.)

107070 @1 으, 그런 식으로 해근에.(으, 그런 식으로 해서.)

107070 #4 돌레떡허고 세미떡 닦은 건 큰 건 그거 물떡이엔 해난.(도래떡하고 ‘세미떡’ 같은 건 큰 건 그거 ‘물떡’이라고 했었어.)

107070 @1 물떡이렌 허고예? 예, 예. 게, 그거면 장밋디 가면은 이젠 그 나눠 주는 거라예?(‘물떡’이라고 하고요? 예, 예. 게, 그거면 장지에 가면은 이젠 그 나눠 주는 거네요?)

107070 #4 그거 허영 고적으로 받아근엔에 그 장밋디서 일헌 사름덜 맥이는 거.(그거 해서 ‘고적’으로 받아서 그 장지에서 일한 사람들 먹이는 거.)

107070 @1 케든 고적 허는 거는 친척들이 허는 거우파?(그러면 ‘고적’ 하는 거는 친척들이 하는 겁니까?)

107070 #4 친척게.(친척.)

107070 @1 멧 촌까지 허여? 그 고적 허는 거는?(멧 촌까지 해? 그 ‘고적’ 하는 거는?)

107070 #4 친척은 가까운 친족덜게.(친척은 가까운 친족들.)

107070 @1 으.(으.)

107070 #4 식게 멧질 먹으레 멧기는 친족들.(제사 멧질 먹으러 다니는 친족들.)

107070 @1 그런 사름들은 그걸 고적을 허는 거라예, 예. 그다음에 아까 설귀떡 허는 거는 곤살로 허는 거?(그런 사람들은 그걸 ‘고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아까 백설기 하는 거는 흰쌀로 하는 거?)

107070 #4 곤살로게.(흰쌀로.)

107070 @1 으.(으.)

107070 #4 곤살로 허곡 풋 그 쉬 낱 부뜨지 아녀게 허는 거주마는 그 영혼에게 그거 풋은 비상이거든.(흰쌀로 하고 팔 그 소 놔서 붙지 않게 하는 거지만 그 영혼에게 그거 팔은 비상이거든.)

107070 @1 으.(으.)

107070 #4 경 허난 죽으민 풋죽을 썬근엔에 케우리곡 뒤헌데. 그 잡귀덜 뒤 허

는 거.(그렇게 하니까 죽으면 팔죽을 썬서 고수레하고 뭐한다고. 그 잡귀들 뭐 하는 거.)

107070 @1 예, 예.(예, 예.)

107070 #4 풋은 그런 뿔으로. 경 허연 허어나신디 이젠게 그 풋죽 썬서게. 풋죽도 안 썬곡.(팔은 그런 뿔으로.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젠 그 팔죽 썬고 있어. 팔죽도 안 썬고.)

107072 @1 인절미 할 때는, 인절미는 아까 저기 모물로만 합니까?(인절미 할 때는, 인절미는 아까 저기 메밀로만 합니까?)

107072 #4 으. 멧말로.(으. 메밀로.)

107072 @1 쌀로는 안 하고, 으.(쌀로는 안 하고, 으.)

107072 #4 멧말로 세미은절미⁵¹⁹.(메밀로 ‘세미인절미’.)

107072 @1 은절미.(인절미.)

107072 #4 쉬 놔근에 영 즈양 세미.(소 넣어서 이렇게 집어서 ‘세미’.)

107074 @1 네모나게 현 건?(네모나게 한 건?)

107074 #4 네모나게 현 건 은절미.(네모나게 한 건 ‘인절미’.)

107074 @1 은절미예, 그다음.(인절미요, 그다음.)

107074 #4 겨고 쌀로 들반착허곡 동글락허게 허는 건.(그리고 쌀로 ‘들반착’하고 동그랗게 하는 건.)

107074 @1 절벤.(절편.)

107074 #4 솔벤, 절벤.(솔편, 절편.)

107074 @1 솔벤, 절벤. 그 솔벤, 절벤 할 때는 혹시 그 삶으는 겨우짜? 아니면 어떻게?(솔편, 절편. 그 솔편, 절편 할 때는 혹시 그 삶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107074 #4 처.(찌.)

107074 @1 청은예? 어.(찌서? 어.)

107074 #4 저 삶으면 그 알룬 거니까 꺼져 불거든. 영 세미 ㄹ튼 건 그거 삶는다.(저 삶으면 그 삶은 거니까 꺾어져 버리거든. 이렇게 ‘세미’ 같은 건 그거 삶는 데.)

107074 @1 으.(으.)

107074 #4 그.(그.)

107074 @1 솔벤할 땐?(솔편할 땐?)

107074 #4 *** 그 솔벤 절벤은 경 허젠 허민이, 예.(*** 그 솔편 절편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

107074 @1 예.(예.)

107074 #4 솔입.(솔잎.)

107074 @1 예.(예.)

107074 #4 솔입 향이 경 좋거든. 경 허난 고운 걸로 거 파랑헌 솔입이.(솔잎 향

519) ‘세미은절미’는 ‘세미떡’과 ‘은절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은절미’는 ‘인절미’를 말한다.

이 그렇게 좋거든. 그렇게 하나까 고운 걸로 거 파란 솔잎이.)

107074 @1 으.(으.)

107074 #4 그거 영 뽑앙, 영 북북 뽑으민 그 꼭대기 다 벗어지게 뽑아져.(그거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박박 뽑으면 그 꼭대기 다 벗겨지게 뽑아져.)

107074 @1 으.(으.)

107074 #4 경 허영 허믄 그거 허영 헤여당 ㅋ킬 싯정은에 확 데우청.(그렇게 해서 하면 그거 해서 해다가 깨끗이 씻어서 확 데쳐서.)

107074 @1 으.(으.)

107074 #4 데우쳐 불어사 그 송진이 엇거든.(데쳐 버려야 그 송진이 없거든.)

107074 @1 아.(아.)

107074 #4 경 허영 허믄 시릿징 놔근엔에 큰 솟디 시릿징 낱 허민 솔잎 혼 징, 혼 처레 허영 삭삭 서꺼근엔에 그레 떡 놓곡.(그렇게 해서 하면 경그레 놔서 큰 솔에 경그레 놔서 하면 솔잎 한 켠, 한 차례 해서 삭삭 섞어서 그리로 떡 놓고.)

107074 @1 음.(음.)

107074 #4 또 그 떡 논 우터레 또 솔잎 서꺼근엔에 떡 놓곡 경 허영 허믄 다 쳐지민 이제 그 솔잎차 물러레.(또 그 떡 놓은 위로 또 솔잎 섞어서 떡 놓고 그렇게 해서 하면 다 찌지면 이제 그 솔잎째 물로.)

107074 @1 음.(음.)

107074 #4 냉수.(냉수.)

107074 @1 으.(으.)

107074 #4 냉수레 영 허영 등그민 그 솔잎 트로 떡 트로.(냉수로 이렇게 해서 담그면 그 솔잎 따로 떡 따로.)

107074 @1 으.(으.)

107074 #4 경 허영 허믄 그 춤 채롱작에 허영.(그렇게 해서 하면 그 참 채롱작에 해서.)

107074 @1 으.(으.)

107074 #4 그 꺼꺼지지 아녀게 잘 헤여근엔에 경 허곡 허여난.(그 꺾어지지 않게 잘 해서 그렇게 하고 했었어.)

107074 @1 게난 친 다음에 걸 싯으는 거라예?(그러니까 찢 다음에 걸 씻는 거 네요?)

107074 #4 어, 싯어.(어, 씻어.)

107074 @1 혼번예?(한번요?)

107074 #4 솔잎에 헤어나 부난 시청.(솔잎에 했어 버리니까 씻어서.)

107074 @1 아.(아.)

107074 #4 시청.(씻어서.)

107074 @1 시청은에. 거기에 뭐 지름 불르거나 영은 안 헤마씨?(씻어서. 거기에 뭐 기름 바르거나 이렇게는 안 해요?)

107074 #4 저 그 솔벤 절벤엔 지름 아니 헌디 그 동글락헌 그것엔 지름 불르는 거 우리 봐난.(저 그 솔편 절편엔 기름 아니 하는데 그 동근 그것엔 기름 바르는 거 우리 봤었어.)

107075 @1 으, 우에 그 저 고장떡에는? 음, 게영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그 지름, 지름떡예, 그거 멘드는 거는 어떻게 허여마씨? 것도 치는 거우파? 아니면 치는 거우파?(으, 위에 그 저 '고장떡'에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기름, 기름떡요, 그거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해요? 것도 찌는 겁니까? 아니면 찌는 겁니까?)

107075 #4 처난.(찢었어.)

107075 @1 옛날에는 처난?(옛날에는 찢었어?)

107075 #4 처난. 것도 솔입에 영 난 처난.(찢었어. 것도 솔입에 이렇게 와서 찢었어.)

107075 @1 청은에 건 기름 불량 허고. 요즘은 그 지름떡들 다 저기 후라이팬에 허잖아예?(찌서 건 기름 발라서 하고. 요즘은 그 기름떡들 다 저기 프라이팬에 하잖아요?)

107075 #4 지름떡 후라이팬에 다 지점주기게.(기름떡 프라이팬에 다 지지고 있지.)

107075 @1 예, 이제는예, 옛날에는 그대로.(예, 이제는요, 옛날에는 그대로.)

107075 #4 그대로게.(그대로.)

107076 @1 으, 그대로 이제 행은에 만들곡. 그다음에 혹시 삼촌도 당에도 텅겨 받마씨?(으, 그대로 이제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혹시 삼촌도 당에도 다녀봤어요?)

107076 #4 당?(당?)

107076 @1 으. 당예?(으, 당예?)

107076 #4 옛날 당?(옛날 당?)

107076 @1 으.(으.)

107076 #4 당예, 이, 이 아래, 아, 요 아래가 아니고 어디고? 요펜이로구나. 옛날 당 셔났어.(당예, 이, 이 아래, 아, 요 아래가 아니고 어디고? 요쪽이로구나. 옛날 당 있었어.)

107076 @1 으.(으.)

107076 #4 당 셔난디. 외도도 당 셔나신디 그 난 텅겨보지 아녀신디 당예 허여 근앵에 자꾸 저 뭐 허곡. 아이덜만 쪼끔 아파도이.(당 있었는데. 외도도 당 있었는데 그 난 다녀보지 않았는데 당예 해서 자꾸 저 뭐 하고. 아이들만 쪼끔 아파도.)

107076 @1 으.(으.)

107076 #4 우리 보든 당예 텅기는 어른덜 볼 땐 우리 아인 때지게.(우리 보면 당예 다니는 어른들 볼 땐 우리 아인 때지.)

107076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76 #4 경 허연 당예 텅기는 거 보든 큰 나무.(그렇게 해서 당예 다니는 거 보면 큰 나무.)

107076 @1 음.(음.)

107076 #4 큰 나무 허여근에 허민 영 돌로 영 싸근에이, 사름 들어가지, 잡 사름 들어가지 못허게 허영.(큰 나무 해서 하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서, 사람 들어가지, 잡 사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107076 @1 예.(예.)

107076 #4 싸근에 허영 당에 아이덜 몸에 부스럼지만 나도.(싸서 해서 당에 아이들 몸에 부스럼만 나도.)

107076 @1 으.(으.)

107076 #4 아이고, 당에 강 와사키여. 경 허영 허는 거 들어난.(아이고, 당에 가 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들었었어.)

107076 @1 음.(음.)

107076 #4 경 허영 메허곡 그디도 돌레떡이나 무시거 허곡.(그렇게 해서 매하고 거기도 도래떡이나 무엇 하고.)

107076 @1 으.(으.)

107076 #4 지전 몰랑이, 지전 몰르는 건 그 돈ㄴ짜 옛날 그 저승돈⁵²⁰엔 허주게.(지전 말아서, 지전 마는 건 그 돈같이 옛날 그 ‘저승돈’이라고 하지.)

107076 @1 예, 예.(예, 예.)

107076 #4 그거 몰르곡 헤영 그거 허곡 그 기냥 또 지전 스는 거엔 허여근엔에 또 기냥 또 백지.(그거 마르고 해서 그거 하고 그 그냥 또 지전 사루는 거라고 해서 또 그냥 또 백지.)

107076 @1 예, 백지.(예, 백지.)

107076 #4 백지 그 종이이. 그거 허영 가정강 슬아근엔에 이녁냥으로 기자 입담⁵²¹허곡 경.(백지 그 종이. 그거 해서 가져가서 사루어서 이녁대로 그저 ‘입담’하고 그렇게.)

107076 @1 으.(으.)

107076 #4 허여난, 이디도. 요, 요 ○○○ 그 이제 저 거세기한 디도.(했었어, 여기도. 요, 요 ○○○ 그 이제 저 거시기한 데도.)

107076 @1 겨난 그 당 이름은 뭐우파? 여기서는.(그러니까 그 당 이름은 뭐니까? 여기서는.)

107076 #4 당 이름은 잘, 우린 몰르커라, 현디. 그냥 당이엔만 헤여낫주기에.(당 이름은 잘, 우린 모르겠어, 한테. 그냥 당이라고만 했었지.)

107076 @1 당예, 할망당예?(당요, ‘할망당’요?)

107076 #4 할망당⁵²², 할망당게. 할망당 펜안 아니 해도 그디 강 빌곡 허난 할망당이엔 허는 거.(‘할망당’, ‘할망당’. ‘할망당’ 편안 아니 해도 거기 가서 빌고 하니까 ‘할망당’이라고 하는 거.)

520) ‘저승돈’은 영혼들이 저승에서 쓸 돈을 말한다. 지전이 이에 해당한다.

521) ‘입담’은 당에 가서 신에게 기원하면서 하는 말이다.

522) ‘할망당’은 할머니 신을 모신 당이다. 여기에서 ‘할망’은 당신을 높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107076 @1 으.(으.)

107076 #4 저 할머니당에 강와사켜. 정도.(저 ‘할머니당’에 가 와야겠다. 그렇게 도.)

107076 @1 으.(으.)

107076 #4 주로 곶아난.(주로 말했었어.)

107076 @1 할머니당에예, 예?(‘할머니당’에요, 예.)

107076 #4 아이 부스럽지만 나도 그거 퀘로와도 그거. 옛날 지금이난 헛주기, 옛날은 병원에 경 가지 아녀곡게 경 해 놓난 마노라엔 헌 건 지금 그.(아이 부스럽 만 나도 그거 괴로워도 그거. 옛날 지금이니까 했지, 옛날은 병원에 그렇게 가지 않 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홍역이라고 한 건 지금 그.)

107076 @1 홍역.(홍역.)

107076 #4 홍역이지.(홍역이지.)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난 마누라 허영 헐 때엔 그 재게 그 뭐허렌 헤여근엔에 저 풋. 풋 영 농곡 허여근엔에 그 시리떡.(그렇게 하니까 홍역 해서 할 때엔 그 재우 그 뭐 하고 해서 저 팔. 팔 이렇게 놓고 해서 그 시루떡.)

107076 @1 으.(으.)

107076 #4 청이. 이 머리맛디 놓는 것도 우리 봐났어.(찌서. 이 머리말에 놓는 것도 우리 봤었어.)

107076 @1 아.(아.)

107076 #4 그거 헤나른 재게 그 뭐허영 닥지 입어근에.(그거 헤나면 재우 그 뭐 해서 딱지 입어서.)

107076 @1 으.(으.)

107076 #4 뭐허렌 헌 뜻이엔.(뭐하라고 한 뜻이라고.)

107076 @1 아.(아.)

107076 #4 경 허영 질 마지막, 메칠 일주일이나 메칠 뒤편에 그 혼이 뒤편 가 른 또 그거 앓아뒀, 그 떡을 죽장 놓는 것이 아니고.(그렇게 해서 쥘 마지막, 며칠 일주일이나 며칠 되어서 그 한이 되어 가면 또 그거 가져두고, 그 떡을 쪽 놓는 것 이 아니고.)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영 허영 입담 허명 그 뭐 헤난 그다음엔 깨끗하게 곱게 헤여 줍센 헤연 백시리.(그렇게 해서 해서 ‘입담’ 하면서 그 뭐 했던 그다음엔 깨끗하게 곱게 해 주십사고 해서 백설기.)

107076 @1 으.(으.)

107076 #4 백시리 쳐근엔에 또 놓는 거 봐난.(백설기 찌서 또 놓는 거 봤었어.)

107076 @1 아, 옛날에는예? 정성들을 그렇게 헌 거라예?(아, 옛날에는요? 정성 들을 그렇게 한 거네요?)

107076 #4 정성. 정성들을. 경 허여도 홍역 허당 가는 아이덜이 하낫주기, 옛날은.(정성. 정성들을. 그렇게 해도 홍역 하다가 가는 아이들이 많았었지, 옛날은.)

107076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76 #4 병원에 안 텡겨 부난. 병원이 엇어 부난. 침이나 맞히곡 기자 춤 심방 허영 빌기나 허곡 헛주기게.(병원에 안 다녀 버리니까. 병원이 없어 버리니까. 침이나 맞히고 그저 참 심방 해서 빌기나 하고 했지.)

107076 @1 맞수다.(맞습니다.)

107076 #4 경 허난 현디 지금은 쪼끄만 쪼끄만 감기 기운 해도 병원에 들고 허난 이즈음은 아이덜이 무정허게 크는디 옛날은 요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지금은 쪼끄만 쪼끄만 감기 기운 해도 병원에 달고 하니까 이즈음은 아이들이 무정허게 크는데 옛날은 요 ○○○.)

107076 @1 으.(으.)

107076 #4 요디도 저 그 어린 무덤덜이 경 하낫젠 헛어.(요기도 저 그 어린 무덤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헛어.)

107076 @1 아.(아.)

107076 #4 그디 기냥 그 이 목욕탕 짓기 전이.(거기 그냥 그 이 목욕탕 짓기 전에.)

107076 @1 예, 예.(예, 예.)

107076 #4 그디 그 막 뉘 헌 디가 셔낫주기. 겨난 그디도 천지고. 또 이제 외도 이 내.(거기 그 막 뉘 한 데가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도 천지고. 또 이제 외도 이 내.)

107076 @1 예, 예.(예, 예.)

107076 #4 내로 우터레 올라간 디 짐동산⁵²³⁾엔 헌 디가 있어. 짐동산, 짐동산 헌 디, 그디도 맨 아이 무덤.(내로 위로 올라간 데 ‘짐동산’이라고 한 데가 있어. ‘짐동산’, ‘짐동산’ 하는 데, 거기도 맨 아이 무덤.)

107076 @1 음.(음.)

107076 #4 옛날은 그런 거세기가 한게. 그런 게.(옛날은 그런 거시기가 많았어. 그런 게.)

107076 @1 예.(예.)

107076 #4 병원에 안 가근에 그런 홍역 허당 가 부는 아이들이 항. 그디도 경 하난 디 이젠 그것저것 그디도 싹 허연 밀어 불고.(병원에 안 가서 그런 홍역 하다가 가 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거기도 그렇게 많았던 데 이젠 그것저것 거기도 싹 해서 밀어 버리고.)

107076 @1 예.(예.)

107076 #4 이디도 경 해연 저 허여 불고, 경.(여기도 그렇게 해서 저 해 버리고, 그렇게.)

523) ‘짐동산’은 제주시 외도동의 지명의 하나다.

107076 @1 케난 삼촌네는 당에도 안 가고. 집에 심방 빌영은에 뭐 곳해 보거나 영은 안 험디까?(그러니까 삼촌네는 당에도 안 가고. 집에 심방 빌려서 뭐 곳해 보거나 이렇게는 안 험디까?)

107076 #4 우린, 아니 저 우리 집윗 아방⁵²⁴이 옛날.(우린, 아니 저 우리 집의 아버지이 옛날.)

107076 @1 으.(으.)

107076 #4 그 차 탈 때난, 옛날 시절에 차 탈 때난 저 찰 거세기, 질 이 동네선 질 문여 운전을 해신디. 그 우리 결혼허기 전의 군대에 가신디 군대에서 차 탄에 운전을 배우난 군대 면허증을 허연.(그 차 탈 때니까, 옛날 시절에 차 탈 때니까 저 찰 거시기, 질 이 동네선 질 먼저 운전을 했는데. 그 우리 결혼하기 전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차 타서 운전을 배우니까 군대 면허증을 해서.)

107076 @1 으.(으.)

107076 #4 면허증을 허연 제대헌 이디 오난 군대 면허증이 시난 면허증 따기가 쉬완.(면허증을 해서 제대해서 여기 오니까 군대 면허증이 있으니까 면허증 따기가 쉬웠어.)

107076 @1 예.(예.)

107076 #4 쉬완에 면허증 허연 그 관광. 옛날은 이 웃동네 이 절물⁵²⁵이엔 헌 디 셔.(쉬워서 면허증 해서 그 관광. 옛날은 이 웃동네 이 ‘절물’이라고 한 데 있어.)

107076 @1 예, 예. 절물.(예, 예, ‘절물’.)

107076 #4 절물. 그디 전분공장이 셔났어.(‘절물’. 거기 전분공장이 있었어.)

107076 @1 으.(으.)

107076 #4 크게 전분공장.(크게 전분공장.)

107076 @1 으.(으.)

107076 #4 막 춤 시로 이렌 그 전분공장이 질 커낫주기게.(막 참 제주로 이렌 그 전분공장이 질 컸었지.)

107076 @1 예.(예.)

107076 #4 경 허연 허난 그디도 차 타, 거기 차 스리꿔따엔 헌 거, 그 추럭 쪼끄만헌 거이.(그렇게 해서 하니까 거기도 차 타, 거기 차 스리꿔터라고 한 거, 그 트럭 쪼끄마한 거.)

107076 @1 으.(으.)

107076 #4 스리꿔따엔 헌 거 그 공장에 시난 그거 허연 타신디 그디 공장장이 춤 좋은 어른 만난 막 오라, 오라 헤연에 경 허연 그디 차 타단에 이젠, 또 저 신진 관광⁵²⁶은 관덕정 이펜이 휘사가 셔났어. 그디 차 타근엔에 저 도 일주이.(스리꿔터라고 한 거 그 공장에 있으니까 그거 해서 탔는데 거기 공장장이 참 좋은 어른 만

524) 여기에서 ‘아방’은 아이 아버지, 즉 남편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525) ‘절물’은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526) ‘신진관광’은 관광 및 여행 관련 일을 했던 회사 이름이다.

나서 아주 오라, 오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 차 타다가 이젠, 또 저 신진관광은 관덕정 이쪽에 회사가 있었었어. 거기 차 타서 저 도 일주.)

107076 @1 음.(음.)

107076 #4 도 일주 손님덜 시경 경 허곡. 경 허멍 허연 허단, 어떻 허연게 집안이 안 좋젠 허난에 니가 알런게.(도 일주 손님들 실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해서 집안이 안 좋으려고 하니까 이가 알렸어.)

107076 @1 음.(음.)

107076 #4 니가 알런에 막 허난 스뭇 춤 뒤 허연. 어려운 시절이난 경 허연 허난 이젠 치과에 가난에 저 시에 그 중앙로 아래 제주치과엔 헌 디 셔났어. 서구, 저 북국민학교⁵²⁷⁾ 우넉펜이.(이가 어려서 막 하다가 사뭇 참 뒤 했어.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젠 치과에 가니까 저 제주시에 그 중앙로 아래 제주치과라고 한 데 있었어. 서구, 저 북초등학교 위쪽에.)

107076 @1 음.(음.)

107076 #4 제주치과 셔난디 그디 해연 가난, 니 빠뒤. 하도 급급허난 알리난 니 빠 줍젠 허난에 못 빠, 못 빠켄 허난 죽어져도 좋으난 빠 줍젠 막 허난. 누게 보증을 앓이렌 거기서 헌 생이라.(제주치과 있었는데 거기 해서 가니까, 이 빠두고. 하도 갑갑하니까 아리니까 이 빠 줍십사고 하니까 못 빠, 못 빼겠다고 하니까 죽어져도 좋으니까 빠 주십사고 아주 하니까. 누구 보증을 앓히라고 거기서 한 모양이야.)

107076 @1 으.(으.)

107076 #4 우리 죽은아지방이 그 즈깁디 이발소에 탕길 때난에 이제 아시신디 간 느 영 영 허연 보증 앓이렌 허난 아시도게 겁난 보증 안 앓이켄 헌 거주게. 안 앓이켄 허난, 나 죽어도 좋난 보증만 앓아드렌 막 허난 흘 수 웃이 성이 경 곶으난 보증을 앓안에 허연.(우리 작은아주버니가 그 곶에 이발소에 다닐 때니까 이제 아우한테 가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증 앓으라고 하니까 아우도 겁니사 보증 안 앓겠다고 한 거지. 나 죽어도 좋으니까 보증만 앓아달라고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형시 그렇게 말하니까 보증을 앓아서 했어.)

107076 @1 으.(으.)

107076 #4 널 이젠 뺨 거라. 뺨 허난에 그 알리는 건 덜 허여신디 동티로 경헌 걸 몰란.(일 이젠 뺨 거야. 빼서 하니까 그 아리는 건 덜 했는데 동토로 그런 걸 몰랐어.)

107076 @1 음.(음.)

107076 #2 널 뺨, 생니를 뺨 거지. 빠난 츄츄츄츄츄츄 그 아귀턱이 내려앉아 불언게.(일 빼서, 생니를 뺨 거지. 빠니까 차차차차차차 그 턱이 내려앉아 버렸어.)

107076 @1 으.(으.)

107076 #4 요만큼만이 입이 못 벌견.(요만큼밖에 입이 못 벌렸어.)

527) '북국민학교'는 제주시에 있는 북초등학교를 말한다.

107076 @1 으.(으.)

107076 #4 못 벌건 허난 무시거 죽을 썬도 그자 영 거려 먹지 못하고 영도 아
녕 후 후려사 먹고. 밥을 해도 물에 즘앙 국에 즘앙 그자 혹허게 경 허곡. 경 허연
해낫주기게. 경 허연 허난 그 혼이 웨연산디사 어딜로 춤 거세기사 헤신디 우리 씨
어머님넨 시에 그 한내⁵²⁸) 요 서녁편이 서국민혹교 뒤에 살아신디.(못 벌려서 하니
까 무엇 죽을 썬도 그저 이렇게 떠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도 앓고 후 후려야 먹고.
밥을 해도 물에 말아서 국에 말아서 그저 혹하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지.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한이 되었는지 어디로 참 거시기야 했는지 우리 시어머님넨
제주시에 그 한내 요 서쪽에 서초등학교 뒤에 살았는데.)

107076 @1 예, 예.(예, 예.)

107076 #4 넘어가는 어른이 아메도 우리 집의 아방이 큰아덜이곡 허난.(넘어가
는 어른이 아마도 우리 집의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하니까.)

107076 @1 으.(으.)

107076 #4 할망이 그만큼 걱정 근심을 헤여신ㄴ라 그냥 질긋집의 여름이난 산
그레 젓억 저레 젓억 근심 걱정 헤여신ㄴ라 어떤 노인네가 여즈 어른이 넘어가단
것도 혼이 웬 생이라.(할머니가 그만큼 걱정 근심을 했는지 그냥 길갓집에 여름이니
까 서서 그리 저어 저리 저어 근심 걱정 했는지 어떤 노인네가 여자 어른이 넘어가
다가 것도 한이 된 모양이야.)

107076 @1 으.(으.)

107076 #4 넘어가단에 흐뎡 쉬영 가쿠다. 이디 흐뎡 잇돌에 흐뎡 그늘에 흐뎡
쉬영 가쿠다. 경 험셴, 우리 씨어머님이 헛셴.(넘어가다가 조금 쉬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조금 뎡돌에 조금 그늘에 조금 쉬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
어머님이 했다고.)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난 시난 우리 씨어머님이 걱정 근심이 딱 시난에.(그렇게 하니
까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걱정 근심이 딱 있으니까.)

107076 @1 으.(으.)

107076 #4 아주머닌 걱정 근심이 신 생, 싯구나양 허난, 싯수다. 경 허명 허난
손그릇을 보게마썸? 헤렌.(아주머닌 걱정 근심이 있는 모양, 있군요 하니까, 있습니
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손금을 보게요? 하더라고.)

107076 @1 으, 으.(으, 으.)

107076 #4 경 허연 손그릇을 허연 봐 줍셴 허연 보난에 저 이 아픈 사름, 그 이
제 큰, 아주머니 큰아덜 이제 당헌 할머니 산을 천리헤 보민 알을 도레가 실 겨우
덴.(그렇게 해서 손금을 해서 봐 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저 이 아픈 사름, 그 이제
큰, 아주머니 큰아들 이제 당한 할머니 묘를 면례해 보면 알 도리가 있을 겁니다
고.)

528) '한내'는 제주시 용담동에 소재한 내 이름이다.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여렌.(그렇게 하더라고.)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난, 아이고, 경허우겐 허난 우린 경우 오래 경 아방이 경 헤여 불곡 아이덜 경 어리고 허연 허난. 춤 그때도 놈의 집 빌연 살 때라.(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린 경우 오래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해 버리고 아이들 그렇게 어리고 해서 하니까. 참 그때도 남의 집 빌려서 살 때야.)

107076 @1 으.(으.)

107076 #4 우리 집 아방이 옛날 관광 차 탄 돌아다, 시에서 살단 이디 왔어게. (우리 집 아버지가 옛날 관광 차 타서 돌아다, 제주시에서 살다가 여기 왔어.)

107076 @1 으.(으.)

107076 #4 돌아텐길 때엔 그 화토 잘 치곡이.(돌아다닐 때엔 그 화투 잘 치고.)

107076 @1 웃음.(웃음.)

107076 #4 막 경헌 걸로 그 벌영 오라도 경 문.(아주 그런 걸로 그 벌어서 와도 그렇게 몽땅.)

107076 @1 으.(으.)

107076 #4 디밀아 불어근앵에 아기덜 생각도 아녀곡 경 허멍 허난. 경 안 헤시 민 우리 시에 살아실 건디.(디밀어 버려서 아기들 생각도 앓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제주시에 살았을 건데.)

107076 @1 으, 으.(으, 으.)

107076 #4 우리 씨아지방 셋아지방은 시에 살암서게.(우리 시아주버니 둘째시아주버니는 제주시에 살고 있어.)

107076 @1 으.(으.)

107076 #4 경헌디 나 어린 때 부모 잃어 불고 우리 죽은아버지네광 경 허연 살 단 경 허난 죽은아버지신디 완, 아버지, 나 암만이라도 못 살쿠다. 나 이디 어디 방 하나 빌어 줍서. 경 허멍 허난 이제 경 허렌 허연 우리 죽은아버지가 방 빌어준 아기덜 들고 우로.(그런데 나 어릴 때 부모 잃어 버리고 우리 작은아버지네랑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렇게 하니까 작은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암만이라도 못 살겠습 니다. 나 여기 어디 방 하나 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 라고 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방 빌려줘서 아기들 데리고 위로.)

107076 @1 으.(으.)

107076 #4 아덜 하나 신디 우로 오누인 이젠 씨어머님신디 강 나 암만이라도 못 살쿠덴 허고 어린, 저 우리 셋딸만 어린 것만 업어 아전 왓주기에.(아들 하나 있는데 위로 오누인 이젠 시어머님한테 가서 나 암만이라도 못 살겠습니다고 하고 어 린, 저 우리 둘째딸만 어린 것만 업어 가지고 왔지.)

107076 @1 으.(으.)

107076 #4 오난에. 웃음. 우리 씨어머님은게 아덜신디 속숨헤여게.(오니까. 웃음.)

우리 시어머님은 아들한테 조용해.)

107076 @1 으.(으.)

107076 #4 집의 와시난 막 기냥 나 이 거세기 나 손지 보게 웨여시넨 허멍 막 기냥 뭐 허연 허난. 춤 돌아 아전 기어들어 농난에 이젠 * 우리 족은아버지가 경 곤는 거라. 놈으 서방이란 웨도 못허곡이 뭐 한다. 어떻허느니? 느 팔즈가 경 현 걸 살아사 허주기, 아기덜 보는 게 살라, 살라 허연.(집에 왔으니까 막 그냥 나 이 거 시기 나 손주 보게 되었느냐고 하면서 막 그냥 뭐 해서 하니까. 참 데려 가지고 기어들어 놓으니까 이젠 * 우리 족은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남의 서방이어서 웨도 못하고 뭐 한다. 어떡하느냐? 너 팔자가 그렇게 한 걸 살아야 하지, 아이들 보는 게 살아라, 살아라 해서.)

107076 @1 으.(으.)

107076 #4 춤 살아신디 어떻 어떻 그 전분공장에 차 타명도 뭐허연 허단. 배에 또 좋아허영 바당 뎅기는 이 개올레⁵²⁹⁾ 배.(참 살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 전분공장에 차 타면서도 뭐해서 하다가. 배에 또 좋아해서 바다 다니는 이 ‘개올레’ 배.)

107076 @1 으.(으.)

107076 #4 드리 아래 배 타는 디 구경가곡 허단. 배 탕 나가는 거 보곡 경 허여 농난 그 벨 타질 못허연 막 기냥 헤연. 이녁 차 타단 건, 전분공장에 차 타단 건 다른 사람 헤연에 멘허증 타게꾸리 허연 ㄹ리천 이젠 허연 쥐두고 벨 탄 거라게.(다리 아래 배 타는 데 구경가고 하다가. 배 타서 나가는 거 보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벨 타질 못해서 막 그냥 해서. 이녁 차 타던 건, 전분공장에 차 타던 건 다른 사람 해서 면허증 타게끔 해서 가르쳐서 이젠 해서 쥐두고 벨 탄 거야.)

107076 @1 으.(으.)

107076 #4 벨 탄 게 경 배에 경 배에 뎅기멍, 아이고, 잘 즈들환.(벨 탄 게 그렇게 배에 그렇게 배에 다니면서, 아이고, 잘 걱정하게 했어.)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영 헌디 그 어려운 시절이난에 뭐허연 헌디 그 아귀톡⁵³⁰⁾은.(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뭐해서 했는데 그 턱은.)

107076 @1 으.(으.)

107076 #4 구완 잘, 탓으로 한 거난 잘 거세기 못 허연. 허연 헛단에 그 우리 씨어머님이 경 허난 스춘덜 ㄹ라 느네도 할머니난 어떻허느니? 모다들영 느네도 조상이난 천릴 헤여살 거 아니가? 그 집원 아기덜이 때 굶게 돼 부난.(구완 잘, 탓으로 한 거니까 잘 거시기 못 했어. 해서 했다가 그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촌들보고 너희도 할머니니까 어떡하느냐? 모여들어서 너희도 조상이니까 면렐 해야할 것 아니니? 그 집엔 아기들이 때 굶게 되어 버리니까.)

107076 @1 으.(으.)

529) ‘개올레’는 제주시 외도동의 지명이다. ‘개’ 즉, 포구로 이어진 오래여서 붙은 지명이다.

530) ‘아귀톡’은 턱의 낮춤말이다.

107076 #4 그 집의냥으로 허게 안 돼꼭 어떻허느닌 허난, 우리 스춘 씨아지방덜 이 아이고, 경 우리도 다 조상인디 경 허민 경 험주게. 성님 경 허는 거 게문 경 험 주겐 허연 스춘 씨아지방덜 모다들언 천릴 허연 보난에.(그 집대로 하게 안 되고 어떡하느냐 하니까, 우리 사촌 시아주버니들이 아이고, 그렇게 우리도 다 조상인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지요. 형님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합지요 해서 사촌 시아주버니들 모여들어서 면렐 해서 보니까.)

107076 @1 으.(으.)

107076 #4 그 식으로.(그 식으로.)

107076 @1 으.(으.)

107076 #4 처음엔 요 트가리 요만인허게 특 불고롱 조훼로게.(처음엔 요 턱 요만하게 턱 발그레 조화로.)

107076 @1 으.(으.)

107076 #4 불고롱허게 헤엇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영 알령. 아이고, 아이고 허여 가민 그것이 츠츠 웃어젓당.(발그레하게 했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해서 아려서. 아이고, 아이고 해 가면 그것이 차차 없어졌다가.)

107076 @1 으.(으.)

107076 #4 웃어젓당 자꾸 그치룩 허연게. 경 허난 그 조훼로 경 헤염젠 헤연 천리험 보난.(없어졌다가 자꾸 것처럼 했어. 그렇게 하니까 그 조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면렐해서 보니까.)

107076 @1 으.(으.)

107076 #4 아닌게 아니라이 그 돌세기 하날.(아닌게 아니라 그 돌맹이 하날.)

107076 @1 으.(으.)

107076 #4 특허게 트가리 받혀전 잇언. 새각⁵³¹⁾ 비환 경 허엿젠.(탁하게 턱 받혀져서 있어. ‘새각’ 비춰서 그렇게 했다고.)

107076 @1 으.(으.)

107076 #4 돌세기도 새각 비환 그레 그 둥그러왔젠. 경 허난 옛날 어른덜 하관 시간에랑 즈손덜 돌 잘 좇으라, 돌 잘 좇으라.(돌맹이도 ‘새각’ 비춰서 그리 그 굴러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옛날 어른들 하관 시간에는 자손들 돌 잘 주워라, 돌 잘 주워라.)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헤연 헤난 생이라게.(그렇게 해서 했던 모양이야.)

107076 @1 예. 게 그때 허영 굿험디가?(예. 게 그때 해서 굿합디까?)

107076 #4 경 허연 허난 나그네도 자꾸 거세기 허연 굿도 허고이, 막 경 허연 난.(그렇게 해서 하니까 나그네도 자꾸 거시기 해서 굿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

107076 @1 음, 그때.(음, 그때.)

107076 #4 경 허꼭 천리허꼭 허난산디사 게도 낮안.(그렇게 하고 면렐하고 해서

531) ‘새각’은 좋지 않은 사악한 기운을 말한다.

인지 그래도 나왔어.)

107076 @1 으.(으.)

107076 #4 그르후제 또 베에 텅기고 허단.(그 이후에 또 배에 다니고 하다가.)

107076 @1 으.(으.)

107076 #4 돌아가션.(돌아가셨어.)

107076 @1 예, 계난 그 굿할 때 그 떡들은 어떻 거 험디가? 굿떡은?(예, 그러니까 그 굿할 때 그 떡들은 어떤 거 합디까? ‘굿떡’은?)

107076 #4 굿떡⁵³²은 기냥게, 기냥 돈으로 메쩌.(‘굿떡’은 그냥, 그냥 돈으로 맡겨서.)

107076 @1 아아.(아아.)

107076 #4 메쩌.(맡겨서.)

107076 @1 으.(으.)

107076 #4 놈으 집 살아놓고 해 놓난 뭐 아이덜 어리고 허난 나가 흘 수가 웃 언 허난 돈으로 뭐허커매 알아근에 허영 읍셴 허연.(남의 집 살아놓고 해 놓으니까 뭐 아이덜 어리고 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서 하니까 돈으로 뭐하겠으니 알아서 해서 오십사고 해서.)

107076 @1 으.(으.)

107076 #4 허연, 허연 허고 그것도 그것고. 저 그 흥뽀 숨 쉬영 살렌 허젠 허난 산디사 그 자꾸 저 동문로타리 그 동더레 가민 사라봉⁵³³ 앞의, 사라봉.(해서, 해서 흥고 그것도 그것이고. 저 그 조금 숨 쉬어서 살라고 하려고 하니까인지 그 자꾸 저 동문로타리 그 동으로 가면 사라봉 앞의, 사라봉.)

107076 @1 예, 예.(예, 예.)

107076 #4 잊지 아녀?(있지 않아?)

107076 @1 으.(으.)

107076 #4 그 앞의 보살이 살아신디. 그 보살 저 셋어명인가 누게 우리 친구라 낫어.(그 앞에 보살이 살았는데. 그 보살 저 둘째어머닌가 누구 우리 친구였어.)

107076 @1 으.(으.)

107076 #4 요 동네 사는데, 경 허난 이 보살이라고. 경 헨 이젠 경헌 말 곶으난 우리 친구가 우리 조케안티 간 들어보렌.(요 동네 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보살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젠 그런 말 말하니까 우리 친구가 우리 조카한테 가서 들어보라고.)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연. 간 들으난 경 허고 저영허고 헤사 허쿠덴 저 경 험 수가 영 영 어떻허영 허느니 경 허명 그냥 왓어게.(그렇게 했어. 가서 물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하겠다고 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떡해서 하느냐 그렇게 하

532) ‘굿떡’은 굿을 할 때 신위 앞에 올리는 떡이다.

533) ‘사라봉’은 제주도 건입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면서 그냥 왔어.)

107076 @1 으.(으.)

107076 #4 온디 혼 메칠 시난에 저 우리 그때도 놈의 밧거리 살 때주기.(왔는데 한 며칠 있으니까 저 우리 그때도 남의 바깥채 살 때지.)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연 완에, 이수강? 이수강? 허영 보난 가난 보살이라.(그렇게 해서 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해서 보니까 갔던 보살이야.)

107076 @1 으.(으.)

107076 #4 아이고, 어떻허연 완딘? 허난, 아척이 새벽 꿈에 지네 조상님이.(아이고, 어떡해 왔느냐? 하니까, 아침에 새벽 꿈에 저네 조상님이.)

107076 @1 으.(으.)

107076 #4 아명 아명 현 딜로 가보렌 헤연에 가보민 알을 도레가 실 거옴.(아무런 아무런 데로 가보라고 해서 가보면 알 도리가 있을 가라고.)

107076 @1 으.(으.)

107076 #4 허연 경 허연 오ᄇ렌 오난.(해서 그렇게 해서 오노라고 오니까.)

107076 @1 으.(음.)

107076 #4 춤, 혼번 와나지도 아년디 경현 그 보살이 완. 이 보살이엔 현 사람이 여잔디.(참, 한번 왔었지도 았은데 그런 그 보살이 와서. 이 보살이라고 한 사람이 여잔데.)

107076 @1 아.(아.)

107076 #4 경 헤연 완에 그 어른이 허연 그 문전에도 빌고 이 ○○○ 아래.(그렇게 해서 와서 그 어른이 해서 그 문전에도 빌고 이 ○○○ 아래.)

107076 @1 예, 예.(예, 예.)

107076 #4 글로 간에이, 글로 간 바탕으로 허연에 잘 뛰시기 허연 현디, 그것도 춤 몰르덴 헐 수가 엇이커란게.(그리로 가서, 그리로 가서 바다로 해서 잘 무엇 해서 했는데, 그것도 참 모른다고 할 수가 없던데.)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난 막 무시거 허연 이젠 허연 막 춤 빌고 막 허연 허단에, 청춘에 죽은 영혼이 집안에 시넨?(그렇게 하니까 막 무엇 해서 이젠 해서 막 참 빌고 막 해서 하다가, 청춘에 죽은 영혼이 집안에 있느냐고?)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여.(그렇게 해.)

107076 @1 으.(으.)

107076 #4 경 허난 그 전에 우리 씨어머님 허는 말이 우리 씨고모가 청춘에 죽은.(그렇게 그 전에 우리 시어머님 하는 말이 우리 시고모가 청춘에 죽은.)

107076 @1 아.

107076 #4 씨고모가 싯젠. 절혼도 못허고 씨누이가 셔낫젠 현 말을 나가 들어낫

어. 우리 씨어머님이 영 영 현 말은 곱아낫수텐 경 허난.(시고모가 있다고. 결혼도 못하고 시누이가 있었다고 한 말을 내가 들었었어.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이렇게 한 말은 말했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107076 @1 으.(으.)

107076 #4 그 청춘에 죽은 영혼이 이제 뭐 허연 허난 그 상에 잘허렌 해연 이젠 허연 허난. 옷이라도 허영 성의껏 허영 혼 불 허영 잘, 고운 걸로 헤다근에 슬아 내곡 허렌 우리 스춘 아시ㄴ라 경 곱으난에 우리 씨누이가 동시장⁵³⁴에서.(그 청춘에 죽은 영혼이 이제 뭐 해서 하니까 그 상에 잘하라고 해서 이젠 해서 하니까. 옷이라도 해서 성의껏 해서 한 벌 해서 잘, 고운 걸로 헤다가 살라내고 하라고 우리 사춘 아우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시누이가 동문시장에서.)

107076 @1 으.(으.)

107076 #4 물건 장시허곡 옷 장시 험니덴. 게건 곤 걸로 뭐 상 오렌 헨 보낸 놈 두난 씨누이가 이젠 그런 장시 허난에 그런 디 쓰는 그 옷을 그 허연 풀안, 허연 꼭난에 이.(물건 장사하고 옷 장사 함니다고. 그러거든 고운 걸로 뭐 사서 오라고 해서 보낸 놈두니까 시누이가 이젠 그런 장사 하니까 그런 데 쓰는 그 옷을 그 해서 팔아서, 해서 파니까 이.)

107076 @1 으.(으.)

107076 #4 곤 걸로 그런 영혼은 이런 물색 거 곤 거 이런 거 헌덴 허멍 허연 허여렌 허멍에 가져오란 이젠. 그 거세기로 이젠 나가 해연 그 상에 막 허엿어게. 그 상에 허연 허영 허곡 그럭저럭허난산디 츄츄 츄츄.(고운 걸로 그런 영혼은 이런 물색 거 고운 거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해서 하더라고 하면서 가져와서 이젠. 그 거시기로 이젠 내가 해서 그 상에 막 하엿어. 그 상에 해서 해서 하고 그럭저럭해서인지 차차 차차.)

107076 @1 으.(으.)

107076 #4 낮안게. 경 허는 거 보난이 그.(나왔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107076 @1 동티예?(동토요?)

107076 #4 그냥 공돈 먹는 것도 아니란게. 그때 보난.(그냥 공돈 먹는 것도 아니던데. 그때 보니까.)

107076 @1 예, 맞수다. 그런 사람들도예? 음.(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음.)

107076 #4 경 허연 낮안 그르후제 춤 살단 뭐 허연.(그렇게 해서 나아서 그 이후에 참 살다가 뭐 했어.)

107078 @1 으, 알았수다. 게문 우리 보통 집에서 그냥 일반예, 떡을, 떡젠 헤영 멘드는 떡들은 어떤 거 잇어마씨?(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집에서 그냥 일반요, 떡을, 떡으려고 해서 만드는 떡들은 어떤 거 잇어요?)

107078 #4 제, 기일 제스 때에.(제, 기일 제사 때에.)

534) '동시장'은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제주동문시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107078 @1 아니, 기일 제사 때라도 아니면 보통 평소라도.(아니, 기일 제사 때 여도 아니면 보통 평소라도.)

107078 #4 평소에 경 떡을 경 허영 먹어저게?(평소에 그렇게 떡을 그렇게 해서 먹어저?)

107078 @1 뭐 속떡 같은 것도 허고.(뭐 쭉떡 같은 것도 하고.)

107078 #4 그 쭉, 쭉 캐여당근에 그 쭉버무리라고이.(그 쭉, 쭉 캐어다가 그 쭉 버무리라고.)

107078 @1 음.(음.)

107078 #4 기냥 떡 멘들질 아녀고.(그냥 떡 만들질 았고.)

107078 @1 아.(아.)

107078 #4 쭉, 쭉 삶양 물에 쯤 물에 쓴 거 우려뵤은에 딱 쨌질양 썰어놔근엥에 그냥 밀ㄹ리나 무신거에 삭삭 버무리, 버무리근에 시릿징에 낱근에 칭 허민 그것이 쭉버무리.(쭉, 쭉 삶아서 물에 담가서 물에 쓴 거 우려뵤서 딱 짜서 썰어놔서 그냥 밀가루나 무엇에 삭삭 버무리서, 버무리서 쯤그레에 놔서 쨌서 하면 그것이 쭉버무리.)

107078 @1 음.(음.)

107078 #4 그걸 허연 또 심심헌 때에 영 먹어나고.(그걸 해서 또 심심할 때에 이렇게 먹었었고.)

소와 고물

107079 @1 게영 쭉버무리 헤영 먹고예?(그래서 쭉버무리 해서 먹고요?)

107079 #4 쭉버무리.(쭉버무리.)

107079 @1 예. 혹시 이제 그 떡 할 때 그 쉬로 놔난 거는 어떤 것들 놔마씨? 주로. 쉬 놓는 거.(예. 혹시 이제 그 떡 할 때 그 소로 놔던 거는 어떤 것들 놔요? 주로. 소 놓는 거.)

107079 #4 쉬?(소?)

107079 @1 으.(으.)

107079 #4 쉬 놓는 건게 쫓쉬게.(소 놓는 건 팔소.)

107081 @1 쫓쉬밖에 안 놔. 따른 건 안 놔?(팔소밖에 안 놔. 다른 건 안 놔?)

107081 #4 안 놔.(안 놔.)

107081 @1 아.(아.)

107081 #4 쫓쉬.(팔소.)

107081 @1 쫓쉬가 주로예. 예.(팔소가 주로요, 예.)

107081 #4 그거 쉬운 걸로 기자 쫓 삶양 기자 쫓 뵤양 쫓쉬.(그거 쉬운 걸로 그 저 팔 삶아서 그저 팔 뵤아서 팔소.)

107081 @1 으, 게난 속에 놓는 것도 쫓, 그 밖에 징 허는 것도 쫓 으.(으, 그러니까 속에 놓는 것도 팔, 그 밖에 쨌 하는 것도 팔 으.)

107081 #4 풋게. 쉬운 걸로.(팔. 쉬운 걸로.)

107081 @1 옛날에 떡 치젠 허면 허지 말라 이런 말덜도 잇었어예? 떡 칠 때 아무 디나 다니, 들어오지도 말렌 허고.(옛날에 떡 찌려고 하면 허지 말라 이런 말들도 있었지요? 떡 찌 때 아무 데나 다니,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고.)

107081 #4 경, 게메. 떡 거세기 허는 건 그 붉은 풋은 방법으로 그 떡썰일 때에 제에 올리는 건 아녀주게. 안 허여근에, 이녁 춤 뒨 힌 때난. 옛날은이 어려운 때난 보리떡, 보리떡 허영 봄 나민 보리떡 허영 이 춤 동네에 돌령 허민 거 무사 경 헤 신고 허민 우리도 우린 아녀 봐신디 우리 친구 어명이 그걸 허영 허믄, 혼 징에 보리 얼마?(그렇게, 글썄. 떡 거시기 하는 건 그 붉은 팔은 비법으로 그 떡썰일 때에 제에 올리는 건 았지. 안 해서, 이녁 참 뒨 할 때니까. 옛날은 어려운 때니까 보리떡, 보리떡 해서 봄 되면 보리떡 해서 이 참 동네에 돌려서 하면 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도 우린 안 해 봤는데 우리 친구 어머니가 그걸 해서 하면, 한 경그레에 보리 얼마?)

107081 @1 음.(음.)

107081 #4 혼 징에 보리 말가웃. 경 허영 허믄 어려운 시절이난 그거 부주, 정동이⁵³⁵) 가정 먹젠 해도 혼 징을 못 먹어. 반 징 허믄 보리 웨싱 석 뒨.(한 경그레에 보리 말가웃. 그렇게 해서 하면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거 부조, ‘정동이’ 가져서 먹으려고 해도 한 경그레를 못 먹어. 반 경그레 하면 보리 되 석 뒨.)

107081 @1 예.(예.)

107081 #4 경 허영 옛날은 어려운 때난이 보리떡도 허연 동네 돌려근에 그것도 허영 사 먹어나고, 경 허여난.(그렇게 하면서 옛날은 어려운 때니까 보리떡도 해서 동네 돌려서 그것도 해서 사 먹었었고, 그렇게 했었어.)

107081 @1 음, 게난 이제 보리 칭은에 떡을?(음, 그러니까 이제 보리 쥐서 떡을?)

107081 #4 경 허민 보리철 나민 그거 기자.(그렇게 하면 보리철 되면 그거 그저.)

107081 @1 아, 보리 바파 먹은 거라예?(아, 보리 바뀜 먹은 거네요?)

107081 #4 바파 먹은 거주게. 혼 징에 말가웃씩 경 허연.(바뀜 먹은 거지. 한 경그레에 말가웃씩 그렇게 해서.)

107081 @1 으.(으.)

107081 #4 경 허영 힌 적도 셔난. 경 아녀민 그 떡 먹을 거 거세기가 엇엇주게. 웃음.(그렇게 해서 한 적도 있었어. 그렇게 았으면 그 떡 먹을 거 거시기가 없었지. 웃음.)

107081 @1 예, 예, 예. 맞아. 게 이 떡도 맨 마지막에 만든 떡은 먹지 말렌 헛 거도 잇어예? 아이들은?(예, 예, 예. 맞아. 게 이 떡도 맨 마지막에 만든 떡은 먹지 말라고 한 거도 잇지요? 아이들은?)

535) ‘정동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107081 #4 그건 잘 모르커라. 먹지 말렌 현 건.(그건 잘 모르겠어. 먹지 말라고 한 건.)

107081 @1 그런 거는 모르고예? 그다음에 시리떡 할 때 무사 그 부정 탄덴 현 말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가?(그런 거는 모르고요? 그다음에 시루떡 할 때 왜 그 부정 탄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까?)

107081 #4 시리떡 할 때 부정 탄덴 현 건 젊은 사름덜게.(시루떡 할 때 부정 탄다고 한 건 젊은 사람들.)

107081 @1 예.(예.)

107081 #4 몸 곳인 때.(몸 곳은 때.)

107081 @1 으.(으.)

107081 #4 경 현 때에. 경 현 때에 문직지 못허게.(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만지지 못하게.)

107081 @1 음, 그런 건 문직지 못허게 허고예?(음, 그런 건 만지지 못하게 하고요?)

107081 #4 젊은 사름덜 뭐 할 때.(젊은 사람들 뭐 할 때.)

107081 @1 예.(예.)

107081 #4 문직지 못허게 허고. 어디, 아니, 장난 디 그런 디 강 온 뎨 제스 먹으레도 아니 오주마는.(만지지 못하게 하고. 어디, 아니, 장난 데 그런 데 가서 온 때 제사 먹으러도 아니 오지만.)

107081 @1 예.(예.)

107081 #4 경 흐뎡 그런 정성 셔낫주기.(그렇게 조금 그런 정성 있었었지.)

107081 @1 예, 알아수다. 삼촌, 오늘랑 이만큼 허주예? 이제 지청은예.(예, 알았습니다. 삼촌, 오늘은 이만큼 하죠? 이제 지쳐서.)

107081 #4 어.(어.)

(부분 생략)

별식

107082 @1 어제 이영예, 음식 현 거, 여기 그 수에? 수에 멘드는 거?(어제 이어서요, 음식 한 거, 여기 그 순대? 순대 만드는 거?)

107082 #5 순대.(순대.)

107082 #4 순대.(순대.)

107082 @1 으, 그, 여기 수에 허잖아예? 옛날에. 그 수에 멘드는 과정 한번 글아줘 봅서, 삼촌.(으, 그, 여기 순대 하잖아요? 옛날에. 그 순대 만드는 과정 한번 말해줘 보십시오, 삼촌.)

107082 #4 그건 뭐 옛날 우리 할머니 적에 우리 어린 때 보문 이 보리쌀 영 글양 조금 흑게. 흑게 글아야 것이 뉘덴. 경 허영 그것에 그 뉘야지 잡으민 피이, 그 거 받아근앵에 그것에 서건.(그건 뭐 옛날 우리 할머니 적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보리쌀 이렇게 갈아서 조금 굵게. 굵게 갈아야 것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그 돼지 잡으면 피, 그거 받아서 그것에 섞어서.)

107082 #5 돼지 피에 창자에 그거주, 무신.(돼지 피에 창자에 그거지, 무슨.)

107082 #4 그것에 영 담아. 경 허난 그 돼야지도 큰베설 작은베설 잇거든.(그것에 이렇게 담아. 그렇게 하니까 그 돼지도 큰창자 작은창자 있거든.)

107082 @1 으.(으.)

107082 #4 경 허난 그것에 경 작은베설에 담은 건 막 깰고이 큰베설에 담은 건 보기 좋게 흑곡 경 허연. 경 허연 잔치 때에게 대소상 때에 그것도 영 옛날, 지금은 순대민 순대대로 고기민 고기대로 영 허영 허른 먹고픈 사름 순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옛날은 똑 고기 석 점. 순대 한 점 가운데레 영 농곡 옛날은 경 해난.(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그렇게 작은창자에 담은 건 아주 가늘고 큰창자에 담은 건 보기 좋게 굵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잔치 때에 대소상 때에 그것도 이렇게 옛날, 지금은 순대면 순대대로 고기면 고기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먹고픈 사람 순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옛날은 똑 고기 석 점. 순대 한 점 가운데로 이렇게 놓고 옛날은 그렇게 했었어.)

107082 #5 두부 두 점 농곡.(두부 두 점 농고.)

107082 #4 두부도 두부 경 허곡. 경헌디 그 막 옛날 때 우리 어린 때 보든, 그 그릇에 경 사라에 놔도 복잡헨사 것산디 사라가 웃언 것산디 그건 어린 때라 부난 물론디.(두부도 두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아주 옛날 때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그릇에 그렇게 사라에 놓기도 복잡해서야 것인지 사라가 없어서 것인지 그건 어릴 때라 버리니까 모르는데.)

107082 #5 꿩.(꿩어서.)

107082 #4 거 꼬지에 꿩.(거 꼬치에 꿩어서.)

107082 @1 으.(으.)

107082 #4 밥그릇에 꼭꼭 질렁.(밥그릇에 꼭꼭 찢러서.)

107082 @1 음.(음.)

107082 #4 그 그릇을 안 썩. 그 고기, 고기 석 점, 순대 한 점 영 꼭 꿩 그 밥 그릇더레 꼭 찢러근에 경 허난 간단은 허지게.(그 그릇을 안 써서. 그 고기, 고기 석 점, 순대 한 점 이렇게 꼭 꿩어서 그 밥그릇에 꼭 찢러서 그렇게 하니까 간단은 하지.)

107082 @1 으.(으.)

107082 #4 그릇 안 들엉.(그릇 안 들어서.)

107082 @1 계영 그치록 쨌 쨌기는 무신 쨌기렌 험니까?(그래서 그처럼 쨌 고기는 무슨 고기라고 합니까?)

107082 #5 돼지고기.(돼지고기.)

107082 #4 돼야지쨌기에 순대.(돼지고기 순대.)

107082 #5 고쟁이에 쨌 거.(꼬챙이에 쨌 거.)

107082 @1 음, 그런 식으로?(음, 그런 식으로?)

107082 #4 돼지고기계 꿩여근에.(돼지고기 꿩어서.)

107082 #5 우린 그거 안 봐봤.(우린 그거 안 봐봤어.)

107082 @1 아, 삼촌은 안 보고예?(아, 삼촌은 안 보고요?)

107082 #5 우리 이 시⁵³⁶ 관리에선 그런 거 허지 아녜어.(우리 이 제주시 관내에선 그런 거 하지 않았어.)

107082 #4 옛날 우리 할머니 적에 경.(옛날 우리 할머니 적에 그렇게.)

107082 #5 농촌디레 가민 경 헛주, 이렌 경 안 헨. 그릇에.(농촌으로 가면 그렇게 했지, 이리론 그렇게 안 했어. 그릇에.)

107083 @1 예, 거난 둠비도 직접 멘들어 볶디가?(예, 그러니까 두부도 직접 만들어 볶디가?)

107083 #5 으, 둠비.(으, 두부.)

107083 #4 옛날 어른덜 말이 이 아덜 결혼시경 메뉴릴 허면, 예, 그 어떤 의민지 건 모른디, 에이고, 둠빋물에 손 댄 메뉴리.(옛날 어른들 말이 이 아들 결혼시켜서 며느릴 하면, 예, 그 어떤 의민지 건 모르는데, 아이고, 두붓물에 손 댄 며느리.)

107083 @1 음.(음.)

107083 #4 손, 둠빋물에 손 댄 메뉴리 그걸 경 귀중허게 생각을 헨 것 닐아.(손, 두붓물에 손 댄 며느리 그걸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

107083 @1 음.(음.)

107083 #5 잔치 흥번 허젠 허민.(잔치 한번 하려고 하면.)

107083 #4 꼭허게.(꼭하게.)

107083 #5 그만큼 복잡헤시난.(그만큼 복잡했으니까.)

107083 #4 꼭 둠빋 헤여사 허니까. 경 허곡 둠비 헤난 주시 짜 놓믄.(꼭 두붓해야 하나까. 그렇게 하고 두부 헛던 찌꺼기 짜 놓으면.)

107083 #5 갈라 먹엇지.(나눠 먹엇지.)

107083 #4 바구리 헤영 사발 하나 들이치곡 허여근에 들이 뎡기명 영 거리민 흥 사름은 사발 가정강. 그것도 음식이라고 받아 먹곡 놔와 먹젠 그런 것도 셔난.(바구니 헤서 사발 하나 들이뜨리고 헤서 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뜨면 한 사름은 사발 가져가서. 그것도 음식이라고 받아 먹고 나눠 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었어.)

107083 @1 계난 그 둠빋주시를 여기선 뉘렌 곱아낫수가?(그러니까 그 두부 찌꺼기를 여기선 뉘라고 말했습니까?)

107083 #5 비제기.(비지.)

107083 #4 비제기, 비제기.(비지, 비지.)

107083 @1 음, 예.(음, 예.)

107083 #4 또 그것도 새, 멀리, 사름은 못 쥘 허지. 경 허믄 아이고, 비제기 흥 그릇에 경 어려왕, 영현 말도 나나곡. 또 이제 옛날 어른 말이 둠비 사레 갖당 말이

536) 여기에서 '시'는 제주시를 말한다.

고마우먼 비제기도 상 와나ㄴ렌.(또 그것도 새, 멀리, 사람은 못 줘서 하지. 그렇게 하면 아이고, 비지 한 그릇에 그렇게 어려워져서, 이런 말도 나왔고. 또 이제 옛날 어른 말이 두부 사러 갔다가 말이 고마우먼 비지도 사서 왔었다고.)

107083 @1 둬비 사례 갖당?(두부 사러 갔다가?)

107083 #4 으, 말이 고마왕 비제기도 상 오고렌 경.(으, 말이 고마워서 비지도 사서 왔다고 그렇게.)

107083 @1 음, 비제기도 상 왔다고예?(음, 비지도 사서 왔다고요?)

107083 #4 으, 비제긴 잘 아메도 풀지 못해난 생이라. 경 허난.(으, 비진 잘 아마도 팔지 못했던 모양이야. 그렇게 하나까.)

107083 #5 사질 안해낫지게.(사질 않았지.)

107083 @1 예.(예.)

107083 #4 말이 고마우먼 둬비 사례 갖당 아, 이것도 사네살로구나 허영 사 와 난 뭇이 신 생이라. 그런 거 속담이 있어. 어른덜 곤는. 둬비 사례 갖당 말이 고마우먼 비제기도 산 오란 경.(말이 고마우먼 두부 사러 갔다가 아, 이것도 사서 드려야하겠구나 해서 사 왔던 뭇이 있는 모양이야. 그런 거 속담이 있어. 어른들 말하는. 두부 사러 갔다가 말이 고마우먼 비지도 사서 와서 그렇게.)

107083 @1 예, 게민 둬비 만드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헤영 만들앗수가?(예, 그러면 두부 만드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107083 #5 옛날은 콩을 물에 불려. 경 허영 ㄴ레에서 곶아. 그 물 나온 걸 이제 짜. 짜 가지고 그 물을 끓이든 두부가 뻬지.(옛날은 콩을 물에 불려. 그렇게 해서 맷돌에서 갈아. 그 물 나온 걸 이제 짜. 짜 가지고 그 물을 끓이면 두부가 뻬지.)

107084 @1 음, 그다음에 ㄴ뎨뎨, 여기.(음, 그다음에 메밀묵이요, 여기.)

107084 #5 예.(예.)

107084 @1 ㄴ뎨뎨는 어떤 식으로 행은에 만들안?(메밀묵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

107084 #4 ㄴ뎨뎨는게 ㄴ뎨 곶양, ㄴ를 곶양.(메밀묵은 메밀 갈아서, 가루 갈아서.)

107084 #5 ㄴ물 곶아단. 풀 썬듯이 썬지. 풀 썬듯이 썬.(메밀 갈아다가. 풀 썬듯이 썬지. 풀 썬듯이 썬.)

107084 #4 물에 타근에 베수기로 이렇게 젓으멍 경 썬.(물에 타서 죽젓개로 이렇게 저으면서 그렇게 썬.)

107084 #5 그냥 풀 썬듯이 썬 놔두든 그게 튼튼헤영 묵이 뻬지.(그냥 풀 썬듯이 썬서 놔두면 그게 튼튼해서 묵이 뻬지.)

107084 #4 경 허든 그거 거렁 옛날은 그 도고리라고이, 남, 그 나무로 헌 판 도고리.(그렇게 하면 그거 떠서 옛날은 그 함지박이라, 나무, 그 나무로 한 파서 함지박.)

107084 #5 옛날은게 다 낭으로 뎨 것만 썬시난.(옛날은 다 나무로 된 것만 썬으

니까.)

107084 #4 그것에 영 허영 거렁 놔두민 기자 트랑트랑⁵³⁷⁾ 얼리우민 영 웨여.(그것에 이렇게 해서 떠서 놔두면 그저 ‘트랑트랑’ 얼리면 이렇게 돼.)

107085 #51 청묵은 또 그냥 메밀쌀로.(‘청묵’은 또 그냥 메밀쌀로.)

107085 @1 음.(음.)

107085 #5 쌀 물, 물 컷당 그거 짜 가지고 쏜 게 청묵.(쌀 물, 물 담갔다 그거 짜 가지고 쏜 게 ‘청묵’.)

107085 @1 음, 청묵 있고 멧묵 있고예?(음, ‘청묵’ 있고 메밀묵 있고요?)

107085 #5 으, 으.(으, 으.)

107085 @1 어, 게른 청묵이나 멧묵은 언제 쭈는 거우꽈?(어, 그러면 ‘청묵’이나 메밀묵은 언제 쭈는 겁니까?)

107085 #4 떡썰일⁵³⁸⁾ 때에게.(‘떡썰일’ 때에.)

107085 #5 저 뭐 제사 때나 뭐 먹을일⁵³⁹⁾ 이신 때만.(저 뭐 제사 때나 뭐 ‘먹을일’ 있을 때만.)

107085 #4 제스 때에게. 그것도 어려와근에 춤 경 특별헌 제스 때나.(제사 때에. 그것도 어려워서 참 그렇게 특별한 제사 때나.)

107085 #5 잘 사는 집이난 청묵까지 헛일 테주.(잘 사는 집이니까 ‘청묵’까지 했을 테지.)

107085 #4 멧질 때나. 옛날은 청묵이 어려완. *** 묵 썬.(멧질 때나. 옛날은 ‘청묵’이 어려웠어. *** 묵 썬.)

107085 @1 예.(예.)

107085 #4 멧묵 갈양근엥에게.(메밀 갈아서.)

107085 #5 잘사는 집이나 청묵까지 헛일 테주.(잘사는 집이나 ‘청묵’까지 했을 테지.)

107085 #4 잘사는 집도 옛날은 그런 그, 헛 충도 몰란 못헛주, 청묵은.(잘사는 집도 옛날은 그런 그, 할 줄도 몰라서 못헛지, ‘청묵’은.)

107085 #5 경해도게 옛날은 그게 내려왔수게. 쪽.(그래도 옛날은 그게 내려왔잖아요. 쪽.)

107085 #4 그 멧묵.(그 메밀.)

107085 #5 게난. 멧묵은 칠월 나사 또 갈곡. 가는 철이 또 딱로 있어.(그러니까. 메밀은 칠월 되어야 또 갈고. 가는 철이 또 따로 있어.)

107085 @1 가는 철이예? 여기도 멧묵 하영 갈았수가?(가는 철이요? 여기도 메밀 많이 갈았습니까?)

107085 #5 하영, 아니.(많이, 아니.)

107085 #4 이제는 잘 아녀.(이제는 잘 안 해.)

537) ‘트랑트랑’은 묵 따위가 단단하게 잘 얼린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538) ‘떡썰일’은 잔치나 장례 등 큰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먹을일’이라고 한다.

539) ‘먹을일’은 잔치나 장례 등 큰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떡썰일’이라고도 한다.

107085 #5 저 동쪽디레나 가야 많이 헛지. 이쪽더렌.(저 동쪽으로나 가야 많이 헛지. 이쪽으론.)

107085 #4 이젠 아녀, 아녀.(이젠 앓아, 앓아.)

107085 @1 이젠 안 허여.(이젠 안 해.)

107085 #5 그 농사가 안, 안 되는 지방에 멧덜을 갈주게. 왜냐하면.(그 농사가 안, 안 되는 지방에 메밀을 갈지. 왜냐하면.)

107085 #4 막 산중에.(아주 산중에.)

107085 #5 토지가 안 좋양은에 초벌 이제 조나 뭐 콩이나 그런 거 해 놔두면 잘 안 돼영.(토지가 안 좋아서 초벌 이제 조나 뭐 콩이나 그런 거 해 놔두면 잘 안 되어서.)

107085 @1 으.(으.)

107085 #4 잘 나지 안허던가 경 허믄 그 자리에 멧덜을 매 말째 갈았거든.(잘 나지 않든가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 메밀 매 말째 갈았거든.)

107085 @1 음.(음.)

107085 #5 멧덜은 매 나중에. 뭐 해서 안 켜 자리.(메밀은 매 나중에. 뭐 해서 안 된 자리.)

107085 #4 나록 대신 산디라고이.(벼 대신 밭벼라고.)

107085 @1 예.(예.)

107085 #4 밧디 가는 거 산디. 그런 거 갈아나고 밧디.(밭에 가는 거 밭벼. 그런 거 갈았었고 밭벼.)

107085 @ 으.(으.)

107085 #4 찰은 우리 나록찰 ㄴ찌 찰은 허는디 눈에 나록은 심으는디 산디 밧디 갈고.(찰은 우리 뽕쌀같이 찰은 하는데 눈에 벼는 심는데 밭벼 밭에 갈고.)

107086 @1 예, 혹시 개역은 어떤 개역덜 해 먹었수가?(예, 혹시 미숫가루는 어떤 미숫가루들 해 먹었습니까?)

107086 #5 보리 보깡게.(보리 볶아서.)

107086 @1 으, 그 개역 허는 거 과정을 곱아 줘서.(으, 그 미숫가루 하는 거 과정을 말해 주십시오.)

107086 #5 보리 그냥 보까. 숯 이제 망가정, 망가정근에 잘 안 돼꼭 늘꼭 허는 숯디서 보까.(보리 그냥 볶아. 숯 이제 망가져서, 망가져서 잘 안 되고 늘고 하는 숯에서 볶아.)

107086 @1 으.(으.)

107086 #4 보리를 보까 가지고 이제 그걸 곱아.(보리를 볶아 가지고 이제 그걸 갈아.)

107086 #5 맷돌에 곱지.(맷돌에 갈지.)

107086 @1 음.(음.)

107086 #5 곱양 그거 체로 쳐 가지고 이제 그걸 개역이엔 허영 먹었주게.(갈아

서 그거 체로 쳐 가지고 이제 그걸 미숫가루라고 해서 먹었지.)

107086 @1 으, 개역은 주로 어느 철에 헛수가?(으, 미숫가루는 주로 어느 철에 했습니까?)

107086 #5 여름에.(여름에.)

107086 #4 여름에, 여름에.(여름에, 여름에.)

107086 @1 으.(으.)

107086 #4 여름에 밧디 강왕, 밧디 강왕 더우민 개역 카근에 혼 사발 싹 먹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경 허곡 경.(여름에 밧에 다녀와서, 밧에 다녀와서 더우면 미숫가루 타서 한 사발 싹 먹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107086 @1 으, 물에 강근에예? 혹시 옛날에도 지짐이덜 헿 먹어수가?(으, 물에 타서요? 혹시 옛날에도 지짐이들 해서 먹었습니까?)

107086 #5 예.(예.)

107087 @1 으, 지짐이 어떤 지짐이 혜연 먹언? 삼춘.(으, 지짐이 어떤 지짐이 해서 먹었어요? 삼춘.)

107087 #5 어떻 지저? 그거야 뭐 반죽허영 저 솥뚜껑 가르쳐냥. 웃음. 그제 지짐이 헿 먹었지. 이제 허는 식이나 마찬가지로지, 그건.(어떻게 지저? 그거야 뭐 반죽해서 저 솥뚜껑 뒤집어놔서. 웃음. 그제 지짐이 해서 먹었지. 이제 허는 식이나 마찬가지로지, 그건.)

107087 @1 으, 삼춘, 어떤 지짐이 혜연 먹언?(으, 삼춘, 어떤 지짐이 해서 먹었어요?)

107087 #4 지짐이도게 그 식.(지짐이도 그 식.)

107087 #5 마찬가지로.(마찬가지.)

107087 #4 그 식. 옛날은 다 그 식.(그 식. 옛날은 다 그 식.)

107087 @1 여기 밀도 가난예?(여기 밀도 가니까요?)

107087 #4 밀 같아나난.(밀 같았었으니까.)

107088 @1 혹시 오메기술도 해난마씨?(혹시 ‘오메기술’도 했었어요?)

107088 #5 오메기⁵⁴⁰, 오메기술⁵⁴¹.(‘오메기’, ‘오메기술’.)

107088 #4 오메기, 그 흐린좁쌀, 흐린좁쌀 곶아근앵에 떡 썬 경 허영 오메기떡 그거 허영.(‘오메기’, 그 차좁쌀, 차좁쌀 같아서 떡 썬서 그렇게 해서 ‘오메기떡’ 그거 해서.)

107088 #5 떡을 막 크게 만들어. 가운데.(떡을 아주 크게 만들어. 가운데.)

107088 #4 영 가운데 고망 툄루민.(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으면.)

107088 #5 크게 헤 가지고.(크게 헤 가지고.)

107088 #4 그 물로 글로 영 허영 가운데도 잘 익고 허렌 고망 툄른 거 닷아.(그

540) ‘오메기’는 차좁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그렇게 만든 후 삶아낸 떡이다. 술밑으로 쓰거나 팔고물을 묻혀 먹기도 한다.

541) ‘오메기술’은 차좁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그렇게 만든 후 삶아낸 떡인 ‘오메기’를 술밑으로 하여 누룩과 물을 넣어서 발효시켜 만든 제주 전통주이다.

물로 그리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도 잘 익고 하라고 구멍 뚫은 거 같아.)

107088 @1 으.(으.)

107088 #4 경 허영 허영 허민 그걸로 막걸리도 만들고.(그렇게 해서 하면 그걸로 막걸리도 만들고.)

107088 @1 으.(으.)

107088 #5 물에 이제 저 이제 누룩엔 현 거, 그거 낱 썬.(물에 이제 저 이제 누룩이라고 한 거, 그거 낱 썬.)

107088 #4 그거 낱.(그거 낱.)

107088 #5 놔두면 부글부글 췌주게. 그계.(놔두면 부글부글 피지. 그계.)

107088 #4 게른 막걸리.(그러면 막걸리.)

107088 #5 막걸리거치록 그계 드끈⁵⁴²) 굴라얏으면 청주엔도 허곡.(막걸리처럼 그계 ‘드끈’ 가라얏으면 청주라고도 하고.)

107088 #4 남즈 어른덜 어디 춤 일허레 강왕 그거 흔 사발.(남자 어른들 어디 춤 일하러 다녀와서 그거 한 사발.)

107088 #5 요즘도.(요즘도.)

107088 #4 짹 먹으면 아이고, 좋다, 경 허곡.(짹 먹으면 아이고, 좋다, 그렇게 하고.)

107088 #5 요즘도 오메기술, 오메기술 허주게. 텔레비전 보든 오메기술, 오메기술 허는 게 그거.(요즘도 ‘오메기술’, ‘오메기술’ 하지. 텔레비전 보든 ‘오메기술’, ‘오메기술’ 하는 게 그거.)

107088 @1 케난 오메기로 만들얏은에 허는 거라예? 그 오메기 헐 때는 좁쌀은 어떤 좁쌀로 헐수가?(그러니까 ‘오메기’로 만들어서 하는 거네요? 그 ‘오메기’ 할 때는 좁쌀은 어떤 좁쌀로 헐습니까?)

107088 #5 흐린좁쌀계.(차좁쌀.)

107088 #4 흐린좁쌀계, 꺼문좁쌀⁵⁴³). 꺼문흐린좁쌀⁵⁴⁴).(차좁쌀, ‘검은좁쌀’. ‘검은차좁쌀’.)

107089 @1 꺼문흐린좁쌀예? 예, 어제도 헐주마는 쉰다리?(‘검은차좁쌀’요? 예, 어제도 했지만 ‘쉰다리’?)

107089 #4 쉰다리⁵⁴⁵) 밥 쉰 거.(‘쉰다리’는 밥 쉰 거.)

107089 @1 음.(음.)

107089 #4 여름에 지금은 냉장고도 식곡 밥통에 늘 놓난 쉬는 버릇이 엇주마는 엇날은 밥허영 남으면 그냥 놔뵤 밧디 강 왕 보민 쉬거든. 경 허든 그것에 누룩 놔 근엔에 보객이 췌른 경 썬 걸로도 먹곡 아이덜은 쏘양 췌 먹곡 경 험난.(여름에 지

542) ‘드끈’은 술을 담그기 위해서 넣은 떡이나 누룩 따위가 밑으로 쏙 가라얏은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543) ‘꺼문좁쌀’은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제보자가 색이 검은 차좁쌀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544) ‘꺼문흐린좁쌀’은 색깔이 거무스름한 차좁쌀이다.

545) ‘쉰다리’는 쉬어 가는 밥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료다. 달리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서 ‘순다리’라고도 한다.

금은 냉장고도 있고 밥통에 늘 넣으니까 쉬는 버릇이 없지만 옛날은 밥해서 남으면 그냥 놔둬서 밥에 다녀와서 보면 쉬거든. 그렇게 하면 그것에 누룩 놔서 보각이 되면 그렇게 생 걸로도 먹고 아이들은 삶아서 쥐서 먹고 그렇게 했었어.)

107089 @1 음, 계난 옛날에는 그 순다리를 하영 헛어예?(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순다리’를 많이 했네요?)

107089 #5 으, 우리 하르버지 매일 헨, 그거.(으, 우리 할아버지 매일 헛어, 그거.)

107089 #4 그거 주장게, 옛날은게.(그거 주장, 옛날은.)

107089 #5 우리 하르버지 술은 아니 먹으난 쉰다릴 그치록 좋아해영.(우리 할아버지 술은 아니 먹으니까 ‘쉰다리’를 그렇게 좋아해서.)

107089 @1 으.(으.)

107089 #5 맨날 쉰다리.(만날 ‘쉰다리’.)

107089 #4 지금 ㄹ뜨민 어름 ㄹ뜨민 거 낫으면 더 시원하지마는 그런 거시기가 엇엇거든.(지금 같으면 얼음 같은 거 낫으면 더 시원하지만 그런 거시기가 없었거든.)

107089 #5 켄디 기냥 먹은 것이 좋은 거라. 너무 차게 먹으면 설사 나잖아.(그런데 그냥 먹은 것이 좋은 거야. 너무 차게 먹으면 설사 나잖아.)

107089 @1 음.(음.)

107089 #5 켄디 그게 좋았던 거 같아.(그런데 그게 좋았던 거 같아.)

107089 #4 경 하영 놔게?(그렇게 많이 넣는가?)

107089 #5 너무 아니라.(너무 아니야.)

107089 #4 경 해도 그런 것도 어려워, 옛날은.(그렇게 해도 그런 것도 어려워서, 옛날은.)

107089 #5 두루 켄 것 먹으민 아이덜도 설사 나곡 헛거든. 계난 차지 아년 것이 존 거 닻아.(덜 낫 것 먹으면 아이들도 설사 나고 헛거든. 그러니까 차지 않은 것이 좋은 거 같아.)

107089 @1 그게 요즘 발효 식품예?(그게 요즘 발효 식품이지요?)

107089 #5 음.(음.)

107090 @1 소화도 잘 되는 거. 그 삼춘, 누룩은 어떻 만듭니까? 누룩 만드는 과정을 쭉 글아줘 봅서. 한번.(소화도 잘 되는 거. 그 삼춘, 누룩은 어떻게 만듭니까? 누룩 만드는 과정을 쭉 말해줘 보십시오. 한번.)

107090 #4 누룩은 보리 영 글민 그 스투기가 나와게. 경 허민 그런 거 허영 그 ㄹ를에 서꺼진 거 그거 허영은에 쭤영 영 허영 돌레떡 ㄹ치 동그랴게 허영 티왕.(누룩은 보리 이렇게 갈면 그 싸라기가 나와. 그렇게 하면 그런 거 해서 그 가루에 섞어진 거 그거 해서 쭤어서 이렇게 해서 도래떡같이 동그랴게 해서 띄워.)

107090 @1 으.(으.)

107090 #4 경 허영 누룩.(그렇게 해서 누룩.)

107090 @1 그렇게 하면 누룩 돼고예?(그렇게 하면 누룩 되고요?)
 107090 #4 그런 걸로 허영 그.(그런 걸로 해서 그.)
 107090 #5 건 기냥 영 뭐.(건 그냥 이렇게 뭐.)
 107090 #4 쉰다리도 놓곡.(‘쉰다리’도 넣고.)
 107090 #5 찻망 같은 것에 이만이 현 것에 기냥 똑똑 눌렁 놔두든 그게 누렇게
 저 뭐가 돼주, 발효가 돼주게.(찻바퀴 같은 것에 이만큼 한 것에 그냥 똑똑 눌러서
 놔두면 그게 누렇게 저 뭐가 되지, 발효가 되지.)
 107090 @1 으.(으.)
 107090 #4 경 허민 그걸 이젠 바삭 말려. 게영 그거 놔두서 이제 쉰다리 할 때
 도 그거 놓곡.(그렇게 하면 그걸 이젠 바삭 말려. 그래서 그거 놔두고서 이제 ‘쉰다
 리’ 할 때도 그거 넣고.)
 107090 @1 으.(으.)
 107090 #4 것도 잘 터야.(것도 잘 떠야.)
 107090 @1 음.(음.)
 107090 #5 곱게 잘 터야.(곱게 잘 떠야.)
 107090 @1 게난 그 누룩에도 허면 영 곰팡이들 이런 거 나잖아예? 어떤 곰팡이
 가 좋은 거우파? 누룩에.(그러니까 그 누룩에도 하면 이렇게 곰팡이들 이런 거 나잖
 아요? 어떤 곰팡이가 좋은 겁니까? 누룩에.)
 107090 #4 흰곰팡이가 좋지, 아멩헤도게.(흰곰팡이가 좋지, 아무래도.)
 107090 @1 아아.(아아.)
 107090 #5 푸리룽헌 것이 쪼끔씩 쪼끔씩 나와.(푸르스름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
 107090 #4 경 해도 그런, 경 나쁘지 안허여.(그렇게 해도 그런, 그렇게 나쁘지
 않아.)
 107090 @1 으.(으.)
 107090 #5 푸릿푸릿헌 것이 쪼끔씩 쪼끔씩 나오주게.(푸릿푸릿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지.)
 107090 @1 음.(음.)
 107090 #5 그거 경 허민 누룩으로 쓴 거.(그거 그렇게 하면 누룩으로 쓴 거.)
 107091 @1 예, 그다음에 옛날은 몸보신 허젠 옛덜도 하영 다깡 먹었어예?(예,
 그다음에 옛날은 몸보신 하려고 옛들도 많이 고아서 먹었지요?)
 107091 #5 옛?(옛?)
 107091 @1 으.(으.)
 107091 #5 으, 우리 할머니 납평날⁵⁴⁶엔 현 날이 무신 날산디, 날이라.(으, 우리
 할머니 납평이라고 한 날이 무슨 날인지, 날이야.)
 107091 #4 납평날 질.(납평날 젤.)

546) ‘납평날’은 동지 뒤에 셋째 개날을 말한다. 표준어 ‘납평’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7091 #5 그날 돼민 꼭 엿을 만들더라고.(그날 되면 꼭 엿을 만들더라고.)

107091 #4 납평날 춤 일 년 열두 달에 한 번 납평날엔 해근에.(납평 춤 일 년 열두 달에 한 번 납평이라고 해서.)

107091 @1 음.(음.)

107091 #5 뭇 날인지 몰르커라, 지금은.(무슨 날인지 모르겠어, 지금은.)

107091 #4 감주 혜영 짜근에 그걸 막 즈끄민 엿이 돼영 경.(감주 해서 짜서 그걸 막 졸이면 엿이 되어서 그렇게.)

107091 @1 예, 게민 그 엿 만드는 거 밥할 때부터 헨에 쪽 그 과정을 한번 골아 봅서. 할머니 어떻 험디가?(예, 그러면 그 엿 만드는 거 밥할 때부터 해서 쪽 그 과정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할머니 어떻게 험디까?)

107091 #5 만약 이제 좁쌀로 밥을 할 거 아니라. 그게 이제 그냥 바삭 물르게 아녀고 된죽ㄹ치록 허영 우린 헛어. 그게 너무 뜨거운 때 말고 흐끔 식으믄 그 골ㄹ를을 놔. 쟁 영 젓영 놔두믄 그게 좀 부그락헌 기가 있어. 올라오는 기가. 경 허믄 그땐 그걸 걸러. 게영 그 걸른 물을 낡 막 끓이믄 엿 되는 거.(만약 이제 좁쌀로 밥을 할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그냥 바삭 마르게 앓고 된죽처럼 해서 우린 헛어. 그게 너무 뜨거운 때 말고 조금 식으면 그 엿기름을 놔. 그래서 이렇게 저어서 놔두면 그게 좀 보각한 기가 있어. 올라오는 기가. 그렇게 하면 그땐 그걸 걸러. 그래서 그 거른 물을 놔서 막 끓이면 엿 되는 거.)

107091 @1 음. 게영 그.(음. 그래서 그.)

107091 #4 감쥐.(감주.)

107091 @1 감주예?(감주요?)

107091 #5 엿 돼기 전엔 감주로 먹는데 엿을 헐라믄 그걸 막 오래 끓여.(엿 되기 전엔 감주로 먹는데 엿을 하려면 그걸 아주 오래 끓여.)

107091 @1 으.(으.)

107091 #5 경 허민 엿 되는 거.(그렇게 하면 엿 되는 거.)

107091 #4 거 짜샤. 주시 걸러두고.(거 짜야. 찌꺼기 걸러두고.)

107091 @1 예.(예.)

107091 #5 걸렁, 게메.(걸러서, 글썸.)

107091 @1 음, 게믄예, 그거는 그냥 흔 가지만 헌 거잖아예? 뭐 거기에 뭐 고기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엿어마씨?(음,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한 가지만 한 거잖아요? 뭐 거기에 뭐 고기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107091 #5 아, 그런 거 엿어.(아, 그런 거 없어.)

107091 @1 아, 그런 건 안 헛수가?(아, 그런 건 안 헛습니까?)

107091 #5 경헌디 우리 할머니는이 그때 꿩이나 닭.(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때 꿩이나 닭.)

107091 @1 으.(으.)

107091 #5 그런 거 허영 낡 허여주더라고.(그런 거 해서 놔서 해주더라고.)

107091 @1 음.(음.)

107091 #4 꿩 꺾은 거 놓은 거 좋텐 허주지.(꿩 같은 거 넣으면 거 좋다고 하지.)

107091 @1 예.(예.)

107091 #4 닭보다는 꿩은, 닭은 이 풍징 신 사름도 안 좋고, 득 안 먹는 사름덜이 시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경 허난 헨디 꿩.(닭보다는 꿩은, 닭은 이 풍증 있는 사름도 안 좋고, 닭 안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꿩.)

107091 #5 경. 또 어떤 땐 속 폴리렌 돼지고기도 낱 허곡.(그렇게. 또 어떤 땐 속 폴리라고 돼지고기도 넣어서 하고.)

107091 @1 으.(으.)

107091 #4 돼야지고기 논 건 속 폴리렌.(돼지고기 논 건 속 폴리라고.)

107091 @ 예.(예.)

107091 #4 흥끔 지름기가 시난 흥끔 늑삭허지⁵⁴⁷. 경 허연.(조금 기름기가 있으니까 조금 ‘늑삭하지’. 그렇게 했어.)

107091 #5 겨문 무사 돼지고기로 햄수겐 허문, 이거 먹어사 속이 풀린다. 옛날은 고길 자주 못 먹엇잖아.(그러면 왜 돼지고기로 하고 있습니까 하면, 이거 먹어야 속이 풀린다. 옛날은 고길 자주 못 먹엇잖아.)

107091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91 #5 경 허니까 이런 거 낱 해야 속이 풀린다 허멍 할머니가 해 쥬 먹어 난 거 알아져.(그렇게 하니까 이런 거 놔서 해야 속이 풀린다 하면서 할머니가 해 쥬서 먹엇던 거 알아져.)

107091 @1 음, 게문 그때 옛 헐 때는 쯤쌀은 어떤 쯤쌀로 헛수가?(음, 그러면 그때 옛 할 때는 쯤쌀은 어떤 쯤쌀로 헛습니까?)

107091 #5 것도.(것도.)

107091 #4 흐린쯤쌀게.(차쯤쌀.)

107091 @1 것도 흐린쯤쌀?(것도 차쯤쌀.)

107091 #4 검은흐린쯤쌀. 그걸로 밥허여근에.(검은차쯤쌀. 그걸로 밥해서.)

107091 @1 음, 게난 옛날 어른들은 전부 그 생활 속에서예, 다 헨. 삼촌, 남편 날이 언젠지 알아지쿠과?(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전부 그 생활 속에서요, 다 했어. 삼촌, 남편이 언젠지 알겠습니까?)

107091 #5 몰를커라. 그거. 남편날, 남편날엔 헨에.(모르겠어. 그거. 남편, 남편이라고 해서.)

107091 #4 남편날엔 말만 들언.(남편이라는 말만 들었어.)

107091 @1 예.(예.)

107091 #5 그날이 어느 날인지 몰를커라. 일 년에 혼번이라. 딱.(그날이 어느 날

547) ‘늑삭허다’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름기가 입안에서 느껴지다는 의미다.

인지 모르겠어. 일 년에 한번이야. 딱.)

107091 #4 납평날에 옛 허영 허는 건 거 약재로 경 헌 생이라. 납평날은 약재로.(납평에 옛 해서 하는 건 거 약재로 그렇게 한 모양이야. 납평은 약재로.)

107091 #5 뭇 날인지 그거는 생각이 안 나.(무슨 날인지 그거는 생각이 안 나.)

107091 @1 예.(예.)

107091 #5 납평날엔만 들었지. 뭇 날을 두고 그걸 곱아신디 모르커라.(납평이라고만 들었지. 무슨 날을 두고 그걸 말했는지 모르겠어.)

107091 #4 게고 아이덜 득 잡아주는 것도 유월 쭈무날이 뉘든.(그리고 아이들 닭 잡아주는 것도 유월 스무날이 되면.)

107091 #5 이 가을, 가을 들영은앵에난 아멩해도 이 추위갈 땀디.(이 가을, 가을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이 추위갈 땀데.)

107091 @1 예.(예.)

107091 #5 요때 썸인디.(요때 썸인테.)

107091 @1 요때 썸예? 예.(요때 썸요? 예.)

107091 #5 요때 썸인디 뭇 날인지 몰르커라.(요때 썸인테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

107091 #4 건 이윤 몰르지.(건 이윤 모르지.)

107091 #5 그거 저 뭇로 보든 모르카?(그거 저 무엇으로 보면 모를까?)

107091 @1 음, 알아질 거우다. 제가.(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7091 #5 저 인터넷인가 무신걸로 알아보든 알아지커라.(저 인터넷인가 무엇으로 알아보든 알겠어.)

기타

107092 @1 케난 경 허고. 삼춘, 이 흑시 외도에, 외도에서만 특별하게 했던 음식 잇수가?(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삼춘, 이 흑시 외도에, 외도에서만 특별하게 했던 음식 있습니까?)

107092 #5 특별하게게 헌 음식 외도에서 헌 거 뭐 었어.(특별하게 한 음식 외도에서 한 거 뭐 없어.)

107092 @1 외도천에?(외도천에?)

107092 #5 외도천⁵⁴⁸에 뭐?(외도천에 뭐?)

107092 #4 었어.(없어.)

107092 #5 거 저 부지런헌 사름덜은 은어 떠당 은어 뽕뿌라 해 먹는 거.(거 저 부지런한 사람들은 은어 떠다가 은어 튀김 해 먹는 거.)

107092 @1 으.(으.)

107092 #5 그런 거나벳귤.(그런 것밖엔.)

107092 #4 은어뽕뿌라 그런 것도 벨미로이.(은어튀김 그런 것도 벨미로.)

548) '외도천'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 107092 #5 벨미로.(별미로.)
- 107092 #4 떡쌀일, 떡쌀일 때에 친척덜 모다오민.(‘떡쌀일’, ‘떡쌀일’ 때에 친척들 모여오면.)
- 107092 #5 그거 벨미로 해낫지. 외도천에 은어가 사니까.(그거 별미로 했었지. 외도천에 은어가 사니까.)
- 107092 #4 은어튀김이 질 세여낫주기, 춤.(은어튀김이 썰 세났었지, 참.)
- 107092 @1 예.(예.)
- 107092 #4 아무나 못 해여난, 것도.(아무나 못 했었어, 것도.)
- 107092 @1 계난 저도 그 월대⁵⁴⁹⁾ 은에, 은어튀김 먹으레 와낫수다. 계문 그 은어튀김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꽈?(그러니까 저도 그 ‘월대’ 은어, 은어튀김 먹으러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어튀김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 107092 #5 그냥 다른 튀김이나 마찬가지로.(그냥 다른 튀김이나 마찬가지로.)
- 107092 #4 텀뿌라나 허듯기에. 반죽허영 그거에 적정 영.(튀김이나 하듯이. 반죽해서 그거에 적셔서 이렇게.)
- 107092 #5 튀기문 돼는 거.(튀기면 되는 거.)
- 107092 @1 으.(으.)
- 107092 #5 건 아주 간단하게 튀겨.(건 아주 간단하게 튀겨.)
- 107092 @1 간단하게예?(간단하게요?)
- 107092 #5 은어 뜨기가 거 아무나 뜨지 못했지.위낙 빠른 거난.(은어 뜨기가 거 아무나 뜨지 못했지. 위낙 빠른 거니까.)
- 107092 #4 이제 월대에 은어 실 거라이.(이제 월대에 은어 있을 거야.)
- 107092 #5 잊지. 은어 살아낫젠.(있지. 은어 살았었다고.)
- 107092 #4 경 허난 은어도 관광객 뵈으로 딱 금혜연게. 못 잡게.(그렇게 하나까 은어도 관광객 뵈으로 딱 금해서. 못 잡게.)
- 107092 @1 예.(예.)
- 107092 #5 경 허여난.(그렇게 했었어.)
- 107092 @1 은어 뜰 때는 어떤 식으로 떼수가?(은어 뜰 때는 어떤 식으로 떼습니까?)
- 107092 #4 족바지.(뜰채.)
- 107092 #5 족바지.(뜰채.)
- 107092 @1 아아.(아아.)
- 107092 #4 즈룩 길게 해여근에 그물 영 허영, 영 허영 허른 거 때, 멜때 땡기듯 게 때로 땡기주기.(자루 길게 해서 그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거 때, 멀치때 당기듯 때로 당기지.)
- 107092 @1 으.(으.)
- 107092 #4 경 허영 허른 그자 춤 족바지 들르곡.(그렇게 해서 하면 그저 참 뜰

549) ‘월대’는 제주도 외도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채 들고.)

107092 #5 동작 뜬 사람은 못 허여. 은어가 빨르난.(동작 느린 사람은 못 해. 은어가 빠르니까.)

107092 @1 아.(아.)

107092 #4 막대기 혼착 손에 탁 두드리민 확 들르꼭게. 우리 스춘 아시 남편 그거 은어 잘 떠낫주.(막대기 한쪽 손에 탁 두들기면 확 들고. 우리 사춘 아우 남편 그거 은어 잘 떴었지.)

107092 #5 동작이 저 빨라야.(동작이 저 빨라야.)

107092 #4 잘 떠난.(잘 떴었어.)

107092 @1 은어가 빨라서예? 예, 알아수다.(은어가 빨라서요? 예, 알았습니다.)

107092 #5 그 내 터질 때.(그 내 터질 때.)

107092 @1 으.(으.)

107092 #5 막 내 터진 땀 흠물이 뉘잖아. 게른 강 족바지 대영 시른 그것에, 그것에 걸렁 뜨꼭 경 해낫주. 내 터질 때.(아주 내 터질 땀 흠물이 되잖아. 그러면 가서 뜰채 대어서 있으면 그것에, 그것에 걸려서 뜨고 그렇게 했었지. 내 터질 때.)

107092 #4 흠물 뉘 땀 것도 눈이 어둡는 생이라.(흠물 뉘 땀 것도 눈이 어둡는 모양이야.)

107092 @1 예. 웃음.(예. 웃음.)

107092 #5 흑탕물 뉘든게 방법이 잇어게? 게난 어디로 가지는 중 몰르게 가당 잡히꼭.(흑탕물 뉘면 방법이 잇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는 줄 몰르게 가다가 잡히고.)

107092 #4 경 허영 춤 우의서 것도 더 내려완.(그렇게 해서 참 위에서 것도 더 내려왔어.)

107092 #5 내 터지민 그거 허젠덜 막 냇가에 족바지덜 들렁 샷지.(내 터지면 그거 하려고들 막 냇가에 뜰채들 들어서 췌지.)

107092 @1 아.(아.)

107092 #5 그것 뜨젠.(그것 뜨려고.)

107092 @1 게난 내 터질 때는 다 이 동네 사람들이 모다지는 거라예? 거기에 예?(그러니까 내 터질 때는 다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네요? 거기에요?)

107092 #5 그것도 아멩이나 못해. 그 족바지가 잇는 사람이라야 뉘여.(그것도 아무렇게나 못해. 그 뜰채가 잇는 사람이어야 되어.)

107092 #4 아, 은어엔 현 건 아무 동네나 엇어.(아, 은어라고 한 건 아무 동네나 없어.)

107092 @1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107092 #4 외도천.(외도천.)

107092 #5 외도천에.(외도천에.)

107092 @1 거난 이 동네 특별한 음식인 거지.(그러니까 이 동네 특별한 음식인

거지.)

107092 #5 장어도 잇꼭 허난.(장어도 있고 하나까.)

107092 @1 아아, 여기는.(아아, 여기는.)

107092 #5 민물장어.(민물장어.)

107092 #4 그 은어 사는 디 장어도 잇고.(그 은어 사는 데 장어도 잇고.)

107092 @1 음. 게문 장어 뜨레덜도 막 가꼭 헤난?(음. 그러면 장어 뜨리들도 막 가고 했었어?)

107092 #4 장언 돌 소곱에 곱앙 잇주게. 경 허문.(장언 돌 속에 숨어서 있지. 그렇게 하면.)

107092 #5 나갓주, 나간.(냤았지, 냤았어.)

107092 @1 아.(아.)

107092 #4 그거 낙시 헤연.(그거 냤시 해서.)

107092 #5 장언 나간 이.(장언 냤아서 이.)

107092 @1 게문 장어로는 어떤 음식덜 헤 먹는 거라마씨?(그러면 장어로는 어떤 음식들 헤 먹는 거예요?)

107092 #5 그건 막 뭐 보약으로 먹넨 허연.(그건 아주 뭐 보약으로 먹는다고 해서.)

107092 #4 장언 보약으로, 장언 막 비싸곡. 지금도 이 웃동네.(장언 보약으로, 장언 아주 비싸고. 지금도 이 윗동네.)

107092 @1 예.(예.)

107092 #4 저 절물동네⁵⁵⁰에 가문 은어식당이라고 지금도 간판 그대로 잇어.(저 절물동네에 가면 은어식당이라고 지금도 간판 그대로 잇어.)

107092 @1 예.(예.)

107092 #4 주로 그 식당에서.(주로 그 식당에서.)

107092 #5 그 집의서 그걸 많이 헛주. 그집이.(그 집의서 그걸 많이 헛주. 그집이.)

107092 #4 식당에서. 그 특별히 은어식당.(식당에서. 그 특별히 은어식당.)

107092 @1 으.(으.)

107092 #5 간판도 은어식당엔 허고.(간판도 은어식당엔 허고.)

107092 @1 지금도 은어 헤마씨? 그 집에. 어.(지금도 은어 해요? 그 집에. 어.)

107092 #5 지금도 허여.(지금도 해.)

107092 @1 아, 은어식당예?(아, 은어식당요?)

107092 #4 게난 은어식당.(그러니까 은어식당.)

107092 @1 흔 번 가봐야지.(한 번 가봐야지.)

107092 #4 간판 이제도 잇어.(간판 이제도 잇어.)

107092 #5 은어집의엔 허지 아녀. 은어식당.(은어집이라고 하지 않야. 은어식

550) '절물동네'는 제주시 외도동 자연마을의 하나다.

당.)

107092 #4 은어식당.(은어식당.)

107092 #5 은어식당. 그 전원 은어집이엔 혜신디.(은어식당. 그 전엔 ‘은어집’이라고 했는데.)

107092 #4 식당으로 사거리에 딱 간판 있어.(식당으로 사거리에 딱 간판 있어.)

107092 @1 은어 잡게는 험구나예?(은어 잡게는 하고 있군요?)

107092 #5 잡는 생이라.(잡는 모양이야.)

107092 @1 아, 알아수다. 잠깐만예?(아,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모사전송:**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